

2024년 제33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자료 쪽번호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369
32차 정기총회 정회원		3
31차 정기총회 회의록		4
회계감사 보고서 상담소 / 열림터		270/ 279
사업감사 보고서		293
2023년	팀, 부설기관 활동보고	7
	2023년 상담통계	237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244
	발간자료	245
	블로그 "똥다! 상담소" 포스트	246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영상	249
	입장, 논평, 성명 목록	250
	외부 강의 활동	254
	외부 자문 및 위원회 참여	258
	발제, 발표, 토론, 사회	261
	집필 원고	262
	언론에 난 상담소	263
2023년	상담소 수입지출결산	271
	열림터 수입지출결산	280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방향	294
	팀·부설기관 활동계획	298
2024년	상담소 예산안	271
	열림터 예산안	280
후원회원 제명 안건 소개		364
임원 후보 및 임원 소개		365
자문위원 소개		366
상근활동가 소개		269
2024년	감사패	367
2023년	안젤라어워드 수상자	368

2024년 33차 총회 정회원

No.	이름	비고
1	강남식	
2	고현경	신규
3	권지연	
4	김다미	
5	김동은	
6	김두나	
7	김미현	
8	김민지	
9	김보화	
10	김신아	
11	김여진	
12	김연경	
13	김윤희	
14	김은아	
15	김정희원	
16	김주아	
17	김지영	
18	김하윤	
19	김현지	
20	김혜정	
21	김효진	
22	노선이	
23	노주희	
24	류수민	
25	문숙영	
26	문효진	
27	박미숙	
28	박부진	
29	박수민	

No.	이름	비고
30	박아름	
31	박아름	
32	박지희	
33	박진선	신규
34	변혜정	
35	복서희	
36	손원영	신규
37	송해주	
38	신은재	
39	안선민	
40	안호선	
41	양현경	
42	유승진	
43	유호정	
44	윤경진	
45	윤정원	
46	이경환	
47	이나영	
48	이도경	
49	이명선	
50	이명숙	
51	이미경	
52	이소연	신규
53	이어진	
54	이영희	
55	이은심	신규
56	이주희	
57	이태희	
58	이향심	

No.	이름	비고
59	이효린	
60	임경진	
61	장광미	
62	장다혜	
63	장수경	
64	장윤경	
65	장윤정	
66	장주리	
67	전순유	
68	전혜영	
69	정유선	신규
70	정정희	
71	정지은	
72	조은희	
73	조인섭	
74	조인옥	
75	조종신	
76	차성안	
77	천정환	
78	최란	
79	최지나	
80	추상아	
81	탁수정	
82	한소망	
83	한희정	
84	허복옥	
85	홍순기	

- ※ 후원회원 전환 (2023.3.23 이사회 의결) _ 최보원, 배순희 (2명)
- ※ 정회원 전환 (2023.3.23. 이사회 의결) _ 박진선 (1명)
- ※ 후원회원 전환 (2024.1.23 이사회 의결) _ 이선희 (1명)
- ※ 정회원 전환 (2023.1.23 이사회 의결) _ 고현경, 손원영, 이소연, 이은심, 정유선 (5명)

2023년 제32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의 종류 : 정기총회
2. 개최 연월일 : 2023년 1월 31일(화) 오후 7시
3. 개최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지하1층 이안젤라홀
4. 총회원수 및 출석회원 수 : 총 82명 중 59명 출석(참석 43명, 위임 16명, 참관 6명)

이명숙 이사장이 의장석에 등단하여 인사말을 하다. 김혜정 소장, 김미현 활동가, 김하윤 회원이 인사말을 하다. 박수민 활동가가 경회원 82명 중 출석 43명, 위임 16명으로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였음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공증변호사 원민경 변호사를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다.

참관인 발언권에 대해 문자 박아름 회원이 동의하였고 만장일치 박수로 참관인도 의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것으로 하다.

의장이 서기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도경 회원이 박아름, 김동은, 김미현 회원을 서기로 추천하여 안선민 회원이 동의하고 한소망 회원이 재청하여 서기로 선정하다.

이명숙 의장이 회순을 자료집의 순서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여 김현지 회원이 동의하고 이영희 회원이 재청하여 이를 채택하다.

제31차 정기총회 회의록 승인

2022년 제31차 정기총회 의사록을 김주아 활동가가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승인 여부를 묻자, 이경환 회원이 동의하고 김다미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2022년 감사보고

제16조(감사의 직무)에 의거하여 감사를 보고하다. 배자하 감사의 회계감사를 조은희 활동가가 대독하고, 허오영 숙 감사의 사업감사를 한소망 활동가가 대독하다.

2022년 활동보고

노선이 활동가가 PPT에 따라 5개 팀과 부설기관의 2022년 활동을 발표하다.

보고 1. 인권침해 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활동 보고

인권침해 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활동 중 동료상담원 활동에 대해 이명숙 의장이 서면 보고 대체를 제안하고 승인 여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서면 보고로 대체하다.

제1호의 안 2022년 결산 승인

상담소는 사무국 송해주 활동가가 2022년 결산안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22년 결산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결산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고 다른 질문이 없자 안건에 대해 승인 여부를 묻다. 조중신 회원이 동의하고 조은희 회원이 재청하여 승인하다.

제2호의 안 2023년 사업계획 승인

2023년 전체 사업계획을 김신아 활동가가 소개하다. 이명숙 의장이 질문이 있는지 묻고, 다른 질문이 없자 이

도경 회원, 이미경 회원, 이경환 회원에게 발언을 요청하다. 이도경 회원이 2023년 사업계획에 법률팀이 신설된 배경을 설명하고 상근변호사로서 잘해보겠다고 발언하다. 이미경 회원이 현재 연구소가 휴지기에 있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 연구 활동을 기반으로 쟁점을 꼬집어내고 환류하는 역할을 지속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다. 이경환 회원이 2023년에도 이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할 것이고 건강하게 많은 활동을 보여달라고 발언하다. 이명숙 의장이 안전에 대해 승인 여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3호의 안 2023년 예산 승인

사무국 송해주 활동가가 2023년 예산안을 보고하고 열림터 박지희 활동가가 열림터의 2023년 예산안을 보고하다. 이명숙 의장이 관련 질문이 있는지 묻다. 정지는 활동가가 안식년에 해당하는 활동가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6개월 본봉 지급 외에 어떤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지 질문하다. 송해주 활동가가 처무규정에 따라 6개월간 본봉을 지급하거나 당사자 선택시 12개월간 균분으로 지급할 수 있고, 안식년을 처음 도입하는 만큼 올해 운영해본 후 앞으로 활동가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겠다고 답변하다. 이명숙 의장이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승인 여부를 묻자 만장일치로 승인하다.

제4호의 안 임원 선출

정관 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에 의거 임원 선출을 진행한다. 먼저 김혜정 소장이 최보원 이사, 배순희 이사가 이사회에 2023년 2월 16일자로 사임할 의사를 밝혔음을 보고하다.

1월 17일 이사회에서 김은아 이사 후보, 차성안 이사 후보의 신임을 추천하기로 논의한 바, 김혜정 소장이 김은아 이사 후보, 차성안 이사 후보를 소개하다. 김은아 이사 후보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보탬이 되도록 따뜻한 지지와 책임감으로 함께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최란 활동가가 대독하다. 차성안 이사 후보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활동할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직접 밝히다. 김은아 이사와 차성안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6일부터이나, 예선기로 논의하여 이를 제안하고 이명숙 의장이 신임 이사 선출에 대해 만장일치 투표로 진행하기를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큰 박수로 김은아 이사, 차성안 이사의 선출을 알리다.

1월 17일 이사회에서 장다혜 이사의 중임을 추천하기로 논의한 바, 장다혜 이사가 지난 임기 동안 반성폭력 운동이 활동하는 걸 보면서 어려운 외부 환경이 오히려 단단하게 연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느꼈고 더욱 열심히 활동하는 이사가 되겠다는 중임의 변을 밝히다. 장다혜 이사의 임기는 2023년 2월 16일부터이나, 예선기로 논의하여 이를 제안하고 이명숙 의장이 중임 선출에 대해 만장일치 투표로 진행하기를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동의하다. 큰 박수로 장다혜 이사, 배자하 회계감사, 허오영속 사업감사의 선출을 알리다.

다 음

이 사	장 다 혜	*****-*****	2023년 2월 16일 중임
이 사	김 은 아	*****-*****	2023년 2월 16일 취임
이 사	차 성 안	*****-*****	2023년 2월 16일 취임
이 사	배 순 희	*****-*****	2023년 2월 16일 사임
이 사	최 보 원	*****-*****	2023년 2월 16일 사임

기타안건

이명숙 의장이 기타안건이 있는지 질문하다. 별도 의견이 없었고 안건 승인을 마친다.

공로상 및 감사패 시상

윤경진 활동가가 시상을 진행한다. 최보원 사임 이사, 배순희 사임 이사께 감사패를 시상하다. 오늘의풍경, 서진과 박운정과 권지현께 공로상을 시상하다. 오늘의풍경 백희원이 수상 소감을 말하고, 서진과 박운정이 수상 소감을 말하다. 해군상관예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생존자와 머니투데이직장내성희롱 피해생존자께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을 시상하다. 해군상관예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생존자의 수상 소감을 이도경 활동가가 대독하다. 머니투데이직장내성희롱 피해생존자의 수상 소감을 노선이 활동가가 대독하다.

신입활동가 소개

이명숙 의장이 신입활동가 김동은, 박수민, 송해주, 김미현 활동가와 이도경 상근변호사가 의사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하고 김동은, 박수민, 송해주, 김미현 활동가와 이도경 상근변호사가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다.

폐회 선언

32차 총회 의사록의 확인과 공증에 대한 위임은 59명의 찬성(위임 16명 포함)으로 승인되다. 의장 이명숙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종료시간 : 오후 9시 45분)

서 기 2023년 1월 31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의장 이사장 이 명 숙 (개인)

이사 김 혜 정 (개인)

이사 이 미 경 (개인)

이사 이 경 환 (개인)

이사 윤 정 원 (개인)

이사 장 다 혜 (개인)

2023년 팀 · 부설기관 활동보고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불안과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생존자들의 말하기를 독려하고 일상회복을 도모하며 자조모임 작은말하기에서 생존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연대한다.
- 성적 동의와 관련된 생존자,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 주체성을 기록하고 의미화한다.
- 친족성폭력 가시화 및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간다.
- 시대에 굴하지 않는 활기있는 문화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해간다.
- 상담소 고유컨텐츠 발굴 등 30년 역사가 담긴 각종 콘텐츠가 가진 파급력을 활용하여 피해생존자와 든든히 연대한다.
- 상담소만의 시각으로 수요시위에 연대하여 생존자의 경험이 확장되고 연결되도록 노력한다.
- 체계적인 지원으로 일상회복에 조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 생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사건지원, 법률상담 등을 조력하고 연대한다.
- 법적책대응, 다양한 연대활동에 '생존자'의 관점, 목소리, 자리를 마련하고 연결되도록 한다.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치에 책임 요구하기

-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성폭력사건 해결과정에서 생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외화한다.
- 미투 운동 이후의 성적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 폐기, 동의/적극적 합의 활동을 해간다.
-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문제의 보수화 및 사법화 등에 현장의 언어와 논리로 대응한다.
- 차별에 맞서는 다양한 영역의 동료 시민들과 연대의 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
- 뉴스레터, 나눔터 개편, SNS와 홈페이지 등 상담소가 확보한 지면을 활용하여 정부의 반성평등 기조를 상담소의 시각으로 비판한다.
- 생활인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생활인들의 일상에 페미니즘과 반성폭력 언어를 녹여낸다.
- 제도도의 변경, 변화 지점을 모니터링 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을 모색한다.
- 법적책제도예산의 변경, 변화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되, 대중적인 설명과 설득을 설계하고 실행한다.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기

- 여성주의상담스터디와 소진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돌보며 돌아보는 조직문화를 이어간다.
 -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문화운동팀의 활동이 잘 보이게, 들리게 한다.
 - 구성원 및 역할 변동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팀 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경험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
- 지속후원회원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 후원모금행사 진행하여 안정적인 활동기금을 마련한다.
 -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여성주의 쉼터의 소식을 알리고 후원과 연대를 도모한다.
- 상담소 조직 안에 상근변호사의 존재를 안착시키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을 확보한다.
 - 후원자와 소중하게 소통하며, 활동참여자와의 관계망을 다층화하기, 후원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난다.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결되기

- 성폭력상담원기본교육에서 만나는 새로운 지원자/전문가를 양성하여 연대의 장을 확장한다.
 -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성폭력/성차별 및 소수자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2030세대 여성 시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 방법 등을 모색한다.
 - 자원활동, 기자단 토크, 회원놀이터, 회원소모임 등 상담소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지지그룹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상담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또우리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발굴하고 상호지지를 지속한다.
- 성폭력/성차별 및 소수자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소의 접점을 늘린다.
 -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할 수 있는 경로와 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한다.

2023년 팀 · 부서기관 활동목표

여성주의 상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2/ 성폭력 상담일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3/ 피해 경험을 일상회복의 힘으로 전환시켜 생존자 역량을 강화한다. 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배운다.
성문화운동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적 동의 담론을 심화하고 성적 권리를 재구성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 담론과 언어의 지평을 확대한다. 2/ 성평등-성폭력 관련 정치적 퇴행에 맞서고 생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3/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 하는 동료 시민들과 차별과 혐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회원홍보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잠재후원자의 친밀감을 높인다. 2/ 다양한 방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회원 지지자와의 접점을 늘린다 3/ 상담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고 친절한 상담소로 거듭난다. 4/ 회원홍보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정화에 힘쓴다.
법률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2/ 상담소의 상근변호사로서 역할을 탐색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간다 3/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법 영역에서 상담소의 역할을 확장한다
사무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하며, 성평등 지우기와 성폭력 보수화에 맞서기 2/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 탄탄하고 든든하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인들이 자신을 보살필 수 있게 역량강화한다. 2/ 반여성적 정책 기조에 대항하여 쉼터의 여성주의 의제를 더 많은 지지자들과 공유한다. 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4/ 또우리들의 여러 경험과 딛고 일어섬에 든든한 마음을 보내고 지원을 지속한다.

2023 여성주의상담팀 활동 평가

2023 활동방향(안)	팀별 실천방안
불안 불황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생존자들의 말하기를 독려하고 일상회복을 도모하며 자조모임 작은말하기에서 생존자들과 꾸준히 만나고 연대한다.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부에 책임 요구하기	-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성폭력사건 해결과정에서 생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외화한다.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든든하게	- 여성주의상담스터디와 소진예방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돌보며 돌아보는 조직문화를 이어간다.
정치적으로 가깝고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하기	- 성폭력상담원기본교육에서 만나는 새로운 지원자/전문가를 양성하여 연대의 장을 확장한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p> <p>목표2. 성폭력 상담일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p> <p>목표3. 피해 경험을 일상회복의 힘으로 전환시켜 생존자 역량을 강화한다.</p> <p>목표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p> <p>목표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배운다.</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활동가 2인의 안정적인 적응으로 원활한 사건지원이 가능했으며, 4인의 활동가가 신규 공대위 결성 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음. - 지원과정에서 포착하는 어려움과 관련하여 자문위원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형사공탁특례제도 이슈를 발굴하여 관련 활동을 펼침. - 자조 모임 및 집단상담 등 치유회복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생존자들과 네트워킹이 활발하였음. - 전문가슈퍼비전 기획과정에서 새로운 기관 및 슈퍼바이저를 발굴하여 관련 전문가 풀을 확장할 수 있었으며, 사례지원에 대한 논의와 피드백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팀내 활동가의 소진을 관리할 수 있었음.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통해 사건지원 활동을 함께 할 페미니스트 연대자 풀 확인하고 연대감을 쌓았으며, 후속모임(책임기스터디)을 통해 네트워킹함. 	

목표1.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통합적 지원체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1-1. 여성주의 상담과 통합적 지원의 체계화 및 전문화

- 배경/필요성
 - 상담부스는 1차 상담이 주로 진행되는 창구로서, 기본적인 안내뿐 아니라 심리 정서 지원, 향후 법적, 의료적 지원까지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초기상담이 진행됨. 안정적으로 상담부스가 운영되는 것은 여성주의 상담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각 활동가의 상담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상담부스에서 1차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고,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할 기회를 마련함.
 - 사건지원의 내실을 다지고 활동가별 지원 경험을 축적하여 사건지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또한, 기존의 의료·법률·심리지원 외 공론화나 비사법적 해결 등 다양해지는 내담자의 욕구에 맞춰 다채로운 사건지원 방식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를 모색함.
 -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
- 목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상담부스 운영 및 지원 경험 확대

• 방법 및 계획

1) 상담부스 운영

- 상담팀 4일(월~목), 상근활동가 1일(금 2타임(10:00~13:00 / 14:00~17:00)) 배치.
- 상담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평일 오후 17:00~ 오전 10:00, 공휴일, 상담소 전체일정 등)에는 통화연결음 멘트 송출 설정을 통해 상담필요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번호 안내함.

2) 사건 지원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지원 여부 검토.
- 활동가별 총 15사례 이상의 지원은 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타 기관으로 적극 연계.
- 격주 1회의 업무회의 시 지원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 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연대활동을 경험
- 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연대체	담당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진, 호랑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박지희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이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상담 부스 및 사건 지원의 안정화

- 사건 공동대응을 통한 깊이 있고 전략적인 사건지원 모색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을 통한 연대감 및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
- 진행 내용

1) 상담부스 운영

- 신규활동가 2인(로테이션 활동가 1인, 신입활동가 1인)에 대한 상담부스 참관 및 실습을 운영하였고, 한 달간 일일 슈퍼비전 및 상담일지 검토를 진행함
- 로테이션 활동가 2월, 신입활동가 3월부터 상담부스에 배치되어, 4인의 상담팀 활동가가 주 1회씩 총 4일(월~목)을 담당함. 격주 업무회의의 중 월 마지막 업무회의 시 상담팀 활동가 부스 배치 일정을 확정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2) 사건지원

상담년도	의견서 제출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	연계의뢰서 제출	건수
2023	10	33	29	39	111
2022	3	22	26	24	75
2021	6	12	38	30	86

- 각 활동가별 평균 15사례를 상시적으로 지속 지원 중임. 1차 전화상담 시 지속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하여 상담팀 내부 논의 후 긴밀하고 신속하게 지속지원으로 연결하고 있음.
- 법률팀 개설로 인해 상시로 법률상담 및 지원 논의가 가능해짐.
- 더 나은 지원을 위해 격주 1회의 업무회의 시 지원사례 슈퍼비전을 정기적으로 진행 중임. 또한, 논의가 필요한 사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업무회의를 통해 지원과 관련한 고민을 서로 나누며 더 나은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지원자의 소진을 방지함.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연대체	담당	세부 활동 내용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감이/오매	4/27 '가장 보통의 중간강 사건' 대법원 무죄 판결 및 기자회견 5/11 3차 회의 - 토론회 준비 5/19 4차 회의 - 토론회 준비 7/4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7/19 5차 회의 - 토론회 평가 및 공대위 해산 결정
전국사이버 성폭력피해지원 네트워크	박지희	3/29 사무국과 집행위원회 운영, 활동개요안 마련, 활동계획논의 9/6 전사넷 참여단체 상황공유, 삭제지원에 따른 현황과 고민 나눔 10/24 전사넷 긴급 전체회의1 (여성폭력예산삭감 대응회의) 10/31 전사넷 긴급 전체회의2 (여성폭력예산삭감 대응회의) 11/6 전사넷 긴급 전체회의3 (여성폭력예산삭감 대응회의)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진, 호랑	1/13 가해자 B 파기환송심 공판 모니터링 2/2 33차 공대위 회의 2/10 가해자 B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모니터링 - 기자회견 3/8 3.8여성대회 공대위 변호인단 성평등디딤돌상 수상 4/17 24차 공대위 회의 5/9 35차 공대위 회의 진행 5/18 36차 공대위 회의 5/18 상고심 대법원 - 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B대령의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배포 6/19 가해자A 행정소송(전역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제출 6/30 가해자A 전역처분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행정법원 선고 → 청구 기각→ 항고로 2심 진행중 9/15 가해자B 긴급낙처처분 1심 선고→ 청구각하→ 항고

		11/6 민사 손해소 가해자 B화해권고에 대한 공대위 의견서 제출 12/8 민사1심 선고
(가)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	호랑, 경진	4/4 '벗방'관련 실태 파악 및 공동대응 방향 논의 4/11 피해지원 사례 논의, 단체별 입장 공유 및 향후 방향 논의 5/2 단체별 피해지원 상황 공유 및 벗방 언론보도 논의 5/11 논평 검토 회의 5/18 [논평] '벗방',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 4월 25일 PD 수첩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 방송을 보며 6/9 피해지원 상황 공유 및 차기 사업 논의 8/30 차기사업 논의 11/29 실태조사 및 스터디 진행 논의

• 평가

- 1) 상담부스 운영: 신규활동가가 상담부스에 투입되지 않은 2월과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이 진행된 7월에 상근활동가들이 주 2회 배치되어 상담부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됨.
- 2) 사건지원
 - 면접상담, 외근(공판참관 등) 등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담부스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조정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함.
 - 초기 상담 후 지원이 필요할 시 상담팀 내 논의하여 지원 담당자를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연계하는 등 활동가별 지원사례를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원업무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
 - 법률팀 신설로 사건지원 시 상근변호사와 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여 긴밀하고 풍성한 법적 지원 논의를 할 수 있음.
- 3)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신규활동가가 각각 다른 공대위에 참여하였고, 기존 활동가들이 소통채널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거나 상시 의견 나눔이 가능하였음. 전사넷, (가)벗방지원단 등 새로운 연대체의 기획단계를 함께 논의하며 활동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함.
 - ①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대비하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공대위 소속 단위들과 함께 무죄 확정된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한 토론회를 기획하여 진행함. 3년 이상 이어져 온 법적 진행과정 때문에 공대위 활동이 이어져왔다는 것은 안타까운 면이지만, 그 기간동안 여러 이슈에 연대를 보여준 공대위의 존재는 개별 준강간 사건의 피해자나 지원자들에게 든든한 응원과 위로, 참고 사례로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②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 전사넷 구성 초기, 한사성과 통합상담소 등 디지털성폭력피해자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기관들이 운영단위로 참여하여, 본 상담소는 일반 연대단위로만 가입하였음. 9월 초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에 참여하여 삭제지원현황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각 기관별 지원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 여성폭력예산삭감대응회의에 참여하여 디지털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을 감축하고 통합상담소로 이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전사넷 입장을 마련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 등에 밀접하게 결합함.
 - ③ 해군상관예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사무국을 맡아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연대 단위와 상시 소통하는 등 3년 이상 장기화되는 공동대책위 활동을 잘 이끌어가고 있음.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대법원 선고 입장문 배포 등으로 판결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전달함.
 - 가해자A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전역처분취소를 제기한 건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당사자이기 때문에 대응의 한계가 있었음. 그렇지만 가해자 원복 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하므로 공대위 회의

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함. 의견서의 주된 내용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의 부당성,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가해자 원복 시 예상되는 2차 피해 등으로 작성 후 제출함. 의견서가 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지만 판결에 관련있는 집단(법원 국방부, 해군본부)에게 군 내 성폭력 문제 등을 다시 상기시킨 공대위 활동으로 볼 수 있음.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1심에서 가해자B에 대한 화해권고로 공대위 의견서 제출함. 의견서를 통해 엇갈린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두 가해자 모두 본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에게 성폭력을 가한 점,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 소 제기의 정당함을 전달함.
- 형사소송이 마무리된 시점부터 다소 공대위 활동 동력이 약해짐. 아직 행정소송 2심,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시 원활한 논의 등 요구됨.

④ (가)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

- 상반기 ‘벗방’이 이슈화되어 공동지원단을 시작하여 홍보하였으나, 언론보도 등 이슈화에 비해 피해지원 요청이 많지 않았음. 향후 참여 단체들간의 스터디, 실태조사 등을 모색하였으나 단체 간 의견차로 시행되지 못함.
- 확대되는 온라인 라이브방송에서의 성산업에 대한 문제의식, 디지털성폭력 지원체계에서의 미비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쉽게 의미화될 수 있는 대중적 용어로서 ‘벗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해당 용어의 적절성 및 대체용어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향후계획: 차년도 계획에 따름

1-2. 성폭력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적 지원

• 배경/필요성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안이 필요
-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로의 접근성 향상
- 피해생존자들이 방문하는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원 활동을 도모
-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함. 이처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가능한 새로운 기관 탐색 활동이 필요함

• 목표

-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하며,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 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의료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1) 의료비

- 1인 6개월 이내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 사건지원 없이 의료비 지원만 하는 내담자의 경우 별다른 지속 상담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내담자가 구청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으로 이 경우에는 구청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게 안내

2) 개별상담(복권기금)

- 전화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연계

- 내담자 중 기관연계를 통해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진행하지 않거나, 개인 청구 시 서류 미비로 연락했는데 청구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음.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지속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담자가 필요할 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있음. 서류 미비로 청구가 어려운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류를 갖춰서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의료비 예산 소진 속도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 의료비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팀내 상시 의견 교환하여 의료비를 예산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의료기관과 활발한 소통을 하여 적절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법률지원 사례에 한하지 않고 사례담당자가 통합적 시각으로 의료지원 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 개별상담이 끝난 이후 연계기관과 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관간·내부 논의 후 심의의결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음.
- 개별상담의 경우 A기관, C기관으로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C기관의 갑작스러운 폐소로 인하여 A기관과 B기관에 연계하게 되었음. 지속적으로 신규 기관 발굴이 필요함.
- 향후계획: 이후 계획에 따름

1-3.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지원

- 배경/필요성
- 성폭력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법률조력에 대한 필요를 검토하고 지원함
- 무고와 억고소, 명예훼손, 성매매 중 성폭력 피해 사건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상황 존재
-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에서 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가 필요함
- 목표
-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그룹과 피해생존자를 연계하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제도적 활성화
- 방법 및 계획
- 1) 월요법률상담
- 1월: 기존 변호사 대상으로 신규 변호사 추천 및 법률상담 평가 및 의견 취합
- 3월~11월: 격주 월요일(오후 4시~6시),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 신규변호사의 경우,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기존 변호사 매칭하여 실습 진행
- 2) 무료법률지원
- 방법 및 계획
- 법률지원가 필요한 피해생존자와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변호사 풀을 연계하고,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활동가와 함께 피해생존자의 욕구를 파악하면서 지원 전략을 논의하고 상호 소통함
- 법적 절차에서 피해생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독려
- 담당자: 호랑
- 기대효과
- 피해자의 법률조력에 대한 갈증 해소하고 법적해결에 대한 부담을 감소함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 진행내용

1) 월요법률상담: 총 21회, 35건 상담 진행

순번	일정	담당변호사	배석 활동가	건수	비고
1	3/6	천정아	호랑	2	
2	3/20	정명화	지희	2	
3	4/3	원민경	감이	1	
4	4/17	조윤희	경진	2	
5	5/8	장지영	감이	1	
6	5/22	이정민	호랑	2	비대면 진행
7	6/12	송진성	경진	2	
8	6/26	이정선	지희	1	
9	7/10	원민경	지희	1	백혜랑 변호사 배석
10	7/24	장지영	지희	2	
11	8/7	권정	감이	1	
12	8/21	천정아	호랑	2	
13	9/4	이정민	경진	2	
14	9/18	송진성	경진	2	
15	10/16	조윤희	감이	2	김민아 변호사 배석
16	10/30	정명화	호랑	2	원의림 변호사 배석
17	11/13	백혜랑	경진	2	신규변호사
18	11/27	이정선	지희	2	
19	12/11	이도경	감이	2	법률팀 공동사업
20	1/15	이도경	호랑	2	법률팀 공동사업
총계				35	

2) 무료법률지원: 총 29건 진행(형사대리 15건, 형사변호 4건, 민사소송 3건, 기타2건, 취소 5건)

• 평가

- 월요법률상담과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지원이 가능하였으나, 하반기 한국성폭력위기센터의 무료법률지원 예산의 조기소진으로 다소 불안정하였음. 취소분 등을 활용하여 법적지원을 진행했지만, 향후 변협 등 무료법률지원제도 위탁기관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월요법률상담 구두신청 후 내담자가 일정 변경 등으로 취소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빠르게 다른 내담자와 소통 후 배정하여 취소 건수를 최소화하였음.
- 월요법률상담 중 1회(2건)은 담당변호사 질환(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담 진행함. 법적 절차를 위한 상담은 원활히 진행되었으나, 심리·정서지원의 차원에서는 권장되지 않음.
- 신규변호사 3인이 새롭게 영입되었음. 차년도 월요법률상담 시 변호사 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신규변호사OT 및 기존 법률상담 배석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법률상담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진행됨.
- 21~23년 무료법률지원 현황을 정리하여 문서화함. 현황을 파악하여 각 심급당 종결 확인 및 이용자만족도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노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음. 이에 더하여 법률지원 변호사를 고르게 매칭하는데 활용할 수 있었음.
- 법률지원 과정에서 활동가와 변호사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함. 상담활동가·내담자·변호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메신저방 개설, 이메일 참조 등으로 보완하고자 하였음. 상담소의 법률지원의 의

미가 전달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네트워킹 및 방안 마련 필요.

- 무료법률지원 신청 후 변호사 사임, 내담자의 법적과정 중단, 중복신청 등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함. 신청 전후의 확인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향후계획: 차년도 계획에 따름

1-4.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원활한 사건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목표: 비서울 지역의 내담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직접 지원
 - 방법 및 계획:
 - 1인 40만 원 지원 한도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비서울 지역에 사는 내담자에게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법적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대활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내담자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사용 지출 내역 보고
 - 홍보활동: 홈페이지에 파발마 기금 안내문 게시, 대면상담 시 내담자에 직접 안내
 - 담당자: 지희
 - 기대효과
 -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건지원과 활동 참여 담보
 - 진행내용
 - 3월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하고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안내하여 파발마기금을 지속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 치유회복 프로그램 신청자와 심리상담을 위한 교통비, PTSD치료를 위한 교통비, 증인심문을 위한 재판 출석 시 교통비, 월요법률상담을 위한 교통비 등 내담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해 안내하여 원활히 청구 작업 진행됨.

내역	명수	건수
작은말하기참여	4	12
심리치료	3	13
법률상담외	1	2
합계	8	27건

- 평가
 - 1인당 한도를 높이고 홈페이지 홍보를 하였으나 파발마 기금 신청이 늘지 않았음. 차년도에는 파발마 기금 단독 홍보 외 월요법률상담, 집단상담 등 사업에 비서울지역 교통비 제공이 가능한 사항임을 안내하면 적극적인 신청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1인당 지원비용을 높이거나, 1인당 한도 40만 원을 유지하되 내부 논의를 통해 필요시 추가지원을 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향후계획: 이후 계획에 따름

목표2. 성폭력 상담일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일지 및 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2-1. 상담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본 상담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생존자들의 전화상담이 많아, 통계분석을 통해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음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하고자 함.
- 2021년부터 4인의 상담팀 활동가가 주 1회씩 총 4일(월~목)을 담당하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1차 초기상담 이후 지속지원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내용과 방식의 상담 통계 분석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상담일지와 통계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원현황 파악과 이슈대응 및 발굴에 활용

• 방법 및 계획

- 상담일지 교차 확인 및 검토 : 상담팀 활동가의 일지 검토 및 슈퍼비전 진행
- 월별 일지 점검 : 매월 초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 지자체 및 여가부 등 실적보고 : 요청 시 상담 관련 실적 및 통계 보고
- 지원 현황 보고 : 이사회, 나눔터, 상하반기 평가회의 등 지원 현황 보고
- 이슈별 통계 제공 : 필요시 혹은 요청시 해당 이슈와 관련한 세부적 상담 통계 분석 제공
-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통계 배포 : 전체 및 키워드 중심의 1년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외화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상담일지 분석자료를 외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언

• 진행내용:

방법	내용
상담일지 교차 확인 및 검토	상담팀 내 일지 검토 및 슈퍼비전 진행
월별 일지 점검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통계 배포	3/14 [보도자료]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 (세부통계 : 불송치, 스토킹)
지원 현황보고	이사회(1/17, 3/14, 5/15, 9/18, 11/14) : 지원 현황보고 상반기 평가회의(6/30) : 상반기 지원 현황 보고
지자체 및 여가부 등 실적보고	2022년 한 해 운영실적 보고(2/7) 성폭력 피해 지원실적 보고(1/13, 3/29, 6/2) 마포구 성인지통계작성(10/10)
이슈별 통계	전성협 2022년 폭행·협박 없는 강간 통계 제출(4/27)

• 평가

- 구청 등 실적보고가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일지작성과 검토는 많이 밀렸는데, 중요한 업무임에도 일상업무로 다소 긴급성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경향이 있음. 추후 담당자가 팀 내 활동가들에게 일지 검토를 할당하는 방식 등 검토 필요.
- 매년 초 여성가족부가 수집하는 전년도 운영실적 보고서에서 전체 성폭력 피해 외 친족성폭력피해에 대해 별도로 수집하는 통계표가 추가됨. 해당 통계 양식이 추가된 이유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입법 논의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함.
- 초기상담보다 지속상담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고자 지속상담을 기준으로 기초통계분석 결과를 내보았으나, 지난 30년 넘게 초기상담으로 분석해오던 흐름이 깨지는 부분이 확인되어 기존처럼 초기상담을 기준으로 분석함. 향후 관련 논의와 실험이 요구됨.
- 세부통계 분석 시 기존에는 초기상담일지만 분석하는데서 나아가 지속일지를 포함하며 분석하여 시의적절

- 한 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음. 특히 스토킹 분석의 경우 지난 3년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불송치의 경우 전성협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통계지 작성에 참고자료가 되기도 함.
- 매년 세부통계 외화작업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던 와중 나눔터 개편과 활용 논의에 대해 확장됨. 나눔터에는 기존과 같이 기초통계를 신고, 상담통계를 이미지와 하여 책자 형식의 PDF파일로 새롭게 편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 보기도 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부논의가 필요함.
- 상담통계의 경우 상시 업무로 다른 주요 사업에 비해 중요도가 밀려 적극적으로 개선 논의를 하지 못함. 상담일지 또는 통계 개선 등 우선순위 검토 후 차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필요.
- 상담일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나 내담자의 연락처 확보의 어려움 등 일지작성 효율화 및 상담부스 시스템 개선에 대한 논의와 변화 필요.
- 향후계획 : 차년도 계획에 따름

2-2. 일지읽기모임

- 배경/필요성
 - 해당 모임에 활용할 일지 선별부터, 진행과 평가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슈 발굴하고 현황 파악
 -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담당자만의 상담 및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이에 상담활동가들과 의견 나눔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목표: 성폭력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슈발굴,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 방법 및 계획
 - 전체 활동가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 오전: 상담일지사본 배포 및 읽기, 오후: 워크시트지 토대로 의견나눔 및 평가
- 담당자: 호랑
- 기대효과
 - 발굴된 이슈를 통계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추후 유사사례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 가능
- 진행 내용

1) 상반기 일지읽기모임

- 일시: 2월22일(수) 11:00-16:00 (점심시간 제외)
- 참여(16명): 유랑, 란, 신아, 해주, 파랑, 수수, 상아, 도경, 낙타, 달별, 산, 등은, 오매, 지희, 호랑, 감이

시간	내용
11~13시 (2h)	일지 읽기 및 워크시트지 작성
14~16시 (2h)	워크시트지 기반 나눔의 시간
	① 상담일지를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기억이 없는 시간에 있었던 피해 불안을 다룬 상담 • 상담에 상담통계를 활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기도 함 • 법적해결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상담자가 법개정을 주장할 때 참고하겠다고 말한것에 대해 내담자가 만족해함 • 대리인 상담의 3요소: 당사자의 진술, 처벌에 대한 의지 확인, 지지와 응원
	② 상담일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위 긴급구제제도 • 법적구속/수감중인 피해자의 임신중절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스웨스트호 사이트(성소수자 친화 상담기관 리스트 제공)
③ 고민됐거나 아쉬웠던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기관(1366등)에서의 상담에 대한 불만족을 말할 때의 적절한 대응에 대한 고민 • 상담소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담자와, 자살암시를 하는 내담자와의 소통에 대한 고민
④ 2023년 세부통계 주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 '동의' 언급 사례 (ex.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말하는 경우) • 법적지원을 하지 않는 상담사례 • 지속지원/지원 종결 사례

2) 하반기 일지읽기모임

- 일시: 8월16일(수) 10:00-16:00 (점심시간 제외)
- 참여(13명): 호랑, 지희, 감이, 달별, 유랑, 신아, 란, 동은, 파랑, 오매, 산, 해주, 수수

시간	내용
11~13시 (2h)	일지 읽기 및 워크시트지 작성
	워크시트지 기반 나눔의 시간
14~16시 (2h)	① 상담일지를 읽으며 인상 깊었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사건해결방법의 다양성을 설명, 필사나 일기쓰기 등의 방법 권유) • 내담자의 불안요소를 잘 털어낸 상담 • 개인적인 대응(가해자 사과)을 고민하는 내담자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준 상담
	② 상담일지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누리콜센터(외국인 상담센터) • 지하철 성추행에서 대응방안 •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배상금 액수
	③ 고민됐거나 아쉬웠던 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지원이 어려운 사안에서 상담이 이어질 때 마무리 방안 • 내담자(피해자)들이 분노표출 시 상담활동가의 대응, 보호 방안 • 직장내성희롱 지원 • 성적요소가 없는 스톱핑 피해 지원 여부 및 한계

- 평가
 - 다양한 상담사례의 적절한 대응과 정보제공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최근의 상담 경향, 세부통계 주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기회가 되었음. 지속일지를 볼 수 있도록 일지를 백업한 노트북을 배치하여 진행했고, 노트북이 잘 활용되는지는 향후 지속하여 볼 필요가 있음.
 - 각 활동가별로 1개월간의 상담일지를 한정된 시간에 읽고 진행하기 때문에 논의와 이해의 폭이 제한됨. 일지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구성 및 진행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상반기 일지읽기 평가 시 일지읽기 및 워크시트를 작성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하반기에 읽기시간을 1시간 연장하였음. 하반기에는 논의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부 문항은 워크시트 작성 응답으로 대체하였음.

2-3. 상담일지 데이터화

- 배경/필요성: 장기적인 상담일지 보관 및 전산화 작업의 지속
- 목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상담일지 전산화 및 보관
- 방법 및 계획
- 검토 및 수정을 마쳐 완료된 상태인 전년도 상담일지 출력물(12개월분)을 스캔하여 전자화함
- 회원홍보팀과 협력하여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
- 전산화 작업을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용이한 상담일지의 관리 및 보관
- 진행내용

시기	활동	세부내용
4월	작업 준비	회원홍보팀과 상의 작업자: 자원활동가 민지 기자재 준비: 스캐너1, 노트북1(작업기간 외부 반출 금지)
5월	2022년도 상담일지 스캔 및 파일 병합	5/8 스캐너 대여 5/9 OT: 푸른나비(2시간) 5/9 1~4월, 9~10월 5/16 5~8월, 11~12월 5/16,23,30 누락 일지 확인 및 스캔 파일 병합 작업 6/7 스캐너 반납
6~7월	스캔된 파일 병합	6/12~7/15 별도 프로그램 이용하여 낱장으로 스캔된 파일을 일지 번 호별로 병합하면서, 누락된 일지나 누락된 페이지 있는지 확인 작업 - 남은 미작업분: 1994~1995, 1997~2016, 2019~2021

- 평가
- 기존에 데이터화작업은 30년 분량의 일지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업무였고, 침수나 스테이플러 등으로 인한 훼손이 많은 상태로 인해 10개월(2021년 11월 초부터 2022년 8월 말까지)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최근 1년치 만을 스캔하는 올해 스캔 업무의 양과 소요시간을 미리 가능하기 어려웠음. 작업자가 주1일 작업 가능한 상황으로 우선적으로 1개월간 스캐너 대여했음. 스테이플러심 등 제거 후 훼손 방지 테이핑 작업에 시간 소요되었으나, 이를 동안 1년치 스캔작업 완료함. 스캐너 대여는 효율적으로 업무가능하여 추후 필요시 예산 책정 고려해야 함.
- 보안이 필요한 상담일지를 다루는 작업이라 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하도록 하였음. 이전에 스캔작업을 했던 자원활동가가 OT를 맡아주고, 이전 사업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업무 인수 인계를 진행할 수 있었음. 작업을 맡아준 자원활동가가 담당활동가와 소통하면서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업 해주어 계획했던 작업은 예상한 일정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 6월 중 함께 평가를 진행한 후 하반기 추가 작업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자원활동가의 개인 상황으로 인해 추가 작업은 진행하지 못함.
- 향후계획: 차년도 계획에 따름

[신규] 2-4. 형사공탁특례제도 대응

- 배경/필요성
- 2022년 12월 9일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에 따라, 사건지원현장에서 형사공탁 및 공탁감형 사례가 등장
- 제도 시행 현황 파악 및 평가, 정책 제언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형사공탁특례제도 이후 공탁사례 파악 및 대응
- 방법 및 계획

- 4월 자문회의에서 자문위원들로부터 제기된 우려를 바탕으로 형사공탁특례제도 관련 논평 작성
- 피해지원 현장에서의 형사공탁 사례 수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공동 진행)
-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평가 및 논의 자리 마련
- 담당자: 호랑
- 기대효과: 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의 관점에서 형사공탁특례제도 관련 입장 마련 및 법정책 변화 촉구
- 진행내용:

시기	활동	세부내용
3월	이슈 발굴	3/9 상담·의료·법률 자문위원회 - 형사공탁으로 인한 감형 상황과 기습공탁으로 인한 당혹스러운 상황 공유
6월	논평 작성	6/9 형사공탁특례제도 논평 작성 - [단호한 시선] 누구를 위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인가 - 제도 시행 반년, 무분별한 공탁 인정을 경계한다
9월	사례 수집	형사공탁특례제도 사례 수집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 진행) - 사례수집기간: 2023년 10월5일~10월31일 - 응답 53건, 이외 판결문 수합 및 별도 수집 포함 총 66건 사례 수집
10-11월	사례 분석 및 토론회 기획	- 수집된 사례 관련 응답자들과 소통 및 판결문 취합 - 사례 분석 작업 및 토론회 기획
12월	토론회	(1) 12/1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년 맞이 토론회 개최 - 행사명: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 일시: 2023년 12월 1일 (금) 오후 2-4시 - 장소: 온라인(Zoom)으로 진행.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중계 - 주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발표: '성폭력 사건 문제적 공탁 사례' 결과 분석 / 호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 토론1: 형사공탁제도의 취지와 피해자 지위/의사에 대한 고려 /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2: 피해지원 현장에서 체감하는 형사공탁 시행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 /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소장) • 토론3: 피해지원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는 문제와 개선방안 / 정명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 참석자: 신청 164명, 참여 138명 (2) 12/5 한국여성변호사회 주최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움> 토론자 참여

- 평가
- 지난해 말 시행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입장발표, 사례수집, 정책제안 등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업이었음. 피해지원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이해 및 대응에 많은 갈증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함.
- 언론 등 대중적 관심도도 높으며,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음. 향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변화 방향 정리하여 관

- 련 기관에 전달할 필요 있음.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의 협업 및 유관 변호사단체(민변,여변) 등의 홍보를 통해 유기적 연결 가능했음.
- 토론회의 기획 및 홍보가 원활이 되었으며, 각기 다른 분야의 발제자를 섭외하여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할 수 있었음.
- 온라인으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나, 발제자를 비롯하여 스태프 다수가 동시에 접속한 이안젤라홀의 인터넷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상황이 발생함. 온라인 행사 진행 시 갑작스러운 네트워크연결 이슈 등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법률팀의 활동가교육에서 해당 이슈가 처음 제시되어, 상담팀 활동가들이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가지고 대응이 가능했음. 향후 피해지원현장의 법제도 관련 이슈에 대해 법률팀과 더욱 긴밀한 협력 필요.
- 주 담당자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기획이 진행되어 역할분담이 원활하지 않았음. 다른 한편으로는 상담팀 활동가 전반이 결합하고 관심을 지닐 수 있었음.

목표3. 피해 경험을 일상회복의 힘으로 전환시켜 생존자 역량을 강화한다.

3-1.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생존자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필요
- 생존자 간에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피해생존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이라는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방법 및 계획: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진행
- : 매달 홍보하고 참가신청 받아 모집
- :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발언 기회 분산을 위해 모집인원 기준(활동가 포함 10명 이내)을 최대한 적용
- :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
- : 모임 이후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소감을 정리하여 <모임 후기>로 외화
- : 12월에는 작은말하기 송년회 행사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일정

상반기	3/29	4/26	5/31	6/28	7/26
하반기	8/30	9/20	10/25	11/29	12/13

- 담당자: 감이/지희
- 기대효과:
- 피해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치유의 힘을 얻음
- 작은말하기 공간을 통해 피해생존자 간 지지망 구축하고 연대하며, 역량강화함
- 진행내용: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	----	----	----	----	------	----

1	3/29	395빵집	노선이/박지희	노선이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피해자상, “피해자다움”에 대한 단상과 생각 나눔 - 피해를 말하기 전과 후로 나누는 주변인들 (“시절인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가 야근식대가 폐지되어 활동가 식대를 자비로 사용함.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가느라 예정보다 도착시간 늦어져 부랴부랴 준비하게 됨. 늦어도 6:20에는 도착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음. 공간 세팅 전에 이전 공간 사진 촬영 필수. - 시작 시간인 7시에는 3명만 도착하여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간을 가짐. 다음부터는 20분 먼저 오셔서 준비된 다과 드실 수 있게 안내해야겠음. - 기존 참여자들이지만, 서로 피해에 대해 모르는 관계도 있었음. 그래도 전혀 위화감없이 서로의 이야기와 의견을 나눔. - C가 중간중간에 “극 소수의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가 아니기도”, “집단상담 참여자 중 친부로부터 피해도 있었다” 등 조마조마한 발언들이 있기는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는 수준이었음. - C,D가 본인의 사건과 그 진행과정을 이야기할 때 조직 구성원들이 보여준 모습과 그 결정들을 말하는데, 문제적인 태도들도 있으나, 담당활동가는 조직 내 활동가로서의 위치로 인해 일견 그들의 결정이나 태도가 이해되기도 하여 집중력이 흐트러짐. 만약 상담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아찔해지기도 하였음. - 두 참여자의 말하기 지분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긴 했으나, 다른 참여자들도 눈치를 보거나 위축감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가 흘러감.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2	4/26	395빵집	노선이/박지희	노선이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관찰아질 수 있는 방법 나누기 (상담, 복수 상상, 약 등) - 피해 후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 경험 나눔 - 소감 나누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시 조금 일찍 오시라고 안내하여, 다들 일찍 도착해 다과를 좀 더 즐길 수 있었음. - 빈통을 가져가 남은 음식을 챙겨왔고, 종이봉투에 각자 필요한 빵들은 담아갈 수 있었음. - 활동가 2인의 식비 예산 마련 필요. - 참여자A가 상담소에 연락하여 공폐단단 연락처 문의했고, 본인 동의받아 공폐단단 활동가B 개인 연락처 안내한 다음 두 사람이 개별적 통화. 당일에도 연락했음. 공폐단단 활동가B가 도착 전에 참여자A 도착. 참여자A 본명으로 저장된 폰이라 본명을 말하며 도착 확인하려고 함. 순간 참여자A 당황하며 “왜 본명 말하시죠?”라고 쏘아붙임. “(B의) 본명도 말하시죠”라고 말하며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함. 이 순간에 긴장감이 상당했음. B가 폰에 잘못 저장해두어 그런 것이라 해명하고, 바로 문제제기 해주어 고맙다고 표현하며 사과함. 그러나 이후 A 발언 시 B가 눈을 감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지 다른 참여자들 발언 때도 눈을 감고 듣거나 힘들어 했음) 집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3	5/31	395빵집	노선이/박지희	노선이	1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부정적 자극/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 - 힘든 내 마음을 나아지게 해준 것 - 상담소, 인권단체 등 기대했던 기관들에 대한 부정적/긍정적 경험 - 법적 대응 여부나 결과에 관한 부러움과 후회 등의 감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이 처음 자리에 앉을 때부터 흡연과 관련하여 이곳 사장(확인안됨)이 건물 인근에서 흡연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한 것을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발언 시간이 길고, 다른 참여자들의 말에 끼어들거나 피드백을 독점하는 느낌으로 말을 이어감. 이에 대해 (중반 이후) E가 불편함을 표시했으나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다수의 발언을 이어감. 진행자는 발언을 끊거나 제지할 의도가 있었지만, 평소와 다르게 약간 흥분해있는 듯하고 얼굴이나 머리를 쓰다듬고 고개를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등의 불안증상(??)이 확인되어 특별히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진행함. - F가 처음 말을 하고 나서 한참동안 울음을 울어 걱정되어 중간에 관참은지 진행자가 확인함. 지경하여 질문하는 것이 이례적이었으나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어 안심했음. (공폐단단 활동 경험이 있어서 K와 친분) - 작말의 특성상 자유로운 말하기를 하다보니 상담기관 혹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만이 길게 이어졌으나 필터 없는 의견을 듣고 상담자에 대한 기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하게 된 시간이 되었음.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4	6/28	395빵집	노선이/박지희	노선이	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소개 - 피해 이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들. 주변인들로부터 2차 피해. - 성폭력생존자의 웃음의 의미와 무게 - “완벽한 피해자” 칭찬 아닌 강요 - 용서를 강요하는 사람들 - 가해자 주장 속 피해와 망상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말 직전에 불참 연락이 와서 대기자에게 기회가 가지 못함. - 신규신청자가 적음. 이번 달 3명 채우지 못함. SNS 홍보 해볼 수 있을 것. 상담소 SNS 외에 홍보처 고민필요. - 인원이 적으니, 서로의 이야기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충분히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좋음. - 2시간동안 진행한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었으나, 대관시간이 지나 서둘러 정리함. - 활동가 식비는 전체 다과 및 식비에 포함시켜 6시에 미리 샌드위치로 제공요청했고, 이전까지 준비하던 음식분량은 그에 맞추어 조절해달라고 요청드림(다음 달에 인원 연락 시 다시 리마인드할 필요가 있음)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5	7/26	395빵집	노선이 /박지희	노선이	9명	- 안전한 곳에서 자신의 피해를 말하기 - 나에게 작말의 의미 - 서로 위로, 응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상황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부른 말과 판단(피해로 인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의 무서움을 통감함. - 연령이 높고 최근 사회문화 상황 정보 업데이트 안된 참여자가 여러 가지 이슈(간통죄, 여성의 노출, 피해로 인한 임신 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하며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상황에 적절하지 않아 끊어야 하는 상황이 몇 차례 발생함. 활동가들은 긴장 상태로 필요시 개입.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6	8/30	395빵집	박지희/ 윤경진	박지희	9명	- 자기 소개 - 법적처벌 이후 가해자 대응 - 2차가해에 대한 각자의 경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자 3명있어 어수선한 분위기. 화장실에 가는 일도 잦았음. - 자유롭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음. - 첫 발언자가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후로 차분한 상태로 분위기가 지속됨. -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고 싶은 다른 참여자가 활동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제스처를 계속 보냈고, 활동가가 간략히 스토킹의 부합되는 요소가 따로 있음을 설명하여 상황정리 함. - 이후 2차가해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눔. 개인 신상(결혼 유무)등에 대한 참여자끼리의 질문이 있었으나 기존 참여자들이 이 공간의 약속을 들어 잘 정리해주심.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7	9/20	395빵집	박지희/ 김미현	박지희	8명	- 자기 소개 - 피해 후 후유증과 자책감 - 친족성폭력과 가족의 태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대부분이 시간에 맞춰 참석하였고, 집중도가 좋았음. - 대화의 분배 적절하게 분배되었음. 적절하게 피드백이 오갔고 화두를 던지면 그 점에 대해 생각을 전하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되었음. - 기존 참여자들이 이야기에 적절하게 개입하여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었음. - 추석연휴로 인해 한 주 앞당겨 진행된다는 것을 공간(395빵집)에 사전에 알리지 못해, 난색을 표하였으나, 급히 준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준비해 주신 간식이 정갈하고 맛있었음. - 신규참여자들의 작은 말하기 참여가 평소보다 높았고 말하기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음.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8	10/25	395빵집	노선이 /박지희	노선이	8명	- 자책감이 들게 하는 말들 - 경계짓기 어려움과 경계를 넘을 때 대응

						- '이미 버린 몸'이라는 생각과 자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참여자들은 처음 적응하는데 30분~1시간 정도가 필요함. - 어린 시절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의 주체성이나 판단능력에 대해 낮게 평가하는 말들도 있었음. 그러나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이해는, 부족한 말이지만 공감과 위로의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해당 참여자에 대한 비판이나 이의제기는 없었음. -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인 자신을 용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참여자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과 응원을 보내는 참여자들의 마음이 전해짐. -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직면하는 태도를 가지기 어려워하는 참여자들에 대해 직면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응원하기도 함.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9	11/29	395빵집	노선이 /박지희	노선이	1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들의 '치료목적 스킨십'의 불편/불쾌 - "왜 이제와서?". "왜 이제야?"라는 익숙지만 아프고 식상한 비난 - SO what do you want? -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삶 - "복잡한사람"論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마지막 신청자가 4일 전에 접수. 미리 마감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작말이 필요한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었음. - 신규참여자들에게 사전에 전화통화를 통해 안내한 것이, 실제 작말 참여시 긴장감을 낮춰줄 수 있었다는 참여자 평가. - 노쇼나 취소 없이 신청자들 모두 정시 이전에 도착하여 다과를 즐기며 시작할 수 있었으나, 초반 10분 정도 1층에서 다소 산만한 소음들이 있었음. -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됨. 각자 발언 시간과 양이 골고루 분산됨. - 특히 신규참여자들이 보여준 생각의 깊이가 다른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줌. 					
회	날일	장소	담당	진행	참여인원	주제
10	12/13	이안젤라홀	노선이 /박지희	노선이	18	- 2023 작말 송년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전원이 참석하여, 화기애애하고 서로 힘을 주고 받는 송년회 자리가 되었음. - 장기자랑 순서가 있었으나, 장기자랑을 신청했던 참여자들이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여, 준비해온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대체하였음. 기존에 블라인드 선물 교환 방식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는지, 어떤 이에게 전달되면 좋겠는지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각자가 준비한 선물이 더 의미있게 전달될 수 있었음. - 풍성한 음식 준비로 참석자 모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남은 음식들을 싸갈 수 있도록 개별포장된 음식들이 많아 남은 음식없이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음. 					

• 평가:

- 전철역과 가깝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공간임. 카페 사장님이 완전 비건식으로 다과 준비 시 메뉴 선정이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 상의를 요청하셔서 페스코 정도 가능한 식단으로 구성하실 수 있게 전달했

- 고, 메뉴판에 표시해달라고 요청하여 더 풍성한 식단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었음.
- 기존에 대관비 20만원으로 지출해왔으나, 운영지침상 10만원 상한선을 준수하기 위해 대관비를 낮추는 대신 식비(다과 포함)를 20만원으로 지출하고 있음. 카페 전체를 대관하고 메뉴 구성 및 식사 및 다과를 카페에서 제공해주는 만큼 회당 전체 비용을 낮추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운영지침 변경을 요청할 필요가 큼.
 - 홈페이지 및 작말 카페를 통해 작말 3주 전에 홍보하고 참여신청을 받고 있음. 예년에 비해 참여신청이 활발하게 빨리 마감되지는 않지만, 담당자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면 여석 없이 신청 완료되는 경향을 확인함.
 - 참여자의 발언 시간 조정이나 갈등 상황, 부적절한 발언 등에 대해 진행자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할지 항상 고민이 큼. 그러나 자조모임의 특성을 십분 살려 생존자들 간의 긴밀하고 솔직한 피드백이나 자유로운 말하기를 위해 진행자의 멘트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유지함. 15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상담소의 장수 프로그램인 만큼 획기적인 변화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두 담당활동가가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맞춰가면서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고, 논의와 고민을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참여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꾸준히 참여하는 3-4인과 오랜만에 참여하는 2-3인, 신규 2-3인이 유지됨. 활동가들에게는 사건지원과정에서 내담자와 나누기 어려운 진술하면서도 내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 내담자 지원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각자의 깊이와 울림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자리임. 생존자로서의 감정과 생각을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시키면서 언어화하고 생존자들과 나눔으로써 위안과 위로, 지혜와 감동을 나누는 시간임을 다시금 느끼며, 소중한 자조모임 작은말하기가 꾸준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
 - 향후계획 : 차년도 계획에 따름

3-2. 여성주의집단상담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에 걸림돌/디딤돌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함
- 목표: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일상을 원활하게 함
 - 생존자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역량강화를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활동	시기	세부내용
홍보	2~3월 중	참가자 모집
사전상담	4/10~4/14	1회기씩*5~7명 예상
집단상담	4/20~6/22	10회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씩)
사후상담	6/26~6/30	1회기씩*5~7명 예상

* 사전/사후상담 일정의 경우 변동가능성 있음.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경험을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식을 긍정하는 힘을 얻음
 - 집단상담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지기반 확보

• 진행내용 :

- 기획 및 홍보

시기	세부내용
1월	- 전체 기획 방향 및 일정 등 논의
3월	- 일정 및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확정 - 포스터 작업 의뢰(이서희 디자이너)
4/6~26	3/23 홈페이지 홍보시작 4/7 (모집연장) SNS(페이스북/인스타/트위터), 작말 카페 및 단톡방 홍보 총 8명 신청 완료

- 진행 세부 내용

제목: 20223 여성주의집단상담: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말하기

강사: 김은아(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상담심리학 박사)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일정: 5월 4일~ 6월 29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9회기 27일(화) 2-5시)

회기	일시	진행자	참여 인원	활동내용
사전	4/24, 26	김은아	8명	사전 상담 진행. 집단상담 참여자 8명으로 확정
1	5/4	김은아, 경진	8명	오리엔테이션 - 집단프로그램 구조화, 집단규칙 정하기, 비밀 보장을 위한 약속 서명, 이 공간의 약속 공유, 상담소 이용동의서 서명, 자기소개와 집단상담의 목표, 타로카드로 이해하는 나의 심리
2	5/11	김은아, 경진	8명	안전하게 성폭력 말하기 1 - 성폭력 피해 경험과 지금
3	5/18	김은아, 경진	8명	성폭력 피해 경험 만나기 & 지금 여기&에 미치는 영향
4	5/25	김은아, 경진	6명	안전하게 말하기 1-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5	6/5	김은아, 경진	7명	안전하게 말하기 2-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6	6/8	김은아, 경진	8명	안전하게 말하기 3-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7	6/15	김은아, 경진	7명	자원찾기와 자기돌봄 - 권력분석, 감정 접촉 및 표현
8	6/22	김은아, 경진	8명	자아의 신성한 원, 경계 세우기
9	6/27	김은아, 경진	8명	상처를 힘으로 전환하기, 가해자에 편지쓰기
10	6/29	김은아, 경진	8명	집단상담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종결)
사후	7/21, 24	김은아	8명	사후 상담

• 평가 :

<총평>

- 전년도와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중도 탈락자가 없던 것이 큰 성과임. 사전 상담 시 각자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기로 한 회기에 늦게라도 참석하는 등 참여자들의 열정으로 무사히 회기를 마칠 수 있었음.

<사전상담>

- 전년도 평가 시 동일프로그램 1회 이상 참여신청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 논의되었으나, 홍보 시 공지가 되지 않아 이전 참여자가 재신청함. 재신청자에게 사전상담을 통해 개별상담지원도 가능하다는 선택지를 안내했으나, 관계 회복이 주 호소내용으로 집단상담 참여에 대한 욕구를 보였기 때문에 참여 결정함. 신청자에게 바로 참여불가 통보가 아닌 선택지를 안내하는 방식을 통해 신청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리더와 담당자도 논의할 시간이 확보되어 적절하게 참여 안내를 함. 이는 신청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줌.

- 사전상담을 통해 신청서에서 드러나지 않던 피해자들의 주 호소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
- 피해 유형으로는 친족성폭력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아동기 피해 경험이 많았음. 사전상담을 통해 진행 수위 등 사전에 조정할 수 있었음.
- 사전상담 후 리더와 담당자의 논의로 본 회기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음.

<진행>

- 유독 현재 사건이 진행 중(소송 등)인 피해에 대해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음. 리더가 적절하게 말하기 분배를 함.
- 신체화 반응을 보이는 참여자들이 몇몇 있었음. 리더가 적절하게 대응함.
- 몇몇 내담자가 딸-엄마 관계처럼 형성되기도 함. 이 관계가 우려되었으나 시간상의 이유로 리더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함. 추후 프로그램 계획 시 중반회기에서 리더와 담당자의 회의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담당자의 역할로는 회기를 시작하고 참여자들의 자기개방이 되지 않을 때 담당자가 피드백을 주는 등의 적절한 개입을 함. 2인 모둠활동의 경우 짝이 맞지 않을 때 참여하기도 함.
- 부적절한 피드백(‘남자는 원래 그래’ 등)이 오가기도 했으나 다들 격하게 반응하지 않고 피드백을 한 사람에게 왜 부적절한지 설명을 하기도 함.

<사후상담>

- 참여자 각자가 안전한 집단을 유지하게 위해 하고싶은 말을 하지 못하기도 함. 한 참여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개인적 합의를 하였는데, 이 소식이 가해자에게 사과조치 받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발언을 자제했다고 함. 뿌듯한 감정을 사후상담에서 해소함.
- 이 외에도 각자 집단에서 다루지 못한 감정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 됨.

<기타>

- 리더의 경험으로는 타지역 상담소의 경우 활동가가 적극적으로 권해야지 집단구성이 되는데, 우리 상담소에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내담자의 자발성이 돋보이는 편이라고 함
- 향후계획: 차년도 계획에 따름

목표4. 더 나은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4-1. 사건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강화 기회 제공
- 사건 지원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상근활동가들과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나눔
- 타 상담소와의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연대망을 넓힐 뿐아니라 슈퍼비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목표: 사건 지원의 경험을 정리·공유함으로써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 역량 강화
- 방법 및 계획

분류	시기	내용
전문가슈퍼비전	4월, 9월	상담 사례의 성격에 맞는 슈퍼바이저를 섭외

		전문가 슈퍼비전 진행(상, 하반기 총 2회)
동료슈퍼비전	10월	타 상담소 교류 및 사례 슈퍼비전 총 1회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상근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지원방법을 논의함

- 담당자: 호랑 (하반기 전문가 슈퍼비전: 지희)
- 기대효과 : 상담 및 사건 지원 역량 강화와 활동가 소진 예방
- 진행 내용

분류	시기	내용
전문가 슈퍼비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4월25일(화) 2-5시 • 슈퍼바이저: 김지은 (상담공간 서로오롯 상담사) • [사례1] 데이트폭력 및 위력에 의한 간음 지속 지원 (발표: 경진) • [사례2] : 강간 피해 내담자 역량강화상담 지원 (발표: 감이)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9월22일(화) 2-5시 • 슈퍼바이저: 허심양 (사이와너머 상담사) • [사례1] 강간치상 사례 지속 지원 (발표: 지희) • [사례2] 해외 준강간 성폭력 사례 지원 (발표: 호랑)
동료 슈퍼비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1월3일(금) 3-5시 • 슈퍼비전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사례1] 준강간 및 카메라이용촬영 지속 지원 (발표: 호랑) • [사례2] 남성BJ에 의한 준강간, 강제추행 역고소 지원 (발표: 여파)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와 연관된 피해사례 1건에 대해 상근자회의에서 논의함

• 평가:

1) 전문가 슈퍼비전

- 상반기의 역량강화상담 사례는 상담팀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유익하였고, 데이트폭력 지속지원 사례는 최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가사라이팅에 대한 상담지원에 유익한 면이 있었음. 향후 슈퍼비전 내용을 바탕으로 역량강화상담 지원에 대한 가이드나 원칙을 세워볼 수 있을 것임. 하반기 슈퍼비전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및 라포, 신뢰 등에 관한 슈퍼비전을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에 필요한 원칙, 및 질문하기 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었음.
- 상담활동가들의 고충을 나누고 내담자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음. 경계선인격장애, 내담자에 대한 공감, 상담사의 소진 등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었음. 발표자들이 사안을 정리하고 내담자와의 만남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음.
- 상하반기 모두 기존 상담팀과 접점이 없었던 슈퍼바이저를 선정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심리상담연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상담팀이 슈퍼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팀 활동가의 속기 자원을 받아 원활이 잘 이루어졌음. 그러나 다른팀 활동가들이 배움이 시간을 놓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자원 의사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2) 동료슈퍼비전

- 불안피해, 젠더폭력 없는 스토킹, BJ에 의한 성폭력 등 디지털 성폭력의 특성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슈퍼비전 사례 이외에도 상담지원에 관한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네트워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담팀의 업무회의 및 상시적인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여, 더 나은 사건지원

을 위한 사례회의는 1회 진행하였음. 향후에도 필요한 사례 시 팀내 논의하여 전체 활동가들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함.

4-2. 자문회의

•배경/필요성 :

-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통합적 사건지원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목표: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하며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방법 및 계획 :

- 법률, 의료, 상담 분야 자문위원의 통합자문위원회를 3/9 개최
- 상시 자문 활성화: 사건지원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자문을 활성화하여 사건지원의 질을 높이고 연대함

팀 자문회의	3/9	- 법률, 상담, 의료 자문위원 - 팀 보고 및 안건 논의
--------	-----	-------------------------------------

•담당자: 지희

•기대효과 : 자문위원들과의 연계망을 공고히 하고, 상담과 사건지원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연대감을 높임

•진행내용 :

시기	활동	세부내용
2월	기획 및 준비	- 자문위원 명단 확인 및 개별 연락 - 안건논의
3월	준비	- 다과준비: 온라인 회의시 필요한 다과를 위한 기프트콘 발송
	자문회의의 진행	- 일시: 3월9일 (목) 저녁 7시~ 9시 - 장소: ZOOM회의실 - 참석자:(상담자문)김미랑, 조중신, 홍성희(법률자문)권정, 이은심, 이정선, 천정환, 원민경, 신수경(사무국) 김혜정, 최란 (상담팀) 노선이, 윤경진, 김미현, 박지희 - 안건및 논의내용: I. 보고안건 1. 자문위원 위촉 명단 2. 2022년 상담현황 3. 여성주의상담팀 2022년 활동 경과 및 2023년 사업 계획 4.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보고 5. 여성주의 상담 윤리규정 매뉴얼 II. 논의안건 1.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여성외 성별의 참여에 대한 논의 2. 형사공탁제도 시행 후 경과 공유 및 대응 방안 마련

		Ⅲ. 기타 안건
3월이후 ~	후속작업	- 자문위원 메일 발송, 논평 작성, 형사공탁특례제도 대응

• 평가:

- 상담(4), 법률(7) 총 11명중 9명이 참석하여 높은 참석률을 보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줌으로 진행하여 참여율은 높았으나 늦은 입실, 중도 퇴실이 있었고, 자문위원의 활발한 의견 나눔으로 속기 하는데 속기인력을 더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보고안건 중 여성주의 상담윤리 매뉴얼은 2021년도 30주년TF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여성주의상담팀 자문위원회, 사무국,이사회 상근변호사 검토를 거쳐 완안으로 처음 보고함. 매뉴얼에 대해 여러가지 추가 의견을 나누어 개정에 참고하기로 함. 논의안건 1안 <작은 말하기 여성 외 성별의 참여>는 기존의 공감대를 유지하면서 외연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좀더 세밀한 셋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고, 논의안건2안 <형사공탁제도(2022.12.9.시행) 관련>은 시행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체감되는 문제점을 나누게 되었으며 앞으로 기습공탁하게 되면 선고기일을 연기하는등의 피해자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함. 후속 사업으로 형사공탁제도 논평(6/12)을 내는 등 (신규사업) 2-4. 형사공탁 특례제도 관련 대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예년에는 야근식대로 사용한 활동가 회의비 부분을 자문위원회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오래 자문해주셨던 자문위원의 사임으로 의료자문위원이 공석이 되었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네트워킹을 시도해 보기로 함.

• 향후계획 : 차년도 계획에 따름

4-3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 개별 사례를 지원하는 당시에는 전반적인 사건 지원 흐름과 체계를 파악할 기회가 부족함. 사건 종결 후 전반적인 사건지원 체계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건 지원에 있어 시사점을 확인하는 등 각 활동가가 지원하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평가함.
- 지원자 외 사건지원 과정에 함께 참여한 변호사나 의료인의 평가와 의견을 들을 기회 또한 부족함. 이에 종결사례포럼 시 사건지원과정에 참여한 다른 주체들과의 의견 나눔의 자리도 마련하고자 함.

• 목표: 사건지원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 공유하고 이후 지원에 대한 전략 나눔

• 방법 및 계획 :

- 상담팀에서 논의 후 종결 사례 선정
- 피해생존자 및 사건 지원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또는 의료인과 함께 진행
-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반공개로 외화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 지원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 상담활동가와 조력자의 사건지원에 대한 역량강화

• 진행내용 :

분류	시기	내용
종결사례포럼	하반기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11월 17일 (금) 오후 2-4시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 진행: 박지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신아, 으니조, 유랑, 도경, 달별, 산, 경진, 호랑, 란, 해주 • 발표: 감이 <p>[사례] 직장 내 성희롱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개요 - 지원 내용 - 사건 쟁점: 성희롱 사건 신고 후 피해자 보호조치를 빙자한 불이익 조치 / 2차 가해의 실행 선고 가능성 - 지원자의 고민 - 여성주의 상담원리 적용 - 지원자 드러내기
--	--	--

• 평가:

- 본 상담소에서 지원 후 종결된 건에 대해 법조인, 의료인, 관련기관 종사자 등과 함께 종결사례 포럼을 진행하고자 기획했으나 종결을 기대했던 사건들이 여전히 법적 과정이 종료되지 않아, 당초 계획했던 형식(내담자를 함께 조력하는 법조인, 의료인 등 함께 참여유도)과 규모로 개최하기 어려웠음.
- 사건 지원과정에서 공론화와 다양한 연대를 조직했던 사례를 다루었음. 내담자의 구체적인 요청과 그에 응답하는 방법, 내담자와 함께 사건 대응에 대해 상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전략이 조정되는 등 사건지원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전략과 방법을 공유할 수 있었음.
- 특히 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후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의 대응 방법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더욱 잘 지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가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짐.
- 향후계획 : 차년도 계획에 따름

4-4. 여성주의상담 스터디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상담팀 내에서 여성주의상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스터디모임을 운영하여 여성주의상담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
- 목표 : 여성주의상담팀 뿐 아니라 상담소 전체 활동가들의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역량강화

• 방법 및 계획 :

- 상담팀 인원 필수 참여, 그 외 전체 활동가 중 스터디를 원하는 사람 참여
- 분기별 1회, 금요일 오후 2시~5시(일정 조정 가능)
- 1시간 발제, 2시간 질의응답 및 토론 등
- 2월 사전모임을 통해 분기별 주제 및 발제자와 세부 발제 주제 및 도서 선정

	시기	발제주제	발제 및 진행담당
사전모임	2월	-분기별 발제자 정하기 -도서목록 정하기	경진
1회	3월	-선정도서 읽고 대한 발제 및 토론	상담팀 활동가1
2회	6월		상담팀 활동가2
3회	9월		상담팀 활동가3
4회	12월		상담팀 활동가4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이해와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힘
- 진행내용 :
- OT를 통해 각각 활동가가 다른 활동가와 나누고 논의하고 싶은 책을 선정함.

- 발제 내용 및 진행 내용은 여성주의상담팀 구글드라이브에서 정리함
- 발제 담당자가 진행. 모임 전까지 각자 읽고 발제 자료 준비해옴.

회기	일정	발제주제 및 토론내용	발제자	참석자
OT	3/3(금) 14시	- 참여자 세부 기획 - 책 선정	-	
1회	4/7(금) 14시	1. 도서: 트라우마 -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주디스 루이스 허먼) 중 7장 치유단계, 8장 안전, 10장 연결의 복구, 11장 공통성 2. 내담자에게 있어 조력인의 역할 3. 활동가에게 일어나는 역전이	감이, 지희, 경진, 호랑	감이, 지희, 경진, 호랑
2회	6/9(금) 14시	1. 도서: 근대 영혼 구원하기 - 치료요법, 감정, 그리고 자기계발 문화(에바 일루즈) 중 2장 프로이트:문화혁신가, 4장 친밀성의 독재, 5장 고통의 승리 2. 성폭력 치유의 과정: 심리상담, 약물치료는 필수인 것인가 3.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언어들	감이, 지희, 호랑	감이, 지희, 경진, 호랑
3회	9/1(금) 14시	1. 도서: 두 명의 애인과 삽니다 2. '폴리아모리'란? 작가와 파트너들이 건강한 관계맺음 폴리아모리 개념에 대한 의견 나눔 3.(갑자기) 저출산 문제 논의	경진	지희, 경진, 호랑
4회	11/10(금) 14시	1. 도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 2. 역고소 관련, 가해자의 대응 등 -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 → 질병화에 대한 고민 - 법적대응 종결 ≠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지원의 종결. 이후에도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지의 대한 고민	감이, 지희, 경진, 호랑	감이, 지희, 경진, 호랑

• 평가 :

- OT를 통해 여성주의상담팀 업무를 하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같이 책을 선정하여 집중도가 높았음. 1, 2회 도서를 통해 신입활동가와 상담, 지원자의 역할 등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음.
- 상담팀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과 연관된 다양한 주제로 스터디가 진행됨. 기존 업무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이뤄지던 한정적인 논의를 넘어, 해당 시간을 통해 지원과정에서 겪는 내·외적 어려움과 피해자들이 직면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음.
- 차년도에는 계획 시에는 스터디의 목표와 필요성을 미리 수립하고 선정도서 확정 등 촘촘한 커리큘럼 구성이 요구됨.
- 향후계획 : 차년도 계획에 따름

4-5.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홀수년차(1,3,5년)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 5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1인의 활동가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팀업무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담당자: 감이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높임
- 진행내용 :

분류	시기	내용
소진예방 프로그램	상반기 (2~4월)	<활동가 소진방지 심리상담> - 기관명: 서로,오롯 - 일정: 2/24~4/11 총 7회기 심리상담 진행 (3/21,28 미진행) - 세부내용: 대외외상 증상 완화 등 초기 목표 달성하여 잠정 종결함
	하반기	<활동가 소진방지 국내 여행> - 일시: 11/27-28 1박2일 - 장소: 울산 라한 현대 호텔, 대왕암 관광 - 세부 내용: 휴식 및 관광

- 평가 : 활동가가 소진을 느끼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기 적절하게 인근기관으로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진행하였음. 추천받은 기관에 활동가가 직접 상담 경험해보면서 기관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남아있는 비용은 해당활동가에게 필요한 소진예방 여행프로그램으로 직접 기획하여 실행하였고, 만족도가 높았음.
- 향후계획 : 차년도 계획에 따름

목표5.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배운다.

5-1.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건지원자 양성 필요
 - 반성폭력 교육의 필요성 및 성폭력 관련 법, 지원체계, 지원내용의 대중적 확산 필요
 - 성폭력전문상담원 기본교육 실시에 대한 많은 수요
- 목표: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32기)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주의적 시각을 가진 사건지원자 양성
- 방법 및 계획:
 - 교육 기획: 2~3월 기획팀 구성 및 세부 기획 논의, 강사 섭외
 - 홍보: 5~6월 교육 홍보 및 수강신청
 - 성폭력 전문 상담원 기본교육 실시: 7월 주중 (10시-5시) 100시간 진행
 - 교육 이후 상담소 활동에 참여할 기회 고려 (법정 모니터링 소모임 등)
- 담당자: 감이/호랑/해주
- 기대효과 :
 - 여성주의 시각과 지원역량을 갖춘 독보적 사건지원자 양성
 - 사건지원 활동을 함께 할 페미니스트 연대자 풀 확인

• 진행내용 :

시기	활동	세부추진내용
2~4월	커리큘럼 기획 및 강사섭외	기획단 구성 (호랑, 감이, 해주) 커리큘럼 및 강사 논의 기획회의 진행 : 2/3, 2/22, 3/3, 3/14, 4/25 강사섭외 진행 및 강의의뢰서 발송 : 3/20 ~ 4/4
5월	홍보	기획회의 진행 : 5/17, 5/26 사전홍보물 제작 및 게시 : 5/4 홍보물 제작 및 수강생 모집 : 5/11 회원대상 알림톡+문자배포 추가 홍보(2차 홍보물 배포) : 5/23 홍보 협조요청 공문 발송 (23곳), 타 기관 홈페이지 직접 게시 인권운동더하기 등 메일링리스트 활용 뉴스레터 된다!상담소 6월호 중 상담소 Pick(광고) 단톡방 홍보(자원활동가, 작말) 부분수강오픈 안내. 홈페이지, SNS, 전체 회원 알림톡 등 : 6/14
	수강생 모집	수강생 입금 확인 및 안내 문자 발송 5/11~7/3 31명 신청 중 개강 전 취소 4명, 강의 도중 취소 1명 개강일 기준 27명 확정 (활동가 1명 포함) [부분수강] 총 11명(20강) 신청 중 입금 및 서류제출 6명(7강)
	강의안 취합	강의안 취합 및 자료집 제작 완료 6/21 미취합 강의안: 6강
6월	실무 준비	마포구청 보고: 6/16 자료집 인쇄 : 6/21 이안젤라홀 시설/공간 점검 : 6/28 명찰, 출석부 만들기 현수막 만들기 : 6/26 포스터 (2장), 추가 명찰 인쇄 : 보성사 수료증/이수증 만들기 : 7/24 강의만족도 조사 양식 만들기 강사 서류 출력 및 파일철, 안내메일 수강생 서류 출력 및 파일철, 안내메일 발송
7월	교육 운영	강의 운영: 7/3~25 (기획팀 내 1인 일별담당자) 다과준비 및 제공 소통: 오픈카톡방(7/3~), 감성게시판(7/6~), 강의만족도 문항(7/7~), 대 면 국민지원제도 출석부 및 관련 서류 제공: 7/25 수료식: 7/25. 총 26명 수료
8월	후속작업	마포구청 운영실적 보고: 7/31 강사비 지출: 7/10, 8/1 블로그 후기 업로드: 7/31

		기획팀 평가회의: 8/2 상근자회의 평가: 8/23
--	--	---------------------------------

- 최종 강의 프로그램 및 일정

일자	시간	강의	제목	강사
7/3 (월)	9:00-10:00	-	오리엔테이션	
	10:00-13:00	1강	여성인권과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4:00-17:00	2강	여성주의의 이해	김엘리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외래교수)
7/4 (화)	10:00-13:00	3강	남성성과 문화	손희정 (경희대 비교문화 연구소 연구원)
	14:00-17:00	4강	섹슈얼리티와 여성의 몸	김백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5 (수)	10:00-13:00	5강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	김효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4:00-17:00	6강	성폭력의 개념과 쟁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7/6 (목)	10:00-13:00	7강	강간죄 개정운동의 의미와 과제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 화운동팀 활동가)
	14:00-17:00	8강	젠더 관점으로 해석하는 성폭력 법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7/7 (금)	10:00-12:00	9강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 및 지원체계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13:00-15:00	10강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 및 지원 체계	조은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원장)
	15:00-17:00	11강	아동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장형윤 (경기남부 아동해바라기 센터 소장)
7/10 (월)	10:00-13:00	12강	수사재판절차의 이해 및 피해자권리 보장제도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 변호사)
	14:00-17:00	13강	성폭력 2차 피해와 역고소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11 (화)	10:00-13:00	14강	청소년 성문화의 이해	최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활동가)
	14:00-17:00	15강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여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7/12 (수)	10:00-13:00	16강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양선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
	14:00-17:00	17강	직장내 성희롱 피해 이해와 지원	최미진 (노무법인 다인 대표)
7/13 (목)	10:00-13:00	18강	낙태죄폐지 이후 재생산권에 대한 이해	얌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14:00-17:00	19강	이주여성인권과 젠더폭력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
7/14 (금)	10:00-13:00	20강	성매매산업의 구조와 성매매 상담 지원	혜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
	14:00-17:00	21강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와 폭력피해 지원	나무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활동가)
7/17 (월)	10:00-12:00	22강	공동체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13:00-15:00	23강	가정폭력 피해 이해와 지원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15:00-17:00	24강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및 스토킹 피해 이해와 지원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7/18 (화)	10:00-13:00	25강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치유의 이해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 마음 활동가)
	14:00-17:00	26강	성폭력 피해자의 산부인과적 지원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
7/19 (수)	10:00-13:00	27강	적극적합의 강의 및 워크숍	유량,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14:00-17:00	28강	법원방문 참관	
7/20 (목)	10:00-13:00	29강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I	김은아 (상담심리센터 위민 대표)
	14:00-17:00	30강	여성주의 상담의 이론 및 실제 II	
7/21 (금)	10:00-12:00	31강	친족성폭력피해의 이해와 공소시효 폐지운동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13:00-15:00	32강	성폭력 문화에 맞서는 자기방어훈련 I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5:00-17:00	33강	성폭력 문화에 맞서는 자기방어훈련 II	데조로 (피프티핏 대표)

7/24 (월)	10:00-13:00	34강	사건지원자의 태도와 역할 그리고 자기돌봄	감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14:00-17:00	35강	대상별 성폭력 상담 실습 I :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7/25 (화)	10:00-13:00	36강	관계별 성폭력 상담 실습 II : 친족, 직장내, 친밀한관계	경진, 감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14:00-15:00	37강	수료식	

• 평가 :

<총평>

-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선호 시대에 오프라인 교육으로 도전, 예년에 비해 홍보 초반 수강신청 저조로 상황 대응 논의가 있었지만, 교육준비팀의 결의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26명의 수료생 배출할 수 있었음.
- 기본교육 공급과잉의 시대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담소의 교육이 갖는 강점 발견하고, 특장점 개발의 필요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음

<홍보 및 수강생 모집>

- 30기(2019년) 홍보 당일 35명 마감, 31기(2021년) 홍보 당일 30명 이상 신청, 3일 만에 마감(온라인, 40명)이었던 것에 반해, 32기(2023년) 홍보 첫날 9명 신청에 그쳤고, 7일 내 16명 신청으로 모집 목표 인원 35명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로 현 정부의 여성가족부의 존재 위기 경세가 반영된 측면으로 볼 수 있고, 5~7월 사이 시작되는 다른 기관들의 기본교육이 동시에 열려 수강생들의 선택지가 다양해진 면이 있으며, 3년간의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의 선호가 높아진 것 또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해 볼 수 있음.
- 위와 같은 수강생 모집의 어려움에 대해 상근자회의에서 상황 공유하였고, 목표 인원 미달 시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기획팀의 결의로 다양한 홍보 전략 동원하여 수강생 27명으로 교육 시작할 수 있었음. 상담소 회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처음으로 부분수강을 오픈하였는데, 수강인원 부족에 따른 수입이 보충되는 효과 외에도, 본 교육에 대한 새로운 수요층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수강생 확보를 위해 연초에 교육 일정을 확정하여 공지하는 것과 더불어 본 상담소가 진행하는 기본교육의 특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 이번 교육 기획팀의 목표는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여 주변인들에게 적극적/자발적으로 본 교육과정을 홍보할 수 있게 하고, 교육 후기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커리큘럼 구성 및 강사 섭외, 강의내용>

- 예년보다 초기 기획회의를 일찍 시작하여, 강사 섭외와 관련해 고민하고 논의할 시간을 가짐. 전차 교육의 강의평가 등을 참고하여 기존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특별히 <적극적 합의 워크숍>을 추가하여 상담소 교육의 특성을 살리고자 하였음. 기본교육에 맞는 좋은/새로운 강사풀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수강생 피드백 상 대상/유형별 구체적 사례 지원 방법이나 토론회 강의구성에 대한 요청이 많이 확인됨. 기획단계에서 각각의 강의에서 깊어야 할 내용, 강의 방식 등을 조금 더 촘촘히 논의하여, 강사 섭외 시 의뢰할 강의내용과 구체적 요청사항을 키워드 혹은 개조식으로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강사에게 강의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전달사항 (장비사용, 수업시간/쉬는시간, 수강생 정보 개괄 등)은 강의 전일과 강사 맞이 시에 안 내필요. 전 시간 강의 중 중복예상되는 내용 등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집 비치도 필요해 보임.
- 매 강의 후 수강생 만족도 조사 진행하였고, 평균 6~70% 응답률을 보임. 객관식 답변은 강사에 대한 만

족도를 수치화한 부분으로 매우그렇다(5)부터 전혀그렇지않다(1)까지 점수로 환산한 결과, 강사별로 최저 4.02점부터 최고 4.8점까지로 전 강의평균 4.46점으로 집계되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조사 내용 중 주관식 작성 부분을 취합하여 개별 강사들에게 배포함. 이후 강의에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피드백 공유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강의 운영>

- 이안젤라홀에서 장시간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환기가 어려운 공간의 특성상 공기질 개선, 개인간 안전 거리 확보 등의 측면에서 적정 인원수는 30명 이내일 것.
- 준비팀 3명이 모두 강의공간에 상주하기 어려워 일별 1명의 담당활동가를 정하여 강의시작 전/후 공간 점검 및 세팅과 강사 맞이 인사와 배웅, 강의 도중 도움 필요상황 대처 등의 실무를 맡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누락될 수 있는 점검사항을 매뉴얼화함. 그러나 강사 맞이와 안내, 배웅을 놓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일별로 강의공간 담당과 강사전담을 나누어 역할분담할 필요가 있겠음.
- 같은 공간에서 매주 정기적인 열림터의 운동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주 1회 책상을 모두 치우고 청소함. 위생적인 공간운영에 큰 도움이 되었음. 이후에도 주 1회 공간 청소가 필요할 것이라, 청소업체에 협조 구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부분수강자들은 입금 및 관련 서류 제출, 출석, 강의자료 배부 등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많았음. 부분수강을 오픈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교육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홍보효과도 컸기 때문에,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부분수강을 운영할 것을 권함.
- 명찰방식의 이름표 대신에 메모홀더를 이용하여 이름표를 시도함. 강사분들도 수강생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음. 수강생들간에도 이름을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뒷면에도 이름을 넣으면 좋을 것임. 다만 이름표가 습기에 잘 휘어져, 조금 더 단단한 용지로 제작 필요.
- 운영지침 상 출결에 대한 기준은 단 한줄 “90%이상 출석 시 수료”임. 때문에 가족상 등 결석이 불가피한 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의 점검이 필요함.

<예결산(다과/환불 등)>

- 다과준비는 30기(오프라인) 자료를 참고하여, 비건/논비건 구분하여 식빵과 채소스틱, 과자, 과일 등으로 준비하였음. 가공식품은 교육 시작 전 예산/인원수 고려하여 미리 구비하였고, 신선식품은 필요시마다 구매하였음. 첫 한 주동안 예상보다 많은 분량이 소진되어 차주부터는 상황을 살피면서 제공하여 부족함은 없었음. 세팅하는만큼 소진되기 때문에, 인원수를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세팅할 필요가 있음.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 이후에 준비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기존 예산은 35명 기준으로 운영된 30기교육 예산이었으나, 큰폭의 물가인상으로 적은 인원이었으나 소액의 초과분 발생하였음. 이후 교육 준비시 다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임.
- 환불이나 영수증 발행 등에 대한 문의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준비팀 논의 후 강의종료시점에 일괄발행으로 정하여 일원화된 정보를 안내할 수 있었음.
- 수강인원이 적어서 적자를 예상했던 시기. 실제로 결산해보니 수익 발생함. 강의비 산출 시 내부 강사 인원을 생각해보지 못한 것. 내부강사 풀이 많다는 긍정적 평가.

[기타]

- 상담팀 내 2인이 준비팀에 있어, 상근활동가들의 양해를 얻어 3주간 상담부스에 상근활동가를 주1일 추가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부스 운영을 할 수 있었고, 상담팀 활동가들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일조함.
- 마지막 차수에 코로나 감염 인원이 발생(1명+1명+2명)하여 온라인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함. 긴급 상황에 빠른 판단과 대처가 긍정적이었으나, 실제 운영할 때 줌에 익숙한 활동가를 일별 담당으로 배치하는 등 좀 더 세심한 조정이 필요했음.
- 회원 가입자 (4명), 후원회비 <페미본색>과 시기적으로 인접해있어 수강생 중 후원자가 많았음. 상담소 멤버십을 높이는 기회.

2023 성문화운동팀 활동 평가

2023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불황과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동의와 관련된 생존자, 여성들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 주체성을 기록하고 의미화한다. - 친족성폭력 가시화 및 공소시효 폐지 운동을 함께 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연결망을 만들어 간다. - 시대에 굴하지 않는 활기있는 문화운동을 지지하지 않고 해간다.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치에 책임 요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 운동 이후의 성적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 폐기, 동의/적극적 합의 활동을 해간다. - 여성가장부 폐지, 성폭력 문제의 보수화 및 사법화 등에 현장의 언어와 논리로 대응한다. - 차별에 맞서는 다양한 영역의 동료 시민들과 연대의 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낸다.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문화운동팀의 활동이 잘 보이게, 들리게 한다. - 구성원 및 역할 변동이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결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적으로 진보적이고 성폭력/성차별 및 소수자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2030세대 여성 시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 방법 등을 모색한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성적 동의 담론을 심화하고 성적 권리를 재구성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 담론과 언어의 지평을 확대한다.</p> <p>목표2. 성평등·성폭력 관련 정치적 퇴행에 맞서고 생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p> <p>목표3.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 하는 동료 시민들과 차별과 혐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든다.</p>	
총평	
<p>- 친밀한 관계 동의 인터뷰,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 생존기념축제 등을 통해 여성,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장을 열어 냄. 페미니즘 및 사회운동에 대한 적대와 실질적인 반격이 이루어지는 정권 하에 활기 있는 문화운동을 해나가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활동 사업에서 이를 풀어내기는 쉽지 않았음. 하지만 성폭력 관련 이슈들에 반성폭력운동 현장의 언어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으며 여러 반차별 운동 및 인권탄압의 현장에 연대하고 연결하며 목소리 내었음(전장연 지하철 시위, 이슬람 사원 반대에 반대하는 현수막 걸기, 아이다호 등)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p>	

는 2030 여성들과의 연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활동은 없었으나 성문화운동팀의 여러 활동에서 이들의 목소리, 참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올해 성문화운동팀은 인원구성의 변동이 있었고 경험과 연차가 다양한 활동가들로 구성되면서 새로운 시너지가 만들어짐. 사업 담당자가 기획, 실무로 오롯이 가져가기 보다는 기획부터 세 활동가가 머리를 맞대는 경우가 더 많았음. 또한 한 사업에 2인 이상 담당자를 두었음. 그렇다보니 각자의 의견과 경험의 더욱 팀 내에 환류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음. 여전히 연대활동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고민이 되는 지점임. 최소 한 사람은 업무에 공백이 있어야, 그때 그때 유연한 업무 재배치를 할 수 있고, 이슈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 함. 서로가 잘 협력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유의미한 성취와 보람이 남을 수 있는 방식의 업무 분장을 계속 고민하며 내년에도 반영해야 할 것임.

목표1. 성적 동의 담론을 심화하고 성적 권리를 재구성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 담론과 언어의 지평을 확대한다.

1-1. '여성'의 삶으로 재구성하는 성적 권리, 적극적 합의

• 배경/필요성

현재의 성적 동의 담론은 여성에게 확실한 응답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며, '성폭력은 동의 의사를 확실하게 말하지 않은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또 다른 피해자 책임론, '성폭력은 애초에 없었고 여성의 변심만 있었을 뿐'이라는 성폭력 부정주의가 널리 퍼져 있음.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의 솔직한 경험과 생각은 이야기되기 어려움. 여성운동/여성주의 담론장 안에서도 '동의'는 활발히 이야기되지 않아 왔으며 주로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법적 판단의 쟁점으로서 논의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또는 성폭력예방교육의 차원에서 교육적 의제로 주로 확산되어 왔음. 그러나 '여성의 동의' 문제가 사법적인 판단의 언어로만 이야기 되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은/않을 것 같은 모든 비동의 성적 경험은 마치 없는 것처럼 침묵되거나, 성폭력 법적 인정의 요구로만 귀결될 수밖에 없음. 성적 동의 능력이나 협상력이 교육을 통해 개별적으로 강화하거나 의사소통을 잘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도 있음. 성폭력 법적 판단과 성교육 문제를 넘어 여성들의 삶과 경험 속의 다양한 성적 동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적극적 합의'를 위해 필요한 삶의 권리와 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여성 인권의 관점으로 성적 동의 담론을 심화하고, 사회 변화의 패러다임으로 적극적 합의를 확산한다.

• 방법 및 계획

연구활동가 네트워킹	- 성적 동의 스터디 (4회) - 이달의 리뷰 발행 (4회)
여성 및 생존자 심층 인터뷰	- 심층 인터뷰 기획 및 자문회의(1회) 심층 인터뷰 (20회)
'여성'의 경험 해석하고 공유하기	- 심층 인터뷰 분석 자문회의 (1회) - 결과공유회 (1회) - 자료집 발행 (100부)

• 담당: 신아/동은

• 기대효과

- 성적 동의를 중심으로 반성폭력 운동 담론과 언어의 지평을 확대함
- 추후 단행본 작업의 초석을 마련함

• 진행내용

구분	진행						
공모사업 실무	3/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신청 3/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 인권증진활동 지원사업 선정 3/30 국가인권위 지원사업 선정단체 대면교육 4/17 사업 변경 신청서 제출 5/3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 수료 5/9 국고보조금 사업비 1차 교부 5/25 1차 사업변경 신청 승인 6/26 중간보고서 제출 7/11 인권위 현장 방문 7/14 2차 사업/예산 변경 신청 8/25 국고보조금 사업비 2차 교부 9/20 3차 사업/예산 변경 신청 10/19 4차 사업/예산 변경 신청 10/24 5차 사업/예산 변경 신청 10/31 집행 완료 11/22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11/30 최종 보고서 확정						
연구활동가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동의 스터디(6회) - 내용: 인터뷰 기획 및 분석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성적 동의와 성적 권리에 대한 공부와 토론을 함. - 참여: 호연(10대 성인권 교육자,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연구원), 이산(성평등작업실 이로), 동글(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동은, 신아, 유랑(성문화운동팀), 오매, 란(사무국), 상담팀(호랑) 세부 진행 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일정</th> <th style="width: 30%;">주제</th> <th style="width: 55%;">읽은 것</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2/23</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성적 동의는 어떻게 실천, 이해되고 있을까?</td> <td> - 한국성폭력상담소(2022),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 김채은(2021), ‘20대 남녀의 성적 동의(sexual consent)에 대한 인식과 실천,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2013) “모텔 이야기”: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모텔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 양동욱(2019)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과 설득에 의한 성관계 동의 수준 평가의 성차: </td> </tr> </tbody> </table>	일정	주제	읽은 것	2/23	성적 동의는 어떻게 실천, 이해되고 있을까?	- 한국성폭력상담소(2022),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 김채은(2021), ‘20대 남녀의 성적 동의(sexual consent)에 대한 인식과 실천,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2013) “모텔 이야기”: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모텔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 양동욱(2019)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과 설득에 의한 성관계 동의 수준 평가의 성차:
일정	주제	읽은 것					
2/23	성적 동의는 어떻게 실천, 이해되고 있을까?	- 한국성폭력상담소(2022), 성적 동의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조사 - 김채은(2021), ‘20대 남녀의 성적 동의(sexual consent)에 대한 인식과 실천, 석사학위논문 - 이안나(2013) “모텔 이야기”: 신자유주의시대 대학생들의 모텔활용과 성적 실천의 의미 변화’ - 양동욱 (2015). 성행동 상황에서 여성의 거절 이유 평가의 성차. - 양동욱(2019) 성관계 제안을 거절당한 사람의 행동 양상과 설득에 의한 성관계 동의 수준 평가의 성차:					

		연인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0)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3/30	여성은 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될까?	- 에바 일루즈(2020) <사랑은 왜 끝나나> - 캐서린 엔젤 (2022), <내일의 섹스는 다시 좋아질 것이>
4/27	미투운동 이후 '남성의 권리'는 어떻게 피해자 권리에 맞서게 되었는가?	- 아미아 스리니바산 (2022) <섹스할 권리> - 케이트 만 (2021) <남성 특권>
6/1	'성적 취약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불처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사회에 던지는 페미니즘 선언> * 성매매인권행동 이룸 활동가들과 불처벌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 - 참석: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활동가) 노랑조아, 나나, 혜진, (성적 동의 스터디팀) 호연, 이산, 신아, 동은, 유랑, 호랑,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경진, 달별
6/29	'성적 동의'는 성적 권리 담론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을까?	- <수치: 반대하지만 단일하지 않은 성폭력의 역사>
7/31	'동의'를 의제화하기, 현재와 고민	- 강간죄개정연대 릴레이 리포트 - 강간죄개정연대 국회 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07.25.) 자료집

- 이달의 리뷰 발행 (4회)
- 내용: 성적 동의의 스터디 발제, 토론을 기록하여 읽을거리로 발행함.
- 세부 진행 내용:

이달의 리뷰			해당 스터디
제목	대표 링크 (홈페이지)	발행일	회차 및 일정
성적 동의와 남성 특권	https://www.sisters.or.kr/activity/action/6807	05.24.	3회차(04.27.)
법에 갇히지 않고 법개정 운동하기 : 한국성폭력상담소X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처벌> 간담회	https://www.sisters.or.kr/activity/action/6876	07.18	4회차(06.01.)

수치심과 정의	https://www.sisters.or.kr/activity/action/6946	10.01.	5회차(06.29.)
동의를 의제화하기 - 현 재와 고민	https://www.sisters.or.kr/activity/action/6972	10.30.	6회차(07.31.)

- 확산 정도(2023.11.22.기준)

제목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성적 동의와 남성 특권	조회 1262	도달 206 참여 21	노출 562 참여 18	도달 693 좋아요 43
법에 간하지 않고 법개정 운동하기 : 한국성폭력상담소X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불처벌> 간담회	조회 960	도달 287 참여 21	노출 706 참여 28	도달 443 좋아요 33
수치심과 정의	조회 473	도달 609 참여 53	노출 426 참여 11	도달 625 좋아요 51
동의를 의제화하기 - 현 재와 고민	조회 169	도달 542 참여 17	노출 417 참여 6	도달 464 좋아요 17

여성 및 생존자 심층 인터뷰

- 심층 인터뷰 기획
기획 회의: 5/22, 5/30, 6/2, 6/7
- 심층 인터뷰 기획 자문회의
일정: 6월 29일(목) 오후 4시-6시, 한국성폭력상담소 1층
참여: 회정 (『일할 자격(2023)』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외 작가),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10대 성인권교육자), 이산(성평등작업실 이로 대표), 김신현경(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서면으로 대체))
주요 내용: 인터뷰에서 어떤 경험을 들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 '여성의 동의 경험'을 어떻게 호명해서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할 것인지에 따라 듣게 되는 경험과 언어가 다를 수 있음. (예 -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원치 않은 성관계, 시간이 지나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망한 성관계, 이게 맞나 고민된 성관계 등), 인터뷰 대상의 범주에서 취약성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인터뷰 진행의 방법·태도·장소, 인터뷰 참여자의 생애 전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질문 방식에 대한 논의 등
- 심층 인터뷰 참여자 모집
대상: 친밀한 관계에서 '동의'가 고민된 적 있는 여성
규모: 15명
일정 : 2023년 7월 6일(목) - 16일(일) (10대 여성, 장애 여성 추가 모집 진행)
모집 방법 :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소식지 및

	<p>회원 문자를 통한 대중 홍보, 유관 단체 협조 요청(3곳) 및 활동가 주변 홍보</p> <p>- 모집 결과 :</p> <table border="1" data-bbox="312 276 1149 425"> <tr> <td>- 연령별: 10대 3명, 20대 4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2명</td> </tr> <tr> <td>- 지역별: 서울 13명, 서울 외 지역(경기도, 충북) 2명</td> </tr> <tr> <td>- 성별 정체성: 시스젠더 여성 14명, 젠더플루이드 1명</td> </tr> <tr> <td>- 성적 지향: 무성애 1명, 동성애 2명, 범성애 1명, 이성애 11명</td> </tr> </table> <p>· 심층 인터뷰 진행</p> <p>인터뷰 기획 취지, 질문의 내용, 참여 중단의 권리, 자료 보관 및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서면 동의 후 진행함.</p> <p>최초 인터뷰는 대면으로, 추가 인터뷰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p> <p>인터뷰 진행 세부 일정: 7/20, 7/24, 7/26(2회), 7/31(2회), 8/1, 8/2, 8/4, 8/6, 8/8, 8/17(2회), 8/20, 8/22, 8/23(2회) 8/28, 9/24, 9/28, 총 20회</p> <p>인터뷰 녹취록 작성: 가을, 너굴, 연주, 이산,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진행</p>	- 연령별: 10대 3명, 20대 4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2명	- 지역별: 서울 13명, 서울 외 지역(경기도, 충북) 2명	- 성별 정체성: 시스젠더 여성 14명, 젠더플루이드 1명	- 성적 지향: 무성애 1명, 동성애 2명, 범성애 1명, 이성애 11명		
- 연령별: 10대 3명, 20대 4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2명							
- 지역별: 서울 13명, 서울 외 지역(경기도, 충북) 2명							
- 성별 정체성: 시스젠더 여성 14명, 젠더플루이드 1명							
- 성적 지향: 무성애 1명, 동성애 2명, 범성애 1명, 이성애 11명							
<p>여성의 성적 동의 경험 분석 및 공유</p>	<p>· 심층 인터뷰 분석 자문회의</p> <p>일정: 10월 10일(화) 오후 3시-5시, 한국성폭력상담소 1층</p> <p>참여: 최정 (『일할 자격(2023)』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의 작가),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10대 성인권교육자), 이상희(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위험을 감행하는 여성 : 데이팅 앱 ‘틴더’ 사용자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저자), 이산(성평등 작업실 이로 대표)(서면으로 대체)</p> <p>주요 내용: 구술 경험의 분석(분류, 구조, 명명 등)에 대한 의견, 분석에 포함되지 않은 경험에 대한 토론, 여성들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핵심적인 메시지에 대한 논의, 이번 인터뷰의 프로젝트의 의의와 과제 등</p> <p>· 결과공유회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p> <p>일시 및 장소 : 2023년 10월 26일(목) 저녁 7시-9시30분, 창비서교빌딩 50주년 홀</p> <p>홍보: 2023년 10월 13일(금)~10월 25일(수), SNS 광고(10.20.~10.25.)</p> <p>참석: 53명(스태프 포함, 신청: 64명)</p> <p>사회: 오매</p> <p>발표: 신아, 동은</p> <p>토론: 김신현경(서울여대 교양대학 교수) 나무(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호연(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p> <p>행사 준비 사항: 문자통역, 수어통역 제공, 휠체어 접근 가능한 공간 대여, 비건 다과 제공</p> <p>웹 포스터 디자인: 그래픽피엘에프GRAFIK P.L-F</p> <p>참여자 평가(26명 응답):</p> <table border="1" data-bbox="312 1528 1214 1704"> <thead> <tr> <th>번</th> <th>문항</th> <th>답변 (평균값: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0점)</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이번 결과공유회가 '동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td> <td>매우그렇다 19 대체로 그렇다 6 보통이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0 (평균값: 4.7점)</td> </tr> </tbody> </table>	번	문항	답변 (평균값: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0점)	1	이번 결과공유회가 '동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매우그렇다 19 대체로 그렇다 6 보통이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0 (평균값: 4.7점)
번	문항	답변 (평균값: 매우 그렇다 5점, 매우 그렇지 않다 0점)					
1	이번 결과공유회가 '동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매우그렇다 19 대체로 그렇다 6 보통이다 1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0 (평균값: 4.7점)					

2	각 발표와 토론이 주제에 맞게 적절히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그렇다 14 대체로 그렇다 10 보통이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0 (평균값: 4.5점)
3	행사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그렇다 18 대체로 그렇다 6 보통이다 2 대체로 그렇지 않다 0 매우 그렇지 않다 0 (평균값 : 4.6점)
	행사 진행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행사를 진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셨다면 더 집중력 있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 정말 많이 배우고 알아가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사 진행이 정말 좋았습니다. 수어 문자 통역을 비롯해, 의자도 편하고, 준비해주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비건 명시도 좋았습니다. - 자막 서비스 좋았으나 토론자의 전문적 용어 사용시 그 문장, 단어가 제공되지 않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 접수대 발표공간 청중의 자리 모두 잘 진행/세팅 되었던 것 같아요. 다만 1층에서 어디로 가는지 살짝 헷갈렸어요. 그래도 금새 포스터를 찾았어요. - 시간이 짧아서 아쉬울 정도의 즐거운 시간이었음. 다양한 접근성 고민이 보이는 세심 포인트가 존중 받는 느낌이라 좋았다 (계단 뿌셔 공간, 비건, 수어 통역) - 사진 촬영 미동의 스티커를 사진을 찍는, 편집하는 사람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크기가 크거나 잘 알아보는 색의 스티커면 좋겠습니다.
	결과공유회에 관하여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ex.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뷰 참여자들 각자의 환경은 다르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겪은 유사한 상황들이 동의와 성폭력의 경계를 고민해보게 하였습니다. 주체적인 성적 실천과 관계 맺기를 추구하지만 원하던 방식과 달랐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일맥상통하는 인터뷰 결과물들이 '비동의'의 고민에 한걸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녹취록을 풀고 취합하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결과공유회 자료가 미리 공유되고 행사 전에 조금이라도 읽어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장애여성공감 토론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발제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이야기가 좋았지만 레즈비언 관계에서의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습니다. - 이번 결과공유회 때 드러난 인터뷰의 내용은 앞으로 다

		<p>양한 각도로 외화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양한 인터뷰를 섭외하고자 했던 취지는 이해하지만 반면에 성적체성에 따라 해석이 다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목차로 분류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교육 자체가 10대에게 특히 폭력예방으로만 공급되는 환경 속 성적 동의, 해석 투쟁 지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됨. - 패널과 참여하는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다양한 상황에 놓인 여성의 세밀하게 다른 경험과 사례로 나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에 확장을 할 수 있게 됨. - 동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즐거움을 돌아보게 하는 렌즈, 윤리의 영역, 행동의 영역,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 - 동의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됨. 장애여성의 성과 시설에서 장애 여성의 성에 대해 보는 시각의 차를, 그리고 성폭력 교육에서 장애여성의 성폭력에 대해 더 공부하고 고민해야겠다고 느끼고 결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1) 플로어 토론을 들으며 페미니즘적 섹스는 여전히 추구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여성이 완벽히 준비된 섹스'로 상상되는 것이 문제 아닐까. 연구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그때 나는 거절할 용기가 없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것과 닿아있는 '그때 나는 실패했구나'(장공감 토론 참조) 라고 하는 것이 '동의' 담론에서 이미 2차적 주체로 밀려난 위치를 바꾸는 방법 중 하나 아닐까. 동의를 의지를 소유하는 것과 다른, 관계를 확보/조직하는 문제로 접근해보면 어떨까.2) 동이가 쟁점이 되는 관계가 동이의 대상이 되는 행위 밖 조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의식 큰 공감. 가족 학교 노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로 짚어 보면 어떨까. - 장애여성과 성소수자의 동의에 미치는 맥락이 좋았습니다.
	<p>한국성폭력상담소 또는 패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생많으시고 여성권리에 앞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소가 지향하는 가치와 행동에 늘 큰 지지를 보냅니다! - 감사합니다. - 최고예요! -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되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한 주제를 다뤄준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법조계 등 실천 영역으로 이번 연구가 어떻게 하면 확장될 수 있을까요 - 섭외하신 패널분들 너무 멋있고 나는 대화 모두 의미 있었습니다 하트 -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p>· 사후 자료집 제작 및 배포 제작 부수: 100부 인쇄물 배포: 온라인 신청 무료 배포(50부), 인터뷰 참여자 및 결과 공유회 토론자, 자문해주신 분들 등(33부) 자료집 목차 : 발표.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신아, 동은) 토론1.여성들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본 성적 쾌락과 위험, 그 이분법을 넘어서 (김신현경) 토론2. 장애 여성, ‘위험’한 몸으로 욕구를 드러내기, 동의하기, 거절하기 (나무) 토론3.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에 대한 토론문 (호연) 플로어 토론. 또 다른 챕터를 기대하며 자료집 디자인: 그래픽피엘에프GRAFIK P.L-F</p>
기타	<p>· 적극적 합의 교육 -광주여성민우회 성교육강사양성과정 일시 장소 : 4/18, @광주여성민우회 강사 : 신아</p> <p>-성폭력예방치료센터 활동가 일시 장소 : 4/20,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강사 : 동은</p> <p>-(방문워크숍) 양평원 X 이화여성학 ‘폭력예방 통합교육’ 강사양성 과정 일시 장소 : 4/26, @한국성폭력상담소 강사 : 동은, 신아, 유랑</p> <p>-중앙대학교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일시 장소 : 5/18 @중앙대학교 강사 : 동은</p> <p>-한국성폭력상담소 제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일시 장소 : 7/19 @한국성폭력상담소 강사 : 동은, 유랑</p>

	<p>- 카이스트 인권주간 적극적 합의 교육 일시 장소 : 11/8 @카이스트 강사 : 동은</p> <p>용인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시 장소 : 11/9 @용인성폭력상담소 강사 : 신아</p> <p>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활동가 일시 장소 : 12/12 @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p>
--	---

• 평가:

- 남성 중심적 경험과 언어로 성적 동의에 대한 비판적 담론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여성들의 성적 실천에서의 협상, 소외, 피해, 괴락 등의 경험과 해석을 ‘성적 동의’를 중심으로 드러내고 의미화 하였음. 동의의 조건으로서 다른 관계, 친밀성을 재구성 해야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성적자기결정권이 오히려 결정의 능력을 가진 이들의 선택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때 권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지점을 비판적으로 살피었음. 이를 통해 성적 동의 담론을 통해 다른 삶의 조건과 권리를 이야기 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이번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발전 및 심화하였음.
- 여성주의 연구자, 성인권교육 활동가, 성평등 활동 기획자, 장애여성 및 성매매 여성 피해자 지원 단체 활동가 등 연결된 현장 활동가들과 세부 사업 진행 과정(스터디, 인터뷰 자문, 토론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넓힐 뿐 아니라 추후 적극적 합의 담론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행위자들을 확인하였음. 또한 다른 인권 현장과 이야기 할 필요와 중요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음.
- 기획, 인터뷰 진행 및 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사업마감일에 맞춰 결과발표회를 진행하다보니 당일 행사에서 완성된 자료집을 배포하지 못하였고 당일 행사 실무에서도 점검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함. 홍보 기간이 짧아 관심있는 다양한 이들에게 소식이 닿지 못하기도 했음.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정부 기조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음. 이는 사업 변경시 작은 부분에서도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담을 해야하는 등 과도해진 행정 및 소통 업무량으로 이어짐.

목표2. 성평등·성폭력 관련 정치적 퇴행에 맞서고 생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정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2-1. 법·정책 대응 활동 체계 정비

- 배경/필요성: 성폭력 관련 법정책 사안 대응을 대표단과 성문화운동팀이 공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요청, 정보 공유가 대표단에게 집중됨에 따라 이슈의 선정과 대응의 판단을 대표단 중심으로 하게 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옴. 이러한 조건이 성문화운동팀 및 조직 전체에 법·정책 대응 역량이 고루 향상되기 어렵고, 상담소의 미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요인임을 확인함. 작년 성문화운동팀에서 법정책이슈 상시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을 진행했으나 조건의 한계가 극복되지는 않았음. 이에

성문화운동팀 내에 정책 담당 활동가 역할을 신설하고 대표단과의 상시 논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정책 대응 활동을 재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여성과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 운동을 더욱 원활하게 해가고자 함.

- 목표: 상담소의 법정책 대응 활동을 재정비함
- 방법 및 계획:
 - 성문화운동팀 내에 정책 담당자 지정
 - 대표단과의 상시 논의 체계 마련
- 담당자: 유랑
- 기대효과: 성문화운동팀의 법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함
- 진행 내용

구분	진행
상시 논의	- 논평, 원고, 기획 등에 대한 상호 피드백 진행 <회의> - 2/9 강간죄 개정 운동 전략 회의 (사무국) - 3/20 법정책 관련 교육 (사무국) - 7/13 <스토킹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법률개정안 살펴보기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제목 : 윤석열 정부 1년, 민생부터 민주주의까지 ‘거대한 퇴행’연속 토론회③ -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 일시 : 2023.04.28.(금) 14:00 ● 주최 : 정의당 ● 참여 : 유랑, 신아 ● 내용 : - 발제.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 토론1. 경경윤(민주노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토론2. 문유진(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 토론3.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기자회견 연대발언> ● 제목: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캠페인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젠더불평등을 폐지하라, 여가부 말고.” ● 일시: 23.05.10 ● 주최: 국제엠네스티 ● 참여: 유랑 ● 내용: - 캠페인 소개 - 연대단위 발언 : 최유경(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ERE),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지오(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장혜영(제21대 국회의원) - 주최단체 발언

	- 구호 제창 및 합성 액션
2024 총선 대응	4/21 총선 젠더정책과제 만들기 1차 기획회의(zoom) 구성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새움터, 여성환경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한부모연합, 포항여성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한국여성단체연합 6/14 2024 총선 젠더정책 상근자회의 논의 2024 총선 젠더정책 제출 ●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 시설 퇴소 성폭력 피해자 자립, 주거지원 정책 정비 ● 임신중지 접근성 및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9/7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토론회 (참여: 동은, 유랑, 신아, 파랑, 산, 오매, 자원활동가 가을, 너굴)
UN 자유권규약 시민사회 보고서	7/4 UN 자유권 규약 시민사회 워크숍 참여 7/25 UN 자유권규약 시민사회 보고서 관련 논의 (유랑, 오매, 한국여성의전화) 8/1 UN 자유권규약 시민사회보고서 제출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 규탄 긴급대응 (with 사무국)	10/10, 10/17, 11/3, 11/8 11/15, 11/22, 11/29 여성폭력 지원단체 피해지원예산 삭감 규탄 긴급대응 회의 10/30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및 시민사회연대단체(241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이동주, 정춘숙, 장혜영, 용혜인,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재정 위원장), 정의당 여성위원회 ▶ 진행순서 사회 :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순서(안)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 ((사)안양 ywca가정폭력상담소장)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함'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국회의원 발언(권인숙, 이재정, 정춘숙, 신현영,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장혜영

	<p>(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p> <p>현장단체 발언4_(사)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칼리</p> <p>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p> <p>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p> <p>기자회견문 낭독(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곽해전, 수원여성인권 동음 대표 정선영)</p> <p>퍼포먼스</p> <p>대중홍보 카드뉴스</p> <p>: 11/2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p> <p>: 11/28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② 디지털성폭력 피해자 지원 일방적 전환</p> <p>: 11/30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③ 1.17일에 한 명의 여 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 액 삭감?</p> <p>11/2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토론회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 한 방안 모색> 참여 및 피켓팅 액션</p>
--	---

• 평가:

- 법정책 담당자 신설로 현 정부 1년 평가와 내년 총선 시기에 맞춰 필요한 법정책 평가들과 과제 만들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음. 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며 법정책 담당자의 역할은 흩어져서 논의된 각 의제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됨. 이 작업이 이후 총선젠더정책 만들기 활동, UN자유권 규약 보고서 작성 활동과도 연결되어 잘 활용되었음.
- 대거 삭감된 2024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지원 예산안이 발표되어 대표단과 함께 긴급 규탄 대응에 참여하고 업무회의에서 관련 쟁점을 공유하고 논의함. 같은 피해지원현장이지만, 성폭력 외 다른 젠더폭력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연대하며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젠더폭력 통합지원체계의 상을 현장에서 만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낌. 모든 복지 분야의 예산을 감축하며 시민사회를 위축시키는 정부에 대응하며 해당 활동이 2024년 총선 대응과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 성문화운동팀에 정책 담당을 신설해 대표단과 상시 논의 체계를 만들고 법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에 맞게 적절히 수행함. 팀 내 모든 구성원이 자체 사업과 연대활동을 통해 법정책 관련 활동을 하지만, 팀 내에서 법정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관련하여 대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생겼다는 점에서 법정책 담당 신설이 의미 있었음.

2-2. 법/정책/판결/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 배경/필요성:

- 상담소는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정책/판결을 비판하고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변화를 만들어왔음. 성폭력 관련 법 제도의 제

개정, 성폭력 판단 및 양형기준, 피해자 지원 정책 및 가해자 처분 정책 등 새롭게 논의되는 관련 법/정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대응이 필요함.

- 2023년은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논의 지속,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의 변동, 2024년 총선, 정부 주도의 공공영역의 축소 및 시민단체에 대한 적대적 환경 조성 등이 여성/인권 관련 법제도,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법적 백래시 현상에 따른 위헌 소송이나 재심 청구 등 현안 대응 및 대안 입법 마련 논의 참여,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 변경에 따른 유의미한 판결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기임.

- 법정책 뿐만 아니라 성별규범과 가부장적 성문화를 바꾸기 위해 반성폭력운동 현장단체로서의 경험과 여성주의적 관점을 시의적절하게 알리고, 성평등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수준의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음.

• 목표:

- 사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회, 정부, 지자체, 수사재판부 등의 성폭력·성평등 관련 법정책 활동을 감시, 비판, 제안함.
- 시사각각 발생하는 다양한 사안에 여성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상담소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알려 여성 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

• 방법 및 계획:

- 성폭력 및 여성인권 관련 법/정책/판결/이슈를 모니터링
- 성명/논평(단호한 시선) 발행, 긴급 액션/기자회견/토론회 진행, 연대 조직 등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대응
- 학계, 운동계, 정책, 법률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여 필요한 반성폭력·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안, 강간죄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 법 제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 개진
-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협업/분담

• 담당자: 동은/신아/유랑

• 기대효과:

- 법·제도 제언의 필요성을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 구체적으로 소통하고, 반성폭력 의제 및 과제에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성평등 의제를 확산하고 공론화함.
- 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법/정책/판결/문화의 변화를 신속하게 팔로우업하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에 반영함.
- 반성폭력운동 현장단체이자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 관점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법/정책/판결/문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함.

• 진행 내용

구분	진행
법·정책·판례·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 방법: - 내용: 성폭력/성평등 관련 언론보도, 대법원 판례공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 세부 내용: · 모니터링 현황: 언론보도 모니터링 167개, 법/정책 63개, 칼럼/기고 12개, 판례 12개 (2023.06.26.기준) · 대응 현황(2023.06.26. 기준)
	일시 이슈 대응

	1/9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단호한 시선 (2023-01-11) “새해 계획이 ‘성평등 실종’, ‘가족주의 강화’ 라고? : 2023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쳐”
	1/25	양성평등기본계획 (2023~2027) 비동의 간음죄 도입 검토 법무부 반대, 여가부 입장 철회	강간죄개정연대 논평(2023-01-27) 류호정의원실 미팅(2023-02-09) 한겨레 슬랩 출연(2023-02-14) https://youtu.be/agjJs30obnA?si=AaHD9X14eCUUeSeS *사무국 공동대응
	2/6	박주민의원 등 11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단호한 시선(2023-02-16)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3/8	3.8 세계여성의날	세계여성의날 맞이 카드뉴스(2023-03-08) : ‘여성 지우는 세상과 싸우는 당신에게 여성주의 연구자가 건네는 이야기’ 발행 : 2022.12.27. 진행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살롱 3개 강연(김주희, 신경아, 이라영) 편집 가공
	3/27	법률신문 기사 ‘성폭행 허위 신고’ 안 통한다	상담소 외 50개 단체 공동성명(2023-03-30)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4/17	SNS 생중계된 10대 극단적 선택... 배경엔 ‘디씨 우울증갤러리’	이슈 대응 집담회(2023-06-14) 〈‘우울증’이 덜이 되지 않으려면: 우울증 갤러리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의 그물망 짜기〉 진행
	9/21	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 13877 판결	단호한시선(2023-09-27) /사무국 공동작성 “강제추행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 부쳐”
	9/25 ~	공원 성폭력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 긴급행동 <성평등 해야 안전하다> /사무국,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응
	· 내부 이슈 환류 -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 관련 협소한 대법원 판결 (2022도6278) 상근자회의시 소식 공유(디담돌) - <스토킹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법률개정안 함께 상근자회의시 검토 및 논의		
단호한 시선	2/16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쳐 3/30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한국성		

	<p>폭력상담소 외 50개 단체 공동성명)</p> <p>6/9 누구를 위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인가 - 제도 시행 반년, 무분별한 공탁 인정을 경계한다 (여성주의상담팀 작성)</p> <p>9/27 강제추행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 부쳐</p>																		
<p>이슈 대응 토론회</p>	<p>이슈 대응 집담회 <‘우울증’이 덜어지지 않으려면 : 우울증 갤러리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의 그물망 짜기></p> <p>일시 : 6/14(수) 19:30~21:30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사회 : 유랑(성문화운동팀)</p> <table border="1" data-bbox="336 687 1215 1031"> <thead> <tr> <th>순서</th> <th>내용</th> <th>발표자</th> </tr> </thead> <tbody> <tr> <td>발제 1</td> <td>우울증갤러리와 강간문화</td> <td>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td> </tr> <tr> <td>발제 2</td> <td>온라인 기반 성착취 대응하기</td> <td>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td> </tr> <tr> <td>발제 3</td> <td>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험</td> <td>호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td> </tr> <tr> <td>발제 4</td> <td>여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td> <td>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td> </tr> <tr> <td>발제 5</td> <td>우울증/트라우마 경험과 회복의 조건</td> <td>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사</td> </tr> </tbody> </table> <p>함께 이야기</p> <p>참여 : 44명 (활동가 신아, 동은, 유랑, 오매, 란, 달별, 도경, 경진, 산, 해주, 수수 포함)</p> <p>관련 보도 한겨레, ‘우울증’ 차단이 해법? ‘성폭력 놀이’ 온라인 문화 섯다운부터(2023-06-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6338.html</p> <p>후속 7/1 후기 발행 10/16 자료집 발행 https://sisters.or.kr/data/report/320</p>	순서	내용	발표자	발제 1	우울증갤러리와 강간문화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 2	온라인 기반 성착취 대응하기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발제 3	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험	호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발제 4	여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5	우울증/트라우마 경험과 회복의 조건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사
순서	내용	발표자																	
발제 1	우울증갤러리와 강간문화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발제 2	온라인 기반 성착취 대응하기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발제 3	10대 여성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험	호연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발제 4	여성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민아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제 5	우울증/트라우마 경험과 회복의 조건	최현정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사																	
<p>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 긴급행동 등 해야 안전하다</p>	<p>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 긴급행동 “성평등해야 안전하다”</p> <p>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21 집회 경로 사전답사, 사무국-성문화운동팀 공원성폭력 대응 논의, zoom 기획회의 - 8/22 집회 신고, SNS 홍보 및 보도요청 언론 배포 - 8/23 zoom 사전점검회의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추모 집회 및 행진

일시: 8월 24일(목) 오전 10시-12시

집결장소 : 관악구민방위교육장(서울 관악구 문성로 16다길 135)

참여 인원: 약 200여명

기획 및 제안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주최 : 90개 여성·인권시민사회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강릉여성의전화, 강북여성주의 문, 강화여성의전화, 공폐단단 :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꿈누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녹색당, 대구여성의전화,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 해일, 복면증언,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YWCA,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회 지부 동서울여성회, 서울여성회 지부 서대문여성회(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서울여성회지부 영등포여성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언니네트워킹,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은평여성회(준), 이레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연대, 인천여성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여성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여성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여성연대,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전주여성의전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녹지,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FOF, 진보당 여성-엄마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여성의전화, 출판사 여성주의, 탁틴내일,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의샘, 포항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젠더연구소, 화로, PIGS)

프로그램:

10:00-10:10 모두 발언, 이동안내, 출발

10:10-10:30 이동 및 추모의 시간 : 공원 입구 > 사건 발생 장소, 묵념 후 출발

10:30-11:50 행진 (사건 발생 장소 > 신림역 2번 출구 타임스트림 앞)

11:50-12:10 정리집회 발언 (1분 이내, 사전 신청 3-6명), 마무리 및 해산

후속

8/30 홈페이지 후기 게시 (자원활동가 가을 작성)

	9/15~10/5 사건의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시민 탄원서 조직 9/25, 10/13, 11/1 공판모니터링
--	---

• 평가:

- 반성폭력운동의 주요 이슈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논평, 집회, 미디어 출연,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며 현장의 비판적, 대안적 입장과 관점을 알려냈음. 이 과정에서 다른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시민들의 움직임(결집, 액션)을 만드는 역할을 함. 상담소 내부적으로도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논평 외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반응을 이끌어 내며 성문화운동팀 내부 활동가들도 효능감을 느끼고 대응력을 높이는 한 해를 보냈음. 이는 유연한 역할 분배, 업무회의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토론 등의 조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정책담당활동가가 예산감축 대응 등 대외협력활동을 해주었지만, 시기적으로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 및 친족성폭력 생존기념축제 사업이 하반기 과중 되며 하반기에는 이슈 대응이 원활하지 못했음. 흥기난동 등 여성대상폭력사건 및 인셀 현상, 제시카법 등 엄벌주의 기조와 공권력 강화, 여러 대법원 판결 등 이슈 논의 후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하였음. 그러나 내년도 총선과 함께 하반기 이슈 흐름이 - 엄벌주의(제시카법), 공권력 강화 등 -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대응 이어갈 수 있음. 여러 이슈 대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 공백 및 분배 관련 유연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음.

2-3.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 배경/필요성:

- 2019년부터 시작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작은말하기, 미투운동에서의 말하기, 자주적 액션, 책 발간 등은 친족성폭력의 문제를 보다 구조적, 입체적으로 알려왔고, 법적 시간과 법적 권리 제한에 맞서 정의 실현의 문제를 제기하였음. 2021년에는 생존자 그룹을 중심으로 매마토(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정기 1인 시위, 제1회 생존기념축제 등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의제로 하는 활동이 활성화, 본격화됨. 2022년에는 토론회를 통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목소리를 함께하는 여성학자/법률전문가/활동가 등 스피커를 발굴하는 한편, 제2회 생존기념축제를 통해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연대하는 다양한 영역의 단체들과 연결되며 친족성폭력 의제를 심화·확장하였음.
- 지속적인 생존자·활동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적 도전과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연대, 협력, 액션의 거점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수요와 기대가 존재함

• 목표: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촉구
- 자치적인 액션 그룹으로 모인 친족성폭력 생존자들과 지지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점으로서 역할

• 방법 및 계획: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관련 국회 논의 및 입법 촉구
 - : 생존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인권 단체와 함께 의제 확산
 - : 법안 발의 의원실, 법제사법위원회 방문
 - : 국회 토론회 진행 (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등 협력)
 - : 법무부, 여가부 등 관련 부처 역할 촉구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생존자 그룹의 활동 지원 및 상담소의 역할 논의
 - :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공모 사업 신청 및 수행 협력
 - :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기획 및 실행 협력

• 담당자: 동은/유랑

• 기대효과:

- 생존자와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 입법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 냄
- 친족성폭력 문제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뤄냄
- 생존자 그룹이 생존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반성폭력 활동가로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 및 지원함.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이슈 대응 및 전략 논의	2/16 <단호한 시선> 발행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2/20 jtbc 탐사보도팀 친족성폭력 관련 미팅(유랑, 동은, 여성주의상담팀 경진) 3/27 친족성폭력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워크숍 (w.사무국 오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연속 쟁점 간담회	[사전] 4/24, 5/9, 5/15, 5/26, 6/9, 6/12, 6/22, 7/4, 7/13 친족성폭력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기획회의(5/26 법률팀 기획단 합류) 6/9, 6/22 기획팀 회의 7/14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의원실 간담회 참여 요청 공문발송					
	[본행사]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사회 : 유랑, 동은(성문화운동팀) 대상 : 친족성폭력의 법제도적 해결을 고민하는 시민, 생존자, 피해지원자(사전신청)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일시</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5 / 1 6 (화) 저녁 7시 30분</td> <td>제목 : 공폐단단X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간담회 일시 : 5/16(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내용 1.공폐단단 활동 소개 및 입법 고민 나누기 2. 상담소의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역사 및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현황 공유 3. 쟁점 토론 참석 : 영서, 민지, 지안, 심이경(공폐단단) 신아, 유랑, 동은, 란,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td> </tr> <tr> <td>7 / 1 8 (화) 저녁 7시 30분</td> <td>제목 : 쟁점 간담회 1차. 가족 관계 내 '성폭력'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일시 : 7/18(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내용 1.법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2.법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3.공소시효 폐지 이후, 다른 사회적 기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td> </tr> </tbody> </table>	일시	내용	5 / 1 6 (화) 저녁 7시 30분	제목 : 공폐단단X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간담회 일시 : 5/16(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내용 1.공폐단단 활동 소개 및 입법 고민 나누기 2. 상담소의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역사 및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현황 공유 3. 쟁점 토론 참석 : 영서, 민지, 지안, 심이경(공폐단단) 신아, 유랑, 동은, 란,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7 / 1 8 (화) 저녁 7시 30분
일시	내용					
5 / 1 6 (화) 저녁 7시 30분	제목 : 공폐단단X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간담회 일시 : 5/16(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내용 1.공폐단단 활동 소개 및 입법 고민 나누기 2. 상담소의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역사 및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발의 현황 공유 3. 쟁점 토론 참석 : 영서, 민지, 지안, 심이경(공폐단단) 신아, 유랑, 동은, 란, 오매 (한국성폭력상담소)					
7 / 1 8 (화) 저녁 7시 30분	제목 : 쟁점 간담회 1차. 가족 관계 내 '성폭력'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일시 : 7/18(화)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내용 1.법은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2.법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3.공소시효 폐지 이후, 다른 사회적 기반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p>(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참석 : 26명 (신아, 수수, 산, 오매, 동은, 도경, 감이, 유랑, 호랑, 경진 상근활동가 10명/ 여성신문, 한겨레 기자 2명 포함)</p> <p>제목 : 쟁점 간담회 2차. '가족해방 프로젝트' 일시 : 8/3(목) 저녁 7시 30분~9시 30분 내용 1. 친족 성폭력은 왜 드러내기 어려울까?(심이경 <나는 안전합니다> 저자, 공폐단단 활동가) 2. 폭력의 구조로서 '이성애 정상가족 제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3. '정상가족'과 불화하며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참석 : 18명 (동은, 파랑, 도경, 란, 지희, 유랑, 신아 상근활동가 7명 포함)</p>				
	<p>[후속]</p> <table border="1" data-bbox="358 774 1215 1178"> <tr> <td data-bbox="358 774 563 919">공폐단단x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간담회</td> <td data-bbox="563 774 1215 919"> -5/31 [대화록] 가정의 달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해결을 여는 고민 나누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 -5/31 [기고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을 소개합니다! </td> </tr> <tr> <td data-bbox="358 919 563 1178">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td> <td data-bbox="563 919 1215 1178"> -8/1 [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8/24 공폐단단과 간담회 평가 및 하반기 활동 회의 -8/25 [후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2차 -1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자료집 발행 </td> </tr> </table>	공폐단단x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간담회	-5/31 [대화록] 가정의 달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해결을 여는 고민 나누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 -5/31 [기고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을 소개합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8/1 [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8/24 공폐단단과 간담회 평가 및 하반기 활동 회의 -8/25 [후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2차 -1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자료집 발행
공폐단단x한국성폭력상담소 내부 간담회	-5/31 [대화록] 가정의 달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해결을 여는 고민 나누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 -5/31 [기고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을 소개합니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8/1 [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8/24 공폐단단과 간담회 평가 및 하반기 활동 회의 -8/25 [후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2차 -1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자료집 발행				
제3회 친족성폭력 피해자 생존기념축제	<p>[사전]</p> <p>기획단 회의 : 10/6, 11/4, 11/11, 11/18 사전 답사 & 집회 및 행진 신고 : 11/2 홍보물 게시 : 11/11, 11/18 후원회원 대상 홍보문자 발송 : 11/15, 11/21 시민단체 홍보요청 공문 : 11/13 퍼포먼스 회의 : 11/7, 11/9, 11/19 사전부스 판넬 작업 : 11/20 보도자료 발송 : 11/20, 11/23, 11/25(사후) 생존자랑대회 물품 준비(가면 꾸미기) : 11/18</p> <p>[본 행사]</p> <p>제목 : 제 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좋지 아니한家 : '정상가족' 바깥의 우리들, 연결되자!> 일시 :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2시 30분</p>				

	<p>장소 : 서울 보신각 터</p> <p>진행순서</p> <p>◇ 사회 : 민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p> <p>◆본집회</p> <p>환영의 말 : 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p> <p>발언 1 : 레나 (한국여성노동자회)</p> <p>발언 2 : 예림 (한국여성의전화)</p> <p>발언 3 : 물고기 (성폭력 생존자)</p> <p>발언 4 : 주키 (성폭력 생존자) / 감이(한국성폭력상담소) 대독</p> <p>발언 5 : 타리 (가족구성권연구소)</p> <p>발언 6 : 하윤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p> <p>발언 7 : 루나(성폭력 생존자)</p> <p>◇퍼포먼스 “정상가족 해체 현장”</p> <p>◇지지공연 : 오지은</p> <p>◇행진</p> <p>◆정리집회</p> <p>발언 8 : 라온 (성폭력 생존자) / 푸른나비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활동가) 대독</p> <p>발언 9: 니케 (성폭력 생존자) / 현진(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대독</p> <p>발언 10 : 무명 (성폭력 생존자) /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대독</p> <p>발언 11 : 현장 자유발언</p> <p>-사후보도자료 : https://stib.ee/HUx9</p> <p>-참여인원 : 60명</p> <p>-주관 :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 한국성폭력상담소</p> <p>-공동주최 : 가족구성권연구소,기독교반성폭력센터,부천여성의전화,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성소수자부모모임,정치하는엄마들,차별에 저항하는 교회준비모임 숨,툼,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총 11개)</p> <p>[후속]</p> <p><언론보도></p> <p>““좋은 가족’ 인형놀이 그만” 거리 나선 친족성폭력 생존자들 (여성신문,이세아 기자,,2023.11.25)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742</p> <p>‘칼라베라 카트리나’ 가면을 쓰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다 [시선] (시사IN, 이명익 기자, 2023.11.26)</p>
--	---

<p>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95 전세계가 ‘여성폭력 추방’을 외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2023.11.26)</p> <p>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090</p> <p>-기획단 평가회의 : 12/11 -후기 : 11/27 (자원활동가 풀 작성)</p>
--

• 평가

〈연속 간담회〉

- 21대 국회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및 연장 법안이 총 4개 발의된 상황이지만 국회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주장에 가로막혀 논의가 진전되지 않음. 이에 애초 계획했던 의원실 방문, 국회토론회 보다는 입법운동 단위로써 향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쟁점 간담회로 기획 변경. 1회차는 공폐단단 활동가들과 내부간담회로 진행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해당 내용을 대화록 형식으로 외화함. 현재 발의된 안들은 연령에 따른 취약성을 공소시효 배제의 이유로 주로 고려하고 있지만 입법운동의 요구는 ‘친족관계’가 어떻게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도출됨.
- 대중 참여 연속 쟁점 간담회(2회)는 친족성폭력 의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줄 전문가/연구자 발굴과 향후 입법운동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생산의 필요성에 따라 기획됨. 법률팀이 기획단으로 함께하는 등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했고, 친족성폭력의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다루었음.
- 토론회를 통해 친족성폭력 운동의 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을 논의할 필요성을 도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구호 및 의제활동이 법 개정에도 적용될 때는 가족 규범에 호소하게 되는 점이 있는 동시에 운동적으로는 그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깨고자 하는 일견 모순적인 요구를 모두 수렴하고 있음. 올해 토론회를 통해서 친족성폭력의 특수성은 보호와 친밀성의 장소가 되어야 할 가족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아니라 폭력을 드러나지 않게 은폐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있다는 점을 선명히 한 성과가 있음. 입법운동으로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 주장에 갇히지 않으면서도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논리를 탐구하는 과정이었음. 때문에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시급한 입법 과제를 성취하기 위해 유용한 언어와 전략을 기대한 생존자들은 다른 평가를 남기기도 하였음. 친족성폭력에 대한 넓은 쟁점 토론과 담론화를 통해서 입법 논리를 탄탄히 하고 운동을 가시화할 것인지 혹은 입법운동에 힘을 모아서 제정을 통한 권리기반을 만들어 갈 것인지 등 운동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 친족성폭력 의제의 확장을 기대하고 논의의 장을 열었는데, 연대 단위에서도 기획의 방향을 이해하고, 각자의 활동과 연결되는 지점이 잘 깊어졌음. 가족을 문제화 정치화하고자 할 때 자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생존기념축제〉

- 상반기 토론회 주제와 연결하여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비판하고 가족구성권을 이야기하는 포괄적인 주제를 선택함. 기획과정에서 주제선정과 제목이 공폐단단 내부에서 나오는 등 상반기 간담회를 통해 상담소뿐 아니라 피해생존자 그룹에서도 정상가족이데올로기와 친족성폭력 의제를 설명하는 언어가 풍부해졌음을 확인. 그러나 성문화운동팀 사업일정이 하반기에 몰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사업진행이 됨. 이에 따라 집회신고가 늦어지거나 집회 취지에 맞는 공모사업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짐. 10월 마지막 주로 사업일정을 고정하고 이에 맞는 연간 사업계획을 짤 필요성.
- 3회차이다 보니 공폐단단, 상담소 활동가 간 합이 잘 맞고 각자의 역할 충실하게 해냈음. 사회자의 진행,

발언, 퍼포먼스 모두 주제와 잘 맞았고, 매끄러웠음. 특히 연대발언에서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친족성폭력과 연대단위 의제와의 연결점이 잘 드러났음. 초대된 단위들과의 연결 깊어지고 확장됨. 다만 참여자가 2회때 보다 줄어서 아쉬움으로 평가함. 날씨의 영향과 상담소, 공폐단단 기획단이 실무 때문에 조직과 홍보에 많은 힘을 쏟지 못함. 그러나 긴급 집회 성격이 아닌 상황에서 대규모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특성상, 기획단의 동기부여와 현실가능한 조직목표 등을 논의해보아야 함.

2-4.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 배경/필요성:
 - 2019년 전국 209개 여성인권단체들과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를 결성하였고, 2020년 21대 국회 선거에서의 정책 제안 및 약속, 개원 이후 다양한 의제 홍보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본 상담소가 사무국을 맡아옴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반성폭력 레짐의 방향과 시민적 규범으로서의 ‘적극적 합의’를 폭넓게 운동으로 만들고자 하며, “성폭력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와 성폭력의 의미구성을 주제화함으로써, “동의/적극적 합의”의 의미, 적용기준의 장을 넓고 깊게 펼쳐가고자 함, 여성운동에서 ‘동의’의 의미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의제와 함께 교차 논의되는 장 필요.
 - 21대 국회에서 책임 있게 강간죄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할 필요 있음.
- 목표:
 - 다양한 여성/인권 운동의 영역의 의제와 ‘성적 동의’가 교차적으로 논의되는 장을 형성함
 - 적극적 합의 담론과 함께 권리의 언어로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알림
 - 21대 국회에서 ‘강간죄’ 개정에 대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함
- 방법 및 계획: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운영 (사무국 협업)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한국 제9차 본심의 대응 활동
 -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웹페이지 활용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성적 권리 보장의 문제로서 강간죄 개정 및 ‘동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 연내 강간죄 구성요건이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됨
- 진행내용: 사무국 평가서 참고
- 평가: 사무국 평가서 참고
- 향후계획: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계획에 따름

2-5.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활동

- 배경/필요성: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전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단 보류했으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김현숙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반복하였음. 10월 국민의힘 의원 115인은 여가부 폐지를 당론으로 발의하고 11월 23일 여성가족부폐지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등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합의되었으며,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조직 개편은 당연한 수순으로 진행될 예정임. 이에 국회가 국가 성평등추진체계 강화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성평등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한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 환기가 필요함. 이미 지자체 수준의 정책, 부서명 등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지워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지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임. '여성' 특히 취약계층의 여성,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대상 정책'을 하는 곳으로 여성가족부 존치 이유가 협소하게 이해되고 있는 까닭임. 다양한 위치와 입장의 이야기들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 구호를 입체적으로 채워가며 대응해갈 필요가 있음.
- 목표:
 - 여성가족부 축소, 통폐합, 폐지를 막고 성평등추진체계를 강화
 - 성평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국회와 정부가 이행하도록 촉구
 - 여성폭력 관련 법정책에서 여성 및 성평등 용어를 비롯한 젠더 관점 삭제에 대응
- 방법 및 계획: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사무국 협업)
- 담당자: 신아/유량
- 기대효과:
 - 여성가족부가 존치되고 성평등추진체계가 강화됨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에 대한 시민들의 넓고 단단한 연대가 형성됨
- 진행내용: 사무국 평가서 참고
- 평가: 사무국 평가서 참고
- 향후계획: 없음

목표3.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 하는 동료 시민들과 차별과 혐오 없는 성평등 사회를 만든다.

3-1. 반차별 운동

- 배경/필요성
 - : 2022년 상반기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있어 중요한 국면이라고 판단하여 가열차게 활동을 이어감. 2월에는 대선 시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 활동이 이어졌고, 3월에는 국회 앞과 온라인에서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가 진행됨. 4월부터는 국회 앞 단식농성이 시작되면서 집중문화제, 비상시국선언, 동조단식, 문자행동과 언론 칼럼/기고 조직 등 운동의 역량을 대국회투쟁에 모아냄.
 - : 상반기 투쟁이 목표하였던 제정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차별금지법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며 높은 대중 지지와 여론을 형성하였고, 향후 입법 조건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한편 차별의 구조적 성격을 부정하는 현 정부에서 여성/인권 제도가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는 한국사회가 직시해야 하는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더욱 가시화할 필요가 있음.
- 목표: 2023년 총선 국면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의제화하고 나아가 제정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국회를 압박한다.
- 방법 및 계획: 연대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업계획에 따름
- 담당자: 등은
- 기대효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평등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함.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전체회의	전체회의 : 3/9, 8/29																				
집행위	회의 : 3/2, 3/15, 6/20, 7/26 4/10 집행위 워크숍 사전 질문지 제출 4/28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참여 8/17 연분홍치마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를 잇는 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 미디어 연대팀) 리뷰 기고 https://omn.kr/258vl																				
	<전국간담회 '존엄과 평등의 전망'을 찾아서_충남> 일시 : 11/1(수) 오후 1시~3시 30분 장소 : 전교조 충남지부 참석 : 몽(차제연 공동집행위원장),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소주(한국청소년/청년 감염인커뮤 니티알), 충남 차제연 소속단위 활동가 13명 ▶목포 : 차제연 전국 네트워크가 현재 한국사회 정치 지형에 대한 공동의 진단과 문제의식을 만들고, 총선 국면 전환되어야 할 방향으로서 '평등사회'를 등장시킬 수 있는 전략 찾기 ▶진행																				
정책담론팀	[회의] 1/3, 1/20, 2/24, 3/16, 4/11, 5/16, 6/23, 8/31, 9/26, 11/14, 12/14																				
	[기획토론회] 제목 :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일시 : 2023년 3~4월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2시간), 총 5회차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2층 대상 : 약 50명,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 가능 (참가비 무료) 형태 : 오프라인 진행 (수어통역/문자통역 있음) 주관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 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서</th> <th>진행</th> </tr> </thead> <tbody> <tr> <td>60분</td> <td>우리는 현재 전국/지역에서 본 정치지형과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td> </tr> <tr> <td>80분</td> <td>'우리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td> </tr> </tbody> </table>	순서	진행	60분	우리는 현재 전국/지역에서 본 정치지형과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80분	'우리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														
순서	진행																				
60분	우리는 현재 전국/지역에서 본 정치지형과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																				
80분	'우리는 앞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어떻게 평등사회를 향할 수 있을까?																				
	<table border="1"> <thead> <tr> <th>회차</th> <th>일시</th> <th>제목</th> <th>참여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1차</td> <td>3/30(목)</td> <td>"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td> <td>기획 및 사회</td> </tr> <tr> <td>2차</td> <td>4.6(목)</td> <td>"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td> <td>불참</td> </tr> <tr> <td>3차</td> <td>4/11(화)</td> <td>"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td> <td>실무 지원</td> </tr> <tr> <td>4차</td> <td>4/18(화)</td> <td>"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td> <td>실무 지원</td> </tr> </tbody> </table>	회차	일시	제목	참여 방식	1차	3/30(목)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기획 및 사회	2차	4.6(목)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불참	3차	4/11(화)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실무 지원	4차	4/18(화)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실무 지원
회차	일시	제목	참여 방식																		
1차	3/30(목)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기획 및 사회																		
2차	4.6(목)	"민원에 대응할 뿐, 인종차별은 아니라고?" -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과 한국사회 무슬림 혐오	불참																		
3차	4/11(화)	"이렇게 살 순 없지 않습니까?" - 평등하게 일할 권리, 인간답게 싸울 권리	실무 지원																		
4차	4/18(화)	"빈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벗어나라?" -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로 인한 차별을 가시화하기	실무 지원																		

5차	4.25(화)	“제도가 만들어지면 땡? 평등은 누가 키워?” - 차별의 구제, 소수자 인권보장과 평등의 실현	실무 지원
<p><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기획팀 회의 : 1/9, 2/27 -기획 :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은, 한국여성노동자회 레나 -발제 1. 적극적 조치를 통해 살펴보는 구조적 차별 :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제 2. 구조적 차별의 대안으로서 적극적 조치와 차별금지법의 연결성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p>			
<p>[정책담론팀 세미나] 취지: 의미있는 차별시정 사례, ‘포괄적’성격의 차별진정/시정 사례를 발굴을 목표로 자료 검토 검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2017~2021) -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시정권고 사례집(2019~2022)</p>			
<p><1차 세미나> 일시 : 8월 31일(금) 11:00~13:00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차별 사유 별 검토 내용 1) 임신출산,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사회적 신분/고용형태 (몽/인권운동사랑방) 3) 전과, 정치적 사상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p>			
<p><2차 세미나> 일시 : 9월 26일(화) 10:00~13:00 장소 : 참여연대 3층 차별시정 스터디 관련 쟁점 1) 성희롱(발제 :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 불이익조치 관련 쟁점, 다른 법제+판례 등과 함께 볼 필요 2) 종교 (발제 : 훈창/인권아카이브창) : 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내 고용상 차별(채용, 승진, 종교 및 퇴사 강요 등) 3) 인종/출신 국가 (은경/참여연대) : 명백한 차별 / 직접 차별</p>			
<p><3차 세미나> 일시 : 11월 14일(화) 오후 3시~5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차별사유 별 검토내용 1)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 성저 지향, 성별정체성 (몽/인권운동사랑방)</p>			

	<p>2) 학력 및 출신학교 / 출신지역 (현빈/플랫폼씨) 3) 나이 (훈창/인권아카이브창) 4) 병력 (은경/참여연대) 5) 기타사유 (예정/천주교인권위)</p>
<p>성평등 · 성 교육 도서 열람 제한 관련 대응</p>	<p>[대응 회의] 9/21</p> <p>[공문 발송 연명] 6/2 충남지역 부적절한 인쇄물 내 <살아남기>시리즈 이미지 사용에 관한 질의 및 조치 요청 의 건 (정치하는엄마들, 한국성폭력상담 외 4개 시민사회단체 연명) 8/17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 성교육 장서 요청 공문 발송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 133개 시민사회단체 연명) 11/2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 회단체 의견서(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외 154개 시민사회단체 연명)</p> <p>[집담회]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발제) 일시 : 7/5(수) 저녁 7시~9시 장소 : 온라인 ZOOM 내용 : 금서로 지정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 읽고 이야기 나눔 1)금서 지정된 도서 발제 : '어린이를 위한 페미니즘' '안녕 내 이름은 페미니즘이야 '나의 첫 젠더 수업'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2)길잡기 발제 :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적 으로 해석하는 내용 의결의 의미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p> <p>[기자회견]#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충남 공공도서관 성평등 도서 열람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발언) 일시 : 9/8(금)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공동주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용 사회 - 몽(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발언1. 이진숙(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 - 충남 지역 공공도서관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사태 경과 및 현황 발언2. 김두나(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요지 발표 발언3.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발언4. 오은선(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5. 임정희(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서울 동작지회 회원) 발언6. 등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발언7. 박선영(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발언8.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p>

	<p>- 이다(『Girls' Talk 걸스 토크』 저자) 공동진정 참여 요지 대독</p> <p>[강의] 교양화수초 학부모독서동아리 일시 : 11/17(금) 오전 10시~12시 강사 : 동은 장소 : 교양화수초 도서관 내용 : 금서로 지정된 성평등, 성교육 도서 읽고 이야기 나눔. 포괄적 성교육의 필요성</p>
--	---

• 평가

- 2023년 상담소는 정책담론팀에 결합하여 활동함. 상반기 연속토론회에서 상담소는 한국여성노동자회와 함께 적극적 조치에 관한 회차를 기획하여, 적극적 조치가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고 이에 개입하기 위한 제도로서 설계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함. 또한 여가부폐지와 여성할당제 폐지 주장이 같은 논리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였음. 차별금지법의 문제의식과 닿아있고, 여성정책으로서 오랫동안 시행되었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여는 자리로서 의미있었음. 하반기에는 '포괄적' 성격의 차별진정/시정 사례 발굴을 목표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최근 자료를 검토함. 상담소는 성희롱 사안 결정례를 분석하여 본사건 외 문제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쟁점을 확인함. 팀 내에서 쟁점별 정리된 내용은 2024년 3월~4월 북토크 형식으로 외화할 예정임
- 2023년 5월 경부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수 학부모 단체가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내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 및 열람 제한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호응·협력하고 있는 상황임. 이 때문에 사실상 많은 지자체 내 공공도서관들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열람제한되고 있음. 차제연은 충남차제연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초기부터 이 사안에 대해 개입해옴. 공공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를 폐기하거나 열람제한하는 것은 왜곡된 반동성에·반페미니즘에 기반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민원에 동조한 차별행정이며 공공도서관 내 성평등 도서 비치는 시민의 권리임을 알려냄. 상담소도 대응팀에 합류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페미니즘(젠더, 성적자기결정권, 재생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낙인찍기의 문제와 이에 동조하며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차별정치를 규탄함. 또한 보수 학부모 단체에서 금서지정 근거로 사용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의미를 강간죄 개정운동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기회가 됨.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압 등으로부터의 보호라는 본래적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삽입된 배경에는 강간죄에서 유형력 모델을 고수하는 법적 현실이 있을 수 있고, 성폭력 개념에 대한 다른 이해의 필요성을 이야기함. 대응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진 못했지만, 보수개신교 기반 단체들의 전국적인 활동에 지역·타단체와 연결되며 빠르게 대응한 점은 의미있었음
- 이때의 공동 대응 경험이 하반기 차제연 주요사업인 전국간담회 참여로 이어짐. 하반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은 전국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별로 한국사회 정치 지형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동의 진단과 문제의식을 만들고, 지역 내 반차별 의제들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연결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총 15개의 지역 차제연과 협업하여 간담회를 진행. 상담소는 충남 지역 간담회에 참여하여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제한 대응운동의 의미 등을 나눔. 한편 집행위원회는 제정운동 전반에 대한 의결과 동시에 현정부가 인권운동 전반에 대한 적대적이고 퇴행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각 현장의 문제의식을 잇는 자리로서 역할하였음. 다만 집행위 내 논의는 상담소와 제운동운동이 어떤 고민과 입장으로 만나고 있는지 각 사안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여 팀 회의 등에서 해당 연대체 활동 공유 및 현안 나누기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음.

3-2.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운동

- 배경/필요성: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효력을 일었으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책임 부처들은 여전히 ‘입법 공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비범죄화에 따른 의료·상담·교육 체계 정비 등을 미루고 있음. 의료접근권과 평등권의 관점으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운동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어 2022년 새로운 연대체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를 출범함.
- 목표:
 -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활동 전략 수립 및 실행
 -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과 관계 부처 등에 모임넷 7대 요구안(①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 건강보험 전면 적용, ②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③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마련, ⑤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⑥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⑦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체계 마련) 시행 촉구
 - 재정·회계를 맡은 단체로서 공통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함.
- 방법 및 계획: 연대체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 사업계획에 따름
- 담당자: 유랑
- 진행 내용

구분	진행	
전체 워크숍	일시 및 장소 : 2/1,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내용 : 유산유도제 공공생산 발제 및 2023년 모임넷 전략 논의	
회의	회의 3/3, 3/14, 4/25, 5/24, 6/16, 7/12, 8/17, 9/14, 10/17, 11/13, 12/6	
‘낙태죄’폐지 2년 4.09 공동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일시 : 2023년 4월 9일(일) 오후 2시 · 장소 : 용산역 광장 앞 · 참여 인원 : 약 150여명 · 프로그램 : 	
	2:00-2:05	집회 안내, 취지 소개
	2:05-2:25	발언1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언2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발언3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장)
		발언4 희주 (서강대 인권실천모임 노고지리, 플랫폼C 회원)
		발언5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활동가)
	2:25-2:35	공연 신승은
2:35-2:43	자유발언	
2:43-3:00	퍼포먼스/선언문 낭독	
3:00-4:30	행진	
4:30-5:00	집회 마무리	
릴레이 기고글	<한겨레21> - 23.05.27 일본도 도입한 유산유도제, 한국선 안 돼...도대체 언제까지? /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8247?sid=102 23.06.01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p>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24.html <오마이뉴스> [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1회차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23.05.31 2회차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엔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성부장) 23.06.07 3회차 장애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진은선(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23.06.14 4회차 유산유도제 도입·임신중지 건보 적용은 그 시작일 뿐이다/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23.06.20</p>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약품 지 정 다수인민원 액 션	<p>5/24~6/15 미프진 필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 민원 액션 (총 1,625명 서명) 6/17 한국여성의전화 페스티벌릭 부스 참여 6/26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민원 제출 기자회견 “안전한 임신중지 지금 당장!” ▶ 진행순서 - 사회 : 민희 (플랫폼C) -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대표/다수인 민원 대표 진정인) -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 -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유랑(한국성폭력상담소), 혜진(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보라(한국여성민우회) 광화문 우체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우편 발송</p> <p>7/26 유산유도제 필수약품 지정 촉구!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 합의’다-시민/의사/약사 1856명 진정서에 성의없는 복붙으로 회피한 식약처 답변에 부처 - 사회 : 문설희(진정인, 사회진보연대) - 발언1 : 이서영 (진정인, 의사) - 발언2 : 서은솔 (진정인, 약사) - 발언3 : 오진방 (진정인,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기자회견문 낭독: 달연(진정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동윤진(진정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성이(진정인, 시민건강연구소)</p>
한국-일본 활동가 웨비나	<p>제목: 유산유도제,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들 일시 및 장소: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8시, 온라인 zoom ▶사회 : 야기 카타야마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발제: 미사코 이와모토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쿠미 츠카하라 (Action for Safe Abortion Japan)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p>

	<p>▶통역 : 하세가와 사오리, 홍현수</p>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p>8/31 복지부와 식약처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책임 방기로 야기된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발언1 : 나영(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세어) - 발언2 : 이동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발언3 :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 발언4 : 유량(한국성폭력상담소) - 기자회견문 낭독 - 인권위 진정서 제출 <p><2021년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경험 사례 모집> 기한 : 2023/12/01~2023/12/31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근거자료 첨부</p>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 지를 위한 국제행 동의 날	<p>9/28 [성명]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개정에 대하여, 보호출산제에 대하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간담회	<p><WHO 성과 재생산권리 부서(SRH) 캐런킴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23년 7월 5일(수) 오후 6시, 민주노총 교육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 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제: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캐런킴 (WHO 성과 재생산권리 부서) 질의응답 ▶통역 : 이진화(영-한), 김수영(한-영) <p><모임넷x위기임신지원네트워크 간담회> 일시 및 장소: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4시, 인트리 사무실 발표 :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미혼모지원네트워크 보호출산제 관련 모임넷 대응 전략 토론</p>
보호출산제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응	<p>8/18 [성명]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라</p> <p>9/19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심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p> <p>10/5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을 둘러싼 현안과 과제> 국회토론회 공동주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최: 국회의원 강성희, 강은미, 용혜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순서 인사말 기조발언

<p>발표 1. 보호출산제 법안의 문제 (신수경 변호사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p> <p>발표 2. 보호출산제와 여성의 권리 (나영 대표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p> <p>발표 3. 보호출산제와 미혼모의 권리 (최형숙 대표 변화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p> <p>발표 4. 보호출산제와 이주민의 권리 (이예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p> <p>발표 5. 보호출산제와 장애인의 권리 (김성연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p> <p>발표 6. 보호출산제와 아동의 권리 (조민호 대표 아동권익연대(준))</p> <p>발표 7. X-유기출산제가 가져올 미래사회 (이다정 간호사/작가 프로젝트팀 사회적 부모)</p> <p>발표 8. 정부의 입장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p> <p>10/10 [성명]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 익명출산이 대안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다</p> <p>11/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진도 좀 나가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라!" - 장소 : 국회 앞 사회 : 안나(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언1: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 SHARE) 발언2: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발언3: 김지윤(녹색당) 발언4: 정의로(장애여성공감)</p> <p><모자보건법 개정 관련 의원실 간담회> ▶일시 및 장소: 11월 15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0소회의실 ▶참석 : 나영, 타리, 혜원, 여름(차차), 유랑(한국성폭), 김지윤(녹색당), 오진방(인트리), 보라(민우회), 나무, 의로(장광감), 혜진(아름), 이동근(건약), 남인순, 강은미 의원</p>

• 평가:

- '낙태죄'가 완전히 폐지되지 2년이 넘었으나 정부는 아직도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책임을 방기 중임. 이에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월, 전략위크숍에서 현 상황을 진단하고 올 한해의 운동 방향을 유산유도제 도입 및 필수수의약품 지정으로 정함. 이에 맞는 집회, 민원액션, 기자회견, 간담회를 꾸준히 진행 중임. 올해는 임신중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WHO 성과재생산권리 부서의 캐론 킴, 일본의 재생산권 활동가 등 다양한 해외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국내 상황을 평가하고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재생산권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한 운동 전략을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었음.
- 한편, 집회 참여인원 등을 볼 때 '낙태죄 폐지' 이후, 시민들의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유산유도제 도입 민원 액션이 직접 서명해서 우편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예상보다 많은 결과를 얻어 여전히 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며 이와 함께 10월 6일,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 법이 빠르게 제정됨. 모임넷에서는 미혼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토론회 공동주최를 하는 등 익숙치 않은 이슈를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짐. 그러나 입법과정의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모임넷 안에서, 상담소 안에서 충분히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였음.

현재 모임넷에서는 보호출산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상담소에도 해당 이슈를 환류하고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 있음. 이슈 모니터링 차원으로 새롭게 생긴 보호출산제폐지연대 방에 들어감.

- 전임자의 안식년으로 담당활동가가 교체되어 재생산권 이슈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다지는 중임. 이전에 깊게 접해보지 못한 이슈에 대해 열정적인 연대단위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활동이 담당활동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음.
- 작년에 이어 상담소가 회계담당을 맡고 있는데 법인단체의 특성상 회계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대해 연대 단위들에 구체적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음. 활동 예산이 부족하여 단위별 분담금으로 겨우 충당 중이어서 회계 담당 단위로서 사업 시 예산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추후 좀더 폭넓고 풍성한 재생산권 보장 활동을 위해 모금 홍보사업 등을 기획할 필요가 있음.

3-3. 다양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함.
- 방법 및 계획: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 활동을 지속 또는 마무리하고 필요시 신규 연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연대체	내용	담당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대 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인권침해·차별 문제를 상담 지원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해 국회/헌법재판소 모니터링 및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동은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유랑
3.8 세계여성의날 한국여성대회 준비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제 38회 한국여성대회 기획단에 참여하여 여성단체로서 연대의식을 확인하고,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확산한다.	동은
서울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인권 운동에 연대하고 상담소의 지향과 의제를 알리며, 성소수자 성폭력 생존자가 상담소를 인지하고 필요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다.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유랑

- 담당자: 각 연대체 담당 참조
- 기대효과:
- 상담소가 어떤 연대 활동을 어떤 이유로 하는지 회원 및 지지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함.
- 넓은 연대를 통해 다양한 여성인권 이슈에 개입하고 해결함.
- 진행내용

구분	진행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 1/26 3/16, 4/21, 5/23, 7/7, 8/17, 9/13 10/24, 11/9, 12/18
	[기자회견] 제목 :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3년 2월 7일 (화) 오전 10시 30분, 국방부 앞

	<p>주최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순서</p> <p>-사회 : 이종걸(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한구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p> <p>-발언 1 :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p> <p>-발언 2 : 오소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p> <p>-발언 3 : 이호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p> <p>-의견서 취지 및 핵심 내용 발표 : 기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p> <p>-의견서 제출</p> <p>*이후 진행상황</p> <p>:차별적 개정안 비판 지속되자 '추행'개념 군형법 제 92조의 6에 따른 행위로 정의('동성 간' 명시 조항 폐기)</p> <p>:국방부, “사적 공간서 합의된 동성 성관계 처벌 안해” (한겨레. 권혁철 기자. 2023.2.27.)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81365.html</p> <p>[기자회견]</p> <p>제목 :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결정 지금 당장” 군형법 제92조의 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발언)</p> <p>일시 : 5/19(금) 오전 11시</p> <p>장소 : 헌법재판소 앞</p> <p>주최 :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내용</p> <p>사회 오소리(군성넷,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p> <p>발언1.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성에 대한 대리인단 발언 -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p> <p>발언2. 군형법 제92조의6이 성소수자에 미치는 문제점 - 기진(다음: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p> <p>발언3. 연대발언 -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p> <p>발언4. 소수자혐오/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 - 정성조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다음: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p> <p>기자회견문 발표</p> <p>[성소수자 예비입영자 길라잡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p> <p>일시 : 10/14(토) 오후 3시-5시</p> <p>장소 : 친구사이 사무실</p>
--	--

	<p>참가대상 : 입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성소수자 프로그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 관계자에게 듣는 군 현장 이야기 2. 군대 내 성소수자 관련 법과 제도 (심기용/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3. 군대 내 인권침해 구제절차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4. 성소수자 군인의 생활 - 성소수자 장병의 병무 현실과 군대 내 인식 (기진/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음) 5. 성소수자 군 전역자와 함께 Q&A <p>참여 : 4명(홍보 -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 활동 등) 주관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p> <p>[군형법 추행죄 헌법재판소 판결] 일시 : 10월 26일(목) 오후 2시 내용 : 합헌결정(합헌의견 5, 위헌의견 4) -합헌 의견 :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인용 ‘사적 공간이 아닌 군 공간에서 이뤄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처벌 범위 한정.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의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명시</p> <p><공동논평>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의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10/26,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p> <p><기자회견> 제목 : 성소수자/HIV 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일시 : 2023.10.26.(목) 12:00 장소 : 헌법재판소 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진행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소리(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 소리(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3. 정성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음) 4. 박한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당해 사건 대리인단) 5.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6. 신민정(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p>
--	--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6/21 <차별/혐오 세력에 힘을 보태는 “성평등강의 취소” 사태, 서울시 교육청에 책임을 묻습니다.> 민원 액션 연명
서울퀴어문화축제	<p><사전 준비> 4/5 부스 기획안 제출 4/22 부스 선정 5/15, 5/22, 5/30, 6/12, 6/19, 6/27 기획 및 실무점검 회의 6.1~6.23 LGBTQ+ 권리버전 비동의강간죄 Q&A 내용 작성 6.28 부스프로그램 홍보</p> <p><본행사> - 일시 : 2023.07.01(토) 11:00-19:00 - 장소 : 을지로 일대 -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스 프로그램 “가자 동의여부로” ① 비동의강간죄 퀴즈 : <LGBTQ+ 권리버전 비동의강간죄 Q&A> 리플릿 배부 후, 퀴즈 맞춘 사람에게 타투스티커 붙이기(타투스티커 동난 후, 타꾸스티커 배부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변경) ② 강간죄개정 서명 : QR코드 찍어 강간죄 개정 서명 ③ 열림터 후원가입 이벤트 : 열림터 후원가입한 사람에게 열림터 문집, 엽서, 스티커 배부 ● 서울퀴어퍼레이드 행진 (행사장(을지로2가사거리)→삼일대로→명동성당사거리→퇴계로2가교차로→퇴계로→명동역→회현사거리→소공로→한국은행앞사거리→을지로→시청삼거리→무교로→무교동사거리→종로구청입구사거리→종로→종각역→종로2가사거리→ 삼일대로→행사장(청계2가)) <p>-참여 부스 참여인원 : 400명 강간죄 개정 서명 운동 : 183명 열림터 정기후원 가입: 5 상담소 정기후원 가입: 2 부스 지킴이 : 14명, 유랑,동은,신아,오매,란,낙타, 상아, 파랑, 도경, 경진, 달별, 호랑, 가을(자원활동가), 앓</p> <p><후속> 7/25 2023 퀴어문화축제 후기 게시</p>
오늘의풍경 상호 돌봄의 협업	<오늘의 풍경 협업> 3/16 오늘의 풍경 미팅 전 사전회의 3/22 오늘의 풍경 미팅 전 회원홍보팀과 사전회의 3/28 오늘의 풍경 미팅 5/30 마케팅 강의 (카라, 오늘의 풍경)
3.8 세계여성의날 한국어	[사전]

<p>성대회</p>	<p><기획단 회의> 1/5 1/19 2/2 2/10 2/16 2/23</p> <p><3.8 온라인 챌린지 #다시만난빵미> -기획단회의 2/21 -상담소 챌린지 영상 촬영 및 업로드 2/24 -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제목 : 3.8 여성대회 온라인 캠페인 ‘다시만난빵미’ -제안 내용 퇴행의 시대, 광장에서 다시 만난 우리. 파도타듯 연결되며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요 지치않고 연대하는 우리의 몸짓- #다시만난빵미 챌린지 -챌린지 참여 방법 ① ‘다시 만난 세계’ 후렴에 맞춰 안무영상을 촬영합니다. 자기만의 안무도 환영! ② 안무영상에 #다시만난빵미 #성평등_파도를_타자 #38여성대회 해시태그를 붙여주세요 ③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자의 SNS에 업로드하면 챌린지 참여 완료!</p> </div> <p><기고> 꼭 3년 만에 열리는 ‘페미대명절’, 드넓은 광장에서 만나자 (오마이뉴스, 회원홍보팀 달별, 2023.3.2.)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05698</p>
	<p>[부스 프로그램] 제목 : 폭행·협박 박살내고, 가자 동의여부로! 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강간죄 개정 홍보물 배포와 서명운동 강간죄 개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홍보물은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과 비동의강간죄를, 둘러싼 왜곡과 오해에 대한 Q&A, 강간죄 개정과 적극적 합의에 대해 더 알고싶은 사람들에게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등의 큐알코드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영문판을 별도로 제작하여 영어사용자에게도 관련 내용이 전달 될 수 있도록 합니다.</p> <p>② 참여 프로그램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 성적 동의가 단지 예/아니오로만 이해되지 않고, 관계 및 표정, 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고려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게임을 통해 알리는 프로그램입니다.</p> <p>③ 참여 인증 이벤트 #내가_바꾸는_강간죄 #우리가_만드는_적극적_합의 #이제는_바꿔라_동의여</p> </div>

부로 해시태그와 함께 부스참여 인증을 하면 적극적 합의 캠페인 스티커 등 상담소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진행

- 기획회의 : 1/16, 1/30, 2/6, 2/13(여성대회 '젠더폭력' 핵심메시지안 논의)
- 2/20, 2/27(여성대회 비동의강간죄 구호안 논의)
- 여성대회 여가부 보조금 지원 적절성 관련 상근자 회의 논의 : 2/1
- 부스 신청: 2/3
- 부스 선정: 2/14
- 성문화운동팀 홍보물 원고 작성 : 2/17
- 부스 실무 관련 회원홍보팀과 회의 2/20
- 한국여성대회 전시 참여 신청 : 2/20
- 적극적 합의 스티커 샘플 인쇄 및 최종 발주 : 2/16~2/27
- 홍보물 원고 번역 : 2/28 (자원활동가 박진선님)
-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3/2~3/3
- 판넬 제작 및 물품 챙기기 : 3/3
- 평가회의 : 3/17 챌린지팀 평가회의, 3/23 기획단 평가회의

[본행사 :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

제목 :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 38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

일시 : 2023년 3월 4일 (토) 오후 12:00~17:00

장소 : 서울광장

내용

- 3.8 시민난장 : 시민참여 부스 운영
- 오픈스테이지_페미난장 : 참가자 공연 및 발언
- 기념식과 문화제 : 연대 공연 및 각종 시상

올해의 여성운동상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특별상 : 고(故) 임보라 목사

성평등 디딤돌

: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개네'

성평등 걸림돌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사과와 반성 없이 괴롭힘 지속 동남원새마을금고

: '전화 안 받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인천지법 형사9 단독 재판부

: 성차별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의지가 없는 서울교통공사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조직문화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포스코

	<p>: 무책임과 혐오선동 정치의 권성동 국회의원과 책임 방기, 자격 미달 김현숙 여가부 장관</p> <p>: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 삭제한 교육부</p> <p>: 유산유도제 도입 책무 방기하여 여성 건강권 외면한 식품의약품안전처</p> <p>- 참가자 연대발언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14개국 대사관과 기후위기대응 단체, 평화영역 연대발언</p> <p>- '3.8 여성선언'</p> <p>- 연대공연 및 참여 퍼포먼스: 소수자연대 풍물패 장풍, 이소선 합창단</p> <p>- 거리행진 : 서울광장 → 광화문 사거리 → 종각역 → 을지로입구역 → 서울광장</p> <p>- 마무리행사 : 함께하는 몸짓</p>
다양한 연대활동	<p>[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행동 연대]</p> <p><공동 성명 참여> 야만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을 지지한다!</p> <p><기자회견></p> <p>제목 :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장연의 지하철행동 지지한다! 전장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p> <p>일시 : 2023년 1월 19일(목), 오전 9시</p> <p>장소 :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방향 승강장 5-3</p> <p>참여 : 신아, 동은</p> <p>순서</p> <p>-사회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p> <p>①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전장연 지하철 행동을 지지하는 이유</p> <p>-청년단체 : 민달행이유니온 위원장 지수</p> <p>-반빈곤단체 : 홀리스야학 학생회장 림보</p> <p>-여성단체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동은</p> <p>-인권단체 : 한국청소년청년참여인커뮤니티 알 상임활동가 소주</p> <p>-종교단체 :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목사 송기훈</p> <p>-학생단체 :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장 최보근</p> <p>② 지하철 행동 지지에 대한 전장연의 화답 발언</p> <p>-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이형숙</p> <p>③시민사회 공동성명서 낭독</p> <p><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 장애인권리입법 예산 쟁취를 위한 전국집중 결의대회></p> <p>일시 : 2023년 1월 20일(금) 오후 2시</p> <p>장소 : 4호선 삼각지역 숙대입구역 방향 승강장 1-1</p> <p>참여 : 신아, 동은, 감이, 호랑, 달별, 도경, 유랑, 경진, (자원활동가)모자, 연</p> <p>[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과정의 혐오범죄 반대와 대구 북구청의 인권행정 촉구</p>

	<p>연대 활동]</p> <p>제목 : 대구 이슬람 사원 건립 과정의 혐오 범죄 반대와 대구 북구청의 인권행정 촉구 현수막 게시행동</p> <p>내용 : 이슬람 사원 건립 과정에서 벌어진 혐오차별에 반대하고, 책임있는 인권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 북구청 주변에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현수막 게시 참여 및 게시 일시 : 2/8 참여, 2/16 게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참여 문구 “차별 없이 평등하게! 무슬림 동료 시민들을 환대하고 지지합니다!”)</p>
	<p>[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투쟁주간 연대]</p> <p><기자회견></p> <p>제목 :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성소수자 운동 30년, 열정을 잇는 우리,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p> <p>일시 : 5월17일(수) 11:00</p> <p>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p> <p>참여 : 유랑</p> <p>진행</p> <p>사회 : 박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p> <p>발언 1: [열정]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에 맞서온 그간의 투쟁들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p> <p>발언 2 : [변화] 30년 간의 성소수자 인권 변화, 앞으로 해나갈 변화들 정성조(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음)</p> <p>발언 3. [연대] 성소수자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권수정(전국금속노동조합)조건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타리(성적권리와 재 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세어)</p> <p>□ 기자회견문 낭독</p> <p><투쟁대회></p> <p>제목 :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성소수자 운동 30년, 열정을 잇는 우리,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p> <p>일시 : 5월20일(토) 15:00</p> <p>장소 : 혜화역 2번 출구</p> <p>참여 : 동은, 신아, 도경</p> <p>프로그램</p> <p>사회 : 종걸(친구사이), 무나(행성인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p> <p>발언1 : 가브리엘(KNP+, 여는 발언)</p> <p>발언2 : 차별금지법 - 권은숙(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p> <p>발언3 : 혼인평등 - 이호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혼인평등연대)</p> <p>발언4 : 학생인권 - 최보근(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p> <p>발언5 : 트랜스인권 - 겨울(트랜스해방전선)</p> <p>발언6 : 지역인권 - 장규진, 사루(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p>

• 평가:

구분	진행
<p>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담당: 동은)</p>	<p>-2023년 10월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의 4번째 위헌심판이 있었고, 합헌판결이 나옴. 합헌 주요의견으로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인용해 ‘사적 공간이 아닌 군 공간에서 이루어진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처벌범위를 한정 짓고, 제정취지와 개정연혁 등을 통해 이 법이 군인의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라고 명시하며 해당 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또한 사실상 동성애 혐오에 근거하여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음. 그러나 비록 위헌 판결에 필요한 수를 채우지는 못했지만 처음으로 평등권 위배 의견이 나오는 등 진전된 위헌의견이 나오기도 함. 이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연대단위가 지속적 운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 왔기에 가능했던 성과임.</p> <p>-현재 구성이 점점 보수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위헌운동보다는 군형법 문제를 꾸준히 활동으로 알리되, 당사자 대상활동 등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음. 실질적인 상담 및 지원을 위한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성소수자 예비입영자 대상 길라잡이 기획을 발전시켜 사례수집 및 군대 내 인권침해 사안 대응을 활동의 목표로 두고자 함.</p> <p>-전체적으로 동성간 성행위를 징계사유로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 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문제적 개정안을 철회시키고, 위헌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가시화함. 특히 상담소는 연대발언 등을 통해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는 해당 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자 낙인이며 동시에 성적 폭력이 무엇인지 은폐하고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앞으로도 군대 내 성소수자 성폭력/인권침해에 필요한 반성폭력 관조의 언어와 논리가 무엇일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p>
<p>3.8 세계여성 의날 한국여성대회 (담당 : 동은)</p>	<p>-여성대회 기획단으로 참여하며 각 단체가 현 상황을 어떻게 체감하는지 공유할 수 있었음. 핵심 메시지와 세부 구호 등에서 반성폭력 단체로서 상담소의 언어를 반영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었음. 슬로건을 통해 ‘퇴행의 시대’라고 규정함으로써 백래시를 주도하는 문제적 정치를 대중들에게 환기시킴. 동시에 광장 사용이 어려워지는 시기 서울광장에서 진행되어 다양한 사회운동 단위의 부스참여와 연대발언으로 너르고 강한 연대를 보여주었음. 다만 여성운동의 다양한 현안이 구호로 가시화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p> <p>-강간죄 개정 서명 운동에 높은 참여율을 보여 해당 의제에 대한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상담소 뿐 아니라 전성협 등 다양한 단위에서 강간죄 개정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간죄 개정운동의 중요성을 드러낼 수 있었음. 또한 ‘적극적 합의 웹페이지’와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을 홍보하기 위해 각각 적극적 합의 웹페이지 캠페인 스티커 제작, 온라인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을 오프라인용 참여 프로그램으로 변형하였음. 부스 참여자 및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적극적 합의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음.</p> <p>-회원홍보팀과 협업을 통해 후원활동가의 역할을 드러내는 가입독려이벤트가 진행되었고, 자원활동가 및 상근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일 원활한 부스 진행이 가능했음. 다만 부스 진행의 불확실성 때문에 여성대회 예산을 적게 책정하였음. 앞으로는 현실성 있는 예산 수립이 필요하겠음.</p>
<p>서울퀴어문화축</p>	<p>-서울시의 시청 광장 불허로 을지로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진행됨. 새로운 공간에서</p>

<p>제 (담당: 유량)</p>	<p>진행되면서 현장이 불안정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었음. 서울시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됨. 또한, 같은 날 쿼어 안에서도 만들어지는 정상성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노프라이드 파티가 진행되었음. 추후, 기획 시 쿼어문화축제 본행사 외 다양한 현장에 투쟁, 연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인원 배치해도 좋을 듯함.</p> <p>- Q&A 리플릿 내용을 퀴즈로 내고 타투스티커를 붙이는 부스 프로그램이 복잡하지 않았고 적절했고 참여자들의 흥미를 끌 수 있었음. 상담소 의제 알리기, 정보 전달하기, 교육하기에 초점 맞춰서 진행했고, 강간죄 개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일자 형태의 부스 배치도가 부스 참여율을 더 높였고 타투스티커 붙이기 활동이 회전율이 빨랐기에 타투스티커와 리플릿이 빠르게 소진됨.</p> <p>- 자부담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젝트 사업 기금을 사용하여 부족한 예산 확보한 것 적절한 판단이었음. 그럼에도 디자인 비용, 스티커 제작비용 등이 모자랐음. 추후 예산 기획 시 한 해 사업일정을 바탕으로 유연성을 두되 전년도 결산 참고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수립할 필요 있음.</p> <p>- 폭염주의보가 있었고 부스 뒤가 바로 차로여서 더 덥고 힘들었음. 축제기획팀에 일정 6월로 옮기는 것을 제안할 필요 있음.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안전을 위해 인력을 많이 두고 로테이션을 더 자주 할 필요 있음.</p>
<p>오늘의풍경 상 호 돌봄의 협업</p>	<p>새롭고 재밌는 기획 홍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이지만, 올해 성문화운동팀이 주요 프로젝트 사업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이슈나 의제 대응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획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음. 작년 적극적 합의 웹페이지 제작 사업의 후속 활동들을 기획해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올해 이어지지 못해서 아쉬움.</p>
<p>다양한 연대활동</p>	<p>-전장연의 장애인 권리예산 투쟁 '지하철 행동'을 현정부는 불법으로 규정하였고, 서울시와 서울 교통공사는 전장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골적인 반인권 정치가 이어졌음. 한국성폭력상담소도 발언 및 연대성명을 통해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이 '일반 시민의 불편을 유발한다'며 강경 대응하는 정치와 구조적인 성차별을 '여성'과 '남성'간의 이해관계로 왜곡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 정치 모두 시민들을 갈라치며 정작 평등을 보장해야할 국가의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함. 인권정책이 퇴행하고 있는 시기 여성 운동단위로서 연대의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자 했음</p> <p>-이슬람 유학생들의 종교행위를 위한 사원이 '혐오시설'이라며 건축을 방해하고, 플랜카드에 혐오발언을 내거는 등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음. 차제연에서는 이슬람사원 건축이 '무슬림 vs 주민갈등'으로 가시화되는 동안 대구 북구청은 방관한 것을 문제제기하며 책임있는 행보를 보이도록 북구청을 압박하는 단체행동을 제안/진행함. 상담소도 문제의식에 동의하여 참여하는 동시에 제주 예멘 난민 혐오와 같은 방식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이슬람 반대'가 주장될 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됨.</p> <p>-2023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성소수자 인권운동 30주년을 맞아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소수자 인권위원 참여 및 투쟁주간 선포 기자회견, 투쟁대회 참여를 통해 혐오와 차별에 저항하고 평등을 앞당기는 활동에 함께함.</p>

3-4. 자문위원 소통 및 자문 활성화

- 배경/필요성: 새롭거나 낯선 시선으로 성문화운동팀 활동을 바라보며 반성폭력·성문화 운동의 빈 공간을 확인하고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성문화운동팀의 활동 방향, 사업 전략 및 내용, 현안 대응 등에 관해 자문위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자문함.
- 방법 및 계획:
 - 성문화운동 자문위원들과 온/오프라인 정기 자문회의 1회 진행
 - 전화/서면 등을 통한 상시 소통 및 자문 진행
- 담당자: 신아/동은/유랑
- 기대효과:
 - 자문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는 자문 및 전문지식, 관련 정보 또는 아이디어를 참고하여 성문화운동팀 활동 과정에 반영함.
 - 자문위원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함.
- 진행내용
 - 일시 : 2024년 1월 3일(수) 16시-18시
 -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 참석 :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 - 김홍미리(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강유가람(영화감독), 이산(배우/마임창작자/성평등작업실 이로) 로리주희(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현이(젠더교육플랫폼호재 이사), 상담소 활동가 - 김혜정(소장) 최란(부소장), 김동은, 김신아, 유호정 (성문화운동팀) 수수(부설 쉼터 열림터)
 - 안건 :
 1. 2023년 중점 활동 평가 1) 인터뷰 프로젝트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2)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활동 3) 정책 퇴행 대응 - 여성폭력 지원단체 피해지원예산 삭감 규탄 긴급대응 4) 활발한 이슈 대응
 2. 2024년 중점 활동 1) 회원과 함께 총선 대응 2) 인셀 현상 및 엄벌주의 대응
- 평가
 - : 참석 자문위원들과 2023년 성문화운동팀이 주력했던 사업을 평가하고 2024년 계획을 공유 및 논의함으로써, 지난해 사업의 후속 작업 및 올해 사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커다란 참고가 되었음. 2023년 내 회의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2023 회원홍보팀 활동 하반기 평가

2023 활동방향	팀별 실천방안
불안과 퇴행 속에서 지지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소 고유컨텐츠 발굴 등 30년 역사가 담긴 각종 콘텐츠가 가진 파급력을 활용하여 피해생존자와 든든히 연대한다. - 상담소만의 시각으로 수요시위에 연대하여 생존자의 경험이 확장되고 연결되도록 노력한다.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치에 책임 요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레터, 나눔터 개편, SNS와 홈페이지 등 상담소가 확보한 지면을 활용하여 정부의 반성평등 기조를 상담소의 시각으로 비판한다.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체계 마련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경험이 순환되는 구조를 만든다. - 지속후원회원 예우 체계를 마련하고 후원모금행사 진행하여 안정적인 활동기금을 마련한다.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결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활동, 기자단 토크, 회원놀이터, 회원소모임 등 상담소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지지그룹과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상담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팀 활동 목표	
<p>목표 1. 회원/잠재후원자의 친밀감을 높인다.</p> <p>목표 2. 다양한 방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회원 지지자와의 접점을 늘린다</p> <p>목표 3. 상담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고 친절한 상담소로 거듭난다.</p> <p>목표 4. 회원홍보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정화에 힘쓴다.</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 자원활동, 각종 행사, ‘틈’ 작은말하기 특집 등에서 피해생존자가 다양한 역할을 하였고, 상담소와의 관계가 내담자-지원자 관계를 넘어 더 다채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켰음. 내담자와의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는 상담소에 있어 큰 의미라고 여겨짐. - 다양한 창구를 통해 피해생존자의 목소리를 외화할 수 있었음. 피해생존자마다 회복을 향한 힘과 의지, 방법이 모두 다르기에, 사회적 통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음. 또, 지지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통해 시민-피해생존자-상담소 간의 연대가 강화됨. - 이미 확보한 채널을 이용해 상담소가 지금 내보내야 하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잘 고르고 제안하였음. 맥락과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자주 상황이 바뀌는 정치적 목소리들을 일관적이고 정돈된 기조로 후원회원을 비롯한 연대자들에게 알려 분노에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 회원홍보팀의 활동 방향성에 맞게 확장성을 넓혀가는 한 해로 평가. 회원홍보팀이 관장하는 많은 업무영역을 일관된 결로 모으고 회원홍보팀의 성격에 맞게 펼쳐보며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다 	

만 한정된 인원과 실무 여력을 고려하지 못한 업무 배분이 사업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차후에는 두 활동가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 후원모금행사를 팀에서 기획/진행하며 대규모 모금행사의 경험을 축적하였음. 목표금액을 달성하고 '상담소다움'을 고민해보는 등 역량강화의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함.
- 상담소 내외의 물질적 공간에 회원, 자원활동가 등을 초대하는 데 열심이었던 한 해. 주로 행사의 성격으로 초대했는데, 개인의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 상담소의 초대에 응하는 적극성을 발견함. 코로나19를 지나며 행사의 형태가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다시 바뀌고 있는데, 물리적 만남에 대한 욕구를 실제 행동으로 끌어내기 위한 소모임 활성화 등의 과제가 제시되었음.
- 행사마다 다양한 컨셉과 톤앤매너를 적용하여 상담소의 동적이고 다채로운 에너지를 보여주었음.
- 홍보 관련 사업 기획에 있어 상담소와 접점이 없던 시민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함. 가령 고유콘텐츠 발굴 사업의 의도는 상담소 유튜브 활성화 및 질 높은 영상 바이럴이었는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가갈지 전략적으로 고민하고 단계적으로 방향을 잡음. 상담소 외부인 혹은 반성폭력운동의 의제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 입장에서 숙고할 수 있었음

목표1. 회원/잠재후원자의 친밀감을 높인다.

■ 후원현황

2023년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신규 및 증액	23	21	29	18	19	22	
활동가 권유	1	1	2	1	1	3	
중단 및 탈퇴 (장기미납자해지)	25(4)	9(1)	25(5)	24(8)	30(13)	18(2)	
(정기)납입회원수	1,552	1,526	1,548	1,556	1,562	1,564	
정기후원회비 (단위: 천원)	24,166	23,981	24,265	24,478	24,644	22,783	
일시·평생 후원건수	16	13	34	15	14	8	
일시·평생 후원금 (단위: 천원)	5,585	4,114	2,991	3,116	1,054	609	
2023년 하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 누적
신규 및 증액	23	20	21	13	17	4	230
활동가 권유	2	-	-	1	1	-	13
중단 및 탈퇴 (장기미납자해지)	14(1)	11(1)	10(1)	17(3)	15(3)	11(7)	209(49)
(정기)납입회원수	1,539	1,549	1,537	1,529	1,530	-	-
정기후원회비 (단위: 천원)	22,383	22,698	22,586	22,421	24,601	-	-
일시·평생 후원건수	11	16	18	19	12	6	182
일시·평생 후원금 (단위: 천원)	670	2,650	6,653	10,810	370	870	39,492

1-1. 신규후원회원

- 배경/필요성: 2022년에 정기후원을 중단한 회원 중 약 40%가 후원기간 1년 미만의 회원임. 신규후원 회원이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끼고 장기적으로 후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원 여정의 초기부터 꾸준한 말걸기와 연결이 필요함.
- 목표: 신규회원이 장기회원으로 전환할 발판 마련 및 재정 안정성 향상
- 방법 및 계획
- 상시 진행.

시기	일정
가입 즉시	환영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자동)
2개월 내	- 기관 소개 메일 3회 발송(자동, 작성 예정) - 웰컴키트 우편 발송(격월)
12개월	후원 1주년 기념 감사 문자 메시지 발송(자동)

- 가입 이후 2개월~12개월 사이에 후원의 효능감을 줄 액션 마련.
- 가해자 확인 시, 후원 중단 및 별도 기록.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1년 미만 후원회원의 이탈률 하락 및 상담소에 대한 소속감 강화.
- 진행내용
- 시기별 예우 메시지 현황

시기	일정		
가입 즉시	환영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자동 발송		
2개월 내	- 기관 소개 메일 작성 중 - 기존 3회차 예정했으나 4회차로 조정 - 1회차: 환영 메시지 및 연속 메일 안내(작성 완료) - 2회차: 상담소, 열림터의 역사 및 소개(작성 완료) - 3회차: 상담소 주요 활동 소개(작성 중) - 4회차: 재정 투명성, 멤버십 소개 - 각 회차 하단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후원정보 변경, 후원금 재출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안내를 배치 - 1회차 및 2회차 작성 후 팀 내 검토하여 톤과 내용 등을 조정하였고, 전회차 작성 되면 최종 검토 후 자동 발송 설정 예정. - 웰컴키트 우편 발송(격월, 1-2월/3-4월/5-6월/7-8월/9-10월 신규후원자 발송 완료)		
12개월	후원 1주년 기념 감사 문자 메시지 자동 발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메일</td> <td> #{구성원.구성원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구성원.구성원명}님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작한지 딱 1년 이 되는 날입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신 든든한 지지와 응원은 상담소가 힘껏 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어, </td> </tr> </table>	메일	#{구성원.구성원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구성원.구성원명}님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작한지 딱 1년 이 되는 날입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신 든든한 지지와 응원은 상담소가 힘껏 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어,
메일	#{구성원.구성원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오늘은 #{구성원.구성원명}님이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후원을 시작한지 딱 1년 이 되는 날입니다.🎉 변함없이 보내주신 든든한 지지와 응원은 상담소가 힘껏 될 수 있는 원동력 이 되어,		

	<p>🔥 1375번의 성폭력 피해상담과 8회에 걸친 피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일상회복을 지원하였고, 🔥 51번의 행사와 집회를 통해 13편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86편의 성명과 논평을 작성하며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균열을 가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구성원명}님의 덕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p> <p>반성폭력운동에 함께하는 한 명의 참여자로서, 앞으로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세요.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갑시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동. <후원 1주년 감사합니다!></p>
친구 톡 / 문자	<p>오늘은 #{구성원.구성원명}님이 상담소에 후원을 시작하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변함없이 보내주신 지지와 응원은 상담소가 힘껏 뿜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담소는 1375번의 성폭력 피해상담, 8번의 ‘작은말하기’(피해자 자조모임)를 진행했고, 51번의 행사와 집회를 통해 13편의 자료집을 발간하고 86편의 성명과 논평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구성원.구성원명}님의 덕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p> <p>반성폭력운동의 참여자로서, 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한 여정에 앞으로도 함께해주세요!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일동.</p>

- 3월 회원배가 이벤트

구분	내용
배경	2016년 길거리 괴롭힘 소멸 프로젝트 ‘년NON 진상’에 함께 했던 웹툰작가 미강이, 2022년 7월 발간한 단편선 <거짓말들> 50권을 상담소에 후원함. 출판사 문학동네에서도 그림책 <말해도 괜찮아>를 15권 후원하여, 도서를 이용한 회원배가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함.
방법 및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한달 신규정기후원회원 대상으로 <거짓말들> 혹은 성교육세트(<소녀X몸 교과서>&<말해도 괜찮아>) 발송. 신규정기후원회원 가입시 발송되는 자동 메시지에 이벤트 설문 링크를 첨부하여 선택하게 함. - 홍보: 홍보물 제작 및 SNS 채널 게시(3/2),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유료 광고 진행(3/2), 제38회 여성대회 부스 참여(3/4)
결과	- 문자수신 동의한 3월 신규정기후원회원 20명 중 14명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폼 응답: 9명(가입 후 바로 6명+리마인드 문자 후 3명) - 한국여성대회 부스: 5명(상담소 3명+열림터 2명) - 도서 재고: <거짓말들> 7권, <말해도 괜찮아> 9권 - 메타 유료광고 - 집행 기간: 3/2-3/31 - 집행 비용: 총 16,705원 - 집행 결과: 도달 2,124/링크클릭 41/공감 39
--	--

- 웰컴키트 추가 제작: 미진행. 웰컴키트 재고 약 500개 이상으로 추정됨. 최근 몇 년간의 신규후원자 수와 우편발송 동의자 수를 고려하면 25년까지는 발송 가능한 양으로 파악되어 추가 제작 진행하지 않음. 참고로, 김리원 디자이너와의 소통을 통해 대략적인 건적 확인할 수 있었음(23년 3월 기준 총 약 250만원. 인쇄비 190만, 스티커 11만, 봉투 48만).

• 평가

구분	평가내용
시기별 예우 메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소개 메일 4회차 - 상담소의 긴 역사와 다양한 활동을 매력적이면서도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금년 내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 그러나 상담소 설립 초기 내놓거나 설립 n주년 기념 자료집을 참고하는 등 꼼꼼한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함. - 후원 1주년 감사문자 - 발송 현황: 총 286건 중 241건 발송 성공. 이메일 123건(오픈 43건, 35%), 친구톡 20건, 문자 98건 - 평균값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후원자의 후원금이 어떤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지 제시하여 효능감을 높임. - 후원 초기의 말걸기가 후원기간 1년 미만 탈퇴자 비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간으로 생각됨.
3월 회원배 가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들이 뛰고, 넘어지고, 구르고, 도약할 판'이라는 문구에 활동가들의 반응이 좋았음. 참여를 유도하는 문구를 결합해 앞으로의 모금에 활용해도 좋을 것으로 보임. - 광고를 통한 참여율이 높지 않음. 추후 이벤트는 홍보물 제작과 문구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A/B 테스트를 시도해보기로. - 후원받은 책의 활용을 고민하다 시작된 기획이었으나, 실무 중에는 회원 배가를 목표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었음. - 모금캠페인 컨셉을 도출하고 워딩을 정리한 것은 좋은 경험이었음.

1-2. 기존후원회원

- 배경/필요성: 사무국 회원담당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 5년간 대거 정기후원회원이 증가했지만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점 후원중단폭이 커진 상황. 정부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정권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전체 수입예산에서 후원금 비중 높일 필요 있음.
- 목표: 후원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예우 체계를 확립함.
- 방법 및 계획

-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 1/3/5/10 등 후원주기별 후원회원 특별예우 시스템 정비: 후원주기별 후원회원 인터뷰 진행(주기별 최대 2인, 인터뷰비 지급), 인원 분포 - 1년차 189명/ 3년차 354명/ 5년차 110명/ 10년 이상 424명 (성실납부회원 기준)

일정	세부계획
9월	- 후원주기별 인터뷰이 모집(구간별 2인) - 5, 10년차 후원회원 감사패 패키지 기획 - 후원주기별 인터뷰 진행(1년차)
10월	- 후원주기별 인터뷰 진행(3, 5, 10년차) - 커뮤니티 데이 기획 - 5, 10년차 후원회원 감사패 패키지 제작
11월	- 3년차 이하 후원자 커뮤니티 데이 진행 - 5, 10년차 후원회원 감사패 발송

- 3/6개월 미납자 관리
- 도너스에 은행 해지자 통보 기능 제안
 - 담당자: 닷별
 - 기대효과
- 후원회원 이탈률 하락 및 장기후원회원 비율이 높아짐.
-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끼는 후원회원 증가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총회 정회원 안내 및 소통	- 정회원 전환 및 총회 개최 안내문자 3회 발송 - 후원관리프로그램 정회원 전환 및 정회원 회비 안내	
1/3/5/10 후원주기별 후원회원 특별예우 시스템 정비	- 진행시기 변경하여 4월 1달간 후원주기별 인터뷰이 모집, 사전 질문지 작성 완료. 1/3/5/10년차 후원자 중 가입동기 특이점 중심으로 리스업하고 인터뷰이 섭외 과정중에 있었으나, 타 사업 준비로 인터뷰 진행이 미뤄지며 미진행되었음.	
	- 2023년 11월 9일 저녁 7시반 5년차 이하 정기후원회원 커뮤니티데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컨셉: 안전하고 아늑한 페미 캠핑장에 방문한 후원회원들과 모닥불 앞 도란도란 수다회	
	구분	진행내용
	사전	기획 10/6 1차 기획회의의 진행 (회원홍보팀, 열림터 수수) 10/10 제28차 회원홍보팀 회의 10/13 2차 기획회의의 진행 (회원홍보팀, 열림터 수수)
이꿈이 섭외/준비 10/13 여성주의상담팀 감이 섭외 완료 10/18 오지은 님 섭외 완료 10/31 이꿈이 사전미팅 진행		
홍보	10/25 1차 홍보 카드뉴스 게시 10/31 2018년 이후 후원회원 대상 홍보메일 발송 18~20 시작한 후원회원 / 21~23 시작한 후원회원	

당일		11/1 2018년 이후 후원회원 대상 홍보문자 발송 뉴스레터 뚝다! 상담소에 홍보 11/3 2차 홍보 카드뉴스 게시(프로그램 소개, 질의응답) 11/6 3차 홍보 카드뉴스 게시(내향인 어필) 11/7 2018년 이후 후원회원 대상 홍보문자 발송(2차) 11/8 참석자 대상 안내 연락
	식사 및 음료	비건 케이터링 '에티컬테이블' 40인분 예약 음료 5종 준비 - 마음의 불을 꺼주는 음료: 비건 핫초코 - 페미 동료들 만나게 해줄 응원의 음료: 피나콜라다(논알콜) - 못다한 말 하게 해주는 용기포션: 생강레몬차 - 고민하는 당신의 등을 밀어줄 음료: 뽕소 - 백래시 폭풍에 깎인 당신을 위한 영양음료: 사과케일주스
	프로그램	캠핑의자 20개, 테이블 6개, 조명 6개, 테이블보 3개 0부: 나는 언제, 왜 상담소에 후원하게 되었나요? (20분) 1부: 우리가 올라탄 페미니즘 리부트의 파도(40분) - 15년~17년 페미니즘 리부트 - 18년~20년 페미니즘 르네상스, 거세지는 백래시 물결 - 21년~23년 총체적 불안사회 2부: 지금의 우리는? (40분) 3부: 앞으로를 상상하며 (20분)
전체 참여자 9명 + 활동가 10명 (스텝 포함)		
3/6개월 미납자 관리	- 알림톡 등록하여 3개월/6개월 미납자 알림 발송 - 월별 장기미납 중단자 추이(12/7 기준)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명	4 1 5 8 13 2 1 1 1 3 3 7
- 4월, 5월의 중단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연말/연초를 맞아 후원처를 정리한 것이 3개월 미납자 확인 시점인 4월과 5월에 잡힌 것으로 보임. - 상담소에 직접 후원중단 연락을 주거나 후원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중단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은행에 직접 연락하여 후원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도너스에서 은행직접해지 알림을 별도로 주지 않아 해지 시점에 바로 파악하기 어려움. 해당 기능 신설을 건의하였고 도너스에서 검토해보겠다고 회신받음. - 미납 알림을 2차례 발송하여 중단자 알림 연락을 받고 결제수단 바로잡는 연락을 주는 등 소소한 성과가 있음. 특히 3개월 미납자의 경우 결제수단 정정하는 경우가 많음.		

• 평가

- 후원회원 인터뷰의 연속선상에서 커뮤니티데이를 기획하였던 당초 기획이 실무 여력의 한계로 커뮤니티 데이 진행으로 다소 연결성이 흐려져 신청자가 저조했던 점이 한계로 남음. 그러나 회원들을 '상담소'라는 물질적 공간에 초대하고 직접 대면하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연대감과 소속감을 다질 수 있었고, 안전한 페미니스트 공간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음.
- 미납자 관리를 시작하며 회원정보 정정, 출금정보 확인 등 관리 측면에서의 소소한 성과가 있었음. 최근 경제적 부담을 사유로 후원을 중단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아직 후원중단자보다 신규후원회원이

많아 후원규모가 유지되고 있음. 이미 후원중인 회원들이 후원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후원규모 유지의 관건으로 보임.

1-3. 일시후원

- 배경/필요성: 후원의 트렌드가 정기후원에서 일시후원으로 이동하는 요즘, 일시후원자가 장기적 지지자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예우가 필요함.
- 목표: 일시후원자를 잠재적 정기후원자로 유입하여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상시 진행.
 - 후원 감사 메시지 발송(자동) 및 연 1회 연말정산 안내
 - 요청 시 기부확인서 발급
 - 인상적인 일시후원자 인터뷰 진행
 - 고액 일시후원자 감사인사 및 특별 예우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 일시후원 증가 및 정기후원 전환률 제고.
 - 고액후원자의 효능감 증가.
- 진행내용

구분	내용
후원감사 메시지 발송	상시 진행
인상적인 일시후원자 인터뷰 진행	- 3월 8일 여성의날에 후원한 일시후원자 대상 온라인 인터뷰 진행. - 5명 수락, 4명 응답, 3명만 공개 동의하여 카드뉴스 제작함. - 3/30 홈페이지/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공개 완료. - 응답에 감사하며 응답자 4인에게 이디야 상품권 5천원권 발송
고액 일시후원자 감사인사 및 인터뷰 진행	미진행
기타	- 일시후원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 단체/기업후원(세계여성의날 일시후원 제외, 12/5 기준) : 한샘, UK Online Giving Foundation, 허들을 넘는 여자들, 람지커피, 문학동네, 사회평론아카데미(인세), 게릴라리딩클럽 : 클래스편, 근력학교 주식회사, 와우산30, 해방이화 인문극회,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보라색 물결, 성균관대 심리학과 디지털성폭력연구팀
- 현물후원 : 강oo님 (스마트TV), 세컨드윈드(플로깅백), 문학동네 북클럽(도서 520권), 디오브루잉주식회사 (후원의밤 식비 차액), 도서출판 마티(도서 2종 00권)
- 평가
 -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접근성 높임. 그동안 개인 인증과 추가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일시후원 과정이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는데 보다 손쉽게 후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 2-3년간 3.8 여성의날마다 상담소에 후원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상담소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효능감을 주었음.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정기후원자로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임.

- 정기후원자로의 유입을 위해 뉴스레터 발송 주소록에 일시후원자를 추가하는 등 소극적 개입을 하였음. 일시후원 감사 자동 메시지에 특별후원 참여 안내를 삽입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말걸기가 느껴지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4. 특별후원

- 배경/필요성: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후원자,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후원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일시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 목표: 개인의 일상과 후원이라는 행위를 연결하여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후원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줌으로써 잠재후원자 유입의 저변을 확대함.
- 방법 및 계획
- 상시 진행.
- 일시후원 중 특별한 사연이 있는 후원 발굴.
- 특별후원 게시물 하단에 신청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자발적인 참여 독려.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특별후원 증가 및 상담소에 대한 친밀감 상승.
- 진행내용
- 특별후원 현황(12/6 기준)

후원 일자	업로드 일자	후원내용	비고
1/1	1/9	<허들을 넘는 여자들> 인세 후원	-
1/25	2/6	**님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에 대한 합의금 일부 후원	-
2/7	2/14	윤*원 <소녀X몸 교과서> 대만 출간 기념 선인세 후원	-
2/20	2/23	미강님 <거짓말들>, 문학동네 <말해도 괜찮아> 도서후원	-
4/19	3/2 (홍보물)	여성의날 기념 문학동네 <여성도서기획전> 수익 일부 후원	-
4/21	4/21	와우산30 러닝크루 물품판매 수익금 후원	-
8/11	-	문학동네 북클럽 도서 후원 520권	후원의밤 <페미본색> 굿즈로 증정
9/7	-	서울예대 불법촬영 피해자 손해배상금 일부 후원	
10/13	-	성희롱 피해 합의금 후원	가해자 자원활동 요청
11/16	11/28	도서출판 마티 도서 2종 후원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 생존기념축제 굿즈
11/26	-	보라색물결 프라이드엑스포 수익 일부 후원	-

- 평가
- 기업이 사업 홍보의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느끼는 후원 방식임을 확인함. 미강x문학동네의 도서 후원 소식을 게시한 후 해당 기업 내 다른 파트의 후원 문의가 이어졌는데, 기업 특별후원의 경우 대부분 후원 소식이 기업의 소통 채널에도 업로드 된다는 점에서 기업 고객에게 상담소의 존재를 인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함. 후원 내용이 반성폭력운동, 여성인권운동이라는 상담소의 성격

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하나의 모금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합의금 후원이 세 건 있었음.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소의 활동가 잘 어울리는 후원 내용으로, SNS 상에서도 다른 특별후원보다 ‘좋아요’ 등의 반응이 좋음. 이러한 지지의 반응이 생존자의 피해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더 나아가 기존에 구축해온 내담자-지원자의 관계를 넘어 후원자-후원단체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최근 몇 년간 특별후원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하고 만들어 왔으나, 여전히 팀 내에서 발굴하는 경우가 많음. 다른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도하거나 상담소와 가깝게 연결되는 이들의 상을 타깃으로 삼아 기획 목표를 좁히는 등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1-5.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정기후원에 부담을 느끼거나 일시후원이 낯선 지지자에게 가벼우면서도 접근성 좋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식의 후원이 필요함. 그간 활성화되지 않고 있던 문자후원을 활용하고자 함.
- 목표: 주기적인 내역 확인 및 홍보를 통한 문자후원 활성화.
- 방법 및 계획
- 특정 기념일이나 상담소 행사에 활용.
- 후기 연 1회 발행.
- 업체와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정산 진행.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 문자후원 인지도 증가.
- 정산 사이클 마련.
- 진행내용
- 문자후원 현황(12/5 기준)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건수	6	2	16	1	1	2	2	2	1	2	1	1	37
금액	18천	6천	48천	3천	3천	6천	6천	6천	3천	6천	3천	3천	111천

- 평가
- 정산 이슈 외에도 줄곧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통신사의 부정적 입장으로 안정적인 문자후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문자후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함. 업체와의 문제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후원자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거나 새로운 활성화 기획을 수립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1-6. 후원모금행사

- 배경/필요성: 코로나19 격리 완화로 대규모 대면 만남이 가능해짐. 상근번호사 영입 및 조직 개편으로 예년보다 인건비 지출이 증가하였고, 후원회원의 점진적 감소 추세로 인한 추가 재원이 필요함.
- 목표
-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모금행사 진행.
-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 홍보 및 다양한 지지층 접촉.
- 후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방법 및 계획

- 소장단, 재정 포함 팀별 1인씩 TF 구성.

일정	세부계획
4월	TF 구성, 행사 초기 논의
5월	- 행사 컨셉, 식순, 장소대관 확정 - 후원모금함 기획
6월	- 후원독려캠페인 기획 - 도너스 후원모금함 설정
7월	- 후원모금함 오픈 - 홍보 시작 및 후원 독려 캠페인 진행
8월	본행사 진행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충분한 재정 마련
- 진행내용

구분	진행내용	
사전	전체	후원의밤 장소 탐색 4/4~5/10 with 자원활동가 지원 장소 사전답사 5/3(아이러브팝), 5/10(옥토버퀘스트) 전체 회의 5/12, 5/25, 5/30, 6/22, 7/11, 8/3, 8/10, 8/17, 8/24 평가 8/31 TF 옥토버퀘스트 답사 7/6 디자이너 미팅 6/22, 7/11
	모금 /홍보	회의 6/7, 6/14, 6/28, 7/6, 7/18, 7/28, 8/2 모금함 오픈 7/14 홍보 카드뉴스 발행 7/14, 7/17, 7/19, 7/21, 7/26, 7/28, 8/2, 8/4, 8/9, 8/11, 8/16, 8/18, 8/23, 8/25, 9/1 후원물품 발송 8/18, 8/31
	현장	활동가 현수막 자원활동가 OT 8/22, 8/23
	섭외 /이벤트	6/2, 6/19, 7/5, 7/17, 8/2, 8/22 경매물품 모집 6/26~ 포토부스 및 음향 업체 선정 7/17 활동유형테스트 공개 7/19 십자말풀이 제작 7/25 성명서 단어 선정 8/2 폰트 연습 8/16 경매 및 방판 물품 정리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자: 12명(라다, 토리, 윤정원, 한채윤, 권김현영, 백목련, 도경의 양친, 혜영, 김수경, 위밋업스포츠허, 송연, 민주노총)
본행사 (8/25)	[2023 후원의밤: 페미본색 진행]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퇴장: 도경, 오매, 은희, 유랑, 호랑, 감이, 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인: 경진, 자원활동가 여름, 장미, (+파랑) • 정산: 란, 해주 • 비건메뉴: 지희, 동은, 낙타, 상아, 자원활동가 람쥐(조리), 엘렌, 최하림 (서빙) • 사진촬영: 수수, 자원활동가 은결, 너굴 <p>상시이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토부스: 자원활동가 메이 • 물품 판매대: 자원활동가 유우지, 앞 • 십자말풀이: 자원활동가 원영 <p>시간대별 이벤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아, 산, 수수, 자원활동가 너굴(PPT), 상연(무대보조) 			
분류	파트명	내용	총괄
홀	입퇴장	입장 시 자리 안내 및 메뉴/이벤트 소개 잔여자리 확인	도경
	체크인	후원내역 확인 후 티켓/리워드 배부	달별
	정산	테이블별 주문 확인 및 티켓 외 추가결제분 정산 (행사 종료 후) 옥tober혜스트 추가지급액 확 인 후 정산	란
	비건메뉴 조리	비건메뉴 4종 조리 및 서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마른안주 • 비건 플래터 • 비건 소세지 • 비건 피자 	지희
	사진촬영	기록/홍보용 행사 사진 촬영	달별 /산
상시 이벤트	포토부스	세컷사진 촬영 (2장에 5000원)	수수
	페미방판	경매용으로 후원한 물품 중 경매로 판매하기 어려운 상품 현장에서 책정가로 판매. + 페미 본색 티셔츠, 스티커	수수
	십자말풀이	직접 제작한 십자말풀이를 풀고 추첨 통해 시 타 핸드크림 증정 (페미본색, 강주룡, 한국성폭력상담소, 가지가 지, 보라색, 페스코, 여성주의상담, 안전한임 신증지, 폭행협박, 위력, 소식지, 후원회원)	산
시간대별 이벤트	성명서 게임 (7시-7시반)	세컨드윈드 플로깅백, 시타 핸드크림 증정	산
	공연 (8시-8시40분)	이반지하 공연 (40분) 1) 휘성 - 결혼까지 생각했어 2) 보이즈투맨 - I&ll make love to you 3) 천지인 - 청계천8가	산

			4) 이반지하 - 나는 이반 그녀는 일반 5) 이반지하 - 오염(앵글)	
	경매 (9시-9시40분)		총 10개 물품 경매 진행 1) 무지개 호리병 세트 2) 다기 세트 3) 쿼어 타로 세트 4) 고대 이집트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림 5) 니코 시크릿가든 찻잔 1세트 6) 원피스 두 벌 7) 2007년 반장 노수 보이차 8) 사진관 언니와호랑이 가족사진 촬영권 9) 수제 장 2중(된장/간장) 10) 사인볼과 유니폼 세트	신아
사후	리워드 발송	8/31 후원의밤 미방문자 리워드 발송		
	회고 회의	9/6 자원활동가 회고 회의 9/8 디자이너 회고 회의		

- 평가
- 목표 모금액인 6천만원을 달성하여 상담소 활동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함. 반성폭력 운동에 후원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즘 운동의 일환으로서 본 상담소에 후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함.
- 활동가들의 열띤 노력으로 목표금액을 달성하였음. 활동가별 모금액수는 활동가 주변에 상담소와 상담소 활동을 소개하고 후원을 제안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시의적절한 컨셉과 주제로 영역과 분야를 넘어선 다양한 페미니스트들이 모이고 참여하는 행사로서 각계 각층의 지지자와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음. 후원자들에게는 안전한 페미니스트 공간으로 서로의 연결감을 확인하고 본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해방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함.
- 활동가 유형테스트, 알찬 홍보물 등 후원행사를 사전에 알릴 수 있는 장치를 배치하여 행사에 대한 관심도를 높인 점이 후원의밤 방문객의 숫자를 높이고 기대감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음.
- 당일 행사 장소가 다소 협소하여서 대기 시간이 길었음. 서울 시내 대형 주점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지금, 비슷한 규모의 후원행사를 준비할 때 다른 형식이나 방법을 시도해볼 필요 있음. 또한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로 후원자들의 반응은 몹시 좋았으나 실무의 측면에서 과부하인 측면이 있었음. 추후 후원 행사 준비 시 행사 및 이벤트의 가짓수를 줄여서 실무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함.

1-7. 감경후원 대응

- 배경/필요성: 가해자변호사 시장이 대중화된 지금, 감형을 만들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개발되고 있음. 피해자 지원단체 후원은 오래전부터 활용된 전략으로, 현재까지도 성폭력 가해자의 후원이 적발되고 있음.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을 상담소 활동에 보내는 지지와 응원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감경후원 전략을 유효하지 않게 만들 필요성이 있음.
- 목표: 성폭력 가해자 변호시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대응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면피 목적 후원을 줄임.
- 방법 및 계획:

- 모금윤리 개정
- 사례 발굴 시 시기적절하게 이슈파이팅 및 대응
- 담당자: 닷벌, 산
- 기대효과: 상담소 내부 지침에 근거한 원활한 후원 거부 처리, 개별 재판부에 감경후원 문제의식 전달
- 진행내용

구분	진행	
모금윤리 개정	3/29 모금윤리 개정안 초안 작성 4/4 모금윤리 1차 개정안 4/6 이사회 의견회람 4/27 최종안 개정 완료 4/29 홈페이지에 모금윤리 개정안 게시	
적발 사례 대응	공지 업로드	4/27 감경후원 적발 공지: 적발 시 해당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계획
	후원유형 : 정기후원	- 전**(11332) 3/6 피해자 변호사에게서 가해자의 기부내역 제출 제보 받음. 3/14 3월 이사회: 전** 회원 제명 결정 및 모금윤리 개정 논의
	죄목 : 강제추행	3/17 가해자 전00 후원내역 제출 관련 의견서 초안 작성 3/22 피해자 변호사 피드백 및 소통 3/29 가해자 후원금 전액 반환 및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완료.
	후원유형 : 정기후원	가해자 송**(17482), 가해자 파트너 김**(17486) 5/17 천주교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 중인 불법촬영 건의 가해자임을 제보.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상담소에 후원중이라고 하여 상담소에 연락주심. 피해자 9인 병합 사건이고 그 외 특정 가능한 피해자는 더 많음. 동종전과 있고, 2심 진행 중. 후원처 확인 후 연락주기로. 상담소에서 제출한 감경후원 의견서 참고하시라고 전달.
	죄목 :카메라등이 용촬영에관 한죄	5/31 확인 결과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중으로 밝혀짐. 사건 전달한 의견서 바탕으로 감경후원 재고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함. 6/2 가해자 파트너와 소통 후 후원금 전액 반환. 2심 선고. 징역2년/집행유예 3년, 봉사명령 200시간.
	후원유형 : 일시후원	- 심**(17638) 5/26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에서 지원 중인 불법촬영 건의 가해자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했다며 선처 요청. 사실 확인차 연락. 확인 결과 일시 5만원 후원자. 가해자와 가해자 형이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무고죄가 무혐의가 났음에도 항고함. 6/28 의견서 발송. (7/21 선고)
	죄목 : 카메라등이 용촬영에관 한죄	
	후원유형 : 정기, 일시	- 이**(18203) 8/24 동일한 날짜에 일시후원 100만원, 정기후원 10만원 약정
	죄목 : 준강간, 성폭력처벌 법위반(특수	8/25 가해자임을 제보받음(경찰인 제보자에게 영장전담판사가 가해자의 후원 시기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함). 9/4 1심 선고결심 잡히면 의견서 제출하기로 결정. 10/24 제보자로부터 송치 소식과 담당 검사 확인.

준강간)	<p>11/7 하반기 인사변동으로 인해 담당 검사 변경 사실 및 담당 부서(여성아동범죄조사1부) 확인. 제보자가 변경된 검사 조회 가능한지 확인해보겠다고 함.</p> <p>12/6 제보자 확인 불가하다고 알림. 법무부 양성평등 파트에 문의하여, 처분 완료 사실 및 변경된 담당 검사 확인.</p> <p>담당 검사에 기소 여부 등 진행상황 문의 예정.</p>
------	---

- 평가
- 법률전문가인 이사-자문위원을 활용하여 모금운리의 보완점을 정돈하여 후원금 반환 및 제명 절차에 대한 근거조항을 잘 마련하여 가해자(후원) 후원자의 법정대응 리스크를 줄임.
- 감경후원 공지를 게시한 이후 피해자 지원단체 두 곳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대법원 양형위원회, 법무부 이외에 실제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감경 목적 후원에 대한 현장단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음. 한편 양형판단에 유리할 목적으로 감경후원하는 가해자가 형사공탁도 진행하는 공통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 상담팀과의 협업과 기존에 작성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재판부에 현장단체의 목소리를 알려야 함.

1-8. 회원동향분석

- 배경/필요성: 개인의 소비를 결정하는 요소가 다양해지고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현재,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담소의 내/외부적 요인이 후원에 주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회원 관리 및 홍보 사업 방향의 객관적 지표 마련.
- 방법 및 계획
- 연 2회 반기별로 도너스에서 회원 데이터 추출하여 진행.
- 분석 주제를 시기적절하게 설정하여, 특기할만한 내/외부적 이슈와 후원의 연관성 확인.
- 담당자: 닷별, 산
- 기대효과
- 사업의 불확실성 감소 및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연령대, 성별, 후원기간 등 회원특성별 동향 파악.
- 상담소의 대중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 진행내용
- 상반기

* 2018년~2022년 신규정기 후원회원 후원 유지비율 분석(총 1633명)

구분	신규후원회원	후원 유지	후원 탈퇴	후원 유지 비율
		(2022년 12월 31일 기준)		
2018년	209	109	100	52.2%
2019년	229	134	95	58.5%
2020년	577	342	235	59.3%
2021년	390	211	179	54.1%
2022년	228	167	61	73.2%

* 2022년~2023년 신규정기 후원회원 관심분야 세부분석 (92명 대상)

구분	응답수
성폭력 관련 법/정책 개선	81
반차별운동	47
재생산권	30
연구/교육	32
성폭력 피해생존자 역량강화	51
성문화운동	41
여성/인권	66
국제연대	23
합계	371

- 하반기

* 2023년 신규 후원회원 성별/연령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공개	소계
여	1	20	29	6	2	2		60
남	1	21	16	5	3	0		46
비공개	1	26	23	7	2	0	44	103
소계	3	67	68	18	7	2		209

* 2023년 신규 후원회원 소식 전체 수신동의 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비공개
문자수신	3	61	56	16	7	2	40
이메일수신	3	54	54	14	6	1	38
우편물수신	1	45	37	8	3	1	38
전화수신	2	45	41	9	5	0	43
총 인원	3	67	68	18	7	2	44

• 평가

- 회원과 만나고 소통할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만한 정보들을 생산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음.
- 당초 계획과 달리 성별/연령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후원회원의 수가 도너스 전환 이후 증가하며 분석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어림짐작으로만 느끼던 상담소의 현재를 지표 중심으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자료를 토대로 이후 회원 대상 사업 뿐만 아니라 상담소 전반의 사업을 조직/기획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음.

목표2. 다양한 방식의 연결고리를 통해 회원 지지자와의 접점을 늘린다.

2-1.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임.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음.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 매호마다 상담소의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 소식을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담소의 연간 상담통계를 공유하고 있음.

- 목표: 상담소 활동의 기록·홍보, 회원 및 반성폭력 운동 지지자/참여자/동료들에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 전달, 회원 참여의 장 확대, 회원 소통 증진
- 방법 및 계획

구분	내용
발간	- 91호(3월) 및 92호 발간(8월), 93호 발간 준비(9월). - 기획 회의를 통한 내용 구성 및 필자 선정, 원고 청탁 및 수합, 편집 및 편집 디자인 (외주 제작), 교정, 발간 및 홍보, 발송·배포, 반송분 처리.
개편	- 93호 반영 목표로 디자인 및 목차 개편 추진. - 상담소의 대외적 이미지 컨셉화, 코너별 성격 재확립. - 편집·디자인사와 구체적 개편안 생산. - 업무 매뉴얼 업데이트.

- 담당자: 닷별(91-92호), 산(개편 및 93호)
- 기대효과

구분	내용
발간	- 다양한 사람(상근/자원/인턴 활동가, 회원, 비회원 등)의 투고를 통해 상담소 활동 홍보 및 친밀감 향상. -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일상을 만나는 장 마련. - 무겁지 않고 쉽게 구성한 글로 상담소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지.
개편	- 디자인 개편을 통해 '소장하고 싶은', '펼쳐보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고, 상담소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 - 목차 개편을 통해 코너별 성격을 명확히 하고 결을 정돈.

- 진행내용

구분	진행																									
나눔터 9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간일: 2023년 2월 24일 ◎ 제작부수: 총 1,200부, 발송부수 : 1,022부 ◎ 담당: 닷별 <p><진행 내용 : 91호 세부 목차></p> <table border="1"> <thead> <tr> <th>코너</th> <th>내용</th> <th>필진</th> </tr> </thead> <tbody> <tr> <td>표지</td> <td>미투운동 중간결산 플랜카드</td> <td>-</td> </tr> <tr> <td>표지 안쪽</td> <td>산 타는 페미들이 나가신다!</td> <td>닷별</td> </tr> <tr> <td>목차</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이렇게 활동했습니 다</td> <td>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끝 아닌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td> <td>동은</td> </tr> <tr> <td>누구의 '희망', 무엇을 위한 '이음'인가?</td> <td>오매</td> </tr> <tr> <td>친족성폭력 생존자랑대회 2회차, 기획부터 실행까지!</td> <td>행복</td> </tr> <tr> <td>똥대상담소</td> <td>2022년 하반기 월별 주요 활동</td> <td>닷별</td> </tr> <tr> <td>상담통계</td> <td>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td> <td>상담팀</td> </tr> </tbody> </table>	코너	내용	필진	표지	미투운동 중간결산 플랜카드	-	표지 안쪽	산 타는 페미들이 나가신다!	닷별	목차	-		이렇게 활동했습니 다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끝 아닌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	동은	누구의 '희망', 무엇을 위한 '이음'인가?	오매	친족성폭력 생존자랑대회 2회차, 기획부터 실행까지!	행복	똥대상담소	2022년 하반기 월별 주요 활동	닷별	상담통계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상담팀
	코너	내용	필진																							
	표지	미투운동 중간결산 플랜카드	-																							
	표지 안쪽	산 타는 페미들이 나가신다!	닷별																							
	목차	-																								
	이렇게 활동했습니 다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끝 아닌 이어서 계속되는 이야기	동은																							
		누구의 '희망', 무엇을 위한 '이음'인가?	오매																							
		친족성폭력 생존자랑대회 2회차, 기획부터 실행까지!	행복																							
	똥대상담소	2022년 하반기 월별 주요 활동	닷별																							
	상담통계	2022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상담팀																							

열린터 다이어리	계획한 대로 안 해도 돼!! 부담 NO NO	연화
생존자의 목소리	집단상담 후기: 화요일의 아홉 생존자들	두부고양
성문화읽기	어려우니까, 스테디합시다! : 열린터 온라인X청소년X섹슈얼리티 스테디	낙타
	젠더폭력과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의 부재, 그래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는 우리의 정치적 책임 문제이다	란
	적극적 합의를 알아가는 세 가지 방법	얌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 : 시리즈 집단회 로우(LAW)킵 뒤에 숨은 내심	감미
시끌시끌 상담소	산행하는 페미니스트들, 지리산에서의 한 걸음	지리산
	자원활동가 기자단 '틈', 인사드립니다!	닷별
	상호돌봄의 디자인, 외주를 넘어 동등한 관계의 협업으로	산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 후원방법 안내	닷별
훈훈한 기부	주요 현물 기부 명단	닷별
뒷표지 안쪽	적극적 합의 카드게임	-
뒷표지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오픈	-
총 분량(A4*1.6배=나눔터 분량)		

◎ 발간일: 2023년 8월 11일
◎ 제작부수: 총 1200부, 발송부수: 966부
◎ 담당: 닷별

<나눔터 92호 세부목차>

코너	내용	필진
표지	강간죄 개정연대 국회 토론회	-
표지 안쪽	불안과 퇴행의 시대에도, 지지하지 않고 함께 가요!	닷별
목차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	신아
	연결된 문제, 연결된 변화 : 강간죄개정연대 릴레이 의견서	오매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공간 만들기 :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후기	산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무죄 판결이 보낸 시그널	오매
	시민 혈세 도둑, 흡혈집단으로 매도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란
똥다!상담소	2023년 상반기 월별 주요 활동	닷별
열린터 다이어리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나의 방법	열린터

생존자의 목소리	#metoo 나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이유나
	Dear. 나에게	비아
성문화읽기	'벗방', '소라넷', 'N번방'을 관통하는 '육망'	호랑
시끌시끌 상담소	재입사한 기분! 첫 로테이션 대상자들의 소회	파랑
	동물사랑단 경진의 합정동 생태관찰기	경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 후원방법 안내	닷별
훈훈한 기부	주요 현물 기부 명단	닷별
뒷표지 안쪽	2023 열림터 문집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	닷별
뒷표지	2023 후원의밤 <페미본색>	닷별
총 분량(A4*1.6배=나눔터 분량)		

- 지난 91호에 투고 거절했던 <생존자의목소리> 원고를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와의 피드백 과정을 거쳐 재투고.

- 우편 및 디지털 발행 두 트랙 운영

1. 나눔터

- 한가지 주제를 깊게 파고들어서 상담소 활동을 보다 자세히 알리고 주요 의제를 확산하며 담론을 생산.

- 목표:

- 활동 기록 및 홍보를 넘어, 주요 의제 확산, 현장의 상황 공유, 참여 독려
- 반성폭력이슈리포트와 올림이 부재한 상황에서 상담소의 전문성 확보

- 주요 주제

- 1년 활동을 관통하는 주제, 키워드
- 상담소가 더 알고 싶은 의제

- 발간 주기: 연 1회 / 매년 1월 말-2월 초 발간

- 발간 방법

- 매년 1월 말-2월 초 우편 및 디지털(카카오 알림톡으로 웹페이지 연결) 발간
- 기존 회원/구독자: 우편 혹은 디지털 발간 선택하여 받아보도록 안내
- 신규 회원/구독자: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되, 요청시 우편 발송

- 인쇄물 발간 부수: 기존 회원/구독자 설문 필요 (+ 국립중앙도서관, 성평등도서관, 국립여성사전시관 각 2부, 보관용, 외부 필진 발송용)

- 분량: A4 기준 40장 내외

- 독자층

- 상담소의 활동을 알고 지지하는 회원, 사람.
- 반성폭력운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 성폭력 피해생존자

- 디자인 및 인쇄

- 디자인: 레퍼런스 수집 후 디자인이즈 미팅
- 인쇄: 친환경 용지 및 잉크 사용 업체 탐색

- 목차

- 필수목차: 여는 글, 기획특집, 상담통계, 된다!상담소, 열림터 다이어리, 생존자의 목소리, 쟁점과 입장,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훈훈한 기부, 살림보고
- 선택목차①(택1-2): 주제와 관련된 글, 법정책 뜯어보기, 외부 기고, 이슈 돋보기, 만나고

개편

	<p>싶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목차②(택1-2): 주제와 무관한 독자의 집중력 환기 목적, 산소같은 혐오, 교차하는 책임기, 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 활동가의 인생다큐, 활동-툰 <p>1. 나눔터 웹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터 아카이빙 - 디지털 발행 전환 - 제작 방법: 노션 활용 → 활성화하면 신규 웹사이트 제작 판단 <p>3. 실무 타임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9월 중순: 기획단 구성 및 목차 확정, 원고 배분, 외부 필진 섭외 및 생존자의 목소리 두고 홍보 - 10월: 목차를 바탕으로 편집디자인사와 미팅, 컨셉 확정 - 11월 중순: 내부 필진 원고 마감 - 11월 말: 외부 필진 원고 마감, 기획단 회람 - 12월: 최종 원고 검토 - 1월 초: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훈훈한 기부 명단 정리, 편집 및 디자인 의뢰 - 1월 중순: 교정교열, 발송 주소록 정리 - 1월 말-2월: 발송, 웹페이지 업로드, 비용 처리, 반송처리 - 3월-익년 1월: 월간 뉴스레터에 한 꼭지씩 달아 발송 <p>4. 94호 개편호 발간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부터 활동가 1인이 건담하여 준비한 사업으로, 올해 93호 발간을 목표로 목차 구성, 발간 방식, 디자인 안 등 구체적인 개편안을 구상하기 시작했음. 2인 팀 특성 상 1인 1사업 체제가 쉽지 않은데다 워낙 큰 사업이었기에, 담당 활동가의 실무 및 부담 과중으로 94호부터 개편호를 발간하기로 결정함. - 24년 1분기에 편집 관련 강의 수강, 민우회(최근 소식지 개편)와 장애여성공감(연간지 [마침,] 발행)의 담당자 면담, 디자이너 및 편집사 미팅 등을 진행하여 담당 활동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무를 준비할 예정임. 															
<p>나눔터 93호</p>	<p>◎ 발간일: 2024년 2월 예정</p> <p>◎ 담당: 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3 기획단 1차 회의 진행 - 11/30 원고 1차 마감 - 12/6 원고 2차 마감 <p><나눔터 93호 세부목차></p> <table border="1" data-bbox="285 1472 1208 1723"> <thead> <tr> <th>코너</th> <th>내용</th> <th>필진</th> </tr> </thead> <tbody> <tr> <td>표지</td> <td>동의인터뷰 결과 공유회 or 제3회 생존기념축제</td> <td>-</td> </tr> <tr> <td>표지 안쪽</td> <td>후원의 밤</td> <td>산</td> </tr> <tr> <td>목차</td> <td>-</td> <td></td> </tr> <tr> <td>이렇게 활동했습니다</td> <td>젠더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 속 현장의 고민</td> <td>란</td> </tr> </tbody> </table>	코너	내용	필진	표지	동의인터뷰 결과 공유회 or 제3회 생존기념축제	-	표지 안쪽	후원의 밤	산	목차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젠더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 속 현장의 고민	란
코너	내용	필진														
표지	동의인터뷰 결과 공유회 or 제3회 생존기념축제	-														
표지 안쪽	후원의 밤	산														
목차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젠더폭력 피해 지원 시스템을 축소하는 정책 기조 속 현장의 고민	란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 리뷰	신아
		친족성폭력 쟁점 간담회 개최 후기	동은
	똥다!상담소	2023년 하반기 월별 주요 활동	산
	상담통계	2023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상담 팀
	열린터 다이어리	'함께 살기'의 어려움과 주거지원에 대한 고민	수수
	생존자의 목소리	소박한 일상으로 한걸음이 되기까지	민희
		감사해서 존재하는 이안나(가제, 확인 필요)	안나
	성문화읽기	보호출산제의 모든 것	유랑
		흥기난동 사건에 대한 상담소 활동가들의 대화록	수수
		강간죄 통계 분석 및 시사점	오매
	시끌시끌 상담소	커뮤니티데이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후기	닷별
	아낌없이 주는 나무	후원회원 명단 / 후원방법 안내	산
	훈훈한 기부	주요 현물 기부 명단	산
	뒷표지 안쪽	개편호 안내	산
	뒷표지	동의 인터뷰 자료집 혹은 후원회원 가입 독려	산
총 분량(A4*1.6배=나눔터 분량)			

• 평가

<91호 발간>

- 상담팀이 기존에 지원했던 내담자가 원고를 투고하였는데, 나눔터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의 사건 정리나 회복이 되지 않아 글 다듬기 및 제안에 큰 어려움 겪었음.
- 나눔터 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번 나눔터는 예정되어있던 원고 1개가 비어 큰 무리 없이 진행했으나, 다음호부터는 담당자가 적절히 처낼 필요 있음.
- 교정/교열 단계에서 상호 확인이 누락되는 것들이 있는데, 촉박한 검토 일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 임. 상호검토체계가 잘 갖춰질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 실무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의제들이 적절히 선정되어 상담소 후원회원들이 뉴스로 접해보았으나 어떤 연관성이 있나 해석하기 어려운 주제가 상담소의 관점으로 나눔터에 담길 수 있었음.
- 오늘의풍경, 자원활동가 기자단 등 등 함께 활동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수록하여 하반기 활동을 균형있게 소개하고 상담소가 관계맺고 있는 사람들/그룹과의 연결성을 잘 드러낼 수 있었음.

<92호 발간>

- 나눔터의 고질적 문제인 분량 증가와 발간일정 연기 문제를 담당자의 판단으로 적절히 정리하여 기한 내 잘 발간하였음.
- 표지와 주제 모두 시의성 있는 활동으로 적절히 선택되어 최근 상담소의 주력 활동과 고민을 회원을 비롯한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음.
- '활동가 로테이션 소회'는 조직 변화 과정을 담은 종이기록물로서도, 회원들에게 상담소의 조직 체계를 소개하는 기회로서도 의미깊은 주제 선정이었음.
- <생존자의목소리> 코너를 통해 공론화를 목표로 하는 피해생존자들이 점점 늘고 있음. 개중 코너 성격에

맞지 않는 글도 종종 투고되고 있어, 투고자 모집 시 '투고한 글이 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추가할 필요 있음.

<개편>

- 개편안은 확정이 되었지만, 나눔터가 갖는 역사성과 의미를 고려하여 팀 내 역할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 졌다면 개편 방향을 함께 상상하고 다각도로 고민하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2-2.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에게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함. 현행 이메일 소식지 형식을 개편하여 오픈율을 높임.
- 방법 및 계획
 -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23년 1월호~12월호, 총 12회).
 - 활동가 2인이 격월로 번갈아가며 담당함.
 - 발송 대상: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집중할만한 활동을 짧게 소개.
 - 스티비로 포맷 제작, 도너스로 발송하여 발송기록 일원화.
 - 뉴스레터 아카이브 페이지 오픈 및 홍보.
- 담당자: 닷별(홀수월), 산(짝수월)
- 기대효과
 - 매월 회원 및 구독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소 활동 소식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함.
 - 소식지 담당 활동가의 활동명을 드러내어 상담소에 대한 친밀감을 높임.
- 진행내용
- 전체 발송 내역 및 결과 집계(12/7 기준)

호수	발송일	제목	발송 건수	오픈율	클릭률
1월호	1/2	[뭔다!상담소_1월호] 지워도 지워도 안 지워지지!	3798	22.8%	2.1%
2월호	2/1	[뭔다!상담소_2월호] 지워지지 않는 이들의 흔들림 없는 연대	3158	27.9%	2.6%
3월호	3/2	[뭔다!상담소_3월호] 페미대명절, 시청광장에서 만나요!	3839	25.7%	2.7%
4월호	3/31	[뭔다!상담소_4월호] 봄바람 휘날리며~ 흠날리는 혐오 차별~ 부순.다!	3805	24.3%	2.1%
5월호	5/2	[뭔다!상담소_5월호] !급구! 반성폭력 공각지 모집합니다@@@	3798	25.1%	1.7%
6월호	6/1	[뭔다!상담소_6월호] 동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자	4205	21.1%	2%
7월호	6/30	[뭔다!상담소_7월호] 상반기 결산: 퇴행의 파도를 거스른 시간	4026	22.2%	1.1%
8월호	8/1	[뭔다!상담소_8월호] 8월 25일, 회원님의 본색을 드러	5451	25.3%	1.8%

		낼 저녁!			
9월호	9/1	[뭔다!상담소_9월호] 541명의 후원, 101% 달성! 힘차게 가을로 가겠습니다	5077	22.3%	1.4%
10월호	10/4	[뭔다!상담소_10월호]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연대	5056	23.1%	1.8%
11월호	11/1	[뭔다!상담소_11월호]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5041	21.6%	1.8%
12월호	12/1	[뭔다!상담소_12월호] 보여줄게! 완전히 '설치는' 우리	5052	21.5%	1.8%

비고

- 작년에 구성을 재배치하고 집중도를 높인 이후, 오픈율은 20%대, 클릭률은 2% 전후를 유지하고 있음.
- 4월호부터 뉴스레터 주/부담당으로 나누어 2인이 함께 뉴스레터 작업 진행. 주담당자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뉴스레터 발송 도모함.
- 6월호부터 후원회원 주소록에 메일수신 동의한 일시후원자와 정기후원 중단자, 자원활동가 등을 포함하여 발송하여, 오픈율과 클릭률 변동폭이 크게 나타남.

- 그룹별 발송 내역 및 결과 집계

호수	회원(후원자, 자원활동가 등)			구독자		
	발송건수	오픈율	클릭률	발송건수	오픈율	클릭률
1월호	3757	22.3%	2%	41	72.4%	10.7%
2월호	3112	27.3%	2.4%	46	71.7%	21.5%
3월호	3791	25.3%	2.5%	48	66.5%	16%
4월호	3753	23.9%	2%	52	61.3%	10.6%
5월호	3740	24.5%	1.6%	58	72.1%	9.4%
6월호	4145	20.6%	1.8%	60	60.5%	16.5%
7월호	3957	21.4%	1%	69	70.1%	12.8%
8월호	5379	24.8%	1.7%	72	67.2%	7.6%
9월호	5000	24.1%	1.5%	77	51.4%	2.9%
10월호	4976	24.9%	1.9%	80	60.5%	8.3%
11월호	4958	23.2%	1.8%	83	57%	10.6%
12월호	4961	23.2%	1.8%	91	47.1%	9.7%

비고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독을 신청하는 구독자수가 꾸준히 늘었고, 1월 대비 12월 구독자 수는 두 배 이상 증가했음. 자발적으로 구독을 신청하는 만큼 회원 대상 발송에 비해 오픈율과 클릭률이 높음. 오픈율은 일정하지 않지만, 12월호를 제외하면 모두 50% 이상을 웃뽀. 클릭률은 변동폭이 크나, 그달의 콘텐츠가 구독자의 관심사나 흥미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해석됨.

• 평가

- 4월부터 2인이 격월로 주/부담당을 바꿔가며 함께 작업하여 효율성을 높였는데, 두 활동가의 문체가 달라 보는 재미가 더해짐. 대치어를 잘 활용해 수신자에게 말을 거는 느낌으로 제작해왔는데, 담당 활동가의 활동명을 드러낸 것과 고민하고 질문하는 문장과 어우러져 소속감과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음.
-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 외에 별도 홍보가 없음에도 구독자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임. 잠재후원자를 유입하고 상담소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하는 소정의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음.
-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에게 그달의 중요한 소식들을 특정, 고정된 주기로 알리는 창구로써 잘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직접 구독을 신청한 구독자들을 후원이나 자원활동은 하지 않는 소극적 참여자로 해석한다면, 클릭률이 높은 콘텐츠를 확인하여 대중이 어떤 의제에 주로 관심이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사업에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후기 작성이 루틴화될 필요가 있음. 월말마다 뉴스레터 담당 활동가가 누락된 연명, 논평, 후기 등을 확인하여 더블체크 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뉴스레터 담당 활동가만의 업무로 인식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신규] 2-3.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 배경/필요성: 회원들과 함께 하기 좋은 페미니스트 콘텐츠를 오픈 행사화함. 회원들과는 커뮤니티 빌딩, 관계형성을 통해 함께 살아가기 공유지를 만들고, 최근의 콘텐츠, 신간, 사람(강사)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에게 활동과 삶, 사회인식상 좌표/모델을 제안한다
- 목표: 페미니스트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화두를 나누는 자리를 형성, 상담소 회원 커뮤니티를 만들어 감
- 담당자 : 산, 오매
- 진행내용

준비과정	<p>3/7 회원홍보팀 기획회의 1차 3/8 상근활동가회의 제안 논의 - 진행자 결정 3/9 은화, 산 행사 제목 및 메인 카피 기획회의 : “페미삶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 3/15-16 홍보물 제작 및 홍보 시작</p> <p>페미니스트야? 질문 앞에 망설이는, '백래시' 시대를 건너는 당신. 내 지인이 안티 페미니스트인데, 관계끊기도 쉽지 않은 날들.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버려두고 내치는 사회에서 페미니스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있나요?</p> <p>쓰고, 공부하는 여성의 삶을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미투 후 5년, 기쁨도 저항도 포기하지 않고 쓰는 삶을 느끼게 해주는 최영미 산문집을 읽고 최영미 시인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사회 변화 뒤에 오는 반동, 백래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략을 같이 모색하자는 신간을 읽고 신경아 교수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p> <p>봄기운 새록새록 돋는 4월,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에 초대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일시 _ 2023년 4월 20일(목)(두번째) 19:30 4월 6일(목)(첫번째), <input type="checkbox"/> 장소 _ 한국성폭력상담소 B1 이안젤라홀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7번 출구 도보 6분) <input type="checkbox"/> 참가신청 링크 _ https://bit.ly/4월북토크</p> <p><input type="checkbox"/> 참가비 _ 후원회원 5,000원 / 비회원 15,000원 (우리은행 1005-480-224994 (사)한국성폭력상담소)</p>
------	---

	<p>가벼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합니다 (비건 옵션) <input type="checkbox"/> 건물 내 엘리베이터로 휠체어 접근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문자 통역이 제공됩니다 <input type="checkbox"/> 책은 미리 읽고 오시면 됩니다. 현장에서도 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38-2890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홍보팀 산)</p> <p>3/23 실무준비 회의 (산, 오매) 3/28 1회 행사 2차 홍보물 릴리즈, 보도자료 배부 3/31 1회 저자 사전 미팅 (신아, 산, 오매, 달별, 최영미) 4/6 1회 행사 진행 4/11 회원홍보팀 1회 행사 평가 및 2회 준비 논의 4/12 2회 행사 2차 홍보물 릴리즈 4/17 2회 저자 사전 미팅 (달별, 오매, 신경아) : 4/20 2회 행사 진행 : 4/25 회원홍보팀 2회 행사 평가</p>
1차 진행	<p>4/6(목) 기쁨도 저항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쓰기 읽어올 책 <난 그 여자 불편해> (최영미 산문집, 이미출판사) 최영미 시인과 나누는 이야기 진행 _ 신아 (성문화운동팀 활동가)</p>
2차 진행	<p>4/20(목) 변화 뒤에 오는 반동, 백래시 시대 페미로 사는 이를 위한 공부 읽어올 책 <백래시 정치> (신경아 지음, 동녘) 신경아 교수와 나누는 이야기 진행 _ 달별 (회원홍보팀 활동가)</p>
사후	<p>홈페이지 후기 게시, 뉴스레터 후기 발송, 나눔터 원고 수록</p>

- 평가
- 1차, 2차 주제가 달랐지만 어울렸고 필요한 이야기를 했던 자리라고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참여, 연대, 목소리 내기, 정치세력화, 팟 만들기에 대한 필요성 공감, 만나는 연대의 효능에 대해 체감하는 자리였음
- 중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실무를 역분해서 추진할 때 여전히 원활한 소통이 덜 되는 측면이 있지만 계속 시도하고 조율해나가는 경험이 필요

2-4. 회원놀이터

- 배경/필요성: 상담소 회원과 반성폭력운동에 관심을 갖는 동료시민들이 상담소를 보다 친근하게 여기고,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신규회원의 유입과 참여회원의 소속감 및 유대감 강화, 상담소의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 공급.
- 방법 및 계획
- 연 1회 진행 및 후속 소모임 연결.

- 시쓰기강좌-낭독모임, 비건요리클래스-채식챌린지 등 소모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원데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 상담소에 대한 소속감 및 친밀감 향상.
- 신규후원회원 가입.
- 상담소가 반성폭력운동 담론을 만들고 이야기하는 공간임을 넘어, 페미니스트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회원 간의 지속적인 만남이 가능한 일상적 거점이기도 함을 외부적으로 보여줌.
 - 진행내용: 사업 포화로 인한 미진행. 상반기에 사업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으나 상반기 사업의 마무리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하반기로 미뤄지는 등의 사유로,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11월에 타 사업(지속후원자예우 커뮤니티데이, 한해보내기)이 겹쳐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함.
 - 평가
- 타 사업 일정과 겹쳐 회원놀이터 명분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해 아쉬우나, 지속후원회원 커뮤니티데이(1-2)와 후원야밤 페미본색(1-6),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2-3 참조) 등 다른 활동을 통해 회원들과 만나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음.
- 회원놀이터 미진행에 따라, 소모임 활성화를 위해 계획했던 연계 소모임 역시 진행하지 않게 됨. 소모임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를 확인한 올해에 매우 아쉬운 부분임.

2-5. 회원소모임

- 배경/필요성: 상담소를 거점으로 회원 및 반성폭력운동에 관심을 갖는 동료시민이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목표: 정기모임을 열어 회원/지지가들이 상담소의 분위기를 알아가고 소소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상근활동가 1인 진행.
- 소모임 담당 활동가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회원놀이터 연계 소모임 등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예정.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상담소라는 공간과 활동가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느슨한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구성하고, 모임원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담소에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매개로서 기능함.
- 진행내용
- <월간 00 수월> 2023.08~
 - 성격: 페미니즘/성폭력 관련 책 읽기 소모임
 - 담당: 여성주의상담팀 감이
 - 만남 주기: 매월 셋째주 목요일 저녁 7시
 - 12월 한달 신규멤버 추천 후 24년 1월부터 다시 진행
- 평가
- <월간 00 수월> 감이 활동가의 제안과 회원홍보팀 활동가의 조력을 통해, 자원활동가와 함께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음. 상담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고, 페미니스트 연대감을 충족할 수 있는 소모임 운영이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는 회원들이 다수 확인됨. 오랜만에 소모임 활동을 시작하니 회원들의 소모임 수요와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회원놀이터 미진행에 따라 연계 소모임도 무산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독려하지 않은 것이 아

쉬움으로 남음.

- 활성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는 소모임에 참여하는 담당 활동가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실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꾸준히 소모임을 이어갈 수 있는 운영 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2-6. 한해보내기

- 배경/필요성: 상담소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났던 사람들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시간 필요.
- 목표: 회원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상담소와의 친밀도를 키움.
- 방법 및 계획: 팀마다 돌아가며 진행, 2023년은 회원홍보팀 담당.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상담소의 1년 정리 및 주체 간의 연결 강화
- 진행내용

구분	진행				
한해 보내 기	<p><2023 페미오락관> 일시: 12월 1일(금요일) 19:00 ~ / 장소: B1 이안젤라홀 사회: 유랑, 도경 / 참여자 약 45명</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19:00 ~19:30</td> <td>저녁식사: 비건 분식세트(떡볶이, 김밥, 오뎅탕)</td> </tr> </tbody> </table>	시간	비고	19:00 ~19:30	저녁식사: 비건 분식세트(떡볶이, 김밥, 오뎅탕)
	시간	비고			
	19:00 ~19:30	저녁식사: 비건 분식세트(떡볶이, 김밥, 오뎅탕)			
<p><2023 페미오락관> 1. 오프닝 2. 게임 1 - 불꽃튀는 자화자찬 인원수+10초를 제한시간으로 부여, 제한시간에 제일 가까운 팀에 300점 / 200점 / 100점 부여 3. 게임 2 - 줌-인 카메라 특정 대상의 사진을 확대한 일부분을 공개, 대상을 맞추는 사람이 속한 팀에 100점 부여 4. 게임 3 - 달리는 그림퀴즈 제시어를 보고 릴레이로 5명이 각 5초씩 그림을 그리고, 1명이 정답을 맞추는 게임. 정답을 맞출 때마다 100점 부여 5. 게임 4 - 사구동성 제시된 네 글자 단어를 네 명이 한 글자씩 말아 동시에 외치고, 세 명이 맞추는 게임. 정답을 맞출 때마다 100점, 찬스 문제는 300점 부여. 6. 시상식 7. 안젤라어워드 시상</p>					
<p>21:10 ~</p> <p>뒷풀이</p>					

- 평가
- 전반적 기획이 송년회 분위기와 최근 유행하는 레트로 컨셉에 맞게 잘 구성되어 일관된 맥락으로 홍보

진행할 수 있었음.

- 첫 게임을 자기소개 게임으로 배치하여 부담스럽고 무겁지 않게 풀어내는 한편 팀플레이 중심으로 기획하여 친밀도를 높이는 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주체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였음.
- 법률팀과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획의 부담을 덜 수 있었던 반면, 해당 시기에 타 팀의 행사가 많아 실무를 도와줄 인원이 많지 않아 다소 과부하 상황이었음. 상담소 전체 송년행사인 만큼 여러 팀의 활동가들이 함께 준비하는 송년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 있음.
- 팀별 연락 대상 리스트를 사전에 고민하여 2023년 한 해동안 만난 사람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상담소와 친밀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음. 특히 여성대회, 후원의밤, 녹취록 속기 자원활동 등 다양한 경로로 2023년 상담소와 만난 사람들이 한해보내기에 참여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음.
- 전체 예산은 초과하지 않았지만, 식비나 선물구입비 등의 예산이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책정되어있어 기획단이 직접 요리하는 등 실무의 부담이 늘었음. 원활한 준비를 위해 차년도 계획 수립 시 예산 증액할 필요 있음.

2-7.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리고자 함.
- 목표
- 코로나 19 시국에서 자원활동가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함.
- 자원활동가들이 반성폭력 활동 주체로서 상담소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자원활동 신청자 모임을 통해 상담소 자원활동가로서 숙지해야 할 ‘이 공간의 약속’, ‘비밀유지 의무’ 등을 안내·교육하고, 각 자원활동가가 스스로 상담소에서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실행함.

구분	내용
일상업무지원	- 상시 진행.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일정 주기로 자원활동가 OT를 오프라인 진행하여 상담소를 소개.
서울대인권센터 프로그램	- 하반기(7-12월) 진행, 2인 요청.
씨티-경희대 NGO 인턴십	- 17기(2022년 동계) - 배정인턴 2인: 박소연, 송유정 - 활동기간: 1월 2일-2월 10일(소장실) - 제32차 정기총회: 필요 업무 지원 및 스태프 참여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 및 수요시위 사전 답사, 기획 및 운영 지원 - 18기(2023년 동계), 2인 요청

- 담당자: 닷별, 산

- 기대효과
-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소에 소속감과 친숙감을 느끼도록 하며, 다양한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단체 및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인적 관계 형성함.
- 진행내용

구분	진행
자원활동신청자 모집 및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새로 개설하여, 더 이상 자원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분들을 정리하고, 이공간의 약속 및 공지를 만들어 안내함(현재 자원활동가 12명, 활동가 3인 참여 중) - 상시 자원활동 신청 확인 및 소통 - 팀별 1년 사업계획 중 자원활동가와 협업 가능한 활동 탐색하여 자원활동가의 욕구와 맞게 연결함. - 4/27 자원활동가 OT 진행(김남희, 신하늘)
상시 자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의밤 <페미본색> 일일 자원활동가 모집 총 8인 모집: 엘렌, 메이, 상현, 장미, 여름, 원영, 하림, 유우지 8/22~23 양일에 걸쳐 OT 진행. 9/6 평가회의 진행 - 안희정 민사소송 2심 재판방청 자원활동가 모집 11/24 안희정 민사소송 2심 재판내용 기록활동 총 4인 모집: 원영, 가을, 너굴, 풀
서울대학교 학생-단체연계 자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인턴 2인(김현서, 김희연) 선발 - 7/7 OT 진행, 매주 목요일 출근 중 - 가을 7~8월: 후원의밤 <페미본색> 단체/국회/기업 리스트업 및 후원독려 9월~10월: 강간죄 개정 국회 현황 조사 11월~12월 강간죄 개정 국회 현황 기반 리포트 작성 활동 종료 후 일상업무지원 자원활동 지속 예정 - 너굴 7~8월: 후원의밤 <페미본색> 홍보 카드뉴스 및 이미지 제작 9월~12월: 유튜브 숏츠 기획 및 제작 - 12/12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프로그램 최종 평가회 - 12/19 활동 발표회
Citi-경희 NGO 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산 - 17기(2022년 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인턴 2인: 박소연, 송유정 - 활동기간: 1월 2일~2월 10일(소장실) - 제32차 정기총회: 필요 업무 지원 및 스태프 참여 - 제158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관람 및 수요시위 사전 답사, 기획 및 운영 지원 - 이외에도 상담소 지원사건 공판 참가(1/12, 2/1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결의대회 참가(1/20)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상담소 내부 평가 완료

구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기(2023년 동계) 2인 요청 - 배정인턴 1인: 김보경 - 활동기간: 1월 2일~2월 9일(장소 미정) - 수행 활동 내부 논의 예정
기타	- 7/5 자원활동가 관리와 운영 관련, 한국여성노동자회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상담소의 노하우와 고민을 나눔.
활동/ 이름	비고
자원활동신청자OT	-
1	일상지원 김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7.20. ~ 주1회 - 2.14 티타임으로 관심영역 및 계획 확인 - (피해생존자지원 법/정책, 일상회복 등) - 4월 중화권 여성운동 현황 서치 - 5월~ 6월 22년 상담일지 스캔 및 기존 일지 스캔본 검토 - 7월부터 취업하여 5개월간 휴식기 가지며 피해생존자 책 추천 소모임 실무 진행중
2	일상지 채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서울대 인권센터 인턴 자원활동 → 2023.1. ~ 2023.05.04. 주1회 - 2.20 티타임으로 관심영역 및 계획 확인 - (피해생존자 관련 활동, 토론회, 집담회 등) - 3월 여성의날 기념 일시후원자 인터뷰 정리 - 4월 북토크 진행 보조 및 후기 작성 등 - 5.18 활동발표회
3	일상지원 구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0.7. ~ 2023.2.28. 주1회 - 3.2 활동발표회
4	일상지원 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0.12. ~ 주1회 - 2.16 티타임으로 관심영역 및 계획 확인 (성폭력 관련 법, 공판, 상담원 교육 등) - 7월 격주 출근 하기로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8월 임의로 활동 종료 처리함
5	후원의밤 기획 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4.11. ~ 2023.5.14. 주1회 - 후원의밤 기획단 결합
6	일상지원 최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4.12. ~ 2023.4.26. 주1회 -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영문 번역 작업
7	상시 후지이 리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9.1. ~ 2023.12.20. - 월별 활동 논의 후 월 1회 후기 작성 - 9월~12월 초: <난된다!>(2014) 일어번역
8	일상지원 심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13. ~ 주1회 - 11월: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실무

• 평가

<일상지원업무 등 상담소 운영 자원활동>

자원활동가별 면담을 실시하고 현재 상담소가 진행중인 사업 중 관심사가 일치하는 사업과 연결하여 자원

활동 만족도가 예년보다 높았음.

- 관심도가 높은 분 중심으로 자원활동가 오픈카톡방을 다시 꾸려 공지 등을 올렸을 때 자원활동가들의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짐. 상시적으로 사회이슈나 상담소 활동에 대한 피드백도 자원활동가 오픈카톡방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 또 다른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음.
- 자원활동을 경험한 이후 후원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상담소 행사에 참여자로 신청하는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끼고 접점을 넓히는 자원활동가의 비중이 늘고 있음.

<Citi-경희 NGO 인턴십>

- 첫 출근 당일 책상 정비 과정이 있었으나, 구 소장실에 인턴 2인의 독립된 자리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음.
- 아침나눔을 통해 상담소의 일정과 팀별 이슈를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는 평.
- 상담소에 대한 소속감 강화를 위해 예정했던 업무 외에 인턴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권유 및 제안하였고, 현장감을 느낄 수 있던 경험으로 만족도가 높았음.
- 담당활동가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기본적인 비즈니스 메일 작성 등 간단한 교육을 진행함.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직접 생각해보도록 하여 이해를 높임.
- 전화 및 인턴폰 응대 가이드 제작 필요. 취재요청, 상담문의, 회원정보 변경 등 상황별 응대법과 상담전화 관리는 상담팀 업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담당활동가가 다른 층에 있는 상황에 인턴활동가의 업무 진행 상황과 요구사항 파악이 쉽지 않았음. 이에, 티타임과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노력했고, 특히 두 차례의 티타임에서 진행중인 업무의 양과 근무 환경에 대해 체크할 수 있었음. 또, 청년 페미니스트로서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성인권 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담당활동가와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음.
- 총회와 수요시위 이외에 인턴활동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기획 및 진행할 업무에 대한 수요를 확인하였음.
- 인턴십 운영시기에 맞춰 총회와 수요시위를 배정해왔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판단 필요. 총회를 일상지원 업무 자원활동가와 함께 준비하고, 인턴활동가들의 요구대로 주체적으로 진행할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할 지 등 앞으로 논의가 필요함.
- 공간 분리 등으로 담당활동가 외에 다른 상담소 활동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는 평. '더 많은 활동가와의 교류'는 상담소를 거쳐간 이전 인턴활동가와 자원활동가도 자주 이야기해온 피드백인만큼 고민이 필요함. 개방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여건이 마땅치 않아 별도 공간에서 근무하는 경우 다른 활동가와의 접점과 교류를 늘릴 장치를 마련해야 함.
- 그날의 일정을 미리 전달하는 등 계획을 촘촘히 프로그램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2-8.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 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힘.
- 방법 및 계획: 제1582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인턴활동가 2인(씨티-경희 NGO인턴십) 주도의 기획 및 실무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및 수요시위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사전 답사 진행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둘러싼 성폭력 통념 및 피해자상에 대한 균열을 도모

- 활동 후 실무자 및 상근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정의기억연대에 전달하여 상호 평가 진행

제1582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 2023년 2월 8일(수) 오후 12-13시
- 장소 : 일본대사관 앞
- 전체 순서
: 여는 노래
: 경과 보고(정의기억연대)
: 참가 단체 소개
: 문화공연
: 연대 발언
: 성명서 낭독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상담소가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에 연대하는 이유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논의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상호 평가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를 문제화하는 다중적인 목소리에 동참함.
- 진행내용
- 씨티-경희 인턴십 모자(송유정), 연(박소연) 인턴활동가와 기획 및 진행.
- 정규회의 외에 필요시 상시로 회의 진행하여 진행상황 공유함.
- 인턴십 오픈채팅방에서 상시 소통함.

일정	진행내용	
1월	1/5~1/9 자료 읽기 1/10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 1/11 수요시위 사전 답사 1/13 박물관 소감문 공유 1/20 1차 회의 : 수요시위 OT, 제목 및 컨셉 정하기, 업무 분배 1/26 2차 회의 : 컨셉 확정 및 참여형 문화공연 기획	
2월	2/2 홍보 시작(뉴스레터 및 홈페이지) 2/6 피켓 제작 완료 2/7 정의연 성명서 피드백 완료 2/8 최종 순서지 확정 및 수요시위 진행 - 참여자: 상담소 16인(산, 모자, 연, 감이, 낙타, 달별, 동은, 란, 상아, 수수, 신아, 오매, 유랑, 은희,, 파랑, 호랑), 자원활동가 2인(소연, 태현), 로스쿨실무수습생 2인(영옥, 수진)	
	순서	담당
	사회자 인사 및 주관단체 소개	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활동가
	여는노래 <바위처럼>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4인(동은, 산, 파랑, 호랑)
	정의기억연대 주간보고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참가자 연대발언	소연 한국성폭력상담소 인턴활동가 장지원 평화나비 네트워크 숙대지부장

		이성민 평화나비 네트워크 강원 대표(대독)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성명서 낭독	산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2/9 성명서 업로드(홈페이지 및 블로그)	
	2/24 후기 업로드(자원활동가 태현 작성 / 홈페이지 및 블로그)	

• 평가

- 관련 자료 읽기, 박물관 관람, 사전 답사 등으로 수요시위에 대한 배경지식을 숙지하도록 하였고, 박물관 관람 후에는 감상문을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와 장점을 체화하고 이해하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확인하고 기획을 풀어나갈 수 있었음.
- 인턴활동가 2인에게 자율성과 주도성을 주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따라 클래퍼, 참여형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음. 그러나 준비시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해 아쉬움.
- 더욱 구체적으로 일정을 계획하고 데드라인을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주관단체로서 수요시위를 통해 상담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연결점을 견지하는 것과 인턴활동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독려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웠음. 인턴활동가가 반성폭력운동의 관점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OT를 진행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담당활동가의 적절한 판단과 개입이 필요함. 전체 활동가 회람을 빠르게 진행하거나, 담당활동가가 미리 콘셉을 잡아 가이드를 제시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함.
- 11시 이전에 현장으로 출발하여 여유를 갖고 시위를 준비해야 함.
- <바위처럼> 율동을 함께 결의한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피켓을 활용한 간단한 율동으로, 완성도 있으면서 시위 참가자도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음.
- 사회 및 연대발언에서 전시성폭력에 관한 발언이 좋았음.
- 시위 중간에 혐오세력의 개입과 발언이 있었는데, 불쾌해서 참기 어려웠음. 정의기억연대에서 악의적인 방해집회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내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니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생각을 함.
- 오랜만에 정의기억연대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여 안부를 묻고 단체 이슈를 나눌 수 있었음. 현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출속합의를 하고 일본의 군축을 지지하는 상황에, 강제징용 대응, 오염수 방류 등의 포괄적 문제에 대한 한일평화연대체가 생겼다는 정보를 확인함.

목표3. 상담소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쉽고 친절한 상담소로 거듭난다.

3-1. SNS 채널 관리

- 배경/필요성: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날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나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운 요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함.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
- 방법 및 계획
- 상시 진행.
- 상담소가 운영하는 SNS(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상시 관리하고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

- 카드뉴스,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담소 소식 및 반성폭력 담론 외화.
- 연 2회 SNS 채널 분석을 통해 채널별 팔로워 특성 파악, 인기 콘텐츠와 광고 효과성 확인.
- 회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독려하는 메시지 발송.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상담소 활동을 널리 알려 잠재적 후원회원을 확보함.
- 카카오톡 채널 팔로워 증가 및 문자 수수료 절감.

• 진행상황

현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유튜브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2022	2023
구독자	8,631	8,520	2,108	2,481	9,329	9,191	888	947
증감율	▼1.29%		▲17.69%		▼1.48%		▲6.64%	

* 2023년은 12/7 기준

- 상시 관리: 게시글 노출 및 팔로워 수 모니터링, 댓글 관리
- SNS 광고 활용: 3/2-3/31 3월 회원배가 이벤트(메타/도달수 2,124명, 참여 80명, 링크클릭 41명), 6/20-6/25 기자단 토크 2기 모집(메타/도달수 4,681명, 참여 212명, 링크클릭 192명)
- 스토리, 스토리 하이라이트, 메인 고정 등의 기능을 통해 주요 게시글의 노출 시간을 늘림.
- 인스타그램 내 '저장됨' 기능을 통해 반응이 좋은 게시글, 특별후원 게시글 등을 분류별로 한데 모아 볼 수 있도록 함.

• 평가:

- 광고 집행해보며 SNS 광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음.
- 그간 잘 활용되지 않던 SNS별 특화 기능을 이용하여 전달력을 높임.
- 한 개의 콘텐츠를 일괄 업로드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하여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내부에 환기할 필요 있음.

3-2. 홈페이지 관리

- 배경/필요성: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지지자 그룹-개인간 만나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활동을 집적하고 상담소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여 여러 채널/플랫폼에 맞게 노출할 필요 있음.

• 목표

-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구축
- 검색 최적화 및 이미지 중심 홈페이지 개선
- 방법 및 계획
- 홈페이지 활용하며 수정 필요한 부분 상시 보수 요청
- 아마존 웹 서비스(AWS) 서버 연장 및 가용액수 관리
- 신규 개발 필요시 기능개발 요청

• 담당: 달별

• 기대효과: 온라인 환경에 맞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홈페이지 유입 및 활동 홍보효과 극대화

• 진행상황

구분	진행
약성	사건 개요

테러 대응	<p>1/19 민주노총 압수수색 규탄 연대성명문 홈페이지 업로드 이후 남초커뮤니티에서 게시글 테러함.</p> <p>2/1 00:55 이상 트래픽 목적의 자동댓글 악성프로그램 확인. 309개의 댓글 달렸고, 다른 게시글 포함 500여개 정도 테러가 있었음.</p> <p>→ 지원하는 내담자에 대한 성희롱/모욕성 댓글은 개별 삭제처리. 그 외 악성프로그램 테러성 댓글 500여건 일괄삭제함. 스크립트에 해당하는 단어는 입력해도 등록되지 않도록 함.</p> <p>상담소가 할 수 있는 대응 논의</p> <p>조치의 기본적인 원칙: 외부입력이 쉽지 않도록 세팅 변경 (댓글 등 외부에서 입력 가능한 요소로 과부하 공격하는 것이라서)</p> <p>기타: 트래픽 평균값 초과 시 와이빈도 알람 받을 수 있도록 설정</p> <p>→ 테러로 AWS 비영리크레딧 조기 소진되어 3월, 4월 2개월치 요금 추가 지출됨.</p>
유지/보수	<p>1/25 적극적 합의 홈페이지 서버 생성 지원</p> <p>2/12 조직도(활동가, 자문위원, 이사 명단) 변경 완료</p> <p>2/17 안드로이드 검색 오류 수정</p> <p>3/24 웹 검색 오류: 제목 노출의 문제 해결</p> <p>4/21 교육신청 지속적 오류 문제: URL 수정하여 해결</p> <p>4/28 모금윤리 개정안 게시 완료</p> <p>5/8 AWS 비영리 크레딧 2023 신청 및 반영 완료</p> <p>5/16 울림 게시판 썸네일 등록 불가 문제: 첫 사진을 썸네일로 자동 등록하도록 변경</p> <p>6/16 교육문의 페이지 오류 원인파악 요청</p> <p>6/23 프로젝트 페이지 연장여부 논의</p> <p>7/20 활동 게시판 공지글 메인페이지 미노출 문제 해결</p> <p>8/30 특정 게시글 출력 오류 문제 해결</p> <p>10/2 스팸댓글 400여건 일괄삭제</p> <p>10/30 자료집 PDF 게시 오류 문제</p> <p>11/3 특정 게시글 검색 시 비노출 문제 : 원인 파악중</p> <p>11/13 구글 서치 콘솔 오래된 게시글 삭제처리 완료</p> <p>(구)프로젝트 홈페이지 연장 여부 논의</p> <p>지난 활동에 사용했던 프로젝트 페이지(년진상, 달빛시위,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등...)의 호스팅/도메인 기간 만료가 계속해서 도래하고 있음. 상담소 활동의 아카이빙을 위해, 소통의 기능은 없지만 열람 가능한 형태로의 이전을 차차 탐색해보며 3년 연장하기로 하였음.</p> <p>와이빈 유지보수 계약 연장</p> <p>23년 9월 15일부터 유지보수 계약 1년이 지나 만료 예정. 중순 결제 일정이 애매하여 23년 10월 1일자로 계약 갱신하되, 계약기간 사이 15일동안 기존대로 유지보수 진행하기로 합의.</p> <p>(근거조항: 유지보수 계약 종료 후 90일까지 하자보수기간으로 둔다)</p>
구글 검색광고	<p>Google Ad Grants 신청 및 승인</p> <p>Google Ad Grants: 비영리단체 대상 월 최대 1천달러의 광고 크레딧 제공</p> <p>10/30 신청 및 승인</p> <p>11/2 성폭력 상담이나 지원에 대해 검색했을 때 홈페이지 내 상담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검색 광고 생성(키워드: 성폭력 상담, 성폭력 피해 등)</p>

	<p>추후 활용 방안: (잠재)지지자나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한 사람 등 상담소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접점을 타겟으로 맞춤형광고를 생성할 수 있음.</p> <p>포털사이트 '성폭력' 연관 키워드 Top20(코바코 '아이작' 제공)</p> <p>- 구글: 성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사건,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사례,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폭력 처벌법, 한국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데이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해바라기 센터, 형법, 여성 가족부, 성폭력 예방 포스터, 성폭력 특별법</p> <p>- 네이버: 성범죄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폭행, 성추행, 성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출신변호사, 강제추행, 형사변호사, 강제추행변호사상담, 성폭력변호사, 강간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처벌, 성범죄, 전관변호사, 불법촬영변호사, 성폭력전문변호사, 준강간죄, 성추행합의금, 성폭행변호사</p> <p>→ 본 자료 바탕으로, 구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검색이 많이 이뤄지는 것을 확인하였음.</p>
--	--

• 평가

- 홈페이지 개편을 담당한 업체와 유지보수 재계약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음. 카카오톡/구글시트를 활용한 유기적인 소통으로 오류사항 발생 시 늦지 않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주기적으로 제보되는 교육문의 오류 파악의 어려움 등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오류의 해결은 아직 미진함. 원인 파악 위해 적극 협조할 필요 있음.
- 활동기록이 쌓이며 호스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2022년 5월에 신청한 AWS 비영리크레딧이 테러로 인해 2달 먼저 소진되어 두달 치 호스팅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는데, 1개월 비용이 비영리크레딧 1년치와 맞먹는 수준임. 트래픽 추이와 테러 등을 고려하여 다음 크레딧 결제 시에는 한 단계 높은 버전(중형 비영리단체를 위한 크레딧, 2000달러 상당)으로 상향이 필요함.
- 개편된 홈페이지 오픈 이후 1년이 경과하며 현 홈페이지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종합적으로 확인됨. (썸네일 규격 통일-이미지 간단 편집기능 추가, 테러 방지를 위해 댓글 기능 차단 혹은 로그인 기능 추가 등)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 개발건으로 예산 책정 필요.

3-3. 자원활동가 기사단 '틈' 2기

- 배경/필요성: 상담소가 제작하는 다양한 자료와 콘텐츠는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대중에게는 다소 어렵다는 약점이 있음. 상담소의 활동을 보다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상담소에 대한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 목표: 다양한 주체를 통해 공유되고 널리 읽히는 대중적인 콘텐츠의 생산과 반성폭력운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제고.
- 방법 및 계획
- 1기 평가 및 피드백을 반영한 하기 계획안을 바탕으로 2기 운영 후, 평가와 피드백을 거쳐 3기 운영의 단단한 토대 마련.

구분	내용
구성	자원활동가 6명(2인1조 3팀)

모집	대상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운동에 관심이 있고, 기자단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 가능한 누구나
	방법	구글 설문지(이름, 활동명, 의제 관련 문항 1, 의제 관련 문항 2, 지원 동기,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
	기준	지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반성폭력운동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도와 기자단 활동에 대한 적극도를 파악.
활동기간	2023년 7월~9월(3개월)	
활동 사이클 (월)	초	- 담당 활동가가 미리 설정한 월별 대주제(해당 월의 주력 활동 및 의제)를 바탕으로, 회의를 통해 참여할 행사와 기획할 콘텐츠를 논의함. - 회의 당일, 해당 의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여 이해를 높이고 콘텐츠의 깊이를 더함.
	중	- 행사 참여 및 취재 활동, 기획 콘텐츠 제작 - 콘텐츠 생산(팀당 최소 한 편)
	말	서로의 콘텐츠를 보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여, 추가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
출근 형식	- 공통 출근요일을 설정하여 주 1회 상담소 출근을 약속하고, 팀별 활동 및 비대면 근무는 자유롭게 하도록 함. - 활동내역은 기존의 엑셀 폼을 활용하여 기록 및 관리함.	
활동 혜택	- 상담소 활동현장 참여 및 취재 기회 제공. - 작성 기사 홈페이지 게재 및 뉴스레터 발송. - 식대 등 활동비용 지원. - 활동 수수료 지급.	

- 생산한 콘텐츠는 아카이브하여 이후 기자단 모집에 활용.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 상담소의 입장에서 바라본 다양한 의제/이슈 등을 친절하고 쉽게 설명하는 콘텐츠의 생산.
- 외부인의 시선으로 상담소의 활동을 살피고, 평소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소식/아이템 발굴.
- 진행상황

구분	내용		
사전(6월)	7일: 기획 확정		
	8일: 아카이빙 노션 페이지 제작		
운영	7월	9일: 홍보 이미지 및 텍스트, 신청 폼 제작 - 지원 동기, 관심 의제와 이에 대한 의견	
		9일~25일: 홍보 및 모집	
		19일~24일: 메타 유료 광고 집행	
		26일~28일: 모집 현황 확인 및 선정 - 총 21인 지원 - 최종 5인 확정(숨이, 스텔라, 은결, 은유, 태현) - 지역 생활자 확인하여 기존 기획 조정(출근 및 활동시간, 교통비 지원 등)	
		28일~30일: 안내 및 OT 날짜 확정	
		6일, 10일: OT 진행 및 7월 활동 계획 논의 중순: 교통비 지원 관련 재정담당 활동가와 논의 및 정리	
	후기	태현	21대 국회토론회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제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정책' 후기
	후기	숨이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리뷰	스텔라	콘텐츠로 만나는 쿼어!
	기획	은유	작은말하기 특집① 작은말하기 담당 활동가와 만나보았습니다
	후기	은결	준강간 사건의 법적 사각지대를 찾아서: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8월	5일: 정기회의 - 7월 활동 소회 나눔 - 8월 활동 계획 논의 - 9월 정기회의 날짜 논의 - <동의X동의 토크쇼> 자료집 스터디		
	후기	스텔라	<페미본색> 그날의 생생한 스케치!
	후기	은결	공간으로부터_한국성폭력상담소 2023 후원의밤 <페미본색>에 다녀와서
	서평	숨이	북리뷰_<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읽고
	기획	은유	작은말하기 특집② 생존자 푸른나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9월	3일: 정기회의 - 8월 활동 소회 나눔 - 9월 활동 계획 논의 - 마무리 활동 논의(보고회 대체) - <적극적 합의가 필요할 때> 가이드라인 스터디		
	후기	은결	비틀어진 언어_8월 공판 모니터링을 다녀와서
	기획	은유	작은말하기 특집③ 생존자 다운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기획	숨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와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 알아보기
	기획	스텔라	성평등의 파도를 일으키는, 부산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인터뷰
	기획	태현	틈나기와 함께 형사사건 절차 속 수사 및 법률 관련 용어를 알아봅시다! 1편(8월 활동 이월)
	기획	태현	틈나기와 함께 형사사건 절차 속 수사 및 법률 관련 용어를 알아봅시다! 2편
마무리	10월	- 10/24 수료증 발급 - 10/26 활동보고회 대체 콘텐츠 <서로에게 던지는 QnA> 업로드	

•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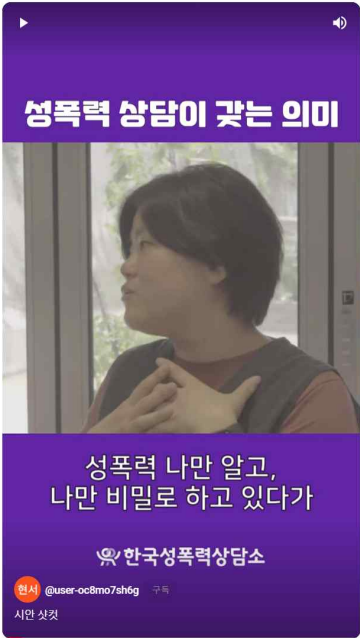
- 타단체 활동가 인터뷰나 생존자 인터뷰, 형사사법 관련 용어 카드뉴스 등 전문적이거나 낯설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내용을 활동가가 아닌 '이 영역에 관심있는 사람'의 시선으로 풀어내어, 상담소 소식을 받아 보는 이들에게는 더 쉽고 장벽 없이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였음. 사업 목표를 일정 부분 달성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단원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여성운동, 반성폭력운동의 현황과 새로운 언어, 개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만나지 못했던 동료들을 확인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외활동으로써 기능했음. 페미니스트 동료와 안전하게 나누는 대화에 대한 갈증이 충족되었을 것으로 기대함.


- 모집 단계에서 지원자가 '기자단 팀'의 활동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페이지를 제작해 편의성을 높였음. 제작한 콘텐츠를 한데 모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 기록 측면에도 의미가 있음.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생활하는 페미니스트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무적으로 조율, 수정할 사항도 많았고, 거리 상의 문제로 상담소 행사에 많이 초청하지 못했으나, 에세이, 인터뷰, 카드 뉴스 등 단원 개인의 관점과 사유가 잘 드러나는 다채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음. 또, 상담소가 평소 잘 만나지 못하는 지역 페미니스트와 연결됨으로써 그들이 어떤 욕구와 열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추후 모집 시에는 홍보물에 활동 지역을 명기하거나 지원서(구글폼) 내에 주 1회 상담소 출근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문항을 넣으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3-4. 고유콘텐츠 발굴

- 배경/필요성: 세계적 팬데믹을 거치며 지난 몇 년간 상담소 역시 전통적인 대면 행사에서 벗어나 비대면 행사를 진행한 경험이 축적되었음. 당시 취득한 ZOOM이나 유튜브 스트리밍 등의 새로운 도구를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현재에도 비대면 행사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음. 그동안 상담소 유튜브 채널에는 12개의 스트리밍 영상이 쌓였음. 그러나 스트리밍 영상의 특성상 긴 영상을 선뜻 시청하기 어렵고, 어느 타임라인에 어떤 주제의 발언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번거로워, 행사가 종료되면 사실상 영상의 수명이 짧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주요 활동과 활동가들의 노고가 담긴 해당 영상을 더 노출하고, 시청자가 반성폭력운동의 지지자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 목표: 유튜브, SNS에서 유입한 반성폭력운동 및 상담소 지지자 증가.
- 방법 및 계획
- 상시 진행.
- 영상에 친숙하거나 편집이 가능한 자원활동가와 함께 작업.
-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와있는 스트리밍 영상을 검토하여, 시의성을 갖거나 흥미,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을 추출함.
- 자막과 함께 1분 내외로 편집하고, 원본 스트리밍 영상과 관련 자료 링크를 덧붙여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 업로드함.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 유튜브 구독자 및 영상 조회수 증가.
- 상담소 활동과 의제 홍보.
- 진행상황

날짜	진행 내용
10/5	1차 기획회의 진행 - 사업 취지와 고민점 나눔 - 제작 영상 선정 및 방향 설정: 첫 영상부터 의제와 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담소나 상담소 활동에 대한 소개, 반성폭력운동이 갖는 의미 등을 중심으로 다가가기. - 디자인 포맷 및 제작 프로그램 관련 논의: 제작자가 바뀌어도 통일성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폰트, 글씨 크기, 영상 비율, 색깔 등을 정해 기록해두고 가이드 파일을 만들 예정.

<p>10/12</p>	<p>첫 시안 제작: 성폭력 상담이 갖는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소스: [1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궁금해요 / 5:25-6:00 - 내용: 오매/성폭력 나만 알고, 나만 비밀로 하고 있다가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거를 완전 다시 해석하게 되고, 이게 돌이 넷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하면, 서로 이야기 나눈 데서 다 새로운 언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겨난 처음 들어보는 언어, 이걸 해석하는 처음의 언어, 그걸 가지고 성문화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법을 바꿀 수 있는 거고,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다, 성폭력 문제는. 그래야 여기서 새로운 말이 생겨난다. 그런 저희의 활동의 시작 	 <p>(PC 송출 화면)</p>
<p>10/19</p>	<p>무료 영상편집 프로그램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단체에서도 무료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 무료 버전이어도 워터마크 삽입 되지 않는 프로그램 - '샷컷' 사용 결정 	
<p>11/1</p>	<p>샷컷을 이용해 첫 시안 재제작 및 두 번째 시안 제작</p>	

	<p>두 번째 시안: 성폭력 의제는 평등에 대한 요청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소스: [3부] 상담소에서 일한다는 것 / 3:28-4:05 - 내용: 오매/어떻게 평등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라고 하는 사회가 지금 굉장히 요원한데, 성폭력은 그런 요청을 계속하는 주제거든요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관계나 관계를 만드는 체계 전반에 대해 계속 (평등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때문에 이것들이 (해결)되면 여성들이 자신의 피해를 알리면서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그리고 또 타인을 도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배우고 또 익혀서 다른 내가 속한 공동체나 조직,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또 (평등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p>(모바일 송출 화면/아이폰13미니 기준)</p>
11/8	<p>세 번째 시안 제작: 반성폭력 운동이 열어주는 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소스: [30주년 기념식]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 23:24-24:14 - 내용: 은유 작가/반성폭력 운동은 저에게 세상을 보는 완전히 다른 관점, 다른 감각, 다른 언어를 이식해주었습니다. 무심코 쓰는 언어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 편파적 (언어)라는 사실을 알고 나자, 상식과 규범이 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자기 언어가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인간의 고통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자세를 배웠고요, 말의 정확한 사용은 고통의 치유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을 지키는 것이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에,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언어를 갈아치워야 한다는 사실도 느꼈습니다. 	
11/15	<p>샷컷 사용 관련 주의점 및 유의사항 기록</p> <p>추가 시안 네 개 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는 책임을 다 했잖아”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 영상 소스: 1664일, 달라진 질문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오프닝 영상 / 6:03-6:32 - 내용: 최영미 시인/이미 벌어진 일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 + 고발자X/피해자한테는? 이게 확실히 끝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이라든가 그런 	

	<p>의미를, 공동체가 좀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무리 쫓값을 치렀다 한들, 앞으로도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좀 계속 유의 깊게 (공동체가) 서로 봤으면 좋겠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투 운동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소스: 1664일, 달라진 질문 [미투운동 중간결산: 지금 여기에 있다] 오픈 영상 / 6:33-7:00 - 내용: 최영미 시인/미투는 남성과 여성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을 바꿔나가는 길이죠. + 고발자/정말 누구나 다 (미투 운동)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는 거고, 이렇게 나왔을 때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전 앞에 나서고 했을 때 약간, 벅차고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소스: [30주년 기념식]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 47:08-47:34 - 내용: 권김현영 연구활동가/반성폭력 운동이 피해생존자의 말을 공론의 영역으로 가져오자 한 이유는, 무엇보다 성폭력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는 성폭력을 없애는 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해요. 반성폭력 운동의 목표는 피해자가 부당하게 짊어져야 하는 짐을 더는 데 있습니다. - 성폭력 문제는 ‘남성성’의 실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소스: [30주년 기념식] 균열을 일으키는 용기, 일상에 스며드는 변화 / 53:52-24:31 - 내용: 박정훈 기자/한국사회의 여성혐오 구조는 명백한 가해 행위조차 일종의 놀이처럼 느끼게 만들면서 그 심각성을 잊게 만듭니다. 성폭력 가해자들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며 자라왔고, 경우에 따라선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의심한 남성들에게 어떻게 성폭력이 ‘남의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다수의 가해자는 남성입니다. 이는 개인의 품성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구조를 당연시 여기며 여성을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는 ‘남성성’의 실패를 뜻합니다.
11/28	<p>팀 내 진행내용 공유 및 피드백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형식에 대한 추가 피드백 없음 - 이목을 끄는 제목을 함께 고민하였으면 좋겠음. 시안 제목은 가안이라 새로 논의할 예정.
11/29	<p>영상 제작 방법 확인하고, 담당 활동가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해보기로 함</p>
12/6	<p>샷컷이 담당 활동가의 데스크탑에서 원활히 실행되지 않는 점을 확인, 상담소에 비치된 노트북 사양도 높지 않아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할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p>

목표4. 회원홍보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안정화에 힘쓴다.

4-1. 팀 체계 마련

- 배경/필요성: 회원홍보팀 신설 2년차, 약 4년간 회원업무를 담당했던 선임활동가의 팀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 팀의 업무역량 순환과 누구든 대직 가능한 업무체계 마련을 위해 촘촘한 설계가 필요.
- 목표: 회원홍보팀에 오는 요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방법 및 계획
 - 사업별 매뉴얼 마련
 - 데이터서버-구글드라이브 등 아카이브 체계 확립
 - 팀매니저제, 팀 비전 및 미션 설정 등
- 담당자: 닷별, 산
- 기대효과: 향후 회원홍보팀의 활동방향성 설정 및 업무역량 순환에 기여.
- 진행상황:

구분	진행
사업별 매뉴얼 마련	1/19 뉴스레터 <똥다! 상담소> 발송 매뉴얼 2/6 팀OT 자료 2/14 가해(추정)자 전화 매뉴얼 2/23 전년도 출연재산사용명세서 계산식 작성 매뉴얼 - 현재 리틀리 사용 매뉴얼, 감경후원 대응 매뉴얼 작업 중.
아카이브 체계 확립	데이터서버 내 회원홍보팀 폴더 사업구분별로 정리: 데이터서버, 구글드라이브 동일하게 복잡하게 뒤섞여있던 사업별 폴더 현재 세부 카테고리별로 재배치
팀매니저제, 비전 및 미션 설정	2/14 팀매니저 선출 및 공유 체계 논의 3/7 제1차 팀매니저회의 4/6 제2차 팀매니저회의 5/2 제3차 팀매니저회의 6/8 제4차 팀매니저회의

- 평가:
 - 팀으로서 체계를 갖추고 팀의 업무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다듬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회원홍보팀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영역이 굉장히 넓은데, 업무별 매뉴얼 작성 및 연계를 통해 일관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됨. 카테고리화하고 정돈하며 과거 여러 팀에 흩어져있던 업무들을 정돈된 형태로 아카이브하여 과거에 진행한 사업 맥락의 연장선에서 현재의 사업들을 피드백하고 정돈할 수 있게 됨.
 - 경험을 통해 2인 팀에서 1인1사업 체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 주/부담당 체계로 가되, 2인 팀이 갖는 특성에 맞춰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과제로 남음.
 - 2인 팀에서 팀매니저 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살펴보는 해였음. 팀매니저로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갖는지 활동가 2인 모두 천천히 감을 잡고 적응하려 노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임. 역할 부여를 통해 전반적으로 상담소나 팀 차원에서 고려하고 조정해야 하는 것을 볼 있는 시각이 넓어짐. 2인 팀에서는 위계가 더 쉽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티타임을 통해 직급 차이에서 오는 권력을 돌아

보고 경계하는 시간을 가짐. 또, 이것이 팀매너저만의 몫이 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함. 그러나 팀 구성원 차원의 노력을 넘어 구조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4-2. 자문위원회 탐색

- 배경/필요성: 회원홍보팀의 활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긴밀한 자문과 참여를 활성화함.
- 목표: 전문성 있는 자문위원들과 상담소 멤버십 고취방법 및 홍보 방향 점검.
- 방법 및 계획
 - 자문위원 대상 탐색(2월): 모금전략, 회원/캠페인, 홈페이지/SNS, 뉴스레터 및 소식지 등 자문 필요한 영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단체와의 만남. 영역별 전문가와 관계자를 목록화함.
 - 영역별 간담회 개최 및 관계망 형성(3월): 영역별로 최소 1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얻고, 새로운 관계와 네트워크 형성.
 - 신규 자문위원 위촉(4월)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자문위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원홍보팀의 장기 미션 및 비전 확인.
- 진행상황:

구분	진행
자문위원 대상 탐색	사업 시기 변동 (9월~10월)
마케팅 네트워크	<p>상호돌봄의 협업을 함께 진행한 디자인 스튜디오 <오늘의 풍경>과 동물권행동 카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세 단체가 함께 비영리마케팅을 공부하기 위해 모임 진행.</p> <p>- 1차 강의: 브랜딩-마케팅 개괄</p> <p>일시: 5/31 오후 2시</p> <p>장소: 카라 키클도서관</p> <p>강사: 마케터 한지인</p> <p>참석자: 달별, 동은, 산, 신아, 유량</p>
도너스 콜라보레이트 2023	<p>도너스 콜라보레이트 2023 <한국의 비영리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국가, 산업, 기술의 경계를 넘어서></p> <p>일시: 6/15 오전 8시 반~오후 6시</p> <p>장소: 잠실 롯데타워 SKY31 컨벤션</p> <p>참석자: 란, 산</p>

- 평가: 비영리단체-상담소의 특수성에 맞는 전문가를 찾기 위해 외부 인사를 만나는 각종 자리에서 자문위원 후보군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문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시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삼.

2023 법률팀 활동 하반기 평가

2023 활동방향(안)	팀별 실천방안
불황과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 생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하여 사건지원, 법률 상담 등을 조력하고 연대함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치에 책임 요구하기	- 법제도의 변경, 변화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활동을 모색함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기	- 상담소 조직 안에 상근변호사의 존재를 안착시키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을 확보함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결되기	- 성폭력/성차별 및 소수자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법률 전문가들과 상담소의 접점을 늘리기
팀 활동 목표	
목표1.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에 기여함 목표2. 상담소의 상근변호사로서 역할을 탐색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감 목표3.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혐오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법 영역에서 상담소의 역할을 확장함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 필요한 의견검토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고, 기존에 담당하던 사건들도 원활히 지원이 이루어짐. 특히 하반기에는 상담팀과 논의하여 개별 피해자 사건지원에 대한 기준을 두고 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하였음. - 2년 간의 반상근활동과 상담소의 활동에 대해 갖고 있던 이해를 바탕으로 법률팀을 무난하게 조직에 안착시킬 수 있었고, 안정적인 외부 기금을 확보하여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성과가 있었음. - 올해 신설된 1인 팀이었으나 법 정책과 관련한 내부 교육, 외부 토론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잘 진행하였고, 상근활동가들의 법 영역에 대한 역량강화에도 기여하였음. - 활발한 외부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법률팀 활동가 개인의 역량도 강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담소의 활동도 더 넓은 범위로 외화할 수 있게 되었음. 	

목표1.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역량강화에 기여한다.

1-1. 월요법률상담 확장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법률조력에 대한 필요를 검토하고 지원함
 - 월요법률상담의 공백 시기에 피해자들의 법률상담 요청이 꾸준히 존재함
- 목표:
 - 여성주의상담팀에서 진행하는 월요법률상담의 공백시기(12월-2월)에 법률상담에 대한 피해자들의 갈증 해소
- 방법 및 계획
 - 12월, 1월, 2월 둘째 주 월요일 16:00-18:00(2건) 마다 진행
- 담당: 호랑, 도경
- 기대효과
 - 월요법률상담의 공백 시기에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에 대한 갈증 해소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 피해자의 법적해결에 대한 부담 감소
- 진행내용
 - 2023. 12. 11. (월) 16:00 - 18:00
- 향후 계획
 - 2024. 01. 15. (월) 16:00 - 18:00
 - 2024. 02. 05. (월) 14:00 - 16:00

1-2. 상시적 법률 검토 진행

- 배경/필요성 :
 - 이미 법률상담을 받은 후에 추가 법률 상담, 고소장 및 증거 검토 등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존재함.
 - 상담팀에서도 의견서 검토 등 변호사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목표 :
 - 성폭력 피해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관점에서 전문적인 의견 및 상담 제공
- 방법 및 계획 :
 - 여성주의상담팀과 소통하여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진행함.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 사건지원 시 법적 쟁점에 관한 전문성 강화
- 진행내용 : 상시적으로 상담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및 의견서 등 검토 진행함.
- 평가
 - 상담팀 활동가들이 전화상담, 의견서 작성 과정 등 필요한 때에 수시로 의견 검토 요청하였고, 되도록 당일 안에 답변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원활히 진행되었음.
 - 법률용어에 대한 간단한 질의응답을 포함하여, 공소시효나 민사상 소멸시효 계산 관련 질문,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논의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법률 검토가 진행됨.
 - 진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서면 검토 시에는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음. 질의방법, 기록방식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3. 개별 성폭력 피해자 법률대리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와 법률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보다 긴밀히 상호 소통하여 사건 지원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불안을 낮추는 등의 강점이 있음.
- 열림터 생활인을 포함하여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하는 법률문제 중에 무료법률구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존재함.

• 목표 :

- 상근변호사로서 상담소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법적 지원을 제공

• 방법 및 계획 :

- 여성주의상담팀, 열림터에 연계를 받아 검토 후 사건을 수임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원 제공
- 계속 중인 사건이 총 10개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활동가와 적극적인 사례회의를 진행하여 법률 조력의 질 향상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함
- 담당활동가와 사건지원 변호사가 보다 면밀한 소통을 하며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배움을 얻고, 전반적인 사건지원 역량을 강화함

• 진행내용:

사건명	상반기 주요업무내용	진행상황
대학 선배에 의한 준강제추행 건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1. 26.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제출 - 2023. 03. 20.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제출 (검찰) - 2023. 09. 08. 재판 기일 출석 - 2023. 09. 22. 가해자 사과문, 합의금 피해자에게 전달 - 2023. 10. 04. 선고기일 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03. 25. 고소장 제출 - 2022. 08. 16. 검찰 송치 - 2023. 04. 21. 약식기소 - 2023. 07. 28. 약식명령 - 가해자 정식재판청구 - 2023. 09. 08. 변론기일 - 2023. 10. 04. 선고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등 (종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3. 03.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제출 (법원) - 2023. 03. 10. 심리기일 출석 - 2023. 06. 23. 2차 심리기일 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05. 31. 피해자변호사 위임장 제출 - 2022. 11. 22. 일부(폭행) 보호사건 송치 - 2023. 06. 23. 2차 심리기일 8호처분 결정
해군성폭력사건 공대위 대리인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2. 10.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참석; 판결요지 정리 발언 - 2023. 02. 17. 민사소송 대리인단 회의 참석 - 2023. 03. 15. 민사소송 준비서면 일부 작성 - 2023. 04. 07. 가해자 직급상관 관련 행정소송 변론기일(종결) 참관 - 2023. 04. 11. 민사소송 대리인단 회의 참석 	<p>형사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2. 10. 가해자 함장 파기환송심 선고 (유죄) - 2023. 03. 가해자 함장 재상고 - 2023. 05. 18. 가해자 함장 상고기각, 유죄판결 확정
		<p>민사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5. 26. 변론기일(종결) - 2023. 12. 08. 선고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4. 17. 공대위 회의 참석 - 2023. 05. 18. 가해자 합장 재상고 선고기일 출석 - 2023. 06. 15. 진급낙천처분 취소청구의 소 의견서 관련 담당 법무관과 소통 	관련 행정사건 (가해자 직속상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6. 30.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 판결선고기일 - 2023. 07. 20. 진급낙천처분 취소청구의 소 변론기일
연구실 선배에 의한 업무상위력 추행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09. 08. 피해자 면담 - 2023. 09. 19. 위임장 작성 - 2023. 09. 22. 사건 관련 회의 - 고소장 작성 - 2023. 10. 13. 피해자 상담 -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작성 - 2023. 11. 1. 대리인단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0. 12. 고소장 제출 - 2023. 11. 7. 피해자변호사 의견서 제출
학원선생에 의한 강제추행 등 (공소시효 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11. 3. 피해자 면담 - 2023. 11. 28. 피해자 상담 - 고소장 초안 작성 - 2023. 12. 07. 고소장 검토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선으로 가해자 상대 민사소송 진행 중, 공소시효 도과하여 가해자 처벌 불가능하나 고소라도 하고싶다는 의지가 강해서 관련하여 상담 진행 중

• 평가 :

-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건 지원이 마무리되고, 상담팀과 소통하여 새로운 사건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 하반기에는 공동체 내 사건, 대학 내 사건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사건 수임을 하고 싶다고 상담팀과 미리 이야기하여, 관련 사건을 진행하면서 특히 더 관심있는 영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기회였음.
- 계획했던 것보다는 다소 적은 수의 사건을 수임하여 아쉬움이 있지만, 근무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어 반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던 점, 사건 수임을 위해서는 상담팀과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상담팀이 지원하는 신건을 전부 상근변호사가 지원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점(기존 무법 변호사와도 계속 함께 해야 하는 등의 이유)도 고려하여야 함.
-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무료법률구조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함께 고소장을 작성해보는 등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음.

1-4.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폭력 관련 법률 교육

• 배경/필요성 :

- 법 관련 활동을 상근변호사에게 일임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활동가의 법 영역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팀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도 함.

• 목표:

- 활동가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 방법 및 계획

- 총 3차에 걸쳐 활동가들이 궁금해하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에 관하여 강연을 진행.
- 1차: 형사공탁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강의 (2월 중)
- 2차(5월 중), 3차(10월 중)의 주제에 대하여는 1차 강의 후 활동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함.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상담소 활동가들의 성폭력 관련 법 제도에 관한 역량 강화
- 진행내용

회	일자	장소	강의 진행	참여인원	주제
1	2/24	이안젤라홀	도경	14	형사공탁특례제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공탁법 중 형사공탁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강의 - 개정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특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봄. - 피고인의 공탁이 양형 사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봄. -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진행,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강의였다. - 내부 사람이 하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이 오고가는게 좋았다. - 실제 지원 중인 사례와 연동되는 강의여서 좋았다. 감형해주면서 재판관은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강의를 기다렸다. - 내용이 간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강의준비가 잘되어 있어서 좋았다. 귀에 쏙쏙 들어왔고 편안한 분위기에 질문할 수 있었다. - 외부의 사건지원자/상담가에게도 필요한 교육인 것 같다. 법률팀에서 외부사업화 하면 좋겠다. - 앞부분에 조금 집중하기 어려웠다. (집중을 위한 환기 시간 필요했음) 뒷부분에 지원 시 유의점 등을 정리해도 좋겠다. - 판례 다뤄줘서 좋았음. 의견서 활용에 탁월한 레퍼런스다. 				
회	일자	장소	강의 진행	참여인원	주제
2	6/2	이안젤라홀	도경	12	피해자권리보장제도(신체적 안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권리보장제도 중 특히 신체적 안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과 제도에 대하여 살펴봄. - 신변안전조치, 임시보호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에 대하여 그 내용과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청방법 등을 알아봄. -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 30분 진행,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가 좋았고, 평소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강의였다. - 피해자권리보장제도를 한 눈에 정리해서 볼 수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되었고, 흠어져 있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다. - 평소에 그냥 통쳐서 '신변보호' 혹은 '접근금지'라고 하던 것을 각각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행위 주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줘서 좋았다.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도 좋았다. - 피해유형별로 보호 조치가 달라서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내용이 많아서 조금 벅찼다. - 강의 한 시간 + 질의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좋았다. 시간이 더 길면 힘들었을 수 있겠다. 				

	- 강의 시간이 적절하였다.				
회	일자	장소	강의 진행	참여인원	주제
3	10/6	이안젤라홀	도경	10	민사소송 알아보기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중심으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그 중 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살펴봄. - 민사 상 소멸시효, 죄명에 따른 위자료 액수에 대한 연구결과 검토, 소송비용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봄. - 14시부터 15시30분까지 1시간 30분 진행, 1시간 강의 후 3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하였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강의였다. - 민사소송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피해자분들 중에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 배운 연구결과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되겠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구체적으로 민법 상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다. -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 평가
 - 활동가들의 참여도가 높았고, 만족도도 높았음. 특히 피해생존자를 직접 지원하는 팀에서 필요로 하고 시의성 있는 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었고, 지원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
 - 강의를 진행한 활동가도 관련 법제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특히 형사공탁과 관련하여서는 교육 후기 등을 보고 연락 온 외부 매체에 전문가로서 인터뷰를 하는 등 상담소가 형사공탁제도에 대하여 보다 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로 확장하여 현장 활동가들에게 법률교육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 사업 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목표2. 상담소의 상근변호사로서 역할을 탐색하고, 함께 활동을 만들어간다.

2-1. 상근변호사 역할 탐색 및 법률팀 안정화

- 배경/필요성 : 상담소의 내부 상근인력으로 상근변호사를 두는 것은 첫 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이외에도 상근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탐색하고, 신설된 법률팀을 안정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 목표 : 상담소에 상근변호사가 존재할 경우 긍정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
- 방법 및 계획 : 각 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결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탐색하고(1월-4월), 이후 상근변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
- 담당자: 도경, 각 팀 담당자
- 기대효과 :
 - 법률팀 신설로 법적인 영역에서 상담소가 보다 전문성을 얻게 됨.
 - 상근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관련 법정책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함.

- 예산안 : 함께하는 사업의 각 팀 예산에 따름
- 진행:
 - 후원의 밤 TF / 회원홍보팀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속 간담회 / 성문화운동팀
 - 한해보내기 / 회원홍보팀
 - 다른 팀과 함께 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 및 평가는 각 팀 문서 참조.
 -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협력지원과와 미팅 진행
 - 기억의 터 철거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업무방해 고발조치 관련 대응
- 평가:
 - 각 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탐색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음.
 - 상담소 상근활동가로서 멤버십을 강화하고 있고, 의제 중심 활동도 같이 하면서 향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의제에서 활동할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음.
 - 상담소 차원의 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며 법적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

2-2.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의 필요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가 존재
 - 공익단체와 예비법률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비법조인 양성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법정책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의식 확장 및 인식변화 가능성 존재
- 목표 :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예비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상담소와 함께하는 공익변호사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향후 진로 탐색 과정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 2024년 1/29(월) ~ 2/7(수) 진행 예정
 -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학생 참석 예정 (문의들어올 시 추가될 수 있음)
 - 내용: 성폭력 관련 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관련 입법운동, 법적대응과정 지원, 수사재판 모니터링 활동을 해온 반성폭력 운동의 내용과 쟁점을 공유함. 성폭력 피해자변호사로서의 역할, 법률상담, 고민 등을 나눔. 성폭력 관련 최신 판례 분석 등을 포함한 과제 활동을 진행하여,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함.
- 담당자: 도경, 란
- 기대효과 :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한 예비 법조인 양성
- 진행내용 :

시기	활동	세부내용
11월	기획 및 준비	- 일정 및 시간 확정, 인원 수 등 논의 - 서울대학교 법전문, 이화여대 법전문 측과 소통 - 구체적인 실무수습 프로그램 기획
12월	진행 전 실무	- 실무수습 참석자 선정(이화여대) - 강연자 섭외

1/29	(미진행)	(미진행)
------	-------	-------

• 평가 : (추후)

2-3.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례 훑어보기

• 배경/필요성 :

-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형사사법분야 법집행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 중 2021년 성폭력 범죄(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하급심 판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하급심 판결들의 유/무죄 판단기준 및 양형사유에 관한 유의미한 내용들이 포함되었고, 활동가들이 함께 살펴보면 좋을 자료라고 판단함.

• 목표:

- 2021년 성폭력 사건 하급심 판례를 함께 훑어보고, 유의미한 쟁점들을 공유한다.

• 방법 및 계획

- 2월 중 인권위, 공동연구자에게 외화작업 계획 확인 및 논의

- 3,4월 작성 부분에 대하여 현장단체와의 공유방식 기획

- 5월 중 실행(내부 공유 or 외부 행사로 진행)

• 담당자: 도경, 란

• 기대효과

- 2018년 대법원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 실제 하급심 법원들에서는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반영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 다수의 판결문을 함께 읽고 쟁점별로 검토하여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 진행 내용

시기	활동	세부내용
5월 중순	기획 및 준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 참석 후, 2021년 성폭력 하급심 분석 부분에 대한 토론회(외부 오픈)만 따로 진행하기로 결정함. - 대략적인 일정과 토론자 후보 등에 대하여 논의함. - 토론자 섭외 진행함.
5월 하순	홍보	- 토론자 섭외 확정 후 포스터 작업하여 상담소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홍보 진행함. - 일주일에 1-2회 정도 참석자 현황 체크하여 추가 홍보 상황 등 결정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회씩 추가 홍보. - 신청자 총 122명
6월 초순	발제문 작성	- 연구보고서 요약하여 발제문 작성, 토론자에게 송부함
6월 중순	행사 안내 등	- 토론문 받아 자료집 편집하여 pdf 파일로 만듦. - 신청자들에게 문자로 행사 줌 링크 및 자료집 pdf 다운로드 링크 발송.
6/23	행사 진행 및 후속 작업	- “성인지감수성 그 후, 성폭력 판결 훑어보기: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토론회 진행

		<p>사회: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발제: 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 토론1: 조윤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토론2: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p> <p>- 약 80명 참석(온라인 71명 + 활동가 오프라인) - 참석자들에게 설문조사 링크 만들어 문자 발송</p>
--	--	---

• 평가:

1) 준비 및 홍보

- 5월 중순부터 준비하여 다소 촉박한 일정이었으나 토론자 섭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웹자보를 빠르게 만들어 상담소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홍보할 수 있었고, sns 홍보도 잘 이루어져서 신청자가 100명 이상이었음. 실제 참석자는 약 60%였음.
-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상담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고 참석한 사람 비율이 높았고, 회원 대상 안내 뉴스레터를 보거나 지인소개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꽤 있었음.
- 토론자를 섭외할 때에 고려했었고 최종적으로 섭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지만, 막상 토론회를 진행하고 보니 현장 단체를 한 분 섭외하였다면 현장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음.
- 사전 신청을 받을 때 질문을 미리 받는 것도 생각해보면 좋겠음.

2) 진행 및 내용

- 온라인 줌으로만 진행하되 패널들은 이안젤라홀에 모여서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끊김 등 현상 없이 잘 진행되었음.
-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진행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만 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오후시간 보다 저녁시간을 선호한다는 응답도 꽤 있었음. 전체적으로는 오후 시간에 만족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음.
- 전반적으로 내용이 좋았고, 특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에 다 담기지 않는, 혹은 그것으로만 이야기되어서 빈 지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짚어낼 수 있었음.
- 애초에 기획할 때에 시간을 조금 더 여유있게 잡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패널들이 토론 직후 일정이 있어 전체 토론 시간을 충분히 두지 못한 것, 끝난 후 활동가들과 소감을 나누지 못한 것이 아쉬움.
- 상근변호사 활동 후 상담소에서 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기획 토론회를 여는 자리였고, 이후의 사업들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음.

2-4.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 배경/필요성 : 상근변호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음.
- 목표 : 상담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월급 이외에 추가 금액을 확보
- 방법 및 계획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아리 공익기금 혹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공익법조모임 나우가 함께 지원하는 공익펠로우 지원 사업에 지원함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상근변호사로서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음
- 진행

지원사업	시기	내용
공익인권법재단공감 & 법조공익모임 나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3월	-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지원 관련 소장단과 회의 진행, 상근자 회의에서 논의 진행 - 자립지원 사업 신청 (이력서, 자기소개서, 활동계획서 등 작성하여 제출)
	4/5	- 서류전형 합격 연락
	4/10	- 면접심사 진행 (공감+나우 이사진 및 변호사 6인과 면접)
	4/14	- 합격 통지
		- 소장단과 금액 관련 논의 진행 - 공감 실무자와 지원 금액 관련 논의 진행 (2년 간 매월 250만원씩, 6개월마다 일괄 지급)
	4/25	- 지원금액 관련 추가 소통 - 되도록 상담소의 부담을 덜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원받되 상근활동가 사이의 급여 액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도록 상근변호사의 월 급여액 확정
	4/28	- 지원금액 등 최종 확정
	5/23	- 펠로우 협약식 진행
	11/3	- 펠로우 활동 소회 나누기
	11/5	- 1분기 펠로우 활동 보고서 제출(6개월 단위)
12/4	- 법조공익모임 나우 10주년 행사 참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공익기금	3월	- 공익기금 공익변호사 모집과 관련하여 공익기금 측과 소통함. - 7기 이전 기수가 통합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10기 이후부터는 별다른 공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함. - 실질적으로 공익기금 지원변호사를 모집할 수 있는 담당자들과 연락하여 공익 활동 의지가 있음을 전달함
	6월 초	- 10기 공익기금 공지 올라옴 - 소장단과 지원 여부, 기금 받게 될 시 운용 관련 논의 진행함 (2년 후 급여 보전을 위하여 상담소 계좌에 저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 공감 측과 중복지원 문제 없을지 소통함
	6월 중순	- 10기 공익변호사로 공익기금에 지원 서류 제출
	7월 중	- 면접 진행 예정이었으나, 공익기금 내부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함.

• 평가

- 상근변호사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였음.
- 상담소에서도 새로운 자리를 만들면서도 상근변호사에 대한 상담소의 급여부담금은 2년간 월 100만원이 되어 재정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었음.
- 공익기금 지원도 받게 된다면, 공감나우 공익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에도 상근변호사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해나갈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하게 됨.
- 지원과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소장단과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상근자들과도 충분히 소통하여 우려가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함.

목표3.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법영역에서 상담소의 역할을 확장한다.

3-1. 한국성폭력상담소 결합 단위 연대 활동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에서 결합 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해설서 작업 및 장기적으로 입법 이후 실제 법 영역에서의 적용에 관한 논의 등을 하고 있음.
 -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 국면에서 특히 성차별을 이유로 한 차별 구제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공부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기여하고, 차별금지법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기른다.
- 방법 및 계획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계획에 따름.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차별금지법 해설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평등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함.
 -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적용 국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 피해자들의 구제를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 진행

날짜	활동	세부 내용
1/6	4차 회의 및 세미나	- 차별금지법 입법안 쟁점 세미나: 법령과 정책의 집행, 차별의 예외사유 관련한 토론
2/21	5차 회의 및 세미나	- UN OHCHR(유엔 최고인권사무소)이 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무지침> 번역 세미나 - 실무지침서 내용 중 국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 차별의 유형,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물적 적용범위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내용 발제/토론
4/4	6차 회의 및 세미나	- 실무지침서 내용 중 적극적 조치와 평등유지의 의무, 구제조치, 사법정의 및 시행, 평등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발제/토론
5/19	7차 회의 및 세미나	- 실무지침서 내용 중 차별금지사유의 인적범위, 국가의 이행 책무, 소수자권리와 차별금지, 인종차별, 종교신념에 따른 소수자와 차별에 대한 내용 발제/토론
6/27	8차 회의 및 세미나	- 실무지침서 내용 중 언어적 차별과 선주민의 권리, 혐오범죄와 혐오표현, 차별의 근본원인에 대한 국가의 대응 의무에 대한 내용 발제/토론
9/13	준비회의	- 법률위 다음 세미나를 위한 준비회의 진행

9/26	준비회의	- 법률위 다음 세미나에 대한 발제자 및 주제 정하기 등 준비회의의 진행
11/9	9차 회의 및 세미나	- '차별 관련 유럽인권재판소 주요 판례 및 가이드' 세미나 진행
12/5	대구 인권위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발제 참석	-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현장에서 불러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국가의 책무: 대구이슬람사원, 대구퀴어문화축제 사례에 비추어”를 제목으로 발제 진행함.

- 평가
- 차별금지법에 대한 활동가 개인의 전문성을 기르고 있으나, 활동들이 외화되지는 않아 상담소 내부에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음. 향후 공유할 수 있을만한 자료가 생성되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함.

2)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법개정 TF 활동

- 배경/필요성 : 상담소에서 결합 중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내에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 개정 TF가 존재하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위하여 개정안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 목표:
-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법 개정 TF 활동 계획에 따름.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성매매가 젠더 불평등에 기인한 성착취에 해당함을 알린다.
- 진행

날짜	활동	세부 내용
5/12	성매매처벌법 법개정 TF	- 법개정 TF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수정의견을 나눔.
5월 중순	개정 방향 관련 내부 논의	- 개정안이 성매매 대신 '성착취'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한 개정연대 내부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상담소 차원에서도 향후 의견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 진행 함.
5/26	개정안 관련 논의	- 백소윤, 조은호 변호사와 함께 개정안 작업과 향후 개정연대 내부에서의 법개정 TF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 회의함.
6/16	개정안 작업	-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총 2버전으로 만들기로 하였고, 그 중 하나인 '성구매자 및 알선자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작업함.

- 평가
- 법률팀에서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법개정 TF 활동을 하게 되면서, 성매매처벌법을 둘러싼 운동 내의 지형과 논의 지점들에 대해서 상담소 내부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상담소에서도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할 하였음.
- 개정안 작업 이후 성매매처벌법 개정연대 내부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하여 활동결합 정도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국회토론회 등 후속 작업까지 함께 하지 못하였음. 차후 어떤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법률팀의 경우 신설팀으로 자문위원이 따로 없고, 상담소에는 그간 상근변호사가 없었으므로 활동에 있어 조언을 구할 공간이 필요함.
 - 별도로 자문위원을 두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건지원 및 법 제도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선배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인적 자원 풀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목표:
 - 사건 지원을 위한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 상담소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풀을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매달 둘째주 화요일 저녁 7시(소수자인권위원회), 셋째주 목요일 저녁 7시(여성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그 외 공동대리인단이나 세미나 등 활동에 참여함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변호사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함.
 - 여성인권, 소수자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적절히 대응.
 - 상담소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 풀을 확장할 수 있음.
- 진행 내용

분류		일정	주요내용
회의 참석	소수자위	2/14	- '혐오표현의 쟁점과 대응' 세미나
		3/14	- 피성년후견인 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위헌성 판결 검토
		4/11	- 동성부부 피부양자 지위 인정 사건 2심 판결 공유와 추후 과제 논의
		5/9	- 퀴어문화축제 민변 부스 상황 공유,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8/7	-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관련 세미나
		9/12	- 신입회원 환영위원회 참석
	여성위	5/18	- 신임 여성위 위원장 인준
		6/15	- '불처벌' 저자(백소윤, 최별, 노혜진) 북토크
		9/21	- 보호출산제에 대한 논의
		11/16	-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최선일까 세미나
공동대리인단 사건 진행	장애인강간 사건	6/19	- 615 불송치결정 이후 긴급 대리인단 회의 진행
		8-9월	- 이의신청서 작성

		10/12	- 이의신청서 제출
동성부부 건강보험		4/19	- 2심 승소 이후 3월에 피고 상고, 4월 10일에 상고이유서 제출되어 답변서 작성 관련 대리인단 회의 진행함.
		5월	- 상고이유답변서 중 절차상 위법 부분 작성 함.
		5/24	- 상고이유서답변서 합본 회의 진행
		5/8	- 당사자와 미팅진행
FTM 성별정정		6/2	- 성별정정 신청서 작성하여 접수
		6/16	- 보정명령 접수되어 대리인단 긴급회의
		6/27	- 보정서 작성하여 접수함.
		11/13	- 심문기일 사전질문 미팅
		11/15	- 심문기일 출석
		11/22	- 기각결정 (다음 단계 준비중)
		5/22	- 대리인단 1차 회의 진행
MTF 성별정정		6/9	- 대리인단+당사자 미팅
		6/16	- 대리인단 2차 회의 진행, 주담당 당사자 미팅진행
		7/31	- 신청서 접수
		8월 초	- 참고서면 작성
		8/17	- 참고서면 관련 대리인단 회의 진행
		8/29	- 참고서면 제출
		11/29	- 심문기일 출석

• 평가

- 성폭력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며 변호사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여성인권 및 소수자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안을 알 수 있게 됨.
- 상담소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 풀을 확장하고 있고, 변호사 집단에 상담소의 활동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음.

3-3. 외부 자문위원 활동

1) 청소년 성소수자를 위한 법정책 자문위원 활동

• 배경/필요성 :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평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폭력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모의 조력이 없는 환경(탈가정)과 아우팅 협박 등과 결합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자문과 피해 예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상담소에도 성소수자 피해자가 상담 및 법률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법정책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보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음.

• 목표:

-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폭력 피해 해결과 예방에 기여한다.
- 방법 및 계획
- 연 2회 이상 법정책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평등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
- 구체적인 계획은 법률자문단 계획에 따름.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다른 자문위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성소수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해결 과정에서 법률 조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 진행 내용

분류	일정	주요내용
자문단 회의	3/2	- 서로 인사 및 평등 소개, 향후 계획 논의 -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관련 논의
	5/10	- 야간센터 '숨숨' 운영을 위한 법률검토 '실종대상 아동'에 대한 신고 관련 쟁점, 위반 시 평등이 지게 될 책임 관련 검토, 보호시설 등록여부에 대한 검토 등 - 포용적인 학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진행여부 관련 논의
	6/8	- 카드뉴스 제작 관련 논의 향후 디지털 매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콘텐츠 함께 만들기로 함.
	10/16	- 하반기 점검 회의
포용적인 학교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	7월	- 성소수자에게 포용적인 학교를 위하여 필요한 법개선 연구를 위하여, 현재 학교와 관련된 여러 법률에 대한 사전 검토 진행 중.
	~11월	- 연구부분 중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연구 작성. - 보고서 완성 후 조만간 출간 예정.

- 평가
- 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사건해결 역량을 높이고 있고, 장기적으로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 다만 성소수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률 조력은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음.
- 관련 활동을 상담소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신규] 전장연 집회지원단 활동

- 배경/필요성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측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집회, 시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위법한 현장체포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과잉대응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공익변호사들도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장연 집회지원단이 꾸러지게 되었고, 함께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 연대의 의미와 집회, 시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안과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변호사의 역할 등을 배울 기회이기도 함
- 목표
-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위법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함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 담당자: 도경
- 진행 내용

날짜	활동	세부 내용
10/4	1차 회의	- 전장연 집회지원단 활동 방향 회의
11/14	매뉴얼 작성회의	- 집회 참석자 행동 매뉴얼 작성 회의
11/24	2차 회의	- 매뉴얼 최종 검토 및 현재 상황 공유 회의
11/30	현장 집회지원 활동	- 4시 시청역 기자회견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 5시 혜화역 집회 인권침해감시단 활동

2023 사무국 활동 평가

2023 활동방향(안)	팀별 실천방안
불황과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 법정책 대응, 다양한 연대 활동에 '생존자'의 관점, 목소리, 자리를 마련하고 연결되도록 함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치에 책임 요구하기	- 법정책제도 예산의 변경, 변화 지점을 모니터링하고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되, 대중적인 설명과 설득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기	- 후원자와 소중하게 소통하며, 활동참여자와의 관계망을 다층화하기, 후원처를 다각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나기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결되기	-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할 수 있는 경로와 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하기
팀 활동 목표	
<p>목표1.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하며, 성평등 지우기와 성폭력 보수화에 맞서기</p> <p>목표2.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 탄탄하고 든든하게</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 이후에 강간죄 개정 과제가 타겟이 됨. 강간죄 개정연대는 이슈중심의 즉각적 대응과 더불어 다양한 성폭력의 현실과 맥락을 드러내는 내용을 확산하는 활동을 함 - 여성인권 관련 사회적 정치적 이슈적 상황 대응을 성문화운동팀과 협력함. 상담소 내에 통시적으로 정책 대응의 경험을 쌓는 활동가와, 깊이있고 운동성 있는 대응활동의 축적 기대 - 2023년 팀 매니저 제도 및 회의 진행. 팀 내 공동업무 촉진 및 의사결정 독립 및 신속성 증진, 조직 전체 현안 공유 및 시야 확보, 리더십 재/생산 관련 쟁점 검토 및 역량강화 의제화 등이 성취됨. 상호 질 높고 효율적인 피드백, 리더십 높이기를 통한 책임강화 및 배분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2차년도 목표 설정 및 진행이 기대됨 - 사무국 및 대표단의 업무 부담 상황은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다 필요한 일에 사무국/대표단의 역량이 투입될 필요가 있음. 재정담당 업무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각 팀과의 협조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하며 재정회계 관련 사전 협의-실행이 안착되고 있음. 조직문화 평가 워크숍이나 조직 내부 문제 시안에 활동가 전반이 동일한 시각과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내용, 방식, 제안 등이 활동가들의 준비, 진행으로 이뤄짐, 조직 내부 담당, 팀, 팀간 협력사업 등에 대한 정의와 기술, 목록화 등이 향후 필요함 - 상담소 건물 노후화 등이 계기가 되어 고장수리, 환경개선, 시설물 개비 등 대처하는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을 상회하는 비용이 들고 있으나 보다 활동가들에게 나은 환경이 되기 위 	

해 신속 노력 함

- 혐오 차별 정치부재 상황의 악화일로로 사회운동의 활력 또한 저하되고 활동가, 참여시민의 피로가 누적되는 측면이 있음. 동시에 반성폭력 운동 및 상담소에 대한 지지와 참여가 꾸준하게 있으며, 활동가들이 만남, 새로운 기획, 참여조직에 애정과 열심을 키워감. 공부와 모색과 상상, 쉼과 놀이와 대화, 관계 맺음과 협력적 활동을 통한 전환적 사회운동에의 도전 등 소진을 강요하는 시대에 맞서는 활동이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음

목표1.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하며, 성평등 지우기와 성폭력 보수화에 맞서기

1-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2019년 <강간죄> 개정 연대회의> 결성 이후 다양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였음
- 2021-2022년에는 특히 대중적인 홍보, 의제 확산 활동을 하였고 많은 여성시민들이 호응하는 등, 의제 이해도와 참여도를 꾸준히 높여 왔음
- 형법 체계, 구성요건, 법리의 문제가 장벽이 높다는 현장활동가들의 반응을 청취하고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성폭력 구성요건 ‘동의’로의 변화와 젠더폭력 다양한 의제들과의 점접을 논의해 옴
- 정부가 ‘무고죄 강화’를 수행할 수 있는 퇴행적 상황에서, 법사위 논의의 수준과 폭을 넓히며, 입법 영역에서 젠더 의제로의 의미와 방향이 단단할 필요성

• 목표:

- 국회, 유관 정부부처, 법조인 내에서 성폭력 구성요건 변경 입법안의 필요성을 내실있게 확대함
- 여성인권운동 단체들의 차이와 연결점을 논의장으로 조직하여, 변화를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준비함

• 방법 및 계획

- (상반기)

- : (2월) ‘강간죄개정운동’ 입법운동의 현재와 전략 논의 워크숍 진행 (1회, 소속 단체 확대대표자회의)
- : 2021 유엔입법 가이드 전국 재판부 발송, 사법연수원 강의 내용 제안
- : (4월) 여성운동과 성폭력 개념 변화의 과제(가칭) 토론회 구성 및 개최
- : 의제기간 연령 상향 운동에 대한 강간죄개정연대 내부의 차이와 활동 원칙을 다루는 논의

- (하반기)

- : (9월) ‘297조 성폭력 개념 관련 형법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 기획 및 진행 (의원실 협력)
- : CEDAW 본심의 관련하여 NGO 세도우리포팅 활동 진행
- : 총선 대응 체계와 함께 공약 제안 및 정책 협력 활동 진행

• 담당: 오매, 신아(성문화운동팀), 란

• 기대효과

- 적극적 입법 활동을 통해 강간죄 개정의 입법부, 사법부, 대중적 공감 형성 및 실제 개정

• 진행내용

구분	일정	내용
----	----	----

구분	일정	내용
워크숍	3.10.(금) 14-17시	<p>참여자 인사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활동 소개 (14:10~) - 2022년 12/10 강간죄개정연대 행사 평가 및 논의 (14:30~) - 정세분석 및 토론 (14:5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023년 1월 26일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 계획 관련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발표 ◎ 국민의힘 이준석, 권성동 페이스북에 관련 게시물 포스팅 ◎ 법무부 반대 입장 표명 “법무부는 소위 ‘비동의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입장 철회 <p>2023년 1월 26일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국 사전 질의 중 비동의 강간죄 관련 ◎ 한국 정부 응답: “강간죄 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 <p>2023년 2월 7일 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안전실태조사 보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2022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 언론 보도4), 언론 취재 후 보고서 비공개 전환 <p>2023년 2월 8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대정부질의</p> <p>2023년 2월 10일 법무부 “양성평등기본계획 3차 성폭력 법률개정과제 모두 반대”</p> <p>2023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질의</p> <p>언론 질문들</p> <p>‘강간죄개정연대’ 대응 성명</p> <p>2023.1.27.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p> <p>2023.2.21.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악착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는 시간 - 2023년 과제 제안 및 토론 (15:25~)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자료 생산 및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2021) : 인쇄본 제작 및 전국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발송 : 국가인권위원회 국제규약 관련 자료 업로드 요청 : 인쇄본 제작 및 국회도서관 등 납본 : 알라딘 등 무료 PDF 배부 협의 : 예산 5,000원 * 300권 = 1,500,000원 + 발송비 3,000 * 100 = 300,000 >> 1,800,000원 </div>

구분	일정	내용
		<p>-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2022년 1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통계 조사 : 4-6월 조사, 7-8월 분석, 8-9월 발표 일정</p> <p>- 2022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 관련 : 공동논평</p> <p>- 2021-2022 폭행협박 있는/없는 강간 판례분석 : 사무국 한국성폭력상담소 리포트 작성</p> <p>2) 국회 및 법조계 논의 건인</p> <p>- 21대 국회 토론회/공청회 : 1안) 법사위 공청회 : 21대 국회 가기 전에 개최 요청, 제안(권인숙, 이탄희 의원실) : 2안) call21st 참여했던 44개 의원실 조직하여 개최 : 이상한나라의강간죄 서명운동 (현재 2만 0천) 국회 발송 방식</p> <p>-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 비동의강간죄 관련 쟁점 논의 제안 - 그 외 관련 논문 소개 (카드뉴스 혹은 토론자, 패널 초대, 소규모 집담 등) : 예산 : 국회 예산 사용</p> <p>3) 더 넓고 더 깊은 토론 : 강간죄 개정의 의미</p> <p>- 여성운동 토론회 : '동의'가 던지는 질문과 의미 : 성매매-성착취 관점에서, 장애 여성의 성적권리의 관점에서, 청소년 성적권리 관점에서, 청소년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위력 성폭력 관점에서, 아내강간과 가정폭력 관점에서,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의 관점에서 : 예산 : 장소대관 500,000원, 자료집 제작 500,000원, 패널 및 사회 500,000원, 통역 500,000원 = 2,000,000원</p> <p>- 해외 입법운동 사례 집담회 : 전략과 쟁점 논의 >> 규모 관련 논의 : 비공개소규모집담 / 공개소규모 / 공개큰행사 : 예산 : (중 개최의 경우) 패널비, 통역비 등 1,500,000원</p> <p>4) 강간죄개정연대 조직 정비 및 외연 확대</p> <p>- 참여단위 확대 : 강간죄개정연대 참여단위 외부 광고 * 트랜스젠더, 난민 등 소수자 배제적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단위는 참여하실 수 없음을 명시</p>

구분	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원회 추가 조직 및 활동 단위 확인 : 참여 전문가 추가 제안 - 전체 단위 소통 체계 : 전체 회의 개최 여부 / 전체 텔방 만들기 관련 : 텔방에서 유효않은 구성원 탈퇴 공지 여부 - 분담금 : 2023년 분담금 요청 - 역할분담 및 차기 회의 일정 (16:30~)
정기회의	3월 29일	45차 회의 FAQ 자료집 목차 및 기획안, 릴레이 의견서 기획안
	4월 26일	46차 회의 FAQ 자료집 진행 공유, 릴레이 의견서 심화기획안, 설문조사 기획안, 21대 국회 입법전략 논의
	5월 25일	47차 회의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 기획
	6월 23일	48차 회의 국회 토론회 및 기자회견 세부점검 및 역할보완
소회의	4월 18일	21대 국회 입법전략 논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연대)
	5월 12일	설문조사 구성안 논의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6월 5일	21대 국회 토론회 조직 역할분담, 공동주최 의원실 상황에 따른 진행날짜 결정, 설문조사 목표 및 정리 점검
논평 및 입장	2월 21일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약탈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22개 단체
	1월 27일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의 222개 단체
기획활동	FAQ자료집 (기획안)	비동의강간죄, 무엇이 변화될까? 우리가 궁금한 것 FAQ 들어가며 이렇게 읽어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괜찮지 않아? ① 성폭력은 고소하면 다 송치되고 기소되고 유죄되는 거 아니야? ② 성범죄 유죄율이 90%가 넘는다는데 비동의강간죄 도입 과한 거 아니야? ③ 성폭력 관련 법이 많고 이미 강간죄 '입법공백'을 보완하는 거 아니야? 비동의 강간죄, 그거 괜찮은 거야?

구분	일정	내용
		<p>④ ‘동의 없었다’ 피해자 일방적 진술만으로 유죄가 되는 거 아니야? ⑤ 범죄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전환되는 거 아니야? ⑥ 무고도 늘어나고 억울한 피고인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p> <p>국가와 제도의 역할, 필요해? ⑦ 국가가 성문제에 과도하게 형벌로 개입하는 거 아니야? ⑧ 국가가 여성이나 피해자를 과잉보호하는 거 아니야? ⑨ 동의를 어떻게 판단하지? 구성요건이 불명확한 것 아닌가?</p> <p>달라지는 것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를 제일 먼저 묻는 사회 ●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묻는 것이 당연한 사회로 ● 동의를 이미 살피고 있는 대법원 판례들 ● 해외 비동의강간죄 입법내용 및 판단과정 ●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비동의강간죄
	릴레이의견서	<p>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여부로,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p> <p>① 단체가 쓰는 이야기 ‘강간죄 개정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당연한 요구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현장지원단체들의 통계와 사례 분석을 통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피해가 다수인 점, 하지만 여전히 수사사법기관에서는 최협의설이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것,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된 처벌이 요원한 현실 가시화함. 이를 통해 현행 법 개정의 필요성과 여론 조성 - 목표 : 총 7개의 리포트 발행 - 대상 : 입법관련 연구자, 공무원, 정당 등 - 일정 : 5월 11일~6월 29까지, 매주 목요일, 총 7번/ <p>술이나 약물이 있었던, 원치 않은 성관계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위력에 의한, 원치 않은 성관계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전국연대)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탁틴내일) 장애로 인해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장애여성공감) 이주여성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이주여성인권센터) 부부관계로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한국여성의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 각 단체별 채널, 블로그 업로드, 오마이뉴스 연재, 언론보도(배포) <p>② 내가 쓰는 이야기 ‘성폭력인데 성폭력이 아니라구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폭행·협박 없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법적대응 과정에서 저항증명요구, 무고죄 위협, 불송치, 불기소 처분 등 현행 법이 오히려 가해자

구분	일정	내용
		<p>에게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한 경험을 통해 현행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총 3개의 수기 발행 - 대상 : 일반시민, 국회, 정당 등 - 방법 : 시민들의 수기 형식으로 진행. 3명 사전 섭외 - 일정 : 6/13~6/27, 매주 화요일, 총 3번 <p>여성주의 저널 일다 사후 연재 술,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① 천주교성폭력상담소 https://www.ildaro.com/9658</p> <p>위력에 의한 성폭력,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②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ildaro.com/9663</p> <p>'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③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https://www.ildaro.com/9674</p> <p>청소년들이 겪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④ 탁틴내일 https://www.ildaro.com/9680</p> <p>장애여성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는 사회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⑤ 장애여성공감 https://www.ildaro.com/9688</p> <p>이주여성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징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⑥ 백소윤 https://www.ildaro.com/9696</p> <p>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강간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⑦ 한국여성의전화 https://www.ildaro.com/9702</p> <p>나는 아직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당사자의 기록① J https://www.ildaro.com/9713</p> <p>결국 '강간죄'는 피해자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가?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당사자의 기록② 심이경 https://www.ildaro.com/9722</p>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경 : 폭행·협박 없는 비동의 성관계를 여성대중들은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럼에도 관련 법은 폭행·협박을 성폭력 범죄의 주요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성범죄가 만연함. 이로 인해 신고조차 망설이게 됨.

구분	일정	내용
		<p>- 목적 : 법 규정과 시민 인식간의 격차 드러내기, 이를 통해 강간죄 개정이 '일부의 주장'이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당연한 요구임을 알리기</p> <p>- 목표 : 총 500명</p> <p>- 대상 : 일반시민</p> <p>- 방법 : 릴레이 리포트가 끝나는 시점에 결과 발표/ 릴레이 리포트 발행과 함께 홍보</p> <p>- 일정 및 방법 : 5/22~ 6/26 34일간 온라인(구글폼) 설문응답</p> <p>- 이름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민인식 설문조사 '원치 않는' 설문조사 결과 _ 강간죄 성립 기준은 _____가(이) 되어야 한다</p> <p>총 참여자_1,346명</p> <p>설문문항 (1)연령 (2)성별 (3)강간죄인지여부 (4)판결동의여부 (5)강간죄판단기준 (6)폭행협박없는성폭력 (7)기타자유 의견</p>
	21대 국회 대응 액션	<p>'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p> <p>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촉구</p> <p>국회 기자회견 및 토론회</p> <p>2023. 7. 25.(화)</p> <p>11:00 기자회견_국회 본관 앞</p> <p>13:30 토론회_국회도서관</p> <p>주최_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및 여성시민사회 243개 단체</p> <p>국회의원 권인숙, 류호정, 백혜련, 용혜인, 장혜영, 정춘숙,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p> <p>[기자회견] '동의를 이미 모두의 상식이다.'</p> <p>형법 297조 강간죄, 지금 당장 개정하라</p> <p>○ 일 시 : 2023.07.25.(화) 11:00</p> <p>○ 장 소 : 국회 본관 앞 계단</p> <p>○ 사회_한국여성의전화</p> <p>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p> <p>발언_ 용혜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p> <p>발언_ '폭행·협박 없는 강간' 현실을 바꾸자 (권지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p> <p>발언_ 동의를 이미 상식이다 : 2023년 시민 설문조사 결과 (정희진,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활동가)</p> <p>발언_ 정부는 '강간죄 개정'을 제대로 견인하라 (김신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p> <p>발언_ 동의하지 않은 성폭력에도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p>

구분	일정	내용
		<p>지 않도록 지금 당장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개정해주세요-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피해생존자 (대독: 김태욱,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p> <p>퍼포먼스</p> <p>기자회견문 낭독 _ 이미진 (전국성폭력상담소 공동대표), 구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p> <p>[국회 토론회]</p> <p>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7/25(화) 13:30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민문정 상임대표 ○ 국회의원 인사말 ○ 발제1 강간죄 개정과제의 현재 : 김혜경 (한국성폭력상담소) ○ 발제2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 톺아보기 :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 발제3 강간죄 개정 반대에 대한 법적 검토 : 이경환 (변호사,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토론1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토론2 이수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과장) ○ 토론3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p>[관련보도]</p> <p>7/25 한겨레신문 강간 10건 중 6건 '폭행·협박' 없어... '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 - 성폭력상담소 119곳 접수 사건 4765건 분석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1677.html</p> <p>7/25 여성경제신문尹정부가 손 놓은 '비동의 강간죄', 국회도 무관심속 지지부진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987</p> <p>7/25 여성신문 '폭행·협박'하며 강간, 10%도 안 돼... 243개 단체 "비동의 강간죄 도입하라"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69</p> <p>7/25 여성신문 "'비동의강간죄' 새로운 것 아냐... 재판서 이미 '동의 여부' 판단 중"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8789</p> <p>7/25 선데이뉴스 "강간죄 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 용혜인 의원" "때리</p>

구분	일정	내용
		<p>지 않으면 강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나라” http://www.newssunday.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92393</p> <p>7/28 일다 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의 쟁점, 국회 토론회 열려 https://www.ildaro.com/9685</p> <p>7/31 한겨레신문 ‘비동의 강간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누구? [뉴스AS]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102331.html</p>

• 평가

- 법무부, 여가부, 여당, 남초커뮤니티 등이 주체가 되어서 비동의 강간죄에 대한 반대를 중심으로 백래시 형성.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해당 내용 철회, CEDAW 보고서에서 강간죄 개정 반대, 2022년 성폭력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강간죄 개정’ 단어 철회 등에서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는 현실이 형성됨
- 강간죄개정연대는 릴레이리포트, 생존자 수기 등을 통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드러내고 있음.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2022년 전성협 강간 상담 집계에서도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현실이 드러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무죄 확정 등을 통해 피해자 동의부재를 간과한 판결, 고의 입증의 편향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다양한 단위가 각자의 지점에서 동의 기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참여하고 있음
-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 제기된 법적 실무상의 쟁점으로 보이는 ‘피고인 입증책임 전가’, ‘동의를 입증 실무’ 등의 주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며, 다툼의 쟁점이 되기 보다는 관점의 전환을 도출하면서도 실무적인 대안 논의 등을 진행하고자, 동의없는 성적침해가 실제 성폭력 인식, 법적 신고 및 고소, 생활세계에서 교육 및 사례, 논쟁의 장에서 전개되고 있으므로 수사 재판 실무자들의 동의여부 판단과정에 대한 실무적 쟁점 등 구체적인 논의의 장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함
-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법적인 쟁점으로만 이야기되지 않도록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여성과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갈 필요가 있는데, 처벌 보호 테두리가 여전히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 이후 논의를 요함
- 22대 국회 정책제안 및 후보 조직 활동이 요구됨

1-2. (공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

• 배경/필요성 :

- ‘여성가족부 폐지’, ‘구조적 성차별 없다’를 공약/주장한 대선 이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출하여 2023년 1월 현재 여야 정책협의체 논의중임
- 2022년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단체연대들의 공동논의, 대응활동을 전개함. 전국 892개 시민사회단체, 양대노총 등의 참여로 전국행동 조직, 출범하여 전국 의원면담, 대시민 홍보전 등 진행함

• 목표 :

- 정부조직개편안을 최대한 저지함
- 여성가족부와 성평등 전담부처 역할 강화를 명확한 사회적 좌표로 만들고 성평등한 이후 국면으로 연결

• 방법 및 계획 :

-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단체연대 필요시 논의개최 및 활동 모색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및 서울행동 활동

- : 온라인 국회에 촉구하기 캠페인
- : 국회의원, 원내대표 등 면담 진행
- : 다양한 홍보 활동

- 담당자: 오매, 란, 신아(성문화운동팀)
- 진행내용

1)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정책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서울행동)

회의	2월~	<p>1. 서울집행위 회의 2/2 오전 10시, 여성미래센터 지하 소통홀, 참석단위: 정의기억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공공운수노조,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전국행동활동공유/ 국회상황 공유 - 이후 전국행동 방향 및 활동 논의 - 서울집행위 역할분담 논의 - 안지워지지 시민살롱 평가 - 서울행동 분담금 논의 <p>2. 전국대표자회의 3/21 오후 7시, 온라인 줌 참석단위 : 윤소영(경남여성단체연합),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영, 송란희, 나눔(한국여성의전화), 남성아(천주교성폭력상담소), 고경임(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윤혜상(경원사회복지회 부설 희망터), 남은주(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최희연, 제이(한국여성민우회), 김혜정,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이양신(제주여민회), 무이, 여파(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지오(행성인), 마소현, 이해련(수원여성인권동음), 이한빛/김은경(한국YWCA연합회), 임지영(정의기억연대), 신상아(서울여성노동자회), 몽(인권운동사랑방), 윤애란(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이민진(공공운수노조), 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한기연(청주YWCA), 광혜전(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손보경(인천여성회), 황보현(NCCK 여성위원회), 전은희(전주여성의전화), (대전여민회), 김민문정, 양이현경, 오경진, 김수희, 김현수, 임선희, 박은주, 최은주(한국여성단체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행동 활동 및 경과 공유(2022년~현재) - 여가부 장관 관련 전국행동 입장마련 및 이후 활동 관련 <p>3. 서울+전국집행위 4/13 오후 2시, 온라인 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회견 일정 및 역할분담 논의 *정책팀 :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의기억연대 *홍보팀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조직팀 : 진보당 <p>4. 서울행동 정책, 조직, 홍보팀 회의 4/21 오전 10시, 여성미래센터 소통홀</p>
----	-----	--

		- 기자회견 슬로건, 발언, 퍼포먼스 안 논의 - 역할분담
공동성명 및 논평	1월~	1/27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여가부 폐지해도 여가부 업무 축소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16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2/27 여성가족부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한국여성대회 부스 운영	3/4	- 제38차 한국여성대회 부스운영 : 카드뉴스 전시 및 여가부 폐지 저지 인증샷 : #절대안지워지지_여성 혹은 #절대지켜_성평등추진체계 #세계여성의날 #여성대회 #한국여성대회 #제38회_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_향해_진전하라
온라인 액션	3/8	3.8 여성의날 온라인 SNS 프사바꾸기 캠페인
홍보	3/8	3.8 여성의날 안지워지지 시민살롱 강의내용 카드뉴스 제작 배포
기자회견	5/16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2023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전국 901개 단체) ○ 프로그램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참가단체 발언 1. '여가부 폐지' 둘러싼 경과 규탄 및 운동의 성과 의미화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2. 지자체 성평등 추진체계 퇴행 :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3. '비동의강간죄' 정책 과제 철회, 젠더폭력 관련 정책 퇴행 관련 :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4.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5. 여성 노동 문제 : 노헬레나(한국여성노동자회 연대사업국장) 6. 여성가족부의 '정상가족', 가부장적 가족/인구/저출생 정책 : 온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7. 최근 1년 퇴행에서 청년여성들의 어려움 : 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	--------------------

- 2024년 여성가족부 등 예산안 공개에 따른 대응논의 및 조직 진행
- 2023년 9월 25일 “24년간 여성노동자를 지켜온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퇴행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기자회견 연대발언 (김혜경 소장)

2)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9/27	기획논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 등 예산안 상황 공유 @온라인 줌 참석_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0/10 17:00	기획논의	예산안 문제 상황 상세 공유 및 문제의식 공유 - 지역별 경쟁, 통제 위주의 재편, 효율논리 위주, 현장 무시 일방향 소통 방식 여성폭력 피해자지원단체 연대체 조직 필요 및 기자회견 안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참석_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10/17 09:00	연대체 제안회의	예산안 문제상황 영역별 공유 및 기자회견, 공동행동 제안 @온라인 줌 참석_ 47명 가정폭력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가정폭력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가정폭력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성폭력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매매 전국성매매피해자지원을위한현장상담센터협의회 성매매 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성매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이주여성 전국이주여성상담소협의회 이주여성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디지털성폭력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10/19	시민선언 시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을 막기위한 1만 시민서명
10/30 11:00	기자회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의사당 본관 앞 (‘한국여성의전화’ 채널 유튜브 생중계 진행 / 수어통역) 공동주최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12

		<p>개 협의회 및 연대체, 569단체) 및 시민사회연대단체(241개 단체), 국회의원 권인숙, 신현영, 양경숙, 양이원영, 이동주, 정춘숙, 장혜영, 용혜인, 강성희,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이재정 위원장), 정의당 여성위원회</p> <p>사회 :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 취지 및 배경 소개 : 한국여성의전화 김수정 (한국여성의전화 공동 사무처장) 현장단체 발언1_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대표 조미영 ((사)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장) 현장단체 발언2_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 권지현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소장) 현장단체 발언3_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이은주 ((사)대전여민회 부설 성폭력상담소'다함' 디지털성범죄 상담팀장) 국회의원 발언(권인숙, 이재정, 정춘숙, 신현영,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장혜영(정의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강성희(진보당),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단체 발언4_(사)성매매근절을위한한소리회 칼리 현장단체 발언5_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 고경임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대독 : 한사회장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박선경 소장) 현장단체 발언6_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곽혜전, 수원여성인권돋음 대표 정선영) 퍼포먼스</p>
10/30 13:20	간담회	<p>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간사 간담회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나무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송란희,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및 활동가, 최유연 여성인권실현을위한가정폭력상담소연대 대표,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김양순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p>
11/2	국회 자료 제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추가 질의 전달 및 자료 검토
11/3	국정감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11/3	기획단 회의	여성가족부 통합상담소(가) 공모신청마감 (11/7(화)) 대응 회의 지역별로 최대한 신청하고 이후 과정 문제제기 방향
11/8	기획단 회의	여성가족부 통합상담소(가) 공모과정 및 신청 현황 공유 이후 과정 문제제기 액션 기획 논의 및 역할 분담
11/9	예결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장혜영 의원 질의)

11/11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처 대상 질의서 접수 : 현장 의견 제출
11/16	여성가족부	장관면담 요구 1차 공문 발송 : 11월 17일 최성지 권익증진국장 면담이 가능하다는 유선 답변 : 11월 20일 위 내용으로 문서 회신
11/22	여성가족부	장관면담 요구 2차 공문 발송 : 11월 27일 국장을 만나면 안되는지 유선으로 문의 회신 : 12월 4일 장관실에 보고 하는 중이고 재차 확인 후 회신 예정 : 12월 6일 권익정책과장 유선 통화 - 공문회신 불가하고, 이미 정부예산안 국회로 넘겼으므로 의견청취하기에 시기 도과됨
11/23	여성가족부	질의서 발송, 보도자료 배부 : 11월 30일 여성가족부 질의서에 대한 답변 회신
11/24	대국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예산 감축 문제 카드뉴스 시작 ① '통합이 트렌드라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일방적 개편 ② ③ 1.17일에 한 명의 여성이 가정폭력 등으로 살해 당하는 대한민국, 여성폭력 인식개선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 ④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 예산 전액삭감
11/27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년 여성폭력추방주간 하반기 여성인권포럼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참석 및 모니터링, 질문, 피켓팅
11/28	국회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원회 논의 중 서삼석 위원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 집중 전화 연락 진행
11/30		2024년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관 실무자 전국 워크숍 (2박 3일) 사업계획 신청

• 평가

- 여성가족부 라는 성평등추진체계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성평등 후퇴가 각 여성 의제의 영역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내는 등 적극적 활동함.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채택을 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여당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담, 압박한 것이 성과이고 대응 운동, 참여시민들의 성취로서 의미 있음
- 여성가족부 폐지 국면은 일단락되었지만 시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많이 알고 있지 않음. 그만큼 여성폭력 및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부의 백래시 기초, 정책 방향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시민들의 무력감도 지속되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연대와 대응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 8월 여성가족부 제출 예산안이 공표되고,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의 일방적인 향후 방향 전달로 인하여 여성폭력대응 현장단체들의 혼란과 분노가 컸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 장애 지원단체들의 연대를 제안하고 조직하여 공동으로 국회 및 여성가족부 대응 활동을 전개함. 사회적으로 여성폭력 예산삭감 및 일방적 구조조정의 문제가 알려졌으며 압박이 가해짐
- 여성폭력피해자지원현장의 오래된 쟁점 (지역별 과다, 질적으로 문제있는 운영, 관점의 부재 및 부족 등) 과 제도화/거버넌스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함. 향후 통합 및 민간견제, 중앙 부재와 지역으로의 떠넘기기,

통합원스톱서비스화 등의 방향이 드러나기도 함. 이에 따라 성평등한 여성폭력근절 운동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직시하고 논의하는 장을 조직해야 함

1-3. (공동) 총선 대응 성평등 연대 (가)

- 배경/필요성 :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반성폭력 정책, 성평등 의제가 여러 정당 및 후보들, 전국적으로 확산, 심화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 있음. 선거시기 정책 및 공약 제안 이외의 활동도 고안, 고민할 수 있는 장 필요
- 목표 : 성평등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좁은 선거에 갇히지 않고 성평등 정책, 체계, 계획, 입법, 예산을 확대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과 실천방법 제시
- 방법 및 계획 :
 - 이야기 포럼 1차 : 여성운동, 법제도정책, 정치세력화 사이의 못다한 이야기 (간담회)
(주요 참여대상 : 한국성폭력상담소 및 연대단위 활동가, 자문위원, 정회원 등 + 그 외 관심참여자)
 - 캠페인 with FDSC “나는 OOO 국회의원을 원한다” (1980~90년대 뉴욕에서 활동한 미술가이자 페미니스트, 성소수자 인권운동가였던 조이 레너드가 1992년 아일린 마일스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지지하기 위해 쓴 성명문이자 시 그리고 설치작업인 ‘I Want a Dyke For President’에서 형식을 빌려 2022년 FDSC에서 진행한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원한다 선언문 액션 <https://fdsc.kr/415> 참조)
 - 총선 대응 성평등 연대(가) : 공동 구성에 참여
- 담당자 : 오매, 란, 유랑(성문화운동팀)
- 기대효과
 - 페미니즘 정치와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반성폭력운동의 정치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 진행내용
 - 체제전환운동 및 총선대응 논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22 [체제전환운동의 공동 활동 모색 집담회] : 달별 오매 참석 - 8/21 [상담소] 내부 활동가 소회의 : 란, 달별, 오매, 동은 - 8/23 [상담소] 상근활동가회의 활동가 논의 : 2024 총선 대응 및 체제전환 모색 논의 - 8/23 여성연합 대표자회의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논의 현황 제출 - 8/30 [상담소] 상근활동가 논의 : 반성폭력 법정책 활동 및 평가, 2024년 총선 대응 논의 “돌아봐야 할 것” “앞으로 해야 할 활동” - 9/1 [체제전환운동 세력화와 총선대응방안 모색토론회] : 유튜브 중계로 참관 - 10/24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준비워크숍 : 란, 달별 참석 - 11/6 [상담소]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제안자 및 집행위 참석여부 논의 : 란, 달별, 오매 : 상담소 반성폭력 활동, 여성운동 평가 및 중장기 계획 논의의 계기 (평가, 계획회의와 연동) : 정치대회에서 반성폭력 파트 발제, 공동발제 (장애여성공감, 이룸, 한사성 등과) 모색 : 여성단위(전성협, 여성연합 등) 총선 대응 및 이후 활동에서 체제전환 관점 제안 및 연대 모색 - 11/6(~)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를 제안합니다 (정치가 사라진 시대, 위기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꾸는 체제전환, 우리가 시작합니다) : 란, 달별 제안자 참석 - 11/9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집행위원회(준) 회의 : 달별 참석 - 11/29 [상담소] 체제전환운동 포럼 및 정치대회 제안서 공유 및 상담소 참여방안 논의
--

- 여성폭력 정책 토론회 제안

- : 한국여성의전화 제안
- : 10/10 여성폭력 반대운동단위 총선 정책토론회 및 대응을 위한 초벌회의
- : 12월 19일(화) 토론회 진행

□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

- 일시: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소: 이룸센터 누리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 ※ 온라인 생중계 진행, 문자/수어 통역 제공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대폭 감축되는 등 각종 성평등 정책과 여성폭력 관련 제도가 후퇴하고 여성폭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에서는 여성폭력 근절 의제가 충분히 다뤄져야 하며,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인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단체들과 연대하여 현장에서 도출된 정책을 국회에 제안하고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사회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1. 기초발제

정부의 여성폭력방지 정책 추진의 기초 변화와
2023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지형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2. 젠더 기반 여성폭력 분야별 정책 발표

- 1) 성매매 분야: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2) 이주여성 분야: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3) 장애여성 분야: 변은희 (장애여성공감)
- 4)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분야: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 5) 성폭력 분야: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 6) 디지털 성폭력 분야: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3. 토론

정의당 박지아 젠더폭력대응센터장
기본소득당 노서영 여성위원장
진보당 이기원 여성-엄마당 집행위원장

- 공동주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63, counsel@hotline.or.kr

- 21대 국회 성폭력 입법 및 법개정 모니터링 및 평가

- : 자원활동가 가을, 21대 국회 성폭력 관련 입법안 및 진행 현황, 내용 등 자료 정리
- 한국여성단체연합 총선 대응
- : 여성연합 총선 정책대응 회의 및 자료 작성 (성문화운동팀 유랑, 사무국 오매 등)
- : 2023년 9월 7일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젠더정책
- : 총선거획단 ‘어퍼’ 참석 (12월 12일 발족식)

1-4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감각을 공유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정보력 증진, 공동해결 모색, 공동 성장을 도모해왔음
 - : 2021-22년 정책대응팀 활동을 통해 전국성폭력상담소들이 함께 정책대응력을 높여옴
 - : 성폭력상담소가 NGO로서의 위치와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확립할 필요
- 목표 : 여성운동/인권운동/성폭력상담소 운동에서 성평등한 방향과 활동을 위한 논의, 연대 높이기
- 방법 및 계획 :
 - (전체) 총회 및 워크숍 참석
 - (서울인천권역) 정기 권역회의(연4회)
 - (정책) 정책대응팀 활동 : 월 1회 회의, 11월 워크숍, 주요 의제 선정 활동, 외부요청 의견회신 작성
 - (시민감시단)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 2023년 진행 주요 의제
 - : 검수완박 법안 이후 경찰 수사지연, 불송치, 불기소 및 재정신청 현황 및 개선요구 도출
 - :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
 - : 정책위원회 주요 안건 수합 및 정보 공유
 - : 입법 발의안, 지침 등에 대한 성폭력상담소 의견조회에 대한 논의, 회신
- 진행내용

시민감시단	- 2023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걸림돌 디딤돌 추천 제출 - 2023년 1/31 발표 - 2024년 성폭력 수사재판과정 걸림돌 디딤돌 추천 제출
서울인천권역회의	- 1/3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총회 : 박운숙 감사패 증정, 간식 - 3/16 1차 회의 - 9/18-19 서울인천권역 워크숍 : 최근 이슈와 쟁점 강의 (김혜정 소장) - 11/14 서울인천권역 회의
정책대응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1차 회의 : 연간일정논의, 신규상담소 추천 및 조직 - 2/9 2차 회의 : 연간 사업 초벌 논의 - 3/2 3차 회의 : 신규 상담소 인사, 기존 활동 안내, 연간사업 계획논의 (폭행협박없는 강간, 준강간, 위력간음, 위계간음 통계조사 / 불송치 불기소 사건 / 툴아볼 판례 모음) - 4/4 4차 워크숍 : 전국상담소 통계수집 품 마련 - 5/4 4차 회의 : 전국상담소 통계 결과 1차 검토 회의

		<p>- 5/31 6차 워크숍 : 전국성폭력 통계 결과 분석(전주예방치료센터)</p> <p>- 7/6 7차 회의 : 전국성폭력 통계 결과 분석 (온라인 줌)</p> <p>- 9/4 8차 회의 : 공탁감경 대응액션 논의</p> <p>- 10/5(목) 9차 회의 : 예산상황 공유,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기관 공동 행동 제안 논의 및 계획 공유, 11월 워크숍 준비</p> <p>- 10/14(토) 20:00 예산 상황 관련 전 대표단 회의 : 김혜란, 최승희, 이미진, 권지현 공동대표, 김혜정 정책대응팀, 김경숙, 배복주, 김미순, 이미경 전 대표 참석 (여성가족부 질의 및 미팅 등 절차 진행, 국회 대응 총력, 쪼개져서 복구하기 어려운 형태가 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의 향후 방향과 전망이 드러나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필요)</p> <p>- 11/2(목)-3(금) : 정책대응팀 워크숍</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일 시 : 2023년 11월 2일 (목) 19:00-21:00</p> <p>● 장 소 : 천안 소노벨</p> <p>● 참 석 :</p> <p>권지현소장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p> <p>김숙경소장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p> <p>김혜란소장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p> <p>김혜정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p> <p>김태욱소장 (천주교성폭력상담소)</p> <p>이소희소장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p> <p>이재희소장 (부산성폭력상담소부설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p> <p>양보름간사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p> <p>윤애란간사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p> <p>● 불 참 :</p> <p>김해영소장 (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p> <p>변은희소장 (장애여성공감부설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p> <p>송혜련소장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p> <p>신경순소장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p> <p>13:00 독립기념관 단풍길 산책</p> <p>15:30 스터디 <백래시정치>, <99% 페미니즘></p> <p>19:00 정기회의 : 안건1) 운영 지침 의견 취합 안건2) 2024년 여가부 예산안 관련 대응 논의 안건3) 공탁 감경 토론회 논의</p> </div> <p>- 12/7(목) 11차 회의 : 연간 평가 및 향후 계획</p>				
의견조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20%;">제출일</td> <td>3/16</td> </tr> <tr> <td>안건</td> <td>(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불이익 금지 보호 대상에서 신고한자에 더해 피해자 구제를</td> </tr> </table>	제출일	3/16	안건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불이익 금지 보호 대상에서 신고한자에 더해 피해자 구제를
제출일	3/16					
안건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불이익 금지 보호 대상에서 신고한자에 더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증언 등 조력하는 자 + '신고자' 등으로 개정
발제기관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조력자의 역할 방식 내용은 다양할 수 있으므로 증언 등을 삭제하는 것 필요.
제출일		3/20
안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법 수정안) 국가기 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알게 된 경우, 3개월 이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재발방지대 책 제출, 기관장에 의한 사건은 1개월 내 제출 >>> 3/31 국회 본 회의 통과
발제기관		부산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3개월 이내 재발방지 대책 제 출 보다 1개월 이내가 필요 -여성가족부의 현장점검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강행 요건이어야 함 + (다른 의견) 국회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인 만큼 기관장 가해 사건 1개월, 그 외 사건 3개월 이내가 현실적으 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의견도 있음
제출일		3/31
안건		(여성가족부) (스토킹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스톱킹 실 태조사, 예방지침 마련 의무 기관 명시, 예방지침 마련 시 다른 예방지침/교육과 통합 가능, 취학지원 조항
발제기관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실태조사에서 범죄 여러 특성 조사가 포함되도록 문구 수정, 예방지침 마련 의무 기관 명확한 명단으로 통일, 정리, 다른 예방지침/교육과 통합시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할 것 문구 마련, 취학지원 시 피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때라는 독소, 제한조항 삭제 필요
제출일		4/12
안건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벌금 형에서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현실화 > 36조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변경
발제기관		경남여성회 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 성폭력상담소 업무에 대한 위촉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모든 범죄에 징역 1년당 1천만원이 아님 (아래 예시)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 (중략)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

		<p>람을 수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중략)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중략)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제출일	4/12	
안건	(고영인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 아청법 공개대상 성범죄자 고지 정보를 관할 구역 거주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등이어 '여성 1인가구'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추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1인가구 > 여성)	
발제기관	시흥여성의전화 > 흥성통합상담지원센터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기본법 1인가구는 1명 단독 생계유지 생활 단위를 말함 - 여성 1인가구는 별도 드러낼 위험, 취약한 존재로 부각하고, 잠재적 피해자로 사회통념 강화함 - 보호가 아니라 보장이 필요한 '안전할 권리'의 영역임 - n번방 사건에서도 주민센터 공익근무자에 의한 정보 취득, 이용이 있었음 	
제출일	5/10	
안건	<p>성폭력방지법 제7조(종사자의 자격기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종사자의 자격기준 변경 의견 수렴</p>	
발제기관	군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및 보호시설 시설장의 경우 여성폭력방지기관 3년 경력이 중요 - 변호사의 경우 가해자 전문 변호경력 제외하는 방안 필요 	
제출일	10/20	
안건	<p>성폭력피해자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 공공기관 발생 성폭력 대책 보고 의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누구인지 표기하는 내용, 대책 보고가 1달 이내여서 발생 사실은 2주 이내 보고 한다는 내용</p>	

		<p>2) 종사자 자격기준에서 성폭력 방지 업무 3년을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방지 업무로 문구 변경한다는 내용</p>
발제기관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p>1) 의견 없음 2)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2-1) 문구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성매매 등 방지업무로 쓰면 등이 해석이 넓어질 수 있어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p>
제출일		12/4
안건		<p>성폭력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성년자 입소인의 경우 연장 가능 특례에서 연령을 25세까지로 개정함 - 성폭력상담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조항을 명시함</p>
발제기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주요의견		<p>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하여 입소자가 안정감을 가지고 실질적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함. 더불어 보호가 필요했던 피해자가 체감하는 열악한 현실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자립준비를 할 수 있고 자립 이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 개선 및 예산 보완도 요구됨.</p>
전국 강간상담 통계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조사 설계(4/4) : 연번 / 피가해자관계(선택) / 술약물수면 등 / 직접적 폭행협박(있음 없음 미파악) / 피해당시 상황 (최대2개 선택+ 기타 주관식 기입) / 신고고소여부 (유무 미파악) / 신고고소하지 않은 이유 (주관식 기입) / 송치여부 (유무 미파악) / 불송치 이유 (최대 2개 선택_기타 주관식) / 이의제기 여부 / 기소여부 / 부류기소 이유 (최대 2개 선택+기타 주관식) / 미파악 사유 - 테스트 진행 : 4/5~4/12 총 6일간 - 전국 통계조사 진행 : 4/14~4/28 총 11일간 - 수합 : 전국 119개 상담소 응답, 4,765건 수합 - 결과분석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회토론회 발표, 별도파일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유 및 발표
전국 형사공탁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형사공탁한 사례 수집 - 사례수집 입력 폼 및 문항검토 회의 - 사례수집 입력 폼 테스트 기간 진행 - 전국성폭력상담소 참여 안내 및 독려 -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12월 1일(금) 오후 2시-4시 온라인 zoom 진행 공동주최
--	--	--

• 평가

- 전성협 정책대응팀은 전년도 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신규활동 상담소 선출, 정기회의 개최, 의견조회 순회 회신 등의 안정적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전국 강간상담통계 수합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하였음. 통계수합 설계와 분석에서 전국의 정책대응팀 단위가 오프라인에 모여 진행하는 큰 시간과 집중이 소요되었으나, 논의와 정책대응력을 함께 쌓는 과정이라고 평가함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신규 상담소를 맞이하고, 기존 상담소의 어려움을 나누고, 대표단 등 리더십을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활동, 사회적 정책대응, 비판적 목소리 내기 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 하반기 여성가족부 예산삭감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모으고 성폭력상담소 입장에서 문제점 정리 및 분석 문서작성 등의 과정을 통해 입장과 태도를 세우는데 기반이 됨.
- 하반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과 함께 공탁감경 의제 사례수집 설문조사 및 토론회 공동개최 를 통해 성폭력피해자지원 및 방지활동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높이고 의제활동을 전개함

1-5.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 방법 및 계획 :

- (전체) 총회 참석 : 대의원 구성
- (논의기구)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대표자회의 (연 2회)
- (특별) 선거관리위원회 (2022.12-2023.1) / TF 등
- 진행내용

사업별 모임	3.8 한국여성대회 기획단 : 성문화운동팀 보고 참조
총회	1/10 정세특강 및 연대의밤 : 호랑, 오매, 경진, 지희 참석 1/11 총회 : 대의원 오매, 경진, 란 참석, 호랑 참관
대표자회의	2/7 : 3.8한국여성대회 기금신청 여부, 성평등 디딤돌 걸림돌 후보 추천, 조직 논의 2/17 : 3.8한국여성대회 예산안 및 적자분 검토, 조직과 참여 관련 11/2 : 여성폭력 2024년 예산안 상황 공유 및 대응 논의
사무국장연석회의	5/31~6/1 중견활동가의 성장 - 첫 번째 만남 (계룡산 동학산장) 9/19 중견활동가의 성장 - 두 번째 만남 (북촌 일대)
교육/워크숍	여성연합 신입활동가 교육 <세상을 바꾸는 활동가의 성장> 1차 6/7(수) 글로벌 성평등 규범과 한국여성운동 조영숙(여성연합 국제연대센터장) 우리의 운동, 세계 시민들과 어떻게 연결할까요? 오경진(여성연합 사무처장) 2차 10/12(목) 근현대 한국여성운동의 흐름과 쟁점, 그리고 현재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여성현실연구소장)
총선대응	총선대응 기획단 제안 : 참석 미제출 2023년 9월 7일 오후 2시 [라운드테이블]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전더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제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총선 젠더정책 발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23년 9월 7일(목) 오후 2-5시 /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 ○ 주최 : 한국여성단체연합 ○ 프로그램(※사회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선 젠더정책 작성단위 패널 발표 1) 돌봄·기후정의 실현/모두가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2) 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 오경진(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3)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1) - 최유연(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 4) 젠더폭력 없는 존엄한 일상과 권리 보장(2) - 이하영(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공동대표) 5) 모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평등하고 정의로운 젠더관계를 위한 사회문화 조성 -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혜연(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 박지아(정의당 젠더폭력대응센터장) 3) 노서영(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 여성위원장) 4) 장지화(전 진보당 여성-엄마당 대표) 5) 김혜미(녹색당 부대표) - 전체토론
--	--

• 평가

- 신입활동가 교육이나 사무국장연석회의 등 활동가별 행사에 참여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외 지역 사안이나 여성운동단체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 내지는 퇴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야를 확장함.
- 전반적인 성평등 방향 퇴조 및 여성가족부 폐지 국면,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정치권의 증폭 등의 상황에서 정세판단과 여성운동의 대응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소통, 전략적 판단, 현장의 상황과 입장에 기반한 대응 등에서 여성연합과 격차가 존재하기도 함. 이에 대한 논의와 모색의 시간과 기회가 필요함

1-6. 성평등 정책 실행 네트워크 참여

• 배경/필요성 :

- 정부 각 부처 및 기관 자문위원회 및 비영리, 민간영역의 운영위원회 등으로 참여해 옴
- 공공기관 및 부처 단위의 성평등 정책과 실행 현황을 알고, 성평등 정책, 반성폭력 제도의 현실적인 모습을 감각할 수 있으며 실사구시의 방안을 모색하거나 백래시의 구체적인 쟁점과 고민을 알게 됨
- 성폭력 성희롱 사건 심의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성폭력 조직 내 심의의 실제 쟁점의 변화를 포착함 (보복성 역신고, 2차피해 조항에 대한 곡해 또는 악용, 괴롭힘과 성희롱 경계 문제)

• 목표 :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진행내용

정책자문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022.5~2024.4)	- 부대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정책의제화 진행 - 12월 중 정기회의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4기 운영위원회 활동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 경찰청 내부 성평등종합계획, 내부 성폭력성희롱 대응계획 이행 점검, 정기회의에서의 현안 질의 등 - 3/10 정기회의 진행 : 2022 성희롱 실태조사결과 검토 - 6/9 정기회의 진행 - 3분기 서면회의 진행 : 성매매 대응 관련 질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및 스토킹 현장 대응 매뉴얼 관련
	경찰청 여성안전기획 정책자문단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정책자문단 - 3/27 정기회의 진행 : 무고죄 역고소 수사 현황 질의 등 - 6/19 정기회의 진행 : 성매매 피해인지, 지원 관련 질의 등 - 3분기 서면회의 진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여성과 인권> 편집자문위원회
성폭력, 성희롱 사안자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발생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 심의의결 - 심의회의 참석 및 의결
	대검찰청 양성평등 심의위원회 (2023.3~2025.3)	- 대검찰청 내부 양성평등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심의위원 위촉 - 2019. 2.부터 2년 임기 3번째 재위촉 - 4월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 유관기관 모임 진행 - 8월 양성평등심의위원회 개최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2023.2~2025.2)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심의. - 2019. 2부터 2년 임기 재위촉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 4월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회의 진행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2023.2~2025.2)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시 심의.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 사건 지원과 이슈대응

안희정 성폭력사건	- 3/24 안희정 사건 피해인 조력자 미투위드유 5년 모임 안희정 사건 5년... "세상은 '위력'을 알게 됐고, 피해자는 우리 옆에 있다" '승소'가 끝이 아니었던 그들의 이야기... 김지은씨 도왔던 '피해자 조력자들' 모임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
-----------	--

	<p>29133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 PTSD 증상의 현재(가해자측 활동과 노출), 소송 진행상황 및 고통, 일상회복 노력 : 면담 진행 3/3, 5/12, 6/10, 6/27, 8/9, 9/8 : 람지커피 : 피해자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 검토 : 자원활동 : 3/4 여성의날 부스, 8/25 상담소 후원의밤 - 민사소송(가해자 및 도청대상) : 피해자 신체감정 3월 9일부터 시작됨, 8/25 기일 : 11/24 민사재판 기일 (가을, 너굴, 원영, 풀, 오매 참석 + 연대자D 매이) 피고측에서 -피해자 기왕력이 신체감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재감정 요구하여 재판부가 재감정 신청함 - 민사소송(2차 가해 언론대상) : 8/23 한국성폭력상담소 의견서 제출 : 9/15 언론대상 민사2심 최종 기일 (피해자 결국 법정 참여 못함) : 10/31 언론대상 민사확정(언론사 상고안함, 기사삭제 - 2곳 인정(피해자 업무시 사진 및 타버서 비방인터뷰 확인없이 게재 건/ 민주원 주장 게재는 불인정) : 11/3 미디어오늘 보도 김지은씨 '2차가해 보도' 언론사들 손배 판결 어떻게 나왔나 (김예리 기자)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482 - 피해자 조력자 문상철 전 안희정지사 비서관 : <몰락의시간> 안희정 몰락의 진실을 통해 본 대한민국 정치권력의 속성 출간 (메디치) : 인세 전액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
<p>서울시장 성폭력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전 시장 민주화운동열사 모란공원으로 이장 : 3/29 여성신문 보도 : 3/30 [공동성명/논평]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소식에 부쳐 - 박 전 시장 유족, 인권위 대상 민사소송 2심 시작 - '첫 변론' 다큐멘터리 : 5/15 (공동성명)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 3년 내내 계속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가해자 비호 다큐멘터리가 비극이다 : 5/16 박원순 다큐제작팀 기자회견 : 박원순 다큐 후원자 4000명, 1400명 대상 시사회 전국 진행 서울 언론 시사회 : 5/22 한겨레신문 세상읽기 "성희롱, 성추행의 구조" 기고 (김혜정 소장) : 6/26 <비국의탄생> 손병관 저자의 반론 게재 (한겨레 왜나면) : 6/27 (공동기자회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연명 및 장소 협조) 여성신문 취재중) 예정 (제작사 측) : 7/28 단체 회의 (한국성폭, 한국여노, 한여전, 민주회성폭력상담소) :

	<p>공개상영회 이외 언론시사회, 개봉에 주로 대응하기로 : 8/7 피해자, 변호사, 지원단체 회의 서울시 직원보호 차원의 다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피해자 공동신청자 등록 이후 지원 방안 : 8/17 박원순 다규 가처분 신청 1차 기일 : 8/28 박원순 다규 가처분 신청 2차 기일 : 9/5 다규 '첫변론' 가처분 신청 3차 기일 방청 : 9/20 박원순 다규 대상 가처분 인용(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부 민사부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사건 결정) : 9/21 (공동성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정이다. : 제작하고, 부추기고 가담한 이들의 반성과 성찰을 촉구한다" : 9/27 채권자측 항고하지 않음, 채무자 항고하겠다고 밝힘 : 10/13 박원순 다규 채무자측 제소명령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소10046) : 11/3 박원순 다규 상영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신청 (이지은, 서혜진 변호사)</p> <p>- 김민웅 대상 2심 형사재판 기일진행 : 피해자 실명 SNS게재 관련 눈이 좋지 않아서, 타인글 공유방법 잘 몰라서, 라고 주장중</p> <p>- 박전 시장 유가족 측의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결정취소 청구 행정소송 2심 중</p> <p>- 정철승 기소 (서울중앙지검 2022형제 22037호) : 특별법 비밀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통방법 명예훼손 구공판, 일부는 증거없음, 업무상 비밀누설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p>
이운택 성폭력사건	배우 전 소속사 대표 배우자의 피해자 역고소 : 송치, 기소유예로 종결
서울시향 사건	<p>- 명예훼손 피소 2심 진행 6/13 2심 공판 예정 (기일변경) 8/22 2심 1차 공판 진행 (공소장 변경하여 무고 건과 병합 진행) 10/5 2심 2차 공판 진행 (검찰측 증인-회식 자리에 있었던 타 기관 소속 증인-불 출석) 12/12 2심 3차 공판 예정 (검찰측 증인 출석통지)</p>

• 평가

- 유관기관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 또는 정책자문 위원 요청이 오는 경우, 다양한 상근활동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제안하고 독려하였으며 현재 5명의 활동가가 관련 기관, 학교 등 성폭력 성희롱 사안 자문 및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성폭력 자문의 경우, 사안발생시 조사 및 심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관별 조직문화나 성평등정책 관련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유관기관 미팅과 회의가 진행되어 상호 협력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됨.
- 공공기관을 포함한 기관의 업무협약 방식의 내부 사건 개입 요청 관련, 담당팀과 소통하여 외부 상담 청구 지정이나 사건대리 신고 등의 역할이 아니라 사안별 자문, 내부 사안 대응에 대한 교육, 조사심의위원회 참여 등 외부단체로 독립적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개입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음.

- 본 상담소가 지원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중 일부를 소장단이 지원자로 지원중. 역고소, 2차 피해, 정치적인 상황에서의 피해자 공격 등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대응이 마련되고, 자원을 연계하고 있음. 결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의미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 대한 공격이 강해지면 저지할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함.

1-7.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의 필요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가 존재.
 - 공익단체와 예비법률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비법조인 양성과정에 개입할수 있으며 법정책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인식 확장 및 인식변화 가능성 존재
- 목표 :
 - 반성폭력 운동의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법정책 영역에서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률가 양성과정에 상담소가 일정정도 개입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예비 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방법 및 계획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실무실습 2/6(월)~2/14(화) 42시간 (2명)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실무실습 2/6(월)~2/14(화) 64시간 (2명)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동계 공익 실무실습 2/6(월)~2/14(화) 42시간 (1명)
 - 내용 - 반성폭력 운동역사, 법정책 활동, 성폭력관련법 이해, 상담소 지원사건 및 법적쟁점 특강
소주제 판례분석 과제 수행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발제 또는 기고)
- 담당자: 란, 도경
- 진행내용
 - 일정: 2/6~2/15 (총 42시간, 총 64시간)
 - 참여인원: 총 5명 (서울대 법전문원 2명, 이화여대 법전문원 2명, 강원대 법전문원 1명)

일자	내용
2/6	10:00~13:00 한국성폭력상담소 소개, 프로젝트 참여자 소개 전체 일정 및 판례분석 과제 안내 (조나눔)
	14:00~18:00 각 팀별 OT
2/7	10:00~13:00 반성폭력운동역사, 법정책 활동
	14:00~17:00 성폭력 관련 법 이해
	17:00~18:00 과제 제안 및 역할 나누기
2/8	10:00~13:00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관
	15:00~16:00 상담소 지원 사건 및 법적 쟁점
	16:00~18:00 판례 분석 과제 진행
2/9	10:00~18:00 판례 분석 과제 진행

2/10	10:00~13:00 판례분석 과제 진행
	14:00~16:30 해군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 기자회견 참석
	16:30~18:00 재판 모니터링 소감 나누기
2/13	10:00~13:00 판례분석 과제 조별 토론 및 진행 논의
	14:00~16:00 공익변호사 활동 진로 나눔
	16:00~18:00 법률상담 참관
2/14	10:00~13:00 과제 발표회 준비
	14:00~17:00 과제 발표 진행 및 소감나누기
	17:00~18:00 후기 작성

- 판례분석 주제 (2개조, 2가지 주제)

1) 양형 기준 2차 피해

: 지난 3년 간 (2020~2022) ‘강간’, ‘강제추행’ 판례 중 ‘징역’ 판결을 받은 판례 검색, 그 중 양형 기준 불리한 정상에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판단한 판례 분류.

: 2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당한 압력’,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강요’, ‘불이익 조치’, ‘모욕적 발언’,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등의 내용

: 관련 판례 모음자료 1편 작성(조과제)/ 1개 판례 개별 평석 (개별 과제)

: 모음자료는 사건명, 관할, 기소죄명, 선고형, 해당 부분 문장 발체를 표로 정리

2) 동의없는 강간/ 강제추행

: 지난 3년 간 (2020~2022) ‘강간죄’ ‘ 강제추행’ 판례 검색, 그 중 ‘동의’ ‘현저히 곤란’ 판례 분류

: 검색어는 동의, 강간/ 현저히 곤란, 강간/ 동의, 강제추행/현저히 곤란, 강제추행

: 관련 판례 모음자료 1편 작성(조과제)/ 1개 판례 개별 평석 (개별 과제)

: 모음자료는 사건명, 관할, 기소죄명, 선고형(유무죄), 해당 부분 문장 발체를 표로 정리

• 평가

- 실무수습 프로그램이 학교를 통한 실무수습생 모집 외에 직접 실무수습 문의를 하고 참여하는 실습생이 꾸준히 있는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공익활동에 참여하고자하는 예비 법률가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음.

- 전년도 평가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이수 시간을 감소하여 진행하였는데 (60시간->42시간, 학교별 이수 시간은 별도 진행) 프로그램 진행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으로 내년도 기획에는 다시 적절한 시간 배치가 필요함.

- 프로그램 중 상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건의 공판 모니터링 및 기자회견 참여와 법률상담 배석 프로그램의 경우, 텍스트나 사례폴리집에 담기지 않는 살아있는 생생한 법률전문가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참여한 실무수습생들의 평가도 좋았음.

- 상근변호사가 지도변호사로 참여하여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피드백이 가능했고, 내부강사로 강의를 진행하여 원활하게 프로그램 진행이 되었음.

- 조별과제의 경우, 상담소의 의제 활동에 필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이 생산되고 활용되어 과제 수행의 결과물을 외화하고 활용하는 데에 유의미함.

1-8.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

- 목표:
 - 다양한 활동가들이 자기 분야를 살려 교육, 발표, 자문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함
 -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이슈에 대한 논의 흐름 공유, 사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력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현장 운동단체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 강의, 발표, 자문, 심의위원회 등 요청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 후 모든 활동가가 요청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 수락, 진행
 - 방송,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제언, 기획 참여, 출연 및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유 등 진행
 - 집계 및 평가
 -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보완계획으로 환류
- 담당자: 오매, 란 (강의 배분)
- 진행내용 (1월~11월)
 - 1) 강의 (97회, 참여자 2,777명) (전년 87회, 3,029명)
 - 2) 자문 (65건) (전년 56건)
 - 3) 발제 및 토론 (19건) (전년 15건)
 - 4) 원고 (24건) (전년 9건)
 - 5) 언론에 난 상담소 (161건) (전년 174건)
- 평가
 -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을 통해 상담소 활동을 외화하고 공유하고, 활동가 개개인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산하고 환류하며 역량강화하는 계기가 됨.
 - 강의는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는데 강의활동에 참여한 활동가는 12명으로 많은 활동가가 상담소에서 생산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교육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발제 토론 및 자문 등의 활동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이뤄졌으나 고연차 활동가 중심으로 자문, 위원회 참여 등이 이뤄지고 있어 저연차활동가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기회나 방안 예를 들면, 강의 참관이나 관련 위원회 활동 각 팀 사업 및 영역에 맞게 매칭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상담소의 메인 이슈인 비동의 강간죄 관련 강의는 활동경험이 많은 활동가와 관련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활동가가 배정되어 공동강의안으로 강의를 진행하여 강의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며, 일관되게 외화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음.
 - 토론문이나 발표문 등 결과물은 내부 회람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급박하게 제출되어 내부에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신문 지면 외부 필진으로 참여하는 논의과정에서 여성인권운동 의제를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였으며, 원고 작성에 대해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더하며 상호 이해력을 높임.

1-9. 국제 협력 및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일부 해소 이후 국제규약, 규범에 따른 각국 정부 이행상황 정기 점검 등이 오프라인으로 재개최되고 있음
- 목표 : 한국에서의 상황을 리포트하여 환류,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한국의 성평등, 반성폭력 정책의 가속화를 추동함
- 방법 및 계획 :
 -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 2022년 12월 1차 반성폭력 보고의제 작성(란, 산, 파랑) 및 번역 제출,

사전NGO보고서 제출 2023년 1월 중순, 사전세션 2023년 2월 27일-3월 3일, 제9차 본심의 2023년 10월 예정 본심의 현지 활동에 참여

- UPR(유엔인권이사회 정례인권검토) : 2023년 1월 26일 제4차 대한민국 UPR 심의 한국 시민사회보고서에 강간죄개정 등 의제 작성하지는 못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APWLD) 여성시민사회NGO보고서에 강간죄 개정, 성과 재생산권리 내용 수록 <http://women21.or.kr/overseas/20319> 결과 확인, 이후 활용
- CAT(고문방지위원회) : 2021년 7월 14일 대한민국정부 제6차 국가보고서 제출, 가정폭력 의제 외에 다른 젠더폭력사안 누락,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강간죄 개정 등 의제 자문의견 제출, 이후 대한민국 심의일정 설정에 따른 팔로우업, 결과 확인 이후 활용

• 담당자: 오매, 란, 신아

• 진행내용

CEDAW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제9차 CEDAW 한국정부 심의 대응 회의 - ~1/30 제9차 CEDAW 사전NGO보고서 제출 (성폭력 분야 작성) - 1/26 UPR(유엔인권정례보고) 제4차 질의 : 강간죄개정 관련 질의내용 및 한국정부 답변 모니터링, 활동활용 - 11/23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NGO 단체 논의 - CEDAW 한국정부 심의 일정 2024년도로 5월 예정
해외 기관 내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6 몽골 Beautiful Hearts NGO 내방 : 2/2 메일로 방문일정 문의 : 3~5월 주몽골 한국대사관 비자 신청 관련 공문, 사업자등록증 송부 : 몽골 내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및 조직에 대한 한국 사례 나눔 - 9/4 스웨덴의회 의원 로레나 델가도 내방 : 6/1 메일로 방문일정 문의 : 한국 내 여성인권 사안, 성소수자 사안 관련 기관 내방 : 스웨덴 내 강간죄 개정 이후 백래시 상황에 대한 국가별 사례 나눔 - 8/22~24 UN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주최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청년세대 역량강화 워크숍' 참여 - 11/8 캄보디아 젠더기반폭력 관련 프로젝트 자문 : 모바일/ICT 기술을 활용한 GBV문제 해결 경험 나눔

• 평가

- 제9차 CEDAW 사전 NGO보고서의 경우, 국제규약의 현황과 한국상황에 대한 리포트 작성에 관심있는 활동가가 함께 참여하고 분담하여 시일내 무리 없이 제출할 수 있었음.
- 심의일정 대응 관련, 올해 국제협력 활동 대상자인 활동가들이 NGO방문단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심의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현지 로비 등 활동은 추후 심의일정에 맞춰 진행예정임.
- 해외 기관에서 상담소와의 업무협약이나 한국 내 여성인권 및 소수자 인권 현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방문의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안에 따라 관련 팀과 협업하여 국제 연대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목표2.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 탄탄하고 든든하게

2-1. 회원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총회

- 목표 :
 -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결정, 그리고 평가되는 총회개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멤버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반성폭력운동 장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 중임에 따른 법인 행정 수행
- 방법 및 계획 :
 - 총회 안내, 홍보 : 2022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명부 확정 및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및 정비 : 정회원 가입 독려 조직, 정회원 활동 어려운 회원 확인 및 후원회원 전환
 - 일정 및 내용
 - : 2023. 1. 31(화) 저녁 7시 30분, 지하1층 이안젤라홀
 - : 주요 사업계획, 반성폭력 활동방향 및 당면과제 등 공유 및 평가, 논의
 - 공증 : 변호사 입회 공증 방식으로 편의도모
- 담당자: 란
- 진행내용

분류	내용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12.6 정기이사회에서 제32차 총회 소집, 23.1.17 정기이사회에서 정회원 명부 확정 및 안건 부의 - 22.12.23 32차 정기총회 공고 - 1/17 정회원 명부 확정 (총 82명, 후원회원 전환 3명, 신규정회원 등록 12명, 회원 탈퇴 1명) - 1/9 정회원 우편물 발송, 1/13 정회원 위임 안내 전화 - 1/13 각 팀별 자료 취합 및 PPT 제작 (씨티 경희인턴십) - 1/13 회계 및 사업 감사 진행, 자문위원 위촉 및 사임 절차 진행 신규 자문위원 위촉: 김정희원(운영), 최미진(운영), 김두나 (법률->운영) 사임 자문위원: 류호윤(국제협력), 소은희(의료), 김은아(상담), 강문민서(법정책), 장운정(법률) - 1/24 자료집 제작
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1(화) 저녁 7시-9 30시,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 총 회원 82명 중 59명 출석 (참석 43명, 위임 16명, 참관 6명) - 2022년 활동보고/ 보고1.인권침해 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활동 보고/ 안건1. 2022년 결산 승인/ 안건2. 2022년 사업계획 승인/ 안건 3. 2023년 예산 승인/ 안건4. 임원 선출/ 기타안건/ 신입활동가 소개/ 공로상 및 감사패 시상/ 폐회선언 - 감사패: 최보원, 배순희 사임이사 - 공로상: 오늘의풍경, 서진/박운경/권지현 - 용감한반성폭력운동상: 해군상관예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 머니투데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생존자 - 당일 후원: 음식후원 (정회원 3인, 이사 1인) 현금 후원(정회원 1인, 이사 1인)
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법인 원 원민경 변호사 입회 공증
후속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 정기총회 후기 업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변동사항 업데이트 (자문위원, 정회원, 후원회원) - 홈페이지 수정 (자문위원 및 상근자) - 임원변경등기: 2/27 공증 및 등기변경신청서 제출 완료
--	--

• 평가

-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이뤄진 대면 정기총회로 오랜만에 정회원, 이사, 자문위원 등 상담소의 구성원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는 장이 되었음.
- 사전에 후원회원 대상으로 정회원 전환 안내를 하여 12명의 신규정회원이 있었음. 총회 당일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아니지만 한해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의사결정체계에 참관으로 참여한 인원 6명으로 상담소 활동과 운영에 회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음.
- 당일 진행 관련, 전체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업무를 고루 분배하여 진행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었으며, 전체 상근활동가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유선 또는 온라인 상으로만 소통하였던 회원들과 직접적인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 씨티경회인턴십 활동으로 진행 PT를 준비하여 시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되었음.
- 당일 참석 정회원 및 참관, 인턴포함 5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여 추후 진행시 사전에 공간 대관 등 안정적인 진행을 위한 사전 기획 필요성이 있음.
- 평일 저녁 정해진 시간 내 많은 분량의 사업보고와 계획을 인준받아야하는 특성상 회원들의 자유롭고 직접적인 참여나 의견개진 등이 미진한 부분은 아쉬움.
- 회원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상담소 1년 사업 중 많은 회원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회원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 등 회원홍보팀과의 적극적 협업 필요.

2-2. 이사회

• 목표 :

- 상담소 의사결정체계인 이사회의 참여를 높이고 논의 활성화
- 다양한 영역의 활동기반을 가진 새로운 신임 이사를 선출하여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역할재고

• 방법 및 계획 :

- 신임 이사 선출 / 별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중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정기, 임시) 이사회 : 저녁 시간 진행으로 참석 및 논의 안건 다양화, 내실화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상시적이고 친근한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 담당자: 오매, 란

• 진행내용

구분	일정	참석이사	주요안건
	1/15(화) 19:00	이명숙, 김혜정, 박부진, 윤정원, 이미경, 장다혜 이사 배석: 최란, 조은희, 송해주, 김미현, 박아름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차 정기총회 순서 및 이사 역할 - 2022년 상담소 및 부설기관 활동/회계보고 - 신입활동가 인준 - 32차 정기총회 정족수 확인 의결 - 32차 총회 안건 검토, 부의 - 재정내규 및 처무규정 개정안 승인 - 연간 이사회 일정 결정
	3/14(화)	이명숙, 김혜정, 박부	- 상담소 및 부설기관 활동/회계보고 (1월~2월)

	19:00	진,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차성안 배석: 최란, 조은희, 송해주, 달별 활동가	- 팀매니저 인준 - 정회원 명부 확인 및 후원회원 제명 - 연간 이사회 일정 검토
경기 이사회	5/15(월) 19:00	김은아, 김혜정,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윤정원 배석: 최란, 조은희, 송해주	- 신입활동가 인준 (이도경 상근번호사) - 재정내규 개정 - 2023년 후원의밤 기획안 승인 - 팀매니저 활동 및 연간 계획안 공유
	9/18(월) 19:00	이명숙, 김은아, 김혜정, 박부진,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배석: 최란, 조은희, 송해주, 이도경	- 후원의밤 행사 보고 -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추경예산 의결 - 특별회계 재예치 의결 - 차기 이사장 관련 논의
	11/14(화) 19:00	이명숙, 박부진, 이미경, 김혜정, 차성안, 이경환 배석: 최란, 조은희, 송해주	- 2024년 제33차 정기총회 개최의결 - 2023년 이사회 운영 평가 및 2024년 운영계획
신임 이사 OT	2/28(화) 10:00	김은아 신임 이사	- 신임 이사 활동 안내 - 각 팀별 주요 활동 및 사업 소개
	8/14(월) 10:00	차성안 신임 이사	- 신임 이사 활동 안내 - 각 팀별 주요 활동 및 사업 소개
수시 자문	4월중	회원홍보팀 이경환, 차성안, 장다혜 이사	- 가해자 감경목적 후원에 대한 '모금윤리' 규정안 검토
	5/11(목) 11:30	사무국, 법률팀 이경환 이사	- 강간죄개정연대 법률전문가 간담회 및 FAQ 검토 - 법률팀 인사 및 식사

• 평가

- 오랫동안 임원으로 역할을 해온 사임이사 환송 절차를 진행하여 이사회활동에 대한 감사 및 예우를 표하고 상담소 활동 경과에 비춘 현재의 상담소 운영 및 의제활동에 대한 평가를 나누며 향후 비전에 대해서 모색하는 시간을 가짐.
- 신규이사 총원으로 다양한 영역의 기반을 가진 임원들이 상담소 조직 운영 및 시의적 여성운동 및 반성 폭력 현안에 대한 의견을 환류하고 제시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논의가 풍성하고 시야가 확장되는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음.
- 각 팀별 주요 이슈에 대해 이사님들의 자문 의견을 요청하여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고,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연대가 이뤄지고 있어 멤버십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고 있음.
- 소장단 외 활동가들의 이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활동보고를 활성화하고 이사회의 논의과정을 함께 하며 이해력을 높이려 노력하였으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
- 종이자료가 아닌 기기를 활용한 자료 회람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내년도에는 원활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조찬이나 온라인 회의 진행 등의 진행방식을 유연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2-3.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법 및 계획 :
 - 조직문화, 인사 노무 등 분야별 자문위원회 새로운 인적 구성 마련
 - 새로운 인적 구성에 따른 자문회의 진행 및 신규 위촉 절차 진행
 - 자문위원 활동 여부에 따른 체계 정비
 - 5월 중 전체 자문위원회 레터 및 선물 발송
 - 상담소 운영에 상황에 따른 상시적 자문회의 진행

구분	내용	세부내용
자문위원회 정비	신규 자문위원 위촉	- 조직문화, 인사노무 등 분야별 자문위원회 새로운 인적 구성 마련 - 새로운 인적 구성을 위한 제안만남 및 신규 위촉 절차 진행
	운영 자문위원회	- 조직문화, 인사노무, 리더십 재생산 관련 2-3월 중 자문위원회 개최
전체 자문위원회 소통	전체 자문위원회 레터	- 5월 중 전체 자문위원 대상 사무국 레터 작성, 발송 : 상담소 운영, 예산, 후원현황, 후원행사 예정, 그동안의 역할, 자문위원 체계 등 운영현황 안내 및 참여감사, 적극적 역할 초대(1회)
상시자문		- 상담소 운영 상황에 따른 상시적 자문 진행

• 담당자: 오매, 란

• 진행내용

구분	일정	내용
신규위촉	1월 내	: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법률자문위원->운영자문위원으로 변동), 최미진 (노무사)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9/14, 15시~17시	- 참석: 김지영, 김정희원, 김두나, 이명선, 장윤경, 최미진 자문위원 김혜경, 최란, 송해주 활동가 - 안건1. 조직운영 전반의견 : 여성주의 조직의 특성상, 수평적 조직운영의 이상과 권력과 위계에 대한 과도한 해석등의 어려움 존재. 권력에 대한 경계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질 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때는 조직 전반의 에너지 소모가 큰 문제. - 안건2. 리더십 구축 및 운영 의견 : 내부 경력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보기. 어떤 장의 경험없이 대표를 맡는다는 것은 어렵고,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 팀장이든 팀매니저든 경험을 통해 이후의 경력에 대한 경로를 그릴 수 있도록 조직내부에서 합의할 필요 있음.

	<p>: 실무자 출신 대표단은 실무를 잘 알기 때문에 실무를 놓기 어려운 지점, 기존 조직이 피라미드 조직이라면, 뒤집힌 역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형으로 대표단이 일도 많고 의사결정도 많이 하게되는 조직은 문제.</p> <p>- 안건3. 기타 논의, 제언 및 질문</p>
--	--

• 평가

- 그간 상담소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해온 인원을 새롭게 운영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새로운 인적 구성을 마련하였음.
- 운영자문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 전원이 참여하여 자문위원단이 다양한 영역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소 조직운영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조직운영에 참조할만한 자문이 원활하게 이뤄졌음.
- 전체 자문위원에 대한 레테 발송을 후원의 밤을 앞두고 진행하고자 했으나, 여력상 진행되지는 못하였음. 각 팀별 사업과 연동된 자문위원단이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자문위원단이 있어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고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다양한 층위의 접촉과 초대가 필요한 상황임.

2-4. 조직 구조 변화 논의 및 실행

• 배경/필요성 :

- 내부 의사결정체계상 소장단의 팀별, 활동별, 활동가별 피드백으로 인한 권한과 역할의 위임 상황과 균형감있는 논의와 의사결정의 어려운 지점 존재
- 팀 자체 논의력 향상 및 팀내 상호점검 및 책임성을 높여 팀 체계 강화 및 정보와 권한의 분배 필요
- 팀 논의 취합, 조직 운영 전반에 의견을 함께 내고 고민을 먼저 나눌 조직체계 도입의 필요
- 조직운영 파트 복무 위한 내부 교육, 훈련, 역할 분배의 기획 필요, 중간연차 활동가들의 프로그램 운영과 리더십 형성을 위한 교육훈련기회마련, 직책에 따른 역할 수행, 의사결정체계의 다변화 등의 다양한 실험 필요
- 2024년 신입 대표단 선출에 대한 차기리더십 형성 논의 및 과정 실행
-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공익펠로우 변호사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상근 변호사 제도 운용 필요성 검토, 체계 마련

• 목표 :

- 팀 매니저 체계 도입으로 팀 자체 논의력을 높이고 팀내 상호점검 및 정보 및 권한을 분배
- 차기 리더십 형성을 위한 중간 연차 활동가들의 교육훈련기회를 통한 안정적인 조직운영 파트 복무 환경 마련
- 상근변호사 제도 도입을 통한 내부 법률파트 운영의 가능성 및 실효성 검토

• 방법 및 계획 :

1) 팀 매니저 체계 도입 및 논의구조 운용

- 각 팀별 팀매니저 선임
- : 1년 기한, 1년 운영 뒤 평가반영하여 지속 운영여부 판단, 순환역할
- : 팀내 의견 취합, 논의제안 및 촉진자 역할
- : 팀간 조정, 협조 사항에 대한 점검, 조율
-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과 논의, 정보 공유와 환류 역할

- : 외부 요청에 대한 팀내 업무 배분 및 조정 역할
- 팀매니저 선임 방식
- : 팀별로 팀매니저 선임 논의하되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선임활동가가 첫 번째 팀 매니저 역할 수행하는 방식
- 2) 팀 매니저 교육 및 성장 지원
 - 팀 매니저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간)
 - : 사무국 사업으로 팀 매니저(+중간연차 활동가) 리더십 형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타 단체 방문, 선배 활동가 만남, 주요 조직운영 체계 및 방식 교육, 1박2일 워크샵 진행 (격월 1회, 5회)
 - 팀 매니저 회의 진행
 - : 월 1회 각 팀의 사업 진행 사항 점검, 내부 조율 안건
 - : 조직 운영 주요 사안 공유 및 논의
- 3) 차기 리더십 관련 논의
 - 2024년 차기 리더십 형성(안) 마련
 - : 상반기 내 현 대표단 내부 논의 (안) 작성
 - : 상반기 계획회의에서 2024년 차기 리더십 형성(안) 확정
 - : 하반기 차기리더십 형성(안) 실행
- 4) 리더십 연수 관련 연대 활동
 - 타 단체 3040 리더 모임 진행
 - : 리더십 관련 책 세미나, 조직별 현황 공유
 - : 시민사회단체 내 리더십 상에 대한 문제의식 나눔
- 5) 상근변호사/법률팀 도입 및 환경 마련
 - 상근변호사/법률팀 도입 논의 (~4월)
 - :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공익펠로우변호사 프로그램 종료에 따른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형성 필요성 검토
 - : 활동조건 및 체계 구성, 역할 설정등의 논의 지속
 - 상근변호사/법률팀 도입 (4월 이후)
 - : 내부상근인력으로 변호사자격 소지 활동가 활동 시작
 - : 법률팀 신설에 따른 각 팀별 요청 업무 수행 및 자체 사업 등 초기 팀 세팅 지원
 - : 세부 활동안 마련
 - 담당자: 오매, 란
 - 진행내용

팀매니저 체계 도입	2/1 팀매니저 선출 관련 상근자회의 논의 3/7 팀매니저 선임예정자 첫 회의 진행 3/14 이사회 팀매니저 인준 안건 승인 절차 진행 5/15 이사회 팀매니저 연간계획 공유 보고	
	[팀매니저회의 2023년 연간계획(안)]	
	일정 및 주제	진행계획

<p>3/7(화) 11시 팀매니저 회의 초벌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의 중장기 과제 - 팀 매니저로서 하고 싶은 것/하기 어려운 것 - N년차 활동가로서 나의 비전 - 나에게 필요한 경험과 역량은 - 팀매니저 회의 연간 일정 정하기
<p>4/6(목) 11시 팀매니저 : 역할과 권 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매니저로서 하고 싶은 것/하기 어려운 것 지난 시간 논의 공유하기 신규활동가들의 적응 논의, 공유, 역할분배 남은 활동기간 동안 정리하고 남기기 팀 사업 매뉴얼화 : 인수인계, 업무분장 체계 팀간 협업의 구석 만들기 매니저가 해야 할 역할 뭘까 매니징, 관리 업무 자체의 낮춤 좋은 피드백이란 뭘까 리더십 상의 부재 팀 매니저 역할 : 내부보다 외부, 팀간조정, 시야확보 뭘까? - 팀매니저로서 2023년에 할 일 도출 팀 내에서 제안 생산물 일정, 공유 일정 - 이를 위해 필요한 권한, 책임 - 이사회에서 제안한 팀 매니저 권한, 책임 목록 필요성 논의
<p>5/2(화) 11시-1시 팀매니저 역할과 권 한(2) 논의 및 의사결정체 계 (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월안건] 팀매니저 역할 권한 제안(안) 논의, 보완 - 현재 공유, 의사결정 체계 현황 팀 회의, 텔레그램 방 아침나눔 - 전체회의 팀매니저 회의 공유회의, 상반기평가, 연간 평가 1차 계획회의, 2차 계획회의 - 문제점, 장점, 개선점 - 논의, 의사결정체계 보완안 도출, 실행일정
<p>6/8(목) 11시-4시 상담소 리더십 재생 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대표단 제안안 검토, 논의, - 하반기 필요한 경험, 역량, 일정(안) 도출
<p>7/4(화) 11시-1시 팀간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린터 30주년 비전과 논의 공유

	8/1(화) 11시 경험과 역량강화 1	- 반성폭력 법정책 활동역사와 체계, 향후 전망 토론 (발제, 진행 - 오매)
	9/5(화) 11시 경험과 역량강화 2	- 비영리단체 운동과 여성주의 리더십 (강의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 오픈강좌로 진행
	10/5(목) 11시-1시 조직개편 과제	- 2024 로테이션 쟁점과 토론
	11/7(목) 11시 팀매니저 : 역할과 권한	-팀 매니저 역할(팀내 체계, 매뉴얼 등) 수행 내용 함께 나누기 -2024년 팀매니저/팀장/제3안 (권한과 책임안) 논의, 제안하기
	12/5(화) 11시 팀별 2024년 비전 활동가로서의 나 2024년 비전	- 1차 회의 팀별 중장기 과제에 비추어 2024년 비전 초별 논의 - 1차 회의 활동가로서의 나 비전, 필요한 것에 비추어 2024년 비전 초별 논의
차기리더십 논의	5/2, 6/2, 6/5 기존 대표단 논의 6/8 팀매니저회의 : '2024~2027 KSVRC 대표단 조직하기'(안) 제안 및 논의 :그간 대표단 명단 및 평가, 상담소 지향, 2021~2023 대표단 내외부 평가, 2024~2027 대표단 조직하기 위한 조건 및 후보에 대한 논의 7/27 하반기 계획회의 전체회의 : 현 대표단 평가, 팀매니저 논의에서의 제안과 쟁점 토론 하반기 지속	
상근변호사 /법률팀 도입	1) 법률팀 신설 및 진행 논의 1/6 2023 계획논의안건에 법률팀 신설 및 상근변호사 도입 관련 상근활동가 의견 수렴 (5월부터 법률팀 신설) 1/13 이사회 법률팀 신설 보고 1/18 법률팀 사업계획안 상근자회의 논의 4/7, 4/11, 4/19 법률팀 신설에 따른 세부 운영안 논의 4월부터 법률팀 시작, 및 사업진행 격주 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팀 협업 회의 진행 2) 외부 기금 마련 3/24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X법조공익모임 나우) 4/10 면접 심사 진행 4/28 최종 선정 (2023. 5~2025. 4, 총 2년 지원) 5/23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X법조공익모임 나우)협약식 진행	

11/3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내방 (6개월 지원 상황 중간 평가)
11/7 기금 사용 보고서 제출

• 평가

- 팀매니저 제도의 첫 해 운영을 통해 중간리더십 경험이 확대되고, 팀내 필요성 검토, 실행과 평가, 공동의 논의를 통한 시너지를 얻게 됨. 업무를 상호보완하고 촉진하는 역할로서의 팀매니저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감각이 생기고, 시야확대를 통해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는 지혜를 모아지게 됨.
- 팀매니저 신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상근활동가 및 이사회에서 상담소 인사 관련 권한 및 역할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음. 어떤 직책과 직책에 따른 역할과 권한, 책임이 필요한가, 어떤 목록으로 구체적인 내부 안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등 실무적인 제안부터 조직운영 원칙과 원리 등 폭넓은 시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2023년 팀매니저 회의의 경우 연간 계획을 함께 구성하고 상담소 리더십 형성에 필요조건과 트레이닝 과정 전반을 설계하는 기회가 되었음. 차기에도 팀내 선출, 1년 임기의 팀매니저 방식을 운영해보고 차차기 운영방안을 위한 평가 및 제안을 할 것을 제안하며, 2024년 팀매니저 구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자 함
- 현 대표단 스스로 평가, 활동가 전체와 평가, 차기 리더십 형성에 대한 팀매니저, 전체논의, 운영자문위 원회 등이 진행되었고 하반기 대표단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와 어려움을 나누고, 쟁점을 해소해가는 지난한 논의가 진행됨. 상담소 리더십 재생산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좀 더 열린 시야로 종합적으로 보고 다루는 체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
- 인력충원의 필요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법률팀 초기 셋팅도 원만하게 진행되었음. 내부 활동가 교육 및 외부 연구발표회 등 내외부로 법률팀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반성폭력 관련 법 정책 전문가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5. 안정적 자원 마련

- 배경/필요성 : 조직 내적으로 인건비, 장소 유지보수, 사업비 등의 소요경비가 상향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경기침체, 정부/정권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적대적 환경조성 등의 상황에서 재원을 안정적이고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기존 정기 고액후원자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추가 후원처를 제안함. 인건비 부족을 위한 기금수주
- 방법 및 계획 :
 - 상근변호사 등 인건비 기금처 확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활동지원사업 또는 서울대학교 공익활동기금 등 (1-3월)
 - 모금 사업 진행 : 회원홍보팀 담당 모금행사, 일시후원자들 인사 및 정기제안, 신규 일시 제안 (6-8월)
 - 신규 후원처 제안 및 만남 : 기존 고액후원자 감사 및 만남, 신규 후원처 리스트업, 만남 (4-6월)
- 진행내용

상근변호사 인건비 기금처 확보	-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X법조공익모임 나우) - 2년간 추가 활동비 지원 확보
후원자 만남	- 2/24 문학동네 어린이 부문 (2010년경부터 매해 기업 후원) - 8월 후원의밤 고액후원자 별도 연락 및 초대 - 9/12 정기후원 만남 제안 메일 발송, 일정상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속 후원 확인 및 감사인사 전달
--	--------------------

- 평가
- 상근변호사 인건비 기금처 확보를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2년간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추가로 공익변호사 활동 지원 기금에 신청하여 상담소 내 법률팀 운영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조직 내부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기존 후원처인 문학동네 어린이 부문 만남을 통해 여성인권 주제 관련 출판계 동향과 참여, 협업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스킨십 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는데 일시후원으로 상담소 활동에 함께 하고 있는 후원처에 대해서도 리스트업하고 상시적인 안부와 참여독려를 위한 계기를 만들 필요성이 있음.

2-6. 전체 논의 및 팀별 사업 지원

- 목표 : 2023년 활동 방향과 핵심목표에 따른 팀별 사업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
 - 2023년 팀별 활동 방향 및 핵심목표에 따른 사업 수립 및 실행 지원
 - 외부 제안 신규사업 실행 시 담당팀 요청에 따른 사업 실행에 필요한 지원
 - 필요시 팀별 회의 참석 및 팀 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 팀별 인원충원 및 변동에 따른 안정화
 - 소장 연 1회 활동가 면담을 통한 개인별 비전 청취 및 업무 고충이나 애로사항 수렴 등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 (여성주의상담팀 1인) 2022년 12월 공고 및 채용 절차 진행, 1월 직무 연수, 2월 팀 배치
 - 평가 계획회의 : 1월 계획회의, 7월, 8월 평가회의 및 하반기 계획회의, 12월 평가회의, 계획회의 진행
- 담당자: 오매, 란
- 진행내용
 - 신규활동가 채용 및 교육 연수 진행
 - : 2022년 11월 25일 상근활동가 채용공고, 12월 8일 서류전형 마감, 서류전형 12월 12일 발표, 서로만 나보기 전형 12월 14일~15일 진행, 첫 출근 1/2
 - : 지원규모 11명 지원, 서로 만나보기 전형 5명 진행, 최종 1명 선발
 - : 신입활동가 연수 일정 1/2~1/20 진행
 - : 4/19 활동보고회 진행
 - 상근변호사 OT 및 법률팀 업무회의 참여
 - : 5/2 신규활동가 OT
 - : 5월 이후 격주 법률팀 업무회의 참여
- 평가
 - 전년대 달리 모든 팀에 소장단이 참여하지 않고 활동가가 3인 미만인 팀 논의에만 참여하고, 그 외 팀의 경우 필요시 회의 참석 및 팀 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으로 운영하여 팀 매니저 실행과 연동하여 각 팀별 논의를 활성화하고 팀간 적극적 소통이 가능하도록 운용함.
 - 팀 로테이션 운영에 있어 팀별로 사전회의나 업무 인수인계가 활발하게 이뤄져 활동가 로테이션에 따른 팀간 협업과 중추적인 내용 구성을 해나가는 과정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음.
 - 신규채용과정 및 연수과정이 회계연도가 바뀌는 연초에 진행되어 각팀별 오리엔테이션이나 직무연수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그간 상담소에 없었던 상근변호사 채용 및 법률팀 신설은 새로운 조직체계의 구성 과정으로 상담소 내부에서 어떤 활동이 기대되고 필요한지, 조건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었음

2-7. 활동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 목표 : 활동하기 좋은 조직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산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 방법 및 계획 :
 - 조직문화 논의 진행
 - : 조직문화 담당자 지정을 통해 매해 조직문화 논의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 설계
 - : 외부 협력기관, 강사, 워크숍 팀 등 선정 및 진행
 - 개소기념일, 전후 상근활동가 워크숍 진행 (4월, 1박 2일)
 - 상근활동가 소진예방비(상담비 지원 등) 활용 독려 / 마포구청 중사자소진예방프로그램 추가신청(1명)
 - 업무환경 개선
 - 공통업무 : 공통업무의 적절한 배분 및 운영
 - 사무실 대청소 : 매월 첫째 주중 영역별로 일과 시간 중에 시행(본인 책상, 구석 쓸기 닦기, 창틀, 1층 곳곳, 냉장고 정리 등)
 - 휴가 운용
 - : 안식년 첫 시행 환경 마련
 - : 1, 2차 연차사용촉진을 통해 휴가 사용 독려
 -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사업자 부담액 지원 (기존 복리후생비 연계)
 - 월별 나눔업무 이월 확인 : 9시 출근 / 쓰레기배출 담당 / 월말 이월 수행, 확인
 - 담당자: 오매, 란, 해주
 - 진행내용

조직문화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일시: 11/8, 11시~16시 참석: 호랑, 경진, 상아, 수수, 도경, 감이, 지희, 파랑, 달별, 유랑, 오매, 해주, 동은, 낙타, 신아, 란 내용: 0.워크숍에 앞서서 (준비팀논의 및 규칙정하기), 1.문제제기 과정 짚기, 2-1.생각나누기, 2-2.사안정리 필요, 2-3.관계 맺기, 3.문제해결/중재과정, 4.마무리회고 																	
상근활동가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일시: 2023. 4. 13 ~ 4. 14 (1박 2일) 장소: 강원도 고성 (스테이지 알 펜션, 청간 해변) 참석: 총 18명 전원 - 일정표 <table border="1" data-bbox="378 1503 1071 1696"> <thead> <tr> <th></th> <th>13일(목)</th> <th>14(금)</th> </tr> </thead> <tbody> <tr> <td>9:00</td> <td>집결 및 이동</td> <td>아침식사</td> </tr> <tr> <td>10:00</td> <td></td> <td>마니또 공개 및 평가</td> </tr> <tr> <td>12:00</td> <td>점심 식사</td> <td>점심식사 및 울산바위 관광</td> </tr> <tr> <td>13:40</td> <td>하조대 도착 및 산책</td> <td>서울 출발</td> </tr> </tbody> </table>				13일(목)	14(금)	9:00	집결 및 이동	아침식사	10:00		마니또 공개 및 평가	12:00	점심 식사	점심식사 및 울산바위 관광	13:40	하조대 도착 및 산책	서울 출발
	13일(목)	14(금)																
9:00	집결 및 이동	아침식사																
10:00		마니또 공개 및 평가																
12:00	점심 식사	점심식사 및 울산바위 관광																
13:40	하조대 도착 및 산책	서울 출발																

	<table border="1"> <tr> <td>14:40</td> <td>양양서피비치</td> </tr> <tr> <td>16:00</td> <td>숙소 체크인 및 휴식</td> </tr> <tr> <td>17:30</td> <td>저녁식사</td> </tr> <tr> <td>19:00</td> <td>실내 게임 및 자유시간</td> </tr> <tr> <td>24:00</td> <td>취침</td> </tr> </table> <p>- 이동편: 활동가 소유 차량 2대, 렌트차량 1대 총 3대 이동 - 숙소배정: 총 7객실, 객실에 따라 2명~4명으로 배치 - 논의경과 (란, 해주, 파랑+오매) 2/15 상근자 회의 : 장소 확정 2/21 사무국 논의 : 전체 기획안 논의 장소 확정, 숙박 예약 진행 상황 확인 4/4 기획팀 논의 : 실외 및 실내 일정 기획 (KSVRC 체육대회) 4/5 상근자 회의 : 전체 기획안 안내 및 공유 4/12 기획팀 논의 : 출발 전 실무 점검, 식사 장소 예약</p>	14:40	양양서피비치	16:00	숙소 체크인 및 휴식	17:30	저녁식사	19:00	실내 게임 및 자유시간	24:00	취침
14:40	양양서피비치										
16:00	숙소 체크인 및 휴식										
17:30	저녁식사										
19:00	실내 게임 및 자유시간										
24:00	취침										
소진예방비	9/11 마포구청 종사자 개인대상 소진예방 프로그램 추가신청 10/19 대상자 선정 및 예산 배정 (상담소 1인, 85만원선) 12/19 결과보고서 제출 예정										
보상휴가제도 운영	1분기 신청자: 2명 (10시간 1명, 40시간 1명) 2분기 신청자: 1명 (2시간 1명) 3분기 신청자: 3명 (13시간 1명, 43시간 1명, 76시간 1명)										
휴가 및 지원제도 운영	2/1일자 안식년 발효 4/17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및 확정 (총 10인) 7/30 연차사용촉진 1차 통지 10/30 연차사용촉진 2차 통지										

• 평가

- 공통업무 분담의 경우 매월 담당자가 해야 하는 목록 리스트업이 필요하고, 환경정비에 더욱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보상휴가제도의 경우 작년 7월 도입 이후,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보상휴가 신청 인원이 3인 이하인 점을 미뤄 보상휴가 신청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실 근무시간 초과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인지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조직문화워크숍 평가>

- 이번 조직문화워크숍은 연구소 사안의 쟁점 및 과제를 논의하고 상담원교육 강사진 섭외 사안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남은 논의를 이어 마무리 하기 위해 진행되었음. 첫 번째 주제는 이미 많은 시간 논의를 거듭해 왔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에서 여러 쟁점 및 과제가 비교적 명료한 형태로 도출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제기 해결 및 중재과정에서 개선해야할 사항>에 포함하거나 향후 조직문화 워크숍에서 관련 쟁점을 다뤄갈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상담원교육 강사진 섭외 사안 관련 내부적으로 남은 질문과 고민거리를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고 평가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워크숍 평가>

- 상담소 개소일에 맞춰 이전에 비해 단축하여 예산상 부담을 낮추고 숙직 등 대체 근무 상황 등의 어려움을 고려함.
- 마니또를 함께 진행하여 1박 2일이라는 다소 짧은 시간 동안에도 활동가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노력함.

- 워크숍 장소 관련, 활동가들 의견 수렴하여 한적한 바닷가 위치의 장소를 지정하고, 숙소는 전체 공간을 사용하여 한적한 마을의 여유 있고 안전하고 쾌적한 워크숍 환경을 조성하였음.
- 전체 일정에 대한 실무를 사무국에서 담당하되, 개별 기획에 대한 기획팀을 구성하여 모두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야외 활동에 기반한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었음.
- 식사는 모두 외부 식당을 이용하되,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간식류를 준비하였고, 모든 활동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음.
- 전반적으로 전체 일정보다는 자유롭게 시간을 확보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일정을 구성하였고, 이동 차량을 활동가 차량 2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었으며, 총 3대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장거리에도 편안한 이동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 당일 미세먼지 최악수준으로 준비했던 실외프로그램은 취소하여 실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으며, 외부 관광지도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고 숙소로 계획보다 빠르게 이동하였음. 실내에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변에 들러 시간을 보내도록 대체하는 등 적절하게 날씨 상황을 반영함.
- 실내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임과 여러 보드게임을 진행하여 친목 도모의 시간을 보냈으며,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이 되었다고 평가함.

2-8. 활동가 교육

- 목표 : 법정외교육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내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진행
- 방법 및 계획

1) ‘반성폭력운동과 인권’ 교육

- 격월 1회 (수요일, 오후 2시~5시) 전체 활동가 참여 내부 교육 진행
- 주요 의제 강사 섭외 강의 및 토론, 관련 저자 초청 이야기 나눔 등의 방식
- 진행 (안)

회차	시기	내용	강사 및 참고 교재
1	3월	정치적 책임과 인권	미정 : 말을 부수는 말 (이라영) : 책임과 판단 (한나 아렌트) :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아이리스 M.영)
2	5월	공정담론과 인권	미정 : 공정 이후의 세계 (김정희원)
3	9월	기후위기와 인권	미정 : 에코페미니즘 (반다사 시바, 마리아 미즈) : 돌봄선언 (더케어컬렉티브)

2) 법정외교육

분류	교육명	의무 시수 및 시간
법정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2회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교육	연1회
관련종사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	-------------	-------------

• 진행내용

- 반성폭력운동과 인권 교육

회차	일정 및 참석	내용 및 강사
1	4/12 14시-16시 (은희, 유랑, 동은, 해주, 달별, 감이, 경진, 지희, 수수, 상아, 신아, 낙타, 파랑, 호랑, 산, 란, 오매)	<p>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커뮤니케이션 교수, 자문위원)</p> <p>14:00~14:30 <공정 이후의 세계> 집필 과정 여는 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국공 사태, 입시 및 채용, 할당제 등 공정과 학교폭력-대물림 부에 대한 불공정 담론에 확산되면서 공정에 대한 열말과 즉물적 분노의 확산 상황, 오히려 공정 이후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피해자 정서를 기반으로 한 분노 표출 상황 존재. - 정의의 문제 (응보정의, 회복정의, 변혁정의)에서 책에서는 변혁정의를 더 많이 방점을 찍고 논의, 그러나 응보정의조차도 한국에서는 제대로 안 된다고 인식되고, 폭력을 어떻게 정의할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도 중요한 의제 - 다음 책은 국가 폭력, 구조적 폭력, 젠더폭력을 주제로한 글. 공정과 정의와 폭력의 관련성에서 경험 연구보다 이론화에 대한 관심으로 작성될 것, 크게 보면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 - 안정한 공간 (책에서는 일시적 대안 세계)에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고 받는 우리가 그리는 유토피아를 그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 <p>14:30~17:00 사전 질문지에 대한 응답 및 저자와의 대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여성, 반페미니즘 백래시, 공정담론, 백래시가 정치권에 의해 선택적 전략적 무지로서 정치과정의 하나로 실현된다고 체감되는 현실에서 차별과 폭력의 개인화를 막아내는 평등한 세력의 조직,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할까? 2) 많은 사회 이슈와 사례의 연결 인용 방식, 집필 때 사례 정리 방법은? 3) 지자체 자체 선거 후보를 시험봐서 결정하자고 할 때 소수정당에서는 기탁금이 없어 할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제안으로 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자격’이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자격’이란 무엇일까? 4) 선택적 무지 부분에서 이대남이나 터프, 래디컬 페미니스트에 대한 고민이 들었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만나야 할까도 고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5) 선별적 보편주의는 선별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한데, 최저임금도 합의되지 않는데 한쪽에서는 비동의간음죄에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어떻게 돌파 가능할까? 6) 가짜뉴스처럼 정동이 자극되는 이슈들로 혐오와 차별이 확산되고 왜곡되며 오히려 스스로는 피해자의 위치로 두는 상황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7) 조직정의 중 관계정의를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도구, 지표가 있나?

		8) 상호 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주의 단체에 대한 조직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 조언이 있다면?
2	9/13 14시~16시 (오매, 은희, 도경, 지희, 유랑, 수수, 상아, 동은, 파랑, 산, 달별, 낙타, 란, 해주, 신아, 경진)	<p>김신희정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에코페미니즘연구소 <달과나무> 부소장)</p> <p>사전텍스트(2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시쓰는 여성학>, 한국문학사, 장다혜외10인, 13장 기후위기시대, 페미니즘과 생태를 사유하기 - 김효정(2023) 기후위기 시대 여성농민운동의 생태적 전환과 다중 간관계성의 변화 소논문 (자료 첨부) - 강의내용 <p>: 기후라는 것은 30년간의 누적된 평균 값. 날씨는 기분이라면 기후는 성격</p> <p>1325호 결의문에서도 비전통적 안보문제로 기후를 다루고 있음. 여성평화협약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아주 중심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안보문제의 하나로 두게 되는 상황.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서 기후변화로 식량공급의 문제 발생, 폭동이나 전쟁문제로 확장될 가능성.</p> <p>: 탄소배출은 북반구의 산업화된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반면, 개발은 남반구 중심의 숲을 개발하는 방식들.</p> <p>: 기후재난의 속성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 야외노동자 배달노동자로. 농민들은 올해 기후변화로 30%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대부분의 결과. (비가 많이 와서 나의 월급이 30% 적어진다면?)</p> <p>: 기후위기와 취약성. 젠더화된 취약성을 악화시키지만, 이런 프레임이 저개발국가 비백인 여성을 묘사하거나 강요된 희생자로 묘사하면서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없는 존재로 간주하는 문제. 그렇다면 여성을 기후변화의 주요 피해자로 분류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오히려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고 교차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p> <p>: 기후문제는 교차성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 기후문제와 젠더폭력간의 교차성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p> <p>: 에코페미니즘은 이론이나 실천. 젠더와 환경에 대한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이론이자 실천. 양쪽에 문제 제기. 왜 페미니즘이 생태적 관심이 없냐, 왜 생태운동에서는 페미니즘 시각이 없는가.</p> <p>: 돌봄의 사회화, 정치화, 정책화, 생태화라고 한다면 먹거리, 건강, 돌봄, 탈성장의 문제를 공격으로 정치화하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틈새들을 넓히고 기후위기나 생태위기나 이런 문제들은 전 지구적이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것,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 확대하는 것.</p> <p>생태와 환경의 문제는 일국적이지 않은 초국적 문제.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간의 새로운 관계성. 성장주의와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실천들 필요</p>

- 법정 의무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2/23 서울직장내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위드유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신청 5/24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진행 (강사: 이영희 노무사)
----------------	---

• 평가

〈반성폭력과 인권 1회차〉

- 한 권의 책을 읽고 저자의 간단 여는 말과 사전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진행하여 텍스트의 내용과 현실의 쟁점을 연결하여 고민을 확장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 뿐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드러내는 교육이었음.
- 특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백래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 풍부히 설명되고 있어 공동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고, 상담소 내부 사례에도 적용해보며 조직운영과 문화에 대한 고민도 확장할 수 있었음.
- 질의응답 시간이 예상보다 초과되어 진행되고 상호 향후 일정으로 급 마무리하게 됨. 사전단계에서 총 가용시간, 진행방식과 순서 등을 세심히 조정,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반성폭력과 인권 2회차〉

- 기후정의행진을 앞두고 진행되어 교육의 내용이 직접적인 실천과 연동되는 주제로 진행됨. 특히 신유물론 페미니즘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운동의 의미에 대해 교육과 토론이 이뤄져 이론적 이해와 실천방향에 대해 모두 생각해보는 강의였음
- 반성폭력운동과 환경운동, 기후운동의 접점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한국의 에코페미니즘 운동사를 통해 짚어보면서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음. 서로가 서로를 조직하는 주체들로서 젠더폭력과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논의를 하는 장이 형성될 필요성을 확인하였음.
- 사전 텍스트를 읽고 사전 질문을 받아 강의 후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되어 전반적으로 이해를 높이는 세팅의 강의를 진행되었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 동성간 문제, 여성으로 간주하는 내부의 성희롱 사안 등 정상성이나 동성간 성폭력 등 상담소 내부 발생 가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구성을 제안하고 진행할 필요도 있음.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정의나 구분에 대한 교육은 처음 접해보는 활동가들도 있어 의미 있었고, 교육내용이 광범위한데 짧은 시간에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 있었음.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제도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었으나 새롭게 알게 되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조직내 사건해결 처리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음.

2-9. 튼튼하게 상담소 관리

- 목표 : 건물의 내용연수가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 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비
- 방법 및 계획 :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건물 돌봄
 - 구청 지도점검 시기 안전 점검 체계화
 - 안전 매뉴얼 마련 및 적용, 정기적인 안전물품 점검 및 대비(소화기, 대피로 등)
 - 반기별 자체 모의 대피훈련 실시
- 담당자 : 오매, 란, 해주
- 진행내용

업무환경 개선	1/2 1층 싱크대 수전교체 및 1층 순간온수기 감압밸브 교체 4/4 1-2층 순간온수기 멀티탭 파손 관련 점검 4/5 2층 싱크대 수전부품 교체
---------	---

	4/6 1층 순간온수기 전용 배선 공사 4/6 지하 1층 화장실 천장 누수 상황 확인, 업체 현장 방문 및 견적 4/8 누수탐지- 1층 직수관 누수 원점확인 및 배관공사 진행 (1층 싱크대 누수노후로 교체 필요) 4/17 1-2층 싱크대 및 배관 교체 4/18 1층 도시가스 연결부 점검 4/26 지하 1층 정수기 코크 교체 5/10 건물외벽 실리콘 코킹작업, 지하 1층 화장실 천장 교체, 열림터 도배 견적 5/22 건물외벽 실리콘 코킹작업 완료 6월 2층 홀 자리배치 변경 (소장-소장실 이동 완료) 8/16 지하 1층 배전함차단기 전원교체 11/21 2층 홀 유리문 내려앉음 수선 11/22 2층 면접상담실 출입문 유격 수선, 3층 벽면 콘센트부 책장 수선 11/29 지하 1층 화장실 손잡이 교체 12/1 1-2층 싱크대 방수 실리콘 작업 견적
--	---

• 평가

- 건물 노후에 따른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매해 계획될 필요가 있음.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한 상시적인 점검, 상하반기 안전점검, 보안 점검 등의 업무를 사무국의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로 두고 실행할 필요가 있음.
- 냉/온풍기 관리, 바닥 에폭시 작업, 외관 페인팅, 2층 홀 유리문의 하중 문제로 인한 주기적인 내려앉음 등 건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업무를 배분하고 구체화해야함.
- 내부 도서 공간 및 자료 정리 등 1층 도서관 관리등 담당 팀 업무 배분이 되지 않으면서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향후 대책 마련이 필요함.

2-10. 회계 및 공익법인 공시

- 목표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운용과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 내역 공개로 회계 건전성을 확보

• 계획

- 일상 회계 업무 총괄 및 세무사무소 기장 대행을 위한 업무 협조, 회계감사 지적 사항 반영
- 기부금 집행 건전성 관리 : 재정내규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공익법인공시(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기부금 내역 공개 포함)
- 기부금 내역 공개 : 상담소 홈페이지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지자체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세청 2회(3월, 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진행내용

- 공익법인 공시 (3/10~15) 세무사사무소에서 국세청 업로드, 4월 중 공시 및 홈페이지 게시 완료
- 6/20 세무사무소 기장 대행 업무 이월 및 미팅 (세무법인 리더스로 이관)

• 평가

- 22년도 공시는 대직 진행한 부소장이 진행하고 재정회계담당자는 처음으로 공익법인 공시를 진행함.

- 상담소 내부기준과 지자체보고기준, 공익법인공시기준 등이 서로 달라 여러 건의 자료 생성됨/ 회계규칙 통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시 및 전반적인 회계 처리 관련 교육과 세미나 이수등 업무에 필요한 외부 교육활용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2-11. 법인 및 상담소 사무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한다
- 방법 및 계획 :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수발신문서철 : 각종 계약서철 관리(연도별 문서정리, 문서고 재정비) : 인사기록철, 인턴/자원활동기록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양식과 연동하여 관리 등 : 상담소 발간물 관리 등 - 2023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확인 및 적용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법정 의무교육 진행 및 관리 - 행정 업무 전달연수 진행(공문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등)
각종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메일 관리 - 데이터서버, 구글계정 및 드라이브 관리 - 강의, 자료 요청 응대
법인 행정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 - 법인 운영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

• 진행내용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대응 (2022년 12월) : 2/15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발표 - 행안부 기부금품법 개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 검토 등 - 2022년 시설평가 결과 수신 : 총점 100점 중 97.60점 (전체 평균 95.02점) - 2023년 지자체 지도점검 실시 : 8/1 마포구청, 서울시 합동 지도점검 :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운영위원회 회의록, 연간사업계획서 미제출 지적 : 10/30 지적사항에 대한 정정 보고 완료 - 공익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지정 신청 : 10/28 서울시 법무부 관할 공증제외 지정신청 서류 발송 및 추천 요청 : 11/8 서울시 추천 요청 공문 발송 : 11/23 서울시 법무부로 추천신청서 공문 발송
외부 요청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여성사전시관 자료 아카이빙 기부 (3~4월 내방하여 자료 정리)

	: 6/7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미팅 : 기증자료 목록 (책자자료- 나눔터/반성폭력이슈리포트/정기총회 전권, 성폭력위기센터 설립 발기인 대회, 위기센터 개설키, 열림터 개설키, 상담소 개소15주년 후원의 밤, 2008년 미래전망 워크숍, 연구자료집 81권, 실물자료- 미투운동중간결산 제작플랑 15개/ 말하기대회 손수건 등)
--	--

- 평가
- 수발신 문서 처리의 경우, 실물뿐 아니라 데이터 스캔본은 별도 보관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하고 활동가들에게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및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향후에도 지속될 상황이 있어 하반기에도 관련 이슈에 대해 주목하여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할 계획임.
- 국립여성사전시관 자료 기증의 경우, 상담소 자료 아카이빙의 필요성과 자료보관의 한계 및 방법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 계획마련이 필요함.
- 매해 총회 진행에 소요되는 업무 및 예산지출의 부담을 줄이고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에 공익법인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 지정받는 행정 업무를 진행하여 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노력함. 향후 의사록 인증 제외 법인으로 지정된다면, 공증변호사 입회나 공증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업무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신규] 1-10. 다양한 연대활동

- 배경/필요성: 다양한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주의 이슈를 대중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성폭력과 성차별을 양산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바꾸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슈에 연대함.
- 진행내용

기후정의 행진	회의	1) 7/12 조직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일시 및 장소: 7/12, 2시~5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및 온라인 병행 논의안건1. 9월 기후정의행동 주요 개요 논의안건2. 9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과 체계 2) 8/16 조직위원회 2차 회의 진행 일시 및 장소: 8/16 2시~6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및 온라인 병행 논의안건1. 923기후정의행진 계획안 검토 및 결정 논의안건2. 923기후정의행진 방향과 대정부 요구(안) 기타안건. 기본소득당, 조직위원회 참여 관련 안건 상정의 건 3) 9/6 조직위원회 3차 회의 진행 일시 및 장소: 9/6 2시~4시 논의안건1. 물관리공청회 직접 행동 관련 규탄성명 논의안건2. 923 기후정의행진 집회-행진장소 확정 및 세부 기획 논의안건3. 기본소득당의 923조직위 제척의건 4) 10/19 조직위원회 4차 회의 진행 일시 및 장소: 10/19 2시~5시, 가톨릭회관 및 온라인 병행 논의안건1. 923 기후정의행진 평가안 논의안건2. 재정결산안
------------	----	--

	<p>8/30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계획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5대 요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재난으로 죽지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2. 핵발전과 화석연료로부터 공공 재생에너지로,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하라 3. 철도민영화를 중단하고 공공교통 확충하여,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4.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신공항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 중단하라 5. 대기업과 부유층 등 오염자에게 책임을 묻고,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p>[세부 요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후참사 책임지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않고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라 2) 불평등이 재난이다. 모두의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3) 핵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핵발전 유지와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요구하라 4) 탈석탄법 제정하고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며, 탈화석연료 계획을 강화하라 5) 에너지 전환을 돈벌이에 맡길 수 없다.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하라 6) 지역사회의 붕괴를 막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 수립하라 7) 이윤을 위한 생태파괴, 신공항 건설과 국립공원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8) 이윤을 위해 비인간동물을 상품화하는 공장식 축산을 정의롭게 전환하라 9) 철도 민영화를 중단하고,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강화하라 10) 자본의 농업생산 진출을 막고, 생태농업전환을 지원하며, 농민생존권 보장과 식량주권을 실현하라 11) 차별 철폐, 공공 돌봄 증진, 공공 의료 확충,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후위기 속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라 1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폐기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대기업과 금융자본에 책임을 물어라 13) 준비축소를 통해 평화를 증진하고, 기후재원 마련하라 14)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적 생태부채 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라
<p>923 행진</p>	<p>일시 및 장소: 9/23, 시청역 7번 출구 송례문 일대 참여: 김혜정, 노선이, 윤경진, 이도경, 추상아, 최란 내용 12시~13시40분 사전부스 14시~14시 40분 본집회 14시40분~17시 행진 본집회 진행내용 - 발언: 5대 요구를 중심으로 총 8개의 발언을 중심으로 구성</p>

	<p>○ 1부: 재난 대응, 탈핵, 공공녹색교통, 위기책임 전가 반대(정의로운 전환)</p> <p>○ 2부: 재난 대응, 탈석탄, 위기책임 전가 반대(정의로운 전환), 생태파괴 반대</p> <p>- 영상: 그간 기후정의운동의 촉발과 정권의 퇴행에 맞서는 현재 우리의 투쟁을 주제로</p> <p>한 영상 상영 예정(5분)</p> <p>- 합창: 마지막 순서에 기후정의운동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합창 공연(바람이불어오는 곳 개사) / 923합창단 운영</p> <p>행진루트 : 광화문광장 방면 및 용산집무실 방면 2코스 진행</p>
평가토론회	<p>일시 및 장소: 10/12 오후2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및 유튜브</p> <p>사회: 권우현 (923기후정의행진 공동집행위원장)</p> <p>발제: 923 기후정의행진 성과와 과제, 정록(공동집행위원장)</p> <p>토론: 이근조 (철도노조 정책실장), 맹주형 (가톨릭기후행동 운영위원), 미리내 (광주참가단 준비팀), 사라(여성환경연대 기후정의팀장), 박민아(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윤영우(성공회대 학생회 대표), 서찬석(중앙대 사회학과 교수)</p>

• 평가

- 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상담소에서는 기후문제와 관련하여 연속하여 참여하는 연대활동으로 올해에는 5대 대정부 요구를 통해 기후정의와 체제전환과 같은 운동의 지향에 대해 밝히는 활동에 함께하였음. 특히 23년 오송지역에서 발생한 참사, 일본 핵오염수방류 등 세계적으로 등장하는 기후정의운동에 상담소도 연대하여 기후정의에 대한 다층적인 고민을 사업 내에 환류하고자 함.
- 그러나 대부분의 회의가 상근자 회의가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뤄지면서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상에 대해 상담소 내에서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한계가 있음.
- 923 기후정의행진에 조직위원회의 규모는 600여개가 넘는 단위로, 기후정의라는 기치 아래 다양한 사회운동세력이 결집하여 주요 도심지에서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가시화하는 활동이었으며, 작년과 달리 많은 활동가가 참여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는 행진에 결합한 성과가 있음.
- 기후정의행진등 다양한 의제에 연대하는 활동이 상담소 외연을 확대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결합을 통한 내용적 확장을 바탕으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결합, 활동이 필요함.

2023 열림터 활동 평가

2023 활동방향(안)	팀별 실천방안
불황과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 체계적인 지원으로 일상회복에 조력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치에 책임 요구하기	- 생활인 욕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생활인들의 일상에 페미니즘과 반성폭력 언어를 녹여낸다.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다지기	- 다양한 창구를 통해 여성주의 쉼터의 소식을 알리고 후원과 연대를 도모한다.
시대적 불안에 공감하는 시민들과 연결되기	- 또우리와의 연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을 발굴하고 상호지지를 지속한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생활인들이 자신을 보살필 수 있게 역량강화한다.</p> <p>목표2. 반여성적 정책 기조에 대항하여 쉼터의 여성주의 의제를 더 많은 지지자들과 공유한다.</p> <p>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p> <p>목표4. 또우리들의 여러 경험과 듣고 일어섬에 든든한 마음을 보내고 지원을 지속한다.</p>	
총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림터 활동가들이 장기근속하며 자연스럽게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이 높아졌음.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을 발굴하여 적절하게 연계하였음. - 서로 다른 생활인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지원의 유연성과 기민함을 발휘하였음. 생활인과 여성주의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상담소 행사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여성주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 모든 열림터 사업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창구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하였음. 적극적인 연대체 활동이 돋보이는 한 해였으며, 많은 행사에도 연대하고 참여하였음. - 예년과 마찬가지로 활동가 소진 예방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으나, 하반기에 소진을 호소하는 활동가들이 많았음. 생활인을 지원하고 팀으로 협업하며 겪는 내면, 관계적 갈등과 어려움을 조직 단위에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기 위한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깨달음. - 또우리 지원 사업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소통도 원활해지고 있음. 다만, 기존의 또우리 지원 사업의 경우 실험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안정화된 현재로서는 쉼터 퇴소 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언어를 추가 생산하고 전망을 모색할 필요 있음. 	

목표1. 생활인들이 자신을 보살필 수 있게 역량강화한다.

1-1. 일상생활지원

• 입소의뢰 및 입·퇴소 지원 :

- 입소문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음.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함. 그에 따라 입소도 줄고 있으나, 입소의뢰 대비 입소율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23년부터 입소문의와 입소의뢰를 분리해서 기록함. 입소문의 및 의뢰는 총 34건이며 의뢰는 7건 임. 의뢰 중 면접까지 진행한 건은 6건이며, 입소 5건 진행. 입소를 의뢰한 피해자는 모두 10대에서 30대 사이였으며, 친족(2건)과 지인(2건)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음.
- 퇴소 7건 진행. 대부분 공동생활의 스트레스로 퇴소를 희망하였음(5건). 보호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단기간 입소 후 퇴소한 경우(1건)와 활동가들에게 폭언하여 퇴소조치한 경우(1건) 있었음. 가능한 경우 생활인과 함께 퇴소 후의 주거 조건, 재피해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퇴소 지원함.

• 생활인 지원현황

2023	생활 상담	정서 문화	치료회복 프로그램	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 학습	직업 훈련	자립 지원	퇴소자 지원	생활 지원	합계 (건)
상반기	112	31	50	4	121	16	18	6	146	125	629
하반기	150	41	77	15	154	52	20	18	108	213	848

• 평가:

〈입소의뢰 및 입·퇴소 지원〉

- 의뢰→면접→입소라는 절차를 따르면서, 신속한 입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
- 타지역에서 입소하는 경우 입소면접와 입소 시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입소 편의성을 도모함.

〈생활인 지원〉

- 1~2월 연이은 퇴소로 생활인원이 급감하였고, 5월까지 신규 생활인이 매우 적어서 생활시설의 존속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음. 그러나 꾸준히 생활인들의 결과 일상을 지키며 안정감을 제공하고,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였기에 지원의 질은 높았음.
- 입소인 감소 추세이나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코로나 시기 이후 실내에 머무는 생활인들이 늘어났고, 그에 맞춰 내부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이 수치로 드러남
- 23년의 경우 후기청소년과 성인 생활인의 수가 많아 예년과 달리 학교학습지원 건수가 감소한 반면 직업훈련지원과 자립지원 건수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생활인의 연령은 상승하였으나, 적절한 돌봄을 받은 경험이 드문 생활인들이 많았기에 생활지원과 일상상담에 주력했음. 해당 지원의 경우 지원 통계에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야간활동가가 매일 작성하는 숙직 생활일지는 상담통계와 지원실적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실정이기에 어떻게 수치화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1-2. 나들이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지속적인 폭력피해로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인들이 많고, 함께 즐거운 경험을 하며 신뢰를 쌓는 경험 역시 빈약한 경우가 잦음. 일상적인 나들이로 경험의 폭을 다양화 할 필요

있음.

• 목표 : 생활인들에게 다양한 정서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 방법 및 계획 :

- 명절연휴(구정, 추석)와 다양한 정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 8월 중 여름맞이 나들이 진행
- 12월 중 연말 뮤지컬 관람 프로그램 진행
- 생활인 주도의 나들이 프로그램 격월 진행

① 생활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나들이 기획(원데이클래스 수강 등) 시 인당 10만원 내에서 예산 지원

② 생활인들이 원할 경우 열림터 활동가 동행

③ 2월 중 본 프로그램 안내(취지, 예산, 기획서 사전제출 마감, 예산사용방법, 평가 등)와 더불어 함께 기획서 써보기 워크숍 진행

④ 3월, 5월, 7월, 11월 첫째 주에 본 프로그램 기획서 수령.

⑤ 적격증빙 지출을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영수증 취합 및 평가문서 제출 안내.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생활인 주도 나들이 집행 담당 (수수)

• 기대효과 :

- 생활인 스스로 나들이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입소 전 다양한 이유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기며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파악해봄.

• 진행내용:

진행월	일시	내용	참여
3월	3/1	서울 맛집 탐방	생활인 2인, 활동가 1인
5월	5/20	백화점과 마사지숍 탐방	생활인 3인 자체 진행
7월	7/15	캐리비안베이 워터파크 나들이	생활인 3인 자체 진행
	8/10	비건 페스티벌 참여	생활인 1인, 활동가 1인
11월	12/10	증명사진 촬영과 친해지기	생활인 2인

- 생활인 주도의 나들이 프로그램은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3월에는 활동가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고, 나들이에도 동행함.

- 5월에는 생활인 3인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예산 작성하였음. 활동가가 동행하지 않고 생활인 중 회계담당자 1인에게 약 3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진행됨.

- 하반기 생활인 간 갈등상황이 두드러지며 친밀한 생활인들끼리 나들이를 계획하는 경우가 늘어났음. 소외감을 호소하는 상황, 나들이 계획서를 취소하고 다시 제출하는 상황 등이 반복됨.

• 평가:

- 자원이 빈약한 생활인들이 나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자본을 쌓고 즐거운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음. 사업 의도에 부합하게 프로그램을 설계/변형하는 생활인들의 기획력과 유연성이 돋보였으며, 생활인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었음.

- 활동가 미동행, 생활인 주도의 예산 운용은 열림터의 모험이었음. 특히 생활인이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할 경우, 영수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회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자부담(후원금) 비용으로 지원하였기에 감수할 수 있었음. 더욱 적극적으로 후원자와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나눌 필요 있음.

[생활인 평가]

1. 3월 <서울 맛집 탐방> 나들이

- 수플레 팬케이크는 처음 먹어봤는데 다같이 가서 먹을 수 있어서 기뻐고 무척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따뜻하게 입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오늘 낙타쌈이랑 지유언니랑 나들이를 갔당. 인도커리집은 오랜만에 갔는데 식물원같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소품샵에서는 부적 9장과 에어팟케이스와 열쇠고리를 샀는데 전부 내 타입이다. 마지막으로 수플레팬케이크집에서는 쌈이랑 언니랑 엄청 수다떨었다. 알차고 재밌고 날씨도 좋은 하루였당 :D♡
2. 5월 <백화점과 마사지숍 탐방> 나들이
- 더현대서울에 가서 옷과 화장품을 구경하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거리낌없이 쇼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_^ 내가 번 돈으로 백화점 화장품 살 수 있는 멋진 어른!! 사람이 주말이라 많았어서 담에는 되도록 평일에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사지를 받았는데 마사지 선생님이 마사지 도중에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해주셔서 귀담아들었당. 어느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게 되었는데 그 후 미래보단느 하루를 충실히 사시려는 다짐을 하셨다고 했다. 나에게 주어진 아무일 없는 하루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 현대백화점에서 구경하는게 저에게는 지루함이 있었습니다.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맛있는거 먹으려 다닌건 좋았습니다. 앞으로는 제 의견도 써볼까 합니다. 그래도 아주 재미없는 시간은 아니어서 만족합니다.
 - 난생 태어나서 처음 도전해보는 베트남음식은 너무 맛있었고 안마 받을 때 너무 시원했다. 몸이 노곤 노곤해져서 좋았다.
3. 7월 <캐리비안베이 워터파크> 나들이
- 외국어 평가 (재미있었어요)
 -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워터파크에 가게 돼서 정말 좋았고 파도풀에서 대기하다가 방심한 탓에 물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D 다음에도 가고 싶어요!

1-3. 성폭력피해자치료비

- 배경/필요성 :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자해자살사고를 경험하는 생활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적 치유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목표 : 치료비 지원을 통해 생활인의 의료적·심리적 안정을 도모.
- 방법 및 계획 :
 - 정신과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의 경우 입소 3개월 이내에 종합심리검사, 진료, 약물처방을 지원.
 - 성폭력피해자치원에 특화된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생활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게 함.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로부터의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고 일상회복을 도모함
- 진행내용:

월	의료기관	건수	명수
1월	정신과 (1개월)	8건	3인
	심리상담 (3개소)	6건	
2월	정신과 (1개월)	4건	1인
	심리상담 (1개소)	4건	
3월	정신과 (1개월)	2건	1인
	심리상담 (1개소)	4건	

4월	정신과 (1개원)	5건	2인
	심리상담 (2개소)	8건	
5월	정신과 (1개원)	1건	2인
	심리상담 (2개소)	5건	
6월	정신과 (1개원)	2건	3인
	심리상담 (3개소)	9건	
7월	정신과 (1개원)	6건	4인
	심리상담 (3개소)	11건	
	심리평가 (1개원)	1건	
8월	정신과 (1개원)	2건	4인
	심리상담 (3개소)	11건	
9월	정신과 (1개원)	1건	4인
	심리상담 (3개소)	13건	
10월	심리상담 (3개소)	16건	3인
11월	심리상담 (3개소)	11건	3인
12월	정신과 (1개원)	2건	2인
	심리평가 (1개원)	1건	1인
	심리상담 (4개소)	24건	4인

- 정신과 진료의 경우 생활인이 시설수급 자격을 획득한 후에는 의료급여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진료횟수보다 지원건수가 적음.
- 상반기 중에는 정신과 2개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해솔정신건강의학과의원), 심리상담기관 5개소(마인드빅상담센터, 삼성인지감성연구소, 상담공간 서로오롯, 시선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연구원 나무와새, 주혜명마음챙김연구소) 연계함.
- 평가:
 - 생활지원을 하며 치료 상황을 파악하고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 정신과와 상담기관에도 생활인의 근접한 조력자로서 함께 소통하였음.
 - 새로운 상담기관과 인연을 맺었음. 생활인 지원 연계기관을 확충한 것이 긍정적임.

1-4.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① (개별성교육) 페미니즘 관점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하고 위험을 인식 및 관계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② (집단상담-글쓰기) 많은 열림터 생활인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함. 모호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확립하는 연습이 필요함. ③ (심신회복캠프)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적응을 도울 필요가 있음.
- 목표 : 성교육, 글쓰기, 심신회복캠프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등) : 상반기 개별 교육 각 6회기 진행. 필요시 회기 연장.
 - 집단상담-글쓰기(은유/글쓰기의최전선 작가) : 상반기 10회기 진행. 글쓰기 과제물을 토대로 작은 문집을 발행하며 종결할 계획. 열림터 내부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변동 가능성 있음.
 - 심신회복캠프 : 상반기 진행 예정하되, 감염병 방역지침에 따라 방식, 지역, 시기는 유동적으로 결정.
 - 요가(안소영/요가문서울) : 하반기에 6회기 진행.
 - 도예(도선화/도예공방 오른쪽 작업실) : 하반기에 3회기 진행. 잔여 예산에 따라 회기 조정.
- 담당자 : 낙타

• 기대효과

- 개별 성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로부터의 치유와 회복을 도모함.
- 함께 글을 쓰며 자기표현 방식을 익히고, 문집을 발행하여 성취감 획득.
-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면서 공동으로 자기치유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함.

• 진행내용

1) 성교육

회	일자	주제	내용
생활인 A			
1	4/1	성교육 욕구 탐색을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	성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과 이야기를 나눈다.
2	4/8	20대의 연애와 섹슈얼리티	20대의 연애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섹슈얼리티 개념 이해와 현실 진단한다.
3	4/15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이해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연결성을 살펴보고 남성이 만든 기준의 폭력성을 살펴본다.
4	4/22	성적 동의, 적극적 합의를 이해하기	성적 동의가 무엇인지, 적극적 합의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실과의 연결성 살핀다.
5	5/6	페미니즘과 성차별	차별/성차별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으로 연결해서 사고한다.
6	5/13	성지식 점검	정확한 성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생활인 B			
1	7/6	성교육 욕구 탐색을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	성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과 이야기를 나눈다.
2	7/11	친밀성과 폭력1	평등하고 존중받는 친밀성을 위해 폭력과 구분하는 감각을 키운다.
3	7/18	친밀성과 폭력2	그동안 연애 경험에서 폭력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4	7/28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1	적극적 합의 원칙의 의미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5	8/4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2	적극적 합의 원칙을 살펴보고 성적 지향 관련 사례를 다루며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해한다.
6	8/11	성지식 점검	적극적 합의 원칙 교육 정리 및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생활인 C			
1	8/21	성교육 욕구 탐색을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	성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과 이야기를 나눈다.
2	8/29	반차별과 성차별의 이해	페미니즘과 인권의 관점에서 차별 경험을 얘기하고 해석한다.
3	9/5	친밀성의 관계에서의 폭력 읽기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에 대해 남성의 평가와 기준의 폭력성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한다.
4	9/11	적극적 합의 원칙 1	적극적 합의 원칙을 이해하고 나에게 적용하면서 과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5	9/19	적극적 합의 원칙	친밀성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사례를 다루

		이해하기 2	고 경험과 연결해서 얘기한다.
6	9/26	성지식 점검	피임과 자위, 가부장제에서 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살펴보고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해한다.
생활인 D			
1	12/10	성교육 욕구 탐색을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	성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과 이야기 나눔의 시간.
2	12/14	친밀성과 폭력	참여자가 경험했던 친밀성과 폭력의 경험을 돌아보기.
또우리 E			
1	9/1	성교육 요청 이유와 현재의 문제 파악	참여자의 성교육 요청 배경과 이유를 들어보고 현재 참여자가 가진 문제를 파악하기.
2	9/8	성교육 목표 함께 설정하기와 참여자의 실천과제 설정	성교육을 통해 남기고 싶은 목표를 함께 정하고 나의 과제를 분명히 하기.
3	9/15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는 성폭력	참여자의 피해 사건을 돌아보면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4	9/22	인권과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는 친밀성의 관계와 폭력	가족(엄마와의 관계)과 연애 관계에서 차별과 폭력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실천 과제의 연결성 확인하기.
5	10/20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 1	명시적으로 의미와 내용 파악하기. 참여자의 경험과 연결해서 구체적인 과제 설정하기.
6	10/27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 2	다른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나의 경험 해석하기.
7	11/17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 3	다른 네 가지 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나의 경험 해석하기.
또우리 F			
1	11/21	성교육 욕구 탐색을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	성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과 이야기 나눔의 시간.
2	12/21	적극적 합의 원칙	적극적 합의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우리 G			
1	11/20	성교육 욕구 탐색을 위한 질문과 자기소개	성교육 욕구 파악을 위한 질문과 이야기 나눔의 시간.
2	12/1	친밀성의 관계와 폭력 1	나의 연애 패턴을 살펴보면서 시작부터 이별까지 무엇이 반복되는 문제인지를 살펴보기.
3	12/5	친밀성의 관계와 폭력 2	지난 연애를 돌아보고 평등하고 안전한 연애를 위해 구체적인 나의 실천과제는 무엇인지를 정하기.
4	12/14	친밀성의 관계와 폭력 3	나의 실천과제를 연습하고 나누기.
5	12/16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 1	원칙 중 '명시적으로' 내용 살펴보기.
6	12/18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 2	원칙 중 '의식이 있을 때',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내용 살펴보기.
7	12/22	적극적 합의 원칙 이해하기 3	'평등하게'와 '모든 과정에서 항상'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기.

- 교육 진행 전, 강사와 2022 평가 및 2023 계획회의로 교육 방향을 정돈하고 설계함.

- 사례별 성교육 시작 전, 후에 강사와 사례담당자가 사전 및 평가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소통함.
- 퇴소자 1인이 성교육을 요청하여 사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치료회복프로그램 중 일부 프로그램은 퇴소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됨.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퇴소자 대상 성교육을 홍보하였고 2인의 퇴소자가 성교육을 진행함. 12월 내에 모든 수업을 마무리하고 강사비를 지급하여 잔여 예산을 소진할 예정임.

2) 글쓰기

회	일자	주제	내용	참여인원
1	04/04	나는 왜 쓰고 싶은가	- 자기소개를 하고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1인
2	04/11	내가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쓰고 합평하기	2인
3	04/19	음식과 사람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쓰고 합평하기	2인
4	04/26	행동하는 것의 미덕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자신이 행한 나쁜-좋은 일에 대해 쓰고 합평하기	2인
5	05/02	행동하는 것의 미덕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나의 하루, 나의 노동에 대해 쓰고 합평하기	2인
6	05/09	평범함과 소수성에 대해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내가 나다워지는 장소에 대해 쓰고 합평하기	2인
7	05/16	삶의 울타리를 넘어 행복해지는 법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내 가슴에 꽂 찬 말 쓰고 합평하기	3인
8	05/23	내 삶에 힘이 되어준 인연에 대해 생각하기	-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낭독, 토론 - 내 삶에 힘이 되어준 사람에 대해 쓰고 합평하기	3인
9	06/01	글은 쓰는 것만큼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집에 수록할 글을 읽고 수정하기	4인
10	06/07	글쓰기가 왜 필요할까	- 글쓰기 수업 완주 기념 상장 수여, 종파티 - 문집에 수록할 글 제목 바꾸고 최종 수정, 퇴고	4인

- 교육 진행 전 사전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생활인 특성을 공유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함.
- 모든 수업에 활동가 1인이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생활인 참여를 긴밀하게 독려함.
- 프로그램 강사인 은유 작가와 보조강사로 참여한 아간활동가가 문집에 수록될 글을 한 편 선물함.
- 생활인들이 직접 문집 제목을 정하고 표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현실적인 문집표지디자인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통해 예산을 조정함
- 표지디자인 일정이 늦어져 제작이 예상보다 늦어졌고 표지디자이너가 2차 제작물 활용을 후원하여 굵즈(엽서, 스티커)를 제작함.

3) 심신회복캠프

일시	장소	내용	참여인원
06/10	강원도 강릉시	안목해변 나들이, 펜션에서 바다보며 스파하기	4인
06/11	강원도 강릉시	강릉 맛집 탐방, 정동진 나들이	4인

- 입소생의 감소로 사업변경계획서를 통해 예산을 조정함
- 적극적인 생활인이 높은 계획력과 실행력을 보여주었고, 참여의사에 대한 생활인간 편차가 있었으나 세부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간극을 줄임.
- 생활인 2명이 후기를 써주어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게재함.
- 운영지침에 맞게 결산을 조정하였고 잔여예산으로 하반기 프로그램을 추가 편성함.

4) 요가

회	일자	주제	내용	참여인원
1	07/05	바디스캔	전신 테라피 포인트 자극	5인
2	07/12	하체 테라피	고관절, 엉덩이 테라피와 움직임	4인
3	07/19	상체 테라피	손바닥, 손가락, 가슴열기를 통한 상체 이완	5인
4	07/26	골반 테라피	하체 테라피와 골반, 몸통 연결성을 높인 근력 움직임	4인
5	08/02	척추 테라피	바른 자세를 위한 척추 이완과 움직임	2인
6	08/09	전신 테라피	전신 긴장을 풀어내는 밸런틱 테라피와 트위스트, 골반 이완 움직임	4인

- 편안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안젤라홀에서 진행하기로 함.
- 생활인 1인이 트라우마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고 체력단련지원비로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원활한 수업진행을 돕고 생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음.

5) 도예

회	일자	주제	내용	참여인원
1	10/03	흙의 물성	흙의 물성을 잘 알 수 있는 흙가래 기법을 이용	3인
2	10/09	색화장도 장식, 전기물레 체험	전기물레로 만들고 싶은 도자기를 정하고 접시를 장식한다.	2인
3	10/13	접시 완성하기	전기물레와 흙가래 기법으로 접시를 완성한다.	3인

- 캠프 잔여 예산으로 하반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진행함.
- 심터라는 특성으로 인해 평가회의시 강사 스스로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으나 수업 시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으며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음.
- 12월 중으로 결과물을 수령하여 자신이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 쯤파티를 하고 예산을 소진할 예정임.
- 평가
- 국고 지원 프로그램 특성상 예결산, 이수율 등 구청 보고사항이 많았음. 하여 잦은 반복 업무와 실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엑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 방법을 도모함.

1) 성교육

- 사례별 성교육 시작 전, 후에 강사와 사례담당자가 사전 및 종결회의를 진행하고 수시로 소통하여 교육의 질을 높임.
- 작년 생활인 관계의 역동성이 중요한 이슈였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입소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생활인과의 관계보다 개인 이슈가 두드러지는 성향이 있어 개별 관심사를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흥미도를 높임.
- 입소자 뿐만 아니라 퇴소자 3인의 성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고, 퇴소 후에도 성에 관한 어려움을 나누고, 여성주의에 대해 탐색하며 연결감을 확장하는데 도움을 줌.
- 개인성향에 따라 성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생활인은 성교육을 실행하지 못했고, 이는 잔여 예산 소진방법 대한 고민으로 이어짐. 유연하게 퇴소자도 교육대상으로 추가한 것은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음. 또한 이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앞으로 퇴소자의 성교육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활발한 홍보 및 신청 인원 축소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글쓰기

- 식사 대용의 든든한 다과를 준비하여 참여를 독려할 수 있었지만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 교육 시작 10분 동안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안배할 필요가 있음.

- 수업 초기에 생활인의 공통기반이 다르고 글쓰기를 거부하는 생활인이 있었으나 주,보조강사의 높은 역량으로 잘 진행되었고 지속적인 입소로 9회기에 입소한 생활인도 원고를 제출하여 생활인 4명의 원고로 문집이 풍성해짐.
- 글쓰기 퇴고는 언제나 큰 숙제라 교육 전 사전회의를 통해 퇴고 일정을 앞당겼고 주말에도 퇴고 작업을 독려하며 카페에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 마감일을 지킬 수 있었음.
- 프로그램 종결 후 평가회의를 통해 손으로 쓰고 노트북으로 옮기는 데에 별도로 시간을 내는 것이 퇴고의 걸림돌임을 짚을 수 있었고, 다음 프로그램에는 노트북을 대여하고 USB를 선물하기로 함.
- 입원으로 인한 결석이 1회 있었고 글쓰기에 대한 흥미가 낮았으나 사전 공지, 사례담당자의 독려, 생활인의 성실한 성향으로 코로나 격리하는 생활인이 화상채팅으로 참여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음.
- 생활인들이 직접 문집 제목을 정하고 표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집표지디자이너와 사전회의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음. 제작한 굿즈의 반응이 좋았으며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정기후원시 문집과 굿즈를 선물하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5인의 신규 후원 신청이 있었음.
- 수업의 결과물을 물성을 가진 책의 형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생활인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문집 제작의 큰 장점임.

3) 심신회복캠프

- 캠프를 스스로 기획해보는 캠프 공모전, 앨범 선물, 캠프사진대회를 열고 가족회의에서 상장과 맞춤형 상품을 수여하여 캠프에 대한 호응을 높일 수 있었음.
- 모든 생활인이 성인인 이례적인 캠프였고, 참여에 자율도를 높일 수 있었음.
- 채식을 하는 활동가를 고려하여 생활인과 함께 계획을 조정하여 모두 즐길 수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며 육류를 원하는 생활인을 위해 숙소에서 야식파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만족도를 높임.
- 생활인들의 합이 좋았으며 활동가와 더욱 친밀해져서 좋았다는 평이 있었으나 식사, 체험이 힘들다는 평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단체사진을 책상에 진열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경험이 아예 없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됨.
- 레일바이크 체험을 다른 일정으로 잘못 예약한 점은 아쉬우나 이외 체험프로그램과 자연경관이 좋은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 기존 기획보다 덜어낸 스케줄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소나기로 모두 지쳐서 소감 나눔 시간을 조정하고 아침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유연하게 계획을 변경하여 피로도를 낮춤.

4) 요가

- 처음 열림터과 연을 맺게 된 강사였고, 사전회의를 통해 열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 설계에 도움을 줌. 처음 섭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강사 만족도가 높았음. 야간활동가가 프로그램 보조강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이 됨.
- 시작과 마무리에 차담을 통해 대체적으로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파악하고 맞춤형 동작을 통해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을 이끌어낼수 있었음.
-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생활인도 있었지만 스스로 몸의 자극을 느껴보는 것이 필요한 시기로서 필요한 활동으로 보임. 요가, 자기방어훈련 등 몸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언제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프로그램 종결 후 평가회의를 통해 요가에 필요한 도구(매트 등)에 이름표를 붙여 프로그램 기간 동안 소유권함을 명확히 하며 도구를 스스로 관리, 정리하고 프로그램 외 시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쫄파티에서 출석률에 따라 깜짝 선물로 차등을 주어 적극적인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음.

5) 도예

- 긴급 편성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가족회의에서 모두의 의견을 모아 주제와 일정을 도출하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 점도 흥미를 이끌어내기에 적절했음. 야간활동가가 프로

그램 보조강사로 참여하여 모범적인 수업 태도를 보여주며 흠을 끝까지 잡으면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생활인에게 동기부여가 됨.

-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 및 강사 섭외였고, 사전회의를 통해 열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교육 설계에 도움을 주었음. 처음 섭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강사 만족도가 높았음.
- 높은 집중력을 요하는 작업이라 시작과 마무리에 차담을 구성함. 주 재료인 흠은 망치는 것이 없으며 굵기 전까지 물만 묻히면 다시 할 수 있고 낭비도 없다고 설명하며 충분한 시간을 주어 안정감을 주고 만족도를 높임.

1-5.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개인의 피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폭력상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열림터 공간 뿐 아니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언어, 신체적 폭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자극이 필요함.

• 목표 :

- 공동의 생활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함께 지켜야 할 약속과 규정을 이해
- 상담소의 역사와 활동을 알고 공감대를 형성
- 여성주의 관점에서 성폭력을 바로보기
-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 증진

• 방법 및 계획 :

- 상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준비회의	강사진(생활인 안내 및 주제)	
1회	상담소의 역사	오매
2회	이 공간의 약속	동은
3회	여성주의	감이
4회	최근 이슈	산
정리 및 평가	생활인 평가	생활인 참여자 전체
강사단 평가	강사단 평가	강사단 전체

- 하반기 일정

회기	주제	강사
준비회의	강사진(생활인 안내 및 주제)	
1회	상담소의 역사	란
2회	이 공간의 약속	신아
3회	여성주의	경진
4회	최근 이슈	달별
정리 및 평가	생활인 평가	생활인 참여자 전체
강사단 평가	강사단 평가	강사단 전체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공동주거 공간인 열림터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지켜야할 규칙들을 이해하고 숙지함.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상담소의 활동 및 열림터의 운영 목적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음.
- 공적,사적인 영역에서 차별과 침해받지 않고 성적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기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진행내용

상반기

회기	일자	주제	강사	참여인원
사전회의	04/26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감이, 경진, 산, 은희, 지희	
1회기	05/08	상담소의 역사와 활동	산	2인
2회기	05/15	온라인 상의 성착취	경진	2인
3회기	06/13	여성주의란?	감이	4인
4회기	05/29	이공간의 약속	지희	3인
평가회의	06/24	생활인 정리 및 평가	은희	5인
평가회의	06/28	강사단 평가	감이, 경진, 산, 은희, 지희	

하반기

회기	일자	주제	강사	참여인원
사전회의	11/17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달별, 신아, 오매, 유랑, 은희	
1회기	11/20	상담소의 역사와 활동	달별	3인
2회기	11/27	동의 및 적극적 합의	유랑	3인
3회기	12/04	협오와 차별 몸, 여성의 외모 등 자기 안의 규범	신아	3인
4회기	12/11	협오와 차별 타자의 눈으로 보는 협오와 차별에 대해서	오매	3인
평가회의	12/16	생활인 정리 및 평가	은희	3인
평가회의	12/14	강사단 평가	달별, 신아, 오매, 유랑, 은희	

• 평가

- 상담소를 이해하고 여성인권운동의 가치를 알게 됨.
- 공동생활 공간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더 잘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음.
-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과 침해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음.
- 생활인들에 따라 교육에 대한 흥미도나 참여도가 차이가 있어 교육을 진행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음. 특히 생활인들이 프로그램 참석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여 하반기에는 교육일정을 미리 안내하여 교육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열림터 성인권교육이 새롭게 강의를 시작하는 활동가의 경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존에 진행되었던 다양한 교육자료들을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 열림터 활동가들이 생활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먼저 취합하였고 이를 사전회의에서 강사진과 논의하였음. 이는 생활인들에게 적합한 주제가 선정되었고 신선한 내용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참여의 당근으로 생활인들이 원하는 간식을 제공하여 교육에 관심을 높일 수 있었음.

[생활인 평가]

- 전체적으로 교육이 정말 좋았음.
- 교육시간이 늦은 저녁이어서 매우 피곤한 상태이고 몽롱해져서 아쉬움이 있음.
- 신체접촉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일 좋았음.
- 교육 후 인권감수성이 높아지고 사회에서의 여성이 가지는 위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음.
- 여성인권이 이렇게 발전하기까지 용기를 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했고 나중에 그 일원이 되고 싶었음.
- 이 공간의 약속을 들으면서 열림터 내부 규칙들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음.
- 나의 다양한 매력을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 성인권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협오와 차별표현에 대해 알고 생각해 볼수 있었다. 다음 교육

때는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세력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

1-6. 환경식생활안전교육

• 배경/필요성 :

- 공동생활공간인 열린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개인위생과 청결한 환경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활인들 대부분 돌봄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 영양 불균형 및 비위생적인 식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자극이 필요함.
-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각종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형성에 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개인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시행, 생활인과 함께 주제를 탐색한 후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하여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각종 전염병 대응 방역수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안전교육: 연간 2회 보라매안전체험관 대면/비대면 재난안전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안전) 시행. (완강기 사용법 포함)
- 화재예방교육 : 격월 1회 시행.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 전기안전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함.
- 생명존중교육 : 연 1회(상반기: 은회) 시행. 열린터 내의 자해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조건적인 금지보다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주고받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함.

• 담당자 : 상아

• 기대효과 :

- 공동생활에 필요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 각종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
- 개인위생 및 식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을 키움.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일자	진행내용	인원	비고
1/27	설탕중독에서 벗어나는 법	2명	
2/28	화재예방교육	2명	
3/31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2명	
4/27	화재예방교육	2명	
6/2, 6/8	재난안전체험	4명	온·오프라인병행
6/29	주방 마감 루틴 : 매일 10분만으로 깨끗한 주방 유지하기	5명	
7/30	소고기·들깨 미역국 끓이기 실습	5명	
8/27	화재예방교육	5명	
9/27	주방 후드 청소하기	3명	

11/1	겨울철 안전한 난방용품 사용과 화재예방교육	3명	
11/30	재난안전체험	생활인 3명 활동가 4명	보라매재난안전 체험관 방문

• 평가

1. 환경·식생활교육:

- 생활인들의 탄산음료와 초콜릿 섭취가 늘어서 과도한 당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기하는 시간. ‘당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와 ‘2주 동안 초콜릿을 끊어보겠다.’는 유의미한 결심을 이끌어냄.
- 자립생활에 필요하지만 놓이기 쉬운 주방청소 스킬과 간단한 국 끓이기 방법을 배움.
-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헛갈리는 분리배출을 퀴즈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짐. 새롭게 알게 된 분리배출 방법이 있었고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평이 있었음.

2. 안전교육:

- 화재예방교육: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 대피요령 등을 습득하는 시간. 재난영화화를 통해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루하지 않고 집중이 잘 됐다는 평가 대피 방법을 잘 습득했다는 평이 있었음. 재난 안전체험을 오프라인으로 다녀온 사람은 완강기를 안전한 환경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음.
- 재난 안전체험: 오프라인으로 활동가와 생활인이 모두 함께 참여한 체험이었고, 나들이 느낌이 나서 즐겁고 재미있었음. 무엇보다 실제와 똑같이 꾸며진 세트장에서 재난상황에 맞닥뜨린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대피방법을 더 진지하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관과 완강기를 체험해 보는 것 또한 아주 유용했음.

1-7. 생활인이 진행하는 열림터 운영평가 · 생활인과 만드는 열림터 생활규칙

• 배경/필요성 :

- 매주 생활인 주도로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호건의회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열림터 운영 전반에도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 필요가 있음.

• 목표 : 상하반기 열림터 생활인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생활규칙개정에 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방법 및 계획 :

- 생활인 운영평가 : 7월, 1월 1회씩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
-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7월, 1월 1회씩 진행. ① 생활규칙 변경 논의 및 워크시트 배부 , ② 열림터 업무회의 논의, ③ 가족회의에 변경 생활규칙 안내.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생활인들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열림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열림터 운영에 생활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쉽터 운영에 새로운 관점을 반영함.
- 비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적인 열림터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 진행내용

1. 2022 하반기 (7월~12월)

일자	진행내용	인원
12/11	하반기 생활인 운영평가 진행	4인
12/18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 및 방바꾸기 의견 수렴	5인
12/25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안 공지	5인
12/29	방바꾸기 진행	4명

1) 생활인운영평가: 열림터 운영 중 6개 항목(생활환경, 열림터운영, 인권침해, 상담지원, 학습지원, 자립지원, 취미여가지원)에 대한 생활인들의 평가를 받음. 평가는 익명 구글설문지 형식으로 취합하였음.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현행 생활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1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함. 의견은 활동지 형식으로 취합함.

2. 2023 상반기 (1월~6월)

일자	진행내용	인원
6/18	상반기 생활인 운영평가 진행	4명
6/25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 및 방바꾸기 의견 수렴	5명
7/9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안 공지	5명

3. 2023 하반기 (7월~12월)

일자	진행내용	인원
12/3	상반기 생활인 운영평가 진행	3명
12/10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 및 방바꾸기 의견 수렴	3명
12/16	하반기 생활규칙 변경안 공지	3명
12/16	방바꾸기 진행	3명

1) 생활인운영평가: 열림터 운영 중 6개 항목(생활환경, 열림터운영, 인권침해, 상담지원, 학습지원, 자립지원, 취미여가지원)에 대한 생활인들의 평가를 받음. 평가는 익명 구글설문지 형식으로 취합하였음.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현행 생활규칙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1주에 걸쳐 의견을 수렴함. 의견은 활동지 형식으로 취합함.

3) 방바꾸기: 2023 상반기는 모든 생활인의 만족도가 높아 진행하지 않음.

• 평가

1. 2022 하반기 (7월~12월)

- 생활인들의 하반기 운영평가는 진행 전부터 다양한 생활규칙 개정 건의가 있었음. 생활인 간 역동으로 빠른 방 변경에 대한 욕구도 높았던 시기가 있었음. 이에 하반기 운영평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함.

1) 생활인운영평가

- 총평: 구글설문지 형식으로 설문을 취합하여 수기작성보다 모바일설문에 익숙한 생활인들의 편이에 맞출 수 있었음. 열림터 전반에 높은 불만을 가진 한 생활인의 최저수준의 평가로 상반기에 비해 평균 점수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를 제외한 생활인의 평가는 평이했음.

- 생활환경: 생활인 1인의 원하는 음식을 쓸 수 있는 보드의 확대, 부작용이 있는 전기매트 대신 온수매트 구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핸드폰, 외박, 귀가시간 등의 생활규칙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생활규칙 변경을 폭을 넓힘.

- 열림터운영: 생활환경 평가와 중복되어 평가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

- 인권침해: 새로 입소인이 들어왔을 때, 룸메가 생기는 과정이 힘들었다는 의견이 있어 입소 전 가족회의에서 입소일정을 안내함. 열림터에서 폭력(신체·언어·정서·성적 폭력 등)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삽입되어 있으나, 생활인들이 공동생활 중에 겪는 갈등을 정서적 폭

력이라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교육, 심리상담, 개인면담, 집단면담을 진행하면서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상담지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필요성은 느낀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
- 학습지원: 학습지원이 도움이 되었는지, 불필요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달랐음.
- 자립지원: 자립하기에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퇴소 기한이 다가오며, 열림터 생활이 힘들어 자립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음.
- 취미여가지원: 무기력함이 올 때, 시간이 없어서 자주 가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청소년 통금시간을 1시간 늦게 변경하고 청소년 공부시간을 1시간 늦게 설정하고 자율공부로 변경
- 성인 목요일 통금시간을 30분, 금요일 통금시간을 1시간 늦게 변경

2. 2023 상반기 (1월~6월)

1) 생활인운영평가

-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나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성인권교육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생활인의 트라우마 관련한 규칙 변경 요청이 있어 업무회의를 통해 일정을 적절하게 조정함.
- 6/28 업무회의에서 검토하여 7/2 공지할 예정이었으나 생활인들의 역동으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어 연기 되어 7/9 공지함.
-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귀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 취침시간 동안 핸드폰 충전을 요청하여 충전기기를 마련함.
- 입소 3개월까지 지원하는 성인 용돈을 인상 및 유지를 희망하여 주변 심터를 조사한 후 월 5만원으로 설정함.
- 다양한 규칙을 조정, 확장하며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유연성을 발휘함.

3. 2023 하반기 (7월~12월)

1) 생활인운영평가

- 올해부터 시작한 나들이 프로그램을 더 자주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보아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서적 폭력을 겪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 생활인 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면담과 임시 방변경 등 다양한 해소 방안을 모색을 중임.

2)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담당활동가와 상의하여 공동 일정을 조정하여 외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방바꾸기:

- 생활인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인실 운영을 시작함. 생활인 간 갈등상황 시, 본격적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등 1인실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공동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승함.

1-8. 시설기능보강

•배경/필요성 :

- 2015년 열림터 공간 조성 이후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 벽지 및 옷장 등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주방에서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구획 정리가 필요함.
- 도서 후원을 지속적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도서량이 늘어남에 따라 책장 정리정돈이 필요함.

•목표 :

- 열림터 공용공간인 거실과 주방의 쾌적하고 정돈된 환경을 만듦.

-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조리작업을 할 수 있음
- 각종 장비와 배수 시설을 위생적으로 청결히 유지, 관리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 기능보강비 배정 시기 이후 견적을 받고 가구 구매 등을 진행하여 시설을 정비함.
 - 오래되고 오염된 조리기구들을 버리고 교체함.
 - 오래되고 읽지 않는 책들을 정리하고 책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하여 쾌적한 거실 환경을 조성함.
- 담당자 : 은희, 상아
- 기대효과 :
 - 깔끔하고 안정된 시설정비로 생활인들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줌.
 -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유지하여 안전한 식생활을 할 수 있음.
 - 책상 정리정돈을 통해 쾌적한 거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6/10~12일 도배작업 진행함.
- 평가
 - 기능보강비 내에서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음.
 - 열림터 캠프 기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큰 무리없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음.
 - 깔끔하고 정리된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음.

목표2. 반여성적 정책 기조에 대항하여 쉼터의 여성주의 의제를 더 많은 지지자들과 공유한다.

2-1.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

비밀시설의 특성상 위치와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 및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시설의 존재를 모르거나, 편견이나 두려움으로 입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에 적절한 홍보가 필요함.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성범죄 무고 조항 신설 등 여성배제와 反성평등 정책을 앞세우며 지지율을 모으는 실정임. 때문에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이 높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들은 수세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함. 열림터의 활동이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바꾸는 사회변화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후원금 모집을 통한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함.
- 목표 :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과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 블로그·홈페이지 : 주기적인 포스팅으로 쉼터의 소식과 고민을 알림. ① 숙직일기 - 격월로 열림터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을 ‘일기’ 형태로 작성, ② 열림터 식구들의 목소리 / 식구들의 감상 -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③ 열림터 식구들의 목소리 / 자립의 과정을 ‘펼쳐!’, 또 만나요 우리 -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지속 게시하며 쉼터 퇴소생활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알림, ④ 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

- SNS : 블로그·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중 특정 SNS 플랫폼 특성에 적절한 게시글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맞도록 변형하여 게시.
- 소식지: 매월 열림터 소식을 후원자에 발송 후 블로그·홈페이지에 게시.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신인의 흥미를 높이고 메일링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식지의 전파율, 구독율을 확인.
- 해피빈공기부함 : 정기 기부함을 지속 사용.
- 후원예우: ① 자동메시지의 다양화: 매월 후원납입, 신규가입, 후원중단, 일시후원에 감사하는 자동메시지를 다양하게 만들고, 필요시 소식지와 블로그 링크를 삽입하여 더 친근하게 열림터의 소식을 알린다.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 열림터의 소식·고민·역할을 회원들에게 알려 후원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후원을 유치.
- 안정적인 후원회원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생활인지원 예산과 더불어 퇴소생활인지원 예산도 확보.
- 진행내용:

1. 후원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신규맞증액(명)	6	2	4	3	4	6	10	6	5	1	3	4	54
중단및탈퇴(명)	8	2	5	3	0	0	1	1	4	4	4	1	33
정기후원납입회원(명)	287	283	285	290	290	289	297	308	302	301	296	295	3,523
정기후원회비(천원)	6,192	6,167	6,092	6,160	7,160	7,140	7,221	7,361	7,261	6,264	6,161	6,171	79,330
일시평생후원(건)	5	3	13	3	3	2	4	7	7	2	4	13	66
일시평생후원(천원)	290	80	488	1,100	1,510	20	110	860	360	1,130	12	5,135	22,044

2. 홍보

1) 월간 이메일 소식지 [열림터 다이어리]

호수	발송일	제목	발송건수	오픈율	클릭률
1월호	1/31	[열림터 다이어리 1월호] 새해가 왔어요!	370	25.9%	0.8%
2월호	2/28	[열림터 다이어리 2월호] 안녕하세요. 파랑입니다.	354	26.3%	2.8%
3월호	3/31	[열림터 다이어리 3월호]	358	26.0%	0.3%
4월호	4/29	4월, 귀여움의 힘으로 오늘도 힘차게	356	23.9%	0.3%
5월호	6/1	5월, 나들이! 코로나! 기도회?!	355	20.8%	2.0%
6월호	6/30	[열림터 다이어리 6월호] 휘모리장단으로 달린 열림터	358	22.3%	1.7%
7월호	7/31	[열림터 다이어리 7월호] 북적북적 열림터	357	22.4%	1.4%
8월호	8/31	8월, 한 걸음	378	23.5%	1.1%
9월호	9/30	9월, 많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물처럼 흐른다	380	24.2%	1.1%
10월호	10/31	10월, 추위? 문제없지!	387	21.4%	2.3%

11월호	11/30	11월, 행운을 주고 액운은 막아주는 뉴스레터	386	20.7%	0.5%
12월호	12/31	12월, 한가로운(?) 연말 열림터	375	26.2%	2.3%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후원 중단자를 포함하여 메일수신 동의한 회원 전부에게 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음. - 4월부터 발신자를 '열림터 다이어리'로 표기하고 제목을 바로 기재하면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제목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그러나 팀내에 변경사항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몇 달 정도 구 양식의 소식지가 발송됨. 제목 변경에 따른 유의미한 오픈율 변화는 없었음. - 평균 발송건수는 3백건 후반이며 오픈율을 20% 선을 유지하고 있음. 열림터 소식지의 경우 후원 링크 외에 외부 링크를 거의 삽입하지 않기 때문에 클릭율은 크게 의미가 없으며, 실제로 클릭율 수치도 높지 않음. 					

• 평가:

1. 홍보:

- 월간 이메일 소식지 : 2023년 스티비 이메일 마케팅 리포트에 따르면 구독자 500명 미만의 이메일 서비스의 경우 평균 오픈율 40.2%, 비영리단체 이메일 서비스의 평균 오픈율은 13.7%임. 열림터 이메일 소식지의 오픈율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됨. 이메일 소식지의 제목, 내용 방향을 검토할뿐만 아니라 소식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열림터 소식과 고민을 적극적으로 글과 기록으로 남겨서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게시한 점이 긍정적인.

2. 후원:

① 정기후원

- 정기후원납입회원의 경우 22년 초에 비하면 최소 100만원 가량 증가했으나 22년 말과 23년 말의 정기후원금은 큰 차이가 없음. 별다른 후원 배가 사업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 불황으로 인한 후원 중단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규 후원회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쉼터의 자율적인 활동에 큰 도움이 됨.
- 또우리들의 일시, 정기 후원이 증가하는 추세임.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호혜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유의미함.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열림터 퇴소자 지원을 위한 후원이 필요하다는 의제에 공감하는 후원자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퇴소자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구상하고 후원자들과도 긴밀히 소통할 필요 있음.

② 후원예우

- 후원금 납입회원에게 보내는 월별 납입 감사 메시지에 쉼터와 반성폭력 의제를 한 구절씩 담으며 회원과의 소통 거리를 좁히고,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독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여력 부족으로 실현하지 못함.
- 열림터 문집 및 굿즈 발송: 치료회복프로그램 성과물인 문집과 굿즈를 1년차 이상 2년차 미만 정기후원회원과 수령을 희망하는 회원(21명)에게 발송함.

2-2.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쉼터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유사한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공유할 필요 있음
- 목표 : 열림터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다른 영역의 문제의식을 공유받으며 고민을 환류하고, 연대의 힘을 키움

• 방법 및 계획 :

-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와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열림터의 의견을 드러내고 각 단체들과 연대
-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 1월 총회, 워크샵 1회, 3월, 5월, 7월, 9월 임원회의 예정.
-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복지분과위원회: 분기별 회의진행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2인이 열림터 담당자로 결합하여 온의 2023년 사업계획과 팀개편에 따른 팀 활동. 그 중 1인은 돌움위원회에 지속 참여.

• 담당자 : 은희, 수수, 낙타

• 기대효과 : 연대체에 결합하여 반여성적 사회흐름에 함께 대항하며 고민을 나누고 해결을 모색하는 동료·지지자와 만남.

• 진행내용

연대체	진행내용	담당자
전국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 1차 임원회의(대전) - 정기총회 안건 논의. 23년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논의 - 1/27 정기총회 - 4/20 상반기 정기회의 - 5/17 2차 임원회의 - 종사자역량강화 사업 논의 및 신규 사업 논의 - 9/19 3차 임원회의 - 하반기 정기회의 논의 - 11/9 하반기 정기회의(불참) 	은희
마포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6 1회차 분과회의 <마포구가족센터> - 기관동향 및 실무협의체 회의 내용 공유, 분과 공동사업 논의(신류위원 한국가족상담소, 여성동행센터) - 5/18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연합 워크숍<서울에너지드림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해와 실무분과 역할찾기 - 6/8 2차 분과회의 <동행센터> (불참) - 8/31 3회차 분과회의<한국여성의 집> - 실무협의체 활동 공유, 제 23회 마포구 릴레이 복지포럼 공유, 여성의 집 소개 및 라운딩 - 10/31 4차 분과회의<중부여성발전센터> (불참) 	은희
청소년주거권 네트워크 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회의(수수, 낙타) 3/28, 7/20, 9/14(불참) 10/24, 12/7 - 돌움위원회(수수): 2/16, 4/14, 7/14, 11/17 - 수다회정리팀(수수): 5/4, 6/29, 7/12, 8/9, 9/7, 9/21, 10/19 - 캠페인팀(낙타): 3/23, 4/6, 5/4, 7/17(아웃리치, 홍보 영상 제작) - 사무국X수수 미팅: 3/14 	수수, 낙타

• 평가

1.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시설운영의 현황과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짐.
- 시설 생활인 지원을 위한 보호시설의 역할과 정책적인 쟁점을 나누고 토론함.
-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어려운 분위기를 타개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2. 마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

- 마포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대하고 정보 공유함.
- 여성복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운영전반에 참고할 수 있었음.
- 단체들간의 연대감을 형성하고 후원물품들은 나누며 관계망을 돈독히 함.

3.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열림터에서 2년 연속 도움위원회에 참여하며 현장단체로서 겪은 경험과 고민을 연대단체에 환류하였고, 연대단체의 의제를 열림터에도 환류할 수 있었음.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신규멤버 대상의 오티가 진행되었음. 청주넷의 역사와 미래 비전을 나누는 자리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청소년 당사자와 함께 비청소년 활동가들의 인권 기초다지기로 진행되었음.
- 캠페인팀은 상반기에 부천청소년일시쉼터와 함께 탈가정, 비적정주거 청소년 아웃리치 활동을 진행하였고, 열림터 밖의 위기청소년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의미있음. 아웃리치 때 만난 청소년 사례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어서 아쉬웠으나, 추후 아웃리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었던 점이 유용했음. 하반기는 홍보 영상 제작을 진행했으나 담당 입소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정 조정이 힘들어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음.
- 전체회의에 담당자 2인이 참석하여 긴급지원이 잦은 일상생활지원 속에서도 연대체 활동을 병행할 수 있었음.

2-3.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절실히 필요함. 운영위원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및 전 활동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생활인 지원이나 열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및 정보를 받아들이어 향후 열림터 운영에 반영하고 열림터의 심터 운동이 운영위원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고 열림터로 다시 환류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 목표 : 운영위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여성주의 심터 운동의 원동력을 찾음.
- 방법 및 계획 :
 - 분기별 각 1회 진행(총 4회),
 - 다양한 안건개발로 운영위원의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자문의 기회를 마련함.
 -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여유 있게 일정을 안내하고 업무회의를 통해 안건을 검토하여 운영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함.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전 상근활동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적극 반영하여 여성주의 심터운동을 활성화
- 진행내용

일자	논의 내용	참석자
1분기 (3/23)	1-1. 생활인 자립지원의 아주 작은 시작, 주택청약저축 가입의 건 1-2. 생활인에게 용돈을 더 지원하는 문제 - 청약통장외에 실비보험등 유용한 방법 찾아보기, 비용을 아끼지 말고 투자하는 것 필요, 첫 독립생활을 할 때 필요한 비품 지원 후원매칭, 근로하지 않고 삶의 즐거움을 경험해 보는 시기로 열림터를 상정하는 것 필요, 멀리보고 지원하기	정정희,문숙영,송지혜,은희 배석 및 서기: 오매

	<p>2. 30주년 준비회의 진행 및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회의에 외부인들과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필요, 단기·장기·주요대상 등 아이덴티티를 정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원방식 토출, 30년 전 내담자·지원자 니즈와 현재의 내담자와 지원자 니즈를 비교 지점 분석 <p>3. 열림터 운영위원 총원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경, 이승윤 운영위원으로 제안 예정 	
2분기 (6/22)	<p>1.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 참여 및 경매행사 물품 기증 요청</p> <p>2. 열림터 미래비전 모색을 위한 기관 방문 간담회(자립공동생활시설 소소, 수원 여성의쉼터) 진행</p> <p>3. 22대 총선 젠더정책과제 <시설 퇴소 성폭력 피해자 자립, 주거지원 정책 정비> 정책과제 관련 의견 나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과 운영지침과의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 필요성 공유.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가 다른 생활시설(청소년쉼터, 보육시설, 가정폭력피해자지원시설 등)의 퇴소자들이 갖는 권리를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입소경원 조정,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능보강을 위한 국가 지원이 필요성 공유. - 연구자들이 시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문회의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것 필요. 	<p>정정희, 문숙영, 송지혜, 은희 서기: 파랑 배석: 오매</p>
3분기 (9/21)	<p>1. 30주년 기념 행사 제안: 생활인 및 전 활동가 릴레이 인터뷰 영상 제작 및 상영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쉼터인 열림터 특성상 영상, 사진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있을 수 있음. 역사를 남기는 다양한 방안 논의 필요. - 쪽지를 나눠 주제별로 다뤄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 생각해 볼 수 있음 <p>2. 또우리 풀짜기금 사업 지속 여부 및 방법 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짜기금 사업의 지속 및 확대 필요성 공유와 동시에 업무부담 완화 방안 토의 	<p>정정희, 이호연, 은희 서기: 수수 배석: 오매</p>
4분기 (11/22)	<p>1. 2024년 운영위원 위촉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9월에 현 운영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현 운영위원 임기 연장 동의 및 추가 인원 영입 찬성 의견 공유. <p>2. 생활인 자립 지원을 위한 '시범 자립하우스' 운영 상상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유회복 후 현실 감각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구조 모색 	<p>정정희, 문숙영, 이호연, 송지혜, 은희 서기: 낙타 배석: 란</p>

• 평가

- 생활인 지원에 대한 각 운영위원의 전문성 있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열림터의 현안과 미래비전을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었음.
-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관심으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었으나, 열림터 활동가들의 참여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활동가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의견을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추후 운영위원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2-4. 2024년 열림터 30주년 기념사업 준비

- 배경/필요성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가 30년간 우리사회에서 존재한 이유와 의미를 되새겨 볼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최근 들어 사회변화가 가속화되어 생활인들이 열림터에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음. 30주년을 맞이하여 열림터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열림터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생활인들의 치유회복에 최적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3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
 - 2~7월까지 월 1회 회의 진행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열림터 30주년을 의미있게 해줄 사업을 도출하고 준비할 수 있음.
- 진행내용
 - 계획은 2월에서 7월까지 6회기로 하였으나 실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11월까지 매월 진행해 보기로 계획을 수정 보완함.

일자	내용	참석자
02/28	열림터 30주년을 어떻게 맞이하고 기념할 것인가?	은희, 수수, 낙타, 파랑
03/29	지속가능한 열림터를 위한 대안 상상하기	은희, 수수, 낙타, 상아, 파랑
04/25	지속가능한 열림터를 위한 대안 상상, 사무국과의 현실적 논의	은희, 수수, 낙타, 파랑, 란(사무국)
05/30	- 기관방문, 열림터 입소 문의 및 의뢰 분석 자료 공유 - 대안 논의 및 앞으로의 계획 - 타 기관방문 간담회 공유	은희, 수수, 낙타, 파랑, 란(사무국)
06/27	- 30주년 기념 행사 방식 논의 - 타 기관방문 간담회 공유	은희, 수수, 낙타, 파랑
09/06	30주년 기념 행사 방식 논의	은희, 수수, 낙타, 파랑
10/24	30주년 기념 영상 제작 논의	은희, 수수, 낙타, 상아, 파랑
11/30	- 주거우선지원 프로젝트 제안 및 고민 나눔 - 30주년 기념 행사 방식 결정	은희, 수수, 낙타, 상아

- 평가
 - 계획했던 것 보다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연결하여 추가진행을 계획함.
 - 열림터의 미래비전과 30주년 기념 또는 상담소의 후원회 등과 어떻게 조화롭게 또는 분리하여 진행할지 정리가 필요함.
 - 열림터 미래비전과 함께 입소자 부진에 대한 이슈가 활성화되면서 대안을 찾기위해 계획에 없었던 다른 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빠르게 진행하여 다른 시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시설의 고립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됨.

- 미래비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잡히지 않는 상황으로 회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 앞으로는 각자의 상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짧은 시간에 타기관 방문 등 열심히 진행하였음.
-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5와 0으로 끝나는 해에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 결과를 도출하기가 더 어려웠음. 12월 내에 내년 사업을 결정할 예정임.

목표3. 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해 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생활인 지원의 전문성을 높인다.

3-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입소 생활인의 구성과 요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함.
- 목표 : 생활인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여 전문화된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주제	강사
4월	자해, 자살 시도 생활인 지원	트라우마치유센터사람마음 이윤경
6월	생활인 지원 경제교육	신용회복위원회 김동명
10월	경계성 성격장애 이해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송지혜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자해, 자살에 노출된 생활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례관리를 위한 경제교육을 통해 생활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 진행내용

일시	주제	강사	참석자
04월26일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살, 자해 행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이윤경	은희, 수수, 낙타, 상아, 파랑, 감이, 경진
06월21일	생활인 지원 경제교육	신용회복위원회 김동명	은희, 수수, 낙타, 상아, 파랑, 해주
10월26일	경계성성격장애의 이해와 생활인 지원	해솔정신건강의학과 송지혜	은희, 수수, 낙타, 상아, 파랑

• 평가

1.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자살, 자해 행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
 - 위기상황분석지와 서약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 받는 등 생활인 지원에 있어 실질적인 적용에 유용함. 단, 교육 후 실제 문서를 수정하고 현실에 적용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았음.
 - 자해, 자살에 대한 기본정보를 알고 위기상황시 대처법을 알 수 있었음.
2. 생활인 지원 경제교육
 - 강사의 강의준비와 역량의 미비로 교육적인 의미가 없었음.
 - 검증되지 않은 강사의 교육에 도전하였으나 실패함.
 - 생활인 지원 경제교육 강사 발굴을 모색할 필요있음.

3. 경계성성격장애의 이해와 생활인 지원

- 강사가 경계성성격장애에 대한 최신 흐름까지 조사하여 강의에 열정을 보여줌.
-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생활인을 더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고, 활동가들도 지원자로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
- 지원 현장과 맞닿아 있는 강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재미있고 위로도 되는 시간이었음.
- 경계성성격장애 환자의 다수가 아동기 지속 성학대 피해여성이라는 점에서, 열림터는 계속 해당 주제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함.
- 경계성성격장애를 둘러싼 여러 관점의 해석과 접근 방법이 있음. 올해는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교육을 이수했으나, 다음에는 심리상담사의 관점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음.

3-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만 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예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대상자 2인, 해당 활동가의 계획에 따라 진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뿐 아니라 업무 만족도가 상승함.
- 진행내용

일시	대상자	내용
4월26일	낙타	PT (더블유티에스 스튜디오)
11월09일	은희	걷기 프로그램 (알파캠프)

- 평가
- 심리상담이 아닌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신건강뿐 아니라 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됨.
- 일상을 벗어나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음.
- 정해진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프로그램에만 몰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음.
-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로도 업무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짐.

3-4. 생활인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생활인 지원을 마무리한 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내용을 공유하여 지원 전략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나눔으로서 지원자 및 참여자들이 지원의 다양한 틀을 배울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목표:
- 생활인 지원을 마무리한 후 지원과정을 정리해보고 활동가들과 나눔으로써 유사한 사례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틀을 나눌 수 있음
- 지원 시 어려웠던 점과 힘들었던 점을 나누며 다른 활동가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원자의 역량강화
- 사례자가 퇴소하였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기에 사례자에 대한 특수성을 활동가들이 공유하여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상,하반기 각1회 진행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사례관리를 마무리한 후 지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와 지원방법에 활동가들의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 향후 지원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음.

- 활동가들이 다양한 지원사례를 경험하여 생활인 지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진행내용

일시	내용	사례담당자	참석자
6월7일	각 1건의 종결사례 나눔	낙타, 은희	은희,수수,낙타,파랑,상아,감이,경진
8월10일	팀간 협업을 통한 공동 지원 사례	수수, 유랑, 도경	수수,유랑,도경,동은,산,상아,낙타, 해주,신아,은희,호랑,란

• 평가

1. 상반기 종결사례포럼

- 열림터는 생활일지 등 지원 기록들이 방대한데 문서로 정리해서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고 지원자로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였으나, 여전히 지원자의 한계를 확인하게 되기도 했음.
- 탈학교를 희망하는 생활인에게 학교학습지원을 어떻게 할 지 고민이 깊어졌음. 특히 생활인에게 필요한 또래와의 교류 경험을 성인인 열림터 활동가들이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민됨. 더불어 다양한 시도를 하나 매듭짓지 못하는 경우, 본인의 경험을 실패와 자책으로 기억하지 않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짚었음. 하지만 동시에 해당 생활인에게 열림터 생활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경험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긍정적인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싶어 아쉬움이 남았음.
- 시설의 한계가 있음을 종결 사례하면서 항상 느끼게 됨.

2. 하반기 종결사례포럼

- 열림터, 상담팀, 법률팀의 3인이 공동 지원하였으며 세 팀의 전문성이 발휘되어 더 긴밀하게 지원할 수 있었으나, 해당 생활인과의 소통창구가 하나로 통합되었다면 전략적으로 더 유용했겠다는 평가가 남았음.
- 비현실적인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고민이 많았으나, 3인이 공동 지원하면서 사건 지원과 일상 지원을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효과적이었음.

3-3. 사례관리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사례 지원에 있어 지원방향이나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힘든 상황인지를 파악하여 이후 안정적인 사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 지원자의 지원방향과 전략을 슈퍼바이저와 함께 나누고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함.
- 사례를 나누면서 사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역량강화할 수 있음.
- 동료활동가들 역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지원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 연1회(필요시 추가진행)
- 사례에 맞는 전문가를 슈퍼바이저로 섭외하여 진행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사례를 지원하면서 느끼는 고충을 나누고 지원방향을 점검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진행내용

일시	내용	참석자
11월22일	공동 사례 슈퍼비전 (with 자활지원센터 넝쿨)	은희, 수수, 낙타, 상아, 파랑 + 자활지

- 평가

- 두 단체에서 한 명의 생활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자활지원을 병행하는 케이스임. 해당 생활인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음.
- 서로 다른 두 단체가 서로 알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했음.
-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주고받은 덕분에 논의의 다양성이 더해졌으며, 해당 생활인의 금전적 감각 제고를 위한 의견을 나눔으로 생활인 지원을 현실화 할 수 있었음.
- 중간중간 해당 생활인 지원이 있었던 일과 관련한 사담이 길어져서, 회의의 목표에 부합하는 시간인지 살짝 걱정되기도 함. 그러나 지원단체가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음.

목표4. 또우리들의 여러 경험과 딛고 일어섬에 든든한 마음을 보내고 지원을 지속한다.

4-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 친족성폭력 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퇴소 이후 안정적 자립이 어려워 열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인면담, 법률, 자립, 물품등 여러 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움.

- 방법 및 계획 :

- 퇴소지원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없지만 1년 이상 생활하고 만기 퇴소하는 퇴소자에 게도 일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함.(1인 100만원)
- 대학학자금 지원: 대학 합격 시 등록금 일부를 지원.(1인 100만원)
- 자립물품지원 : 퇴소 자립 시 새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최대 20만원), 퇴소 시 택배발송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개인면담 : 필요 시 퇴소 후 개별면담 진행.
- 법률지원: 퇴소 이후에도 퇴소자 상황에 맞는 법률지원을 일정 기간 지원함.
- 물품지원: 연간 1회 이상 물품지원을 시행.
- 이외에도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발굴하여 지원함.

- 진행내용

내용	진행	건수	비고
개인면담	개인면담	52건	- 11월 상담일지 기준
자립생활지원비	퇴소시 물품·우편물 발송, 나눔터 원고비	51건	
대학입학지원금	자립 후 대학입학	1인	
법률지원 부대비용	퇴소 후 대법원판결 동행 등	0건	

물품지원	추석맞이 물품지원, 후원물품 지원	88건	- 7월 시타 후원물품 43건 - 9월 추석물품지원 45건
------	--------------------	-----	-------------------------------------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열림터와의 관계를 유지함.
- 평가
 - 개인면담: 퇴소한 또우리와의 연락 및 방문이 꾸준히 이어져 개인면담이 활발하게 진행됨. 다양한 또우리 지원사업이 잘 진행되고 이에 따라 또우리와의 소통이 적극적으로 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부분을 편안하게 이야기 해줌.
 - 자립생활지원비: 퇴소 후 동행 및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지원이 적절하게 되었음. 활동가들의 근속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이번 상반기에는 자립한 또우리의 집들이 3회 초대받음.
 - 대학입학지원금: 상반기 1인 대학입학시 적절하게 지원함
 - 퇴소 이후 물품지원(시타 후원물품 자립키트, 추석 명절)에 대한 호응이 좋음.
 - 열림터 생일 및 추석 명절 기념 물품지원은 7월 또우리모임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물품(속옷, 잠옷)을 발굴할 수 있었고 의견을 수용해주어 감사하다는 평가가 있었음. 해외에 거주하는 또우리 1인의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 무게와 배송비를 고려하여 첫 해외 발송함. 예상보다 5명 많은 45명이 신청했고 1인당 예산을 기준으로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지원함. 상품 옵션이 다양하여 품이 많이 들었으나 누락, 오배송 없이 잘 진행됨.
 - 자립생활지원비를 이용하여 또우리플랫폼 인터뷰에 참여하는 또우리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게 되었음.

4-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 - 열림터 생활인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 퇴소생활인(또우리)들은 퇴소 후에도 열림터와 친밀함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이 마련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성폭력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생활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고충, 피해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지지와 연대를 꾀할 장이 필요함.
- 목표 : 또우리, 전·현 활동가들이 함께 또우리모임을 진행한다.
- 방법 및 계획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10월 말)
 - 또우리모임 실행 (3, 5, 7, 11월 평가계획 모임)
 - 감염병 확산을 고려하여 방역지침을 지키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모임을 진행할 계획임.
 - 대면 모임 진행 시 비서울 지역에서 방문하는 또우리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참여를 독려함.
 - 9월 또우리모임은 추석명절 물품지원으로 대체함.
- 담당자 : 낙타
- 기대효과 :
 - 정기적인 또우리모임을 통해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
 - 전·현 활동가들이 개인적 부담을 줄이면서 또우리들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
 -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와 연결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인들이 퇴소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9월 물품지원사업으로 추석맞이 선물을 보내어 열림터가 지지처로서의 연결감을 상기시킬 수 있음.

• 진행내용

일시 및 장소	내용	참여인원
3/24 19:00~ 21:00 이안철마을	사회: 은희, 보조: 낙타, 수수, 파랑 - 컨셉: 봄맞이 꽃놀이 - 아이스브레이킹: 나는 대단히 ㅇㅇ한 ㅇㅇ, 눈치게임 - 자유로운 대화: 한해 계획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쪽지 나누고 연말에 확인하기) - 체험/선물: 수제 꽃다발 - 안내: 또우리플랫폼 공지	또우리 12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4인
5/26 19:00~20:30 이안철마을	사회: 낙타, 보조: 은희, 파랑 - 컨셉: 마음챙김 - 아이스브레이킹: 감정카드 2개로 기분 말하기 이번 달 나를 뻑!치게 한 것, 기분전환 방법 - 체험/선물: 테라리움(선인장) 만들기 - 안내: 또우리플랫폼 입금 및 사후인터뷰 독려,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또우리 10인 전활동가 1인 현활동가 3인
7/28 19:00~20:40 1층 회의실, 주차장	사회: 은희, 보조: 낙타 - 컨셉: 바다 없는 바닷가캠핑 - 아이스브레이킹: 퀴즈 젠가 - 자유로운 대화: 산vs바다 토론 - 체험/선물: 텐트, 캠핑의자, 야광팔찌, 불꽃놀이, 불멍과 마시멜로우 구워먹기, 2023 글쓰기 문집, 시타 후원 화장품, 또우리모임VIP초대권 - 안내: 9월 물품지원 아이디어 수렴, 11월 또우리모임 홍보, 또우리모임 교통비 지원 안내,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 홍보	또우리 14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0인
11/24 19:00~20:30 이안철마을	사회: 낙타, 보조:은희 - 컨셉: 크리스마스 시상식 - 아이스브레이킹: 2023 매달 핫이슈 노트 - 자유로운 대화: (5월)선인장 잘키우기 대회 수상자와 (7월)VIP초대권 소지자 대상 포토존 시상 및 선물(화분, 공주 주얼리 세트와 겨울 담요) - 체험/선물: 2022년 타임캡슐 열기, 2023년 타임캡슐 만들기, 크리스마스 포토존, 즉석 사진 인화 - 안내: 2024년 3월 또우리모임 홍보	또우리 13인 전활동가 2인 현활동가 2인

- 긴급지원(의료, 자립관련)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절한 지원을 함.
- 사전기획회의, 평가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 및 다음 모임에 반영함.
- 또우리모임 기획에 참여자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평가설문을 두차례 독려하여 많은 또우리의 의견을 수집함.
- 초기 홍보시 지역 참여자의 교통비 지원이 가능함을 적극 홍보하여 2인의 참여자가 총 8회 교통비지원을 받음.
- 활동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전회의에서 또우리의 위시를 반영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고 매회기 컨셉을 정한 뒤 세부 활동을 구성하여 완성도를 높임.

• 평가

- 열림터에서 생활했다는 공통점만 있을 뿐, 처음 보는 얼굴도 있음에도 모임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임. 전 활동가를 포함하여 꾸준히 평균 12인의 또우리가 참여하였고 대면모임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원

할함.

- 3월 또우리모임은 전, 현황동가의 참여가 있어서 유사 명절 분위기가 나고 돈독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봄을 맞이하여 직접 만들어 선물한 꽃다발의 반응이 좋았으나 제작 시작시간이 늦어지고 예상보다 품이 많이 들어 상근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제작 시간과 품을 보다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도착하지 못한 또우리를 기다리느라 늦게 시작하여 모임 종료가 30분 지연됨. 5분 대기 후 모임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
- 5월 또우리모임에서 간단한 체험으로 선인장 키트 만들기를 진행했고 노력에 비해 결과물이 좋아 호응이 높았음. 양초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마음챙김을 주제로 이야기 나눔.
- 상반기를 기준으로 또우리모임의 절반이 진행되었으나 예산을 76% 사용함. 기획회의에서 적절히 예산을 조정하여 다양한 체험과 선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공간을 꾸미는 것 또한 일회성으로 사용하지 않고 상담소 행사에 대여하고, 활동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을 대여하며 재료를 아끼려는 노력을 함.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또우리가 늘어나는 추세로 교통비지원 또한 예산 초과함. 더 많은 또우리가 교통비에 대한 부담없이 함께 모였고 참여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좋은 전망으로 보임. 현실적으로 재료비, 교통비 증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7월 또우리모임은 그간 평가설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외컨셉을 정하였지만 모임 초반에는 날씨가 더워서 급히 선풍기를 수급하였고 외부에서 진행하여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집중도가 떨어졌음. 다행히 후반부는 시원한 날씨에 주변이 조용해져서 바다없는 바닷가 캠핑 컨셉을 즐길 수 있었음. 퇴소자가 데려오는 아기를 위해 텐트를 준비했고 아이스브레이킹에서 사용한 젠가를 장난감삼아 가지고 놀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음.
- 11월 또우리모임은 사전회의에서 체험/선물 코너에서 자이언트 안 방석만들기를 하기로 정함. 사전에 활동가가 테스트를 해보았고 예상보다 난이도가 높아 빠르게 2안으로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었음. 한 그릇 메뉴로 식사를 준비하여 메뉴 다양성은 부족했지만 남은 도시락을 가져가기에 편리했고 색다른 디저트를 준비하여 호응이 좋았음. 시상식 참여자에게 미리 사진을 받아 시상식PPT를 발표하며 참여하지 않은 퇴소자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음. 전활동가가 퇴소자의 아기를 돌봐주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음.
- 모임 후 또우리에게 후기를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게재하여 열린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알림.
- 지속적인 홍보로 또우리의 재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락이 닿지 않던 또우리 3인과 새롭게 관계를 쌓을 수 있었고 그 중 한 또우리가 후기를 선물해줌.
- 자조모임과 달리 사전기획회의 및 평가회의로 촘촘하게 기획하여 안정적인 모임운영이 되어간다는 평이 있음. 사회, 식사준비 등 업무분배를 고루 분배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움. 3, 5월 모임은 계절에 맞게 테마를 설정하였고 프로그램이 다채로워져서 소소한 재미를 기대하는 생활인이 늘고 있음.
- 노쇼를 줄이기 위해 참석의사를 밝힌 모두에게 1주일 전, 1일 전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11월에는 가장 적은 노쇼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효과적이었음.

[참여 또우리 평가]

3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 다양한 시기에 거주했던 또우리들과 어울렸던 것 - 아이스 브레이킹이요 - 다들 얘기나누는 것 - 다양한 음식, 꽃선물!!!(♥너무 좋았습니다) - 맛있는음식과 반가운선생님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려는 노력이 조았어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	- 피자가 없어서 조금 아쉽.. 피자스쿨 포테이토피자 맛있어요ㅋㅋㅋ 돌아가면서 말하는 시간은 조금 줄이고ㅋㅋㅋ 원가를 하고 갔다, 원가를 내가 만들어서 가져간

	<p>다는 느낌을 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이 뭔가 분위기를 딱딱하게만드는 위치였던거같다. 사실 분위기가 나는 나름대로 긴장이되서 화장실도 끝나고나서야 갔었다 ㄴ 좀 연말파티느낌이나 무도회장느낌이나 피크닉느낌으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간에 게임할때 참여를 피하고 싶은사람을 물어봐줬으면 좋았을것같다. 의자에앉는거 회의하는느낌이었다ㄸ뭔가 무서웠다ㄴ
이번 또우리모임때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때는 이랬다! 열림터에서 추억 이야기하기 - 다양한 게임 - 저번에 같이 오르골 만들었던게 재밌었어서 담에도 같이 무언가 만들어보는 거 해도 재밌을 거 같아요! - 근황토크는 필수인거같구 사적인이야기를 깊게 꺼내지않는 가벼운주제에 스물토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위에 쓴거처럼 또우리 때마다 계절에 맞게 컨셉을 잡아서 꾸미면좋을꺼같다! 피크닉 돛자리깔아두고 자유롭게 왔다갔다하면서 중간에 사회자님이 순서를 했으면좋겠다. 포토존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재밌게 오고 싶게만들면 좋을거같당
열림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해용 - 사랑해요 - 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긴장되서 말을잘안하는 그런걸 그랬지만 앞으로 여러번 만나면 이번에처음보던 또우리들과친해질수있을꺼같았어요 친목의 목적은아니지만 그래도 친해져서 이상할건아니라고생각이들어요 요청이많아서 죄송합니다ㄴ
5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인장 너무 귀여워요 - 만들기!!꽃나물김밥맛있었어요^^ - 자유로운 분위기 - 음식과 대화주제 모두 좋았어요! - 사소하긴 한데 반가운 얼굴 오랜만에 본 거? - 테라리움 만들기 - 다 같이 선인장을 만드는 시간을 가진 것이 좋았습니다. 새로웠어요. - 감경카드 이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방식이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좋았습니다. 식물 만들기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화났던 일, 해결방안 이야기 하는게 각자의 고민이나 힘들었던 얘기도 듣고 공감할 수 있는 자리라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는 자리가 좋아요.
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애가 너무 신난거.. - 모임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매번 근황토크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겠지요?ㅋㅋㅋ 딱히 서로의 근황에 관심이 있을까 싶어서.. 근황토크 할 때는 분위기가 넘 어색해서 민망합니다ㅋㅋ (저만 그런 것일수도)
이번 또우리모임때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엔 화났을때이야기를했는데 다음에는 최근좋았던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 중간에 자유 시간 주세요 - 날 좋을 때 근처 공원에서 피크닉 컨셉으로 해도 좋을거 같아요! 게임 한다고 공지를 봐서 무슨 게임일까, 궁금했는데 대신 테라리움 만들어서 재밌었어요 ㅎㅎ - 1년마다 하는 짧은 타임캡슐 같은거? - 이번처럼 간단한 만들기 활동 좋을 것 같아요! - 열림터를 퇴소하고 특별히 힘들었던 점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이야기 하셨던 분에게 힘이 되도록 응

	<p>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을 나눠서 보드게임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요..? 바닥에 돛자리 깔고ㅋㅋㅋ 아님 낄씨 좋을 때 아예 망원한강공원이나 선유도공원같은 곳에 가서 돛자리 깔고 라면 먹고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ㅋㅋ대화 주제로 각자의 자취꿀팁이나 리빙포인트 같은 거 나눠도 좋겠습니다!
<p>열린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재미있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항상감사합니다!모두모두 감사드려여ㅁㅁ 사실 어제가 또우린출알고 못갓다하면서 슬퍼하고있었는데 오늘이라해서 3시간만 자구 왔어요! 은희쌤 안 안아줬어여ㅠㅜ -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전에 한 번은 같이 지냈던 사람들끼리만 너무 가까이 대화하는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어요,, 이번엔 다들 막 친해진 않지만, 또 너무 멀지 않은 거리감으로 터놓고 솔직한 대화를 나눌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 또 만나요. -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 힘들 때, 머무르게 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싶어요. 재팬이 끝나고 들어가서 많이 정신 없었는데, 선생님들과 저보다 먼저 들어와있던 생활인들이 적응할 수 있게 정말 잘 도와주었습니다. 퇴소하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열린터에 있었던 기억과 보호받았던 느낌으로 잘 견디고 있습니다. 열린터는 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장소였어요! - 늘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7월	
<p>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에서 캠프식으로 진행해서 해가 지고 난 뒤 예뻐보였습니다! 피자도 너무 맛있었어요. 어렵지 않은 주제로 대화를 나눠서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 캠핑 컨셉 만들어주신 것!! - 캠프스러운 분위기 - 다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 야광팔찌 너무 좋았어요 -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나누는거. 캠핑컨셉. 맛난음식. - 솜사탕.. 그리고 다양해진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의자..? - 의자가 포근했어요 ㅎㅎ - 컨셉도 재밌었고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 컨셉을 정해서 예쁘게 꾸며놓고 초대해주신 것! - 대화 주제도 통일된 느낌이고, 여름 휴가 같이 떠난 것 같아 더 즐거웠습니다 ㅎㅎ
<p>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ㅠ - 캠핑 컨셉 좋았는데 밖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쳐다봐서 신경이 많이 쓰임.. 그리고 더웠습니달ㅋㅋㅋㅋ - 저번처럼 만들거나 체험활동 같은 것들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 산이 싫어졌어요 - 더위에 약한 사람들은 힘들었을것 같아요. 저는 모기랑 벌레때문에 야외를 별로 안좋아해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ㅠㅜ - 저번처럼 만들거나 체험활동 같은 것들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 불명 + 마시멜로, 불꽃놀이, 준비하신걸 다 못 쓴게 아쉬웠어요 ㅠㅜ 신경 많이 쓰셨는데 다같이 못해서 아쉬웠습니당ㅠ
<p>이번 또우리모임때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원한 데에서 해용 - 오늘 산 바다 다른 분들 얘기하는거 너무 재밌었어요ㅋㅋㅋ 밸런스게임 하면서 다같이 얘기해도 재밌겠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IY나 게임 등 활동들 -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에 대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 생존방법 - 겨울에 모이니까.. 크리스마스는 한참 멀었지만 선물 포장해서 와서 랜덤으로 돌리기? - 언젠가 나중에 야외 당일치기로 놀러가고 싶어요. 전시회, 캠핑이나 소풍, LP 카페 같은거요. 모임에 참여해보니 생각보다 다들 연령대가 낮고 어려서 젊을 때 여러 경험을 해보는게 좋다 싶어서요 ㅎㅎ - 본인 감정, 현재 고민 이런 것보단 공통적으로 대화할수 있는 오늘 같은 주제가 편하게 얘기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 감정이나 고민이라고 해도 하나를 정해서 얘기를 나누는 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ex. 최근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뭔지, 혹시 집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등등)
<p>열린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합니당 불꽃놀이도 재밌었어요 -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당 - 항상 감사합니다 - 언제나 감사합니당! - 이번 모임도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 항상 따뜻한 친정처럼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잘 놀다 갑니당.. - 이렇게 잊지않고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유리창문에 붙여진 후원내역에 제이름이 있는것도 감동이에요. 20대 초반에 했던건데 아직까지 기억하시다니.. ㅎㅎ 다음에도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 이번 또우리모임도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 이번 모임 제겐 또 하나의 즐거운 추억이 되거 같아요~ - 나중에 함께 진짜 휴가 즐기러 가면 좋겠습니다 - 감사해요!
11월	
<p>이번 또우리모임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 참여 해봐서 그냥 모든게 새롭고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 꾸준히 참여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많은사람들을 만나는 것 - 마카롱 - 타임캡슐 아주 뜻깊고 행복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열어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레네요~ 1년동안 캡슐에 대해 잊고있다가 나타나야 더 재미있는 법이니! 앞으로의 1년 아주 알차고 바쁘고 즐겁게 즐겨보겠습니다^^* - 이번 한해의 월마다 임팩트 있는일 쓰기 - 타임캡슐 - 땅콩본거!입니당 그리고 먹을거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ㄸㄸ - 타임캡슐! - 크리스마스 데코, 배경음악
<p>이번 또우리모임에서 좀 아쉬웠던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찍 집에 와서 끝까지 같이 못했다는점.. - 가볍게 다목적으로 게임하면 좋았을고 같아요~ - 지각해버린 나 - 늘 모임시간이 아쉬워요ㅠㅠ 더 오래 보고싶은 마음... 모두 다 친해져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연결되어있으니 ㅎㅎ - 맥주 먹고싶어여... ㅋㅋㅋㅋ - 타임캡슐에 글 적는 종이 작아서 아쉬웠어요
<p>이번 또우리모임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떤 주제든 또우리가 함께한다면 뭐든 좋을거 같습니다

<p>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볍게 서로 알아가는 게임? 간단한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봄이니... 벚꽃이나 꽃에 관련한 이벤트면 즐거울거 같아요 ㅎㅎ 춤지 않다면 밖에서 따뜻한 봄바람 맞아도 좋구요~ - 쌤들하고.. 짧게 고민상담할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 다 재밌어서 좋아요~! - 내가 원하는 삶의방향 말하기! 스스로 삶을 재정비하는데 다른사람 의견도 들으면 서로 좋을거같아요 - 현재까지 성장한 점, 앞으로 성장하고 싶은 점, 정신적으로 힘들때 극복하는 방법
<p>열린터에 하고 싶은말? (혹시 있다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 또우리 모임 준비하시고 참여해주신 모든 쌤들 고생하셨습니다당. 또 배요~~ 일찍 가서 너무 아쉬워요ㅠㅠ - 또우리모임 뿐만이 아닌 많은 행사하면 좋겠어욤~~ - 감사합니다 - 언제나 늘 즐거운 기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저♥ - 열린터 퇴소 이후에도 또우리 모임 만들어주셔서 - 삶이 많이 지쳐있는데 한해중에 가장 행복한 기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 - 또우리 모임에 정말 자주 참석하는데요. 같은 시기에 입소한 사람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같은 공간, 다른 추억과 기억들을 공유 하는것에 항상 즐겁고 다양한 사람들을 볼수 있어서 더 좋은것 같아요. - 또우리 모임 더 자주 열어주세요 ㅎㅎㅎ - 항상 감사합니당!!! -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 이번해 보낸 시간중에 쫌 좋았어요 ㅠㅠ - 항상 감사합니다. - (모임 불참, 우편으로 타임캡슐 받은 또우리) 타임캡슐 받아보았는데 제가 이런 걸 처음 해봐서 그런지 굉장하더라고요! 뭔가.. 작년의 내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저런 말을 나한테 하고 싶었구나.. 편지를 보는 내내 새롭고 즐거웠습니다. 다른사람한테 편지 받는 기분이 들어서 묘하기도 했어요.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4-3. 퇴소자지원기금 “또우리폴짝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 열린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피해를 경험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지원의 부재는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개인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함.
 - 또우리들이 경험하는 자립 과정의 불안정성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또우리들의 경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함.
 -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심터 퇴소생활인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 열린터 연간 후원금액의 약 10%(총 500만원)을 기금 예산으로 설정.
 - 열린터 퇴소생활인들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 1회 지원선정 시 이듬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최대 2회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자

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 당해연도 풀짜기금참여자 발표 이후 사전 인터뷰를 1회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또우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또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외화하고,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생활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일정

일시	진행	비고
4월	- 홍보 및 모집	
5월 중순	- 지원대상 발표 - 풀짜기금참여자 사전인터뷰	개별 진행
6월 ~ 10월	- 풀짜기금 사용기간	참여자와 상시 소통
11월	- 풀짜기금참여자 평가모임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

- 담당자 : 낙타, 은희
- 기대효과 :
 - 퇴소 이후에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사회적 지지처의 역할을 하며, 또우리들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구축함.
 - 또우리들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함.
 - 집단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금 참여 또우리끼리 역량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 시설퇴소생활인지원의 필요를 수집하고 선례를 만들어 퇴소자지원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함.
- 진행내용

일자	진행내용
3월	- 3/24 또우리모임을 통해 풀짜기금 안내
4월	- 4/1 홈페이지, 블로그, 또우리 단톡공지방, SNS를 통해 풀짜기금 프로젝트 홍보 및 참여자 모집 - 5/17-18 신청 대상 또우리 문자 연락을 통해 풀짜기금 참여 독려. - 5/2 총 15명 신청하여 마감.
5월	- 5/11 프로젝트 참여자 15인 발표 - 5/12~6/2 참여 또우리 15인과 개별 사전인터뷰 (1인은 개인사정으로 6월 초 진행)
6월	- 기금 지급 - 사전인터뷰 온라인 발행

발행일	인터뷰 제목
06/22	"해보면 좋지 않을까"-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한 힐링 여행을 계획한 에리
07/07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믿음"-계획적인 진주
07/26	"이 계획도 도전이에요. 혼자 살아야 하니까 혼자 한번 해보자" 도전하는 보라
08/28	다시 행복을 찾으러 떠나는 온이
09/07	"아우, 저 진짜 멋진 사람 되면 어떡하죠?!" 빛나는 정은
09/22	"혼자만의 방" 외롭지만 혼자만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고 있는 멋쟁이 구구
09/26	무엇이든 열심히 만두 "이제는 좀 내려놓자"
09/29	데굴데굴 굴러가는 직장인 정이가 열심히 굴러가고 있습니다.
10/07	더욱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제이, 이번에는 캐나다에 가요!
11/21	뭐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경
11/21	자신을 인정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찾은 마미
11/21	자신의 속도대로 살고 싶은 유유
12/04	성폭력 피해가 약점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싶은 은서
12/04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율, 이번에는 수영을 도전해요!
6~10월	기금 사용
11월	평가인터뷰 대면/서면

- 4/30 까지 총 13명 신청하였고, 신청대상 또우리를 독려하여 마감을 5/2로 연장함.
- 15인 중 14인은 5월 내로 사전인터뷰를 완료하였지만, 1인은 개인사정으로 6월 초에 사전인터뷰 진행 하게 됨. 프로젝트 원칙상 인터뷰 진행 후 기금 이체가 가능함을 알렸고, 인터뷰 후 이체함.
- 연락 두절된 1인의 사전인터뷰는 연락이 닿는 대로 본인 검토 후 온라인 업로드 예정임.
- 또우리폴짝기금 최초 해외 퇴소자가 참여함. 메시지, 메일 등으로 소통하여 원활히 진행함.
- [폴짝기금 재신청 통계]

년	참여자	재신청률 (2회)
2020	7인	
2021	10인	
2022	15인	71%
2023	15인	80%

* 2020년 신청했던 또우리가 2023년에 신청하는 경우는 없었음. 즉, 재신청을 원하는 이는 격년을 넘기지 않고 꼬박꼬박 신청함을 알 수 있음.

• 평가

- 4년째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며 신청자 수가 약 15명 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최초 사업진행에 비해 참여자가 급증하였고 사전인터뷰 등 공을 들인 만큼 참여자 평가가 긍정적이었음. 5주년을 앞두고 프로젝트의 평가하며 추후 진행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홍보로 또우리폴짝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신청에 주저함을 느꼈던 또우리들도 마음을 열고 신청함. 온라인에 활발히 홍보하였고 게재된 사전인터뷰를 보고 새롭게 연결된 또우리도 있었음.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열림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임.
- 1인당 평생 두 번만 참여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으며 2022년 두번째 참여자는 5명으로 재신청률은 71%, 2023년 두 번째 참여자는 8명으로 재신청률이 80%에 달함.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또우리폴짝기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또우리 3인과 새롭게 관계를 쌓을 수 있었음.
- 또우리폴짝기금에 대한 후원자의 관심이 증가하여 열림터가 자체적으로 퇴소자지원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으며 일상회복향상에 도움을 줌.
- 평가인터뷰에서 예시가 적고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1개월 홍보, 1개월 신청, 사용기간

은 5개월이며 포스터, 안내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되지 않았다거나 신청자체를 어려워한 경위로 보아 자신감이 낮은 경우 나타나는 평가로 보임. 이 경우 사전인터뷰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보기로 함. 영수증 실물을 제출하는 것이 힘들다는 평이 있으나 증빙 회계에 반드시 필요하며 사회훈련의 차원으로 연습하는 간소한 절차를 갖춘 사업과 유사한 증빙절차이기도 하여 매번 사용시 사진으로 보내되 실물을 제출하도록 독려하기로 함.

- 또우리간의 갈등상황이 모임, 평가자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움. 또우리사업에 새로운 참여자가 증가하는 상태에서 또우리 간 관계는 계속해서 바뀌며 담당활동가의 변경으로 모든 또우리가 만족하는 구성원과 만나는 것은 한계임을 상호간에 알 필요가 있음.
- 사전인터뷰시 식서비스가 발생하여 회의비가 초과되었으며 추후 계획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4-4. 또우리 의료비 지원

- 배경/필요성 : - 열림터는 성폭력피해자치료비와 시설의료급여를 통해 입소생활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퇴소 후에도 의료비 지원의 필요를 말하는 퇴소생활인의 요청이 두드러짐. - 특히 열림터 생활인들은 가족의 자원이나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가 많음. 적절한 심리적 지원과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건강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목표 : 심리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또우리를 발굴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입소 중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지속한 경우, 퇴소 직후 3개월 동안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고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
 - 또우리모임, 또우리플랫폼, 개별 퇴소자 면담 등을 통해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비 지원의 필요가 확인된 또우리에게 의료비 지원을 안내.
 - 의료비 지원은 주로 심리상담(인당 12회기 한도, 필요시 논의 후 연장)과 정신과 진료·약제비로 제한을 두되, 필요할 경우 종합심리검사 비용도 지원.
- 담당자 : 수수
- 기대효과 : 또우리의 심리적 의료지원을 지속하고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에 노력함
- 진행내용:

분류	기간	지원내용	건수
A (퇴소 1년 경과)	22.10~23.5	심리상담	20회기
B (퇴소 직후)	22.12~1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 및 약제비	1회기, 1회
C (퇴소 1년 경과)	22.12~23.3	심리상담	10회기
D (퇴소 1년 경과)	22.12	정신과 진료 및 심리평가	1회
E (퇴소 직후)	23.1~23.3	심리상담	8회기
F (퇴소 직후)	23.2~3	정신과 진료 및 약제비	3회
G (퇴소 1년 경과)	22.11~23.3	심리상담	9회기
H (퇴소 직후)	23.9~23.11	정신과 진료 및 약제비	4회
I (퇴소 직후)	23.10~23.12	심리상담	11회기

- 총 9명의 의료비 지원함. (5명 - 퇴소 후 3개월 지원 / 4명 - 퇴소 만 1년 경과 또우리로 심리상담 및 심리평가비용 지원)
- 퇴소하지 만 1년이 경과한 또우리 중 심리상담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10회기의 상담비를 지원하 되, 상담사와 소통 후 추가 회기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추가 지원하였음.
- 평가:
 - 열림터 또우리들의 대부분이 심리상담을 원하는지라, 사업이 공개하지 않고 사례를 발굴해서 필요한 사

람에게 지원함. 입소 당시 500만원의 성폭력피해자의료비 지원을 소진했으며, 가족의 지원이 없거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또우리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음.

-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르면 500만원의 성폭력피해자의료비(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추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함. 현재 어떤 또우리는 자부담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고, 어떤 또우리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안내하는 상황이라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퇴소 생활인들의 심리상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고 요구할지 고민이 필요함.

2023년 상담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 동안 총 90,700회의 상담을 해왔다. 2023년 전체상담은 1,349건(608명)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1건(557명)으로 전체상담명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5.7%이다. 상담소는 상담 지원의 내실화를 목표로 초기 상담의 질을 높이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담명수(A,B)가 201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다소 증가했다.

기존의 상담통계는 상담통계의 단위를 횡수/건수로 표기하였지만, 2022년 상담통계부터는 쉽게 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인원을 '명수'로 중복되는 지속상담을 포함한 상담횡수를 '건수'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또한 상담 변화 추세에 따라 지속 상담을 포함한 건수 파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정 방식을 추가하였고, 성폭력상담명수(B)의 괄호 안에 초기상담과 지속상담인원을 포함한 한해 전체 상담명수를 추가로 기재했다.

〈표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도	상담건수	상담명수(A)	성폭력상담명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2020	1,324	779(844)	715(780)	91.8
2021	1,415	595(701)	537(639)	90.3
2022	1,387	537(622)	478(562)	89.0
2023	1,349	608(707)	557(655)	91.6
총	90,700	59,354	50,127	84.4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89.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8.6%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상담 전체 명수 557명 중 497명(89.2%)이 여성 피해자로 나타났다. 나머지 10.8% 중 남성 피해자는 8.6%이고, 피해자의 성별을 밝히지 않은 상담(미상)은 2%를 차지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366명(65.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와 비교해 성인여성(2022년 64.0% → 2023년 65.7%), 여성 청소년(2022년 8.2% → 2023년 8.4%)의 비율이 약간 늘었고 여성 어린이(2022년 9.2% → 2023년 7.5%) 피해자의 비율이 다소 줄었다. 남성피해자의 경우 (2021년 5.2% → 2022년 6.9% → 2023년 8.6%)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2 (0.4)	366 (65.7)	47 (8.4)	42 (7.5)	18 (3.2)	22 (3.9)	497 (89.2)
남	0 (0.0)	34 (6.1)	7 (1.3)	3 (0.5)	0 (0.0)	4 (0.7)	48 (8.6)
기타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1 (0.2)
미상	0 (0.0)	4 (0.7)	1 (0.2)	1 (0.2)	0 (0.0)	5 (0.9)	11 (2.0)
총계	2 (0.4)	405 (72.7)	55 (9.9)	46 (8.3)	18 (3.2)	31 (5.6)	557 (10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84.4%가 남성, 이중 성인은 67.1%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557명 중 470명(84.4%)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374명(6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가해자의 성별이 파악되지 않은 성별 미상의 비율이 11.8%(66명)로 높게 집계되었다.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연령대 성별	고령 (65세이상)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0 (0.0)	17 (3.1)	0 (0.0)	1 (0.2)	0 (0.0)	1 (0.2)	19 (3.4)
남	14 (2.5)	374 (67.1)	33 (5.9)	15 (2.7)	0 (0.0)	34 (6.1)	470 (84.4)
기타	0 (0.0)	2 (0.4)	0 (0.0)	0 (0.0)	0 (0.0)	0 (0.0)	2 (0.4)
미상	0 (0.0)	18 (3.2)	0 (0.0)	1 (0.2)	0 (0.0)	47 (8.4)	66 (11.8)
총계	14 (2.5)	411 (73.8)	33 (5.9)	17 (3.1)	0 (0.0)	82 (14.7)	557 (10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 전체 상담 중 70.4%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28.5%가 대리인 상담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명수는 557명 중 392명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명수는 15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예년과 비교하여 피해자 본인(2022년 69.5% → 2023년 70.4%)의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대리인(2022년 29.3% → 2023년 28.5%)로 소폭 감소했다. 대리인 상담은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명수가 91명(16.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중은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70%대에 진입했다. 이는 본인이 스스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상담소를 찾아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명(%)〉

본인	대리인 159(28.5%)								본인/대리인 (동석)	미상	전체상담 명수
	가족 · 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 · 친구	직장	학교 · 학원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회 단체	기타			
392 (70.4)	91 (16.3)	8 (1.4)	7 (1.3)	17 (3.1)	13 (2.3)	13 (2.3)	2 (0.4)	8 (1.4)	6 (1.1)	0 (0.0)	557 (100.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37.5% 강제추행, 강간은 33.9%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이 209명(3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간이 189명(33.9%)으로 나타났다. 강제추행 피해의 경우, 2021년 35.9%, 2022년 36.8%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성희롱 56명(10.1%)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성인(20세 이상)과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의 비율보다 강제추행 비율이 높았고, 청소년(19세-14세)의 경우에는 강간의 비율이 높았다.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총계	
		고령 (65세이상)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이하)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0 (0.0)	1 (0.2)	0 (0.0)	0 (0.0)	0 (0.0)	1 (0.2)	2 (0.4)	189 (33.9)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2)	84 (15.1)	18 (3.2)	16 (2.9)	11 (2.0)	5 (0.9)	135 (24.2)	
	준강간	0 (0.0)	29 (5.2)	2 (0.4)	0 (0.0)	0 (0.0)	1 (0.2)	32 (5.7)	
	강간미수	0 (0.0)	20 (3.6)	0 (0.0)	0 (0.0)	0 (0.0)	0 (0.0)	20 (3.6)	
강제 추행	강제추행	1 (0.2)	142 (25.5)	16 (2.9)	26 (4.7)	7 (1.3)	6 (1.1)	198 (35.5)	209 (37.5)
	준강제 추행	0 (0.0)	9 (1.6)	1 (0.2)	0 (0.0)	0 (0.0)	1 (0.2)	11 (2.0)	
성희롱		0 (0.0)	48 (8.6)	5 (0.9)	0 (0.0)	0 (0.0)	3 (0.5)	56 (10.1)	
통신매체이용음란		0 (0.0)	9 (1.6)	2 (0.4)	0 (0.0)	0 (0.0)	2 (0.4)	13 (2.3)	
카메라이용촬영		0 (0.0)	25 (4.5)	4 (0.7)	0 (0.0)	0 (0.0)	2 (0.4)	31 (5.6)	
스토킹		0 (0.0)	19 (3.4)	0 (0.0)	0 (0.0)	0 (0.0)	1 (0.2)	20 (3.6)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1 (0.2)	
미상		0 (0.0)	18 (3.2)	7 (1.3)	4 (0.7)	0 (0.0)	9 (1.6)	38 (6.8)	
총계		2 (0.4)	405 (72.7)	55 (9.9)	46 (8.3)	18 (3.2)	31 (5.6)	557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20세 이상)가 전체의 73.8%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20세 이상) 가해자가 411명으로 전체의 73.8%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청소년(19세-14세) 가해자 33명(5.9%), 어린이(13세-8세) 17명(3.1%), 고령(65세 이상) 가해자 14명(2.5%), 순이다.

〈표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명(%)〉

피해유형		가해자 연령						총계	
		고령 (65세이상)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이하)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0 (0.0)	1 (0.2)	0 (0.0)	0 (0.0)	0 (0.0)	1 (0.2)	2 (0.4)	189 (33.9)
	강간 (유사강간포함)	2 (0.4)	98 (17.6)	12 (2.2)	3 (0.5)	0 (0.0)	20 (3.6)	135 (24.2)	
	준강간	0 (0.0)	28 (5.0)	0 (0.0)	0 (0.0)	0 (0.0)	4 (0.7)	32 (5.7)	
	강간미수	1 (0.2)	18 (3.2)	0 (0.0)	0 (0.0)	0 (0.0)	1 (0.2)	20 (3.6)	
강제 추행	강제추행	5 (0.9)	154 (27.6)	16 (2.9)	13 (2.3)	0 (0.0)	10 (1.8)	198 (35.5)	176 (37.5)
	준강제 추행	0 (0.0)	10 (1.8)	0 (0.0)	0 (0.0)	0 (0.0)	1 (0.2)	11 (2.0)	
성희롱		5 (0.9)	40 (7.2)	3 (0.5)	0 (0.0)	0 (0.0)	8 (1.4)	56 (10.1)	
통신매체이용음란		1 (0.2)	7 (1.3)	1 (0.2)	1 (0.2)	0 (0.0)	3 (0.5)	13 (2.3)	
카메라이용촬영		0 (0.0)	21 (3.8)	1 (0.2)	0 (0.0)	0 (0.0)	9 (1.6)	31 (5.6)	
스토킹		0 (0.0)	17 (3.1)	0 (0.0)	0 (0.0)	0 (0.0)	3 (0.5)	20 (3.6)	
성적목적용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0 (0.0)	0 (0.0)	0 (0.0)	0 (0.0)	0 (0.0)	1 (0.2)	1 (0.2)	
미상		0 (0.0)	17 (3.1)	0 (0.0)	0 (0.0)	0 (0.0)	21 (3.8)	38 (6.8)	
총계		14 (2.5)	411 (73.8)	33 (5.9)	17 (3.1)	0 (0.0)	82 (14.7)	557 (10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4.3%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70명(84.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20세 이상)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35명(24.2%)으로 성인 피해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51명(9.2%)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19세-14세)은 학교에서 만난 관계에 의한 피해가 13명(2.3%)으로 가장 높았다. 어린이(13세-8세)와 유아(7세 이하)의 경우 각각 31명(50.8%), 13명

(21.3%)이 친족에 의한 피해로 상담하였으며, 2023년 친족성폭력으로 상담한 61명 중 44명 즉 72.1%가 13세 이하의 유아동 피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에 8.3%였던 친족 성폭력은 2021년에는 14.2%로 증가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에 11.0%로 여전히 10%대를 유지하는 결과를 보인다.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미상의 경우 51명(9.2%)으로 예년 58명(12.1%)에 비해 약 2.9% 감소했다.

<표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유형 연령	아는 사람 470(84.3)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73(13.1)		직장	친밀한 관계	온라인	아웃 사촌	서비 스 제공 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 인의 지인	동호 회	기타			
	친족	친족 외 인척													
2021년	76 (14.2)	9 (1.7)	138 (25.7)	55 (10.2)	29 (5.4)	45 (8.4)	19 (3.5)	34 (6.3)	17 (3.2)	18 (3.4)	10 (1.9)	2 (0.4)	40 (7.4)	45 (8.4)	537 (100.0)
2022년	58 (12.1)	4 (0.8)	105 (22.0)	40 (8.4)	25 (5.2)	44 (9.2)	20 (4.2)	34 (7.1)	15 (3.1)	22 (4.6)	14 (2.9)	11 (2.3)	28 (5.9)	58 (12.1)	478 (100.0)
2023년	61 (11.0)	12 (2.2)	135 (24.2)	56 (10.1)	23 (4.1)	57 (10.2)	23 (4.1)	42 (7.5)	22 (3.9)	21 (3.8)	8 (1.4)	10 (1.8)	36 (6.5)	51 (9.2)	557 (100.0)
고령 (65세 이상)	0 (0.0)	0 (0.0)	0 (0.0)	1 (0.2)	0 (0.0)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2 (0.4)
성인 (20세 이상)	11 (2.0)	8 (1.4)	135 (24.2)	51 (9.2)	16 (2.9)	44 (7.9)	15 (2.7)	26 (4.7)	11 (2.0)	17 (3.1)	8 (1.4)	8 (1.4)	31 (5.6)	23 (4.1)	404 (72.5)
청소년 (19세-14 세)	6 (1.1)	2 (0.4)	0 (0.0)	4 (0.7)	5 (0.9)	5 (0.9)	2 (0.4)	13 (2.3)	7 (1.3)	1 (0.2)	0 (0.0)	1 (0.2)	2 (0.4)	7 (1.3)	55 (9.9)
어린이 (13세-8세)	31 (5.6)	0 (0.0)	0 (0.0)	0 (0.0)	0 (0.0)	6 (1.1)	1 (0.2)	3 (0.5)	3 (0.5)	0 (0.0)	0 (0.0)	0 (0.0)	0 (0.0)	2 (0.4)	46 (8.3)
유아 (7세 이하)	13 (2.3)	0 (0.0)	0 (0.0)	0 (0.0)	0 (0.0)	1 (0.2)	1 (0.2)	0 (0.0)	1 (0.2)	0 (0.0)	0 (0.0)	0 (0.0)	2 (0.4)	0 (0.0)	18 (3.2)
미상	0 (0.0)	2 (0.4)	0 (0.0)	0 (0.0)	2 (0.4)	1 (0.2)	3 (0.5)	0 (0.0)	0 (0.0)	3 (0.5)	0 (0.0)	1 (0.2)	1 (0.2)	19 (3.4)	32 (5.7)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23년 한 해 동안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지속 지원 상담을 포함한 성폭력상담건수(1,291건)를 기준으로 중복집계한 지원 건수는 총 2,132건이다. 이 중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이 74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두 번째로 심리정서적 지원이 688건(32.3%)로 많았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담이나 면접상담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세 번째로 많은 지원은 법적지원으로써 482건(22.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의료지원,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기관연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법적지원은 월요법률상담을 비롯한 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기록 제출 등 사건지원과 연관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법적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은 고용노동부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내 신고 등의 지원을 나타낸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원이며, 기관연계는 좀 더 긴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자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타 기관을 본 상담소에서 직접 연계 의뢰한 경우이다. 기타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안내, 개인적 합의를 위한 상담 등을 나타낸다.

〈표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법적 지원	법적 지원 외 공식적 대응지원	의료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원 의견개진	심리·정서 지원	기관연계		공문화 지원	기타	전체 지원수
		의료 기관 연계·동행	의료비 지원 관련 상담	의료 기관 연계			쉼터	유관 기관			
482 (22.6)	27 (1.3)	0 (0.0)	124 (5.8)	24 (1.1)	743 (34.8)	688 (32.3)	4	8	5 (0.2)	27 (1.3)	2,132 (100.0)
		148 (6.9)					12 (0.6)				

인권침해대응 및 평등문화 증진 활동 보고

○ 동료상담원 활동 보고

작성일	2024-01-18	활동기간	2023-02-01 - 2024-01-31	
동료상담원	신아, 파랑	상담건수	19건/ 19회	
상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소 조직문화’를 주제로 모든 활동가들을 개별 면담 하고 활동가들의 경험 및 생각을 정리하여 공유함(18건, 18회) 	지원 내용	경청, 조직에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조직 내 갈등 사안과 연결된 안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의 태도가 문제적이라고 느껴져 상담을 요청함(1건, 1회) 	지원 내용	경청	
활동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료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두를 개별 면담하고 조직문화에 대한 동료들의 생각을 익명화된 자료 형태로 공유함. 공식적인 발언 공간에서 잘 말하지 않는 동료들의 이야기, 연차 및 경험 별로 상이한 생각과 경험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음. 조직 내 갈등 안건 논의 및 조직 문화 워크숍 준비 및 진행에 동료상담원 1인이 함께하여 조직 문화 개선 활동 전반에 대해 책임감 있게 참여하며 역할을 수행하였음. 연초 계획했던 갈등 해결 역량강화교육은 조직문화 관련 안건 논의가 계속되면서 진행하지 못하였음. 			
조직에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동안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그에 비해 결과에 대한 이행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는 인권침해규정 개정을 비롯한 과제들을 이행해 가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의 실무가 담당자/팀에만 과중해지지 않도록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난 조직문화워크숍에서 논의할 때 서로 다른 판단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가 부족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담소에 필요한 것으로 ‘신뢰의 회복’이 소진, 상처, 돌봄의 키워드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인권침해규정과 같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2024년에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자리들을 통해 인정과 이해에 기반한 소통과 신뢰의 회복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동료상담원 인터뷰를 통해 잘 드러나지 않는 의견과 관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회의가 되지 않도록 말하는 이, 듣는 이의 태도, 정보의 차이, 속기 관행 등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2023년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많이 개진하는 동료의 용기도 필요하겠습니다.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전체 14권

발행월	제목
	자료집
2월	2023년 32차 정기총회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료집
7월	[열린터문집]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
7월	[2023]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7월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10월	성인지감수성 그후, 성폭력 판결 토크아보기 :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10월	[이슈대응 집담회]우울증이 덜어 되지 않으려면
11월	2023 '여성'의 삶으로 재구성하는 성적 권리, 적극적 합의 결과공유회 후속 자료집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 친밀한 관계에서의 여성들의 성적 경험을 중심으로>
12월	토론회 <형사공탁 특례제도 시행 1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의 목소리>
12월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자료집
12월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간담회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식지
3월	나눔터 91호
8월	나눔터 92호
	기타
2월	'강간죄' 개정 홍보물 <폭행 협박' 박살내고 가자, 동의여부로>
7월	비동의강간죄 LGBTQ+ 권리버전 Q&A

전체 57건 (전년 60건)

카테고리	월	일	제목
상담소는 지금 (44건)	1	27	[기자회견] [후기] 모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장연의 지하철행동 지지한다! 전 장연에 대한 탄압 중단과 장애인권리예산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1	27	[후기]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 장애인권리입법 예산 쟁취를 위한 전국 집중결의대회
	1	31	[후기] '연론계 첫 미투' 2심 선고 공판 참여 후기
	2	6	[후기]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제32차 정기총회 후기
	2	10	[성명] 1582번의 수요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 제158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	27	[후기] 2023년 02월 08일 1582번째 수요일
	2	28	[기자회견] [후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가해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2	28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
	3	2	[후기] 17기 씨타-경희 NGO 인턴십 _ 연
	3	2	[후기] 17기 씨타-경희 NGO 인턴십 _ 모자
	3	2	[후기] 2/10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여군 성폭력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
	4	21	[후기] 4월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 후기① - 기쁨도 저항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쓰기
	4	27	[후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4	27	[후기]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후기
	5	24	[이달의 리뷰] 성적 동의와 남성 특권
	5	31	[후기] 성소수자운동 30년: 열정을 잇는 우리들,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 - 2023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투쟁대회 후기
	5	31	[후기]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5	31	[대화록] 가정의 달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해결을 여는 고민 나누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
	5	31	[기고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공폐단단을 소개합니다!
	5	31	[후기] 균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변화는 멈

카테고리	월	일	제목
			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5	31	[후기]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5	31	[후기]윤석열 정부 지난 1년, 여성정책 돌아보기
	6	26	[후기] 성인지감수성 그 후, 성폭력 판결 토크아보기: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6	28	[후기] 도너스 콜라보레이트 2023 참여 후기: 커다란 변화 속, 비영리의 '경계 넘기'
	6	30	[후기]유산유도제 도입을 향한 우리의 액션은 계속된다!!
	7	1	[후기] <이슈대응 집담회> '우울증'이 덜어 되지 않으려면 : 우울증 갤러리 함께 이야기하며 연대의 그물망 짜기
	7	12	[후기] NO 금서, YES 필독서!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릴레이 성평등 책담회
	7	18	[이달의 리뷰] 법에 간하지 않고 법개정 운동하기 : 한국성폭력상담소X반성매매 인권행동 이룸 <불처벌> 간담회
	7	25	[후기] 2023 퀴어문화축제에서 외치다, <가자, 동의여부로!>
	7	31	[후기]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교육생들의 따끈따끈 후기!
	8	1	[후기] ✨ 중간간 사건의 법적 사각지대를 찾아서 ✨: '가장 보통의 중간간 사건' 토론회
	8	1	[후기/리뷰] 콘텐츠로 만나는 퀴어!
	8	1	[후기]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날까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연속 간담회 1차
	8	25	[후기]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 전략 찾기 연속 간담회 2차
	8	30	[후기]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 방지국가 규탄 긴급행동: 장갑차-여성안심-호신용품 말고 '성평등'!
	9	1	[후기] 안전하게 임신중지할 권리를 위해-복지부와 식약처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책임 방기로 야기된 권리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9	4	[후기] <페미본색> 그날의 생생한 스케치!
	9	4	[후기] 공간으로부터_한국성폭력상담소 2023 후원의밤 <페미본색>에 다녀와서
	9	27	[기자회견]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0	1	[이달의 리뷰] 수치심과 정의
	10	3	[후기] #유해도서_아니고_필독도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 보장하라!
	10	30	[뒤늦은 리뷰] '동의'를 의제화 하기- 현재와 고민
	10	30	[후기] "망국정치에 맞서는 페미니스트 릴레이 말하기대회"에서 상담소 활동가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11	28	[후기]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좋지 아니한가 : '정상가족' 바깥

카테고리	월	일	제목
			의 우리들, 연결되자!>
시골시골 상담소 (13건)	1	20	[후기] 회원소모임 "페미니스트 아무말대잔치" 1월 모임
	1	25	[후기] 연대의 마음에 국경은 없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후원자와의 만남
	1	31	[후기] 2022년 나의 소소하고 위대한 성취자랑대회 후기
	2	28	[후기] 2023년 로스쿨 공익법무실습 - 페미니스트 자아를 가지고 산다면 무조건 언제든 다시 만나게 될!
	3	2	[후기] "형사공탁 특례제도 : 성폭력 사건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교육
	3	29	[후기] "반성폭력운동, 법·정책 감시·개입·견인하다" 교육을 듣다
	4	24	[후기]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워크숍 다녀왔습니다.
	5	2	[후기] '공정'과 싸우며 '공정 이후'를 살아가기
	8	1	[작은말하기 특집①] 작은말하기 담당 활동가와 만나보았습니다
	8	25	[후기] 책 소모임 (이름 미정) 대망의 첫 모임
	9	4	[서평] 북리뷰_<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를 읽고
	9	4	[작은말하기 특집②] 생존자 푸른나비님을 만나보았습니다
	10	16	[후기] 책 소모임 (아직도 이름 미정) 두 번째 만남

2023년 유튜브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영상 목록

전체 1건

영상 제목	썸네일	분량	게시일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 튜토리얼		14:34	02/02

2023년 입장, 논평, 성명

전체 47건 (전년 66건)

월	일	제목
1	10	[공동성명/논평] 넥스트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전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 수탁 관련 결의문
1	11	[성명/논평] 새해 계획이 '성평등 실증', '가족주의 강화'라고? : 여성가족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부처
1	18	[공동성명/논평] 노골적인 공안통치의 시작인가! 노동자의 공식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압수수색 규탄한다!
1	27	[공동성명/논평] 양성평등기본계획 승인하고 뒤집은 법무부, 국제협약 권고대로 비동의강간죄 이행하라
1	27	[공동성명/논평] 유엔인권이사회에서조차 '여성가족부 폐지해도 업무 축소 없다'고 거짓말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	6	[성명/논평] 기독교 내 반성폭력 연대를 일구어 온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겠습니다
2	9	[성명] 1582번의 수요일,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 제1582차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2	15	[공동성명/논평]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독립성 침해 시도를 멈춰라
2	16	[공동성명/논평] 정부조직법 행정안전위 의결에 관한 논평 : '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불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2	16	[성명/논평] [단호한시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21대 국회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켜라! :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부처
2	21	[공동성명/논평] 법무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지 말라 : 법무부의 성폭력 법률 개정 과제에 대한 약탈같은 '모두 반대' 규탄한다
2	27	[공동성명/논평] '여성가족부 폐지안'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은 당연한 결과다. 국회는 더 이상 여가부 폐지안 논의 말고 즉각 폐기하라!

월	일	제목
3	7	[공동성명/논평]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을 훼손하고 성차별적 이중구조를 고착하는 주당69시간 개악안을 철회하라!
3	22	[공동성명/논평] 이주여성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발의 시도 중단하라!
3	23	[공동성명/논평] ‘벗방’ 피해자의 용기를 지지하며 - 정부는 ‘벗방’ 산업을 철저히 조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30	[공동성명/논평] 법무부는 성범죄 무고 수사 골몰하지 말고, 성폭력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
3	30	[공동성명/논평] 성평등과 여성인권 빠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는 없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 이장 소식에 부쳐
3	31	[공동성명/논평] 성평등 삭제하고 ‘살만하지 않은 사회’를 공고하게 만드는 저출산 정책 전면 철회하라
4	17	[공동성명/논평] 이재명 대표는 후퇴를 멈춰라. 차별금지법 제정은 당신의 역할과 책임이다.
4	20	[공동성명/논평] 한국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반대하는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5	16	[공동성명/논평] 막무가내 ‘성폭력 부정주의’는 정치도, 민주도, 진보도 아니다 : 3년 내내 계속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가해자 비호 다큐멘터리가 비극이다
5	18	[공동성명/논평] ‘벗방’,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 4월 25일 PD수첩 ‘위험한 초대장, 게스트 방송의 함정’ 방송을 보며
5	18	[공동성명/논평]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B대령의 상고심 판결에 대한 입장
6	9	[성명/논평] 누구를 위한 형사공탁특례제도인가 - 제도 시행 반년, 무분별한 공탁 인정을 경계한다
6	12	[공동성명/논평] 윤석열 정부는 MB정부 언론장악 주범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6	13	[공동성명/논평] 한국 정부, 비동의간간죄 반대한다고 국제기구에 답변? 정부는 성평등 퇴행 백래시를 멈추고, 성폭력 법적 체계 개선에 나서라!

월	일	제목
6	13	[공동성명/논평] The Korean government opposes the offense of "non-consensual rape" in its response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government should stop regressing on gender equality and take steps to improve the legal framework on sexual violence!
6	26	[기자회견]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민원 제출 기자회견 “안전한 임신 중지 지금 당장!”
6	28	[공동성명/논평]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⑥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7	17	[공동성명/논평] 공사구분도 못하고, 차별을 외면하는 인권위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 이 총상 상임위원의 사퇴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7	26	[공동성명/논평] UN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여성차별실무그룹 한국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에 심각한 우려 표명에 윤석열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여가부 폐지 위한 것이라는 주장 사실과 달라’ 황당한 거짓말로 일관
7	28	[전국 23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서 성별영향평가 지표 삭제는 퇴행이다! 행정안전부의 성평등 정책 퇴행 시도 규탄한다!
8	7	[공동성명/논평] 번지수를 잘못짚은 학생인권조례 공격 중단하라
8	18	[공동성명/논평]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은 상충하지 않는다. 정부와 여당은 갈등조장 정치를 멈추고, 문제의 원인에 제대로 접근한 해결책을 강구하라!
8	18	[공동성명/논평]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익명 출산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다. '보호출산제'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안전한 임신중지와 임신·출산, 양육 지원체계를 강화하라
8	30	[공동성명/논평]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
9	5	[공동성명/논평] 서울시 일본군'위안부' 기억의 터 기습철거 강행 규탄 기어이 기억의 터를 철거해 일본군'위안부', 반성폭력 운동 역사 통째로 지우려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한다!
9	21	[보도자료/공동성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영화상영금지가처분 인용 당연한 결정이다
9	25	[공동성명/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 내용과 수립 과정은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저해하고 있는가
9	27	[성명/논평] 강제추행 폭행협박 최협의설 폐기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판결에 부쳐

월	일	제목
9	27	[성명/논평]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기념 성명
10	11	[공동성명/논평] 여성과 아동, 누구도 보호하지 못하는 '보호출산제' 통과를 규탄한다
10	27	[공동성명/논평] 균형법 제92조의6 위헌이견의 평등권 주장,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성과입니다
11	14	[공동성명/논평]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성착취물 ‘소지’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11	28	[공동성명/논평] 성평등·성교육 도서 열람 제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11	28	[공동성명/논평] 넥슨은 일부 유저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춰라
11	29	[공동성명/논평] 서울시와 경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멈춰라 서울교통공사의 역사 원천 봉쇄와 경찰의 박경석 대표 불법연행 규탄한다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외부 강의 활동

총 97회, 약 2777명 대상 교육 (전년 87회, 약 3,029명)

월	일	의뢰기관	주제
2	7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입안
2	11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2	13	기독교반성폭력센터	2차 피해와 공동체 내 사건 해결
2	6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성폭력피해지원과 법제화
2	8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성폭력 사건지원과 법률쟁점 - 해군성폭력사건 중심으로
2	16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2	16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2	23	타이포그라티대곳	성평등 강의
2	27	기독교반성폭력센터	사건지원자의 역할과 한계
3	15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해와 계획
3	21	시흥여성의전화	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과 지원체계
3	21	울산청소녀성문화센터	젠더와 젠더폭력의 이해
3	28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3	2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교육
3	31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4	10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4	15	부천여성의전화	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4	17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폭력예방교육
4	18	광주 여성민우회	적극적 합의
4	20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강간죄개정운동과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
4	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간죄개정운동과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
4	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간죄개정운동과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보조)
4	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간죄개정운동과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보조)
4	27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
4	28	진주성폭력상담소	강간죄개정운동과 위력성폭력
5	9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문제 현실과 이해

월	일	의뢰기관	주제
5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5	17	수원여성의전화	강간죄개정운동과 위력성폭력
5	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5	18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강간죄개정운동과 적극적 합의 프로젝트
5	19	더프라이스	국제개발협력단위의 성폭력예방교육
5	24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반성폭력운동의 역사와 쟁점
5	25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
5	26	국방부	피해자 심리와 상담기법
5	30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5	30	동북여성네트워크	최근 성폭력 이슈와 쟁점
6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친족성폭력 피해자 자원과정
6	12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6	12	세종경찰청	성폭력피해자 심리 및 지원 방안
6	13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과 이해
6	1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6	14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
6	14	이화리더십개발원	지금 여기'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6	15	안양여성의전화	성폭력인권지원 사례연구 및 실습
6	21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
6	22	전교조	성폭력 사건 심의, 징계위원 성인지 감수성 교육
6	26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6	27	한국여성의전화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6	2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6	28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폭력 성희롱 관련 법과 제도
6	29	동북여성민우회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7	1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친족성폭력의 이해와 지원
7	4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역할과 지원체계
7	1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7	13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주강사)
7	14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보조)
7	14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보조)

월	일	의뢰기관	주제
7	1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직내 성희롱 사안 대응 워크숍
7	17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7	17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보조)
7	24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교육
7	2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8	9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8	15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보조)
8	17	노원경찰서	적극적등기로 성폭력피해자 이해하기
8	18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8	18	민주노총 전북본부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8	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8	25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지역사무소	최근 성폭력 이슈와 쟁점
8	29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8	29	성평등작업실 이로	성인지역량강화교육 (보조)
9	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9	5	대전여민회 성폭력상담소	강간죄개정운동
9	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젠더감수성 워크숍
9	6	충북 초등성평등연구회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폭력의 사례와 대응방안
9	8	서울 해화경찰서	성폭력피해자 이해하기(2차피해 예방 등)
9	18	전성협 서울인천권역	성인지 감수성' 그 후
9	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9	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문화개선 교육 기본
9	21	전북청소년성문화센터	폭력과 성인지감수성
9	2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직문화개선 교육 심화
10	6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10	17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성폭력예방교육
10	19	서울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성폭력예방교육
10	25	육군 리더십처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 변화와 과제
10	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폭력 통합강사 신규양성 강의력 코칭
10	2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폭력 통합강사 신규양성 강의력 코칭
10	2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폭력 통합강사 신규양성 강의력 코칭

월	일	의뢰기관	주제
10	27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연대할수 있는 태도 함양
11	3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눔봄	우울증갤러리와 성착취
11	6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력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
11	9	용인성폭력상담소	적극적 합의
11	22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폭력예방교육
11	23	연세대학교 성평등센터	폭력예방교육
11	27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남매간 친족성폭력
11	27	민주노총 법률원	조직내 성희롱 사안 대응 강의
12	12	울산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비동의 강간죄 운동과 적극적 합의

2023년 외부 자문 및 위원회 참여

전체 65건 (전년 56건)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	20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여성인권단체 및 피해자지원기관 운영 실무
1	2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여성인권단체 및 성폭력상담소 운영 및 재정구조
1	30	교육부	교육기관정보공시제관련 전문가비공개간담회
2	21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심의위원회
3	9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인권 편집자문위원회 1차회의
3	10	경찰청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회의
3	17	마포구 주민생활복지과	마포구 연차별 평가회의
3	27	경찰청	경찰청 여성안전정책자문단 회의
3	28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심의위원회
3	28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가 서면자문
3	30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성평등포럼
4	12	상명대 국제개발연구센터	해외 DBV 기관 역량평가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자문
5	1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 사회문제 해결트리 전문가 자문워크숍
5	28	경찰청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대응분과 서면회의
5	31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상담소 강간상담 통계 분석
6	9	경찰청	경찰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6	19	경찰청	여성안전정책자문단 회의
6	21	경찰청	마약류 이용 성범죄 근절 홍보 콘텐츠 공모전 최종심사
6	23	협동조합 함께하는 연구	여성폭력 보호시설 연구 자문회의
6	27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심의위원회
6	3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리뉴얼 자문
7	6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네트워크협의회 참석 요청
7	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문제해결 R&D 문제연구반 서면자문

월	일	주최기관	내용
7	20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성폭력대응분과
7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7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친밀 관계 폭력의 개념화와 대응 방향 모색
9	15	경찰청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서면회의
9	15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심의위원회
9	1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인권 편집자문위원회 서면회의
9	17	경찰청	경찰청 여성안전정책자문단 서면회의
9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매뉴얼 개정 자문
9	25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폭력통합 강사양성과정 강의력 코칭 기획회의
9	2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자문
9	26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심의위원회 (서면)
10	16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0	24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가 서면자문
10~ 11월		프레임바이프레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입문콘텐츠
11	15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지원 종사자 보수교육 자문회의
11	17	경기도교육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가정밖 청소년의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실무자 자문회의
11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문제해결 R&D 문제연구반 서면자문
11	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과인권 29호 30호 편집자문위원회 서면자문
11	23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인터랙티브) 감수
11	24	경찰청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여성폭력대응분과 회의
11	27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자문
11	30	중앙대 인권센터	중앙대 사회과학대, 예술대학 반성폭력 회칙 자문
12	5	경찰청	경찰청 여성안전정책자문단 자문회의
12	12	마포여성동행센터	마포여성동행센터 젠더폭력 상담사업 자문회의

월	일	주최기관	내용
12	12	마포여성동행센터	마포여성동행센터 젠더폭력 상담사업 자문회의
12	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윤리적법적매뉴얼 자문요청
12	15	경찰청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
12	18	서울시	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심의위원회
12	21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2	22	한국여성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심화교육 평가자문

2023년 발제, 발표, 토론, 사회

전체 19건 (전년 15건)

월	일	주최기관	토론회, 발표회 제목	사회, 발표자
4	26	한국여성민우회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을 고민하다	김혜정
4	27	경찰청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일상회복 방안 : 가해자 제재 조치를 중심으로	김혜정
4	28	정의당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유호정
5	8	한국여성단체연합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및 제언 토론회	김혜정
5	11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사법분야 법집행 공무원 성인지 조사 및 젠더폭력 관련 판례분석 실태조사 토론회	최란
6	30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성범죄 재판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동의의 의미	김혜정
7	5	이상민 민주당 국회의원, 넥스트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 안전한 민주당으로 가는 길	김혜정
7	22	공공운수노조 공공활동가전체회의	공공활동가모임 연속 토론회 : 여성운동 어디까지 왔나	김미현
7	25	강간죄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 쟁점과 과제	김혜정
8	19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공개토론회 : 성폭력 사건 이후 공동체적 회복	노선이
9	20	북토크준비위	<법 짓는 마음, 이보라 작가 북토크> 99% 국회 사용법 - 빠치지만 버릴 수 없다	김혜정
9	20	한국여성의전화	16회 여성인권영화제 <앵그리아니> 상영 및 개막토크	김혜정
10	17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위기와 젠더 정의: 운동사회 내 성폭력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이해	노선이
11	20	청년예술청	청년예술청 확성기 프로그램 '성폭력 2차 가해 방지와 공동체 역할'	김혜정
11	23	장애여성공감	II과 젠더포럼 : 젠더적 관점으로 II 판을 흔들자	김혜정
11	30	국가인권위원회	군 성희롱 성차별 현황과 과제 토론회	최란
12	5	한국여성변호사회	형사공탁특례 제도 시행 1주년, 점검과 보완 심포지움	노선이
12	5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토론회: 현장에서 볼러보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이도경
12	19	한국여성의전화 등	젠더기반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토론회	김혜정 최란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기고

전체 24건 (전년 9건)

월	제목	게재지	담당자
2	형법상 강간죄 개정운동, 피해자를 가르고 배제하던 기준을 바꾸자	전국연대 소식지	오매
3	성폭력 피고인 반대신문권 보장 그 후, 성폭력 피해자/아동청소년에게 최-차선의 이익은 무엇인가?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김혜정
3	형사사법에서 성폭력 피해자 고려, 중요성과 방향성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김혜정
2	비동의 성폭력'이 들려준 이야기	한겨레신문	김혜정
3	꼭 3년 만에 열리는 '페미대명절', 드넓은 광장에서 만나자	오마이뉴스	한소망
3	여성 지우기' 막는 게 여성가족부다	한겨레신문	김혜정
4	투쟁하고 춤추는 여성들의 모임	한겨레신문	김혜정
5	[윤 정부 1년 젠더정책 평가] 시대적 변화 방해하기 : 무고죄로 강간죄 개정 가로막기	여성신문	김혜정
5	성희롱, 성추행의 구조	한겨레신문	김혜정
6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이 말하는 #MeToo운동	사회 운동의 재생을 위해 한국의 시민, 여성, 노동운동에서 배우는 Vol.1	김혜정
6	신상공개 확대가 아니라 춤추는 정책을	한겨레신문	김혜정
6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 형법 297조 강간죄 개정, 왜 필요할까?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칼럼	김혜정
7	실업급여, 그 이상의 안전망을 원한다	한겨레신문	김혜정
7	[여성과인권 통권 29호] '해군 성폭력 사건'을 통해 본 군 성폭력의 현실과 과제	여성과인권	윤경진
8	위험사회'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방법	한겨레신문	김혜정
9	백래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대신문	김미현
9	팬티속의 마법 추천사	단행본	최란
9	장갑차 말고 성평등	한겨레신문	김혜정
10	약자들 사회안전망 외면한 2024년 예산안	한겨레신문	김혜정
11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없앤다는 정부, 이런 예산안 막아야	한겨레신문	김혜정
12	누적된 차별' 위에 선 집행자들	한겨레신문	김혜정
12	성관계에서 '동의'를 둘러싼 여성들의 경험과 시도	일다 (게재 1.14)	김신아
12	청소년주거권수다회정리집 "제도의 공백, 버티는 삶"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류수민

2023년 언론에 난 상담소

전체 161건 (전년 174건)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	1	여성신문	[2023년 여성계 과제·소망] 단 한 사람도 더 잃을 수 없어... 성평등 전담부처 필요해
1	3	SBS뉴스	"반성했다"며 여성 단체에 기부...'감형 꿈수', 막을 방법 없나
1	8	한국일보	"홍약범 인권부터?" vs "가족도 있는데" 신상공개 논란 5대 쟁점은
1	10	미디어파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말 못하는 친족간 성폭행 피해, 전문 변호사 조언은?[유웅현 변호사 칼럼]
1	12	위키트리	'전남편 서주원의 불륜 폭로' 아들이 이혼 두 달 만에 올린 게시물, 다들 놀랐다
1	13	프레시안	여가부 신년 업무추진계획 살펴보니 '젠더', '성평등' 사라졌다
1	13	당진신문	[오피니언] 자식의 죽음 앞에 끝까지 싸워야 하는 어미들
1	17	미디어오늘	'언론계 미투'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간부 2심도 유죄
1	19	뉴스클레임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투쟁 탄압 그만"[전장연 지하철 행동 지지]
1	26	연합뉴스	[삶] 김재련 "정치인들, 박원순사건 피해자에 제대로 사과하라"
1	27	쿠키뉴스	'폭행 없다고 강간죄 아니다?'...비동의 간음죄 좌초에 여성계 반발
1	30	한겨레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 '비동의 강간죄'를 향한 왜곡
1	31	한겨레	법무부 성폭력 대응 개선책 10여 번 권고에도...법안 처리 '0건'
2	2	한국강사신문	"성범죄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구매하는가" 김보화의 신간도서 『시장으로 간 성폭력』 출간
2	8	여성신문	혐오세력 방해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 수요시위는 계속된다
2	9	경향신문	"강간범죄 감형 받아드릴게요"...법을 시장으로 넘어온 성폭력
2	10	여성신문	성소수자 여군 성폭행한 해군 상관... 징역 8년 선고받고 구속
2	14	여성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동의여부로 형법상 강간죄 개정이 최우선 과제"
2	15	뉴스클레임	"성희롱 피해자에게 2차 가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 사과 촉구"
2	15	슬로우뉴스	윤 정부의 민간단체 고사 작전? (ft.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2	20	한국경제	오세라비 작가 "이경실 발언 논란, 남녀 바뀌었다면..."
2	21	프레시안	'비동의강간죄' 토론하자는 한동훈, 이미 틀렸다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2	21	교수신문	이화여대, 아시아 최초의 여성학과 설립 40주년 맞아 기념행사 개최
2	21	여성신문	222개 여성단체, 법무부에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5대 과제 반대 규탄”
2	21	우먼타임즈	"성폭력 法개정 무작정 반대 안돼"... 여성계, 법무부 성토
2	25	연합뉴스	참여연대 공동대표에 백미순 前여성가족재단 대표
2	26	여성신문	키스할 때 상대방이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한다면... ‘적극적 합의’ 일까?
2	27	한겨레	‘비동의 성폭력’이 들려준 이야기
2	28	한겨레	[슬랩] 무고가 판친다고?...‘비동의 강간죄’ 팩트, 꼭 짚었다
3	2	오마이뉴스	꼭 3년 만에 열리는 '페미대명절', 드넓은 광장에서 만나자
3	4	여성신문	[3.8세계여성의날] 페미니스트 한자리에... 서울광장은 보랏빛 물결
3	8	뉴스핌	다양화되는 여성의날 기념 방식...아트전시·카테일 파티·축하공연 등
3	8	프레시안	하루 한 명의 여성이 '아는 남자'에게 죽거나 다쳤다
3	8	JTBC뉴스	털어놓기 힘든 친족 성폭력...‘공소시효 만료’에 막힌 처벌
3	14	한겨레	‘피해자답지 않다’...경찰이 성폭력 사건 불송치한 주된 이유
3	21	한겨레	진짜같은 ‘AI 성착취물’ 퍼지는데...‘알고리즘 핑계 댄 처벌 한계’
3	27	오마이뉴스	안희정 사건 5년... "세상은 '위력'을 알게 됐고, 피해자는 우리 옆에 있다"
3	27	한겨레	‘여성 지우기’ 막는 게 여성가족부다
3	29	한겨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묘소 ‘민주화의 성지’ 모란공원으로 이장
4	5	펜앤마이크	서울대 인권센터의 편향된 인권교육은 현재진행형... "인권센터냐 정치센터냐" 비판 쏟아져
4	13	헤럴드경제	[최영미 시인의 심플라이프] 흐린 날도 화창한 날도 실수는 계속된다
4	17	여성신문	[여성계 소식] ‘군가산정제’ 포럼·‘동성결혼’ 북토크 외
4	20	매일경제	범죄자 반성문 제도 필요할까?... 여론 85% “형량 줄이려는 꿈수일 뿐” [민심레이더]
4	20	조선일보	박원순 유족 측, 재판서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4	20	여성신문	반성폭력 단체연합, 강요에 의한 ‘벗방’ 피해자 공동 지원
4	20	통일뉴스	여성·시민단체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절대 반대”
4	24	한겨레	투쟁하고 춤추는 여성들의 모임
4	25	강원도민일보	성착취물 3200개 만든 ‘그놈’, 피해자 당 100만 원에 형 줄였다
4	27	아시아경제	마포여성동행센터 개관...지역 양성평등 거점 만든다
4	27	KBS뉴스	“나는 신이다”, 자극적 관심을 문제 해결 열쇠로 착각”
5	1	헤럴드경제	“우울증 갤러리, 경찰 위장 수사 확대해야” [울갤러, 표적이 되다]
5	8	여성신문	[여성계 소식] 윤석열 정부 1년 토론회·영화 상영회 외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5	8	연합뉴스	여성연합 "윤석열 정부 1년, 여가부 정책서 '여성' 사라져"
5	9	한겨레	법원도 인권위도 무시한 박원순 옹호 다규...“전형적인 가해” 비판
5	10	여성신문	“여가부 말고 젠더불평등을 폐지하라” 윤 정부 1년, 엠네스티 등 시민단체 비판
5	10	경향신문	논란일던 ‘무고죄 처벌 강화’ 시동...법무부, 양형위에 의견 제출
5	10	여성신문	인권위, 11일 성범죄 판례분석 결과보고·정책토론회
5	11	여성신문	성범죄 피해자 ‘2차 가해’하는 경찰... “절반 이상 성인지 감수성 평균 이하”
5	11	프레시안	尹 정부 1년, '분노한 여자'가 학교 빠지고 용산에 왔다
5	12	일다	'여성'이 빠졌다...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여성계 평가
5	15	여성신문	[여성계 소식] 여가부 평가 토론회·강남역 사건 7주기 추모행동 외
5	16	여성신문	“결림돌 장관은 빠지고 여가부는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야”
5	17	한겨레	박원순 옹호 다규 제작 강행...여성단체 “민주·진보 아닌 패악질”
5	24	시사인	우울증갤러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5	18	뉴스스	'성소수자 부하 성폭행' 해군 대령, 대법서 징역 8년 확정
5	19	여성신문	“성소수자 차별하는 군형법 92조의6 위헌 결정 내려야”
5	22	베리타스알파	이화여대 2023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교육' 개최
5	22	한겨레	성희롱, 성추행의 구조
5	23	이데일리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 수사 한계...“국제 공조수사 필요”
5	23	연합뉴스	[이슈&과학] 성폭행 때 적극 저항하지 않았다?...“동의로 해석해선 안돼”
5	23	뉴스스	시민 지켜야 할 경찰이...하루 한번꼴 성비위에 몸살
5	24	여성신문	[단독] ‘박원순 다규’ 논란에 처음 입 연 민주당 의원 “총선서 국민이 심판할 것”
5	26	프레시안	벗방, 성매매, AV ... 성산업은 성착취를 양산한다
5	27	MBC뉴스	친딸 성추행, 죽음에 이르렀지만 "징역 5년"...판결문 살펴보니
5	30	미디어오늘	데이트폭력·교제폭력 용어 대신 연인폭력은 어떨까
5	31	오마이뉴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5	31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이진영]‘박원순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은 비결
6	2	조선일보	“의뢰인과 변호사가 공범” 1인 시위 벌인 유흥업소 실장의 최후
6	2	여성신문	한국성폭력상담소, 우울증 갤러리 이슈 살핀다... 집담회 개최
6	5	세계일보	수십개 실시간 ‘벗방’, 시청자 수천명...성착취 온상으로[심층기획·취약한 여성 노리는 사회 ③]
6	7	뉴스앤조이	목회자 성폭력의 가시화와 최초의 교회 성폭력 공청회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6	12	한겨레	피해자 합의 뜻 없는데 '공탁'하고 감형 받는 성범죄자들
6	16	여성신문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가로막는 건 무엇인가?...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회 개최
6	19	여성신문	[여성계 소식] 여성평화포럼·영화 상영·연속 강좌 외
6	19	한겨레	신상공개 확대가 아니라 촘촘한 정책을
6	20	프레시안	성착취물 제작에 기습 성추행범, 용서 없어도 돈만 내면 형량 줄여준다
6	21	뉴스앤조이	'성폭력을 성폭력이라 말할 수 있는 자들' 조차 없었기에
6	21	경향신문	"성관계하면 일자리 알아봐주겠다"...간호사 '스폰 사기' 주의보
6	25	연합뉴스	성범죄자 이사오면 여성가구도 고지?...여가부 "도입취지와 달라"
6	27	뉴시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6	29	이데일리	준강제추행해도 '공탁'만 하면 집유...거짓 반성문도 감형 도와
7	1	오마이뉴스	미 외교전문지 "윤 정부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침묵시켜"
7	3	여성신문	[여성계 소식] 여성기업주간·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토론회 외
7	5	더팩트	박지현 "민주당, 2030 여성 지지받고 싶으면 '성폭력' 단호히 대처해야"
7	9	KBS뉴스	[9층시사극] 신상공개, 무엇이 선인가
7	17	한겨레	실업급여, 그 이상의 안전망을 원한다
7	18	경향신문	여가부, 또 '여성 지우기'?...10년 된 성평등 정책도 '여성' 삭제
7	25	뉴스데일리	후원금 내야 볼 수 있는 '박원순 다큐' 비공개 시사회... "2차 가해" 비판 쇄도
7	25	여성신문	"비동의강간죄' 새로운 것 아냐... 재판서 이미 '동의 여부' 판단 중"
7	26	뉴스1	시타(siita), 성범죄 피해자 지원...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후원
7	28	MBN	"맞아야만 강간죄 되나요?"...다시 소환된 '비동의 간음죄'
8	14	한겨레	'위험사회'에서 서로를 책임지는 방법
8	15	SBS뉴스	법을 지원 예산 벌써 바닥 보였다...성폭력 피해자 '막막'
8	17	오마이뉴스	우리는 서로의 곁이 될 수 있을까
8	20	한겨레	'여성안심귀갓길' 없앤 최인호 관악구의원 사퇴 요구 봇물
8	21	한겨레	또 페미사이드...“변화기도 산책로도 안심 못해”
8	22	프레시안	여성 지우기? '신림 강간살인'으로 드러난 '혐오정치' 이면
8	24	여성신문	[전문가 진단] 집앞도 공원도 불안... “성평등 해야 모두 안전하다”
8	24	연합뉴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현장 찾아 피해자 추모
8	25	한겨레	안희정, 성폭행 유죄 확정에도...“민사 손해 불법여부 다시 따지자”
8	27	코메디닷컴	성관계, 정말로 '동의'했습니까?... 日서 QR로 '성적 동의' 기록 논란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8	31	한겨레	12살 아동 성폭행범 젊다고 감형...“대법원장 지명 철회하라”
8	31	뉴스클레임	“정부의 임신중지 권리 방치는 인권침해”[여성건강 무책임한 정부 규탄]
9	4	뉴스클레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지금 여성들은 안전한가
9	5	조선일보	임옥상 작품 철거 저지, 박원순때 침묵 여성단체들 기이한 집회
9	5	한겨레	여성들이 성추행 작가 지킨다? 조선일보의 황당한 ‘진영’ 깔대기론
9	6	뉴스1	정의연 "기억의 터, 임옥상만의 작품 아냐"...기습 철거한 서울시 비판
9	10	더스쿠프	‘성추문’ 고은 시인에게 헌정문집 바친 문단 사람들
9	11	한겨레	장갑차 말고 성평등
9	11	부산일보	성폭행범, 성폭행으로 처벌 불가? 가해자 보호하는 ‘강간법’
9	14	경향신문	“당신의 용기 잊지 않겠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객의 목소리
9	15	경향신문	김행 “임신중단, 자기결정권이라는 미사여구 뒤엔...” 사실상 반대?
9	19	뉴스앤조이	[합동4] '성폭력' 단어 안 쓰려다...성 윤리 예방 매뉴얼(?) 채택
9	20	한겨레	‘박원순 다규’ 상영금지...“진실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 명예 심각 훼손”
9	21	오마이뉴스	"김현숙도 그러더니 김행 역시... 대통령 안목 보여준다"
9	25	레디앙	'고용평등상담실' 폐지..."여성노동자 최후의 보루"
10	9	서울신문	148~170cm 혈관까지 재현한 리얼돌...“이만큼 수입됐다”
10	10	더파워뉴스	친족성폭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공소시효 적용 불가
10	16	한겨레	약자들 사회안전망 외면한 2024년 예산안
10	19	비온드포스트	준강제추행 및 강간, 양측의 주장이 다를 경우 제반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 갈려
10	20	연합뉴스	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삭감에 여성계 "피해자 보호 악화 우려"
10	27	여성신문	한동훈 장관의 ‘제시카법’, 과연 성범죄자 재범률 낮출까?
11	3	미디어오늘	김지은씨 ‘2차가해 보도’ 언론사들 손배 판결 어떻게 나왔나
11	8	여성신문	“숫컷 여성 폭행 사건은 ‘증오범죄’... 정부의 ‘백래시’ 행보, 여성폭력 경각심 낮춰”
11	14	한겨레	“가해자 무관용”...대검, 고위직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11	14	한겨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없앤다는 정부, 이런 예산안 막아야 [세상읽기]
11	15	한겨레	광고문자·불법추심도 스토킹?...처벌법 확대 적용에 ‘가우뚱’
11	20	여성신문	[여성계 소식]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한 성평등 국회가 살려야 합니다’ 기자 회견 외
11	21	여성신문	“성평등 예산” 삭감하면 사회안전망 무너져... 정부 예산안, 국회가 폐기해야”

월	일	언론사	보도 제목
11	21	KBS뉴스	'기습공탁 막아야...대법원도 대책 마련
11	23	한겨레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의 국대 출전...“문제 없다는 메시지 주냐”
11	23	한국일보	“의전 중독, 여성 편력... 우상 안희정은 이렇게 몰락했다”
11	25	뉴스1	영상 함께 봤으면 '촬영 동의'?...'황의조 사건' 복잡한 이유[알고보니]
11	26	미디어오늘	전세계가 '여성폭력 추방'을 외치는 일주일 시작됐다
11	28	경인매일	과천시, 5급 이상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11	29	베리타스알파	이화여대 제4회 이화·현우 여성과 평화 학술상 시상식 개최
12	6	교수신문	성폭력 가해자는 왜 법조 시장으로 가게 됐을까
12	6	여성신문	[단독]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 복귀 시동 거나...정치인·지지자 접촉 이어가
12	7	법률신문	법조공익모임 나우 창립 10주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젊은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돋보였다”
12	8	노컷뉴스	'꼼수공탁'으로 감형? 형사공탁 개정 1년 돌아보니
12	9	한겨레	'누적된 차별' 위에 선 집행자들
12	14	윌페어뉴스	장애인 차별시정과 평등실현을 위한 '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
12	19	여성신문	여성폭력 총선 정책 제안... “젠더폭력을 흉악범죄로 대체하는 엄벌주의 정책 반대”
12	19	MBC뉴스	'무료과외' 폭행 피해자, 경찰에 가해 남성 고소...“복종 요구한 '가스라이팅'”
12	23	뉴스1	'지인능욕' 합성 사진 제작에 단 2분...못 막나 안 막나[체크리스트]
12	23	오마이뉴스	쌍둥이 딸 낳고 싶은 꿈, 이뤄질 수 있을까
12	26	일다	“여성폭력 현실 부정하는 정권” 예산 120억 감액
12	27	일다	온라인 '성적 괴롭힘'...법이 담지 못한 여성폭력
12	28	여성신문	한동훈 비대위, 여성 지지 받으려면
12	28	연합뉴스	여가부 "계류된 법안 처리 위해 여가위에 여러 차례 개의 요청"

202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2024. 2. 1 기준

팀	상근활동가	비고
여성주의상담팀 (4명)	윤경진(경진) _ 팀매니저 김미현(호랑) 박지희 박아름(얇)	(전출) 노선이(감이) 2024.2.1. (전입) 박아름(얇) 2024.2.1.
성문화운동팀 (3명)	김동은(동은) _ 팀매니저 유호경(유랑) 류수민(수수)	(전출) 김신아(신아) 2024.2.1 (전입) 류수민(수수) 2024.2.1.
회원홍보팀 (2명)	박수민(산) _ 팀매니저 한소망(달별)	
법률팀 (1명)	이도경(도경) _ 상근변호사	(입사) 이도경(도경) 2023.5.1
사무국 (3명)	김혜정(오매) _ 소장 최란(란) _ 부소장 송해주	
부설기관	상근활동가	비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린터 (5명)	조은희 _ 원장 추상아 김주아(낙타) _ 팀매니저 김신아(신아) 노선이(감이)	(퇴사) 김현지(파랑) 2024.1.31 (전출) 류수민(수수) 2024.2.1 (전입) 김신아(신아) 2024.2.1. (전입) 노선이(감이) 2024.2.1

회계 감사 보고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총괄회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익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총괄회계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익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이 제반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감사 배 자 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KSVRC 예결산서(수입)

수입

(단위 : 원)

과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4년 예산
장 관 항목					
한국성폭력상담소	879,345,116	923,685,919	105%		902,187,172
사업수입	809,207,000	853,361,221	105%		787,597,000
모금사업수입	490,160,000	536,595,272	109%		459,900,000
경기후원금	271,200,000	271,102,893	100%		281,200,000
◎ 회비	7,200,000	6,930,000		◎ 회비 10,000 원 × 60 명 × 12 개월	7,200,000
◎ 후원회비	264,000,000	264,172,893		◎ 후원회비 22,000,000 원 × 12 개월	274,000,000
일시후원금	127,760,000	143,572,675	112%		157,800,000
◎ 일시후원금	102,000,000	112,403,530		◎ 일시후원금 11,000,000 원 × 12 개월	132,000,000
◎ 기업후원금	24,000,000	29,000,000		◎ 기업후원금 2,000,000 원 × 12 개월	24,000,000
◎ 문자후원금	1,400,000	557,145		◎ 문자후원금 600,000 원 × 1 회	600,000
◎ 온라인후원금	360,000	1,612,000		◎ 온라인후원금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현물후원금	-	22,232,500	0%		-
◎ 현물후원금	-	22,232,500		◎ 현물후원금	-
후원행사수입금	60,000,000	60,770,900	0%		-
◎ 후원모금행사	60,000,000	60,770,900			-
찾아가는홍보기부금	30,400,000	38,102,464	125%		20,550,000
◎ 강의 외	18,000,000	25,952,464		◎ 강의 외 1,700,000 원 × 12 개월	20,400,000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2,250,000	11,880,000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
◎ 특강	150,000	270,000		◎ 특강	150,000
○ 회원놀이터 참가비(비회원)	100,000	195,000		○ 회원놀이터 참가비(비회원) 10,000 원 × 10 명 × 1 회	100,000
○ 회원놀이터 참가비(회원)	50,000	75,000		○ 회원놀이터 참가비(회원) 5,000 원 × 10 명 × 1 회	50,000
자료이용후원금	800,000	813,840	102%		350,000
◎ 굿즈	600,000	-		◎ 자료집 150,000 원 × 1 회	150,000
◎ 자료집	200,000	110,000		◎ 기타 50,000 원 × 4 회	200,000
◎ 기타	-	703,840			-
파발마기금	-	-	0%		-
보조금수입	236,947,000	233,198,140	98%		247,947,000
국비보조금	139,152,000	139,952,000	101%		139,152,000
◎ 운영비	139,152,000	139,952,000		◎ 운영비	139,152,000
시비보조금	97,795,000	93,246,140	95%		108,795,000
◎ 종사자 차우개선비	96,395,000	91,846,140		◎ 종사자 차우개선비	107,395,000
◎ 복지포인트	1,400,000	1,400,000		◎ 복지포인트	1,400,000
특별사업수입	79,900,000	79,900,000	100%		77,45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50,000,000	50,000,000	100%		50,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9,400,000	19,400,000	100%		27,450,000
보조금공모사업지원금	10,500,000	10,500,000	100%		-
◎ 국가인권위원회권증진공모사업	10,500,000	10,500,000			-
기타공모사업지원금	-	-			-
공동분담금수입	2,200,000	3,667,809	167%		2,300,000
◎ 우리안판형성중지용위탁관리보장내역	2,200,000	3,667,809			2,300,000
사업외수입	70,138,116	70,324,698	100%		114,590,172
이월금	68,632,116	68,632,116	100%		112,850,292
전년도 이월금	68,632,116	68,632,116	100%		112,850,292
기타수입	1,506,000	1,692,582	112%		1,739,880
이자수입	1,000,000	1,586,502	159%		1,500,000
◎ 이자수입	1,000,000	1,586,502		◎ 이자수입 375,000 원 × 4 분기	1,500,000
잡수입	506,000	106,080	21%		239,880
◎ 법인세 환급수입	500,000	89,680		◎ 법인세 환급수입 233,880 원 × 1 회	233,880
◎ 기타 잡수입	6,000	16,400		◎ 기타 잡수입 500 원 × 12 개월	6,000

KSVRC 예결산서(지출)

지출		(단위: 원)				
과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4년 예산	
한국성폭력상담소	879,345,116	923,685,919	105%		902,187,172	
인건비	448,382,800	458,945,500	102%		485,847,000	
기본급	382,428,000	389,314,000	102%		394,986,000	
기본급	246,420,000	252,155,000	102%		249,7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 ○ 8호봉 ○ 7호봉 ○ 6호봉 ○ 5호봉 ○ 4호봉 ○ 3호봉 ○ 2호봉 ◎ 안식년(7호봉) ◎ 2호봉 	215,280,000 28,080,000 27,720,000 27,360,000 27,000,000 26,640,000 52,560,000 25,920,000 13,860,000 17,2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 ○ 8호봉 ○ 7호봉 ○ 6호봉 ○ 6호봉 ○ 5호봉 ○ 4호봉 ○ 4호봉 ○ 4호봉 ○ 3호봉 ○ 3호봉 	- 29,915,000 28,470,000 27,960,000 27,900,000 27,510,000 27,240,000 27,180,000 26,820,000 26,760,000	
기본급(보조급)	136,008,000	137,159,000	101%		145,23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16호봉 ◎ 5급 13호봉 ◎ 5급 9호봉 ◎ 5급 7호봉 	43,656,000 33,600,000 30,192,000 28,5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17호봉 ◎ 5급 14호봉 ◎ 5급 10호봉 ◎ 5급 9호봉 	45,654,000 35,511,000 32,074,000 31,992,000	
수당	65,954,800	69,631,500	106%		90,861,000	
상여금	17,184,000	19,547,500	114%		20,808,000	
◎ 상여금	17,184,000			1,734,000 원 × 12 개월	20,808,000	
장기근속수당	3,640,000	3,910,000	107%		4,5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 ○ 8호봉 ○ 7호봉 ○ 5호봉 ○ 4호봉 	3,640,000 720,000 1,260,000 940,000 7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직 ○ 8호봉 ○ 7호봉 ○ 6호봉 ○ 5호봉 	4,550,000 1,280,004 1,130,000 1,060,000 1,080,000	
가계보전수당	14,400,000	13,500,000	94%		13,8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보전수당 ◎ 명절휴가비 	5,400,000 9,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보전수당 ◎ 명절휴가비 	4,800,000 9,000,000	
가계보전수당(보조급)	16,480,800	16,949,000	103%		16,82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 명절휴가비 	2,880,000 13,600,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수당 ◎ 명절휴가비 	2,300,000 14,523,000	
복리후생및실비보상	2,400,000	2,925,000	122%		-	
◎ 기타 급여보전비	2,400,000			◎ 기타 급여보전비	-	
복리후생및실비보상(보조급)	4,800,000	4,800,000	100%		16,7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약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4,8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약급식비 ◎ 시간외근무수당 	5,760,000 11,000,000	
직무수행	4,650,000	5,600,000	120%		15,72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책수당 ○ 팀장 ◎ 특정업무수당 ○ 재경수당 ○ 자격수당 	1,650,000 1,650,000 3,000,000 600,000 2,4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책수당 ○ 팀장 ◎ 특정업무수당 ○ 재경수당 ○ 자격수당/외부약경기금 	1,800,000 1,800,000 13,920,000 600,000 13,320,000	
직무수행(보조급)	2,400,000	2,400,000	100%		2,400,000	
◎ 직책수당	2,400,000			◎ 직책수당	2,400,000	
물건비	55,325,000	68,041,645	123%		62,077,000	
일반운영비	53,875,000	66,581,145	124%		60,627,000	
사무관리비	4,450,000	11,683,590	263%		11,6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수수료 ○ 공익법인세무확인수수료 ○ 법인등기수수료 ○ 기타 ○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 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인쇄비 ○ 기타 소모품 구입비 ◎ 유지보수비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도메인 및 서버유지비 ○ 홈페이지 관리용역비 	3,250,000 2,200,000 100,000 600,000 350,000 1,000,000 400,000 - 600,000 200,000 200,000 - - - -	2,141,700 54,240 53,000 442,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수수료 ○ 공익법인세무확인수수료 ○ 법인등기수수료 ○ 기타 ○ 퇴직연금 관리수수료 ◎ 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인쇄비 ○ 기타 소모품 구입비 ◎ 유지보수비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도메인 및 서버유지비 ○ 홈페이지 관리용역비 	3,050,000 2,200,000 100,000 300,000 450,000 640,000 400,000 - 240,000 200,000 200,000 7,800,000 1,200,000 6,600,000	
사무관리비(보조급)	21,670,000	21,522,894	99%		15,54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수수료 ○ 세무대행용역비 ○ 청소용역비 ○ 경수기임대료 ○ 기타 ◎ 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인쇄비 ○ 기타소모품구입비 ◎ 유지보수비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9,600,000 2,880,000 4,620,000 900,000 1,200,000 - 4,140,000 1,500,000 1,800,000 840,000 1,200,000 1,200,000 6,730,000	2,860,000 4,620,000 844,840 2,085,807 1,313,210 1,468,000 1,098,959 20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수수료 ○ 세무대행용역비 ○ 청소용역비 ○ 경수기임대료 ○ 기타 ○ 스케너임대료 ◎ 사무비 ○ 사무용품 구입비 ○ 도서인쇄비 ○ 기타소모품구입비 ◎ 유지보수비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0,202,000 2,880,000 4,620,000 1,062,000 1,200,000 440,000 4,140,000 1,500,000 1,500,000 1,140,000 1,200,000 1,200,000 -	

○ 도메인 및 서버유지비	130,000	973,078		○ 도메인 및 서버유지비			-	
○ 홈페이지 관리용역비	6,600,000	6,050,000		○ 홈페이지 관리용역비			-	
광고운영비	3,620,000	4,574,930	126%				7,400,000	
◎ 통신비	120,000			◎ 통신비			60,000	
○ 우편발송요금	120,000	24,760		○ 우편발송요금	5,000 원 × 12	개월	60,000	
◎ 제세공과금	700,000			◎ 제세공과금			700,000	
○ 법인세	600,000	590,170		○ 법인세	600,000 원 × 1	회	600,000	
○ 기타	100,000			○ 기타	50,000 원 × 2	회	10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2,80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6,640,000	
○ 기타수선비	2,800,000	3,960,000		○ 기타수선비	1,000,000 원 × 4	분기	4,000,000	
				○ 시설관리용역비	220,000 원 × 12	개월	2,640,000	
광고운영비(보조금)	9,705,000	14,545,936	150%				11,765,000	
◎ 통신비	3,240,000			◎ 통신비			3,240,000	
○ 전화요금	2,520,000	2,492,862		○ 전화요금	70,000 원 × 3	회선 × 12	개월	2,520,000
○ 인터넷요금	720,000	601,904		○ 인터넷요금	60,000 원 × 12	개월	720,000	
◎ 수도광열비	5,220,000			◎ 수도광열비			5,280,000	
○ 상하수도요금	360,000	409,160		○ 상하수도요금	70,000 원 × 6	개월	420,000	
○ 전기요금	4,800,000	4,358,070		○ 전기요금	400,000 원 × 12	개월	4,800,000	
○ 가스요금	60,000	54,340		○ 가스요금	5,000 원 × 12	개월	60,000	
◎ 보험료	545,000			◎ 보험료			545,000	
○ 종합안전배상공제	400,000	394,100		○ 종합안전배상공제	400,000 원 × 1	회	400,000	
○ 화재공제	60,000	59,800		○ 화재공제	60,000 원 × 1	회	60,000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35,000	24,200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35,000 원 × 1	회	35,000	
○ 신원보증보험	50,000	50,000		○ 신원보증보험	50,000 원 × 1	회	50,000	
◎ 의료지원비	100,000	143,500		◎ 의료지원비	50,000 원 × 2	회	10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600,000			◎ 시설관리 및 장비유지비			2,600,000	
○ 경화초 청소	200,000	153,000		○ 경화초 청소	200,000 원 × 1	회	200,000	
○ 기타수선비	400,000	5,805,000		○ 기타수선비	200,000 원 × 12	회	2,400,000	
복지포인트(보조금)	1,400,000	1,400,000	100%				1,400,000	
◎ 10호봉 이상	800,000	800,000		◎ 10호봉 이상	400,000 원 × 2	명	800,000	
◎ 10호봉 이하	600,000	600,000		◎ 10호봉 이하	300,000 원 × 2	명	600,000	
복리후생비	13,030,000	12,853,795	99%				12,830,000	
◎ 급량비	4,760,000			◎ 급량비			5,760,000	
○ 중식대	4,560,000	5,881,030		○ 중식대	10,000 원 × 38	회 × 12	개월	4,560,000
○ 야근식대	200,000	89,800		○ 견체회식	600,000 원 × 2	회	1,200,000	
◎ 소모품비	1,800,000	1,434,185		◎ 소모품비	200,000 원 × 6	개월	1,200,000	
◎ 교육문화비	3,900,000	3,813,490		◎ 교육문화비	300,000 원 × 13	명	3,900,000	
◎ 팀별앨범비	650,000	619,490		◎ 팀별앨범비	50,000 원 × 13	명	650,000	
◎ 경조사비	1,800,000	1,010,700		◎ 경조사비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 기타	120,000	5,100		◎ 기타	30,000 원 × 4	회	120,000	
여비	1,450,000	1,460,500	101%				1,450,000	
여비	1,450,000	1,460,500	101%				1,450,000	
◎ 교통비	800,000	1,372,500		◎ 교통비	200,000 원 × 4	분기	800,000	
◎ 숙박비	400,000	88,000		◎ 숙박비	80,000 원 × 5	회	400,000	
◎ 식비	250,000	-		◎ 식비	10,000 원 × 25	회	250,000	
경상이전	84,664,297	84,728,290	100%				91,738,787	
연금부담금 등	84,664,297	84,728,290	100%				91,738,787	
퇴직급여부담금	24,057,600	24,803,140	103%				25,386,000	
퇴직급여부담금(보조금)	13,306,800	13,442,370	101%				15,100,800	
				◎ 퇴직적립금	1,258,400 원 × 12	개월	15,100,800	
사회보험부담금	30,454,326	29,889,750	98%				32,135,731	
◎ 국민연금보험료	12,991,228	2,729,240		◎ 국민연금보험료	25,386,080 원 × 0.05 × 12	개월	13,708,483	
◎ 국민건강보험료	11,544,871			◎ 국민건강보험료	25,386,080 원 × 0.04 × 12	개월	12,182,272	
◎ 고용보험료	3,031,287			◎ 고용보험료	25,386,080 원 × 0.01 × 12	개월	3,198,646	
◎ 산재보험료	2,886,940			◎ 산재보험료	25,386,080 원 × 0.01 × 12	개월	3,046,330	
사회보험부담금(보조금)	16,845,572	16,593,030	99%				19,116,256	
◎ 국민연금보험료	7,185,996			◎ 국민연금보험료	15,101,160 원 × 0.05 × 12	개월	8,154,626	
◎ 국민건강보험료	6,385,955			◎ 국민건강보험료	15,101,160 원 × 0.04 × 12	개월	7,246,745	
◎ 고용보험료	1,676,732			◎ 고용보험료	15,101,160 원 × 0.01 × 12	개월	1,902,746	
◎ 산재보험료	1,596,888			◎ 산재보험료	15,101,160 원 × 0.01 × 12	개월	1,812,139	
자본지출	3,000,000	6,437,500	215%				1,400,000	
시설비								
○ 시설비	-	-		◎ 시설유지보수비			-	
자산취득비	3,000,000	6,437,500	215%				1,400,000	
비품비	3,000,000	6,437,500	215%				1,400,000	
				◎ 비품구입비	350,000 원 × 4	분기	1,400,000	
사업비	207,246,829	181,892,436	88%				186,729,985	
영역별사업비	90,545,000	73,670,339	81%				62,297,000	
사무국사업비	21,626,000	12,411,390	57%				23,970,000	
◎ 평가 및 계획회의비	2,160,000	2,729,240		◎ 평가 및 계획회의비	30,000 원 × 18	명 × 2	회	1,080,000
◎ 활동가워크숍진행비	3,970,000	2,915,590		◎ 활동가워크숍진행비			5,240,000	
○ 식비	900,000	688,200		○ 식비	10,000 원 × 18	명 × 7	회	1,260,000
○ 간식비	540,000	437,810		○ 간식비	10,000 원 × 18	명 × 3	회	540,000
○ 숙박비	1,000,000	1,213,900		○ 숙박비	1,000,000 원 × 2	박	2,000,000	
○ 교통비	1,080,000	553,840		○ 교통비	60,000 원 × 18	명	1,080,000	
○ 재료비	450,000	21,840		○ 재료비	20,000 원 × 18	명	360,000	
◎ 반성폭력운동과인권 활동가교	1,140,000	899,000		◎ 반성폭력운동과인권 활동가교			1,140,000	
○ 강사비	900,000	600,000		○ 강사비	300,000 원 × 1	명 × 3	회	900,000
○ 회의비	60,000			○ 회의비	5,000 원 × 4	명 × 3	회	60,000
○ 다과비	180,000	299,000		○ 다과비	3,000 원 × 20	명 × 3	회	180,000
◎ 활동가 법률교육	216,000	112,000					-	
○ 다과비	216,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총회비 ○ 회계 및 사업감사비 - 회의비 - 회계감사비(선물) ○ 공증수수료 ○ 인쇄비(자료집) ○ 재료비(공로상패 외) ○ 기타 ◎ 이사회 및 소위원회 ○ 이사회회의비 ○ 소위원회 회의비 ◎ 자문위원회회의비 ◎ 자문위원예우 ◎ 활동가면담비 ◎ 동료상담운영비 ◎ 신규채용경비 ◎ 회의비 ◎ 기타 ○ 감사 명절선물 ○ 용역업체 명절선물 ○ 이사회 감사선물 ○ 기타 ◎ 조직문화워크숍 ○ 강사비 ○ 회의비 ○ 다과비 ◎ 팀매니저 연수프로그램 ○ 강사비 ○ 회의비 ◎ 국제교류협력비 	<p>4,120,000</p> <p>270,000</p> <p>120,000</p> <p>150,000</p> <p>1,600,000</p> <p>1,200,000</p> <p>1,000,000</p> <p>50,000</p> <p>900,000</p> <p>500,000</p> <p>400,000</p> <p>100,000</p> <p>500,000</p> <p>320,000</p> <p>250,000</p> <p>120,000</p> <p>100,000</p> <p>1,640,000</p> <p>400,000</p> <p>240,000</p> <p>900,000</p> <p>100,000</p> <p>740,000</p> <p>600,000</p> <p>80,000</p> <p>60,000</p> <p>1,350,000</p> <p>1,000,000</p> <p>350,000</p> <p>4,000,000</p>	<p>3,615,360</p> <p>312,000</p> <p>112,000</p> <p>200,000</p> <p>1,560,000</p> <p>924,000</p> <p>815,360</p> <p>4,000</p> <p>385,300</p> <p>385,300</p> <p>-</p> <p>97,800</p> <p>-</p> <p>80,000</p> <p>236,500</p> <p>-</p> <p>99,800</p> <p>499,200</p> <p>203,000</p> <p>174,700</p> <p>-</p> <p>121,500</p> <p>122,600</p> <p>-</p> <p>-</p> <p>122,600</p> <p>619,000</p> <p>-</p> <p>-</p> <p>4,434,330</p>	<p>1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총회비 ○ 회계 및 사업감사비 - 회의비 - 회계감사비(선물) ○ 공증수수료 ○ 인쇄비(자료집) ○ 재료비(공로상패 외) ○ 기타 ◎ 이사회 및 소위원회 ○ 이사회회의비 ○ 소위원회 회의비 ◎ 자문위원회회의비 ◎ 상시자문회의비 ◎ 활동가면담비 ◎ 동료상담운영비 ◎ 회의비 ◎ 기타 ○ 감사 명절선물 ○ 용역업체 명절선물 ○ 이사회 감사선물 ○ 기타 ◎ 조직문화워크숍 ○ 강사비 ○ 회의비 ○ 다과비 ◎ 팀매니저 연수프로그램 ○ 강사비 ○ 회의비 ◎ 국제교류협력비 	<p>3,520,000</p> <p>270,000</p> <p>120,000</p> <p>150,000</p> <p>1,600,000</p> <p>1,000,000</p> <p>600,000</p> <p>50,000</p> <p>900,000</p> <p>500,000</p> <p>400,000</p> <p>200,000</p> <p>80,000</p> <p>360,000</p> <p>300,000</p> <p>-</p> <p>100,000</p> <p>1,440,000</p> <p>200,000</p> <p>240,000</p> <p>900,000</p> <p>100,000</p> <p>760,000</p> <p>600,000</p> <p>100,000</p> <p>60,000</p> <p>850,000</p> <p>500,000</p> <p>350,000</p> <p>8,000,000</p>	<p>5,000,000</p> <p>900,000</p> <p>1,500,000</p> <p>900,000</p> <p>1,200,000</p> <p>500,000</p> <p>400,000</p> <p>6,805,000</p> <p>4,640,000</p> <p>2,640,000</p> <p>200,000</p> <p>600,000</p> <p>900,000</p> <p>120,000</p> <p>450,000</p> <p>70,000</p> <p>300,000</p> <p>2,000,000</p> <p>-</p> <p>-</p> <p>600,000</p> <p>500,000</p> <p>100,000</p> <p>1,320,000</p> <p>480,000</p> <p>840,000</p> <p>145,000</p> <p>120,000</p> <p>25,000</p> <p>100,000</p> <p>-</p> <p>-</p> <p>7,290,000</p> <p>4,290,000</p> <p>3,300,000</p> <p>990,000</p> <p>3,000,000</p> <p>3,000,000</p> <p>7,200,000</p> <p>20,000</p> <p>2,650,000</p> <p>120,000</p> <p>120,000</p> <p>680,000</p> <p>480,000</p> <p>200,000</p> <p>1,150,000</p> <p>1,000,000</p> <p>150,000</p> <p>7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 참가비 ◎ 공동부담금 ◎ 타단체후원금 ◎ 기타(조문금 등) 	<p>900,000</p> <p>300,000</p> <p>600,000</p> <p>1,200,000</p> <p>1,000,000</p>	<p>1,060,000</p> <p>240,000</p> <p>700,000</p> <p>2,000,000</p> <p>434,330</p>	<p>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여성연합) ◎ 참가비 (체재전환포럼, 경치대회, 여) ◎ 공동부담금 (강간죄개정, 여성폭력연) ◎ 타단체후원금 ◎ 기타(조문금 등) 	<p>900,000</p> <p>50,000</p> <p>300,000</p> <p>100,000</p> <p>100,000</p>	<p>1</p> <p>10</p> <p>3</p> <p>12</p> <p>5</p>	<p>1</p> <p>3</p> <p>3</p> <p>12</p> <p>5</p>	<p>900,000</p> <p>1,500,000</p> <p>900,000</p> <p>1,200,000</p> <p>5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 회의참가비 	<p>400,000</p> <p>120,000</p>	<p>400,000</p> <p>30,000</p>	<p>8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회비 (전선협) 	<p>400,000</p>	<p>1</p>	<p>1</p>	<p>400,000</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참여행사진행비 ○ 회원놀이터 - 물품구입비 - 물품구입비 등(연계프로그램) - 강사료 - 문자통역용역비 - 식비 - 식비(연계프로그램) ○ 한해보내기 - 식비 - 선물구입비 - 재료비 - 기타 ◎ 자원활동보조비 ○ 식비 ○ 자원활동면담비(신설) ◎ 소모임활동보조비 ○ 소모임활동비 ○ 강사비 ○ 재료비 ◎ 자문회의비 ○ 식비 ◎ 전문가네트워킹비 ○ 방문비 ◎ 회의비 	<p>2,602,000</p> <p>1,602,000</p> <p>100,000</p> <p>150,000</p> <p>500,000</p> <p>462,000</p> <p>150,000</p> <p>240,000</p> <p>1,000,000</p> <p>400,000</p> <p>300,000</p> <p>200,000</p> <p>100,000</p> <p>600,000</p> <p>500,000</p> <p>100,000</p> <p>500,000</p> <p>240,000</p> <p>200,000</p> <p>60,000</p> <p>100,000</p> <p>100,000</p> <p>300,000</p> <p>300,000</p> <p>100,000</p>	<p>2,647,830</p> <p>1,097,620</p> <p>-</p> <p>-</p> <p>200,000</p> <p>594,000</p> <p>303,620</p> <p>-</p> <p>884,540</p> <p>399,040</p> <p>431,000</p> <p>54,500</p> <p>-</p> <p>513,470</p> <p>462,670</p> <p>50,800</p> <p>-</p> <p>6,126,493</p> <p>15,000</p> <p>6,250,000</p> <p>1,090,000</p> <p>1,000,000</p> <p>90,000</p> <p>4,300,000</p> <p>270,000</p> <p>180,000</p> <p>3,000,000</p> <p>100,000</p> <p>750,000</p>	<p>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참여행사진행비 ○ 회원놀이터 - 물품구입비 - 다과비 - 강사료 - 식비 - 굿즈제작비(단체티셔츠) - 홍보물제작비 - 기획회의비 ○ 한해보내기 - 선물구입비 - 재료비 - 기타 ◎ 자원활동보조비 ○ 식비 ○ 자원활동면담비 ◎ 소모임활동보조비 ○ 소모임활동비 ○ 단기모임진행비 ◎ 회원홍보스터디 ○ 강의수강료 ○ 다과비 ◎ 회의비 	<p>2,602,000</p> <p>1,602,000</p> <p>100,000</p> <p>5,000</p> <p>300,000</p> <p>10,000</p> <p>15,000</p> <p>70,000</p> <p>100,000</p> <p>-</p> <p>원</p> <p>원</p> <p>원</p> <p>10,000</p> <p>10,000</p> <p>120,000</p> <p>120,000</p> <p>145,000</p> <p>30,000</p> <p>5,000</p> <p>25,000</p>	<p>1</p> <p>1</p> <p>30</p> <p>3</p> <p>6</p> <p>30</p> <p>1</p> <p>3</p> <p>-</p> <p>원</p> <p>원</p> <p>원</p> <p>10</p> <p>2</p> <p>4</p> <p>7</p> <p>1</p> <p>4</p> <p>5</p> <p>4</p>	<p>2,640,000</p> <p>200,000</p> <p>600,000</p> <p>900,000</p> <p>120,000</p> <p>450,000</p> <p>70,000</p> <p>300,000</p> <p>2,000,000</p> <p>-</p> <p>-</p> <p>회</p> <p>회</p> <p>회</p> <p>600,000</p> <p>500,000</p> <p>100,000</p> <p>1,320,000</p> <p>480,000</p> <p>840,000</p> <p>145,000</p> <p>120,000</p> <p>25,000</p> <p>100,000</p> <p>-</p> <p>-</p> <p>7,290,000</p> <p>4,290,000</p> <p>3,300,000</p> <p>990,000</p> <p>3,000,000</p> <p>3,000,000</p> <p>7,200,000</p> <p>20,000</p> <p>2,650,000</p> <p>120,000</p> <p>120,000</p> <p>680,000</p> <p>480,000</p> <p>200,000</p> <p>1,150,000</p> <p>1,000,000</p> <p>150,000</p> <p>700,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 라이선스 이용료 - 펀드레이징 PRO(상담소) - 커뮤니티케이션 C10(상담소) ○ 부가서비스 이용료 - 문자발송 및 인증수수료 ◎ 후원금출금대행수수료 ◎ CMS 이행보증보험료 ◎ 회원예우사업비 ○ 신규회원 - 인쇄비(웰컴키트) - 우편발송료 ○ 지속회원 특별예우 - 식비 - 다과비 - 굿즈제작비(디자인 및 제작비) - 재료비 - 커뮤니티데이 식비 	<p>6,090,000</p> <p>4,290,000</p> <p>3,300,000</p> <p>990,000</p> <p>1,800,000</p> <p>1,800,000</p> <p>7,200,000</p> <p>20,000</p> <p>6,250,000</p> <p>1,090,000</p> <p>1,000,000</p> <p>90,000</p> <p>4,300,000</p> <p>270,000</p> <p>180,000</p> <p>3,000,000</p> <p>100,000</p> <p>750,000</p>	<p>48,210,000</p> <p>44,023,316</p> <p>3,025,000</p> <p>907,500</p> <p>3,128,379</p> <p>6,126,493</p> <p>15,000</p> <p>6,250,000</p> <p>1,090,000</p> <p>105,360</p> <p>1,420,960</p>	<p>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 라이선스 이용료 - 펀드레이징 PRO(상담소) - 커뮤니티케이션 C10(상담소) ○ 부가서비스 이용료 - 문자발송 및 인증수수료 ◎ 후원금출금대행수수료 ◎ CMS 이행보증보험료 ◎ 회원예우사업비 ○ 신규회원예우 - 우편발송료 ○ 잠재회원자 개발비 - 회의비 - 자문비 ○ 지속회원예우 - 증여캠페인고즈 - 선물발송료 ○ 고액후원자 특별예우 	<p>6,090,000</p> <p>4,290,000</p> <p>3,300,000</p> <p>990,000</p> <p>1,800,000</p> <p>250,000</p> <p>600,000</p> <p>20,000</p> <p>20,000</p> <p>20,000</p> <p>20,000</p> <p>20,000</p> <p>20,000</p> <p>100,000</p> <p>1,000,000</p> <p>3,000</p>	<p>12</p> <p>12</p> <p>12</p> <p>12</p> <p>12</p> <p>1</p> <p>6</p> <p>6</p> <p>6</p> <p>2</p> <p>1</p> <p>1</p> <p>1</p> <p>1</p>	<p>4,290,000</p> <p>3,300,000</p> <p>990,000</p> <p>3,000,000</p> <p>3,000,000</p> <p>7,200,000</p> <p>20,000</p> <p>2,650,000</p> <p>120,000</p> <p>120,000</p> <p>680,000</p> <p>480,000</p> <p>200,000</p> <p>1,150,000</p> <p>1,000,000</p> <p>150,000</p> <p>700,000</p>	

○ 일시후원자 인터뷰비	100,000			- 물품제작비(갑사패 등)	100,000 원 × 3 명		300,000
- 다과비	100,000	20,000		- 명절선물	100,000 원 × 2 명	2 회	400,000
○ 구역후원자 특별예우	700,000						
- 물품제작비(갑사패 등)	300,000	84,200					
- 명절선물	400,000	482,900					
○ 문자추월	60,000						
- 상품구입비	60,000	26,010					
◎ 후원행사진행비	28,650,000						
○ 대관료	7,500,000						
○ 대여비(신설)	2,000,000	1,452,000					
○ 재료비(삭제)	-						
○ 식대	9,500,000	16,658,010					
○ 디자인유역비	4,600,000	4,561,260					
○ 인쇄비(초대장)(삭제)	-						
○ 인쇄비(포스터 등)(삭제)	-						
○ 삽외비(신설)	1,700,000	1,700,000					
○ 굿즈제작비	2,000,000	2,071,700					
○ 우편비(신설)	300,000	848,980					
○ 답사비(신설)	300,000	278,000					
○ TF회의비	150,000	137,000					
○ 홍보비	200,000	184,384					
○ 기타	400,000	790,180					
홍보사업비	10,135,000	8,532,350	84%				7,010,000
◎ 나눔터 제작비	8,460,000	8,044,050		◎ 나눔터 제작비			4,450,000
○ 인쇄제작비(1200부)	6,400,000	5,973,000		○ 인쇄제작비(1200부)	3,200,000 원 × 1 회	1 회	3,200,000
○ 우편발송유역비	1,600,000	1,807,070		○ 우편발송유역비	800,000 원 × 1 회	1 회	800,000
○ 원고료	360,000	208,200		○ 원고료	100,000 원 × 2 명 × 2 회	2 회	400,000
○ 개별우편발송료	100,000	55,780		○ 개별우편발송료	50,000 원 × 1 회	1 회	50,000
◎ 나눔터 개편사업비	800,000	-		◎ 나눔터 개편사업비			960,000
○ 업체회의비	200,000			○ 업체회의비	15,000 원 × 5 명 × 4 회	4 회	300,000
○ 레퍼런스비	600,000			○ 레퍼런스비	300,000 원 × 2 처 × 2 회	2 회	600,000
◎ 컨텐츠키획비	100,000	17,000		○ 방문비	30,000 원 × 2 처 × 2 회	2 회	60,000
○ 회의비	100,000	17,000		◎ 컨텐츠키획비			100,000
◎ 홈페이지 리뉴얼개발비	-	-		○ 회의비	10,000 원 × 2 명 × 5 회	5 회	100,000
◎ 자원활동가기자단 운영비	775,000	471,300		◎ 홈페이지 리뉴얼개발비			1,500,000
○ 인터뷰섭외비	100,000				500,000 원 × 3 회	3 회	1,500,000
○ 교통비	450,000	350,000					-
○ 회의비	210,000	119,500					-
○ 활동수료증 제작비	15,000	1,800					-
홍보사업비(보조금)	1,852,000	1,191,123	64%				1,952,000
◎ 이메일소식지 제작플랫폼 이용	312,000	378,600		◎ 이메일소식지 제작플랫폼 이용료			392,000
○ 스탠다드 5,000명 요금제	312,000			○ 스탠다드 10,000명 요금제	392,000 원 × 1 년	1 년	392,000
◎ 온라인홍보비	1,540,000	812,523		◎ 온라인홍보비			1,160,000
○ 광고수수료	320,000	54,523		○ 광고수수료	150,000 원 × 4 회	4 회	600,000
○ 디자인 플랫폼 이용료	1,120,000	658,000		○ 디자인 플랫폼 이용료	560,000 원 × 1 회선	1 년	560,000
○ 기타	100,000	100,000		◎ 영상프로그램 사용료	400,000 원 × 1 년	1 년	400,000
목적사업비	34,429,490	27,864,217	81%				43,783,130
인권사업비	11,677,000	10,848,097	93%				24,264,000
◎ 이슈대응사업비/간담회	1,600,000	1,177,200		◎ 이슈대응사업비/스터디			200,000
				○ 다과비	5,000 원 × 8 명 × 1 회	1 회	40,000
				○ 도서구입비	20,000 원 × 8 권 × 1 회	1 회	160,000
				◎ 이슈대응사업비/토론회			1,940,000
				○ 자문비	150,000 원 × 3 명 × 1 회	1 회	450,000
				○ 식비	10,000 원 × 15 명 × 1 회	1 회	150,000
				○ 다과비	3,000 원 × 30 명 × 1 회	1 회	90,000
				○ 인쇄비	5,000 원 × 50 부 × 1 회	1 회	250,000
				○ 발제비	150,000 원 × 5 명 × 1 회	1 회	750,000
				○ 문자통역비	250,000 원 × 1 회	1 회	250,000
				◎ 이슈대응사업비/간담대응			1,400,000
				○ 간담대응	300,000 원 × 4 분기	4 분기	1,200,000
				○ 식비	10,000 원 × 20 명 × 1 회	1 회	200,000
				◎ 홍선대응/정치특강			1,697,000
				○ 강사료	500,000 원 × 1 명 × 1 회	1 회	500,000
				○ 홍보비	100,000 원 × 1 회	1 회	100,000
				○ 장소대관비	550,000 원 × 1 회	1 회	550,000
				○ 문자통역비	99,000 원 × 3 시간 × 1 회	1 회	297,000
				○ 다과비	3,000 원 × 50 명 × 1 회	1 회	150,000
				○ 식비	10,000 원 × 10 명 × 1 회	1 회	100,000
				◎ 홍선대응/정치토크쇼			1,417,000
				○ 패널비	150,000 원 × 3 명 × 1 회	1 회	450,000
				○ 회의장식비	100,000 원 × 3 명 × 1 회	1 회	300,000
				○ 홍보비	100,000 원 × 1 회	1 회	100,000
				○ 문자통역비	99,000 원 × 3 시간 × 1 회	1 회	297,000
				○ 다과비	3,000 원 × 40 명 × 1 회	1 회	120,000
				○ 식비	10,000 원 × 15 명 × 1 회	1 회	150,000
				◎ 홍선대응/정책분석워크숍			160,000
				○ 재료비	50,000 원 × 2 회	2 회	100,000
				○ 다과비	3,000 원 × 10 명 × 2 회	2 회	60,000
				◎ 홍선대응/한국여성성대회			1,920,000
◎ 세계여성의날 한국여성성대회				○ 부스참가비	200,000 원 × 1 회	1 회	200,000
○ 부스참가비	200,000	219,000		○ 재료비	200,000 원 × 1 회	1 회	200,000
○ 재료비	200,000	405,350		○ 인쇄비	200,000 원 × 1 회	1 회	200,000
○ 식비	150,000	226,530		○ 디자인비	800,000 원 × 1 회	1 회	800,000
○ 교통비	50,000	23,300		○ 식비	10,000 원 × 27 명 × 1 회	1 회	270,000
○ 조직위분담금	600,000	500,000					

				○ 교통비	25,000 원 × 2 회	50,000	
				○ 특별분담금	200,000 원 × 1 회	200,000	
				◎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운동/입법역선		350,000	
				○ 다과비	3,000 원 × 10 명 × 2 회	60,000	
				○ 인쇄비	50,000 원 × 1 회	50,000	
				○ 재료비	100,000 원 × 1 회	100,000	
				○ 식비	10,000 원 × 10 명 × 1 회	100,000	
				○ 교통비	40,000 원 × 1 회	40,000	
				◎ 친족성폭력공소시효폐지운동/생존기념축제		4,700,000	
				○ 음향대여 및 증계용역비	1,500,000 원 × 1 회	1,500,000	
				○ 무대대여 및 현수막제작비	500,000 원 × 1 회	500,000	
				○ 장비대여비	100,000 원 × 1 회	100,000	
				○ 수어통역비	300,000 원 × 2 명 × 1 회	600,000	
				○ 지지공연비	1,000,000 원 × 1 명 × 1 회	1,000,000	
				○ 재료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인쇄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식비	10,000 원 × 30 명 × 1 회	300,000	
				○ 다과비	4,000 원 × 25 명 × 1 회	100,000	
				○ 교통비	50,000 원 × 2 회	100,000	
				◎ 연대활동사업비		3,610,000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20,000 원 × 1 회	120,000	
				○ 모임넷	100,000 원 × 2 회	200,000	
				○ 군성넷	100,000 원 × 1 회	100,000	
				○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100,000 원 × 1 회	100,000	
				○ 장애인권리증심노동자대책위	100,000 원 × 1 회	100,000	
				○ 긴급/신규 연대활동	100,000 원 × 6 회	600,000	
				○ 교통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식비	10,000 원 × 5 명 × 4 회	200,000	
				○ 우편비	10,000 원 × 4 분기	40,000	
				○ 서울퀴어문화축제		1,950,000	
				- 부스참가비	300,000 원 × 1 회	300,000	
				- 식비	10,000 원 × 20 명 × 1 회	200,000	
				- 제작비	400,000 원 × 1 회	400,000	
				- 디자인비	800,000 원 × 1 회	800,000	
				- 인쇄비	200,000 원 × 1 회	200,000	
				- 교통비	25,000 원 × 2 회	50,000	
				◎ 수요시위	500,000 원 × 1 회	500,000	
				◎ 자문회의비	10,000 원 × 15 명 × 1 회	150,000	
				◎ 회의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기타	100,000 원 × 1 회	100,000	
				◎ 온라인 광고비	100,000 원 × 1 회	100,000	
				◎ 적극적합의단행본		5,684,000	
				○ 회의참석비	100,000 원 × 8 명 × 2 회	1,600,000	
				○ 다과비	3,000 원 × 14 명 × 2 회	84,000	
				○ 원고료	500,000 원 × 8 명 × 2 회	4,000,000	
				◎ 적극적합의강의/홍보		236,000	
				○ 다과비	3,000 원 × 6 명 × 2 회	36,000	
				○ 홍보비	200,000 원 × 2 회	200,000	
				상담사업비		9,850,000	
				◎ 상담사업운영비	250,000	400,000	
				○ 자문위원회	150,000	300,000	
				○ 회의비	100,000	100,000	
				○ 사무비	-	200,000	
				○ 용역비	-	100,000	
				◎ 사건지원비	2,800,000	2,800,000	
				◎ 상담원지원비	1,650,000	3,510,000	
				○ 재충전 및 소진예방프로그램	1,000,000	3,000,000	
				○ 슈퍼비전	650,000	400,000	
				- 회의비	200,000	200,000	
				- 기관방문선물구입비	50,000	200,000	
				- 식비	400,000	110,000	
				○ 동료슈퍼비전	10,000 원 × 20 명 × 2 회	50,000	
				- 기관방문선물구입비	50,000 원 × 1 회	20,000	
				- 다과비	5,000 원 × 4 명 × 1 회	40,000	
				- 식비	10,000 원 × 4 명 × 1 회	40,000	
				◎ 상담원지원기모임		540,000	
				○ 식비	10,000 원 × 18 명 × 2 회	360,000	
				○ 다과비	5,000 원 × 18 명 × 2 회	180,000	
				◎ 필요법률상담운영비	10,000 원 × 10 회	100,000	
				◎ 연대활동비(공동분담금)	200,000 원 × 3 회	600,000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9,650,000	-	
				○ 강사비	7,700,000	-	
				○ 홍보비	200,000	-	
				○ 인쇄비	950,000	-	
				○ 다과비	400,000	-	
				○ 재료비	300,000	-	
				○ 예비비	100,000	-	
				◎ 여성주의상담스터디	100,000	300,000	
				○ 다과비	100,000	100,000	
				◎ 종결사례포럼	900,000	200,000	
				○ 발표비	800,000	100,000	
				○ 다과비	100,000	47,500	
				◎ 지역 내 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 높이기		200,000	

				○ 예비비	200,000 원 ×	200,000
상당사업비(보조금)	1,297,000	1,947,600	150%			1,396,000
◎ 상당사업운영비	697,000			◎ 상당사업운영비		796,000
○ 업무용 휴대폰요금	297,000	358,600		○ 업무용 휴대폰요금	33,000 원 × 12개월	396,000
○ 사무용품 구입비	400,000	149,000		○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 원 × 4분기	400,000
◎ 상당원지원비/슈퍼비전	600,000	600,000		◎ 상당원지원비/슈퍼비전		600,000
◎ 상당원지원비/총사자소진예방	600,000	840,000		- 강사비	300,000 원 × 2회	600,000
파발마기금사업비	2,265,490	900,360	40%			1,365,130
◎ 내담자지원비	2,265,490	900,360		◎ 내담자지원비	1,365,130 원 × 연간	1,365,130
정책개발사업비	2,600,000	1,613,005	62%			6,110,000
◎ 총선 대응 성평등 연대	2,000,000	240,005		◎ 특별법30년토론회		5,400,000
○ 발제비	600,000			○ 홍보제작	500,000 원 × 1회	500,000
○ 사회비	200,000			○ 자료인쇄	15,000 원 × 80부	1,200,000
○ 다과비	150,000			○ 발제토론사회비	250,000 원 × 8명 × 1회	2,000,000
○ 인쇄광고비	1,050,000			○ 문자수어통역비	300,000 원 × 2명 × 1회	600,000
◎ 관례분석토론회(신설)	600,000	598,000		○ 기획회의비	10,000 원 × 5명 × 5회	250,000
○ 토론비	400,000	400,000		○ 다과비	300,000 원 × 1회	300,000
○ 문자통역비	200,000	198,000		○ 장소대관비	550,000 원 × 1회	550,000
◎ 행사공탁토론회(신설)		775,000		◎ 통합대응TF		710,000
○ 발제비	600,000	600,000		○ 기획회의비	10,000 원 × 6명 × 6회	360,000
○ 사례비	175,000	175,000		○ 자료제작비	100,000 원 × 1회	100,000
				○ 확대간담회 다과비	10,000 원 × 25명 × 1회	250,000
법률사업비	-	-	0%			798,000
				◎ 공익법률지원		
				○ 개별사건		-
				- 회의비	10,000 원 × 3명 × 3회	90,000
				- 사건지원비(실비)	50,000 원 × 3분기	150,000
				○ 기존사건		-
				- 사건지원비(실비)	20,000 원 × 3건	60,000
				○ 사례발표회		-
				- 다과비	5,000 원 × 18명 × 1회	90,000
				◎ 활동가 법률교육		-
				○ 다과비	3,000 원 × 18명 × 2회	108,000
				◎ 다임동 프로젝트		-
				- 회의비	10,000 원 × 5명 × 2회	100,000
				- 예비비	100,000 원 × 1회	100,000
				◎ 공익변호사 네트워크구축		-
				- 회의비	10,000 원 × 2명 × 5회	100,000
특별사업비	82,272,339	80,357,880	98%			80,649,855
성폭력피해자의료비	50,000,000	47,516,830	95%			50,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9,400,000	19,400,000	100%			27,450,000
◎ 개별상담	9,000,000	9,000,000		◎ 개별상담	100,000 원 × 6명 × 15회	9,000,000
◎ 작은말하기	4,250,000	4,250,000		◎ 작은말하기		4,350,000
○ 대관료	1,000,000	1,000,000		○ 대관료	100,000 원 × 10회	1,000,000
○ 식비	1,500,000	2,097,800		○ 식비	10,000 원 × 15명 × 10회	1,500,000
○ 다과비	750,000	173,440		○ 다과비	5,000 원 × 15명 × 10회	750,000
○ 홍보비	700,000	701,000		○ 홍보비	700,000 원 × 1회	700,000
○ 재료비	200,000	214,670		○ 재료비	200,000 원 × 1회	200,000
○ 회의비	60,000	63,090		○ 회의비	10,000 원 × 2명 × 5회	100,000
○ 예비비	40,000	-		○ 예비비	100,000 원 × 1회	100,000
◎ 집단상담	6,150,000	6,150,000		◎ 집단상담		6,150,000
○ 강사비(사전/사후)	2,400,000	2,400,000		○ 강사비(사전/사후)	150,000 원 × 8명 × 2회	2,400,000
○ 강사비	2,500,000	2,500,000		○ 강사비	250,000 원 × 10회	2,500,000
○ 다과비	500,000	600,000		○ 다과비	5,000 원 × 10명 × 10회	500,000
○ 재료비	300,000	300,000		○ 재료비	300,000 원 × 1회	300,000
○ 홍보비	350,000	350,000		○ 홍보비	350,000 원 × 1회	350,000
○ 예비비	100,000	-		○ 예비비	100,000 원 × 1회	100,000
				◎ 생존자말하기대회		7,950,000
				○ 다과비(워크숍)	5,000 원 × 10명 × 7회	350,000
				○ 식비(워크숍)	10,000 원 × 10명 × 7회	700,000
				○ 다과비(분행사)	2,000 원 × 100명 × 1회	200,000
				○ 식비(분행사)	10,000 원 × 20명 × 1회	200,000
				○ 장소대관비	1,500,000 원 × 1회	1,500,000
				○ 지지공연비	500,000 원 × 2명 × 1회	1,000,000
				○ 기록사진촬영및편집비	500,000 원 ×	500,000
				○ 교통비	200,000 원 ×	200,000
				○ 홍보디자인비	500,000 원 × 4종	2,000,000
				○ 홍보제작비	500,000 원 ×	500,000
				○ 예비비	100,000 원 ×	100,000
				○ 재료비	500,000 원 ×	500,000
				○ 기자재대여비	200,000 원 ×	200,000
보조금공모사업비	10,500,000	10,500,000	0%			-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증진공모사업(10,500,000	10,500,000				
○ 여성,생존자 심층 인터뷰	2,988,000	2,146,050				
○ 여성의 성폭력의 경험, 분석 및	6,712,000	7,556,350				
○ 성격등의 대중인식 개선	800,000	797,600				
기타공모사업비	-	-	-			-
공동분담금	2,372,339	2,941,050	124%			3,199,855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2,372,339	2,941,050		◎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		3,199,855
사업 외 지출	12,000,000	4,063,510	34%			20,400,000
사업 외 지출	-	63,510	0%			-
예탁금 및 예수금 지출	-	63,510	0%			-
◎ 예금	-	63,510				-
법인전출금	12,000,000	4,000,000	33%			20,400,000

	부설기관보조금	12,000,000	4,000,000	33%		20,400,000
	◎ 열림터	12,000,000	4,000,000		◎ 열림터	20,400,000
예비비 및 기타		6,497,728	6,726,746			785,048
예비비		-	-			-
반환금		6,497,728	6,726,746			785,048
국비보조금 반환금		-	2,500,805			-
시비보조금 반환금		3,960,228	856,341			85,048
후원취소 반환금		2,537,500	3,350,000			700,000
◎ 경기후원금/후원회비		200,000	1,410,000			500,000
◎ 일시후원금		500,000	100,000			200,000
◎ 찾아가는홍보기부/상담원교육		1,837,500	1,840,000			-
기타 반환금		-	19,600			-
차기이월금		62,228,461	112,850,292	181%		53,209,352

회 계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일반회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을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일반회계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의 일반회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세제잉여금(안)이 제반 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정히 작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감사 배 자 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귀중

열린터 예결산서(수입)

수입

장	관	항	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4년 예산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				504,430,385	542,622,312	108%		553,241,158
사업수입				421,499,960	464,974,142	110%		437,253,610
모금사업수입				93,024,000	149,835,682	161%		110,400,000
경기후원금				70,020,000	78,836,984	113%		80,400,000
◎ 후원회비				70,020,000	77,756,984		◎ 후원회비 22,000 원 × 300 명 × 12 개월	79,200,000
◎ 회비				1,080,000	1,080,000		◎ 회비 10,000 원 × 10 명 × 12 개월	1,200,000
일시후원금				20,004,000	25,643,998	128%		24,000,000
◎ 후원회비				20,004,000	25,643,998		◎ 일시후원금 2,000,000 원 × 12 개월	24,000,000
◎ 후원회비				3,000,000	45,354,700	1512%		6,000,000
◎ 후원회비				3,000,000	45,354,700		◎ 현물후원금 500,000 원 × 12 개월	6,000,000
보조금수입				315,665,960	299,171,460	95%		313,243,610
국비보조금				239,545,960	233,576,180	98%		249,152,610
◎ 운영비				190,720,000	197,473,000		◎ 운영비 303,266 원 × 5 명 × 12 개월	207,346,650
◎ 생계비				18,195,960	10,903,180		◎ 성폭력피해자의료비 900,000 원 × 4 분기	18,195,960
◎ 성폭력피해자의료비				16,000,000	17,000,000		◎ 퇴소자립지원금	15,000,000
◎ 사회훈련비				3,600,000	3,600,000		◎ 기능보강비	3,600,000
◎ 퇴소자립지원금				5,000,000	-		◎ 냉난방지원비	-
◎ 기능보강비				6,030,000	3,800,000			4,210,000
◎ 냉난방지원비				-	800,000			800,000
시비보조금				75,570,000	65,275,280	86%		63,651,000
◎ 종사자 처우개선비				73,920,000	62,031,000		◎ 복지포인트	62,031,000
◎ 복지포인트				1,500,000	1,500,000		◎ 소진예방지원금	1,500,000
◎ 소진예방지원금				150,000	30,000		◎ 명절위로금 30,000 원 × 4 명 × 4 명 ×	120,000
◎ 명절위로금				550,000	320,000	58%		440,000
◎ 춘계부식비				75,000	30,000		◎ 하계수련회비 200,000 원 × 1 회	60,000
◎ 하계수련회비				200,000	200,000		◎ 김장비 15,000 원 × 4 명 × 4 명 ×	200,000
◎ 김장비				75,000	30,000		◎ 명절위로금 30,000 원 × 4 명 × 4 명 ×	60,000
◎ 명절위로금				200,000	60,000			120,000
특별사업수입				12,810,000	15,967,000	125%		13,61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1,710,000	14,767,000	126%		12,410,00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1,100,000	1,200,000	109%		1,200,000
◎ 광열비지원금 600,000 원 × 2 회				1,100,000	1,200,000			1,200,000
민간대행사업수입				-	-			-
전시협지원금				-	-			-
사업 외 수입				82,930,425	77,648,170	94%		115,987,548
이월금				69,730,425	69,730,425	100%		87,851,779
전년도 이월금				69,730,425	69,730,425	100%		87,851,779
법인전입금				12,000,000	4,000,000	33%		20,400,000
법인전입금				12,000,000	4,000,000	33%		20,400,000
◎ 법인전입금				12,000,000	4,000,000			20,400,000
예탁금 및 예수금 수입				-	-			-
예수금 수입				-	-			-
기타수입				1,200,000	3,917,745	326%		7,735,769
이자수입				900,000	2,512,017	279%		7,235,769
◎ 이자수입				900,000	2,512,017			7,235,769
잡수입				300,000	1,405,728			500,000
◎ 기타 잡수입				300,000	1,405,728			500,000
과년도 수입				-	-			-
과년도 수입				-	-			-

열린터 예결산서(지출)

지출

과목	2023년 예산	2023년 결산	실행률	산출내역	2024년 예산
장 관 함 목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린터	504,430,385	542,622,312	108%		553,241,158
인건비	198,137,180	196,556,220	99%		213,890,640
기본급	149,600,000	149,347,000	100%		161,431,000
기본급	-	-		◎ 기본급	161,431,000
기본급(보조급)	149,600,000	149,347,000	100%	○ 3급 9호봉(3월 승급) 3,342,167 원 × 1 명 > 12 개월	40,106,004
				○ 5급 9호봉(8월 승급) 2,703,273 원 × 1 명 > 11 개월	29,736,003
				○ 5급 7호봉(4월 승급) 2,558,636 원 × 1 명 > 11 개월	28,144,996
				○ 5급 5호봉(1월 승급) 2,444,000 원 × 1 명 > 12 개월	29,328,000
				○ 5급 4호봉(4월 승급) 2,437,750 원 × 1 명 > 12 개월	29,253,000
				○ 5급 4호봉(1월 승급) 2,431,500 원 × 2 명 > 1 개월	4,863,000
수당	48,537,180	47,209,220	97%		52,459,640
가계보전수당(보조급)	15,520,500	15,613,600	101%		18,242,960
	15,040,500	14,973,600		◎ 명절휴가비 13,485,800 원 × 1 × 2 회	16,182,960
	480,000	640,000		◎ 가족수당 85,833 원 × 2 명 > 12 개월	2,060,000
복리후생/실비보상	12,000,000	10,950,830	91%		12,000,000
				◎ 기타 급여보전비 1,000,000 원 × 12 개월	12,000,000
복리후생/실비보상(보조급)	18,616,680	18,244,790	98%		19,816,680
	6,000,000	6,000,000		◎ 정액급식비 120,000 원 × 5 명 > 12 개월	7,200,000
	12,616,680	12,244,790		◎ 연장근로수당 1,051,390 원 × 12 개월	12,616,680
직무수행(보조급)	2,400,000	2,400,000	100%		2,400,000
				◎ 직책수당 200,000 원 × 1 명 > 12 개월	2,400,000
물건비	32,657,000	36,684,110	112%		37,522,800
일반운영비	32,153,000	36,408,210	113%		37,122,800
사무관리비	7,200,000	7,400,644	103%		8,400,000
◎ 사무비 1,200,000	875,644			◎ 사무비 300,000 원 × 4 분기	1,200,000
◎ 운영수당/숙직비 6,000,000	6,525,000			◎ 운영수당/숙직비 120,000 원 × 5 명 > 12 개월	7,200,000
◎ 자문비	-	-		◎ 자문비	-
사무관리비(보조급)	7,700,000	11,861,731	154%		10,876,800
◎ 일반수용비 6,700,000				◎ 일반수용비	9,876,800
		2,860,000		○ 지급수료	5,096,800
		1,636,800		- 사무대행용역비 220,000 원 × 13 개월	2,860,000
		230,930		- 무인경비용역비 136,400 원 × 12 개월	1,636,800
				- 기타 50,000 원 × 12 개월	600,000
		257,470		○ 사무비	2,600,000
		300,988		- 사무용품 구입비 100,000 원 × 4 분기	400,000
		1,788,383		- 도서인쇄비 50,000 원 × 4 분기	200,000
				- 기타소모품 구입비 500,000 원 × 4 분기	2,000,000
		2,376,000		○ 유지보수비	2,180,000
		33,900		- 사무기기 유지보수비 165,000 원 × 12 개월	1,980,000
		662,980		- 기타 50,000 원 × 4 분기	200,000
◎ 보수교육비 1,000,000	662,980			◎ 보수교육비 200,000 원 × 5 명	1,000,000
◎ 소진예방프로그램	-	1,714,280			-
공공운영비	1,503,000	701,508	47%		783,000
		91,230		◎ 통신비	120,000
		508,778		○ 우편발송요금 10,000 원 × 12 개월	120,000
		39,000		◎ 시설관리비	600,000
				○ 수도광열비 125,000 원 × 4 분기	500,000
		62,500		○ 기타수선비 25,000 원 × 4 분기	100,000
				◎ 제세공과금	63,000
				○ 법인세 63,000 원 × 1 회	63,000
				◎ 기타수선비	-
공공운영비(보조급)	7,500,000	8,496,953	113%		9,793,000
		12,060		◎ 통신비	1,476,000
		626,690		○ 우편발송요금 28,000 원 × 12 개월	336,000
		456,072		○ 전화요금 55,000 원 × 12 개월	660,000
				○ 인터넷요금 40,000 원 × 12 개월	480,000
		706,800		◎ 수도광열비	3,900,000
		1,126,170		○ 수도요금 150,000 원 × 6 개월	900,000
		1,570,310		○ 전기요금 100,000 원 × 12 개월	1,200,000
				○ 가스요금 150,000 원 × 12 개월	1,800,000
				◎ 보험료	445,000
		211,851		○ 화재보험 220,000 원 × 1 회	220,000
		112,000		○ 신원보증보험 225,000 원 × 1 회	225,000
				◎ 시설관리 및 경비유지비	3,972,000
		2,728,000		○ 엘리베이터유지관리비 231,000 원 × 12 개월	2,772,000
		947,000		○ 기타수선비 300,000 원 × 4 분기	1,200,000
복지포인트(보조급)	1,500,000	1,500,000			1,500,000
복리후생비	6,750,000	6,447,374	96%		5,770,000
◎ 급량비				◎ 급량비	1,800,000
○ 야근식대		-		○ 야근식대	-

	○ 숙직식대		1,734,104		○ 숙직식대	150,000 원 ×	12 개월	1,800,000
	○ 소모품비	663,270			○ 소모품비	12,000 원 ×	5 명x 12 회	720,000
	○ 교육문화비	1,500,000			○ 교육문화비	300,000 원 ×	5 명x 1 회	1,500,000
	○ 경조사비	200,000			○ 경조사비	100,000 원 ×	2 회	200,000
	○ 팀별 엠티비	250,000			○ 팀별 엠티비	50,000 원 ×	5 명x 1 회	250,000
	○ 상담지원비	2,000,000			○ 상담원지원비	1,000,000 원 ×	1 명x	1,000,000
	○ 기타	100,000			○ 기타			300,000
여비		504,000	275,900	55%				400,000
	여비	504,000	225,500	45%				400,000
	○ 교통비				○ 교통비	100,000 원 ×	4 분기	400,000
	여비(보조금)	-	50,400					-
경상이전		35,520,000	35,787,790	101%				36,300,000
	연금부담금 등	35,520,000	35,787,790	101%				36,300,000
	퇴직급여부담금	840,000	936,560	111%				840,000
	퇴직급여부담금(보조금)	15,720,000	15,466,930	98%	○ 퇴직적립금	70,000 원 ×	12 개월	840,000
	사회보험부담금	-	-		○ 퇴직적립금	1,310,000 원 ×	12 개월	15,720,000
	사회보험부담금(보조금)	18,960,000	19,384,300	102%				19,740,000
			7,647,610		○ 국민연금보험료	650,000 원 ×	12 개월	7,800,000
			7,697,810		○ 국민건강보험료	650,000 원 ×	12 개월	7,800,000
			2,198,340		○ 고용보험료	185,000 원 ×	12 개월	2,220,000
			1,840,540		○ 산재보험료	160,000 원 ×	12 개월	1,920,000
자본지출		7,530,000	5,249,000					5,710,000
	시설비	-	-					-
	시설비	-	-					-
	민간대행사업비	6,030,000	3,800,000					4,210,000
	민간대행사업비(보조금)	6,030,000	3,800,000					4,210,000
					○ 가능보장사업비	4,210,000 원 ×	1 회	4,210,000
	자산취득비	1,500,000	1,449,000					1,500,000
	자산취득비	1,500,000	1,449,000					1,500,000
					○ 보일러교체	1,500,000 원 ×	1 회	1,500,000
사업비		123,995,000	150,441,863	121%				130,445,000
	영역별사업비	4,545,000	4,233,949	93%				5,590,000
	모금사업비	3,905,000	3,543,949	91%				3,900,000
	○ 후원금출금수수료	1,500,000	1,670,014		○ 후원금출금수수료	425,000 원x	4 분기	1,700,000
	○ CMS이행보증보험료	65,000	50,750		○ CMS이행보증보험료			60,000
	○ 회원예우사업비	40,000	2,200		○ 회원예우사업비	10,000 원x	4 분기	40,000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2,200,000	1,820,985		○ 회원관리프로그램이용료	2,000,000 원x	1 회	2,000,000
	○ 기타	100,000	-		○ 기타	100,000 원x	1 회	100,000
	홍보사업비	-	-					1,000,000
	홍보사업비(보조금)	-	-					-
	대외협력사업비	240,000	290,000	121%				290,000
			240,000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분담금	240,000 원x	1 회	240,000
			50,000		○ 기타	50,000 원x	1 회	50,000
	대외협력사업비(보조금)	400,000	400,000	100%				400,000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비	400,000 원x	1 회	400,000
목적사업비		90,640,000	113,534,582	125%				96,345,000
	생활인지원사업비	19,389,000	54,569,203	281%				16,329,000
	○ 일상생활지원비	9,600,000	51,210,023		○ 일상생활지원비	800,000 원x	12 개월	9,600,000
	○ 식생활보조용역비	4,320,000	2,400,000		○ 식생활보조용역비	360,000 원x	12 개월	4,320,000
	○ 학교학습지원비	2,400,000	309,100		○ 학교학습지원비	125,000 원x	4 분기	500,000
	○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2,160,000	650,080		○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250,000 원x	4 분기	1,000,000
	○ 사례관리비	909,000	-		○ 사례관리비	303,000 원x	3 회	909,000
	생활인생계비(보조금)	18,195,960	10,903,180	60%				18,195,960
	생활인준계부식비(보조금)	75,000	30,000	40%	○ 생계비	303,266 원x	5 명 12 개월	18,195,960
					○ 준계부식비	15,000 원x	5 명	75,000
	생활인하계수련회비(보조금)	200,000	238,500	119%				200,000
					○ 하계수련회비	40,000 원x	5 명	200,000
	생활인김장비(보조금)	75,000	30,000	40%				75,000
					○ 김장비	15,000 원x	5 명	75,000
	생활인사회훈련비(보조금)	3,600,000	4,118,200	114%				3,600,000
					○ 사회훈련비	900,000 원x	4 분기	3,600,000
	생활인지원사업비(보조금)	20,000,040	20,254,376	101%				20,600,040
	○ 일상생활지원비	9,360,000	13,851,366		○ 일상생활지원비	830,000 원x	12 개월	9,960,000
	○ 학교학습지원비	2,280,000	2,112,910		○ 학교학습지원비	190,000 원x	12 개월	2,280,000
	○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1,800,000	2,294,120		○ 의료법률지원부대비용	150,000 원x	12 개월	1,800,000
	○ 프로그램비	4,400,040	1,995,980		○ 프로그램비	366,670 원x	12 개월	4,400,040
	○ 직업훈련비	2,160,000	-		○ 직업훈련비	180,000 원x	12 개월	2,160,000
	생활인영점위문금(보조금)	350,000	60,000	17%				120,000
	퇴소자립지원금(보조금)	5,000,000	-	0%				-
	도우리지원사업비	23,755,000	23,331,123	98%				25,760,000
	○ 일상생활지원비	10,660,000	6,773,640		○ 일상생활지원비			7,080,000
			273,900		○ 개인면담	40,000 원x	12 명x	480,000
			1,085,040		○ 자립생활지원비	200,000 원x	5 명x	1,000,000
			-		○ 퇴소지원금	1,000,000 원x	2 명x	2,000,000
			1,000,000		○ 대학입학지원금	1,000,000 원x	2 명x	2,000,000

		-			○ 법률지원부대비용	25,000 원x	12 개월	300,000
		4,414,700			○ 유품지원	100,000 원x	10 명x	1,000,000
					○ 경조사비	100,000 원x	3 명x	300,000
	◎ 도우리모임사업비	1,340,000	2,069,083		◎ 도우리모임사업비			2,220,000
			828,150		○ 식비	10,000 원x	15 명x 4 회	600,000
			264,390		○ 다과비	5,000 원x	15 명x 4 회	300,000
			694,843		○ 재료비	150,000 원x	4 회	600,000
			281,700		○ 교통비	40,000 원x	3 명x	120,000
					○ 감사비	300,000 원x	2 회	600,000
	◎ 도우리플랫폼사업비	7,755,000	7,908,600		◎ 도우리플랫폼사업비			5,180,000
			7,500,000		○ 개별지원금	500,000 원x	10 명x 1 회	5,000,000
			124,500		○ 다과비	5,000 원x	12 명x 1 회	60,000
			284,100		○ 식비	10,000 원x	12 명x 1 회	120,000
	◎ 의료비지원	4,000,000	6,579,800		◎ 의료비지원			7,200,000
					◎ 홈케어데이			4,080,000
					○ 식비	10,000 원x	40 명x 3 회	1,200,000
					○ 다과비	5,000 원x	40 명x 1 회	200,000
					○ 재료비	400,000 원x	1 회	400,000
					○ 선물비	50,000 원x	40 명x	2,000,000
					○ 교통비	40,000 원x	6 명x	240,000
					○ 회의비	5,000 원x	4 명x 2 회	40,000
	자립홈사업비	-	-					11,390,000
					◎ 사전준비금			1,390,000
					○ 회의비	100,000 원x	5 회	500,000
					○ 기관방문비	30,000 원x	3 회	90,000
					○ 차문비	300,000 원x	2 회	600,000
					○ 기타	100,000 원x	2 회	200,000
					◎ 자립홈운영비			10,000,000
	특별사업비	28,810,000	32,673,332	113%				28,51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16,000,000	17,000,000	106%				15,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11,710,000	14,767,000	126%				12,410,000
	◎ 개별 성교육	4,650,000	5,580,000		◎ 개별 성교육			4,650,000
					○ 감사비	150,000 원x	5 명x 6 회기	4,500,000
					○ 다과비	5,000 원x	5 명x 6 회기	150,000
	◎ 심신회복캠프	2,760,000	1,888,160		◎ 심신회복캠프			2,760,000
					○ 교통비	100,000 원x	12 명	1,200,000
					○ 숙박비	100,000 원x	6 실	600,000
					○ 식비	10,000 원x	12 명x 5 식	600,000
					○ 다과비	5,000 원x	12 명x 2 식	120,000
					○ 기타	20,000 원x	12 명	240,000
	◎ 글쓰기	4,300,000	4,792,000		◎ 자기방어훈련			5,000,000
					○ 감사비	300,000 원x	15 회기	4,500,000
					○ 다과비	5,000 원x	6 명x 15 회기	450,000
					○ 재료비	50,000 원x	1 회	50,000
	◎ 기타-요가	-	1,535,000					
	◎ 기타-도예	-	971,84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1,100,000	906,332	82%				1,100,000
	◎ 광열비지원금	1,100,000			◎ 광열비지원금			1,100,000
			774,830		○ 하계냉방비	300,000 원x	3 개월	900,000
			131,502		○ 월동난방비	100,000 원x	2 개월	200,000
	사업 외 지출	30,000,000	30,000,000	100%				40,000,000
	사업 외 지출	30,000,000	30,000,000	100%				40,000,000
	예약금 및 예수금 지출	30,000,000	30,000,000	100%				40,000,000
	예비비 및 기타	7,050,000	51,550	1%				50,000
	예비비	-	-					-
	반환금	7,050,000	51,550	1%				50,000
	국비보조금 반환금	50,000	51,547	103%				50,000
	시비보조금 반환금	7,000,000	-					-
	구비보조금 반환금	-	3					-
	후원회소 반환금	-	-					-
	기타 반환금	-	-					-
	차기이월금	69,541,205	87,851,779					89,322,718

재 무 상 태 표

제 2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고유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1,086,746,702		993,916,837
(1) 당 좌 자 산		1,086,746,702		993,916,837
현 금		357,090		112,730
보 통 예 금		268,784,447		208,632,222
정 기 예 적 금		815,001,905		784,938,395
미 수 금		615,430		233,490
가 지 금		1,987,830		0
(2) 재 고 자 산		0		0
Ⅱ. 비 유 동 자 산		1,085,383,710		1,110,001,761
(1) 투 자 자 산		0		0
(2) 유 형 자 산		1,085,263,710		1,109,881,761
토 지		313,063,774		313,063,774
건 물	953,483,600		953,483,6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98,565,960	754,917,640	174,728,870	778,754,730
비 품	148,415,040		140,528,54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5,171,117	13,243,923	127,686,298	12,842,242
시 설 장 치	27,593,297		27,593,29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3,554,924	4,038,373	22,372,282	5,221,015
(3) 무 형 자 산		0		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20,000		120,000
기 타 보 증 금		120,000		120,000
자 산 총 계		2,172,130,412		2,103,918,598
부 채				
Ⅰ. 유 동 부 채		11,975,807		11,706,332
예 수 금		11,878,156		11,660,231
미 환 급 사 업 비 예 수 금		97,651		46,101
Ⅱ.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11,975,807		11,706,332
자 본				
Ⅰ. 자 본 금		225,294,914		225,294,914
보 통 기 금		225,294,914		225,294,914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 누 계 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1,934,859,691		1,866,917,352
미 처 분 이 익 잉 여 금		1,934,859,691		1,866,917,352
(당 기 순 이 익)				
당기 :	67,942,339 원			
전기 :	116,756,100 원			

재 무 상 태 표

제 2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1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고유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 액		금 액	
자 본 총 계		2,160,154,605		2,092,212,266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172,130,412		2,103,918,598

손익계산서

제 2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고유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	액	금	액
I. 매출액		1,314,965,363		1,243,404,798
정기후원금	348,509,877		348,336,393	
일시후원금	169,116,673		240,943,043	
현물후원금	67,587,200		3,482,550	
자료이용후원금	813,840		1,353,860	
후원행사수입금	60,770,900		0	
국비보조금	373,528,180		354,078,330	
시비보조금	158,521,420		164,267,000	
구비보조금	320,000		245,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수입	50,000,000		50,000,000	
치료회복프로그램	34,167,000		34,500,000	
보조금공모사업지원금/국가인권위	10,500,000		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금	1,200,000		1,100,000	
기타공모사업지원금/여성재단	0		19,980,000	
파발마기금	0		200,000	
공동분담금/모낙페	0		90,533	
공동분담금/모임넷	3,667,809		2,490,000	
찾아가는홍보기부금	36,262,464		20,928,089	
기타수입	0		1,410,000	
II. 매출원가		0		0
III. 매출총이익		1,314,965,363		1,243,404,798
IV. 판매비와관리비		1,249,134,975		1,104,832,002
기본급여	252,155,000		213,909,850	
사회보험부담금	29,632,420		25,931,350	
상여금	19,547,500		15,347,830	
제수당	36,885,830		29,642,740	
퇴직급여부담금	25,739,700		19,961,940	
복리후생비	19,301,169		20,914,836	
여비	1,686,000		939,550	
공공운영비	5,276,438		1,225,595	
사무관리비	19,084,234		10,230,252	
감가상각비	32,504,551		34,646,271	
모금사업비	47,567,265		16,598,124	
대외협력사업비	4,724,330		4,219,110	
대외협력사업비(보조)	830,000		810,000	

손익계산서

제 2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고유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	액	금	액
사무국사업비	12,411,390		16,966,994	
상담사업비	12,555,155		5,174,910	
상담사업비(보조)	1,947,600		1,225,350	
홍보사업비	8,532,350		19,865,430	
홍보사업비(보조)	1,191,123		2,103,900	
인권사업비	10,848,097		10,268,899	
조직사업비	2,647,830		3,262,990	
정책개발사업비	1,613,005		22,099,050	
파발마기금사업비	900,360		710,000	
성폭력피해자의료비	64,516,830		65,694,610	
사무관리비(보조)	33,394,625		32,806,667	
공공운영비(보조)	23,042,889		16,652,833	
복지포인트비(보조)	2,900,000		2,850,000	
기본급여(보조)	286,506,000		273,012,610	
제수당(보조)	60,407,390		54,038,740	
사회보험부담금(보조)	35,977,330		33,252,220	
퇴직급여부담금(보조)	28,909,300		27,401,150	
공동분담진행비/모낙페	0		800,000	
공동분담진행비/모임넷	2,941,050		2,318,000	
여비(보조)	50,400		0	
생활인생계비(보조)	10,903,180		9,529,470	
생활인지원원사업비(보조)	20,254,376		22,067,353	
생활인지원사업비	54,569,103		8,828,630	
생활인사회훈련비(보조)	4,118,200		3,415,930	
생활인명절위문비(보조)	60,000		150,000	
생활인김장비(보조)	30,000		60,000	
생활인춘계부식비(보조)	30,000		45,000	
생활인하계수련비(보조)	238,500		80,000	
복권기금사업비	34,167,000		34,499,830	
연구사업비	0		590,60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비	906,332		2,084,155	
도우리사업지원비	23,331,123		18,613,317	
보조금공모사업비	3,800,000		0	
보조금공모사업비/국가인권위	10,500,000		0	
기타공모사업비/여성재단	0		19,985,916	

손익계산서

제 2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고유총괄)

(단위 : 원)

과 목	제22(당)기		제21(전기)	
	금	액	금	액
V. 영 업 이 익		65,830,388		138,572,796
VI. 영 업 외 수 익		5,520,647		1,671,756
고 유 목적준비금수입	4,098,519		1,626,930	
잡 이 익	1,422,128		44,826	
VII. 영 업 외 비 용		3,408,696		23,488,452
국 비 보 조 금반환금	2,552,352		2,645,319	
시 비 보 조 금반환금	856,341		20,843,133	
구 비 보 조 금반환금	3		0	
VIII.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67,942,339		116,756,100
IX. 법 인 세 등		0		0
X. 당 기 순 이 익		67,942,339		116,756,100

운 영 성 과 표 (총 괄)

제 2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과 목	제 22 (당)기			제 21 (전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I. 사 업 수 입	1,314,965,363	1,314,965,363	0	1,243,404,798	1,243,404,798	0
1) 고 유 목 적 사 업 수 입	1,314,965,363	1,314,965,363	0	1,243,404,798	1,243,404,798	0
정 기 후 원 금	348,509,877	348,509,877	0	348,336,393	348,336,393	0
일 시 후 원 금	169,116,673	169,116,673	0	240,943,043	240,943,043	0
현 물 후 원 금	67,587,200	67,587,200	0	3,482,550	3,482,550	0
자 료 이 용 후 원 금	813,840	813,840	0	1,353,860	1,353,860	0
후 원 행 사 수 입 금	60,770,900	60,770,900	0	0	0	0
국 비 보 조 금	373,528,180	373,528,180	0	354,078,330	354,078,330	0
시 비 보 조 금	158,521,420	158,521,420	0	164,267,000	164,267,000	0
구 비 보 조 금	320,000	320,000	0	245,000	245,000	0
성 폭 력 피 해 자 의 료 비 수 입	50,000,000	50,000,000	0	50,000,000	50,000,000	0
치 료 회 복 프 로 그 램	34,167,000	34,167,000	0	34,500,000	34,500,000	0
보 조 금 공 모 사 업 지원금 / 국가인권위	10,500,000	10,500,000	0	0	0	0
서울시 여성복지연합회 지원금	1,200,000	1,200,000	0	1,100,000	1,100,000	0
기 타 공 모 사 업 지원금 / 여성재단	0	0	0	19,980,000	19,980,000	0
파 발 마 기 금	0	0	0	200,000	200,000	0
공 동 분 담 금 / 모 낙 폐	0	0	0	90,533	90,533	0
공 동 분 담 금 / 모 임 넷	3,667,809	3,667,809	0	2,490,000	2,490,000	0
찾 아 가 는 흥 보 기 부 금	36,262,464	36,262,464	0	20,928,089	20,928,089	0
기 타 수 입	0	0	0	1,410,000	1,410,000	0
2) 타 사 업 수 익	0	0	0	0	0	0
II. 사 업 수 행 비 용	1,249,134,975	1,249,134,975	0	1,104,832,002	1,104,832,002	0
1) 사 업 수 행 비 용	759,754,868	759,754,868	0	715,483,664	715,483,664	0
대 외 협 력 사 업 비	4,724,330	4,724,330	0	4,219,110	4,219,110	0
대 외 협 력 사 업 비 (보 조)	830,000	830,000	0	810,000	810,000	0
사 무 국 사 업 비	12,411,390	12,411,390	0	16,966,994	16,966,994	0
상 담 사 업 비	12,555,155	12,555,155	0	5,174,910	5,174,910	0
상 담 사 업 비 (보 조)	1,947,600	1,947,600	0	1,225,350	1,225,350	0
홍 보 사 업 비	8,532,350	8,532,350	0	19,865,430	19,865,430	0
홍 보 사 업 비 (보 조)	1,191,123	1,191,123	0	2,103,900	2,103,900	0
인 권 사 업 비	10,848,097	10,848,097	0	10,268,899	10,268,899	0
조 직 사 업 비	2,647,830	2,647,830	0	3,262,990	3,262,990	0
정 책 개 발 사 업 비	1,613,005	1,613,005	0	22,099,050	22,099,050	0
연 구 소 운 영 비	0	0	0	0	0	0
파 발 마 기 금 사 업 비	900,360	900,360	0	710,000	710,000	0
성 폭 력 피 해 자 의 료 비	64,516,830	64,516,830	0	65,694,610	65,694,610	0
사 무 관 리 비 (보 조)	33,394,625	33,394,625	0	32,806,667	32,806,667	0
공 공 운 영 비 (보 조)	23,042,889	23,042,889	0	16,652,833	16,652,833	0
복 지 포 인 트 비 (보 조)	2,900,000	2,900,000	0	2,850,000	2,850,000	0
방 역 물 품 구 입 비 (보 조)	0	0	0	0	0	0
기 본 급 여 (보 조)	286,506,000	286,506,000	0	273,012,610	273,012,610	0
제 수 당 (보 조)	60,407,390	60,407,390	0	54,038,740	54,038,740	0
사 회 보 험 부 담 금 (보 조)	35,977,330	35,977,330	0	33,252,220	33,252,220	0
퇴 직 급 여 부 담 금 (보 조)	28,909,300	28,909,300	0	27,401,150	27,401,150	0
공 동 분 담 진 행 비 / 모 낙 폐	0	0	0	800,000	800,000	0
공 동 분 담 진 행 비 / 모 임 넷	2,941,050	2,941,050	0	2,318,000	2,318,000	0

운 영 성 과 표 (총 괄)

제 2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과 목	제 22 (당) 기			제 21 (전) 기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총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여 비 (보 조)	50,400	50,400	0	0	0	0
생활인생계비 (보조)	10,903,180	10,903,180	0	9,529,470	9,529,470	0
생활인지원사업비 (보조)	20,254,376	20,254,376	0	22,067,353	22,067,353	0
생활인지원사업비	54,569,103	54,569,103	0	8,828,630	8,828,630	0
생활인사회훈련비 (보조)	4,118,200	4,118,200	0	3,415,930	3,415,930	0
생활인명절위문비 (보조)	60,000	60,000	0	150,000	150,000	0
생활인김장비 (보조)	30,000	30,000	0	60,000	60,000	0
생활인춘계부식비 (보조)	30,000	30,000	0	45,000	45,000	0
생활인하계수련비 (보조)	238,500	238,500	0	80,000	80,000	0
퇴소자자립지원비 (보조)	0	0	0	0	0	0
치료회복프로그램사업비	34,167,000	34,167,000	0	34,499,830	34,499,830	0
연구사업비	0	0	0	590,600	590,600	0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지원비	906,332	906,332	0	2,084,155	2,084,155	0
도우리사업지원비	23,331,123	23,331,123	0	18,613,317	18,613,317	0
민간대행사업비 (보조)	3,800,000	3,800,000	0	0	0	0
보조금공모사업비 / 국가인권위	10,500,000	10,500,000	0	0	0	0
기타공모사업비 / 여성재단	0	0	0	19,985,916	19,985,916	0
2) 일반관리비용	441,812,842	441,812,842	0	372,750,214	372,750,214	0
기분급여	252,155,000	252,155,000	0	213,909,850	213,909,850	0
사회보험부담금	29,632,420	29,632,420	0	25,931,350	25,931,350	0
상여	19,547,500	19,547,500	0	15,347,830	15,347,830	0
제수	36,885,830	36,885,830	0	29,642,740	29,642,740	0
퇴직급여부담금	25,739,700	25,739,700	0	19,961,940	19,961,940	0
복리후생비	19,301,169	19,301,169	0	20,914,836	20,914,836	0
여비	1,686,000	1,686,000	0	939,550	939,550	0
공공운영비	5,276,438	5,276,438	0	1,225,595	1,225,595	0
사무관리비	19,084,234	19,084,234	0	10,230,252	10,230,252	0
감가상각비	32,504,551	32,504,551	0	34,646,271	34,646,271	0
3) 모금비용	47,567,265	47,567,265	0	16,598,124	16,598,124	0
모금사업비	47,567,265	47,567,265	0	16,598,124	16,598,124	0
III. 사업이익	65,830,388	65,830,388	0	138,572,796	138,572,796	0
IV. 사업외수익	9,619,166	5,520,647	4,098,519	3,298,686	1,671,756	1,626,930
이자수익	4,098,519	0	4,098,519	1,626,930	0	1,626,930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0	0	0	0
유형자산처분이익	0	0	0	0	0	0
고유목적준비금수입	4,098,519	4,098,519	0	1,626,930	1,626,930	0
잡이익	1,422,128	1,422,128	0	44,826	44,826	0
V. 사업외비용	7,507,215	3,408,696	4,098,519	25,115,382	23,488,452	1,626,930
구비보조금반환금	3	3	0	0	0	0
국비보조금반환금	2,552,352	2,552,352	0	2,645,319	2,645,319	0
시비보조금반환금	856,341	856,341	0	20,843,133	20,843,133	0
기타반환금	0	0	0	0	0	0
고유목적준비금전입액	4,098,519	0	4,098,519	1,626,930	0	1,626,930
잡손실	0	0	0	0	0	0
VI. 법인세비용차감전당기운영이익 (손실)	67,942,339	67,942,339	0	116,756,100	116,756,100	0
VII. 법인세비용	0	0	0	0	0	0

운 영 성 과 표 (총 괄)

제 22(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1(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단위 : 원)

과 목	제 22 (당)기			제 21 (전)기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통합	공익목적사업	기타사업
Ⅷ. 당 기 운 영 이 익 (손 실)	67,942,339	67,942,339	0	116,756,100	116,756,100	0

2023 주 석

(사)한국성폭력상담소(총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	합계
공익목적사업 비용	0	797,961,639	32,504,551	418,668,785	1,249,134,975
사업 수행비용	0	414,700,020	0	345,054,848	759,754,868
일반관리비용	0	383,261,619	32,504,551	26,046,672	441,812,842
모금비용	0	0	0	47,567,265	47,567,265
기타사업 비용	0	0	0	0	0
합계	0	797,961,639	32,504,551	418,668,785	1,249,134,975

사업 감사 보고

감 사 보 고 서

한국성폭력상담소 귀중

상담소가 작성, 제공한 2023년도 사업 감사 자료와 정관을 비롯한 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 상담소는 '불안 불황 퇴행 속에서 지지 않고 생존자와 말하기, 성평등 지우고 성폭력 보수화하는 정부에 책임 요구하기,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를 탄탄하게 든든하게, 정치적으로 가깝고 새로운 시민들과 접속하기'라는 4개의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방향은 팀별 세부사업목표를 통해 구체화 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상담소의 사업과 전반적인 운영은 5차례 이사회를 통해 논의되었습니다. 상담소의 1년 활동에 대한 평가는 팀별 활동 평가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팀별 활동으로 수렴되지 않는, 1년 동안 상담소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소의 1년 활동이 상담소 대내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담소는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성과 담론 형성을 해 온 경험으로 2023년에도 생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 상담 역량 강화, 열림터의 운영 등이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활동가 상담일지 읽기는 상담소 활동의 근간이 되는 피해생존자 지원에 대해 점검하면서 활동의 기본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 않는 중요한 활동으로 보입니다.

2023년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은 형사공탁 특례제도 대응 활동입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형사공탁 및 공탁 감형 사례에 대해 현장 사례 분석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제도의 문제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자문회의를 통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공동으로 사례수집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변호사회에서 발표함으로써 여러 자원의 활용과 협업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대중성있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운영과 관련하여 팀매니저 체계와 법률팀이 신설되었고, 차기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직구조의 안정화는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의 근간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신설한 체계에 대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중간 리더십이 강화되고 안정감있게 조직이 운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으로 환류를 위한 다양한 회의구조가 활동 실무와 균형감을 이루고 있는지 검토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에 응원과 감사 말씀드리며, 2024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8일

감사 허오영숙



2024년 팀 · 부설기관 활동계획

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튼튼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

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반성폭력 운동

- 피해생존자와 더불어 지역주민 등 시민과 함께하며 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반성폭력 운동을 조직한다.
- 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시의성 있게 목소리 내는 대중적인 성문화운동
- 후원으로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 사건지원을 통해 생존자와 연대하고, 함께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다.
- 시민, 여성운동단위, 전문위원 이사회 등 보다 더 넓은 사람들의 직접참여와 공동의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실천한다
- 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생활인과 함께 일상을 바꾸는 쉼터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피해자의 관점과 언어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한다.
-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현장단체의 전문성에 기반한 다른 통합성을 만들어가며, 폭력의 교차성에 대한 관점을 모든 활동에 녹여낸다
- 성폭력의 법시장화를 경계하고, 생존자의 다양한 사건 해결 방식에 연대한다.
-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대를 통한 윤리적 원칙을 지켜내기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 생존자들과의 액션으로 성폭력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서고, 적극적 합의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 회원과의 스킨십을 높이고 연대의 장 만들기
- 여성,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작용을 모니터링하고 활력을 모아 제대로 대응하는 연대활동을 모색한다
-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설계하는 퇴소자 지원 프로젝트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튼튼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만들기

- 상담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을 방지하여 든든하고 탄탄한 상담팀을 만든다.
 - 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활력있게 활동하는 성문화운동팀
 - 안팎으로 두루 소통하고 협업하는 탄탄한 팀 만들기
- 다른 팀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조직과 함께 활동한다.
 - 상호 돌봄과 소통을 통해 든든하고 탄탄한 싹터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

- 생존자 말하기대회와 성폭력 이슈발굴을 통해 성차별에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한다.
 - 다양한 인권 운동과 연대하여 권력에 맞서는 힘 센 여성주의,
 - 정치적 무력감에 맞서고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는 총선대응
-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정치·권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폭력/성차별 및 소수자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소의 접점을 늘린다.

2024년 팀 · 부설기관 활동목표

<p>여성주의 상담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체계적 사건 지원역량과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2/ 상담부스 운영과 일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3/ 제도에 갇힌 성폭력 해석을 넘어 치유와 연대를 도모하여 생존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4/ 든든하고 탄탄한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5/ 생존자와 연대하는 시민을 만나 지역 내 여성주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p>성문화운동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 및 소수자 시민들과 함께 성폭력 관련 정치적 퇴행에 맞서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2/ 동의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적극적 합의 담론을 더 멀리 확산한다. 3/ 여성, 반차별, 기후 등 다양한 인권 운동과 연대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
<p>회원홍보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지에서 후원으로, 변화의 현장에 초대하기 2/ 즐겁고 신나게, 시민과 더 많이 만나는 상담소 3/ 반성폭력운동과 시민의 거리 좁히기 4/ 내외부적 협력을 높이는 회원홍보팀 만들기
<p>법률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함께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다. 2/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한다. 3/ 1인 법률팀의 가능성과 역할을 탐구하고, 조직과 함께 고민한다. 4/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상담소의 연대를 확장한다.
<p>사무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방적 통폐합과 엄벌주의 기조에 맞서는 반성폭력 연대 활동 2/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 탄탄하고 든든하게
<p>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30주년을 맞이하여 전·현 활동가, 생활인, 또 우리가 함께 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것을 논의하고, 쉼터를 나아간 대안을 모색, 설계, 실천한다.

2024 여성주의상담팀 활동 계획

<h3>2024 전체 활동 방향</h3>
<p>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든든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p>
<h3>2024 팀별 실천 방향</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생존자와 더불어 지역주민 등 시민과 함께하며 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는 반성폭력 운동을 조직한다. -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피해자의 관점과 언어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장을 마련한다. - 상담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진을 방지하여 든든하고 탄탄한 상담팀을 만든다. - 생존자 말하기대회와 성폭력 이슈발굴을 통해 성차별에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한다.
<h3>팀 활동 목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체계적 사건 지원역량과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상담부스 운영과 일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 제도에 갇힌 성폭력 해석을 넘어 치유와 연대를 도모하여 생존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 든든하고 탄탄한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 생존자와 연대하는 시민을 만나 지역 내 여성주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체계적 사건 지원역량과 상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1-1. 여성주의 상담 및 지원의 체계화

- 배경/필요성
- 기존의 의료·법률·심리지원 외 공론화나 비사법적 해결 등 다양해지는 내담자의 욕구에 맞춰 다채로운 사건지원 방식을 상상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타 단위와의 공동대응 경험을 통해 다각적 지원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건지원자로서의 역량강화를 모색함.
- 사건지원 통해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도출하고 법·정책 제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함.
- 목표: 전문적인 상담과 사건지원, 체계적 지원 사례관리

• 방법 및 계획

1) 사건지원 체계화

- 개별 사건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결되도록 조력함과 동시에 개개의 사안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의제 및 지원 여부 검토.
- 격주 1회의 업무회의 시 지원사례 슈퍼비전을 통해 상담 및 사건지원의 질 향상
- 지속 지원 시 업무회의를 사례 공유 및 지원목표/방향 설정
- 종결 시 종결사례보고서 작성. 지원목표 · 진행경과 · 평가 등을 기록, 종결사례 리스트 작성
- 종결 시 업무회의에서 종결사례보고서 기반 나눔 및 정리

2)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활성화

- 개별 사례에 따라 다양한 단위가 공동으로 지원해야 할 사안의 경우, 팀 회의 및 상근활동가 회의를 통해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등 지원 전략 논의
- 활동가별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다각적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연대활동을 경험
- 공동대책위원회 연대활동

연대체	담당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경진, 앞
전국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네트워크	지희, 호랑

• 담당자: 호랑

• 기대효과: 체계적인 사건지원을 통해 사건지원의 질 향상, 사건지원자 역량 강화

1-2. 성폭력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 배경/필요성

- 성폭력은 여성의 건강권과 연결됨. 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제안이 필요
- 피해생존자의 일상회복 도모를 위한 정신적, 신체적 치유로의 접근성 향상
- 피해생존자들이 방문하는 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활동을 도모
-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 피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호소함. 이처럼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의뢰 가능한 새로운 기관 탐색 활동이 필요함

• 목표

-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치유과정이 필요한 내담자를 지원
- 치료비 지원을 통한 성폭력 생존자의 의료적, 심리적 안정 도모하며, 피해생존자로서 공식적인 의료, 소통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생존자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의료네트워크망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지원

• 방법 및 계획

1) 의료비

- 1인 6개월 이내 300만 원 한도의 의료비 지원
- 팀 내 상시적인 소통과 논의를 통해 적절한 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결정
- 치료비를 지급하는 의료 및 상담 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례를 충실히 관리
- 분기별 의료비 지급 상황을 점검하고 팀내 상시 의견 교환하여 예산에 맞춰 집행

2) 개별상담(복권기금)

- 전화상담을 통해 수시 지원자 확보
- 기관별 특성에 맞는 피해자 연계

3) 의료기관 네트워킹

- 기존 기관 소통
- 신규 기관 탐색
 - 담당자: 얌
 -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 도모하며 의료지원체계 파악
- 피해생존자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모
- 각기 다른 피해자생존자들의 주 호소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기관에 진료 의뢰 가능
- 피해생존자 지원 외에도 상담소 차원에서 필요한 의료적 자문을 연계 의료기관들에 구할 수 있음

1-3. 성폭력 피해자 법률적 지원

- 배경/필요성
- 성폭력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법률 조력에 대한 필요를 검토하고 지원함
- 무고와 억고소, 명예훼손, 성매매 중 성폭력 피해 사건 등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을 움츠러들게 하는 많은 상황 존재
- 피해자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적인 법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담소에서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들과의 유대감 확장 및 연대가 필요함
- 목표
- 월요법률상담을 통해 피해생존자에게 전문가의 법률상담 및 체계적인 법적지원 제공
-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그룹과 피해생존자를 연계하고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제도적 법률지원 활성화
- 방법 및 계획

1) 월요법률상담

시기	내용
1월	- 기존 변호사 대상으로 신규 변호사 추천 및 법률상담 평가 및 의견 취합
1월~2월, 5월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변호사 풀 확보 - 변호사 참가 여부 및 일정 확인
3월~11월	- 격주 월요일(오후 4시~6시),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 신규변호사의 경우,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기존 변호사 매칭하여 실습 진행
12월~2월	- 법률팀과 협업으로 매월 초 월요일(오후 4시~6시), 1회당 2건의 상담 진행

2) 무료법률구조

- 법률구조가 필요한 피해생존자와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변호사 풀을 연계하고,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함
-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담활동가와 함께 피해생존자의 욕구를 파악하면서 지원 전략을 논의하고 상호 소통함
- 법적 절차에서 피해생존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며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독려
- 담당자: 지희
- 기대효과
- 피해자의 법률조력에 대한 갈증 해소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 피해자의 법적해결에 대한 부담 감소

1-4. 파발마 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원활한 사건 지원을 위해 기부된 지정기부금 [파발마 기금]의 적극적 운영 필요
- 목표: 비서울 지역의 내담자에게 교통비, 숙박비 등 직접 지원
- 방법 및 계획
- 1인 40만 원 지원 한도(필요시 내부 논의 후 추가 지원 가능)
- 사건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시 비서울 지역에 사는 내담자에게 교통편 및 숙박 시설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며 법적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 연대활동 등에 참여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필요한 내담자
- 지정후원자에게 기금 사용 지출 내역 보고
- 홍보활동: 홈페이지에 파발마 기금 안내문 게시, 대면상담 시 내담자에 직접 안내
- 담당자: 없음
- 기대효과: 비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건지원과 활동 참여 담보

상담부스 운영과 일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담통계 분석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다

2-1. 상담부스 운영 및 상담일지 관리

- 배경/필요성
- 상담부스는 1차 상담이 진행되는 창구로서 피해생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초기 상담이 진행됨. 안정적인 상담부스 운영을 위한 활동가의 상담시간을 배분 및 배치 필요.
- 상근활동가들이 직접 상담부스에서 1차 상담을 수행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상담에 필요한 정보를 학습하고, 관련 이슈와 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 사례관리 및 상담통계를 위해 체계적으로 상담일지를 보관 및 관리 필요.
- 노후화된 상담부스 장비를 개선하고 운영 방식을 효율화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안정적인 상담부스 운영 및 상담일지 관리
- 방법 및 계획
- 1) 상담부스 운영 및 상담일지 관리
- 상담팀 4일(월~목), 상근활동가 1일(금요일 오전/오후) 배치.
- 상담부스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는 통화연결음 멘트 송출 설정을 통해 상담필요 시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번호 안내함.
- 2) 상담일지 데이터화
- 검토 및 수정을 마쳐 완료된 상태인 전년도 상담일지 출력물(12개월분)을 스캔하여 전자화함
- 회원홍보팀과 협력하여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4월 중 예정)
- 전산화 작업을 정리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 마련

3) 상담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상반기 노후화된 상담부스 전화기 변경 및 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후 하반기 이전 시행
- 담당자: 호랑, 경진(상담일지 데이터화)
- 기대효과: 상담부스 운영 및 일지작성의 안정화

2-2. 상담통계 분석

- 배경/필요성
- 본 상담소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욕구를 가진 생존자들의 전화상담이 많아, 통계분석을 통해 최근 성폭력 관련 이슈의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음.
- 상담일지와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사회 이슈에 대응하고 반성폭력 의제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지속지원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기준과는 다른 내용과 방식의 상담 통계 분석 필요성이 대두됨
- 목표: 상담일지 및 통계를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원현황 파악과 이슈대응 및 발굴에 활용
- 방법 및 계획
- 월별 일지 점검 : 매월 초 전월 누락 일지 확인 및 월별 통계 데이터 정리
- 지차체 및 여가부 등 실적보고 : 요청 시 상담 관련 실적 및 통계 보고
- 이슈별 통계 제공 : 필요시 혹은 요청시 해당 이슈와 관련한 세부적 상담 통계 분석 제공
- 일반상담통계 및 세부통계 배포 : 전체 및 키워드 중심의 1년 상담통계를 분석하여 외화
- 성폭력특별법제정 30주년 관련 통계 검토 및 이슈 발굴
- 내부 지원사건 디딤돌, 걸림돌 판결 정리 (법률팀 의견서 작성용 참고자료 사업과 연동)
- 담당자: 호랑
- 예산안: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상담일지를 분석하고 자료를 외화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책 제언

2-3. 일지읽기모임

- 배경/필요성:
- 해당 모임에 활용할 일지 선별부터, 진행과 평가까지의 과정을 통해 이슈 발굴하고 현황 파악
-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담당자만의 상담 및 지원은 한계를 가질 수 있음. 이에 상담활동가들과 의견 나눔을 통해 다양한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목표: 성폭력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이슈발굴,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 방법 및 계획
- 전체 활동가 대상.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3/13, 8/7 예정)
- 상반기: 월별일지 중 1차 상담 중심으로 읽고 의견 나누기
- 하반기: 공통일지를 선별하여 읽고 심층 나누기
- 담당자: 지희
- 기대효과
- 발굴된 이슈를 통계 및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추후 유사사례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 가능

제도에 갇힌 성폭력 해석을 넘어 치유와 연대를 도모하여 생존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3-1. 생존자 자조모임 작은말하기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 생존자가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기회가 필요
- 생존자 간에 더욱 가까운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으로서 피해생존자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피해자 간 연대가 가능한 일상적인 말하기 공간이라는 중요성을 가짐
- 목표: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피해 경험을 재해석하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일상적 말하기 공간 마련
- 방법 및 계획
-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1회 진행
- 매달 홍보하고 참가신청 받아 모집
- 원활한 소통과 적절한 발언 기회 분산을 위해 모집인원 기준(활동가 포함 10명 이내)을 최대한 적용
-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 대관하여 자유로운 말하기 진행
- 모임 이후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소감을 정리하여 <모임 후기>로 외화
- 12월에는 작은말하기 송년회 행사 진행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세부일정

상반기	3/27	4/24	5/29	6/26	7/31
하반기	8/28	9/25	10/30	11/27	12/11

- 담당자: 지희/얌
- 기대효과
- 피해 경험을 말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치유의 힘을 얻음
- 작은말하기 공간을 통해 피해생존자 간 지지망 구축하고 연대하며, 역량을 강화함

3-2. 여성주의 집단상담 (복권기금)

- 배경/필요성: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에 걸림돌/디딤돌을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함
- 목표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일상을 원활하게 함
- 생존자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역량강화를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활동	시기	세부내용
홍보	2~3월 중	참가자 모집
사전상담	4월 중	1회기씩*5~7명 예상
집단상담	5~7월 둘째주	10회기 (주1회 3시간씩)
사후상담	7월 중	1회기씩*5~7명 예상

* 일정의 경우 변동가능성 있음.

- 기획안: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말하기” (강사: 김은아/상담소 이사)

회차	프로그램	시간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여성으로서 나의 삶	3	- 집단프로그램 소개 및 구조화, 집단규칙정하기 - 자기소개와 집단상담의 목표 - 타로카드로 이해하는 나의 심리
2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 - 성폭력 피해경험과 지금	3	- 지금 여기의 나, 자원 찾기: 내적자원, 외적자원 만나기 - 나의 삶 이야기: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패턴 발견하기
3		3	성폭력피해 “경험”과 “지금” - 성폭력 피해 이후 어떤 고통을 겪었는가? 겪고 있는가? 감정/가족관계/행동/대인관계/일 등의 변화 - 성폭력 피해 이후 일상적인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주된 감정은?
4		3	피해경험과 관련한 감정 인식 및 표현
5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2 - 과거와 현재에 동시에 발딘기	3	- 피해경험 말하기, 타로카드를 활용한 알아차림의 증진
6		3	- 피해경험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 몸 느낌 접촉 - 가해자, 주요 타인에게 받았던 상처 접촉하기
7	자원찾기와 자기돌봄 - 권력분석, 감정 접촉 및 표현	3	- 자아경계 세우기 - 적절하고 안전한 경계 연습 - 탄력있고 유연한 경계 만들기
8		3	성폭력 피해경험을 권력분석으로 이해하기 - 문제와 관련한 권력의 위치, 무력의 위치 탐색 - 관련하여 발달한 심리 탐색 - 자기돌봄 목록 작성
9	상처를 힘으로 전환하기	3	- 가해자, 비보호적 부모, 2차가해자 등에게 편지 쓰기 - 변화와 원하는 삶을 위한 권력분석
10		3	- 집단참여의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 - 변화의 선물 만나기: 내 안의 여신 만나기 - 새로운 문 열기

• 담당자: 호랑

• 기대효과

- 성폭력피해경험을 인식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얻음
- 집단상담 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지기반 확보

3-3. 생존자말하기대회 (신규사업)

• 배경/필요성

- #미투운동이 활발했던 2018년에는 수많은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SNS, 거리, 언론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용감하게 공론화하고 성폭력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음. 그러나 약 5년이 지난 현재, ‘진짜 미투’와 ‘가짜 미투’를 구분하려는 사회적 편견, 성차별적 정부의 집권,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 시장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생존자들이 피해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공간은 줄어들고 있음.

- 한편, (공론화 지원에 대한) “피해자들의 요청이 많아지고, 실제 지원 방법에서도 비율이 늘고 있”다는 2022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도 드러나듯이 미투운동 이후 ‘공적 말하기’를 하고 싶다는 생존자들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이에 생존자들은 2차 피해와 보복성 역고소 위험을 감수하며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음.
- 미투운동에 역행하여 생존자들의 말하기가 위축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금 성폭력생존자말하기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관점으로 성폭력을 말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론장을 열 필요성이 있음.
- 목표
 - 성폭력 생존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피해 경험을 말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공감받고 존중받는 경험을 통해 치유회복에 필요한 힘을 키우게 함.
 - 일반 대중에게 생존자의 말하기를 경청하고 응답하는 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존자와 연대하는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확산하며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개선함.
- 방법 및 계획

활동	시기	세부내용
워크숍 홍보	9월 중	말하기 참여자(이꿈이) 모집
사전상담	9월~10월 중	1회기씩*4~6명 예상
워크숍	10/19~11/30	7회기(본행사 포함,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본행사 홍보	10월 말	듣기 참여자 모집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11/23	리허설 및 본행사
사후상담	12월 중	1회기씩*4~6명 예상

*사전/사후상담 일정의 경우 변동 가능성 있음.

- 기획안

회차	프로그램	내용
1 (3시간)	오리엔테이션(10/19)	1.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소개 및 구조화, 집단 규칙 정하기 2. 자기소개와 말하기대회 참여 목표 3. 이꿈이로서 나의 여정 그림 그리기
2 (3시간)	안전하게 서로 말하기(10/26)	생존자로서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 - 피해 경험 말하기 - 피해 경험과 관련된 생각, 감정, 행동, 몸 느낌 표현하기
3 (3시간)	안전하게 말할 공간 상상하기(11/2)	1. 말하기대회 무대 상상해보기 - 무대 의상, 소품, 화면, 퍼포먼스 등 아이디어 나누기 2. 말하기 이후 사람들의 반응 상상해보기 - 듣기 참여자가 어떤 반응을 해주길 원하는가? 어떤 반응을 하지 않길 원하는가? - 말하기대회에 초대하고 싶은 주변인 떠올려보기
4 (3시간)	말하기 연습하기(11/9)	1. 이꿈이들의 말하기 내용 및 순서 확정 2. 무대 의상, 소품, 화면, 퍼포먼스 등 확정 3. 본행사 시 촬영/녹음 여부, 언론 인터뷰 여부 등에 관한 이꿈이 의사 확인
5	최종 점검(11/16)	1. 이꿈이들의 말하기 최종 점검

회차	프로그램	내용
(3시간)		2. 무대 의상, 소품, 화면, 퍼포먼스 등 최종 점검 3. 본행사 시 주의사항, 돌발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등 안내
6 (3시간)	본행사(11/23)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 이꿈이들의 말하기(15분씩*4~6명 예상) - 지지 공연(20분) - 열린 말하기(40분~60분 예상)
7 (3시간)	용기를 낸 이후의 감정 갈무리하기(11/30)	1. 말하기대회 참여 목표와 현재의 나 평가 2. 용기를 내고 함께한 이꿈이들과 소감 나누기 3. 말하기 이후 몸과 마음의 변화 살피고 돌보기

- 담당자: 앞/경진
- 기대효과
- 생존자의 말하기가 주는 힘과 울림을 세상에 전하고, 이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알림
- 성폭력 생존자와 여성-소수자가 백래시에 맞설 용기와 언어를 찾도록 역량 강화함
- 한국성폭력상담소 인지도 향상 및 후원회원, SNS 팔로워 등 증가

든든하고 탄탄한 사건지원을 위해 함께 돌보고 돌아본다

4-1. 사건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타 상담소와의 교류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연대망을 넓힐 뿐 아니라 슈퍼비전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지원자 간의 고충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한 활동 토대를 마련
- 사건 지원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전체 상근활동가들과 논의하여 아이디어를 나눔
- 종결까지의 지원 과정 및 체계를 정리하고 공유함으로써 이후 다른 사건 지원에서 시사점을 확인하는 등 각 활동가가 지원하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평가함.
- 상근활동가가 함께 사례를 검토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 강화 기회 제공
- 목표: 사건지원의 경험을 정리-공유함으로써 개별 지원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전체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함
- 방법 및 계획

분류	시기	내용
전문가슈퍼비전	4월, 10월	상담 사례의 성격에 맞는 슈퍼바이저를 섭외하여 진행 (상, 하반기 총 2회)
동료슈퍼비전	9월	타 상담소 교류 및 사례 슈퍼비전 총 1회
더 나은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상시	상근자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지원방법을 논의함

- 전문가슈퍼비전 대상 사례가 없는 경우 상담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외부전문가에게 강의를 요청하는 방

식도 고려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상담 및 사건지원 역량 강화와 활동가 소진 예방

4-2. 자문회의

- 배경/필요성
 -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통합적 사건지원을 풍성하게 할 수 있음
 - 법률, 의료, 심리적인 자문뿐 아니라 상담소의 나아갈 방향도 함께 도모함
- 목표
 -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 지원에 유기적으로 대처
 - 자문위원들의 상담소에 대한 연대를 활성화함
- 방법 및 계획
 - 법률, 의료, 상담 분야 자문위원의 통합자문위원회 3월 20일 개최
 - 상시 자문 활성화: 사건지원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자문을 활성화하여 사건지원의 질을 높이고 연대함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자문회의와 상시 자문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망을 확고히 하고, 상담과 사건지원과 정에서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을 도출함으로써 연대감을 높임.

4-3. 종결사례포럼

- 배경/필요성
 - 개별 사례를 지원하는 당시에는 전반적인 사건 지원 흐름과 체계를 파악할 기회가 부족함. 사건 종결 후 전반적인 사건지원 체계와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다른 사건지원에 있어 시사점을 확인하는 등 각 활동가가 지원하는 사례의 경험을 공유하고 함께 평가함.
 - 지원자 외 사건지원 과정에 함께 참여한 변호사나 의료인의 평가와 의견을 들을 기회 또한 부족함. 이에 종결사례포럼 시 사건지원과정에 참여한 다른 주체들과의 의견 나눔의 자리도 마련하고자 함.
- 목표: 사건지원 전반적인 흐름을 평가, 공유하고 이후 지원에 대한 전략 나눔
- 방법 및 계획
 - 피해생존자 및 사건 지원과정에 참여한 변호사 또는 의료인과 함께 진행
 - 필요에 따라 공개 또는 반공개로 외화

사례	일정	내용	발제자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2월 27일(화) 14시	- 2020년 당시 해당 사례 공동지원단이던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지원자의 경험과 지원전략을 공유함. 이와 함께 정치권 성폭력에 대한 고찰의 값음.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모두 참여	이미경, 고미경
한국성폭력 상담소지원 건	필요시 상담팀에서 논의 후 종결 사례 선정 및 일정 등 확정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지원과정에 참여하는 각 주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적인 지원체계 마련
- 상담활동가와 조력자의 사건지원에 대한 역량강화

4-4. 여성주의상담스터디

- 배경/필요성
- 여성주의상담팀 내에서 여성주의상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스터디모임을 운영하여 여성주의상담을 배우는 시간을 마련
- 목표: 상담팀활동가 중심으로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역량강화
- 방법 및 계획
- 내담자 역량강화를 위해 생존자 수기집을 선정하여 진행함.
- 2월 사전모임을 통해 분기별 주제 및 발제자와 세부 발제 주제 및 도서 선정
- 월 2회, 금요일 오후 4시~5시 or 4~6시(시간 조정 가능)
- 4권의 도서 선정하여 읽고 질의 응답 및 토론

회기	시기	발제주제	발제 및 진행담당
사전모임	2월	도서목록 정하기	지희
1~4회	3~4월	선정도서 읽기 / 발제 및 토론	상담팀 활동가1
5~8회	5~6월		상담팀 활동가2
9~12회	7~8월		상담팀 활동가3
13~16회	9~10월		상담팀 활동가4

- 담당자: 지희
- 기대효과: 여성주의상담에 대한 이해와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힘

4-5. 재충전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상담 및 사건지원으로 개별 활동가가 소진되지 않도록 흡수년차(1,3,5년)에 재충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하므로, 지속가능한 활동지원을 위해 상담팀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 예방을 진행함
- 목표: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
- 방법 및 계획
- 1년차 활동에 해당하는 2인, 3년차 1인의 활동가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프로그램을 진행
- 방법, 시기 등은 개별 활동가가 자체적으로 기획하되, 팀업무회의를 통해 사전 공유
- 담당자: 경진, 지희, 호랑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회복탄력성을 높임

생존자와 연대하는 시민을 만나고 지역 내 여성주의 네트워킹을 확장한다

5-1. 지역 내 성폭력 사안 대응 역량 높이기(신규사업)

- 배경/필요성
- 여성정책 축소 영향으로 여성단체의 입지가 좁아지며, 지역 내 성평등 인식 확산을 가로막는 상황이 우려

되는 시기임. 이에 지역 내 여성주의 공간(마포여성동행센터)을 활용한 여성단체 간의 네트워킹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

- 지역 여성단체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으로 반성폭력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지역 주민들이 피해당사자 및 주변인으로서 대응력 높임으로서 성폭력 피해자의 연대의 장을 마련
- 상담소의 활동을 알리며 지역 내 입지를 다짐
 - 목표: 여성단체 네트워킹과 함께 지역 내 여성운동 확장
 - 방법 및 계획
- 마포여성동행센터 주관으로 마포구 내 여성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진행

활동	시기	세부내용
사전회의	1월 중	각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일정 확정
홍보	추후확정	마포여성동행센터를 통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프로그램1	추후 확정	추후확정(성폭력피해 상담과 관련된 주제로 선정)
프로그램2	추후 확정	

- 담당자: 경진
- 기대효과
- 지역주민들의 성폭력 사안에 대한 대응역량과 감수성 향상
- 여성운동 확장과 함께 새로운 소통채널 확보하여 상담소의 접근성 높임

2024 성문화운동팀 활동 계획

2024 전체 활동 방향
<p style="text-align: center;">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든든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p>
2024 팀별 실천 방향
<p style="text-align: center;">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들의 삶의 문제에 시의성 있게 목소리 내는 대중적인 성문화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현장단체의 전문성에 기반한 다른 통합성을 만들어가며, 폭력의 교차성에 대한 관점을 모든 활동에 녹여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생존자들과의 액션으로 성폭력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서고, 적극적 합의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p> <p style="text-align: center;">서로의 상태를 살피며 활력있게 활동하는 성문화운동팀</p> <p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인권 운동과 연대하여 권력에 맞서는 힘 센 여성주의, 정치적 무력감에 맞서고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는 총선대응</p>
팀 활동 목표
<p>목표 1. 여성 및 소수자 시민들과 함께 성폭력 관련 정치적 퇴행에 맞서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p> <p>목표 2. 동의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적극적 합의 담론을 더 멀리 확산한다.</p> <p>목표 3. 여성, 반차별, 기후 등 다양한 인권 운동과 연대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p>

목표1. 여성 및 소수자 시민들과 함께 성폭력 관련 정치적 퇴행에 맞서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한다.

1-1. 시의성 있는 이슈 모니터링 및 대응

- 배경/필요성 :
- “백래시”가 정치적 전략으로 나타나며 시시각각 다양한 이슈와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시기에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더 중요해짐. 상담소는 그동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피해자의 경험을 배제해온 법/정책/판결/문화를 비판하고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변화를 만들어왔음. 이에 상담소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성 있게 이슈를 읽어내고 상담소의 언어를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며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신림동 공원 여성살해 사건, 편의점 쏘트 여성 아르바이트생 폭행 사건 등이 경찰, 언론에서 ‘이상 동기 범죄’로 분류되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른 범죄들과 함께 보도되었음. 그러나 이는 명백히 여성혐오가 동기가 되어 발생한 범죄로 이미 일본, 미국 등에서는 여성혐오자 남성이 가하는 무차별 살상을 테러로 규정하고 인셀(involuntary celibate)현상으로 분석하고 있음. 여성혐오를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기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각종 복지 예산을 감축시키며 청년을 고립시키는 정책, 여성혐오를 재생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여성혐오자 남성이 등장하게 된 요인이 됨. 특히,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는 “무고하는 여성” 등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는 공간이 되어 성문화 인식을 저해함. 이러한 요인을 한국 사회에 맞추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며 이름 붙이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임. 또한, 왜곡된 남성성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는 것은 적극적인 합의 의제를 확장시키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임.

• 목표:

- 사회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논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국회, 정부, 지자체, 수사재판부 등의 성폭력·성평등 관련 법정책 활동을 감시, 비판, 제안함.
- 다양한 사안에 여성주의 시각을 기반으로 한 상담소의 입장을 정기적으로 알려 여성인권 의제 및 성폭력/성문화 관련 이슈에 대해 더 나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함.

• 방법 및 계획

- 1) “인셀 현상”을 해석하는 우리의 언어 만들어나가기
 - : 자원활동가와 함께 언론 및 온라인 데이터 활용 및 조사
 - : (4-5월) 독서, 간담회 등 성문화팀 스터디 진행, 외부 인사 섭외
 - : (8-9월) 인셀현상 등 현안, 정책을 여성주의 관점으로, 구조적으로 짚는 토론회 개최
 - 2) 시의적절한 이슈대응
 - 성폭력 및 여성인권 관련 기사/법/정책/판결/이슈를 모니터링 및 공유.
 - : 매 성문화운동팀 업무회의 시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
 - : (6월) 중요한 법/정책/이슈를 선정해 상근활동가들에게 공유 및 논의
 - 사회적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성폭력/여성인권 관련 의제가 있을 시 팀 논의 후, 성명/논평(단호한 시선) 발행, 긴급 액션/기자회견/토론회 진행, 연대 조직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함
 - 학계, 운동계, 정책, 법률 전문가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여 필요한 반성폭력·성평등 의제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 사무국과 유기적으로 협업/분담
- 담당: 유량, 동은, 수수
- 기대효과
- 성폭력 및 성평등 관련 법/정책/판결/문화의 변화를 신속하게 팔로우업하여 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에 반영함.
 - 반성폭력운동 현장단체이자 여성인권운동단체로서 상담소의 관점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법/정책/판결/문화에 비판적으로 개입함.

1-2. 성폭력 법·정책 담당 활동

- 배경/필요성 :

- 2023년부터 성문화운동팀에 성폭력 법·정책 담당이 신설되어 팀 내에서 법·정책 관련 평가들과 과제 만들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고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지속적인 정치사회적 퇴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2024년은 총선이 이루어지고 22대 국회가 재편되는 시기로 정부와 새 국회가 앞으로의 법/정책/사회에 미칠 영향을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유하며 논의하는 것이 중요함.
- 2023년 8월, 정부는 성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예산이 크게 줄어든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의결함. 삭감된 예산안에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의 피해자 직접 지원, 각종 여성폭력 예방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예산이 포함되었고 총 120억 3,300만원 삭감됨.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통합지원, 상담소 보조금 부정수급, 사업 중복, 쉼터 입소율 감소 등의 이유로 삭감한다고 하였으나 통합지원의 경우, 여성주의 관점을 배제하고 현장의 경험을 무시한 일방적인 상담소 구조조정이며 나머지 이유 또한, 단순히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행정편의적 태도임. 이에, 예산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을 결성하였고 법·정책 담당자가 사무국과 협업하며 참여하고 있음. 2024년에도 피해지원 현장단체와의 공동행동이 이어질 예정임.
- 목표:
 - 성폭력 관련 법·정책 흐름을 읽어내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개입한다.
 - 퇴행의 시기에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단체와 연대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된 여성폭력 통합지원의 상을 고민한다.
- 방법 및 계획
 - 발제, 토론, 연대, 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정책 관련 대응
 -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단체 공동대응 참여(사무국 협업)
- : 여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법/정책 모니터링
- : 7월 활동가대회 조직
- 법·정책 관련 상시 논의체계 마련
- 담당: 유랑
- 기대효과
- 성문화운동팀의 법·정책 대응 역량 강화

1-3. 회원과 함께 하는 총선 대응

- 배경/필요성 :
 -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지우기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 보수 양당 구도에서 형성되는 논쟁에 진보 정당들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젠더에 대한 문제의식, 발전된 정책 확인하기 어려움. 2024년 4월 총선지형은 ‘반윤석열’ 전선을 중심으로 명분싸움 및 이탈에 따라 정치세력이 규합, 분열되는 양상. 거대양당 구도를 비판하며 신당창당을 모색하는 소위 ‘제3지대’도 양당 기득권 정치와 다르지 않은 소수 남성 집단 정서에 기댄 공약을 내놓고 있는 현실. 이 과정에서 페미니즘 이슈는 무시되거나 이해에 따라 도구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이에 다른 여성단위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반(反)여성, 반(反)성평등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남성 기득권 정치에 대항하는 공동 대응활동에 참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여성/소수자의 삶의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서 다루어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가시화하고자 함.
 - 동시에 활동에서 만나는 여성/소수자 시민들은 연이은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과 구조적인 성차별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정치에 무력감과 답답함을 호소해왔음. 젠더 이슈에 미적지근한 원내 정당들에게만 기대를 걸기보다는 지금의 정치가 답답한 페미니스트들(여성, 생존자, 잠재적/회원)이 모여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목표 :
 - 필요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활력 있는 성문화운동
 - 시민들과 함께 무력감과 답답함을 해소
 - 회원단체의 위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 방법 및 계획 :
 - 1) 회원과 함께 하는 총선 대응
 - 페미니즘 정치 특강(1회)
 - 페미니스트 정치 클럽 토크쇼 (1회)
 - 총선거획단 모집 및 운영
 - : 5~6인 규모 모집, 워크숍 총 8회 진행 (2/15 ~ 4/11)
 - 총선 대응 관련 3.8 여성대회 시민참여 부스 기획 및 운영
 - 정당별 총선 공약 분석 워크숍(2회) 및 카드뉴스 등의 형식으로 외화
 - 2) 여성단위와 함께 하는 총선 공동 대응
 -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 참여
 - : 각 정당별 제22대 총선 과정 모니터링 및 성명 발행
 - : 전국 여성 주권자의 힘과 목소리를 결집해내는 어퍼 '대행진'
 - 2024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9회 한국여성대회 준비팀
 - : 여성대회 기념식 및 행진 기획 및 실무
- 담당자: 동은, 유랑, 수수
- 기대효과
 - 상담소 활동이 어떻게 확산되는지 체감하고 추적하는 것이 가능
 - 총선과정에서 여성/소수자를 정치적 주체로서 드러내고, 성평등 민주주의의 의미를 알려냄.

1-4.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 배경/필요성 :
 -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의 지속적인 액션과 말하기로 21대 국회에서 4개의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음. 그러나 해당 발의안은 공소시효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 이에 2023년은 연속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논리를 돌파하는 언어를 찾고자 시도함. 그 결과, 친족성폭력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연결점에 집중하여 생존기념축제 기획 시 '정상가족'을 중요한 키워드로 가져갔고 더 넓은 연대로 연결될 수 있었음. 올해는 총선 이후,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시기로 위의 논의를 발전시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입법 전략 논의가 필요한 시기임.
 - 지속적인 생존자-활동 모델 마련을 위한 조직적 도전과 지원이 필요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연대, 협력, 액션의 거점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수요와 기대가 존재함.
- 목표 :
 - 생존자와 함께 22대 국회 입법 전략을 수립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더 넓은 연대 구축하기
- 방법 및 계획 :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관련 국회 논의 및 입법 요구
 - :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하라> 기자회견, 의원 면담 등 액션
 - : 친족성폭력 생존자 그룹과 워크숍을 통한 입법 전략짜기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생존자 그룹의 활동 지원

: 6월 중,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공모 사업 신청 및 수행 협력

: 제3회 친족성폭력피해자 생존기념축제 기획 및 실행 협력

- 담당자: 유량, 수수
- 기대효과: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와 관련한 입법 흐름이 새 국회에서 이어지도록 동력을 만듦.
 - 친족성폭력 문제를 가시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이뤄냄
 - 생존자 그룹이 생존자 리더십을 발휘하고 반성폭력 활동가로서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지지 및 지원함.

1-5.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 강간죄 개정 운동

- 배경/필요성 :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에서 강간죄 개정과제 무력화가 시작됨.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 해당 내용 철회, CEDAW 보고서에서 강간죄 개정 반대, 2022년 성폭력실태조사 연구보고서 초안에서 ‘강간죄 개정’ 단어 철회 등에서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음
 -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는 7번의 릴레이리포트, 2회 성폭력생존자 수기 등을 통해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을 드러냈음. 내부적으로 강간죄개정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기준 여성폭력 근절운동의 단위가 자기 현장에서의 관점과 경험을 바탕으로, ‘동의’ 기준으로서의 성폭력 기준 변화가 어떤 필요와 의미인지 해석하고 언어를 생산하면서 패러다임 전환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음. 외부적으로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협소하고 추가적인 도입여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상황의 성적 폭력이 발생하는 현실 여건에 대해 상상하고, 연결짓고, 구조를 짚어내는 과제임을 알려냄.
 -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2022년 전성협 강간상담분석에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드러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무죄 확정 등을 통해 피해자 동의 부재를 간과한 판결, 고의 입증의 편향 등이 쟁점이 되고 있음. 2023년 9월 21일 대법원 강제추행 최협의설 파기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1) 이미 재판에서 확인하고 있는 현실의 사건들을 더 훑아보아야 하며 2) 이미 보편적 공감대이자 임박한 변화라는 점을 강조해갈 필요가 있음
- 목표 :
 -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폭력 판단기준으로서 동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든다.
 - 법 적용, 해석의 수사재판 영역에서의 동의 판단의 쟁점을 발굴하고 발전된 논의를 형성한다.
 - 적극적 합의 활동과의 연결을 통해 동의 모델의 의미를 법체계 내부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로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사무국 운영 (사무국 협업)
 -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웹페이지 활용
- 담당자: 동은
- 기대효과 :
 - 비동의 강간죄를 둘러싼 남초커뮤니티 중심의 반론에 대한 대항 담론이 형성된다.
 - 성폭력 판단기준으로서 ‘동의’에 대한 사회적 상상력이 넓어진다.

목표2. 동의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로 적극적 합의 담론을 더 멀리 확산한다.

2-1. 동의를 질문하며 위험 너머 나아가기 단행본 작업

- 배경/필요성 :
 - 상담소는 그동안 동의에 대한 실천적, 담론적 기준을 제시하는 ‘적극적 합의’ 개념화 및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바꾸는 ‘강간죄 개정 운동’을 진행하며 ‘동의란 무엇인가’ 해석하는 사회적 역량을 높이고, 성폭력 및 성적 권리 담론의 확장을 위한 상담소 내부의 논의와 자료를 쌓아왔음.
 - 또한 2017 『중요한 성폭력 판결 시리즈 1: 단 하나의 기준, 적극적 합의』 번역발간을 시작으로 교육, 캠페인, 인터뷰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 청소년, 성소수자, 반성매매, 법 관련 실무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적 동의 담론을 함께 만들어갈 역량 있는 단체/저자들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히 해왔음.
 - 2023년에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철회 상황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권리방어’로 동意的 의미망이 변화하는 흐름을 마주하게 됨. 상담소의 성적동의 관련한 논의가 점점 깊어지고 확장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동의 담론에 지속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 확인됨.
- 목표:
 - 성적 동의 관련 단행본 작업
- 방법 및 계획
 - 단행본 제작을 위한 기획단 모집하여 목차 구성 및 저자 섭외
 -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편집 및 유통에 전문성 확보
- 담당: 동은
- 기대효과
 - 단행본 출간 시기에 맞추어 북토크 및 워크숍 등을 기획하여 ‘적극적 합의’ 담론 대중화
 - 공동저자 조직을 통해 적극적 합의를 함께 말해줄 스피커 발굴

2-2. 적극적 합의 강의 및 홍보 활동

- 배경/필요성 :
 - ‘적극적 합의’ 활동과정에서 만들어진 상담소의 논의 및 워크숍 틀을 기반으로 성폭력상담원, 성교육강사, 시민단체, 대학 등에서 교육을 진행해옴. 강의는 ‘동의’ 관련 고민을 시민들과 직접 나눌 수 있는 통로이자 적극적 합의 담론을 확산하는 중요한 방법임. 2024년에도 업무 범위 안에서 강의를 소화하고, 바뀐 구성원들이 강의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안 공유 및 개편 등의 작업 진행할 필요.
 - <적극적 합의 아카이브> 웹페이지, <적극적 합의를 도와줘 카드게임> 등 온라인 기반 홍보채널을 확산력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웹페이지를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 마련할 필요성 있음.
- 목표:
 - 적극적 합의 강의 연 10회 내외 진행 및 내부 강사 역량강화
 - 적극적 합의에 대해 알고 싶은 시민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 홍보
- 방법 및 계획
 - ‘적극적 합의’ 강의 진행 및 내부 강의안 개편·공유
 - 적극적 합의 관련 웹페이지 홍보 및 일상적 관리 체계 마련
- 담당: 동은, 유랑, 수수
- 기대효과
 - 적극적 합의 담론 확산 및 동의에 대한 교육/상담 현장의 고민 수렴
 - 상담/관련 실무 현장에서 동의를 해석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언어 마련

목표3. 여성, 반차별, 기후 등 다양한 인권 운동과 연대하여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

3-1. 반차별 운동

- 배경/필요성 :
 - 22대 국회 구성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체라는 정체성·목표를 잃지 않고 입법운동 단위로 서 역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만 총선 국면에서 직접적인 선거 대응보다는 지역차제연과 협업을 통해 반차별 관련한 지역현안들을 드러냄으로써 차별금지법 필요성 알리고자 함. 또한 차별금지법안이 실질적인 평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 및 구성을 검토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내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힘’ 혹은 평등하게 살 자격이 선포되는 법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시민들, 인권 옹호 기관 및 단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의 장이며, 상담소 또한 매년 참여하고 있음. 2024년에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과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연결성을 드러내고 성소수자 인권에 연대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실질적 평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 내용을 구성하여 22대 국회에서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함
 - 대중적인 슬로건과 활동을 통해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려냄
 -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감.
- 방법 및 계획
 -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회 및 정책담론팀 활동
 - 2) 서울퀴어문화축제 시민 참여 부스 및 행진 참여
- 담당: 수수
- 기대효과
 - 차별금지법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함.
 -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비롯한 반차별 운동과의 접점을 늘어나고 운동간의 연결성이 가시화됨

3-2.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운동

- 배경/필요성 :
 -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1년부터 효력을 잃었으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책임 부처들은 여전히 ‘입법 공백’을 핑계로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비범죄화에 따른 의료상담·교육 체계 정비 등을 미루고 있음. 이에 2022년,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가 출범하여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음.
 - 한편, 2023년 6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복지부 감사와 전수조사가 시행되며 영아 유기 및 살해 사건이 연이어 드러났음. 이를 계기로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며 ‘익명출산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10월, 보호출산제라는 이름으로 통과됨. 그러나 보호출산제 제정법안은 양육 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는 법이며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장애인과 이주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임. 이에 모임넷에서는 여성과 아동 모두를 보호하지 않는 보호출산제 폐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임.
- 목표:
 - 정부와 국회, 보건당국과 관계 부처 등에 모임넷 7대 요구안(① 임신중지 관련 의료 행위 건강보험 전면

- 적용, ② 유산유도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③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마련, ⑤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실행, ⑥ 사회적 낙인 해소 및 포괄적 성교육 시행, ⑦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체계 마련) 시행 촉구
- 보호출산제의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폐지 촉구
 - 재정회계를 맡은 단체로서 공동분담금을 투명하게 관리
 - 방법 및 계획
 - 임신중지 완전 비범죄화를 전제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 참여 및 개입
 - 그외 연단체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모임넷)> 사업계획에 따름
 - 담당: 유랑
 - 기대효과
 - 유산유도제 도입 및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 실질적인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정책, 제도, 체계 마련
 - 임신중지 비범죄화 상태를 전제로 한 여론 형성 및 보건의료인 네트워크 구축

3-3. 다양한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다양한 인권현장에 연대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인권 의제를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연단체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필요시 신규 연대활동에 함께한다.
- 방법 및 계획

연단체	내용	담당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대 내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인권침해·차별 문제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고, 상담 및 지원한다. 군형법 제 92조의6 폐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동은
포괄적 성교육 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교육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폐지하고, 포괄적 성교육의 방향과 철학을 공론화함으로써 공교육에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유랑
인권운동더하기	인권단체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인권운동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인권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하는 작업에 함께한다.	유랑
장애인 권리중심노동자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 대책위원회	서울시는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고 최종증장애인 400명을 해고하였음. 이에 최종증장애인 노동자의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에 함께한다.	동은

- 담당자 : 각 연단체 담당 참조
- 기대효과
- 넓은 연대를 통해 다양한 여성·인권 이슈에 개입함
- 퇴행의 시기 다양한 인권현장에 연대함으로써 서로 힘을 주고 받음

3-4. 자문위원 소통 및 자문 활성화

- 배경/필요성 :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회는 연1회 개최되고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섭외, 자문을 구하고 있으나 그 빈도가 높지는 않음. 자문위원들은 성문화운동팀 활동에 대한 이해도, 공감도가 높으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초대 및 교류는 원활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또한 현상을 분석하

고 새로운 언어와 담론을 형성해 가고자 할 때 내부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여러 성평등 영역에서 활동하는 자문위원들과의 활발한 네트워킹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목표:
 - 상담소 활동의 또 다른 동료로서 자문위원과 함께 성문화운동을 해간다
- 방법 및 계획
 - 스터디 등 상시적인 교류 활동
 - 온/오프라인 정기 자문회의 1회 이상 진행
 - 전화, 서면 등을 통한 상시 소통 및 자문 진행
- 담당: 동은/유랑/수수
- 기대효과
 - 자문위원들과 교환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더욱 많아지고 높아진다
 - 성문화운동팀 활동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활동가들의 관점과 경험이 넓어진다

2024 회원홍보팀 활동 계획

2024 전체 활동 방향
<p>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든든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p>
2024 팀별 실천 방향
<p>후원으로 함께 만드는 변화의 물결 회원과의 스킨십을 높이고 연대의 장 만들기 안팎으로 두루 소통하고 협업하는 탄탄한 팀 만들기</p>
팀 활동 목표
<p>목표 1. 지지에서 후원으로, 변화의 현장에 초대하기 목표 2. 즐겁고 신나게, 시민과 더 많이 만나는 상담소 목표 3. 반성폭력운동과 시민의 거리 좁히기 목표 4. 내외부적 협력을 높이는 회원홍보팀 만들기</p>

목표 1. 지지에서 후원으로, 변화의 현장에 초대하기

1-1. 신규후원회원

- 배경/필요성: 경제적 불황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상담소의 활동을 눈여겨보는 시민을 신규후원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신규후원회원이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끼고 오랫동안 후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한 말걸기와 연결이 필요함.
- 목표: 신규후원회원 확대 및 후원 유지 기간 제고
- 방법 및 계획:
 - 상시 예우
 - : 자동화 메시지: 가입 즉시 환영 문자 메시지 및 이메일, 후원 1주년 기념 감사 문자 메시지, 기관소개 메일(4회)
 - : 웰컴키트 우편 발송(격월), 신규 웰컴굿즈 마련
 - : 신규회원 대상 특전 마련(유료 프로그램 신청 시 할인혜택 등)
 - 잠재지지자-신규후원회원 전환 전략 수립
 - : 회원가입 유도 가능한 이벤트 사전 파악하여 사업기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체크(상시)

: 개인정보활용동의 범위 확대 안내문 추가(마케팅 목적 활용동의)하고 연서명/행사/강의 신청서 등에 삽입하여 잠재후원자 풀 확보

: 상담소 지지자의 참여 경험 및 여정 파악, 데이터 기반 디지털 마케팅 도구(자피어, G/A, 핫자, 갯 사이트 컨트롤 등) 탐색, '홍보-참여-소통-지지-가입' 프로세스 설계

: 잠재지지자 확보 관련 눈에 띄는 이웃단체 방문 및 미팅

- 담당자: 달별(상시예우 및 총괄), 산(잠재지지자-신규회원 전략 수립 결합)

- 기대효과: 1년 미만 후원회원의 이탈률 하락 및 소속감 강화, 신규후원회원 전환 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

1-2. 기존후원회원

- 배경/필요성: 현재 상담소의 후원회원 풀은 약 1600명 가량. 22년 하반기부터 정기후원 중단 폭이 신규 회원 수를 따라잡아가고 있음. 한편 2023년 들어 실직을 사유로 후원을 중단하는 회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정부보조금 비율을 줄이고 정권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전체 수입예산에서 후원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높여야 함.

- 목표: 후원회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지속후원회원 규모 유지

- 방법 및 계획:

- 상시 예우: 메시지 발송 - 명절 기념 문자 메시지(설날, 추석), 여성의 날, 상담소 생일, 회원 생일, 총회 안내

- 후원금 증액 이벤트: 1-3년차의 안정화된 회원 중 1만원 후원하는 회원 대상으로 증액 이벤트 진행하여, 참여자에게는 신규 회원과 동일한 굿즈 발송.

- 담당자: 산, 달별

- 기대효과: 후원회원 이탈률 하락 및 장기후원회원 증가, 상담소 멤버십 강화.

1-3. 일시후원

- 배경/필요성: 후원의 트렌드가 일시후원으로 이동하는 요즘, 정기후원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말걸기와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지지자 풀을 넓히고자 함.

- 목표: 일시후원자를 잠재지지자로 유입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상시 예우

: 자동화 메시지: 후원 감사 문자 메시지, 연말정산 안내 문자 메시지 및 메일(연 1회 일괄)

: 요청 시: 기부확인서 발급

- 고액후원자: 감사인사 및 특별 예우

- 인상깊은 후원 계기를 발굴해 1-4. 특별후원으로 연결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일시후원 효능감 증가 및 정기후원 전환율 제고.

1-4. 특별후원

- 배경/필요성: 기념일, 모금프로젝트 등 일시후원의 계기가 다양해지고, 자신의 후원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후원자도 많아짐에 따라, 이를 위한 창구를 확보하고 독려하여 지지자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목표:

- 개인의 일상과 후원이라는 행위를 연결하여 후원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잠재후원자 유입의 저변을 확대함.
- 기업 후원 확대 및 관계 강화.
- 방법 및 계획:
 - '작고 소소한 특별후원 신청하기' 신청 양식 상시 확인.
 - 특별한 사연이 있는 일시후원 발굴 및 특별후원 게시물 하단에 신청 안내 문구를 삽입하여 자발적인 참여 독려.
 - 특별후원이 갖는 홍보의 성격을 활용해 기업의 후원을 독려.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특별후원과 기업후원 증가, 상담소에 대한 친밀감 상승.

1-5. 문자후원

- 배경/필요성:
 - 후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낯설거나 정기후원이 부담스러운 지지자가 가벼우면서도 접근성 좋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방식의 후원으로,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상담소의 다양한 행사와 집회장소에서 문자후원을 노출하여 외부에서 쉽게 후원할 수 있게 할 수 있음.
- 목표:
 - 기존 업체 문자후원금 정산
 - 업체 변경하여 문자후원 운영 안정성 확보
 - 문자후원 인지도 및 참여 활성화
- 방법 및 계획:
 - 정산: 정산 현황 및 미정산 금액 파악하여 그간 밀렸던 후원금 수금
 - 업체 변경: 현재 업체와의 소통 및 정산이 용이하지 않아 문자후원 업체 변경 추진. 문자후원의 번호가 바뀌고 수수료가 인상될 예정
 - 활성화: 상담소의 모든 행사와 집회, 기념일에 문자후원을 적극 활용함. 연 1~2회 문자후원 후기를 발행하여 회원의 메시지 전달하는 창구로 기능하게 함
- 담당자: 산, 달별
- 기대효과: 문자후원 인지도 증가 및 운영 안정성 제고.

1-6. 감경후원 대응

- 배경/필요성: 가해자변호사 시장이 대중화된 지금, 감형을 만들기 위한 수단이 지속적으로 발굴/개발되고 있음. 피해자 지원단체 후원은 2010년대 초반부터 활용된 오래된 전략으로, 현재까지도 성폭력 가해자의 후원이 적발되고 있음. 후원회원들의 후원금을 상담소 활동에 보내는 지지와 응원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감경후원 전략을 유효하지 않게 만들 필요성이 있음.
- 목표: 성폭력가해자 변호시장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 및 성폭력 가해자의 면피 목적 후원 감소.
- 방법 및 계획: 신규사례 적발 시 의견서 제출, 시기적절한 이슈파이팅 및 대응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감경 목적 후원 감소 및 개별 재판부와 시민에 문제의식 전달.

목표 2. 즐겁고 신나게, 시민과 더 많이 만나는 상담소

2-1. 나눔터 발간

- 배경/필요성: 나눔터는 1991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개소 초기부터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임. 상담소 활동을 알리고 회원과의 소통을 증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왔음. 2010년 여름에 발행된 68호를 마지막으로 발간주기를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회원소식지로서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했음. 매호마다 상담소의 상반기/하반기 주요 활동 소식을 알리고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를 나누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상담소의 연간 상담통계를 공유하고 있음.
- 목표: 상담소 활동의 기록 및 홍보, 성폭력 생존자의 목소리 전달, 회원 소통 증진
- 방법 및 계획:
 - 발간: 93호(24년 2월) 원고 수합, 편집 및 디자인(외주), 교정, 발간 및 홍보, 발송 및 배포, 반송 처리.
 - 개편
 - : 94호 발간 목표로 디자인 및 목차 개편 추진.
 - : 친환경 인쇄 및 디지털 발행 전환, 아카이브 페이지 운영. 디지털 발행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도록 93호에 QR코드를 삽입하고 별도 문자 발송.
 - : 개편 준비(2월~6월): 편집 관련 강의 수강, 관련 기관 담당자 면담, 디자이너 및 편집사 미팅 등을 통한 담당 활동가 역량 강화, 디지털 발행 수요 확인, 개편 준비 최종 점검 등
 - : 발간 실무(7월~12월): 기획, 원고 청탁 및 수합, 디자인 논의, 편집, 교정, 발간 전 최종 점검 등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 발간
 - : 상담소 활동 홍보 및 성폭력 생존자의 경험과 일상을 만나는 장 마련.
 - : 93호를 통해, 상담소는 격동의 2023년 하반기를 어떤 고민과 결의를 갖고 활동했는지 이해를 돕고, 충신을 앞둔 2024년의 활동에 관심을 유지하도록 함.
 - 개편
 - : 디자인 개편을 통해 상담소가 보여주고자하는 이미지와 컨셉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 목차 개편을 통해 코너별 성격을 명확히 하고 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
 - : 디지털 발행을 권장해 우편발송료와 인쇄비를 줄임.

2-2. 이메일 소식지 발송 및 관리

- 배경/필요성: 상담소 회원 및 지지자에게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안내할 필요가 있음.
- 목표: 회원과 이메일 소식지 구독자 및 유관기관에 상담소 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상담소 활동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함. 현행 이메일 소식지 형식을 개편하여 오픈율을 높임.
- 방법 및 계획:
 - 월 1회 이메일 소식지 발행(2023년 1월호~12월호, 총 12회)
 - 활동가 2인이 매월 번갈아가며 담당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1월
주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부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산	달별

- 발송 대상: 상담소/열린터 회원 및 구독자, 여성·시민사회단체, 성폭력상담소, 언론 등
- 발송 내용: 주요 활동 홍보 및 이슈 전달, 집중할만한 활동을 짧게 소개
- 스티비로 포맷 제작, 도너스로 발송하여 발송 기록 일원화
- 뉴스레터 아카이브 페이지 오픈 및 홍보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매월 회원 및 구독자들이 정기적으로 상담소 활동 소식을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채널로 기능.

2-3. 회원놀이터: 자기방어훈련

- 배경/필요성: 회원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내부 인식과 욕구가 높아진 한편, 단발성 행사보다 다회적 성격의 회원놀이터를 통해 잠재적 지지자·후원자와 관계를 쌓아갈 필요 있음. 나날이 위협받는 일상의 안전 문제가 실재하는 불안이 된 현재, 상담소의 강점인 자기방어훈련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상담소 회원과 반성폭력운동에 관심을 갖는 동료시민들이 성차별적 사회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계기를 마련, 상담소의 다양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신규회원의 유입과 참여회원의 소속감 및 유대감 강화, 상담소의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 공급. 참여자들이 단순 신체적 대응에서 그치지 않고 언어적·비언어적·법제도적 대응을 익히고, 몸 움직임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자기방어훈련에 관심 있는 회원/잠재 지지자를 대상으로 15-20인 선착순 모집
 - 유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되, 2024 신규 가입자에게는 50% 할인
 - 주 강사진과 기획단계부터 함께하여 4주의 연속성 있는 프로그램 기획.(2월)
 - 자원활동, 인턴 중 관심있는 분에게 제안하여 프로그램 실무 보조로 섭외.

회차	내용
1회	상담소 소개, 그라운드 룰 만들기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이란?, 비물리적 대응
2회	내 몸 알아가기: 가동 범위 파악하기, 유연성 느끼기
3회	실전 연습 1: 기초 동작
4회	실전 연습 2: 응용 동작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단순 호신술을 넘어 사고의 틀을 깨는 훈련을 지속하여 참여자로 하여금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고, 잠재적 후원자/지지자를 만날 기회의 장을 마련. 성폭력 통념과 여성성 규범에 균열을 냄.

2-4. 회원소모임

- 배경/필요성: 거센 백래시와 더불어 정부의 주도로 여성인권이 퇴행하는 현실에 많은 회원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코로나를 거치면서 다소 침체되었던 소모임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음. 상담소를 거점으로 회원 및 반성폭력운동에 관심을 갖는 동료시민이 만남과 교류의 시간을 갖고 소소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함.
- 목표: 상담소-회원(지지자), 회원-회원 간 유대감 강화
- 방법 및 계획:
 - 홍보, 모집 등의 운영 보조와 필요 시 결합하여, 담당 활동가의 실무 부담을 줄이고 소모임 운영 안정성을 높임.
 - 다양한 창구에서 만나는 지지자, 자원활동가, 회원 등의 연관된 관심사나 참여 욕구를 포착하여 참여로 연결.

- 소소한 단발성 모임을 기획하여 소모임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상담소와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
- 필요 시 소정의 참가비를 책정하여 각 소모임에 맞게 부족한 예산 충당.
- 기존 정기 소모임: 책읽기 소모임 <월간 00수월>(감미), <페미니스트 아무말 대잔치>(맑)
- 신규 정기 소모임: 수학 문제 풀기 소모임(산, 호랑)
- 단발성 소모임: 10km 마라톤 도전! 달리기 소모임(2월부터, 5월 여성마라톤대회 목표, 수수), 반려견 보호자 소모임(3월, 상아, 신아, 호랑), 남아 키우는 페미니스트 양육자 소모임(5월, 란), 한강 횡단 수영 인 소모임(6월 대회 목표, 오매), 홀라댄스 소모임(8-9월, 동은), 산타는 페미들(9월, 은희)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 상담소, 활동가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모임원으로 하여금 상담소의 일원으로서 애정과 친밀감을 형성함.
-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페미니스트들이 고립되지 않고 활동과 참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함.
- 소모임 활동에서 더 나아가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행사, 집회 등에 회원의 참여율을 높임.

2-5. 한해보내기

- 배경/필요성: 상담소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났던 사람들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시간 필요.
- 목표: 1년 간의 활동 정리 및 주체 간의 연결 강화.
- 방법 및 계획:
- 기존 팀마다 돌아가는 방식에서 회원홍보팀이 주축이 되어 각 팀별로 1명씩 나와 TF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진행. 각 팀별로 나온 활동가들은 팀별 올해의 키워드, 자주 만난 사람들을 해당 한해보내기에 초대하고 한해보내기의 컨셉 및 실무 회의를 함께 진행.
- 각 팀에서 다양한 경로로 인연을 맺은 이들을 리스트로 정리하여 행사 기획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회원과의 친밀도를 키우고, 새로운 인연과의 또 다른 연결점을 만듦.

2-6. 자원활동가 모집 및 소통과 연계

- 배경/필요성: 자원활동가는 상담소 활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참여자/동료이자 외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대중과 상담소의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지속적으로 자원활동가를 모집함으로써 자원활동가를 확대하고 잠재적 활동가 및 회원들과의 만남을 늘리고자 함.
- 목표:
- 상담소에 관심을 갖고있는 동료 시민이 반성폭력운동의 활동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 마련.
- 소극적인 지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의 전환.
- 방법 및 계획:

구분	내용
일상업무지원	- 상시 모집 및 관리. - 프로젝트 및 일상 업무에서 자원활동가의 수요가 있거나, 활동을 신청하는 자원활동가가 있는 경우에 상황과 필요에 맞게 연계. - 본격적인 활동 전, 전체 OT를 진행하여 상담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서울대인권센터 연계 프로그램	- 하반기(7월 ~ 12월) 진행, 2인 요청. - 활동 종료 후 상담소 일상업무지원 혹은 상시 자원활동 의사를 확인해 자원

	활동가 단체방에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상담소의 활동 소식을 전하고 느슨한 연결을 이어가도록 함.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기(2023년 동계) - 배경인턴 1인: 김*경 - 활동기간: 1월 2일~2월 16일(2층 자원활동가 자리) - 제33차 정기총회: 필요 업무 지원 및 스태프 참여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람 및 수요시위 사전 답사, 기획 및 운영 지원 - 이외 공판 모니터링, 집회 등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 - 19기(2024년 동계) 신청 - 활동 종료 후 상담소 일상업무지원 혹은 상시 자원활동 의사를 확인해 자원활동가 단체방에 초대하여 자연스럽게 상담소의 활동 소식을 전하고 느슨한 연결을 이어가도록 함.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 자원활동가들이 상담소에 소속감을 느끼고 반성폭력운동에 직접 참여하는 감각을 제공하여, 다양한 활동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단체 및 여성인권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인적 관계를 형성함.

2-7.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배경/필요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1992년 1월부터 28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정부에 1. 전쟁범죄 인정, 2. 진상규명, 3. 공식사죄, 4. 법적배상, 5. 전범자 처벌, 6. 역사교과서에 기록, 7.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일곱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2015한일합의를 내세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일 합의의 상징인 화해·치유재단이 2019년에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관점으로 정기 수요시위를 연 1회 주관함으로써, 일본군 성노예제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여성폭력의 역사이자 끝나지 않은 문제임을 밝힘.
- 방법 및 계획: 제16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주관
- 씨티-경희대 NGO인턴십 1인 주도의 기획 및 실무
-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및 수요시위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사전 답사 진행
- 일본군성노예제문제를 둘러싼 성폭력 통념 및 피해자상에 대한 균열을 도모
- 활동 후 실무자 및 상근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정의기억연대에 전달하여 상호 평가 진행

제163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일시: 2024년 2월 7일(수) 오후 12-13시
- 장소: 일본대사관 앞
- 전체 순서
- : 여는 노래 <바위처럼>
- : 경과 보고(정의기억연대)
- : 참가 단체 소개
- : 문화공연
- : 연대 발언

: 성명서 낭독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상담소가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문제해결에 연대하는 이유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논의하며 정의기억연대와 상호 평가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고 일본군 성노예제라는 역사를 문제화하는 다중적인 목소리에 동참함.

목표 3. 반성폭력운동과 시민의 거리 좁히기

3-1. SNS 채널 관리

- 배경/필요성: 모든 사람이 정보의 생산자이자 소비자가 된 지금,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온라인 공간이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 역시 온라인 공간을 의견 교류의 장이자 새로운 담론 습득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특히나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만남이 어려운 요즘 다양한 의제가 오가는 온라인 공간에서 상담소 활동에 함께할 다양한 주체를 만나야 함.
- 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외화, 상담소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지지자와 잠재후원자를 확보함.
- 방법 및 계획:
 - 기본 관리 상시 진행: 게시물 반응 및 댓글 모니터링, 팔로워 수 동향 파악 등
 - 각 채널에서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적극 활용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채널별 팔로워 특성을 파악하고, 인기 콘텐츠와 광고 효과성을 확인함.
 - 각 채널의 특성에 맞게 게시글의 내용을 구성하고, 피드, 스토리, 릴스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SNS 운영의 효과성을 높임. 예를 들어, 실시간 소통에 용이한 트위터에는 행사, 집회 등의 현장감을 전달하는 게시글을, 사진과 이미지로 이목을 끄는 인스타그램에는 엄선한 이미지와 홍보하고자 하는 글을 인용한 피드를 올리거나 현장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에는 스토리 기능을 활용하는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음.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하여 활동가들에 배포.
 - 디지털 마케팅 및 SNS 관련 자료를 수시로 찾고 확인하여 전반적인 SNS 이용 현황 및 흐름을 이해하고 운영에 적용함.
 - 회원을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SNS에 주기적으로 홍보.
 - 카카오톡 채널도 타 SNS와 동일하게 게시물 업로드하도록 안내.
 - A/B 테스트 광고를 진행하여 광고 집행에 대한 경험을 쌓고, 상담소 홍보에 효과적인 문구, 디자인, 컨셉 등을 파악함.
- 담당자: 닷별(트위터, 카카오톡 채널), 산(메타, 유튜브)
- 기대효과:
 - 상담소의 소식과 활동을 널리 알림으로써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상담소의 인지도를 높임.
 - 카카오톡 채널 팔로워 증가 및 문자 수수료 절감.

3-2. 홈페이지 관리

- 배경/필요성: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한 지지자 그룹-개인과 만나야 할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활동을 집적하고 상담소가 원하는 대로 편집하여 여러 채널/플랫폼에 맞게 노출할 필요 있음.
- 목표: 이용자의 시선에 맞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유지보수한다.

- 방법 및 계획:
 - 유지보수 업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보수/관리.
 - 추가 개발 진행하여 이용하기 편리한 홈페이지 구축.
 - 앞으로의 후기, 게시글 등은 홈페이지에만 업로드하고, 운영해오던 티스토리 블로그는 공개해두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아카이빙용으로 전환.
- 담당자: 달별
- 기대효과: 깔끔하고 접근성 좋은, 사용자와 활동가 모두 편리한 홈페이지 구축.

3-3. 영상 콘텐츠 제작

- 배경/필요성:
 - 세계적 팬데믹을 거치며 전통적 대면 행사에서 벗어나 비대면 행사 진행 경험이 축적됨. 중이나 유튜브 스트리밍 등 새로운 도구 활용하여 팬데믹 이후에도 비대면 행사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었음.
 - 그동안 상담소 유튜브 채널에 12개 스트리밍 영상이 쌓여있는데 영상 특성상 긴영상을 선뜻 시청하기가 어려움. 어느 타임라인에 어떤 주제의 발언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번거로워, 행사가 종료되면 영상의 수명이 짧음. 이에 주요 활동과 노고가 담긴 해당 영상을 더 노출하고, 시청자들이 반성폭력 운동의 지지자로 전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가 필요함.
 - 상담소의 활동을 진지하게 알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흥미 위주의 가벼운 콘텐츠가 필요함.
- 목표: 유튜브, SNS에서 유입한 반성폭력운동 및 상담소 지지자 증가.
- 방법 및 계획:
 - 영상 제작에 적합한 사양의 컴퓨터와 영상 제작 프로그램 구입. 테크숍을 통해 'Adobe Creative Cloud All Apps Plan 1-Year Individual Membership'을 정가의 약 49%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음.
 - 영상편집 자원활동가 별도 모집.
 - 샷폼 콘텐츠: 일상업무지원 자원활동가와 상시 제작. 23년에 만들어둔 양식을 활용해 통일성 있게 제작할 수 있음. 대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영상 양식, 주요 주제, 방향 등을 조정 및 수립하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써, 정기적으로 업로드하는 데에 주력하도록 함.
- 담당자: 산
- 기대효과: 유튜브 구독자 및 영상 조회수 증가, 상담소 활동과 의제 홍보.

목표 4. 내외부적 협력을 높이는 회원홍보팀 만들기

4-1. 팀 체계 마련

- 배경/필요성: 회원 소통, 민원 대응, 일상 관리 등의 업무가 많은 특성상, 팀 내 역량 순환과 일원화된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체계 마련이 필요함.
- 목표:
 - 업무 및 소통 역량 강화
- 방법 및 계획:
 - 팀 내 협업 체계 점검: 2023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1인 1사업 체제에서 벗어나 주/부 담당

을 나눠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함. 원활한 업무 진행 상황 공유와 백업을 위해 소통 및 협업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회원홍보팀에 맞는 체계를 만듦.

- 사업별 매뉴얼 작성 및 업데이트
- 데이터서버-구글드라이브 등 아카이브 체계 확립
- 모금, 홍보, 브랜드 등 회원홍보팀의 업무 영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많이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직접 만들어 외부 네트워킹 형성.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활동가 개인의 역량 및 팀의 활동 비전, 미션 설정에 기여

4-2. 회원홍보 스테디

- 배경/필요성:
 - 회원홍보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업무능력의 범위가 넓고 다양함.
 - 외부 강의를 비영리 특성에 맞게 접목시키려면 역량을 공유하고 내부적인 토론이 중요함.
- 목표: 모금/소통/홍보 영역 전문성 강화
- 방법 및 계획:
 - 매달 1회 스테디 진행
 - 누구나데이터 모금/홍보 교육 수강 후 상담소 적용방법 논의
 - 상담소 후원그룹 특성, 마케팅 트렌드 공부
 - 타팀 1-2인 참여 독려

시기	대주제	내용
2월	잠재후원자 발굴 1	온라인 콘텐츠, 잘 기획하기
3월	잠재후원자 발굴 2	캠페인과 후원모금 연동하기
4월	잠재후원자 발굴 3	지지그룹 모으고 관리하기
6월	온라인 톨 활용 1	반복업무를 쉽고 간단히: 자피어, 채널톡
7월	온라인 톨 활용 2	감 대신 데이터로: 구글 애널리틱스, 핫자
9월	후원그룹 특성 조사	상담소 후원그룹 분석
10월	후원그룹 특성 조사	상담소 후원그룹 동향파악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회원홍보팀 역량강화 및 경험 환류

4-3. 상담소 내 회원홍보팀 협력 강화

- 배경/필요성: 타 팀과의 협력하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회원홍보팀의 업무 특성상 타 팀과의 긴밀한 협업이 아주 중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모금의 중요성에 대한 활동가들의 인식 제고가 아주 중요함.
- 목표: 모금의 중요성을 상담소 내부에 환류하고, 상담소의 모든 대외 활동에 모금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방법 및 계획:
 - 전체 활동가 대상 모금교육 진행
 - 도너스 활용 교육 진행(도너스 담당자 혹은 회원홍보팀 활동가)
 - 외부 행사 참여 시 기획 단계부터 회원홍보팀과 후원회원 모집 관련 협업 진행
- 담당자: 달별, 산
- 기대효과: 상담소 인지도 상승 및 잠재지지자/신규 후원회원 증가

2024 법률팀 활동 계획

2024 전체 활동 방향
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든든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
2024 팀별 실천 방향
사건지원을 통해 생존자와 연대하고, 함께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다. 성폭력의 법시장화를 경계하고, 생존자의 다양한 사건 해결 방식에 연대한다. 다른 팀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고립되지 않고 조직과 함께 활동한다. 차별과 혐오에 동조하는 정치·권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폭력/성차별 및 소수자 인권 사안에 연대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상담소의 접점을 늘린다.
팀 활동 목표
-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함께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다. -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한다. - 1인 법률팀의 가능성과 역할을 탐구하고, 조직과 함께 고민한다. -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상담소의 연대를 확장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함께 운동의 주체로 성장한다.

1. 반성폭력 공익 법률 지원 사업

1) 개별 사건 공익 법률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와 법률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긴밀히 상호 소통하여 사건 지원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불안을 낮추는 등의 강점이 있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가 호소하는 법률문제 중에 무료법률구조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는 사건이지만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존재함 (ex. 학내 사건 처리 절차, 시효가 도과한 사건, 피해자의 진술 자체로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 등)

- 한편, 법률팀이 지원하는 사건이 무료법률구조 사건과는 달라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과 상담소의 상근변호사로서 어떤 사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동으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목표 :
- 법률팀에서 직접 지원하는 개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양식(매뉴얼)을 만들어, 개인의 사건 해결을 넘어 상담소와 피해자가 함께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원을 제공
- 방법 및 계획 :
- '공익사건'에 대한 내부 지원기준을 가지고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와 회의를 가지고 지원 기준 및 소송신청 양식 등을 검토 (~3월)
- 법률팀 공익 법률 지원 양식을 만들어 직접 지원팀인 상담팀과 논의 및 수정 (4월)
- 만들어진 양식 적용하여 공익 법률 지원 제공
- 기대효과 :
- 무료법률구조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함
-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만을 넘어서서 상담소의 의제나 운동방향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함께 운동하는 동료로서 위치하게 함.

2) 기존 사건 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와 법률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긴밀히 상호 소통하여 사건 지원을 할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고 불안을 낮추는 등의 강점이 있음.
- 공익 법률 지원 제공 외에 기존에 하던 사건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 성폭력 피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지원을 제공함.
- 방법 및 계획 :
-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각 단계에 맞게 법적 지원 제공
- 기대효과 :
- 담당활동가와 사건지원 변호사가 보다 면밀한 소통을 하며 각자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배움을 얻고, 전 반적인 사건지원 역량을 강화함

3) 법률팀 사건 지원 사례 발표회

- 배경/필요성 :
- 매년 슈퍼비전, 종결사례포럼을 진행하여 논의가 필요하거나 공유하고 싶은 사건에 대해서 조직 내 공유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담팀, 열림터와 같이 법률팀 역시 직접 사건을 지원하는 팀으로서 조직 내에서 사례 지원 고민이나 경험을 나눌 필요가 있음.
- 특히 2024년의 경우, 개별 성폭력 피해 사건 지원 양식을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하는 운동의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므로, 더욱 조직 내에서 사례에 대해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 사건지원의 시작부터 전반적인 흐름을 공유하고, 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함께 고민함.
- 방법 및 계획 :
- 11월 말, 한해동안 지원한 사건에 대해 발표 준비하여 진행

2. 공동대책위원회 대리인단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원하는 사건의 경우에 공대위 활동가와 법률대리인단이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상담소 상근변호사로서 공대위가 꾸려진 사건에 대리인단으로 참여하여 사건을 팔로우업하고, 함께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들로부터 사건 지원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음.
 - 목표:
 -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원하는 사건에 대해 이해를 갖고 법률 지원을 한다.
 - 방법 및 계획
 - 해군사건(민사 2심) : 1월 중 위임장 제출, 이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대리인단 및 공대위와 소통하며 소송 진행
 - 추후 공대위 꾸려질 시 상담팀과 논의하여 대리인단 참여
 - 담당: 도경, 상담팀
 - 기대효과:
 -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서 지원하는 사건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함.

3. 월요법률상담(확장)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적극적인 법적 대응 과정에서 법률조력에 대한 필요를 검토하고 지원함
 - 월요법률상담의 공백 시기에 피해자들의 법률상담 요청이 꾸준히 존재함
- 목표:
 - 여성주의상담팀에서 진행하는 월요법률상담의 공백시기(12월-2월)에 법률상담에 대한 피해자들의 갈증 해소
- 방법 및 계획
 - 12월, 1월, 2월 둘째 주 월요일마다 2건씩 진행
- 담당: 도경, 상담팀
- 기대효과:
 - 월요법률상담의 공백 시기에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에 대한 갈증 해소
 - 사건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법적 지원을 함.

성폭력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연구 등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한다.

1. 팀간 협업을 통한 반성폭력 운동 의제 발굴

- 배경/필요성 :
 - 목표 : 조직 내 다른 팀과의 협업을 통하여 상근변호사로서 역할을 탐색하고,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반성폭력 운동의 의제를 발굴하고, 상담소의 법적 전문성을 높임.
 - 방법 및 계획 : 각 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결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탐색하고, 상근변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장기적으로 상근변호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한다.
- 담당자: 도경, 각 팀 담당자
- 기대효과 :
 - 법률팀 합류로 법적인 영역에서 상담소가 보다 전문성을 얻게 됨.

- 상근변호사로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관련 법정책 영역에서의 의제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기른다.

2. 활동가 성폭력 관련 법률 교육

1)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내부 교육

- 배경/필요성 :
 - 법 관련 활동을 상근변호사에게 일임하게 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모든 활동가의 법 영역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팀의 경우 그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기도 함.
 - 작년 한 해 진행되었던 법률 교육의 평가가 좋았고, 수요를 확인하였음.
- 목표:
 - 활동가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 방법 및 계획
 - 총 2차(상반기, 하반기 각 1회)에 걸쳐 활동가들이 궁금해하는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에 관하여 교육을 진행.
 - 주제는 각 팀(사무국, 상담팀, 성문화운동팀, 열림터, 회원홍보팀)에서 필요한 쟁점을 하나씩 이야기해서, 그 중 선택하여 교육 진행,
- 기대효과
 - 상담소 활동가들의 성폭력 관련 법 제도에 관한 역량 강화

2) 반성폭력 운동 활동가 대상 법률 교육

- 배경/필요성 :
 - 상담소 내부에서 진행한 활동가 대상 법률 교육의 범주를 넓혀, 조직 외부더라도 성폭력 상담, 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에게도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내부 피드백이 있었음.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에서 성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형사공탁제도나 민사 손해배상제도 등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알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목표:
 - 활동가들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법에 관한 지식을 전달한다.
 - 조직 외부 활동가와의 접점을 늘려 연대를 강화한다.
- 방법 및 계획
 -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를 통하여 1차 수요조사를 한 후, 인원 구성에 따라 온라인 or 오프라인 교육을 선택적으로 진행한다.
 - 주제는 상담소 내부 활동가 교육을 했던 내용을 보완하여 7-8월 경 1회 진행한다.
- 기대효과
 - 반성폭력 활동가들의 성폭력 관련 법 제도에 관한 역량 강화와 타단체 활동가와 연대 강화

3. 디딤돌 프로젝트

- 배경/필요성 :
 - 아직까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은 폭행·협박의 최협의설을 고수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느리지만 조금씩 발전된 판결을 내고 있는 상황임.
 - 대법원에서 진전된 판결을 내기도 하지만, 하급심 판결들에서도 유의미한 판결들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판결들을 한 곳에 모아보고 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사건의 의견서 등에 녹여낸다면, 이를 참고로 하여 또 다른 디딤돌 판결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한 판결들을 발굴하고, 활용해서 외화시킬 필요가 있음.
- 목표:
- 성폭력 사건의 디딤돌 판결들을 한 곳에 모아, 또 다른 디딤돌로 쓰이게 한다.
- 방법 및 계획
- 3~4월 : 기획회의
- 5월: 목차, 판례 수집 방법 등 정하기
- 8월: 하계 법률실무수습생, 자원활동가와 함께 판례 수집
- 9~10월: 판례 정리 및 참고 문단 추출
- 11월: 하나의 문서로 편집
- 담당자: 도경, 상담팀
- 기대효과
- 판결의 변화를 살핌으로써 반성폭력 운동의 성과를 확인하고, 또 다른 디딤돌 판결을 생산한다.

4. 로스쿨 법률 실무수습 프로그램 운영

1) 동계 법률 실무수습

- 배경/필요성 :
- 여성주의자 법률가 풀을 확장해야 하는 상담소의 필요와 비영리공익단체 및 여성운동단체, 성폭력 등 문제해결의 법정책 과정 및 지원 체계 배움과 훈련을 필요로 하는 예비 법률가들의 욕구가 존재
- 공익단체와 예비법률가를 매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를 통해 안정적으로 예비법조인 양성과정에 개입할 수 있으며 법정책 영역에 대한 성평등 의식 확장 및 인식변화 가능성 존재
- 목표 :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예비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상담소와 함께하는 공익변호사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향후 진로 탐색 과정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 1/29(월) ~ 2/7(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5명
- 내용: 반성폭력 운동역사, 법정책활동, 성폭력관련법 이해, 상담소 지원사건 법적쟁점 특강, 소주제 판례 분석 과제 수행. 작업 발표, 피드백 및 토론, 외화 작업
- 담당자: 도경, 란
- 기대효과 :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한 예비 법조인 양성

2) 하계 법률 실무수습

- 배경/필요성 :
- 법률 실무수습의 배경/필요성은 동계 법률 실무수습의 배경/필요성과 동일함.
- 현재 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동계 법률 실무수습의 경우 상담소가 자체적으로 홍보 등을 통하여 실무수습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이 온 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때문에 몇 년간 서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2개 학교 학생들에 집중되어 실무수습이 진행되었음.
- 여름방학 기간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이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전국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맞추어 지원하여 실무수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을 갖고 실제로 반성폭력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비법률가들을 만날 수 있음.
- 목표 :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양한 지역의 예비법조인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이후 활동의 새로운 주체를 형성
- 상담소와 함께하는 공익변호사 활동을 경험하게 하여 향후 진로 탐색 과정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할 수 있게 함
 - 방법 및 계획 :
 - 5월 경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담당자와 연락
 - 6월 경 실무수습 프로그램 기획
 - 7-8월 경 실무수습 진행 (인원 3~5인 예상)
 - 담당자: 도경
 - 기대효과 :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한 예비 법조인 양성

1인 법률팀의 가능성과 역할, 한계를 탐구하고, 조직과 함께 고민한다.

1. NGO 기반 활동 공익변호사 네트워크망 구축

- 배경/필요성 :
 - 지속적으로 상담소에서 상근변호사로서, 그리고 1인팀으로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 NGO 단체에서 상근하거나, NGO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하고 있는 공익변호사와 네트워크망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활동 기반을 만듦.
- 방법 및 계획 :
 - 공감&나우 펠로우십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을 우선적으로 만나고, 추가로 현재 NGO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만난다.
 - 상반기: NGO 기반 활동 공익변호사 서칭 및 만남 요청
 - 하반기: 네트워크망 구축
- 기대효과 :
 - 자문위원이 없는 법률팀에 유사 자문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망을 구축한다.
 - 장기적으로 NGO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된다.

2. 상시적 법률 검토 진행

- 배경/필요성 :
 - 법률팀 외의 팀에서도 상담소 내 업무를 진행하면서 법률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상근변호사로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진행 중임.
- 목표 :
 - 반성폭력 운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 및 상담 제공
- 방법 및 계획 :
 - 활동가의 질문이 있을 때 상시적으로 진행함.
 - 엑셀 파일에 날짜, 문의팀, 질문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여 정리함.
- 기대효과 :
 - 상근변호사의 존재 의의 찾기

- 법적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임.

여성/인권 운동을 함께하는 법률전문가들과 연대하여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상담소의 연대를 확장한다.

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상담소에서 결합 중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법률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법안 성안 및 장기적으로 입법 이후 실제 법 영역에서의 적용에 관한 논의 등을 하고 있음.
 -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제정된 이후 실제 적용 국면에서 특히 성차별을 이유로 한 차별 구제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공부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기여하고, 차별금지법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기른다.
- 방법 및 계획
 - 월 1회 법률위 회의 및 세미나 진행
 - 상반기 중 ‘차별금지법 시민사회법안’ 완성
 - 하반기 중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안 세미나 등 진행
- 기대효과
 - 차별금지법 시민사회법안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함.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평등이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함.
 -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적용 국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차별 피해자들의 구제를 조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

- 배경/필요성 :
 - 법률팀의 경우 신설팀으로 자문위원이 따로 없고, 상담소에는 그간 상근변호사가 없었으므로 활동에 있어 조언을 구할 공간이 필요함.
 - 별도로 자문위원을 두기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건지원 및 법 제도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선배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인적 자원 풀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음.
- 목표:
 - 사건 지원을 위한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한다.
 - 상담소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 풀을 확장한다.
- 방법 및 계획
 - 매달 둘째주 화요일 저녁 7시(소수자인권위원회), 셋째주 목요일 저녁 7시(여성인권위원회) 회의에 참여
 - 대리인단 참여

사건	진행상황 및 계획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심부터 대리인단 참여 - 2심 승소 후 대법원에서 계류 중 (심리불속행 기간은 지남) - 추후 대법원 진행 상황에 따라 대리인단 업무 수행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성기성형수술, 생식능력제거수술 없이 성별정정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성별정정 사건 대리하고 있음. - 추후 상황에 따라 개별 사건 대리
---------------	--

- 기대효과
- 변호사로서 업무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함.
- 여성인권, 소수자인권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안에 적절히 대응.
- 상담소와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 풀을 확장할 수 있음.

3.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땃동 법정책 자문위원 활동

- 배경/필요성 :
 -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땃동에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단을 구성하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폭력 피해 상담이 매년 증가 하고 있고, 부모의 조력이 없는 환경(탈가정)과 아우팅 협박 등과 결합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자문과 피해 예방을 위한 논의가 필요함.
 - 상담소에도 성소수자 피해자가 상담 및 법률조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법정책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보다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음.
- 목표:
 - 청소년 성소수자의 성폭력 피해 해결과 예방에 기여한다.
- 방법 및 계획
 - 연 4회 이상 법정책 자문위원 회의에 참석하여, 땃동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
 - 구체적인 계획은 법률자문단 계획에 따름.
- 기대효과
 - 다른 자문위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성소수자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해결 과정에서 법률 조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다.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지원단 활동

- 배경/필요성 :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와 경찰 측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집회, 시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거나 위법한 현장체포를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과잉대응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공익변호사들도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지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장연 집회지원단이 꾸러지게 되었고, 함께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음. 연대의 의미와 집회, 시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
 -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사안과 피의자로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 변호사의 역할 등을 배울 기회이기도 함
- 목표
 -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위법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함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 방법 및 계획
 - 전장연에서 큰 규모의 집회 시 인권침해감시단 지원 요청할 경우 현장 지원
 - 활동가 연행 및 경찰조사 시 동행

- 민사 손해배상 사건 대리인단 : 2월 경 소 제기, 이후 재판 진행 절차에 따라 대리인단 활동
 - 기대효과
-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위법한 국가권력으로부터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활동을 함께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 피의자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역할에 대해 배움.

2024년 사무국 활동 계획

2024 전체 활동 방향
<p>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든든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p>
2024 팀별 실천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여성운동단위, 자문위원 이사회 등 보다 더 넓은 사람들의 직접참여와 공동의 의 사결정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실천한다 - 여성, 사회운동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권력의 작용을 모니터링하고 활력을 모아 제대로 대응하는 연대활동을 모색한다
팀 활동 목표
<p>목표1. 일방적 통폐합과 엄벌주의의 기조에 맞서는 반성폭력 연대 활동 목표2.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 탄탄하고 든든하게</p>

목표1. 일방적 통폐합과 엄벌주의의 기조에 맞서는 반성폭력 연대 활동

1. 성폭력 판단기준 '폭행과 협박' 아닌 '동의 여부' 로! :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활동

- 배경/필요성 :
 -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 발표,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상담소 상담 강간상담 집계에 따르면 직접적 폭행협박 없는 강간은 62.5%이며, 직접적 폭행 협박을 동반한 강간은 20.7%에 지나지 않음. 전현 데이트 관계에서는 폭행협박도, 폭행협박없는 성폭력도 비율이 높고, 직장이나 동료 관계에서는 중간 간 비율이 높고, 온라인 관계에서는 속임이 높은 등 맥락에 따라 성폭력 발생의 수단과 방법이 이루어짐
 - 정부는 2023년 1월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에서 '강간죄 개정 검토'를 제외함으로써, "무고죄가 증가할 수 있다"와 같은 일부 남초커뮤니티의 제로섬 게임 식의 오인과 평행을 정책 차원에서 수용하였으며, 21대 국회는 3개 관련 법안이 입법되었고 법사위 한차례 논의로 회기를 만료될 상황임, 반면 대법원은 2023년 9월 강제추행죄의 최협의설을 공식 폐기함으로써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드러냄
- 목표 :
 - '강간죄'의 최협의 폭행협박, 극심한 피해자 저항, 피해자다움이 현실의 성폭력 이해와 대응을 왜곡하고 있

- 음을 대중적으로 인지하고, 현실의 사건 진행에서 변화를 이끌어 냄
- 대중적으로 강간죄 변화의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새로운 실천을 체현할 수 있는 기회와 참여자를 확산하여, 정부 정책 제도 집행과정과 22대 국회로 드러나는 정치적 의사결정이 조직되는 과정 전후에서 영향을 형성함
- 다양한 성평등 지향의 시민그룹, 사회운동 단체들이 강간죄 개정 이슈에 다양하게 접목되고 참여하도록 조직
 - 방법 및 계획 (안)
 - (2-12월) 월별 정기회의
 - (1월) 대법원 강제추행죄 최협의설 폐기 전원합의체 판결 확산
 -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수사 재판과정 시민감시단 디딤돌 추천
 - : 3.8 세계여성의날 성평등 디딤돌 추천
 - : 1/19 법원 현대사회와성범죄연구회 판례분석 세미나 토론 참여
 - (2-3월) 22대 국회에 '강간죄 개정'을!
 - : 2023년 생산된 강간피해 현실, 대법원 판례 변경, 최근 하급심의 변화 및 문제적 판결, 시민설문조사, FAQ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화
 - : call21st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버전을 제작 또는 유사하게 특정 법개정과제 제안 방식을 릴리즈 : 온라인 메일 보내기 혹은 메일 보내기 - 단계별 응답 설정
 - (4-5월) CEDAW와 '강간죄 개정'을!
 - : 2023년 생산된 강간피해 현실, 대법원 판례 변경, 최근 하급심의 변화 및 문제적 판결, 시민설문조사, FAQ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화 영문 버전 제작
 - : 현지 배부 및 한국정부 대상 질의 요청 (NGO shadow reporting)
 - : 후속 권고 내용 홍보 작업
 - (6-9월) 내 삶에서 '강간죄 개정'을!
 - : 강간죄가 판단기준이 개정된다면? 그룹별 대중참여 릴레이 활동
 - :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조건, 맥락, 구조, 관계에 대한 인지적 캠페인, 대안 액션
 - : 동의/비동의/반대/대체할 수 있는 환경, 조건, 관계가 보장되는 사회에 대한 상상
 - (10-12월) 성폭력특별법 30년 토론회
 - : 성폭력특별법 제정 의미, 변화된 쟁점, 현재의 문제적 구조
 - : 여러 여성폭력의 연결 지점에서 성폭력 개념과 판단기준이 미치는 문제 발제로 진행
 - 기대효과
 - 강간죄 개정을 사회적 변화 흐름을 자리매김하고, 시민들의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게 하여 입법적 변화로 이어짐

2. 성폭력특별법 30년 평가 및 과제 토론회

- 배경/필요성 :
 -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특별법이 도입(1994년)된 지 30년이 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1994년 1월 5일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 그동안의 주요 변화에 대해서 짚고, 최근 2012년 형법개정 이후 주요 변화와 그 효과, 문제와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회적 토론 필요
- 목표 :
 - 여성운동이 NGO로서 주축이 되어 만들고 모니터링하고 개선, 저항해온 성폭력 특별법 흐름을 짚어내고
 - 향후 과제를 여성의 관점으로 짚어내고, 대중적으로 확산

- 방법 및 계획 (안)
- (자원활동가) 성폭력특별법 변천과정을 연도별, 주제별로 정리
- (자원활동가) 성폭력특별법과 관련 언론에 보도되거나 상담소 생산 자료에 등장한 피해자의 제언, 목소리 들 수합
- 경찰청,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유의미한 기초 통계 발표 및 발제 활용
- 성폭력상담소 통계집계, 현황과 과제 발제 준비, 사전 검토 및 논의
- 강간죄 개정 제안사항을 성폭력특별법 체계 개선 과제와 함께 논의
- 11월 14일(목) 토론회 개최(안)
- 기대효과
- 성폭력특별법이 역사성과 이해의 관점, 향후 주제를 대중들이 인식, 유관기관과의 협의 강화

3.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체계 통합대응 TF

- 배경/필요성 :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가정폭력상담원 인원감축, 통합상담소 증설, 디지털성폭력특화프로그램 통합 상담소로의 이관 등이 일방적으로 짜여지고, 소관 상임위 심의 없이 주요 골자가 통과됨. 이 과정은 일방적 구조조정에 해당하며 중복지원 예방, 부실 상담소 퇴출, 통합적 지원 필요 등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정부의 감세정책, 세수감소를 내세운 예산감축, 중복지원 예방을 위주로 한 복지예산 삭감 등의 기초 속에서 심화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큼
 - 여성폭력 피해자지원 상담소는 젠더기반 여성폭력의 관점을 가지고, 중층적 피해에 대해 통합적 지원을 수행해왔으나 통계, 역할, 사회적 인지도, 전달체계, 정부나 지자체와의 관계 측면에서 질적이고 내용적인 면이 자리잡지 못해온 측면이 있음. 여성폭력 상담소가 분야별로 장벽이 높고 좁은 영역을 수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성폭력의 교차적 상태를 풍부하게 논의하고, 교차적 지원 필요성을 톺아보고, 이를 제도적 변화와 어떻게 연동할 것인지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함
- 목표 :
 - 반성폭력 운동이 제도와 만난 전달체계, 지침, 예산, 정부 및 지자체와의 관계, 통계, 치유프로그램 의료비 사용 등에서의 현행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종합적 정리
 - 여성폭력 사건의 교차적 상황 및 교차적 지원 필요성과 현실적 조건을 탐색하고, 이를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정리
- 방법 및 계획 (안)
 - 상담소 내 TF를 형성(팀당 1명 참여)하고 매월 TF 모임을 통해 상담소 내부 보고서 마련
 - 7월 상근활동가 공유 및 논의 진행
 - 8월 이사, 자문위원, 상담소 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서 검토 및 내부 토론 진행
 - 8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성폭력 피해자지원단체 공동행동 등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면담 진행
 - 9월부터 예산 방향 점검 및 대응활동 공동 수행에 참여
- 기대효과
 - 본 상담소의 제도화 현재 과제를 정돈함으로써 단중기적 과제설정, 상담소 내부 의사결정 참여자들이 함께 비전을 논의하고 참여

4. (공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

- 배경/필요성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감각을 공유하고, 문제상황에 대한 정보력 증진, 공동해결 모색, 공동 성장을 도모해왔음
 - 2021-23년 정책대응팀 활동을 통해 전국성폭력상담소들이 함께 정책대응력을 높여옴
 -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예산축소, 성평등한 젠더폭력 예방정책 삭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
 - 목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운영, 상호교육과 질관리, 정부 정책 대응, 어젠다 견인에 대해서 참여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반성폭력, 반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NGO의 연대와 이니셔티브 강화
 - 방법 및 계획 :
 - (전체) 총회 및 워크숍 참석 * 전체 워크숍 법률교육 제안 및 진행 어랜지
 - (서울인천권역) 정기 권역회의(연4회)
 - (정책) 정책대응팀 활동 : 월 1회 회의, 11월 워크숍, 주요 의제 선정 활동, 외부요청 의견회신 작성
 - (시민감시단)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디딤돌 걸림돌 추천
- 2024년 진행 주요 과제 (제안사항)
- :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의 지역별 현황 점검, 성폭력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현황 점검,
 - : 지역별, 광역차원, 전국차원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정리
 - : 전성협 전체 내부 논의
 - : 8월 예산대응 국면 전 타 협의체와의 공동 논의 (7월 워크숍)
 - : 8월 여성가족부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면담
 - : 8월 - 12월 2025년 예산안 대응 / 2025년 업무지침에 대한 개선의견 개진
 - : 입법 발의안, 지침 등에 대한 성폭력상담소 의견조화에 대한 논의, 회

5. (공동) 여성폭력 현장단체 연대활동

- 배경/필요성
 - 2022년 여성가족부 폐지 대응, 2023년 예산안 대응을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 장애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연대를 통해 현안에 대응하는 공동행동을 진행해왔음
 - 한국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체계는 여성운동의 역사와 관점, NGO의 독립성과 의견개진 역량이라는 포지션에서 역할을 더 높게 깊이 수행해왔던 바, 이러한 맥락과 지대에서 현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연대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할 필요
 - 목표 : 전국 여성폭력 대응 피해자지원 기관의 연대를 질적으로 높이고, 우정에 기반한 현안 논의의 시너지를 모은다
- 방법 및 계획 :
 - (1-2월) 한국여성재단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 (선정시) 7월 워크숍 제안 및 각 협의회 논의
 - (3월) 워크숍 기획단 구성 및 준비 논의
 - (5-6월) 기획안에 따른 각 협의회 별 참여조직 및 내용 준비
 - (7월) 워크숍 진행 및 공동행동 세부 계획 도출
 - (8-12월) 2025년 예산안 대응
- 기대효과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주, 장애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상 연대를 통한 질적 제고
 - 정부 정책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넘은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향과 비전 제시

6.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

- 배경/필요성

- 정부의 성평등 및 여성정책 삭제, 정치권의 안티페미니즘 여론 활용의 국면 속에서 전국 다양한 여성운동 단체, 단위들이 조직력, 인력, 재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
-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응 ‘어퍼’ 기획단이 현재 정치권의 상황에 대한 대응의 담론, 시민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3년차에 대한 대응 책무속에서 전국적 여성운동 구심, 전략 조직을 하고자 함
- 목표 :
 - 진보적 전국여성운동이 정보교류, 공동대응 등을 통해 성평등 NGO운동의 건강한 연대를 활성화
- 방법 및 계획 :
 - (전체) 총회 참석 : 대의원 구성
 - (논의기구) 전국사무국장연석회의 / 대표자회의 (연 2회)
 - (특별) 총선거획단 ‘어퍼’ 등

7. 성평등 정책 실행 네트워크 참여

- 배경/필요성 :
 - 상담소 내 다양한 활동가들이 정부, 지자체, 학교 군대 공공기관 등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음. 위원회 참여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공동의 피드백이 필요
 - 성평등 정책 및 모니터링 위원회 역할을 축소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지엽적인 논의의 확대, 새로운 쟁점의 등장, 형식논리에 의해 축소되는 지향과 본질 등의 경향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참여시 적절하고 적극적인 역할, 효과적인 방식이 필요
- 목표 :
 - 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권적, 성평등적인 정책 마련 및 실행을 견인
 - 정부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위기에 대한 포착 및 이를 여성운동 내에서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대응
- 방법 및 계획 :

정책자문	공군 양성평등자문위원회 (2022.5~2024.4)	- 공군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양성평등 정책 및 진행현황 점검 - 부대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에서의 정책의제화 진행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탁 4기 운영위원회 활동 - 2024년 6월 말로 종료되는 센터의 주요 사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역할
	경찰청 성평등위원회	- 경찰청 내부 성평등종합계획, 내부 성폭력성희롱 대응계획 이행 점검, 정기회의에서의 현안 질의 등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정책자문단(2023~2024) - 성폭력대책계 등과 구체적인 방안 논의 - 교통안전,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통합된 위원회에서 여성폭력 현안 모니터링 및 질의
	육군 리더십처	- 육군 리더십처 성인지 분야 자문위원(1년, 매해 재위촉) - 성인지 교관 대상 교육 또는 사안 관련 자문 요청
성폭력, 성희롱 사안자문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심의위원회	- 서울시 및 산하사업소 발생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 심의의결
	대검찰청 양성평등심의위원회 (2023.3~2025.3)	- 대검찰청 내부 양성평등 사안에 대한 심의기구, 심의위원 위촉 - 2019. 2.부터 2년 임기 3번째 재위촉 (3회에 한해 재위촉)

		가능)
	대검찰청 수사정책심의위원회 (2024.1~2025.12)	- 총 150명 이상 3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안건 발생시 15명 무각위 추천하여 현안위원회 또는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건 심의 -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름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2023.2~2025.2)	- 서울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시 심의. - 2019. 2부터 2년 임기 3회차 재위촉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지속 - 센터 활동 종료에 따른 위원회 활동 정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2023.2~2025.2)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내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시 심의. - 사안에 따라 소집, 심의 활동

8.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

- 배경/필요성 :
 -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 사안을 다루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자문, 발표요청이 이뤄지고 있음.
 - 소그룹의 교육 진행과 사안 자문 활동을 통해 상담소에서 축적된 자료를 외화하는 계기를 만들고, 반성폭력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조직하는 기회가 됨.
- 목표:
 - 활동가들이 자기 분야를 살려 교육, 발표, 자문 활동에서 역할을 수행함
 - 성폭력에 대한 지식, 이해 또는 이슈에 대한 논의 흐름 공유, 사안에 대한 컨설팅과 조력 등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현장 운동단체의 생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함
- 방법 및 계획 :
 - 강의, 발표, 자문, 심의위원회 등 요청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 후 모든 활동가가 요청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 수락, 진행
 - 방송,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에 대한 의견 제언, 기획 참여, 출연 및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유 등 진행
 - 집계 및 평가
 - 수행하는 활동가들의 어려움을 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이후 보완계획으로 환류
- 담당자: 오매, 란 (강의 배분)
- 기대효과
 - : 반성폭력 교육, 자문, 발표 활동을 통해 상담소 활동을 외화하고 공유함.
 - : 활동가 개개인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용을 생산하고 환류하며 역량강화하는 계기가 됨

9. 국제 협력 및 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국제규약, 규범에 따른 각국 정부 이행상황 정기점검 등이 개최
- 목표 : 한국에서의 상황을 리포트하여 환류, 피드백을 이끌어내고 한국의 성평등, 반성폭력 정책의 가속화를 추동함
- 방법 및 계획 :

- CEDAW(여성차별철폐위원회)
 - : 2022년 12월 1차 반성폭력 보고의제 작성(란, 산, 파랑) 및 번역 제출
 - : 2023년 1월 중순 사전NGO보고서 제출
 - : 2023년 2월 27일-3월 3일 사전세션
 - : 2024년 5월 13일~5월 31일 한국정부 대상 제9차 본 심의, 88 Session 진행 예정
 - : 참여예정 : 오매, 신아, 유랑, 수수
- 그 외 방문,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 진행
 - 담당자: 오매, 란
 - 기대효과 : 국제협약을 활용한 한국정부 권고를 통해 성평등, 반성폭력 정책과 입법 상황 제고

10. (공동) 성폭력 사건 지원 활동

- 배경/필요성
 - 사회적 자원의 연결과 연대가 필요한 사건에서 힘을 모으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과 통념을 변화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의 의미를 형성할 필요
 - 전방위적인 백래시 상황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외화하고, 반성폭력 운동에 더 많은 참여자와 지지자를 형성할 필요
- 목표
 - 이슈대응이 필요한 성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안별 쟁점을 의제화
 - 성폭력 사건 지원을 토대로 정책 대안 및 사회적 의미 확산
- 방법 및 계획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피해자 지원 : 민사소송 등 대응 - 2차 피해 대응 지원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2차 피해 대응 지원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 민사 2심 진행 지원 (상담팀 계획 참조)
신림동 공원 성폭력 사건	- 형사사법절차 지원 - 피해자 유족 공론화 지원
서울시향 사건	- 명예훼손 역고소 2심 지원

- 기대효과
 - 개별 사건을 토대로 성평등, 반성폭력 정책과 입법 제고
 - 사건 지원 활동을 통해 사법절차상 피해자 권리 및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과 통념 변화를 위한 사안별 쟁점 사회적 확산

11. (공동) 대중적 여성주의 운동 모색 활동

- 배경/필요성
 - 사회 전 영역에서의 퇴보와 위기가 거론되며 더 이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피로와 무력감이 팽배해지고 있음. 신자유주의 위기의 심화, 보수적 정치의 퇴행, 기후위기와 불평등으로 존엄, 평등, 연대가 아니라 분노, 폭력, 각자도생이 위기의 상황을 가속화하고 있음.
 - 한편 전반적인 위기에서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화를 요구하고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한

국사회의 고착화된 체제, 이를 강고하게 유지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폭넓은 변화를 촉구하는 다른 상상으로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음.

- 서로 다른 영역, 의제, 경험을 가진 시민사회영역에서의 공동 활동의 모색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중적 확산을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탐색을 하고 있음.
- 사회운동영역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담론과 대안적 의제를 상담소 내부에 확산하고 동시에 반성폭력 운동의 고민을 환류하고, 상담소의 언어와 가치지향을 대중에게 확장하는 장이 형성되고 있음.

• 목표

- 상담소의 언어와 가치지향을 대중과 함께 공유하며, 대중적 여성주의 운동을 모색
- 장애, 이주, 빈곤, 기후정의, 주거, 노동, 학교현장 등 시민사회영역의 다양한 의제와 교차하며 반성폭력운동의 외연을 확장

• 방법 및 계획

- 체제전환운동 참여

1) 집행과정 참여

집행위원회 - 선전팀 : 회원홍보팀 달별

반차별 가로지르길 세션 : 회원홍보팀 달별, 여성주의상담팀 호랑

2) 체제전환운동 포럼

일시: 2024. 2. 1~ 2024. 2. 3 / 스페이스 살림 다목적홀

내용: 오프닝 세션, 7개의 가로지르길 세션, 종합 세션, 폐막식

3)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일시: 2024. 3. 23(토)/ 서울시내

내용: 400여명 규모의 토론

- 기대효과 : 사회운동영역 간 공동의 전망을 모색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감 형성, 대중적 공론장에 참여하여 반성폭력운동의 고민 확장

목표2. 재정, 리더십, 조직문화 탄탄하고 든든하게

1. 회원이 참여하고 결정하고 평가하는 총회

• 목표 :

- 더 많은 회원들의 참여, 결정, 그리고 평가되는 총회개최를 통해 상담소에 대한 멤버십을 강화하고 더 많은 반성폭력운동 장으로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 중임에 따른 법인 행정 수행

• 방법 및 계획 :

- 각 팀별 1인 포함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회원참여 행사, 본회의, 임원 이취임 등 전체 사업 기획실행
- 총회 안내, 홍보 : 2023월 12월 개최 공고, 1월 정회원 신규 신청, 명부 확정 및 참석여부 확인
- 정회원 활성화 및 정비 : 정회원 가입 독려 조직, 정회원 활동 어려운 회원 확인 및 후원회원 전환
- 일정 및 내용

: 2024. 1. 30(화) 저녁 7시 30분, 지하1층 이안젤라홀

: 주요 사업계획, 임원 선출, 반성폭력 활동 방향 및 당면과제 등 공유 및 평가, 논의

- 공증 : 변호사 입회 공증으로 편의도모

- 담당자: 란
- 기대효과 :
- 정회원 현행화로 실질적인 총회로서의 기능 기대
- 참여하는 정회원 확대로 직접적이고 주체적인 회원 참여 독려
- 각 팀 1인 총회준비위원회 구성 참여로 조직내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내부 이해도 증진

2. 이사회

- 목표 :
- 상담소 의사결정체계인 이사의 참여를 높이고 논의 활성화
- 다양한 영역의 활동기반을 가진 새로운 신임 이사를 선출하여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역할 제고
- 방법 및 계획 :
- 신임 이사장 선출 / 별도 오리엔테이션 진행
- 중임 인사 등기 변경 및 인사, 평가
- 연간 5회(정기, 임시) 이사회 : 조찬, 온라인 등 진행방식 다변화로 참여 활성화 촉진
- 논의 및 협력 활성화 : 상시적이고 친근한 소식 나눔, 전문가 네트워크, 엠티(논의하여 시기 결정)
- 담당자: 오매, 란
- 기대효과:
- 반성폭력운동단체로서의 자율성, 활동성을 높이고 사업전반에 대한 다양한 방향 제시 및 논의 활성화

3. 정책, 운영, 국제협력 자문위원회

- 목표 : 상담소 운동 방향, 사업내용에 대한 긴밀한 자문과 참여 활성화가 가능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법 및 계획 :
- 자문위원 활동 여부에 따른 체계 정비
- 정책 및 국제협력 자문위원 새로운 분야별 인적 구성 마련
- 새로운 인적 구성에 따른 자문회의 진행 및 신규 위촉 절차 진행
- 년 1회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및 사안에 따른 상시적 자문 체계 구축

구분	내용	세부내용
자문위원회 정비	활동여부에 따른 체계 정비	- 정책 및 국제협력 파트 자문위원 활동여부 체계 정비 - 새로운 인적 구성을 위한 제안 만남 및 신규 위촉 절차 진행
	운영 자문위원회	- 년 1회 조직운영 파트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상시자문		- 상담소 운영 상황에 따른 상시적 자문 진행

- 담당자: 오매, 란
- 기대효과:
- 자문위원회 체계 정비 및 새로운 영역의 노하우를 가진 자문위원단 구성에 따른 실질적인 자문 가능
- 상담소 활동 방향 및 계획에 대한 자문 의견 수렴, 멤버십 활성화 기대

4. 팀 매니저 및 팀별 회의

- 배경/필요성 :

- 전년도 팀 자체 논의력 향상 및 팀 체계 강화와 정보와 권한 분배를 위한 팀매니저 도입 실행 후, 1년 운영을 통해 2차년도 실행후 전체적인 평가 및 조직 내부 구조 체계 변화 논의 지속 예정
- 이에 따라 조직운영 파트 복무를 위한 내부 교육 및 훈련, 역할 분배의 기획, 내부 조직 체계 상 권한과 역할의 위임, 팀내 상호 점검 강화를 위한 2차년도 팀 매니저 실행 필요

•목표 :

- 팀 매니저 체계 2년차 실행으로 팀 자체 논의력을 높이고 팀내 상호점검 및 정보 및 권한을 분배
- 팀 매니저 순환 보직으로 팀 내 의견 취합 및 조정, 논의제안 촉진자 역할 수행을 통한 활동가 역량 강화
- 다양한 교육 훈련 기회를 통한 향후 안정적인 조직운영 파트 복무 환경 마련

•방법 및 계획 :

1) 팀 매니저 2차년도 실행

- 각 팀별 팀매니저 선임

: 전년도 팀매니저 평가 바탕으로 한 순환 보직으로 1년 단위 운영

: 팀내 의견 취합, 논의제안 및 촉진자 역할

: 팀간 조정, 협조 사항에 대한 점검, 조율

: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과 논의, 정보 공유와 환류 역할

: 외부 요청에 대한 팀내 업무 배분 및 조정 역할

2) 팀 매니저 교육 및 성장 지원

- 팀 매니저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월 1회)

: 사무국 사업으로 팀 매니저 리더십 형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간 일정 팀매니저 1차회의에서 확정)

: 타 단체 방문, 선배 활동가 만남, 주요 조직운영 체계 및 방식 교육 포함

: 필요시 팀 주요 사업 안건 논의, 진행 사항 점검 및 협업 조정

: 조직 운영 주요 사안 공유 및 논의

3) 팀별 회의 참여

- 2024년 팀별 활동 방향 및 핵심목표에 따른 사업 수립 및 실행 지원

- 외부 제안 신규사업 실행 시 담당팀 요청에 따른 사업 실행에 필요한 지원

- 필요 시 팀별 회의 참석 및 팀 사업 진행에 대한 지원, 1인 팀 또는 2인팀의 경우 사무국 팀별 회의 참여를 통한 논의구조 활성화

- 사업 진행에 필요한 기금 마련 사업 수립 및 실행 논의

4) 기타

- 소장 연 1회 활동가 면담을 통한 개인별 비전 청취 및 업무 고충이나 애로사항 수렴 등

- 평가 계획회의 : 1월 계획회의, 7월, 8월 평가회의 및 하반기 계획회의, 12월 평가회의, 계획회의 진행

•담당자: 오매, 란

•기대효과 :

- 전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조정 및 상시적인 논의/공유/소통 체계 운영

- 팀매니저 2차년도 실행으로 팀별 조정 및 논의 제안 촉진 역할 수행으로 전체 활동가 역량강화

- 팀 내 상호 조직 및 논의 제안을 통한 의사결정체계 다변화 및 집단적 책임성 강화

5. 활동하기 좋은 조직 만들기

•목표 : 활동하기 좋은 조직에 필요한 조건들을 생산해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방법 및 계획 :

분류	세부 내용
조직문화 TF 운영	- 동료상담원 2인+1~3인으로 구성 - 인권침해 규정 및 동료상담원 매뉴얼 개정 작업, 조직문화 워크숍 기획 및 실행 - 상담소 컬처덱 (Culture Deck) 초안 마련 등 상담소 내 조직문화 관련 역할 수행
개소기념일 및 상근활동가 워크숍	- 6월 2박3일 상근활동가 전체 워크숍 진행
공동업무 배분 및 활동환경 개선	- 활동가 별 관심사 반영 공동업무 배분 및 운영 - 매월 영역별 대청소 진행, 월별 나눔 업무 이월 확인 - 사무실 자리 배치 및 필요 사무기기 구입 및 설치
휴가 운용	- 1, 2차 연차 사용 촉진 - 보상휴가 검토 및 실무지원 - 안식년 및 재충전휴가 사용 독려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및 기존 복리후생비 연계 부담액 지원

• 담당자: 오매, 란, 해주

• 기대효과: 동료간 신뢰 향상 등으로 안정적인 조직 환경 구축

6. 활동가 교육

• 목표 : 법정 의무교육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이수, 내부 활동가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가 교육 진행

• 방법 및 계획

1) '반성폭력운동과 인권' 교육

- 법정 의무교육과 연동된 인권주제에 대한 외부 강사 초청 강의 진행
- 총 3회 (수요일, 오후 2시~5시) 전체 활동가 참여 내부 교육 진행
- 주요 의제 강사 섭외 강의 및 토론, 관련 저자 초청 이야기 나눔 등의 방식
- 진행 (안)

회차	시기	내용	참고 교재
1	4월	반성폭력운동과 장애인권	주제별 참고교재 선정 및 저자 또는 강사 섭외
2	6월	반성폭력운동과 청년여성	주제별 참고교재 선정 및 저자 또는 강사 섭외
3	10월	반성폭력운동과 아동인권	주제별 참고교재 선정 및 저자 또는 강사 섭외

2) 법정 의무 교육

분류	교육명	의무 시수 및 시간	비고
법정 의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연1~2회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반성폭력과 인권교육
	퇴직연금교육	연1회	
관련종사자 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반성폭력과 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장애학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연1회, 1시간 이상	반성폭력과 인권교육

3) 성폭력시설 의무 교육

분류	교육명	의무 시수 및 시간
안전교육	안전교육 (중사자 안전권리보장)	연1회, 1시간 이상
방화교육	소방교육, 대피훈련 등 - 마포소방서 화재교육 - 보라매안전체험관 체험교육	연2회, 1시간 이상

- 담당자 : 오매, 란
- 기대효과
- 다양한 의제 영역과의 반성폭력운동의 연결점에 대한 내부 토론 기회 마련
- 내부 토론 활성화 및 활동가 역량 강화 기여

7. 튼튼하게 상담소 관리

- 목표 :
- 건물의 내용 연수가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노후화 현상을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
- 사회복지시설 시설관리 매뉴얼에 근거한 자체 건물 관리 매뉴얼 마련을 통해 예방 차원의 건물 관리계획 체계화 구축
- 방법 및 계획 :
- 건물 정기보수 업체 선정에 따른 상시적인 점검 체계 구축
- ksvrc 안전 매뉴얼 마련 : 층별, 안전 시설 점검 및 대비 (소화기, 대피로, 화재경보 작동 등 전체 확인), 매뉴얼에 대한 전체 활동가 대상 OT 진행, 점검표 양식 정비(보안점검표 포함 전체 건물 안전상황 점검표 마련)
- 공간 및 시설 운영 : 관리 및 지속가능한 건물 돌봄,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
- 운영지침에 근거한 안전 점검 실시 및 지도점검 준비 :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및 수시안전점검 실시, 감염병 관리 대책 및 급식시설 위생상태, 폭설이나 동파 등의 난방관리대책 체계화
- 담당자 : 오매, 란, 해주
- 기대효과: 실시간 재난상황 대비능력 향상

8. 회계 및 공익법인 공시

- 목표 :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운용과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 내역 공개로 회계 건전성을 확보
- 계획
- 일상 회계 업무 총괄 및 세무사무소 기장 대행을 위한 업무 협조, 회계감사 지적 사항 반영
- 기부금 집행 건전성 관리 : 재정내규 및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
- 공익법인공시(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른 기부금 내역 공개 포함)
- 기부금 내역 공개 : 상담소 홈페이지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 19호 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지자체 1회(3월 중;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국세청 2회(3월, 4월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1호 서식)
- 담당자 : 해주
- 기대효과: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

9. 법인 및 상담소 사무 행정 총괄

- 목표: 상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고 관리
- 방법 및 계획 :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기록 문서 관리 : 수발신문서철 : 각종 계약서철 관리(연도별 문서정리, 문서고 재정비) : 인사기록철, 인턴/자원활동기록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수료증 등 증명서 양식과 연동하여 관리 등 : 상담소 발간물 관리 등 - 2024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확인 및 적용 - 지자체 각종 서류 제출, 지도·점검 대응 등 행정업무 사항 총괄 - 법정 의무교육 진행 및 관리 - 행정 업무 전달연수 진행(공문 및 지출결의서 작성법 등)
각종 요청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메일 관리 - 데이터서버, 구글계정 및 드라이브 관리 - 강의, 자료 요청 응대
법인 행정 실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변경에 따른 등기 - 법인 운영에 따른 주무관청 보고

- 담당자: 해주, 란
- 기대효과: 법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

2024 열림터 활동 계획

2024 전체 활동 방향
<p>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시민과 함께하는 반성폭력 운동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의 교차성을 살피는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연대로 일상을 바꾸는 여성주의 운동 취약함과 관계를 돌보는 든든하고 탄탄한 운동 조직 만들기 권력에 맞선 힘 센 여성주의, 성차별 심화하는 정치에 대항하기</p>
2024 팀별 실천 방향
<p>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생활인과 함께 일상을 바꾸는 쉼터 운동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설계하는 퇴소자 지원 프로젝트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대를 통한 윤리적 원칙을 지켜내기 상호 돌봄과 소통을 통해 든든하고 탄탄한 쉼터 조직 만들기</p>
팀 활동 목표
<p>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30주년을 맞이하여 전·현 활동가, 생활인, 또우리가 함께 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 필요한 것을 논의하고, 쉼터를 나아간 대안을 모색, 설계, 실천한다.</p>

저 홀로 되는 것은 없다,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생활인과 함께 일상을 바꾸는 쉼터 운동

1-1. 일상생활지원

- 배경/필요성 : 열림터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로서, 주거를 기반으로 하여 생존자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임. 생존자가 피해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열림터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 열림터 입소 후 생활인의 일상생활을 면밀히 살펴 촘촘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열림터에 입소한 생존자의 곁에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자립을 독려한다.
- 방법 및 계획 :
 - 입소의뢰 및 입소 지원: 열림터에 입소를 희망하는 생존자가 있는 경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을 비롯한 다른 지원기관을 통해 입소 연계하도록 안내. 의뢰시 연계기관에 열림터 생활규칙 및 운영

방향을 충분히 설명하여 적절한 입소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입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소 절차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열림터 운영과 생활인들의 일상 회복을 도움.

- 생활지원: 생활에 필수적인 생활비(용돈, 교통비, 미용비, 의류구입비 등)를 지급함. 공동으로 생활하는 기관인만큼 명절, 공휴일, 생일에 함께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함. 매주 ‘열림 이회’를 통해 생활인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구성함. 학교, 주민센터, 은행, 자활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연계하고 동행하며 생활인이 열림터 외의 자원과 접점을 늘리고 원만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생활상담지원: 상시적인 생활면담을 통해 개별 생활인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로부터의 회복과 일상을 안정적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에 노력함.
 - 심리치료지원: 종합심리검사, 정신과 진료, 심리상담의 경우 성폭력피해자치료비 사업에 따름.
 - 법률지원: 진술, 변호사 미팅, 재판 동행, 탄원서 및 의견서 작성 등 사례별 상황에 맞게 지원함.
 - 학교학습지원: 학교 전학 및 생활적응, 기초 학습을 지원함.
 - 직업훈련 및 자립지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진로 설계에 노력함. 자립계획을 구상하여 퇴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정서문화지원: 문화생활과 취미유지에 필요한 문화생활비를 지급하고, 기초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력단련비 지급함. 생활상담을 통해 어떤 문화생활과 체력단련 과정이 필요한지 생활인의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을 선행함. 생활인이 직접 계획하는 나들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유연하게 정서문화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추진함.
 - 퇴소 지원: 퇴소 전 긴밀한 생활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함. 퇴소 후 지원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자립지원기관과 연계함.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 기대효과 :
 - 생활인에게는 낯선 환경인 열림터 생활에 적응을 도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함.

1-2. 나들이 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지속적인 폭력피해로 인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생활인들이 많음. 공동생활 시설을 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과 즐거운 문화생활을 하며 신뢰를 쌓는 경험이 필요함.
- 목표 : 생활인들이 스스로 다양한 정서문화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 방법 및 계획 :
- 명절연휴(구정, 추석)에 다양한 정서문화 프로그램 진행
- 8월 중 여름맞이 나들이 진행
- 12월 중 연말 뮤지컬 관람 프로그램 진행
- 생활인 주도의 나들이 프로그램 격월(3월, 5월, 7월, 9월(추석 명절 프로그램으로 대체), 11월) 진행
 - ① 생활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나들이 기획(원데이클래스 수강 등) 시 인당 10만원 내에서 예산 지원
 - ② 생활인들이 원할 경우 열림터 활동가 동행
 - ③ 2월 중 본 프로그램 안내(취지, 예산, 기획서 사전제출 마감, 예산사용방법, 평가 등)와 더불어 함께 기획서 써보기 워크숍 진행
 - ④ 3월, 5월, 7월, 11월 첫째 주에 본 프로그램 기획서 수령.
 - ⑤ 적격증빙 제출을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영수증 취합 및 평가문서 제출 안내.
- 담당자 : 열림터 활동가, 생활인 주도 나들이 프로그램 - 상아

• 기대효과 :

- 입소 전 다양한 이유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화생활을 즐기며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파악할 수 있음.
- 생활인 스스로 나들이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1-3.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 배경/필요성 : 성폭력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 등으로 자해자살사고를 경험하는 생활인들이 늘어나고 있음. 안정적인 생활과 심리적 치유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 있음.
- 목표 : 치료비 지원을 통해 생활인의 의리적·심리적 안정을 도모.
- 방법 및 계획 :
 - 정신과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생활인의 경우 입소 3개월 이내에 종합심리검사, 진료, 약물처방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자로서 동행하여 진료의 질을 높임.
 - 성폭력피해자지원에 특화된 심리상담기관을 연계하여 생활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함.
- 담당자 : 낙타
- 기대효과 : 성폭력 피해로 야기된 심리적 외상을 치료하고 일상회복을 도모함.

1-4. 치료회복프로그램

- 배경/필요성 : ① (개별상담·성교육) 페미니즘 관점으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탐색하고 위험과 감정을 인식하며 관계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 ② (집단상담·자기방어훈련) 입소 전 장기적으로 폭력에 노출된 생활인들의 위기상황대처 능력 계발과 신체활동을 통한 건강 회복이 필요함. ③ (심신회복캠프) 스스로 주도하는 여행을 해본 적 없는 생활인이 많음.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고 공동의 즐거운 경험을 하면서 열림터 공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④ (기타·원예치료) 계절에 맞는 식물을 통해 폭력피해로부터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성교육, 자기방어훈련, 심신회복캠프, 원예치료를 통해 생활인의 치유회복 및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 방법 및 계획 :
 - 자기방어훈련 : 상반기 강의 10회기 진행.
 - 성교육(호연/인권교육센터 등) : 개별 교육 각 6회기 진행. 필요시 회기 연장.
 - 심신회복캠프 : 하반기 진행 예정하되, 방식·지역·시기는 유동적으로 결정.
 - 원예치료 : 하반기 강의 3~5회기 진행. 방식, 공간, 시기는 유동적으로 결정.
- 담당자 : 감이
- 기대효과 :
 - 자기방어훈련과 성교육을 통해 피해로부터 치유회복을 도모함.
 - 여행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나면서 유대감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함.
 - 원예치료 감각기능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도움.

1-5. 생활인 대상 성인권교육

- 배경/필요성 :
 - 생활인들이 성인권적 권리로 공,사적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를 받지 않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타

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적주체로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 일상에서의 차별과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함.
 - 성인권적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할 수 있음.
 -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음.
 -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와 상담소 및 열림터의 활동을 이해함.
- 방법 및 계획 :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하며 사전회의 및 사후 강사단과의 평가를 진행하여 교육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 상반기 일정

회기	일시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
1회기	4/8	상담소의 역사, 활동	최란
2회기	4/15	이 공간의 약속	김동은
3회기	4/22	여성주의	박수민
4회기	4/29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김미현
5회기	5/4	정리 및 평가	은희
6회기		강사단 평가	은희

- 하반기 일정

회기	일시	주제	강사
사전회의		진행방법 및 내용 논의	전체 강사
1회기	9/23	상담소의 역사, 활동	김혜정
2회기	9/30	이 공간의 약속	유호정
3회기	10/7	여성주의	한소망
4회기	10/14	최근 이슈들(상담소 활동)	박아름
5회기	10/19	정리 및 평가	은희
6회기		강사단 평가	은희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성인권적 권리로 공적, 사적인 영역에서 차별 및 침해받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
 -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여성주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음.
 - 공동생활 공간인 열림터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음.
 - 상담소 활동 및 열림터 운영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음.

1-6. 생활교육

- 배경/필요성 :
 - 공동생활공간인 열림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개인위생과 청결한 환경의 중요함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생활인들 대부분 돌봄이 부족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불규칙적인 식사, 과식, 편식 등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음. 영양 불균형 및 비위생적인 식생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 자극이 필요함.
 -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시설 내 화재 및 안전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능

력을 향상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함.

- 각종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함.

• 목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형성에 관한 생활인의 의지를 함양하고 안전에 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생활공간을 만들며 개인안전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주거 교육: 연 1회 시행. 강사 초빙하여 <집 잘 구하는 법 A to Z> 교육 1회 시행.

- 환경·식생활교육: 격월 1회 시행, 생활인과 함께 주제를 탐색한 후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하여 생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각종 전염병 대응 방역수칙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 안전교육: 연간 2회 보라매안전체험관 대면/비대면 재난안전체험(지진, 태풍, 화재, 교통안전) 시행. (완강기 사용법 포함)

- 화재예방교육: 격월 1회 시행. PPT 자료 및 동영상, 퀴즈 등을 이용, 전기안전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함.

- 생명존중교육: 연 1회 시행.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취하는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받는 구체적 방법을 공유함.

• 담당자: 상아

• 기대효과:

- 공동생활에 필요한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음.

-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 각종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음.

- 개인위생 및 식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실천하며 개선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능력을 키움.

-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음.

1-7. 생활인이 진행하는 열린터 운영평가 · 생활인과 만드는 열린터 생활규칙

• 배경/필요성:

- 매주 생활인 주도로 가족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호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열린터 운영 전반에도 생활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 필요가 있음.

• 목표: 상하반기 열린터 생활인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생활규칙개정에 생활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방법 및 계획:

- 생활인 운영평가: 7월, 1월 1회씩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

- 생활인과 만드는 생활규칙: 7월, 1월 1회씩 진행. ① 생활규칙 변경 논의 및 워크시트 배부, ② 열린터 업무회의 논의, ③ 가족회의에 변경 생활규칙 안내.

• 담당자: 신아

• 기대효과:

- 생활인들의 주체적인 의사결정 과정과 권한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열린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함.

- 열린터 운영에 생활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심터 운영에 새로운 관점을 반영함.

- 비자발적으로 모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줄이고 지속적인 열린터 생활이 가능하게 함.

1-8. 시설기능보강

• 배경/필요성: 노후된 시설 기자재에 대한 교체가 필요함.

- 목표 : 시설의 노후된 가구 및 용품을 교체하여 시설의 환경을 개선함.
- 방법 및 계획 : 2023년에 2024년 기능보강비 예산액을 신청하였고 지원금이 배정되면 시행예정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노후된 기자재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인 심터 환경을 조성함.

엄벌주의와 법시장화를 넘어,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설계하는 퇴소자 지원 프로젝트

2-1. 퇴소자지원

- 배경/필요성 :
 - 성폭력 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 복귀나 퇴소 이후 안정적 자립이 어려워 열림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생함.
 - 퇴소 이후 지속적인 개인 면담, 법적, 자립, 물품 등 여러 방면의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퇴소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다.
- 방법 및 계획 :
 - 퇴소지원금 : 여성가족부에서 지급하는 자립지원금은 미성년 시기 입소하여 1년 이상 생활, 성년 시기에 퇴소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1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하는 퇴소자에게도 열림터 자부담으로 일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함. 1인 100만 원씩 지급함.
 - 대학 학자금 지원 : 대학 합격 시 등록금 일부(1인 100만 원)를 지원함.
 - 자립 물품 지원 : 퇴소 자립 시 새 공간에서 필요한 물품, 최대 20만 원 지원함. 퇴소 시 택배 발송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
 - 개인 면담 : 필요시 퇴소 이후 개별 면담 진행함.
 - 법적 지원 : 퇴소 이후에도 퇴소자 상황에 맞는 법적 지원을 일정 기간 지원함.
 - 물품 지원 : 연간 1회 이상의 물품을 지원함.
 - 이외 연계할 수 있는 지원금 발굴하여 지원함.
- 담당자 : 낙타
- 기대효과 : 퇴소자가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면서 열림터와의 관계를 유지함.

2-2. 또우리모임

- 배경/필요성 :
 - 열림터 생활인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로 퇴소/자립 시 원가정과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많음.
 - 퇴소생활인(또우리)들은 퇴소 후에도 열림터와 친밀함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성폭력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생활인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상, 고충, 피해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지지와 연대를 꾀할 장이 필요함.
- 목표 : 또우리, 전·현 활동가들이 함께 또우리모임을 진행한다.
- 방법 및 계획 :
 - 또우리모임 안내 (2, 4, 6, 10월 말)

- 또우리모임 실행 (3, 5, 7, 11월 평가·계획 모임)
- 비서울 지역에서 방문하는 또우리들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참여를 독려함.
- 모임 중 2회는 자립에 도움이 되는 강의·체험형식의 모임으로 전문가사 섭외하여 진행.
- 9월 또우리모임은 추석명절 물품지원으로 대체하였으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홈커밍데이를 진행.
 - 담당자 : 신아
 - 기대효과 :
 - 정기적인 또우리모임을 통해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정서적 지지기반이 될 수 있음.
 - 전·현 활동가들이 개인적 부담을 줄이면서 또우리들과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음.
 - 퇴소 이후에도 열림터와 연결되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인들이 퇴소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교육을 진행하여 자립역량을 키움.
 - 9월에는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홈커밍데이를 진행하여 열림터를 기억하는 또우리와 전활동가가 열림터에 방문하고 연결감을 강화함.

2-3. 퇴소자지원기금 “또우리폴짝기금” 운영

- 배경/필요성 :
 - 열림터 생활인의 대다수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이거나 원가정에 의한 2차피해를 경험하기에 퇴소/자립 시 원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경제적 지원의 부재는 새로운 삶의 준비를 할 때, 휴식이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을 당면했을 때 개인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함.
 - 또우리들이 경험하는 자립 과정의 불안정성을 ‘폴짝’ 뛰어넘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 목표 :
 - 퇴소자지원기금을 통해 또우리들의 경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함.
 - 퇴소자지원기금의 마련 및 시행을 통해 심터 퇴소생활인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초석을 마련함.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후원금으로 기금 예산 설정.
 - 열림터 퇴소인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최대 50만원, 연간 10명을 대상으로 기금 집행.
 - 1회 지원선정 시 이듬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여 지원/선정 가능.
 - 기금 신청서는 지원자의 빈곤함이나 긴급함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 활용 방안과 해당 경제적 지원이 나에게 갖는 의미를 위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 5회를 맞이하는 만큼 신청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심사를 통해 진행.
 - 당해연도 폴짝기금참여자 발표 이후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 이는 ① 기금이 또우리 본인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휘발되어버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이자, ② 또우리들의 삶의 필요를 외화하고, ③ 내·외부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생활인 지원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기 위함임.
 - 지난 4년을 돌아보며 진행방식을 변화를 고민하고 30주년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사업규모를 축소한다.
- 담당자 : 신아, 은희
- 기대효과 :
 - 퇴소 이후에 열림터가 또우리들의 사회적 지지처의 역할을 하며, 또우리들에게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구축함.
 - 또우리들의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력함.
 - 집단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금 참여 또우리끼리 역량강화하는 계기를 만들.

- 시설·퇴소생활인지원의 필요를 수집하고 선례를 만들어 퇴소자지원체계의 마중물 역할을 함.

2-4. 또우리 심리치료 및 정신과 의료비 지원

- 배경/필요성
 - 열림터는 성폭력피해자치료비와 시설의료급여를 통해 입소생활인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퇴소 후에도 의료비 지원의 필요를 말하는 퇴소생활인의 요청이 두드러짐.
 - 특히 열림터 생활인들은 가족의 지원이나 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퇴소하는 경우가 많음. 적절한 심리적 지원과 정신과 진료를 통해 정신건강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 또우리 심리치료 및 정신과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을 알려, 이에 공감하는 후원자가 증가하였기에 후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진행할 필요 있음.
- 목표 : 심리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또우리를 발굴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 방법 및 계획 :
 - 열림터 입소 중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지속한 경우, 퇴소 직후 3개월 동안 해당 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치료를 마무리하고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노력.
 - 퇴소 1년이 경과한 또우리 중, 심리상담과 정신과 진료비 지원의 필요가 확인된 또우리에게 의료비 지원을 안내. 해당 필요성은 또우리모임, 또우리풀짝기금, 개별 퇴소자 면담 등을 통해 파악. 성폭력피해자의료비 한도를 초과한 사람을 우선으로 지원함.
 - 의료비 지원은 주로 심리상담(인당 10회기 한도, 필요시 논의 후 연장)과 정신과 진료·약제비로 제한을 두되, 필요할 경우 종합심리검사 비용도 지원.
- 담당자 : 낙타
- 기대효과 : 퇴소 생활인의 심리치료와 정서적 안정에 노력함.

2-5. '자립홈' 운영 준비

- 배경/필요성 :
 - 열림터는 30주년을 맞이하며 쉼터 운영으로 국한된 성폭력 생존자 자립 지원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음. 쉼터의 공동생활 원칙은 상호 연대감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상호 갈등으로 인해 생존자의 일상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자립 역량 제고에 방해가 되기도 함. 25주년 기념사업 이후 또우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퇴소·입소중 생활인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생존자에게 보호시설 형태 이외의 자립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됨.
- 목표 :
 - 합정동 인근 자립홈 1호를 계약하고, 1인 1실의 독립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쉼터와 같은 보호적 환경에서 나아가 자립환경을 구축한 후, 입주자의 안전과 연대 감각을 고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방법 및 계획 :
 - 사전 조사 및 기획 : ①역사와 현재 공부: 03~07 운영한 '하담' 사례 탐구, 청년주거정책 전문가 혹은 기관 미팅, 당사자 의견 취합, ②생활시설과 다른 운영생활규칙 탐구: 기타 대안적 공동생활시설 사례 탐구, 입주자 계약서 조건 및 일상생활지원 범위 탐색, ③'자립홈' 운영 지침 구축, ④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⑤효율적인 열림터 업무분담 고민 등
 - '자립홈' 실제 운영 조건 확립: ①합정동 부동산 탐방, ②주거지원시설, 사회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가능한 자원 파악, ③'관련 부처와 소통 등
 - 공간 계약 및 운영:

- 홍보: 입주자는 가능하면 열림터 생활인 및 또우리 대상으로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공개하여 입주 홍보 함.
- 담당자 : 신아, 은희
- 기대효과 :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주거권 이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함.

2-6. 홈커밍데이

- 배경/필요성 :
 - 또우리모임을 통해 열림터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또우리의 평가가 있음. 30주년을 맞이하여 열림터를 기억하는 또우리와 전·현활동가가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필요함.
- 목표 :
 - 열림터를 기억하는 또우리와 전활동가에게 열림터를 공개하고, 30주년을 기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대감을 형성한다.
- 방법 및 계획 :
 - 생활인이 열림터의 호스트가 되어 열림터를 소개한다. 함께 회의, 업무 분장하여 주도적으로 기획 및 진행.
 - 낮·밤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하여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많은 인원 참석이 예상되는 만큼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한다.
- 담당자 : 감이
- 기대효과 :
 - 열림터라는 공간을 토대로 관계를 형성해 온 또우리들이 현재의 열림터 공간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쉼터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함.
 - 열림터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30주년을 기념하여 쉼터의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함.

**일방적 통폐합에 단호히 반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연대를 통한 윤리적 원칙을 지켜내기**

3-1. 홍보 및 후원관리

- 배경/필요성 :
 - 비밀시설의 특성상 위치와 개인정보노출에 대한 우려로 홍보 및 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은 상황임.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시설의 존재를 모르거나, 편견이나 두려움으로 입소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이에 적절한 홍보가 필요함.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이 높을 경우 정부를 비판하고 정책을 바꾸는 사회변화활동을 적극적으로 꾀하기 어려움. 이에 후원금 모집을 통한 자체적인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함.
- 목표 : 여성주의 쉼터로서 열림터의 고민과 향후과제를 여러 채널을 통해 알린다.
- 방법 및 계획 :
 - 블로그·홈페이지 : 주기적인 포스팅으로 쉼터의 소식과 고민을 알림.
 - ① 숙직일기 - 격일로 열림터 활동가들의 활동소감 및 현재 문제의식을 '일기' 형태로 작성
 - ② 열림터 식구들의 목소리 / 식구들의 감상 -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러 활동에 생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그 후기를 생활인의 동의를 구해 게시

- ③ 열림터 식구들의 목소리 / 자립의 과정을 ‘펼쩍!’, 또 만나요 우리 - 퇴소생활인 인터뷰 내용을 지속 게시하며 씬터 퇴소생활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알림
- ④ 열림터와 관련된 활동 내용을 아카이브
- SNS : 블로그·홈페이지에 게시된 글 중 특정 SNS 플랫폼 특성에 적절한 게시글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맞도록 변형하여 게시.
- 소식지: 매월 열림터 소식을 후원자에 발송 후 블로그·홈페이지에 게시. 생활인들의 글이나 활동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 수신인의 흥미를 높이고 메일링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소식지의 전파율, 구독율을 확인.
- 해피빈공기부함 : 정기 기부함을 지속 사용.
- 후원예우: ① 매월 후원납입, 신규가입, 후원중단, 일시후원에 감사하는 자동메시지를 다양하게 만들고, 필요시 소식지와 블로그 링크를 삽입하여 더 친근하게 열림터의 소식을 알린다. ② 필요시 개소 30주년을 맞이한 굿즈를 제작하여 후원회원들과 기쁨을 공유한다.
- 담당자 : 감이
- 기대효과 :
- 열림터의 소식·고민·역할을 회원들에게 알려 후원 중도 이탈을 방지하고 장기 후원을 유치함.
- 안정적인 후원회원 유치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생활인지원예산과 더불어 퇴소생활인지원예산을 확보함.

3-2. 대외·연대 활동

- 배경/필요성 :
- 씬터의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적 대응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과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할 필요성 있음.
- 목표 : 열림터 및 피해 생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피해생존자 지원을 확산시킴
- 방법 및 계획 :
- 전국성폭력보호시설협의회와 마포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회의에 적극 참석하고 필요시 다른 단체들과도 적극 연대함.
-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1인이 열림터 담당자로 결합하여 온의 2024년 사업계획에 따른 팀 활동.
- 담당자 : 은희, 신아
- 기대효과 :
-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연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

3-3. 운영위원회 운영

- 배경/필요성 :
- 열림터 운영 및 생활인 지원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생활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역할과 책무를 함께 도모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향후 열림터 운영에 반영하고 씬터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목표 :
- 운영위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주의 씬터 운동을 확산하는 원동력을 찾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내용	참석
3월	2024년 열림터 운영 및 계획 논의	정정희, 송지혜, 문숙영, 이호연 은희, 낙타, 상아, 감이, 신아, 오매
6월	자립홈 추진과정 및 홈커밍데이 논의	정정희, 송지혜, 문숙영, 이호연 은희, 낙타, 오매
9월	30주년 행사 평가	정정희, 송지혜, 문숙영, 이호연 은희, 감이, 오매
11월	2024년 마무리 및 2025년 계획 논의	정정희, 송지혜, 문숙영, 이호연 은희, 신아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운영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열림터 생활인지원 및 운영이 활성화 됨.

상호 돌봄과 소통을 통해 든든하고 탄탄한 쉼터 조직 만들기

4-1.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 배경/필요성 :

- 생활인의 구성 및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인들에게 최적의 지원을 하기위한 활동가들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함.

• 목표 : 생활인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인 개인에게 필요한 최적의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주제	강사
3월	생활인 지원을 위한 활동가 인권교육	인권교육센터 들
6월	경계성 성격장애의 이해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10월	자해·자살시도 생활인 지원 방법	<자해를 하는 마음> 저자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다양한 생활인들의 특성에 맞게 안정적인 대처와 지원을 할 수 있음.
- 생활인에 대한 이해를 높여 활동가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 여성주의 상담을 기반으로 생활인의 일상생활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음.

4-2. 활동가 재충전 및 소진 예방

• 배경/필요성 :

- 처무규정에 의거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활동가는 만 1년차, 3년차, 5년차가 된 시점에 상담원으로서의 내적치유와 회복을 위한 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목표 : 활동가의 재충전 및 소진을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킴.

- 방법 및 계획 : 대상자 1인. 해당 활동가의 계획에 따라 진행
- 담당자 : 상아
- 기대효과 :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재충전함으로써 지속적인 활동뿐 아니라 업무의 만족도를 향상함.

4-3. 생활인 사례슈퍼비전

- 배경/필요성 :
 - 생활인 지원의 방향이나 목표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원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동료 및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여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하고 이후 안정적인 사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
 - 사례지원을 함께 논의하여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함.
 - 사례지원에 있어 활동가의 역량을 높이고 최적의 지원을 도모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

일시	주제	강사
매주	주1회 사례회의	동료 활동가
3월	동료슈퍼비전(종결사례)	선임 활동가
6월	전문가 슈퍼비전	전문 슈퍼바이저
10월	동료 및 기관 간 슈퍼비전	선임 활동가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활동가의 사건지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음.
 - 전문가 및 동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사건지원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원자의 한계와 지원방향을 재검토 함으로써 활동가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음.

4-4. 종사자 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응 교육

- 배경 및 필요성:
 - 보호시설 활동가로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언어적,심리적 폭력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활동가 보호 및 예방의 방법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활동가의 안전과 원활한 대처를 진행할 수 있음.
- 목표
 - 생활인 및 보호자로 부터의 폭력적인 상황 발생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숙지하여 활동가 및 생활인의 안전을 도모함.
 - 폭력적인 상황 발생시 스스로 보호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방법 및 계획

일시	내용	강사
2월	위기상황 대응법	은희
4월	시설 안전관리	은희
6월	위기상황 대응법	은희
8월	시설 안전관리	은희

- 담당자 : 은희
- 기대효과 :
 -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단단하게 대처함.

후원회원 제명 안건

○ 감경목적 후원회원에 대한 제명 안건

- 근거

정관 제8조 (탈퇴,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제명대상 (2024. 1. 23 이사회 승인)

: 김**, 송**, 심**, 이**, 이**, 이**, 전**, 정** (총 8인)

: 2022년~2023년 동안 감경목적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에 상담소 후원내역을 감경자료로 제출하거나 제출할 목적으로 후원을 시도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한 후원회원.

- 제명이유 (2024. 1. 23 이사회 승인)

: 감경목적 후원은 모금윤리 안내, 기부금을 거부하고 반환처리를 해왔으나, 후원회원 명부로 남아있어 정관에 근거하여 영구 회원 제명하고자 함.

- 제명회원 상세 내용

이름	내용	후원기간	후원금 총액
김**	재판과정에서 본 상담소 후원 증빙하여 타 지원기관에서 제보, 후원금 반환 및 의견서 제출	22.11~22.12	70,000
송**	재판과정에서 본 상담소 후원 증빙하여 타 지원기관에서 제보, 후원금 반환 및 의견서 제출	22.11~22.12	140,000
심**	재판과정에서 본 상담소 후원 증빙하여 타 지원기관에서 제보, 후원금 반환 및 의견서 제출	23.4	50,000
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확인 과정에서 예금주와 후원자 이름의 상이, 용도설명 불가하여 모금윤리 설명 후 후원금 반환	21.8~22.4	510,000
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확인 과정에서 예금주와 후원자 이름이 달라 후원목록 확인하여 모금윤리 설명 후 후원금 반환	21.9~22.4	170,000
이**	성폭력 사건 피신고 후 본 상담소에서 일시 후원 및 정기약정한 사실 확인, 후원금 반환	23.8~23.12	1,500,000
전**	재판과정에서 본 상담소 후원 증빙하여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제보, 후원금 반환, 23년 4월 이사회에서 제명의결, 의견서 제출	21.8~22.12	1,200,000
정**	중복하여 정기후원 약정하여 확인과정에서 성폭력 재판과정임을 확인, 후원 거부	-	-

임원 소개 / 임원 선출 후보

○ 현재 임원 (2024.1.31. 현재)

현재	이사	이명숙, 박부진, 김은아, 김혜정, 윤정원, 이경환, 이미경, 장다혜, 차성안, 홍순기 (10명)
	감사	회계감사 _ 배자하 사업감사 _ 허오영숙

○ 임원 선출안 (2024. 1. 23 이사회 추천 임원 후보)

신임 후보	이사장	박부진	현 이사 / 인류학 박사 전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명우임상심리연구소 상담교수
----------	-----	-----	--

중임 후보	이사	이명숙	현 이사 / 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 변호사
	이사	박부진	현 이사 / 명우임상심리연구소 상담교수
	이사	김혜정	현 이사 / 현 소장
	이사	윤정원	현 이사 /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의사
	이사	이미경	현 이사 / 전 소장, 반성폭력운동가
	이사	홍순기	현 이사 / 청담마리 산부인과 원장

연임 후보	소장	김혜정	현 소장
	부소장	최란	현 부소장
	부설 열린터 원장	조은희	현 부설 열린터 원장

2024년 자문위원

분류	이름	소속
운영	김두나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전 활동가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지영	(주)마고 대표, 전 공인회계사
	이명선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전 이사장, 상담소발기인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전 활동가
	최미진	공인노무사
법 정책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정	전 동부지검 부장검사
	신윤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오지원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유석	전 상담소 활동가
	정현	검사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황은영	전 검사, 현 변호사
성 문화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
	김다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팀장
	김백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노주희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센터장
	박현이	전 서울시위드유센터 센터장

분류	이름	소속
성 문화	배은경	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교수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오리	영화감독
	양수안나	위밋업스포츠 대표
	양현경	배우/마임창작자/성평등작업실 이로
	황유나	서울대 인류학 박사과정
상담	유경	청소년 페미니스트 활동가
	강동희 (동글)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김미량	마인드빅상담센터
법률	조중신	한국폭력예방상담학회 학회장
	홍성희	정신분석센터 판도 대표
	권정	법무법인 대영
	문은영	법률사무소 문울
	신수경	법무법인 울다함
	이은심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전 활동가,
	원민경	법무법인 원
	이정선	법무법인 로고스
	정명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천정환	법무법인 현정
국제 협력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아일린	PNU Mindanao 교육학과 교수
	성예람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특임 교수
	정경자	호주UTS대교수(사회정책&옹호)

2024년 감사패

○ 감사패 : 이명숙 이사장님

이명숙님은 지난 6년 동안 상담소가 반성폭력 운동을 맘껏 펼치며 다채로운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든든한 이사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늘 온화한 미소로 따스한 조언을 해주시고, 모두를 품으며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추진력으로 이사회가 상담소 활동과 가까이 호흡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주셨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과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과정을 함께 해주신 이명숙 이사님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 감사패 : 강유가람 자문위원

강유가람님은 2003년 상담소 문을 두드린 이후 자원활동가이자 회원으로, 2021년부터는 성문화운동팀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때 내어주셨던 다정한 도움, 활동에 보내주셨던 깊이 있는 시선은 언제나 든든하고 소중했습니다. 동시대를 기록하며 함께 변화를 만드는 페미니스트 영화 감독 강유가람님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감사패 : 신상숙 자문위원

신상숙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년 운영자문위원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는 성문화운동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난 16년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국 반성폭력 운동 연구자의 통찰력으로 사회변화를 젠더 관점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힘과 지혜를 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비판적 분석과 뜨거운 감응을 용기있게 배워가겠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 감사패 : 최지나 자문위원

최지나(토리) 자문위원님은 상담소의 전 활동가로서 여성주의상담팀의 피해생존자 지원 업무에 상시적으로 자문을 해주셨을 뿐 아니라 때때로 건강 먹거리를 보내주시는 따스함도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위원님과 상담소가 맺어온 귀한 인연은 활동가들에게는 좋은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간 피해생존자 지원에 나침반이 되어주신 최지나(토리) 자문위원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3년 안젤라 어워드

※ 안젤라어워드는 한 해동안 상담소와 연결되어 활약한 분들께 <한해보내기>에서 드리는 상입니다.
2023년 안젤라어워드는 2023년 12월 1일 수여되었습니다.

○ 협업 귀재인데 본업도 천재상 : 김햐시바, 허수빈 님

위 사람은 뛰어난 협업력과 본업천재력을 발휘하며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회밤 "페미본색"에 디자이너로 함께해주셨습니다. 행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활동가들과 원활히 소통하며 즐겁게 작업을 진행하여, 포스터부터 행사장 곳곳을 채운 현수막까지 경이로운 작품들을 완성해냈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에게 협업의 기쁨을 선사하고, "페미본색"을 올 한 해 가장 핫한 행사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 만남의 축복이 끝이 없네상 : 호연

4번의 스터디, 2번의 자문, 2번의 토론. 위 사람은 2023년 성문화운동팀이 여성의 삶 속 성적 동의, 청소년의 온라인 친밀성과 위험 등의 의제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을 때마다 경험 나누기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든든한 동료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매번 해맑은 얼굴로 새롭게 제안하는 저희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외면하지 않은 호연 덕분에 넓고 깊게 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소와 뜻깊은 자리에서 질기게 엮이는 사이가 되기를 바라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 눈 반짝반짝 상 : 해주

위 사람은 매 시간 반짝이는 눈과 적극적인 태도로 32기 성폭력전문상담원기본교육을 참여하였습니다. 본 교육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기본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등 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의 내용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활동가 슈퍼비전마다 진중하게 고민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상담팀원들에게 큰 만족감과 뿌듯함을 선물해주어 동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부록]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이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로 하고 약칭은 KSVRC로 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에 둔다.

제3조 (목적) 법인은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① 상담·지원 활동
- ②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③ 연구소 운영
- ④ 인권 활동
- ⑤ 교육 활동
- ⑥ 홍보출판 활동
- ⑦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와 연대 활동
- ⑧ 부동산 임대
- ⑨ 기타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① 본회 회원은 본 법인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본회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 1)본 상담소의 발기인, 이사, 상근활동가, 자문위원, 전·현직 자원활동가는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2)후원회원으로 1년이상 의무를 다했고, 원하는 경우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후원회원 가입신청한 자로 한다.

3. 평생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에 평생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한다. 평생회원은 정회원이 될 수 있다. <2016. 1. 28. 개정>

제6조 (회원의 가입) ① 본회의 회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비납부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하여 제반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야 한다.

③후원회원은 본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약정 후원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모든 회원은 본 상담소 자료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탈퇴,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의 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이사장 1인

②상임이사 1인

③소장 1인, 부소장 2인 이하

④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⑤감사 2인

⑥부설기관의 장

제10조 (임원의 자격) 본 법인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혹은 성폭력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본 법인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소장, 부소장, 이사, 부설기관의 장 및 감사는 이사회 혹은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 (임원선임의 제한) 법인은 임원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나 배우자의 삼촌 이내의 혈족관계에 있는 임원의 수는 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

제13조 (감사선임의 제한) 법인은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제12조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등) ①법인의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부소장 및 부설기관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

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이사장 : 법인을 대표한다.
- ②상임이사 :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소장 : 상담소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 ④부소장 : 소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 ⑥부설기관의 장 : 부설기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제16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①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감사
- ②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③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의 그 시정을 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 ④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 요구
- ⑤법인의 재정,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 서의 의견 진술

제17조 (겸직 금지) 감사는 법인의 이사 또는 소장 및 상근활동가를 겸할 수 없다.

제4장 총회

제18조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 (종류와 소집기일, 방법 등) 총회에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다.

- ①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개최한다.
- ②임시총회는 필요시에 이사장, 소장, 감사 또는 이사 중 3분의 2이상이 발의하거나 회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개최한다.
- ③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단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①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②사업계획의 승인
- ③예산, 결산의 승인
- ④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정관개정
- ⑥법인의 해산
- ⑦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 (의결권의 위임행사) ①회원의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2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법인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3조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소장은 직무상 이사를 겸직한다.

-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24조 (이사회 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정기이사회는 연 4 회 개최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이사는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위임행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사업계획 수립
- ②예산, 결산서의 작성
- ③상근활동가의 선임
- ④재산관리
- 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⑥총회에 부의(附議)할 안건의 작성
- ⑦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⑧정관의 변경사항의 작성
- ⑨본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제6장 재정(재산 및 회계)

제27조 (재정) ①법인의 재정은 회비, 후원회비,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기본재산은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법인설립 이후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③기본재산은 년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9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016. 1. 28. 개정>

제30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세입, 세출예산) 법인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 (결산) ①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후 이사회 의 승인을 얻는다.

제32조의2 (후원금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해 3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7장 상근활동가

제33조 (상근활동가) ①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②상근활동가의 임면 및 징계는 운영규정의 처무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상근활동가의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확정하여야 하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제35조 (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설기관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36조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 <삭제 2008. 1. 24>

제38조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1993.3.27 제정	1993.10.5 1차 개정	1996.2.10 2차 개정	1998.11.12 3차 개정
1999.5.28 4차 개정	2000.2.12 5차 개정	2002.2.7 6차 개정	2003.2.6 7차 개정
2006.1.20 8차 개정	2007.1.25 9차 개정	2008.1.24 10차 개정	2008.4.8 11차 개정
2009.1.31 12차 개정	2013.1.30 13차 개정	2014.1.24 14차 개정	2014.8.5 15차 개정
2015.7.21 16차 개정	2016.1.28 17차 개정		

2024년 제33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자 료 집 |

발행일 _ 2024년 1월 30일
발행처 _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발행인 _ 김혜경
편집책임 _ 최란
실무도움 _ 김보경(이오)
만든이 _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들
인쇄 _ 카피플러스 본점
